

발간등록번호

11-1421000-000002-10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22. 8.



중소벤처기업부

목 차

Contents

1부 중소기업 일반현황 및 경기현황

제1장 중소기업 일반현황	3
1. 중소기업 현황	3
2.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7
제2장 중소기업 경기현황	9
1. 업종별 동향	9
가. 제조업	9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17
2. 분야별 동향	18
가. 창업 및 파산	18
나. 수출	19
다. 금융	21
라. 인력	22
마. 기술	23

2부 중소기업 육성시책

제1장 혁신 창·벤처국가 조성	27
제1절 민간역량을 활용한 혁신 창업	27
1. 신설법인 현황	27
2. 창업저변 확대	29
가. 창업교육	29
나. 혁신창업가양성	30
다. 도전! K-스타트업	32

목 차

Contents

라.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33
마.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34
3. 기술 창업 활성화	36
가. 청년창업사관학교	36
나. 글로벌창업사관학교	39
다. 스타트업 시 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스쿨)	40
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41
마.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52
바. 예비창업패키지	54
사. 초기창업패키지	55
아. 창업도약패키지	56
자. 혁신분야창업패키지	57
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61
카. 아기유니콘200 육성 프로그램	63
4. 창업지원 인프라 운영	64
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운영	64
나. 창업보육센터(BI) 운영	65
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67
라.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69
마. 메이커 활성화 지원	73
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75
5. 1인 창조기업 활성화	77
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77
나. 1인 창조기업 마케팅·판로개척 지원	78
제2절 벤처열기 확산을 통한 혁신벤처국가 실현	79
1. 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	79
가. 벤처기업 성과	80
나. 벤처기업 지원현황	81
2. 벤처투자 현황	84
3. 벤처투자 확대	86

목 차

Contents

가. 모태펀드 운영	86
나. 엔젤투자 활성화	87
4. 회수시장 활성화	89
제3절 재도전 환경 조성	93
1. 신속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93
가. 재창업 교육	94
나. 재창업 자금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95
다. 경영위기기업의 발굴 및 회생 지원	96
라.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97
2. 재도전 친화적 제도 개선	99
가. 연대보증 폐지 등 실패부담 완화	99
나. 신속한 회생 지원	101
다. 신용회복 및 실패를 포용하는 문화 조성	101
제2장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성장촉진	104
1. 근로자 임금상승 및 근로환경 개선	104
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영	105
나.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도입 및 확산	106
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108
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109
2.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111
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111
나. 기술사관 육성	112
다.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113
라. 중소기업 계약학과	114
마. 국립 공업고등학교 육성	115
바.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	116
사. 중소기업 인식개선	118
아. 중소기업 연수원 운영	118

목 차

Contents

제3장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120
1절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120
1.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120
2.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125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125
3.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육성	162
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162
나. 소재·부품·장비 상생협의회 출범(상생모델 발굴)	163
4.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165
가.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165
나.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166
다.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167
라. 스마트공장 보급 성과	167
마.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 구축	168
5.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170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 확대	170
나.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170
다. 뿌리중소기업 육성	175
6.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178
가. 중기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178
나.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184
제2절 혁신금융 공급 및 금융안전망 강화	186
1. 금융시장 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186
2. 정책자금 지원	188
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의 및 운영 현황	188
나. 2021년 정책자금 운용성과	189
3. 정책보증 공급	192
가. 보증지원 규모 확대	192
나. 창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원 강화	194

목 차

Contents

4. 매출채권보험 운용	196
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 확대	196
나. 정책보험 역할 강화	197
다. 수요자 중심의 보험 지원체계 구축	197
제3절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198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98
2.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판로 촉진	200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201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203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205
라.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조합참여 허용	205
마. 직접생산확인제도	206
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207
사.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제도	208
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208
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211
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211
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212
파.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및 모니터링	213
3.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215
가. 유통망진출지원	215
나. 공동 A/S 지원	217
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218
라. 공영홈쇼핑(채널명 : 공영쇼핑)을 통한 판로지원	219
4. 비대면 서비스 판로 확대 지원	220
제4절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222
1. 수출 현황	222
2.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226
가. 수출지원기반활용	226
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230

목 차

Contents

3. 수출기업 지원 및 해외교류 인프라 확충	236
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236
나.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237
다.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운영	240
4. 국제협력 추진	241
가. 양자협력 활동	241
나. 다자협력 활동	243
다. 기업인 출입국 지원	247
제4장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249
제1절 상생협력 촉진 및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249
1.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배경 및 경과	249
2.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251
가.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발굴·확산	251
나.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공유제	253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255
라. 상생결제제도	256
마.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257
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260
3. 기업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262
가.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62
나. 납품대금 결제 현황 및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263
다. 수·위탁 분쟁조정	264
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265
마. 의무고발 요청제도	266
바.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267
4.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269
가. 사업조정 제도	269
나. 적합업종	270

목 차

Contents

제2절 협업을 통한 혁신역량 발전	272
1. 중소기업 간 협업 유도	272
가. 기업간 교류·협력 활성화	272
나. 기술혁신센터 지원	274
2. 포용적 동반성장 확대	276
가. 여성기업 육성 정책	276
나.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279
제3절 지역 중소기업 육성	287
1. 지역 중소기업 현황	287
가. 지역 경제동향	287
나. 지역 중소기업 현황	289
2.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신사업 추진 기반 확대	296
가. 규제자유특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296
나. 2021년도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297
다. 2021년도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298
라. 향후 계획	301
3. 지역 특화산업 육성	302
가. 지역특화산업육성+(R&D)	304
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305
4. 지역특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307
가. 지역특구 지정절차	307
나. 지역특구 지정 및 운영현황	308
다.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활성화	308
5.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310
제5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312
제1절 소상공인·자영업 활력 생태계 촉진	312
1. 소상공인 현황	312

목 차

Contents

2. 소상공인 정보 제공	346
가. 소상공인방송(yestv) 운영	316
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21
다.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323
라.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323
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324
바. 소상공인 보증 지원	325
제2절 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재기지원	331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 지원	331
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331
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36
2. 재기지원 및 생업안전망 확충	341
가. 희망리턴패키지	341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342
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342
제3절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	344
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344
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지원 도입	344
나.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345
2. 소상공인 성장 지원	346
가. 소상공인 경영교육	346
나. 소상공인 역량강화	347
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347
라. 중소슈퍼 지원	350
마.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352
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353
사.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354
3.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356

목 차

Contents

제4절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361
1. 전통시장 현황	361
2. 시장경영혁신 지원	363
가. 시장경영패키지지원(구. 시장경영바우처)	363
나. 온누리상품권 발행	364
다. 특성화시장 육성	365
라.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368
마.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 관리 강화	369
바. 전국우수시장박람회	371
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372
3. 상권 활성화	373
제6장 규제·행정 혁신 및 기업애로 지원	377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377
2. 중소기업정책심의회	380
3. 적극행정	381
4.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 제공 및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	383
가. 온라인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마당'	384
나.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385
다.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387
5. 중소기업 ombudsman 제도 운영	389

목 차

Contents

3부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제1장 기획재정부	395
제2장 교육부	399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3
제4장 행정안전부	416
제5장 문화체육관광부	417
제6장 농림축산식품부	421
제7장 산업통상자원부	424
제8장 환경부	430
제9장 고용노동부	435
제10장 여성가족부	441
제11장 국토교통부	443
제12장 해양수산부	447
제13장 방송통신위원회	450
제14장 식품의약품안전처	452
제15장 공정거래위원회	455
제16장 금융위원회	459
제17장 국세청	461
제18장 관세청	465
제19장 조달청	469
제20장 병무청	471
제21장 방위사업청	473
제22장 농촌진흥청	477
제23장 산림청	481
제24장 특허청	483
제25장 기상청	485

목 차

Contents

4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제1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89
제2장 기술보증기금	527
제3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45
제4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95
제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33
제6장 창업진흥원	646
제7장 한국벤처투자	692
제8장 (주)중소기업유통센터	702
제9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719
제10장 (주)공영홈쇼핑	730
제11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739
제12장 중소기업중앙회	749
제13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783
제14장 신용보증기금	795
제15장 중소기업은행	802
제16장 한국수출입은행	825
제17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31
제1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862
제19장 한국무역협회	871
제20장 한국생산성본부	900
제21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908
제22장 산업연구원	921
제23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933



목 차

Contents

제24장 한국디자인진흥원	948
제25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955
제26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987
제27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002
제28장 대한상공회의소	1021
제29장 금융감독원	1029
제30장 한국인터넷진흥원	1032

표목차

Contents

표 -1-1-1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	3
표 -1-1-2 주요국의 중소기업 현황(2019년 기준)	4
표 -1-1-3 기업규모별 기업수 및 종사자 현황	4
표 -1-1-4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 추이	5
표 -1-1-5 2019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수 및 종사자수 현황	5
표 -1-1-6 지역별 소상공인의 기업수 현황	6
표 -1-1-7 업종별 소상공인 기업수 및 종사자수 현황	6
표 -1-1-8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6
표 -1-1-9 중소기업 종사자수 추이	7
표 -1-1-10 제조업 부가가치 및 부가가치 증가율 기여도	7
표 -1-1-11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8
표 -2-1-1 연도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9
표 -2-1-2 2020년 월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9
표 -2-1-3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10
표 -2-1-4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증감 추이	10
표 -2-1-5 중소제조업 임금 및 근로시간 현황 추이(1~299인)	10
표 -2-1-6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률, 실업률 현황	11
표 -2-1-7 원·부자재 구매액 및 원산지별 구매액 구성비	11
표 -2-1-8 원·부자재 구매대금 지급상황	12
표 -2-1-9 원·부자재 구매대금의 어음 지급기일	12
표 -2-1-10 판매형태별 제품판매액 구성비	13
표 -2-1-11 제품판매대금 결제상황	13
표 -2-1-12 제품판매대금의 어음 수취기일	14
표 -2-1-13 성장성 지표	14
표 -2-1-14 수익성 지표	15
표 -2-1-15 안정성 지표	16
표 -2-1-16 생산성 지표	16
표 -2-1-17 소상공인 경기동향 BSI(Business Survey Index)	17
표 -2-1-18 전통시장 경기동향 BSI(Business Survey Index)	17
표 -2-1-19 신설법인수(전국 기준)	18
표 -2-1-20 창업기업수(전국 기준)	18
표 -2-1-21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19

표목차

Contents

표 I -2-1-22 기업 규모별 수출 현황	19
표 I -2-1-23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개국	20
표 I -2-1-24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	20
표 I -2-1-25 기업 대출잔액 현황	21
표 I -2-1-26 기업대출 연체율 현황	21
표 I -2-1-27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추이	22
표 I -2-1-28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률(2020년)	22
표 I -2-1-29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22
표 I -2-1-30 R&D 수행 중소기업체 추이('16부터 종사자수에서 매출액기준으로 변경)	23
표 I -2-1-31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23
표 I -2-1-32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23
표 I -2-1-33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24
표 II -1-1-1 연도별 신설법인수	27
표 II -1-1-2 업종별 신설법인수	27
표 II -1-1-3 연령별 신설법인수	28
표 II -1-1-4 성별 신설법인수	28
표 II -1-1-5 창업에듀 성과현황	29
표 II -1-1-6 실전창업교육 교육생 현황	30
표 II -1-1-7 비즈쿨 운영실적	31
표 II -1-1-8 도전! K-스타트업 주요 추진 성과	33
표 II -1-1-9 2021년 지원대상 선정절차	34
표 II -1-1-10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선정현황	35
표 II -1-1-11 2021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17개 시도별 선정현황	35
표 II -1-1-12 청년창업사관학교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개요	37
표 II -1-1-13 청년 CEO 양성 규모	38
표 II -1-1-14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38
표 II -1-1-15 운영사 및 보육공간 현황	43
표 II -1-1-16 최근 3년간 국내창업기업 해외진출지원 성과	52
표 II -1-1-17 해외 유망 창업기업 국내유치 지원성과	53
표 II -1-1-18 예비창업패키지 주요실적 및 성과	54
표 II -1-1-19 초기창업 패키지 주관기관 현황 (40개)	55

표목차

Contents

표 II-1-1-20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 (추경 포함)	56
표 II-1-1-21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사업화 기준)	57
표 II-1-1-22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현황(2020~2021)	58
표 II-1-1-23	2021년 기준 BIG3 기업 성과 실적현황	59
표 II-1-1-24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 분야 및 협업부처 현황	60
표 II-1-1-25	2021년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선정 현황	61
표 II-1-1-26	2021년 운영(모)기업 유형별 운영기업 및 사내벤처팀(기업) 현황	62
표 II-1-1-27	2021년 사내벤처 선정 운영기업 현황	62
표 II-1-1-28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64
표 II-1-1-29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이용현황	65
표 II-1-1-30	최근 5년간 창업보육센터 사업 운영현황	65
표 II-1-1-31	창업보육센터 주체별 지정 현황	66
표 II-1-1-32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66
표 II-1-1-33	창업보육센터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현황	66
표 II-1-1-34	창업보육센터 운영성과	67
표 II-1-1-35	지식산업센터 운영현황(2021.12)	68
표 II-1-1-36	지식산업센터 건립현황	69
표 II-1-1-37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주요기능	71
표 II-1-1-38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성과('21.12월말, 누적)	73
표 II-1-1-39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현황('18~'21년, 누적)	73
표 II-1-1-40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주요성과(2021)	76
표 II-1-1-41	2022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	77
표 II-1-1-42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주요 지원 내용	77
표 II-1-1-43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78
표 II-1-1-44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실적	78
표 II-1-2-1	유형별 벤처기업수(2020년, 2021년)	80
표 II-1-2-2	연도별 신규 벤처캐피탈투자(VC) 규모	84
표 II-1-2-3	연도별 신규 벤처투자조합 결성 현황('21년말 기준)	85
표 II-1-2-4	모태조합 조성 현황	86
표 II-1-2-5	모태조합 자조합 결성 및 투자 현황('21년 말 기준)	86
표 II-1-2-6	엔젤투자 소득공제 현황	87
표 II-1-2-7	엔젤투자 실적(신규)	88

표목차

Contents

표 II -1-2-8 벤처투자 회수 규모(2021년)	89
표 II -1-2-9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주요내용	90
표 II -1-2-10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주요내용	91
표 II -1-3-1 2021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결과('22.2)	93
표 II -1-3-2 재창업 애로사항('22.2, 창업진흥원, 재창업 실태조사)	94
표 II -1-3-3 재창업 시 자금조달 방법('22.2, 창업진흥원, 재창업 실태조사)	94
표 II -1-3-4 재창업자금 지원제도 개요	95
표 II -1-3-5 재창업자금 연도별 지원 실적	95
표 II -1-3-6 사업전환의 유형	98
표 II -1-3-7 사업전환 지원 추진실적	98
표 II -1-3-8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경과	100
표 II -1-3-9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 실적	100
표 II -1-3-10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내용	101
표 II -2-1-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수준	104
표 II -2-1-2 채용지원사업 경쟁률 현황	108
표 II -2-1-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절차	109
표 II -2-1-4 연도별 추천실적	110
표 II -2-1-5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지원 현황	111
표 II -2-1-6 중소기업특성화고 맞춤형 취업률	112
표 II -2-1-7 기술사관 육성사업 추진현황	113
표 II -2-1-8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사업 추진 현황	113
표 II -2-1-9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현황	114
표 II -2-1-10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일반현황	115
표 II -2-1-11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육성 예산	116
표 II -2-1-12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취업률	116
표 II -3-1-1 R&D 수행 중소기업체 추이('16부터 종사자수에서 매출액기준으로 변경)	120
표 II -3-1-2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120
표 II -3-1-3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121
표 II -3-1-4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121
표 II -3-1-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정 현황	122
표 II -3-1-6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122
표 II -3-1-7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지정 현황	123

표목차

Contents

표 II-3-1-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124
표 II-3-1-9 기술혁신개발 지원실적	126
표 II-3-1-10 지원 조건	127
표 II-3-1-1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추진 경과	128
표 II-3-1-12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실적	128
표 II-3-1-13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협력기금 조성 현황(누계)	128
표 II-3-1-14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협력기금 조성 현황(2021년도 말 기준)	129
표 II-3-1-15 지원 조건	130
표 II-3-1-16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31
표 II-3-1-17 연도별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현황	132
표 II-3-1-18 연도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추진실적	134
표 II-3-1-19 연도별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	135
표 II-3-1-20 2021년 공학컨설팅센터별 지원실적	136
표 II-3-1-21 2021년 지역별 지원실적	137
표 II-3-1-22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현황	137
표 II-3-1-23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업종별 현황	138
표 II-3-1-24 지원 조건	140
표 II-3-1-25 2019~2020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40
표 II-3-1-26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지원실적	141
표 II-3-1-27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42
표 II-3-1-28 지원 조건	143
표 II-3-1-29 2021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44
표 II-3-1-30 2021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용화지원기관 지원실적 ..	144
표 II-3-1-31 2021년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지원실적	145
표 II-3-1-32 지원 조건	147
표 II-3-1-33 2020년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47
표 II-3-1-34 2021년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실적	149
표 II-3-1-35 2021년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지원실적	150
표 II-3-1-36 지원 조건	151
표 II-3-1-37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151
표 II-3-1-38 세계 산업용 인공지능 상위 11개 기술 및 지원계획	152
표 II-3-1-39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실적 현황(2021년)	153

표목차

Contents

표 II-3-1-40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현황	153
표 II-3-1-41 2021년 제조중소기업글로벌역량강화사업 지원실적	154
표 II-3-1-42 지원 조건	155
표 II-3-1-43 2021년 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개발사업 지원실적	155
표 II-3-1-44 지원 조건	156
표 II-3-1-45 2021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56
표 II-3-1-46 2021년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57
표 II-3-1-47 산학연collabo R&D 사업 지원 실적	158
표 II-3-1-48 2021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59
표 II-3-1-49 운영기관별 참여기업 신청 및 선정 현황	159
표 II-3-1-50 중소기업 기술역량분석 추진실적	160
표 II-3-1-51 연도별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 추진실적	160
표 II-3-1-52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지원사업의 지원현황	1691
표 II-3-1-53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지원사업의 추진성과	161
표 II-3-1-54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120개사) 지역별 분포 현황	162
표 II-3-1-55 사업종류별 '21년 강소기업 지원 현황(100개사)	163
표 II-3-1-56 민간-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현황	166
표 II-3-1-57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실적(중소벤처기업부)	166
표 II-3-1-58 스마트공장 지원 성과('14~'18년 7,903개 지원기업 대상)	167
표 II-3-1-59 2021년 인공지능 제조 컨설팅 및 실증 연계 지원과제 현황	169
표 II-3-1-60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현황	171
표 II-3-1-61 KOSBIR 시행기관별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171
표 II-3-1-62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추진경과	174
표 II-3-1-63 기술로드맵 전략기술 도출현황	175
표 II-3-1-64 뿌리산업 관련 추진경과	175
표 II-3-1-65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지원성과	177
표 II-3-1-66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진실적('21년 기준)	183
표 II-3-1-67 중소기업 분야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2021년)	184
표 II-3-1-68 연도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185
표 II-3-1-69 연도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실적	185
표 II-3-2-1 중소기업 대출잔액 및 대출금리(한국은행, 2021년)	186
표 II-3-2-2 2021 기업 규모별 자금조달 현황(금융감독원)	187

표목차

Contents

표Ⅱ-3-2-3 2021 중소기업 경기변동 실적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 (중기중앙회)	187
표Ⅱ-3-2-4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188
표Ⅱ-3-2-5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조건(2021년)	191
표Ⅱ-3-2-6 연도별·기관별 보증 지원실적	193
표Ⅱ-3-2-7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현황	193
표Ⅱ-3-2-8 연도별 보증 사고율 등 추이	194
표Ⅱ-3-2-9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중점분야 지원실적	195
표Ⅱ-3-2-10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운용 현황	196
표Ⅱ-3-3-1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98
표Ⅱ-3-3-2 연도별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현황	198
표Ⅱ-3-3-3 연도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99
표Ⅱ-3-3-4 연도별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99
표Ⅱ-3-3-5 공공구매제도 도입 경과	201
표Ⅱ-3-3-6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추진경과	202
표Ⅱ-3-3-7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203
표Ⅱ-3-3-8 2022년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	203
표Ⅱ-3-3-9 연도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지정일 기준)	204
표Ⅱ-3-3-10 연도별 적격조합 현황	205
표Ⅱ-3-3-11 연도별 직접생산 확인 현황	206
표Ⅱ-3-3-1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현황	207
표Ⅱ-3-3-13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추진 경과	209
표Ⅱ-3-3-1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현황	210
표Ⅱ-3-3-15 성능인증 발급 현황	210
표Ⅱ-3-3-16 성능보험 계약 현황	210
표Ⅱ-3-3-17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 현황	211
표Ⅱ-3-3-18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용자 현황	213
표Ⅱ-3-3-19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213
표Ⅱ-3-3-20 연도별 공공구매제도 이행 모니터링 결과	214
표Ⅱ-3-3-21 온라인 지원 현황('21년 12월 말 기준)	216
표Ⅱ-3-3-22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운영 현황('21년 12월 말 기준)	216
표Ⅱ-3-3-23 공동 A/S 지원 추진 현황	217

표목차

Contents

표Ⅱ-3-3-24 지자체 온라인몰 참여 현황	218
표Ⅱ-3-3-25 대한민국 동행세일 성과	218
표Ⅱ-3-3-26 공영홈쇼핑 판로지원 실적	219
표Ⅱ-3-3-27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분야	220
표Ⅱ-3-4-1 수출액 규모별 수출 중소기업 수	223
표Ⅱ-3-4-2 품목별 수출액	223
표Ⅱ-3-4-3 수출액 증가분 기준 중소기업 10대 품목	224
표Ⅱ-3-4-4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국가별 수출	224
표Ⅱ-3-4-5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품목 및 국가	225
표Ⅱ-3-4-6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 개편현황	227
표Ⅱ-3-4-7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229
표Ⅱ-3-4-8 수출컨소시엄 파견실적	230
표Ⅱ-3-4-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실적	231
표Ⅱ-3-4-10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현황	234
표Ⅱ-3-4-11 수출지원센터 인력 현황('19.12)	236
표Ⅱ-3-4-12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237
표Ⅱ-3-4-13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현황	238
표Ⅱ-3-4-14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실적	239
표Ⅱ-3-4-15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치 현황	240
표Ⅱ-4-1-1 자상한기업 협약체결 현황(2021.12월말 기준)	251
표Ⅱ-4-1-2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254
표Ⅱ-4-1-3 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255
표Ⅱ-4-1-4 상생결제제도 운용현황	256
표Ⅱ-4-1-5 상생결제제도 기업 규모별 실적현황	256
표Ⅱ-4-1-6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결과	259
표Ⅱ-4-1-7 2021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261
표Ⅱ-4-1-8 수·위탁거래 실태조사결과 법령위반기업 현황	262
표Ⅱ-4-1-9 위탁기업의 납품기업에 대한 대금결제 비중	263
표Ⅱ-4-1-10 연도별 어음 납품대금 평균 결제기일	264
표Ⅱ-4-1-11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2005~2021)	265
표Ⅱ-4-1-12 사업조정 처리 현황('09.1.~'21.12.)	269
표Ⅱ-4-1-13 연도별 사업조정 처리현황(신청일 기준)	270

표목차

Contents

표Ⅱ-4-2-1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현황	273
표Ⅱ-4-2-2 중소기업 융합대전 현황	273
표Ⅱ-4-2-3 기업지원 사업내용 및 '21년 실적	274
표Ⅱ-4-2-4 협력 R&D 연계지원 실적	275
표Ⅱ-4-2-5 교류 프로그램 운영실적	275
표Ⅱ-4-2-6 여성기업 현황	276
표Ⅱ-4-2-7 여성창업 현황	276
표Ⅱ-4-2-8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	278
표Ⅱ-4-2-9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278
표Ⅱ-4-2-10 연도별 장애인 현황	279
표Ⅱ-4-2-11 장애인 경제활동 동향	280
표Ⅱ-4-2-12 장애인기업 업종별 분포	280
표Ⅱ-4-2-13 장애인 고용률 현황('21년 말 기준)	281
표Ⅱ-4-2-14 연도별 장애인 창업지원 현황	282
표Ⅱ-4-2-15 창업점포지원 사업수혜업체와 일반사업체 비교	283
표Ⅱ-4-2-1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개요	283
표Ⅱ-4-2-17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현황	284
표Ⅱ-4-2-18 연도별 장애인기업 확인현황	284
표Ⅱ-4-2-19 연도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285
표Ⅱ-4-2-20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추진 프로세스	286
표Ⅱ-4-3-1 지역별 지역내 총생산(GRDP, 명목)	287
표Ⅱ-4-3-2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288
표Ⅱ-4-3-3 지역별 실업률	289
표Ⅱ-4-3-4 지역별 중소기업 기업수	290
표Ⅱ-4-3-5 지역별 중소기업 종사자수	291
표Ⅱ-4-3-6 지역별 신설법인 수	292
표Ⅱ-4-3-7 지역별 벤처기업 수	293
표Ⅱ-4-3-8 지역별 중소기업 매출액	294
표Ⅱ-4-3-9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액	295
표Ⅱ-4-3-10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302
표Ⅱ-4-3-11 지역주력산업현황	303
표Ⅱ-4-3-12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내역사업별 추진내용	304

표목차

Contents

표 II-4-3-1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성과현황	305
표 II-4-3-14 지역특화산업육성+(R&D)사업 순신규고용효과	305
표 II-4-3-15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내역사업별 추진내용	306
표 II-4-3-16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성과현황	306
표 II-4-3-17 지역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307
표 II-4-3-18 연도별 지역특구 지정현황	308
표 II-4-3-19 지역별 지역특구 지정현황	308
표 II-4-3-20 '21년 지원기업 수행 프로그램	311
표 II-4-3-21 '21년 사업성과	311
표 II-5-1-1 연도별 소상공인 추이	312
표 II-5-1-2 주요국의 소상공인 현황	313
표 II-5-1-3 2020년 업종별 소상공인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매출액 현황	313
표 II-5-1-4 2020년 지역별 소상공인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매출액 현황	314
표 II-5-1-5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315
표 II-5-1-6 2021~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사회복지분야 공익채널 선정결과	316
표 II-5-1-7 소상공인방송 실시간방송 송출 현황	317
표 II-5-1-8 소상공인방송 연도별 케이블TV 일평균 시청 가구수 추이	317
표 II-5-1-9 2021년 소상공인방송 신규 제작 프로그램	318
표 II-5-1-10 2021년 영상 카드뉴스 주요 이미지	318
표 II-5-1-11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320
표 II-5-1-12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320
표 II-5-1-13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321
표 II-5-1-1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국 체험점포 현황('21.12월 기준)	322
표 II-5-1-15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실적	325
표 II-5-1-16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 보증현황	326
표 II-5-1-17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	326
표 II-5-1-18 금액별 보증공급현황	326
표 II-5-2-1 손실보상 대상시설('21년 3분기 기준)	332
표 II-5-2-2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절차	333
표 II-5-2-3 업종별 소상공인 현황	335
표 II-5-2-4 소상공인·중소기업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339
표 II-5-2-5 새희망자금(2차) 만족도 및 기여도	340

표목차

Contents

표 II-5-3-1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예산 및 실적	347
표 II-5-3-2 연도별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추진현황	348
표 II-5-3-3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현황(2021년도 12월말 기준) ..	348
표 II-5-3-4 지역별 스마트슈퍼 및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현황	350
표 II-5-3-5 연도별 중소슈퍼 협업화 지원실적	351
표 II-5-3-6 수준평가 연계지원 내용	352
표 II-5-3-7 시도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현황(2020.12)	353
표 II-5-3-8 시도별 백년가게 선정현황(2021.12)	354
표 II-5-3-9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내역(2021.12월말 기준)	357
표 II-5-3-10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현황(2021.12월말 기준)	357
표 II-5-3-11 공동기반시설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2021.12월말 기준)	359
표 II-5-3-12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현황(2021.12월말 기준)	360
표 II-5-4-1 연도별 시장수·점포수·상인수 비교	361
표 II-5-4-2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2020년)	362
표 II-5-4-3 2021년도 온누리상품권 주체별 구매비율	364
표 II-5-4-4 연도별 지원실적	365
표 II-5-4-5 연도별 지원실적	366
표 II-5-4-6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점지원사항 변경내역	366
표 II-5-4-7 연도별 지원실적	367
표 II-5-4-8 청년몰 조성 연도별 지원실적	368
표 II-5-4-9 청년몰 활성화·확장 연도별 지원실적	369
표 II-5-4-10 청년상인 도약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369
표 II-5-4-11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현황	369
표 II-5-4-12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유형별 지원내역 및 한도	370
표 II-5-4-13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예시(1년 주계약 기준)	371
표 II-5-4-14 상권활성화 지원 현황(2016년)	374
표 II-5-4-15 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2022년 1월 기준)	375
표 II-6-1-1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실적	378
표 II-6-1-2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대표사례	379
표 II-6-1-3 2021년 기업마당 정보제공 현황	384
표 II-6-1-4 1357 중소기업 콜센터 상담 현황	386
표 II-6-1-5 비즈니스지원단 현황('21)	387

표목차

Contents

표Ⅱ-6-1-6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실적	387
표Ⅱ-6-1-7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실적	388
표Ⅱ-6-1-8 규제애로 분야별 발굴 현황	390
표Ⅱ-6-1-9 규제애로 처리 현황	390
표Ⅲ-1-1-1 지역별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현황(‘21.12월 기준)	476
표Ⅳ-1-1-1 혁신창업사업화원자금 집행실적(2021년)	491
표Ⅳ-1-1-2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실적(2021년)	492
표Ⅳ-1-1-3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2021년)	492
표Ⅳ-1-1-4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2021년)	493
표Ⅳ-1-1-5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2021)	494
표Ⅳ-1-1-6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지원실적(2021년)	494
표Ⅳ-1-1-7 재도약지원자금 지원실적(2021년)	495
표Ⅳ-1-1-8 재기지원 상담실적(2021년)	495
표Ⅳ-1-1-9 수출바우처사업 수출 성과(2021년)	497
표Ⅳ-1-1-10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상담 및 수출계약 실적(2021년)	498
표Ⅳ-1-1-11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지원실적(2021년)	498
표Ⅳ-1-1-12 글로벌조달마케터사업 지원실적(2021년)	499
표Ⅳ-1-1-13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2021년)	500
표Ⅳ-1-1-14 코리아스타트업센터 개소현황(2021년)	501
표Ⅳ-1-1-15 해외협력기반 실적(2021년)	501
표Ⅳ-1-1-16 해외지사화사업 지원실적(2021년)	502
표Ⅳ-1-1-17 해외기술교류단 운영실적(2021년)	503
표Ⅳ-1-1-18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지원실적(2021년)	505
표Ⅳ-1-1-19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지원 사례(2021년)	506
표Ⅳ-1-1-20 중진공 인력양성사업 분야(2021년)	507
표Ⅳ-1-1-21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체계도	508
표Ⅳ-1-1-22 사업별 주요 추진실적(2021년)	508
표Ⅳ-1-1-23 연수실적(2021년)	510
표Ⅳ-1-1-24 중소벤처기업 구인수요 발굴 및 취업매칭 실적(2021년)	511
표Ⅳ-1-1-25 공제가입실적(2021년)	512
표Ⅳ-1-1-26 공기업·지자체와 내일채움공제 간 연계 협업 실적(2021년, 누적)	512

표목차

Contents

표IV-1-1-27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체계(2021년)	514
표IV-1-1-28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운영체계(2021년)	515
표IV-1-1-29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2021년)	516
표IV-1-1-30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세부지원 프로그램(2021년)	517
표IV-1-1-31 진로제시컨설팅 처방 현황(2021년)	518
표IV-1-1-32 회생컨설팅 지원실적(2013~2021년)	519
표IV-1-1-33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2021년)	519
표IV-1-1-34 정책중개 추진절차	521
표IV-1-1-35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 주요 개선사례	521
표IV-1-1-36 기업나라 기사 사례(2021년)	522
표IV-2-1-1 주요 기술보증 종류별 지원 실적	528
표IV-2-1-2 ESG 분야별 주요 보증제도 및 신규보증 지원 실적(2021년)	530
표IV-2-1-3 청년·경력자 창업 분야 신규보증 지원 실적	531
표IV-2-1-4 기존 보증 연대보증 면제 실적	531
표IV-2-1-5 Kibo-Star밸리 및 Tech밸리 보증 지원 실적	532
표IV-2-1-6 문화콘텐츠산업 보증 지원 실적	532
표IV-2-1-7 수출기업보증 및 해외진출보증 지원 실적	533
표IV-2-1-8 뉴딜 분야별 주요 보증상품 및 보증지원 현황	534
표IV-2-1-9 기술평가의 범위	535
표IV-2-1-10 기술평가의 종류	535
표IV-2-1-11 기술평가 조직(영업점) 현황	536
표IV-2-1-12 기술평가 인력 현황	536
표IV-2-1-13 지식재산(IP) 관련 보증 지원 실적	538
표IV-2-1-14 R&D보증 지원 실적	538
표IV-2-1-15 녹색인증 평가 수행 실적	540
표IV-2-1-16 기술거래 및 IP 인수보증 지원 실적	541
표IV-2-1-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 종류	541
표IV-2-1-18 기술보호 지원 실적	541
표IV-2-1-19 지식재산공제 가입 현황	542
표IV-2-1-20 주요 투자연계보증 상품 현황	543
표IV-2-1-21 보증연계투자 제도 개요	544
표IV-2-1-22 보증연계투자 투자실적 및 투자수익	544

표목차

Contents

표Ⅳ-3-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국 체험점포 현황('21.12월 기준)	547
표Ⅳ-3-1-2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550
표Ⅳ-3-1-3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550
표Ⅳ-3-1-4 소상공인컨설팅 제도 도입 경과	552
표Ⅳ-3-1-5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52
표Ⅳ-3-1-6 연도별 지원성과	553
표Ⅳ-3-1-7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54
표Ⅳ-3-1-8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인프라 구축 지원현황	554
표Ⅳ-3-1-9 연도별 중소슈퍼 협업화 지원실적	557
표Ⅳ-3-1-10 연도별 지원실적	562
표Ⅳ-3-1-11 사업 지원내용	563
표Ⅳ-3-1-12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65
표Ⅳ-3-1-13 2015년~2017년 구축 공동인프라 현황(10개소)	566
표Ⅳ-3-1-14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37곳)	567
표Ⅳ-3-1-15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8곳)	567
표Ⅳ-3-1-16 연도별 지원실적	573
표Ⅳ-3-1-17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75
표Ⅳ-3-1-18 연도별 지원실적	575
표Ⅳ-3-1-19 연도별 지원실적	576
표Ⅳ-3-1-20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점지원사항 변경내역	576
표Ⅳ-3-1-21 연도별 지원실적	577
표Ⅳ-3-1-22 청년몰 조성 연도별 지원실적	579
표Ⅳ-3-1-23 청년몰 활성화·확장 연도별 지원실적	579
표Ⅳ-3-1-24 청년상인 창업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580
표Ⅳ-3-1-25 청년상인 도약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580
표Ⅳ-3-1-26 연도별 지원실적	581
표Ⅳ-3-1-27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82
표Ⅳ-3-1-28 유형별 지원내역 및 한도	585
표Ⅳ-3-1-29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예시(1년 주계약 기준)	586
표Ⅳ-3-1-30 전통시장 실태조사 연도별 일반 현황	587
표Ⅳ-3-1-31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평가	587
표Ⅳ-3-1-32 소상공인포털(소상공인마당) 이용 추이	588

표목차

Contents

표IV-3-1-33 그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표본수 변화	590
표IV-3-1-34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추이	591
표IV-3-1-35 연도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실적	592
표IV-3-1-36 2021년 성장기반자금 집행실적	592
표IV-3-1-37 2021년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 집행실적	593
표IV-3-1-38 2021년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실적	593
표IV-3-1-39 2021년 특별경영안정자금 집행실적	594
표IV-4-1-1 기술혁신개발 지원실적	597
표IV-4-1-2 지원 조건	598
표IV-4-1-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추진 경과	598
표IV-4-1-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실적	599
표IV-4-1-5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협력기금 조성 현황(누계)	599
표IV-4-1-6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협력기금 조성 현황(2021년도 말 기준)	600
표IV-4-1-7 지원 조건	601
표IV-4-1-8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602
표IV-4-1-9 연도별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현황	603
표IV-4-1-10 연도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추진실적	605
표IV-4-1-11 연도별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	605
표IV-4-1-12 2021년 공학컨설팅센터별 지원실적	606
표IV-4-1-13 2021년 지역별 지원실적	607
표IV-4-1-14 지원 조건	608
표IV-4-1-15 2019~2020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608
표IV-4-1-16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지원실적	609
표IV-4-1-17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610
표IV-4-1-18 지원 조건	611
표IV-4-1-19 2021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612
표IV-4-1-20 2021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용화지원기관 지원실적 ..	612
표IV-4-1-21 2021년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지원실적	613
표IV-4-1-22 지원 조건	615
표IV-4-1-23 2020년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615
표IV-4-1-24 2021년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실적	617
표IV-4-1-25 2021년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지원실적	618

표목차

Contents

표IV-4-1-26 지원 조건	619
표IV-4-1-27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619
표IV-4-1-28 세계 산업용 인공지능 상위 11개 기술 및 지원계획	619
표IV-4-1-29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실적 현황(2021년)	620
표IV-4-1-30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현황	621
표IV-4-1-31 2021년 제조중소기업글로벌역량강화사업 지원실적	622
표IV-4-1-32 지원 조건	622
표IV-4-1-33 2021년 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개발사업 지원실적	623
표IV-4-1-34 지원 조건	623
표IV-4-1-35 2021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624
표IV-4-1-36 2021년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625
표IV-4-1-37 산학연collabo R&D 사업 지원 실적	625
표IV-4-1-38 2021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626
표IV-4-1-39 운영기관별 참여기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27
표IV-4-1-40 중소기업 기술역량분석 추진실적	627
표IV-4-1-41 연도별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 추진실적	627
표IV-4-1-42 민간-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현황	628
표IV-4-1-43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실적(중소벤처기업부)	629
표IV-4-1-44 스마트공장 지원 성과('14~'18년 7,903개 지원기업 대상)	630
표IV-4-1-45 2021년 인공지능 제조 컨설팅 및 실증 연계 지원과제 현황	632
표IV-5-1-1 연도별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보증 현황	634
표IV-5-1-2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	635
표IV-5-1-3 금액별 보증공급 현황	635
표IV-5-1-4 기업규모별 보증공급 금액	635
표IV-5-1-5 지역재단의 지점 수 현황('21.12월 기준)	644
표IV-5-1-6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644
표IV-5-1-7 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	645
표IV-6-1-1 비즈쿨 운영실적	647
표IV-6-1-2 실전창업교육 교육생 현황	648
표IV-6-1-3 창업에듀 성과현황	649
표IV-6-1-4 창업에듀 강좌 구성(예시)	649
표IV-6-1-5 도전! K-스타트업 주요 추진 성과	651

표목차

Contents

표Ⅳ-6-1-6 행사 참가규모(최근 3년)	652
표Ⅳ-6-1-7 참가 전시회 및 지원규모('21년도)	653
표Ⅳ-6-1-8 창업조사·연구 연도별 운영실적	653
표Ⅳ-6-1-9 K-스타트업 이용실적	654
표Ⅳ-6-1-10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655
표Ⅳ-6-1-11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현황	655
표Ⅳ-6-1-12 2021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선정절차	656
표Ⅳ-6-1-13 예비창업패키지 단계별 창업교육 내용	657
표Ⅳ-6-1-14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현황(48개)	658
표Ⅳ-6-1-15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현황(40개)	659
표Ⅳ-6-1-16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추경 포함)	659
표Ⅳ-6-1-17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사업화 기준)	660
표Ⅳ-6-1-18 국내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성과	661
표Ⅳ-6-1-19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현황(2020~2021)	662
표Ⅳ-6-1-20 2021년 기준 BIG3 기업 성과 실적현황	663
표Ⅳ-6-1-21 2021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선정현황	664
표Ⅳ-6-1-22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 분야 및 협업부처 현황	665
표Ⅳ-6-1-23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사업 구조(TIPS)	666
표Ⅳ-6-1-24 운영사 및 보육공간 현황	667
표Ⅳ-6-1-25 대전 TIP스타운 조성 개요	675
표Ⅳ-6-1-26 2021년 운영(모)기업 유형별 운영기업 및 사내벤처팀(기업) 현황	677
표Ⅳ-6-1-27 2021년 사내벤처 선정 운영기업 현황	678
표Ⅳ-6-1-28 아기유니콘 기업 육성개요	678
표Ⅳ-6-1-29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지원체계	679
표Ⅳ-6-1-30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현황('18~'21년, 누적)	681
표Ⅳ-6-1-31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주요성과(2021년)	683
표Ⅳ-6-1-32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684
표Ⅳ-6-1-33 2021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	685
표Ⅳ-6-1-34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주요 지원 내용	685
표Ⅳ-6-1-35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내용	686
표Ⅳ-6-1-36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실적	686
표Ⅳ-6-1-37 판교 창업존 인프라 지원실적	687

표목차

Contents

표Ⅳ-6-1-38 판교 창업존 보육 프로그램 지원실적('21년 12월 기준)	687
표Ⅳ-6-1-39 스타트업 파크 조성지 현황	688
표Ⅳ-6-1-40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지	689
표Ⅳ-6-1-41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선정현황	690
표Ⅳ-6-1-42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분야	690
표Ⅳ-6-1-43 전국 화상회의실 선정현황	691
표Ⅳ-7-1-1 모태펀드 운용 체계	693
표Ⅳ-7-1-2 모태펀드 조성규모	694
표Ⅳ-7-1-3 벤처캐피탈 시장 현황	695
표Ⅳ-7-1-4 모태펀드 출자 계정별 모태 자펀드 결성 현황	695
표Ⅳ-7-1-5 최근 10년 모태 자펀드 출자자금 구성 비율	697
표Ⅳ-7-1-6 국내 유니콘 기업 수 현황(누적)	697
표Ⅳ-7-1-7 해외VC 글로벌 펀드 조성 현황	698
표Ⅳ-8-1-1 우수제품 DB발굴 및 참여현황(2021년)	703
표Ⅳ-8-1-2 판로혁신지원 주요 서비스 내용(2021년)	704
표Ⅳ-8-1-3 온라인시장진출 지원 현황	704
표Ⅳ-8-1-4 오프라인기획전 지원 현황(2021년)	705
표Ⅳ-8-1-5 중소기업 전용매장 운영현황(2021년)	705
표Ⅳ-8-1-6 대한민국동행세일 지원 현황(2021년)	706
표Ⅳ-8-1-7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운영·처리 현황(2021년)	706
표Ⅳ-8-1-8 브랜드K 선정제품 현황	707
표Ⅳ-8-1-9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현황(2021년)	707
표Ⅳ-8-1-10 마케팅 판로지원사업별 주요 지원현황(2021년)	707
표Ⅳ-8-1-11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카테고리별 세부지원사업 현황(2021년)	708
표Ⅳ-8-1-12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역량 제고 지원 실적(2021년)	709
표Ⅳ-8-1-13 소상공인 온라인 채널 진출 지원 개요(2021년)	709
표Ⅳ-8-1-14 소상공인 온라인 채널 진출 지원 개요(2021년)	710
표Ⅳ-8-1-15 라이브커머스 제작 및 운영 지원 현황 (2021년)	710
표Ⅳ-8-1-16 O2O융합판매기획전 지원현황(2021년)	710
표Ⅳ-8-1-17 가치삼시다 플랫폼 소상공인 업체 및 상품 등록 현황	711
표Ⅳ-8-1-18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설치·운영 현황(2021년)	711
표Ⅳ-8-1-19 스마트플래그십스토어(소담상회) 설치·운영 현(2021년)	712

표목차

Contents

표Ⅳ-8-1-20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별 주요 지원현황(2021년, 중복포함)	712
표Ⅳ-8-1-21		성능인증제도(EPC) 운영 현황	713
표Ⅳ-8-1-2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 현황	714
표Ⅳ-8-1-23		공공구매지원제도 제도별 주요 지원현황(2021년)	715
표Ⅳ-8-1-24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최근 5개년 운영 현황	715
표Ⅳ-8-1-25		공공구매촉진대회 유공자포상 현황(2021. 12. 7)	716
표Ⅳ-8-1-26		백화점(목동판매장) 판매지원 현황	716
표Ⅳ-8-1-27		홈쇼핑사업 판매지원 현황	717
표Ⅳ-8-1-28		등반성장물 판로지원 실적	718
표Ⅳ-9-1-1		2021년 정책연구 추진 현황	721
표Ⅳ-9-1-2		2021년 『중소기업 포커스』 발간 현황	722
표Ⅳ-9-1-3		2021년 『중소기업 정책연구』 주제 및 논문 구성 현황	723
표Ⅳ-9-1-4		2021년 학술세미나 개최 실적	725
표Ⅳ-9-1-5		통합관리시스템 정책정보 제공건수/페이지뷰 및 기업마당 활용 현황	727
표Ⅳ-10-1-1		공영쇼핑 채널의 판매지원 현황	731
표Ⅳ-10-1-2		창의혁신 제품 판매지원 현황	732
표Ⅳ-10-1-3		판매지원 중인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창의혁신 상품들	732
표Ⅳ-10-1-4		우수상품 판매지원·육성 현황	733
표Ⅳ-10-1-5		온라인·모바일 채널의 판매지원 현황	733
표Ⅳ-10-1-6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현황	734
표Ⅳ-10-1-7		고정 판매방송 프로그램 운영 현황('21년 기준)	735
표Ⅳ-11-1-1		연도별 창업교육 수료생 수	740
표Ⅳ-11-1-2		'21년 혁신성장 선도사업 기술교육 현황	741
표Ⅳ-11-1-3		창업보육실 현황	744
표Ⅳ-11-1-4		장애인기업 등록절차	748
표Ⅳ-11-1-5		연도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748
표Ⅳ-11-1-6		등록 장애인기업 현황	748
표Ⅳ-12-1-1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750
표Ⅳ-1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지원 현황	752
표Ⅳ-12-1-3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자금) 추천 현황	752
표Ⅳ-12-1-4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특징	753
표Ⅳ-12-1-5		단체표준 등록 및 인증현황('21년 12월말 기준)	754

표목차

Contents

표Ⅳ-12-1-6 산업·특별위원회 현황	754
표Ⅳ-12-1-7 공제사업기금 조성내역	771
표Ⅳ-12-1-8 공제사업기금 대출 현황	772
표Ⅳ-12-1-9 연도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건수 및 부금조성 현황(누계기준)	773
표Ⅳ-12-1-10 중소기업보증공제 운영현황(2021.12.31, 누계기준)	774
표Ⅳ-12-1-11 연도별 손해공제 가입 현황	774
표Ⅳ-12-1-12 연도별 유효계약 보유 현황	775
표Ⅳ-12-1-13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교육운영 현황	776
표Ⅳ-12-1-14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	777
표Ⅳ-12-1-15 직접생산확인 주요연혁	778
표Ⅳ-12-1-16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현황	779
표Ⅳ-13-1-1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협력기금 조성 현황(2021년도 말 기준)	784
표Ⅳ-13-1-2 해외동반진출 지원 현황(2021년도 말 기준)	785
표Ⅳ-13-1-3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사업 참여 현황(2021년도 말 기준)	786
표Ⅳ-13-1-4 성과공유 확인제 현황(2021년도 말 기준)	787
표Ⅳ-13-1-5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788
표Ⅳ-13-1-6 2021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사용용도별 출연규모	788
표Ⅳ-13-1-7 지원 범위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2020년도 말 기준)	789
표Ⅳ-13-1-8 지원 분야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2020년도 말 기준)	789
표Ⅳ-13-1-9 상생결제제도 운용현황(2021년도 말 기준)	790
표Ⅳ-13-1-10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2021년도 말 기준)	790
표Ⅳ-13-1-11 연도별 동반성장 주간 개최 현황(최근 5개년)	791
표Ⅳ-13-1-1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실적(2021년도 말 기준)	791
표Ⅳ-13-1-13 업종별 지원 현황(2021년도 말 기준)	791
표Ⅳ-13-1-14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2021년도 말 기준)	792
표Ⅳ-13-1-15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 지원현황(2021년도 말 기준)	793
표Ⅳ-13-1-16 20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권고 현황(2021년도 말 기준)	793
표Ⅳ-13-1-17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현황(2021년도 말 기준)	794
표Ⅳ-13-1-18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지원현황(2021년도 말 기준)	794
표Ⅳ-14-1-1 최근 3년간 신용보증 현황	796
표Ⅳ-14-1-2 신용보험 보험 인수 및 보험금지급 현황	800
표Ⅳ-14-1-3 산업기반(인프라)신용보증 현황	800

표목차

Contents

표IV-15-1-1 자금조달 현황	804
표IV-15-1-2 자금공급 실적	805
표IV-15-1-3 지원대상별 대출실적	805
표IV-15-1-4 재원별 대출실적	806
표IV-15-1-5 금융자금 대출실적	806
표IV-15-1-6 용도별 대출실적	807
표IV-15-1-7 산업별 대출실적	808
표IV-15-1-8 투자실적	809
표IV-15-1-9 시책별 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	810
표IV-15-1-10 온렌딩자금 지원실적	810
표IV-15-1-11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실적	810
표IV-15-1-12 정책성 시설자금 상품 지원 실적	812
표IV-15-1-13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채널별 기간연장 건수	816
표IV-16-1-1 중소·중견기업 여신지원 규모	826
표IV-16-1-2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지원현황	827
표IV-16-1-3 해외 온렌딩 프로그램 지원현황	827
표IV-16-1-4 상생금융 프로그램 지원현황	828
표IV-17-1-1 지사화사업 연도별 주요실적	832
표IV-17-1-2 해외 공동물류센터 연도별 주요실적	833
표IV-17-1-3 buyKOREA.org 서비스 제공 내용	833
표IV-17-1-4 바이코리아 사이트 운영실적	834
표IV-17-1-5 해외 마케팅 추진성과	834
표IV-17-1-6 무역사절단 최근 추진성과	835
표IV-17-1-7 전시회 한국관 참가 현황	835
표IV-17-1-8 국내전시회 바이어 유치지원 사업 결과	836
표IV-17-1-9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지원 현황	836
표IV-17-1-10 해외비즈니스출장 사업 지원 현황	837
표IV-17-1-11 개별 방한 바이어 지원 현황	837
표IV-17-1-12 GP사업 계량 실적 현황	824
표IV-17-1-13 글로벌 역량진단(GCL테스트) 제공 건수	843
표IV-17-1-14 이동 KOTRA 서비스 제공 건수	843
표IV-17-1-15 온오프라인 무역투자상담 서비스 제공 건수	844

표목차

Contents

표IV-17-1-16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 업체 지원현황	844
표IV-17-1-17 로드맵에 기반한 해외 마케팅 지원유형	845
표IV-17-1-18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 유형	848
표IV-17-1-19 글로벌 M&A 지원사업 절차	849
표IV-17-1-20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역	851
표IV-17-1-21 교육과정 운영 현황(2021년 기준)	852
표IV-17-1-22 연도별 핵심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 현황	854
표IV-17-1-23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유형별 동향(5개년)	855
표IV-17-1-24 투자종합상담실 종합행정지원서비스	855
표IV-17-1-25 IKP 창업보육센터 현황	856
표IV-17-1-26 글로벌 인재 유치지원 절차	857
표IV-17-1-27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858
표IV-17-1-28 국내인력 해외취업 지원 절차	858
표IV-17-1-29 주요 사업내용	859
표IV-17-1-30 2021년 KOTRA KSP 사업 주요국 수행내역	860
표IV-18-1-1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지원 현황	864
표IV-18-1-2 보험(증)료 지원 운영내역(서울시 및 무역협회)	865
표IV-18-1-3 환변동보험 지원실적 및 환차손 보험금 지급내역	868
표IV-19-1-1 수출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적('18년~'21년)	873
표IV-19-1-2 수출단체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 이용 실적('18년~'21년)	874
표IV-19-1-3 KITA멤버십카드 사업 실적('19년~'21년)	878
표IV-19-1-4 KITA 회원 할인서비스 사업 실적('19년~'21년)	880
표IV-19-1-5 무역현장 자문 컨설팅 서비스 지원 실적('17년~'21년)	882
표IV-19-1-6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실적('21년)	883
표IV-20-1-1 생산성 향상 유공자 시상 현황	902
표IV-20-1-2 생산성 통계 발간 현황	903
표IV-20-1-3 생산성경영체제 보급 현황	903
표IV-20-1-4 컨설팅 지원 현황	906
표IV-20-1-5 교육 및 훈련실적	906
표IV-20-1-6 세미나 개최실적	907
표IV-20-1-7 정보기술자격인증 실적	907
표IV-21-1-1 단계별 대표 기업지원 프로그램(내부사업)	912

표목차

Contents

표Ⅳ-21-1-2 인프라(장비·인력·특화센터 등) 활용 기업지원 프로그램	912
표Ⅳ-21-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파트너기업 운영 현황	914
표Ⅳ-21-1-4 맞춤형(기술지도/상담) 지원 실적	915
표Ⅳ-21-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R&D지원 사업 현황	915
표Ⅳ-21-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기술 현황	916
표Ⅳ-21-1-7 공공연 연구인력 지원 실적	917
표Ⅳ-21-1-8 기업현장출장 지원 실적	918
표Ⅳ-21-1-9 중소기업 전용 연구시설 현황	918
표Ⅳ-21-1-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방형 실험실 현황(47개)	918
표Ⅳ-21-1-11 개방형실험실 장비활용 실적	919
표Ⅳ-21-1-12 기술이전 실적	920
표Ⅳ-21-1-13 기술커뮤니티 운영 현황	920
표Ⅳ-23-1-1 KISTI 정보서비스 보유자원 현황	934
표Ⅳ-23-1-2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주요 제공 연구데이터	936
표Ⅳ-23-1-3 ScienceON 정보 제공 유형별 서비스 내용	938
표Ⅳ-23-1-4 NTIS 주요 제공 정보	940
표Ⅳ-23-1-5 지역별 패밀리기업 및 지식연구회 운영 현황	945
표Ⅳ-23-1-6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사업 현황	946
표Ⅳ-24-1-1 연도별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실적	949
표Ⅳ-24-1-2 연도별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 선정실적	949
표Ⅳ-24-1-3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 지원개요	950
표Ⅳ-24-1-4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지원분야	950
표Ⅳ-24-1-5 연도별 전문회사 보유 현황 및 지원 과제 수	951
표Ⅳ-24-1-6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지원개요	951
표Ⅳ-24-1-7 연도별 혁신기업 육성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업 수	952
표Ⅳ-24-1-8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현황	954
표Ⅳ-25-1-1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개요	957
표Ⅳ-25-1-2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프로세스	958
표Ⅳ-25-1-3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역별 참가 현황(2021년도)	958
표Ⅳ-25-1-4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성과	958
표Ⅳ-25-1-5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개요	959
표Ⅳ-25-1-6 센터의 창업보육실 입주프로세스	960

표목차

Contents

표IV-25-1-7 보육실 입주여성기업 현황	961
표IV-25-1-8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962
표IV-25-1-9 W-창업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962
표IV-25-1-10 W-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프로세스	963
표IV-25-1-11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	963
표IV-25-1-12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성과	964
표IV-25-1-13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개요	965
표IV-25-1-14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개최 현황	966
표IV-25-1-15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지역별 개최 내역	966
표IV-25-1-16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성과	967
표IV-25-1-17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개요	967
표IV-25-1-18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성과	968
표IV-25-1-19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개요	969
표IV-25-1-20 수출교육 개요	969
표IV-25-1-21 수출기업화 사업	970
표IV-25-1-22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개요	970
표IV-25-1-23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주요성과	971
표IV-25-1-24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개요	972
표IV-25-1-25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성과	973
표IV-25-1-2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개요	973
표IV-25-1-27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성과	974
표IV-25-1-28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974
표IV-25-1-29 W-디지털판로지원 사업 개요	975
표IV-25-1-30 W-디지털판로 지원 사업성과	977
표IV-25-1-31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개요	977
표IV-25-1-32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프로세스	978
표IV-25-1-33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성과	978
표IV-25-1-34 여성경제인 DESK 신청 및 상담 분야	979
표IV-25-1-35 연도별 여성경제인 DESK 상담실적	980
표IV-25-1-36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개요	981
표IV-25-1-37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개요	983
표IV-25-1-38 여성기업 여성경제연구소 운영	986

표목차

Contents

표Ⅳ-26-1-1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현황	988
표Ⅳ-26-1-2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현황	988
표Ⅳ-26-1-3 중소기업 융합대전 현황	989
표Ⅳ-26-1-4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현황	990
표Ⅳ-26-1-5 기업지원 사업내용 및 '21년 실적	991
표Ⅳ-26-1-6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지원 현황	992
표Ⅳ-26-1-7 네트워크 기획지원 프로그램 구성	993
표Ⅳ-26-1-8 '21년도 기업지원 프로그램 실적	998
표Ⅳ-26-1-9 전국 화상회의실 구축현황	999
표Ⅳ-26-1-10 융·복합컨설팅 운영개요도	1000
표Ⅳ-26-1-11 융·복합컨설팅 수행내용	1001
표Ⅳ-27-1-1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 현황	1004
표Ⅳ-27-1-2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운영 실적('14년~'20년)	1006
표Ⅳ-27-1-3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이용지원) 사업 지원 실적('17년~'21년) ...	1007
표Ⅳ-27-1-4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 지원 실적('20년~'21년)	1008
표Ⅳ-27-1-5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실적('20년~'21년)	1009
표Ⅳ-27-1-6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16년~'21년)	1010
표Ⅳ-27-1-7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18년~'21년)	1011
표Ⅳ-27-1-8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실적('20~'21년)	1011
표Ⅳ-27-1-9 이노-마이스터 채용연계 실적(1기~9기)	1012
표Ⅳ-27-1-10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실적('13년~'21년)	1013
표Ⅳ-27-1-11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17~'21년)	1014
표Ⅳ-27-1-12 IT·SW 우수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20년)	1015
표Ⅳ-27-1-13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 실적 ('14년~'21년)	1016
표Ⅳ-27-1-14 해외전시회 이노비즈 공동관 지원 실적('19~'21년)	1018
표Ⅳ-27-1-15 '17~'21년 글로벌연수사업 운영현황	1019
표Ⅳ-27-1-16 글로벌연수사업 운영현황	1020
표Ⅳ-29-1-1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 현황	1030

그림목차

Contents

그림 1 2021년도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현황	36
그림 2 글로벌창업사관학교 3-Layers 패키지방식 창업지원체계	39
그림 3 이어드림 스쿨 세부 교육과정	40
그림 4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사업 구조(TIPS)	41
그림 5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전담기업 및 특화기능 현황	71
그림 6 연도별 벤처기업 추이(단위 : 개)	79
그림 7 미국의 벤처투자 성공사례 : 페이스북	84
그림 8 내일채움공제	106
그림 9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 추진체계	117
그림 10 2020~2024년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계획	149
그림 11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점수(중소벤처기업부, 2022)	178
그림 12 최근 '10년 중소기업 수출액	222
그림 13 2021년 분기별·월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222
그림 14 동반성장지수 기본 구조	258
그림 15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	260
그림 16 중앙회의 구성 및 현황(2021년)	272
그림 17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303
그림 18 소상공인마당 로그인 및 회원가입 화면	321
그림 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현장	331
그림 20 손실보상 온·오프라인 접수창구 운영('21.10월~)	334
그림 21 재난지원금 온라인신청 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337
그림 22 재난지원금 콜센터 방문 및 간담회(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338
그림 23 지원 내용	341
그림 24 공동사업 우수사례	349
그림 25 판로지원 우수사례	349
그림 26 유통형태별 매출 추이	362
그림 27 지역선도시장 2021년 우수사례	365
그림 28 문화관광형시장 2021년 우수사례	366
그림 29 특성화첫걸음시장 2021년 우수사례	367
그림 30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예시	374
그림 31 기업마당 웹사이트 초기 화면	384

그림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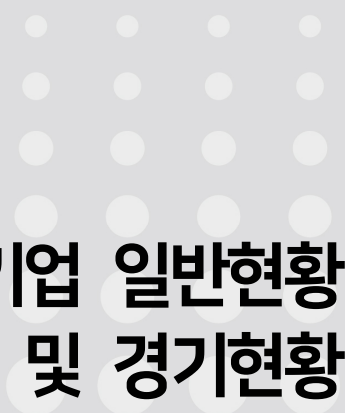
Contents

그림 32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중소기업종합상담)	385
그림 33 One Call 통합 상담 서비스	386
그림 34 규제애로 발굴·처리 절차	390
그림 35 '21년 광역특화지원센터 우수사례	566
그림 36 지역선도시장 2021년 우수사례	576
그림 37 2020~2024년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계획	616
그림 38 창업교육 프로세스	740
그림 39 창업멘토링 프로세스	741
그림 40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프로세스	742
그림 41 모의크라우드 펀딩 자료	742
그림 42 창업지원 프로세스	743
그림 43 창업보육실 프로세스	744
그림 44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추진 프로세스	745
그림 45 수출역량강화 프로세스	746
그림 46 판로지원사업 프로세스	746
그림 47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747
그림 4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 연혁	908
그림 4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역할	909
그림 50 지역본부를 활용한 지역 미래(특화)산업 육성 지원	911
그림 51 파트너기업 선정절차 및 내용	914
그림 52 중소기업테크컨텍센터 지원 절차	915
그림 5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조직 및 기술분야 현황	916
그림 54 기업현장출장 지원절차 및 내용	917
그림 55 파트너기업 기술커뮤니티 지원	920
그림 56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서비스 개념도	935
그림 57 ScienceON 서비스 개념도	937
그림 58 ScienceON 서비스 방향	937
그림 59 NTIS 서비스 개념도	940
그림 60, 61 전국 15개 ASTI 지역협의회 및 지원전략(DX-ASTI)	944
그림 62 2021 디자인코리아 전시장 전경	953
그림 63 2021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전시 및 시상식 장면	954
그림 64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프로세스	964

그림목차

Contents

그림 65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프로세스	965
그림 66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프로세스	968
그림 67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프로세스	971
그림 68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프로세스	927
그림 69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974
그림 70 W-디지털판로 지원 프로세스	976
그림 71 여성경제인 DESK 프로세스	980
그림 72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개념도	982
그림 73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http://www.iljarahub.or.kr)	983
그림 74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홈페이지	984
그림 75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협력 유형	991
그림 76 '21년도 특성화고생 및 교사 직무교육	994
그림 77 '21년도 현장코칭숙련인력양성사업 현장코칭	995
그림 78 '21년도 공공활용지원 프로그램	997
그림 79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 예약관리포털 및 홍보포스터	999
그림 80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화면	1005
그림 81 2021년 제22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주요 스틸 컷	1006
그림 82 한-러 혁신플랫폼 우수사례	1017
그림 83 해외전시회 사업 행사사진	1018
그림 84 글로벌 연수사업	1020



중소기업 일반현황 및 경기현황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1부

제1장 중소기업 일반현황

제2장 중소기업 경기현황

제1장

중소기업 일반현황

1

중소기업 현황

▪ 통계분석과 정 해 진

2019년도 기준으로 중소기업수는 6,888천개, 종사자수는 17,440천명으로 전체 기업의 99.9%, 전체 고용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대비 중소기업수는 250천개, 종사자수는 336천명이 증가하였다.

표 1-1-1-1 |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

(단위 : 개,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업수	전체	6,301,013	6,643,756	6,893,706
	중소기업	6,296,210	6,638,694	6,888,435
	비중	(99.9)	(99.9)	(99.9)
종사자	전체	20,094,913	20,591,641	21,076,582
	중소기업	16,689,525	17,103,938	17,439,595
	비중	(83.1)	(83.1)	(82.7)

자료 : 중소기업기본통계(중기부)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4.1%), 부동산업(16.9%), 숙박 및 음식점업(11.8%), 운수 및 창고업(8.9%), 제조업(8.4%) 순으로 비중이 높고,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제조업(19.5%), 도매 및 소매업(18.8%), 숙박 및 음식점업(10.5%)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중소기업 비중은 한국(99.9%), 영국(99.8%), 미국, 일본(99.7%), 대만(98.9%)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 비중은 한국 82.7%, 대만 80.9%, 일본 68.8%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미국 및 영국은 각각 46.8%와 60.6%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1-2 | 주요국의 중소기업 현황(2019년 기준)

구 분	기업수(천개)		종사자수(천명)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한국	6,888	99.9	17,440	82.7
일본	3,589	99.7	46,790	68.8
대만	1,549	98.9	9,311	80.9
미국	6,055	99.7	61,244	46.8
영국	5,538	99.8	16,333	60.6

주 : ① 국가별 기준연도(일본 2016년, 미국 2018년, 대만 2020년, 영국 2021년)

② 한국은 매출액 기준, 일본·대만·영국·미국은 종사자 기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주요국중소기업통계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전체 기업수의 98.4%(6,786천개)와 전체 종사자수의 64.1%(13,502천명)를 차지하였으며, 중기업은 각각 1.5%(102천개)와 18.7%(3,938천명)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1-3 | 기업규모별 기업수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전 체	중소기업				대기업	
		소기업		중기업	소 계		
		소상공인					
기업수	2018년	6,643,756 (100.0)	6,199,980 (93.3)	6,540,865 (98.5)	97,829 (1.5)	6,638,694 (99.9)	5,062 (0.1)
	2019년	6,893,706 (100.0)	6,441,928 (93.4)	6,786,108 (98.4)	102,327 (1.5)	6,888,435 (99.9)	5,271 (0.1)
종사자수	2018년	20,591,641 (100.0)	8,969,291 (43.6)	13,247,685 (64.3)	3,856,253 (18.7)	17,103,938 (83.1)	3,487,703 (16.9)
	2019년	21,076,582 (100.0)	9,219,369 (43.7)	13,502,051 (64.1)	3,937,544 (18.7)	17,439,595 (82.7)	3,636,987 (17.3)

주 : 1. 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중소기업 소계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합계임

2. ()안은 전체에 대한 구성비

2019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사업체수의 51.3%(3,534천개)를 차지하고, 영남권은 24.0%, 중부권은 10.1%, 호남권은 10.0%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로는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53.9%(9,406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은 23.3%, 중부권은 10.0%, 호남권은 8.8%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1-4 |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 추이

(단위 : 개, 명, %)

구 분	기업수			종사자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도권	3,192,051 (50.7)	3,388,458 (51.0)	3,533,662 (51.3)	8,981,597 (53.8)	9,236,436 (54.0)	9,405,912 (53.9)
영남권	1,559,027 (24.8)	1,614,481 (24.3)	1,652,638 (24.0)	3,966,005 (23.8)	4,014,886 (23.5)	4,069,574 (23.3)
중부권	632,371 (10.0)	666,663 (10.0)	694,572 (10.1)	1,645,758 (9.9)	1,691,778 (9.9)	1,738,732 (10.0)
호남권	620,197 (9.9)	660,523 (10.0)	685,625 (10.0)	1,442,838 (8.6)	1,490,411 (8.7)	1,538,413 (8.8)
기 타 (강원, 제주)	292,564 (4.6)	308,569 (4.6)	321,938 (4.7)	653,327 (3.9)	670,427 (3.9)	686,964 (3.9)

주 : ()안은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구성비

소상공인 기업수는 2019년 기준으로 6,442개(총사업체의 93.3%)이며, 그 중 50.9%는 수도권(서울 21.1%, 경기 24.7% 인천 5.1%)에 위치하고 있다.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467만 명(50.7%)이다.

표 1-1-1-5 | 2019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수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전 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기업수	6,893,706	6,441,928	93.3	6,786,108	98.4	102,327	1.5	6,888,435	99.9
종사자	21,076,582	9,219,369	43.7	13,502,051	64.1	3,937,544	18.7	17,439,595	82.7

자료 : 중소기업기본통계(중기부)

표 1-1-1-6 | 지역별 소상공인의 기업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기업수	1,358,918	413,200	291,370	331,483	170,234	166,980	119,509	32,646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89,393	200,518	192,215	260,262	235,479	244,078	328,759	403,328	103,556

자료 : 중소기업기본통계(중기부)

한편, 소상공인 기업수는 도·소매업(24.1%), 부동산업(17.9%), 숙박·음식점업(11.7%)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표 1-1-1-7 | 업종별 소상공인 기업수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기업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전(全) 산업	6,441,928	100.0	9,219,369	100.0
도·소매업	1,550,513	24.1	2,185,167	23.7
부동산업	1,153,500	17.9	1,267,790	13.8
숙박·음식점업	751,511	11.7	1,230,525	13.3
제조업	504,016	7.8	1,199,039	13.0
기타	2,482,388	38.5	3,336,848	36.2

자료 : 중소기업기본통계(중기부)

2021년 전체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가운데 자영업자¹⁾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자영업자를 고용원 여부로 구분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년 연속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년 연속 증가하였다.

표 1-1-1-8 |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취업자수	전체 자영업자 (a+b)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a)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b)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2017년	26,725	5,682	1.2	1,608	1.5	4,074	1.1
2018년	26,822	5,638	△0.8	1,651	2.7	3,987	△2.1
2019년	27,123	5,606	△0.6	1,538	△6.9	4,068	2.0
2020년	26,904	5,531	△1.3	1,372	△10.8	4,159	2.2
2021년	27,273	5,513	△0.3	1,307	△4.7	4,206	1.1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1)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거나,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2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2019년 중소기업 고용은 전체 기업 고용(21,077천명)의 82.7%에 해당하는 17,440천명을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1-1-1-9 | 중소기업 종사자수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기업수(A)	19,635,071	20,094,913	20,591,641	21,076,582
중소기업(B)	16,361,595	16,689,525	17,103,938	17,439,595
비중(B/A)	(83.3)	(83.1)	(83.1)	(82.7)

자료 : 중소기업기본통계(중기부)

우리나라 종사자수 10인 이상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은 3.38%였으며, 중소기업은 이 중 0.59%p에 기여하였다.

표 1-1-1-10 | 제조업 부가가치 및 부가가치 증가율 기여도

(단위 : 조원, %, %p)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2016-2019년)
전체 부가가치(조원)	502.1	541.3	562.9	554.8	-
- 중소기업(조원)	208.0	211.2	212.8	217.2	-
- 대기업(조원)	294.1	330.1	350.1	337.6	-
부가가치 증가율(%)	-	7.81	3.98	△1.44	3.38
- 중소기업 기여도(%p)	-	0.64	0.30	0.77	0.59
- 대기업 기여도(%p)	-	7.18	3.68	△2.21	2.80

주 : 1. 중소기업은 전체 출하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2. 2016~9년은 10차 산업분류 결과에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제외하여 작성

3. 기여도는 전체 부가가치 증감율에 대한 중소기업/대기업의 기여 정도를 의미하며,

중소기업 기여도 = 전체 부가가치 증감율 × (중소기업 부가가치 증가액 / 전체 부가가치 증가액).

자료 : 중소기업현위상(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를 연대별로 비교해 보면, 1970년대부터 전체 연대에서 중소기업은 사업체, 고용 성장에서 대기업 이상의 기여도를 보였다.

그러나,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앞선 사업체, 고용의 경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1970년대, 1980년대, 2000년대에는 실질 부가가치의 성장률에서 대기업의 기여도가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0년대와 2010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실질 부가가치 성장에 더욱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1 |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단위 : %, %p)

구 분		1970년대 (’73~’80)	1980년대 (’81~’90)	1990년대 (’91~’00)	2000년대 (’01~’10)	2010년 이후 (’11~’19)	
사업 체수	연평균성장률(%)	8.01	8.90	0.90	1.97	1.25	
	기 여 도	중소기업(%p)	7.69	8.86	0.98	1.98	1.23
		대 기 업(%p)	0.33	0.04	△0.09	△0.01	0.02
중사 자수	연평균성장률(%)	8.45	4.04	△1.85	1.70	1.04	
	기 여 도	중소기업(%p)	4.55	3.43	△0.17	1.45	0.74
		대 기 업(%p)	3.89	0.60	△1.67	1.24	0.30
실질 부가 가치	연평균성장률(%)	12.94	16.34	7.03	5.78	2.14	
	기 여 도	중소기업(%p)	4.45	7.59	3.65	2.24	1.49
		대 기 업(%p)	8.49	8.76	3.38	3.54	0.65

- 주 : 1. 중소기업 기준(중사자 10~299인), 대기업 기준(중사자 300인 이상)
 2. 1973~2000년은 광·제조업 결과(8차 산업분류), 2001~2010년은 제조업 결과(9차 산업분류), 2011~2019년은 제조업 결과(10차 산업분류)
 3. 기여도는 전체 증감율에 대한 중소기업(대기업)의 기여 정도를 의미하며, 중소기업 기여도 = 전체 증가율×(중소기업 증가분/전체 증가분)
 4. 실질 부가가치는 명목 부가가치를 생산자물가지수(2015=100)를 활용하여 변환함.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경제총조사)

제2장

중소기업 경기현황

1

업종별 동향

▪ 통계분석과 정 해 진

가. 제조업

1) 생산

2021년 중소제조업 연간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97.6으로 나타났다.

표 1-2-1-1 | 연도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2015=100기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생산지수	100.1	98.3	95.3	97.6
전년대비 증감률	△2.8	△1.8	△3.1	2.4

주 : 중소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2021년 중소제조업 월별 생산은 전반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표 1-2-1-2 | 2020년 월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2015=100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지수	92.3	84.7	103.5	100.5	95.5	103.2	97.8	91.7	91.9	96.1	103.6	110.0
전년동월 대비증감률	3.1	△5.9	1.5	7.4	10.5	9.6	1.5	6.5	△7.5	△0.3	2.7	1.2

주 : 중소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한편 2021년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은 71.2%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2.5%p 상승하였다.

표 1-2-1-3 | 중소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4	2/4	3/4	4/4	전체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73.0	73.3	68.7	70.1	71.3	71.2	72.0	71.2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2021년 전체 제조업 및 중소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각각 전년 대비 5.7%, 2.2% 증가하였다.

표 1-2-1-4 |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증감 추이

(2015=100기준)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4	2/4	3/4	4/4	전체
전 체	102.4 (△0.1)	102.2 (△0.2)	100.0 (△2.2)	102.6 (4.8)	107.3 (13.2)	103.0 (2.4)	109.8 (2.8)	105.7 (5.7)
중소기업	99.4 (△3.3)	98.3 (△1.1)	94.9 (△3.5)	92.8 (0.5)	99.3 (9.3)	92.7 (△1.1)	103.2 (0.5)	97.0 (2.2)

주 : 중소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2) 고용

2021년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575천원이며,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다.

2021년 중소기업 월평균 근로시간은 174.4시간으로 전년 대비 1.2시간 증가하였다.

표 1-2-1-5 | 중소기업 임금 및 근로시간 현황 추이(1~299인)

(단위 : 천원, 시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소제조업 전체임금총액	3,294	3,409	3,430	3,575
중소제조업 전체근로시간	178.9	177.3	173.2	174.4

주 :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사업체를 의미함.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1년 중소기업의 취업자 수는 24,457천명으로 전년대비 368천명이 증가하였다. 2021년 실업률은 3.7%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하였으며, 15~64세 고용률은 66.5%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다.

표 1-2-1-6 |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률, 실업률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취업자수(300인 미만)	24,299	24,529	24,232	24,457
고용률	66.6	66.8	65.9	66.5
실업률	3.8	3.8	4.0	3.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원·부자재 구매 및 제품 판매

가) 원·부자재 구매

2020년 중소제조업의 원·부자재 구매는 280조원으로, 구매처별 원·부자재 구매비율은 국내구매가 89.1%, 해외구매가 10.9%로 나타났다.

표 1-2-1-7 | 원·부자재 구매액 및 원산지별 구매액 구성비

(단위 : 억원, %, %P)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률
중소제조업	2,916,754	2,911,891	2,802,946	△3.7
- 국 내 산	89.2%	87.4%	89.1%	1.7
- 외 국 산	10.8%	12.6%	10.9%	△1.7

주 : 국내에서 1차 가공된 수입원자재는 국내산으로 봄

자료 : 2018~2020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2020년 중소제조업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매대금 지급은 현금(현금성 결제 포함)이 97.5%, 어음이 2.5%로 현금(현금성 결제 포함)지급 비중이 전년(97.5%)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현금(현금성 결제 포함) 98.1%, 어음 1.9%로 나타났으며, 중기업은 현금(현금성 결제 포함) 90.5%, 어음 9.5%로 소기업이 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금 지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8 | 원·부자재 구매대금 지급상황

(단위 : %)

구 분	현 금			어 음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중 소 제 조 업	96.4	97.5	97.5	3.6	2.5	2.5
- 소 기 업	97.0	97.9	98.1	3.0	2.1	1.9
- 중 기 업	88.6	92.7	91.5	11.4	7.3	9.5

주 : 1. 기업체당 구매총액 대비 지급금액 비율(%)임.

2. 현금지급에는 순수현금결제와 어음대체용 현금성 결제가 포함됨.

자료 : 2018~2020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2020년 중소기업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어음으로 구매한 경우 구매대금의 어음 평균 지급기일은 36.5일, 결제기일은 77.7일, 지급기일과 결제기일을 합한 총 지급기일은 114.2일로 전년(106.9일)대비 7.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규모별 구매대금 어음 총 지급기일은 소기업이 6.3일, 중기업이 11.0일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9 | 원·부자재 구매대금의 어음 지급기일

(단위 : 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 감
총 지급기일(1+2)	109.3	106.9	114.2	7.3
· 지급기일(1)	34.7	30.9	36.5	5.6
· 결제기일(2)	74.6	76.0	77.7	1.7
- 소 기 업	110.5	107.9	114.2	6.3
- 중 기 업	105.0	103.2	114.2	11.0

주 : 1. 지급기일은 원부자재를 구매한(납품받은) 날로부터 어음을 지급한 날까지의 평균 소요기일.

2. 결제기일은 지급한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평균 소요기일.

3. 총지급기일은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과 지급어음의 평균 결제기일을 합한 총 기일.

자료 : 2018~2020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나) 제품 판매

2020년 중소기업의 제품판매총액은 587조원으로 나타났다.

판매액 중 내수 비중은 91.2%('19)에서 91.0%로 0.2%p 감소했으며, 수출 비중은 8.8%('19)에서 9.0%로 증가했다.

표 1-2-1-10 | 판매형태별 제품판매액 구성비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중소제조업 (전년비 증감률)	5,980,457 (2.0%)	5,985,162 (0.1%)	5,867,817 (△2.0%)
- 수 출	10.4	8.8	9.0
- 내 수	89.6	91.2	91.0

자료 : 2018~2020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2020년 중소기업 판매대금의 결제는 현금(현금성 결제 포함)이 93.4%, 어음결제가 6.6%로 나타났으며, 현금(현금성 결제 포함)은 전년(91.4%)대비 2.0%p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현금(현금성 결제 포함)이 94.4%, 어음결제가 5.6%로 나타났으며, 중기업은 현금(현금성 결제 포함) 81.7%, 어음결제 18.3%로 나타나 중기업의 현금결제 비중이 소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11 | 제품판매대금 결제상황

(단위 : %)

구 분	현 금			어 음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중 소 제 조 업	88.8	91.4	93.4	11.2	8.6	6.6
- 소 기 업	89.3	92.0	94.4	10.7	8.0	5.6
- 중 기 업	82.9	84.4	81.7	17.1	15.6	18.3

주 : 1. 업체당 평균 수취금액 비율(%임)

2. 현금은 순수현금결제이외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현금성결제 포함됨

자료 : 2018~2020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2020년 중소기업 기업이 제품판매 후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하는데 소요된 기일과 어음 결제기일을 합한 총 수취기일은 115.5일로 전년(104.5일) 대비 11.0일 증가했다. 이를 받은 어음의 수취기일과 결제기일로 구분하면 수취기일은 전년대비 5.8일, 결제기일은 5.2일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전년대비 11.0일 증가했고, 중기업은 12.4일 증가했다.

표 1-2-1-12 | 제품판매대금의 어음 수취기일

(단위 : 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수취기일(1+2)	107.4	104.5	115.5
· 수취기일(1)	32.5	30.8	36.6
· 결제기일(2)	74.9	73.7	78.9
- 소 기 업	107.8	104.9	115.9
- 중 기 업	103.8	101.6	114.0

주 : 1. 수취기일은 제품을 판매한(납품한) 날로부터 어음을 받은 날까지 평균 소요기일
 2. 결제기일은 받은 어음의 현금화(결제일)까지의 평균 소요기일
 3. 총수취기일은 어음의 평균 수취기일과 수취어음의 평균 결제기일을 합한 총기일
 자료 : 2018~2020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4) 재무구조

가) 성장성

2020년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1.83%)은 전년대비 1.06%p 하락하였다.

반면, 유형자산 증가율(7.89%), 총자산 증가율(7.43%), 유동자산 증가율(7.40%), 자기자본 증가율(8.84%)은 모두 전년대비(1.92%p, 0.61%p, 0.16%p, 0.77%p) 상승하였다.

표 1-2-1-13 | 성장성 지표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 출 액 증 가 율	3.01	5.89	2.92	2.89	1.83
유 형 자 산 증 가 율	6.77	5.71	5.14	5.97	7.89
총 자 산 증 가 율	7.92	6.49	6.00	6.82	7.43
유 동 자 산 증 가 율	8.46	6.81	6.20	7.24	7.40
자 기 자 본 증 가 율	10.72	9.20	8.93	8.07	8.84

주 : 2016년 이후 조사부터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자료 : 2016~2020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나) 수익성

2020년 중소기업의 총자산세전순이익률은 3.97%, 기업세전순이익률은 5.25%로 전년대비 하락했다.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9년 319.87%에서 364.91%로 45.04%p 상승했다.

한편, 금융비용 대비 매출액 비율은 2019년 1.61%에서 2020년 1.44%로 하락했다.

표 1-2-1-14 |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자산 세 전 순 이익률	4.92	4.48	4.43	4.11	3.97
기업 세 전 순 이익률	6.32	5.95	6.00	5.65	5.25
자기자본 세 전 순 이익률	11.99	10.79	10.61	9.97	9.19
매출액 영업 이익률	5.54	5.35	5.16	5.15	5.25
매출액 세 전 순 이익률	4.94	4.36	4.46	4.30	4.47
매출액 순 이익률	4.22	3.76	3.85	3.66	3.79
이자보상비율	364.61	373.72	326.34	319.87	364.91
금융비용 대비 매출액 비율	1.52	1.43	1.58	1.61	1.44
차입금 평균 이자율	3.84	3.78	3.99	3.86	3.33

주 : 1. 2016년 이후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총자산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 총자산 세전순이익률 = (세전순이익/총자산)×100,
- 기업세전 순이익률 = ((세전순이익+이자비용)/총자산)×100
- 자기자본 세전순이익률 = (세전순이익/자기자본)×100,
-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 (세전순이익/매출액)×100,
-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매출액)×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100,
- 금융비용 대 매출액비율 = (이자비용/매출액)×100
- 차입금 평균이자율 = (이자비용/차입금(장·단기 차입금+회사채))×100

자료 : 2016~2020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다) 안정성

2020년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이 하락하고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은 2019년 141.17%에서 130.10%로 하락했으며, 비유동비율(비유동자산/자기자본)은 2019년 130.05%에서 124.37%로 하락했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은 2019년 41.46%에서 43.46%로 상승했다.

또한, 기업의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2019년 147.56%에서 156.11%로 상승했다.

차입금의존도((장·단기차입금+회사채)/총자산)도 2019년 39.92%에서 38.46%로 하락했다.

표 1-2-1-15 | 안정성 지표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유 동 비 율	138.22	142.76	145.93	147.56	156.11
비 유 동 비 율	128.79	126.02	126.42	130.05	124.37
자 기 자 본 비 율	41.55	42.07	42.27	41.46	43.46
부 채 비 율	140.65	137.72	136.60	141.17	130.10
차 입 금 의 존 도	38.78	38.60	39.06	39.92	38.48

- 주 : 1. 2016년 이후 조사부터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3. 비유동비율 = (비유동자산/자기자본)×100
 4.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100, 5.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100
 6.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장·단기 차입금+회사채)/총자산)×100

자료 : 2016~2020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라) 생산성

2020년 중소기업의 총자본투자효율(자본생산성)은 2019년 25.89%에서 2020년 24.48%로 하락했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인건비/부가가치)은 2019년 63.41%에서 2020년 63.71%로 전년대비 0.30%p 상승했다.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도 2019년 27.05%에서 27.56%으로 상승했다.

표 1-2-1-16 | 생산성 지표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자 본 투 자 효 율	27.16	27.37	27.13	25.89	24.48
부 가 가 치 율	27.24	26.64	27.33	27.05	27.56
노 동 소 득 분 배 율	61.85	63.19	63.45	63.41	63.71

- 주 : 1. 2016년 이후 조사부터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총자본 투자효율(자본생산성) = (부가가치/총자본)×100
 3.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매출액)×100, 4. 노동소득분배율 = (인건비/부가가치)×100

자료 : 2016~2020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1) 소상공인 경기동향

2021년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1-2-1-17 | 소상공인 경기동향 BSI (Business Survey Index)

구 분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체감경기	35.8	43.8	59.2	54.0	55.8	53.6	32.8	34.8	57.6	62.5	66.2	39.3
전망경기	62.8	75.0	77.5	71.6	71.5	71.9	45.4	65.2	78.1	87.6	85.4	66.6

구 분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출	32.5	42.2	56.1	53.0	55.7	51.5	34.1	33.6	58.8	58.2	66.0	41.6
자금사정	32.1	37.9	49.9	49.5	51.7	49.5	32.2	32.4	51.3	53.1	59.5	38.8
재고	98.9	102.6	105.9	103.6	98.6	100.9	99.8	99.8	100.0	102.2	101.1	107.5
고용	97.2	99.1	99.7	99.8	96.8	99.6	97.1	95.6	95.8	98.4	99.4	98.4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2) 전통시장 경기동향

2021년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는 7월 26.6 최하점을 기록하고, 추석 명절인 9월 소폭 상승하였으나, 연말 다시 하락하였다.

표 1-2-1-18 | 전통시장 경기동향 BSI (Business Survey Index)

구 분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체감경기	33.5	43.7	44.5	46.4	48.1	49.2	26.6	32.6	77.4	57.9	67.0	41.2
전망경기	67.8	68.6	72.7	73.3	65.1	76.8	43.4	79.2	73.0	88.7	83.8	66.2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2

분야별 동향

가. 창업 및 파산

2021년 신설법인 수(전국 기준)는 126,905개로 2020년(123,305개) 대비 2.9% (3,600개) 증가하였고, 부도법인수 대비 신설법인수를 나타내는 창업배율은 부도 법인은 감소하고 신설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132.9배를 기록하였다.

표 1-2-1-19 | 신설법인수(전국 기준)

(단위 : 개, 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4	2/4	3/4	4/4	전체
신설법인수	102,372	109,520	123,305	31,070	31,636	31,514	32,685	126,905
파산법인수	806	931	1,069	204	224	246	281	955
창업배율	127.0	117.6	115.3	152.3	141.2	128.1	116.3	132.9

자료 : 파산법인은 법원행정처(법원통계월보), 창업배율 = 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

2021년 창업기업 수(전국 기준)는 141.8만개로 2020년(148.5만개) 대비 4.5% (6.7만개) 감소하였고, 그 중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24.0만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16.9%를 차지하였다.

표 1-2-1-20 | 창업기업수(전국 기준)

(단위 : 만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4	2/4	3/4	4/4	전체	
창업기업수	128.5	148.5	36.1	36.9	33.9	34.9	141.8	
형태별	법인	11.0	12.3	3.1	3.2	3.2	3.3	12.7
	개인	117.6	136.1	33.0	33.8	30.7	31.6	129.1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수	22.1	22.9	6.2	6.1	5.8	5.9	24.0	
형태별	법인	4.1	4.5	1.1	1.1	1.1	1.2	4.7
	개인	18.0	18.4	5.0	4.9	4.7	4.7	19.3

자료 : 통계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나. 수출

중소기업 수출액은 2017년 1,032억 달러(18.0%), 2018년 1,052억 달러(17.4%), 2019년 1,009억 달러(18.6%), 2020년 1,007억 달러(19.7%), 2021년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154억 달러(17.9%)를 기록하였다.

수출 중소기업은 2017년은 92.3천개, 2018년은 94.2천개, 2019년은 95.2천개, 2020년은 94.9천개, 2021년은 92.1천개로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다.

표 1-2-1-21 |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개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수출액	573,694	604,860	542,233	512,498	644,400
중소기업수출액 (비중)	103,209 (18.0)	105,196 (17.4)	100,928 (18.6)	100,712 (19.7)	115,480 (17.9%)
수출기업수	92,287	94,162	95,229	94,900	92,114

2021년 기업 규모별 수출은 전년 대비 전 규모에서 증가하였다. 대기업의 증가 폭이 29.1%로 가장 컸으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26.4%, 14.7% 증가하였다.

표 1-2-1-22 | 기업 규모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개사, %)

구분	2020년				2021년					
	수출 기업수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 기업수	비중	증감률	수출액	비중	증감률
중소기업	94,900	96.7	100,712	19.7	92,114	96.3	△2.9	115,480	17.9	14.7
중견기업	2,330	2.4	89,325	17.4	2,532	2.6	8.7	112,937	17.5	26.4
대 기 업	923	0.9	321,200	62.7	993	1.0	7.6	414,731	64.4	29.1
전 체	98,153	100.0	512,498	100.0	95,639	100.0	△2.6	644,400	100.0	25.7

* 전체 수출액은 기타(개인, 비영리법인 등)를 포함하였으며, 전체 수출기업수는 기타 제외

2021년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감염병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경제가 회복하며 상위 10개국 수출이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동남아, 유럽 국가로의 수출 증가폭이 커지면서 수출 시장 구조가 다변화되기도 하였다.

표 1-2-1-23 |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개국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2020년			2021년			
	국가	수출액	비중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중국	22,735	22.6	중국	23,887	20.7	5.1
2	미국	12,873	12.8	미국	14,685	12.7	14.1
3	베트남	9,864	9.8	베트남	11,324	9.8	14.8
4	일본	9,500	9.4	일본	10,704	9.3	12.7
5	홍콩	3,408	3.4	홍콩	3,676	3.2	7.9
6	대만	2,621	2.6	대만	3,309	2.9	26.3
7	인도	2,545	2.5	인도	3,006	2.6	18.1
8	인도네시아	2,375	2.4	독일	2,977	2.6	38.3
9	러시아 연방	2,296	2.3	인도네시아	2,939	2.5	23.7
10	독일	2,152	2.1	러시아	2,758	2.4	20.1

주 :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수출통관자료 가공)

2021년도 중소기업 주요 수출 품목은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이며, 상위 10대 품목 중 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8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합성수지(48.4%), 반도체(46.5%), 의약품(진단키트, 46.1%) 등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10대 품목의 수출 비중이 전체의 32.2%를 차지하였다.

표 1-2-1-24 |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2020년			2021년			
	품목	수출액	비중	품목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플라스틱제품	5,222	5.2	플라스틱제품	5,391	4.7	3.2
2	화장품	4,996	5.0	화장품	4,924	4.3	△1.5
3	자동차부품	3,878	3.9	합성수지	4,161	3.6	48.4
4	반도체제조용장비	3,194	3.2	자동차부품	4,124	3.6	6.4
5	합성수지	2,805	2.8	반도체제조용장비	3,703	3.2	15.9

순위	2020년			2021년			
	품목	수출액	비중	품목	수출액	비중	증감률
6	기타기계류	2,691	2.7	반도체	3,331	2.9	46.5
7	기타정밀화학제품	2,644	2.6	의약품	3,323	2.9	46.1
8	계측제어분석기	2,468	2.5	철강판	3,068	2.7	37.1
9	의약품	2,275	2.3	자동차	2,632	2.3	43.3
10	반도체	2,274	2.3	기타정밀화학제품	2,498	2.2	△5.5

주 :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수출통관자료 가공)

다. 금융

2021년 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917.7조원으로 2020년 말 대비 85.1조원 (10.2%) 증가하였다.

표 1-2-1-25 | 기업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			
			1/4 (3월말)	2/4 (6월말)	3/4 (9월말)	4/4 (12월말)
기업대출	908.7	1,019.5	1,043.6	1,065.5	1,093.3	1,113.7
대기업	116.0	186.9	188.1	188.7	192.2	196.0
중소기업	742.7	832.6	855.5	876.8	901.1	917.7

자료 : 한국은행

2021년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27%)은 2020년 말(0.36%) 대비 0.09%p 하락하였으며, 대기업 대출 연체율(0.24%)도 2020년 말(0.27%)에 비해 0.03%p 하락하였다.

표 1-2-1-26 | 기업대출 연체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	'2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기업	0.27	0.36	0.36	0.31	0.39	0.38	0.37	0.37	0.30	0.28	0.25	0.24	0.24
중소기업	0.36	0.40	0.44	0.37	0.40	0.42	0.31	0.34	0.37	0.30	0.32	0.33	0.27

자료 : 금융감독원

라. 인력

2020년 중소기업 인력실태를 살펴보면, 현 인원은 218만 명으로 직종별 인력은 생산직 62.0%, 사무·관리직 22.7%, 기술·연구직 8.3%, 판매·마케팅직 6.3%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1-27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추이

(단위 : 명, %)

중소제조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현 인원	2,198,734	2,331,536	2,315,755	2,233,865	2,178,373
부족인원	69,402	57,073	50,996	31,795	46,060
부족률	3.06	2.39	2.15	1.40	2.07

주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현인원 + 부족인원) * 100

자료 : 2016~2020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한편, 직종별 인력부족률은 생산직이 2.88%로 가장 높고, 기술·연구직 1.51%, 판매·마케팅직 0.57%, 사무·관리직 0.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1-28 |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률(2020년)

구 분	전 체	사 무 관리직	기 술 연구직	생산직	판 매 마케팅직	기 타 종사자
부족인원(명)	46,060	2,271	2,784	40,056	799	150
부 족 률(%)	2.07	0.46	1.51	2.88	0.57	0.98

자료 : 2020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기업 규모별로는 중기업이 소기업보다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1-2-1-29 |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기업	3.22	2.88	2.30	1.47	1.81
중기업	2.71	1.89	1.82	1.25	2.66

자료 : 2016~2020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마. 기술

2020년 R&D 수행 중소기업체는 50,751개사로 전체 중소기업체 139,894개사의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7년 전인 2014년의 30.0%에 비해 6.3%p 증가한 것으로 기술혁신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1-30 | R&D 수행 중소기업체 추이('16부터 종사자수에서 매출액기준으로 변경)

(단위 : 개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R&D수행 중소기업체	37,823	45,307	40,588	45,320	48,961	50,430	50,751
중소기업체수 대비 비중	30.0	33.6	31.4	33.5	35.4	36.0	36.3

* 자료 : 2020년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20.12.31)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2021년 41,888개사로 2014년 30,478개에 비해 1만 1천 4백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소속 연구원도 4.6만명 이상 증가하여, 2021년에 20만 9천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31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30,478	33,647	36,026	37,696	38,734	38,887	40,140	41,888
소속 연구원수	163,887	176,084	184,998	190,686	193,724	192,420	199,891	209,421

* 자료 : 기업부설연구소 총괄현황(2021년 1월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와 같은 저변확대에 힘입어 2020년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약 18조원으로 국가 전체 R&D 투자 93조원의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32 |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공공연구기관	72,607	81,127	88,241	91,132	95,432	98,439	101,688	111,186
대 학	54,803	57,670	59,989	63,399	66,825	70,504	73,716	83,534
기 업	465,599	498,545	511,364	539,525	625,634	688,344	715,067	735,998
- 대기업	357,781	386,177	389,303	407,787	398,038	438,236	446,658	451,694
- 중견기업					90,687	95,954	101,864	103,691
- 중소기업	107,818	112,367	122,061	131,738	136,909	154,154	166,545	180,613
합계 (국가 R&D)	593,009	637,341	659,594	694,055	787,891	857,287	890,470	930,717

* 자료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이러한 중소기업 R&D의 저변확대와 투자증가 등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강화로 선진국 대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2013년 75.6% 수준에서 2020년 기준 2.8% 증가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세계 최고수준 기술대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아직도 차이가 있다.

표 1-2-1-33 |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세계최고수준=100.0, 단위 :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술능력 수준	75.6	77.1	74.3	75.6	77.3	75.4	77.3	78.4

자료 : 2021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중소기업 육성시책

제2부

- 제1장 혁신 창업·벤처국가 조성
- 제2장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성장촉진
- 제3장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 제4장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 제5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 제6장 규제·행정 혁신 및 기업애로 지원

제1장

혁신 창업·벤처국가 조성

제1절 민간역량을 활용한 혁신 창업

1

신설법인 현황

▪ 통계분석과 정 해 진

2021년 연간 신설법인 수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126,905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표 II-1-1-1 | 연도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법인수	96,625	97,549	102,372	109,520	123,305	126,905

업종별로는 농·임·어업 및 광업(△8.6%, △251개), 제조업(△12.8%, △1,969개), 건설 및 전기가스업(△0.9%, △105개)은 전년 대비 감소, 서비스업(6.3%, 5,925개)은 증가하였다.

표 II-1-1-2 | 업종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

연 도	농·임·어업 및 광업	제조업	건설 및 전기가스업	서비스업	계
2018년	2,362 (2.3)	15,286 (14.9)	12,280 (12.0)	72,444 (70.8)	102,372 (100.0)
2019년	2,651 (2.4)	14,807 (13.5)	10,796 (9.9)	81,266 (74.2)	109,520 (100.0)
2020년	2,925 (2.4)	15,416 (12.5)	11,396 (9.2)	93,568 (75.9)	123,305 (100.0)
2021년	2,674 (2.1)	13,447 (10.6)	11,291 (8.9)	99,493 (78.4)	126,905 (100.0)

연령별로는 40대(41,380개, 32.6%), 50대(32,347개, 25.5%), 30대(26,734개, 21.1%)의 순으로 설립되었고,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특히 60세 이상(전년 대비 7.5%)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표 II-1-1-3 | 연령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

구 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법인수	비중	법인수	비중	증감수	증감률
30세미만	9,093	7.4	9,467	7.5	374	4.1
30~39세	26,434	21.4	26,734	21.1	300	1.1
40~49세	40,866	33.1	41,380	32.6	514	1.3
50~59세	31,601	25.6	32,347	25.5	746	2.4
60세이상	14,534	11.8	15,626	12.3	1,092	7.5
기 타	777	0.6	1,351	1.1	574	73.9
총 계	123,305	100.0	126,905	100.0	3,600	2.9

성별로는 여성(4.7%)과 남성(1.7%) 모두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9.3%로 2020년 대비 0.6%p 증가하였다.

표 II-1-1-4 | 성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여 성	35,297 (28.7)	36,969 (29.3)	4.7
남 성	87,553 (71.3)	89,058 (70.7)	1.7
계	122,850 (100.0)	126,027 (100.0)	2.6

2

창업저변 확대

- 창업촉진과 진 정 수
- 창업정책총괄과 강 주 실
- 기술창업과 이 종 섭
- 청년정책과 김 창 호
- 소상공인정책과 이 청 수

가. 창업교육

1) 창업에듀

예비창업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로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지원하는 창업에듀는 2009년 구축되어 2010년도부터 운영되어온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이다.

2016년 온라인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여 창업과 관련한 핵심 이론 및 실사례를 중심으로 핵심내용만 짧게 구성하는 강의로 신규 개편하고 스마트 기기 등에서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다.

창업단계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강생들이 필요한 주제별 강좌를 개발 또는 외부 기관과 제휴하였고,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회계 등의 주제강좌 약 471개(21년 12월기준)를 운영하고 있다.

표 II-1-1-5 | 창업에듀 성과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방문건수	270,755	147,716	178,480	212,693	252,775	186,932	225,683	272,916	612,956	741,719
수료건수	54,262	54,979	56,143	27,881	40,968	161,192	303,126	360,658	694,154	459,668
신규회원	37,349	7,496	8,246	8,021	11,073	10,913	12,347	15,501	28,823	17,457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 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다수 전환되면서 2020년 이용자수가 전년도 비교하여 약 125% 급증하였으며, 2021년도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74만명이 창업에듀를 이용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2) 실전창업교육

실전창업교육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정립과 사업계획 도출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준비된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자 2019년 신설된 사업이다.

2019년부터 3년간 민간, 공공, 대학 등에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예비창업자 8,608명의 창업교육을 지원하였다. 창업에 필요한 기본실무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기본교육을 제공하고, 린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교육생 비즈니스모델의 핵심 기능만 최소한으로 구현하는 최소요건제품(MVP)제작, 시장반응조사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급부상으로 창업교육의 비대면 전환 및 고도화가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1단계] 온라인 기본교육 → [2단계] 온오프라인 실습교육 → [3단계] 후속지원으로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 하였다.

표 II-1-1-6 | 실전창업교육 교육생 현황

구분	[1단계] 아이디어 개발 교육	[2단계] 비즈니스모델 수립	[3단계] 린-스타트업 교육
2019년	3,060	1,222	323
2020년	3,267	2,413	320
구분	[1단계] 온라인 창업교육	[2단계] 온·오프라인 실습교육(린-스타트업)	[3단계] 후속지원
2021년	2,281	251	25
총 계	8,608	3,886	668

나. 혁신창업가양성

1) 청소년 비즈쿨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대표적 사업인 비즈쿨(Bizcool)은 학교(School)내에서 경영(Business)을 배운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모의 창업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밖 센터 등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년 동안 4,702개교, 2,454천명을 지원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평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고·학교 밖 비즈쿨 지정학교(센터)를 424개 지원하였고 비즈쿨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였다.

표 II-1-1-7 | 비즈쿨 운영실적

구 분	200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예산(억원)	261.1	50	60	83	76.65	76.65	76.65	62.5	61.65
비즈쿨학교(개교)	1,162	200	412	448	513	561	495	487	424
학생수(천명)	698	133	190	247	262	283	242	221	178
비즈쿨캠프(명)	10,658	1,035	585	989	469	417	283	813	649
창업동아리(개)	5,452	1,053	1,329	2,092	2,781	2,803	2,468	2,288	2,059



청소년비즈쿨 국내캠프



청소년비즈쿨 체험교육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2) 기업가정신기반 구축 및 확산

2015년부터 운영한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은 7년간 3,600여명의 기업가정신 교육자를 양성하였으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육콘텐츠로 기업가정신 교육 확산 기반 마련 및 교육자 전문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 교육과정은 신규 개발한 교육콘텐츠(‘미래를 여는 빛 기업가정신’)를 보수 과정으로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핵심 역량으로써 기업가정신의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대군인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사회맞춤형 기업가정신교육’ 및 부모자녀, 사제지간, 사내혁신을 위한 ‘기업가정신 가족캠프’를 총 9회 개최하였다.

그 밖에도 기업가정신 문화조성 및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벤처 창업진흥 유공포상 청년기업부문(30점)’,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포상(14점)’, ‘기업가정신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7점)’를 포상 하였고, 전 국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공유하고자 ‘기업가정신 콘텐츠 공모전’을 열어 동영상, 카드뉴스 등 1천여 건의 콘텐츠를 모집하였다.

또한, 전 세계 200여 개국이 동참하여 연간 기업가정신 활동을 종합하고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는 글로벌 행사인 ‘2021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21)’를 개최하는 등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기업가정신 가족캠프



2021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21.11.11.)

다. 도전! K-스타트업

‘도전! K-스타트업’은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로 유망한 (예비)창업자와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창업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부처 창업 경진대회이다.

2007년부터 진행해오던 ‘창업경진대회’가 2016년 중기부,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도전! K-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로 통합되었고, 점차 참여부처를 확대하여 2022년에는 총 11개 부처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서 자리매김했다.

* 2022년 참여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특허청, 산림청

2021년에는 역대 최대인 총 7,352개의 대회 참가팀 중 각 예선리그를 통해 총 200개팀이 통합본선에 진출하였고, 최종 왕중왕전 20개팀을 선발하여 총 상금 15.3억과 대통령·국무총리 등 정부시상을 하였다.

* 2021년 예선대회 : 혁신창업·청년리그(중기부), 학생리그(교육부,과기부), 국방리그(국방부), 관광리그(문체부), 여성리그(중기부·여가부), 지식재산리그(특허청), 환경리그(환경부), 산림리그(삼림청)

* 총 접수건수 (7,352건) : 혁신창업리그(1,933), 학생리그(897), 국방리그(671), 관광리그(1,159), 여성리그(1,292), 지식재산리그(380), 환경리그(362), 산림리그(121), 청년리그(537)

또한, 대회 참가팀과 수상팀들을 대상으로 예비·초기·도약패키지, 기술보증, 판로지원 등 사업화 자금확보와 창업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후속연계 지원한다.

표 II-1-1-8 | 도전! K-스타트업 주요 추진 성과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참가자 수(팀)	4,055	5,770	3,894	7,112	7,352	28,183
수상자 수(팀)	10	10	20	20	20	80
경쟁률 (%)	405:1	577:1	195:1	356:1	367:1	391:1



대회 홍보 포스터



인플루언서 홍보



왕중왕전·시상식

라.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는 청년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바우처를 제공하여 청년 창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18.3)」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세무·회계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2개 주관기관(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21년에는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에 총 16,200개사를 지원하였다.

표 II-1-1-9 | 2021년 지원대상 선정절차

모집공고	요건 검토	지원대상 확정	협약체결
K-startup 신청	→ 자격, 기타 요건 등 검토	→ 우선 신청자 순으로 확정	→ 3자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

지원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의 바우처를 연 100만원 한도(최대 2년)로 지원하며, 세무·회계 부문은 기장대행 수수료 및 결산·조정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술보호 부문은 기술임치 계약(갱신)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다.

'18년에 8,698개사를 지원한 이후 '19년에는 16,586개사, '20년에는 20,115개사, 21년에는 16,200개사를 지원하였고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로 한정했던 지원범위를 '20년부터 간편 장부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창업기업까지 지원하였다.

마.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는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으로 2020년에 신설되었다.

로컬크리에이터를 7대 분야*로 구분하여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기반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가치 창업가의 협업 프로젝트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지역가치 창업 7대 분야) ① 거점브랜드 ② 지역가치 ③ 로컬푸드 ④ 지역기반제조 ⑤ 자연친화활동 ⑥ 지역특화관광 ⑦ 디지털문화체험

로컬크리에이터의 다양한 아이디어의 교류·융합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6개 권역별로 로컬크리에이터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축제(로컬페스타) 등 네트워킹도 함께 진행중이다.

'20년에는 경쟁률 15.7:1로 로컬크리에이터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최종 280개팀의 사업화를 지원하였다. '21년의 경우에도 경쟁률 11.3:1을 기록 높은 경쟁률을 달성하며, 최종 250개 팀의 사업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21년의 경우 로컬크리에이터 간의 협업과제를 신규운영하여 경쟁률 29.5:1 달성 및 높은 관심을 받고, 총 53개사(18개 협업팀)를 지원하였다.

'21년 지원결과 로컬크리에이터 83.2%가 비수도권에서 선정되어 전국 17개 시·도의 자연적·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창업지원으로 전 지역 고른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선정된 팀이 매출액 1,089억원, 신규고용 492명을 달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체로서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표 II-1-1-10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선정현황

(단위 : 명)

구분	강원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제주	합계
2020	21	61	53	76	42	27	280
2021	40	51	51	59	44	58	303

표 II-1-1-11 | 2021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17개 시도별 선정현황

(단위 : 명)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사업화	35	16	9	11	13	10	11	10	16	11	9	13	13	15	36	11	11	250
협업 프로젝트	5	3	2	2	0	2	0	1	3	1	3	0	1	2	22	1	5	53
총합	40	19	11	13	13	12	11	11	19	12	12	13	14	17	58	12	16	303

3

기술 창업 활성화

- 청년정책과 송 양 훈
- 기술창업과 전 진 섭, 김 혜 인, 이 종 섭, 임 효 리, 김 완 수
- 창업촉진과 최 정 은
- 창업생태계조성과 박 경 수
- 벤처혁신정책과 이 상 영

가.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쏠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창업준비) 교육 및 사업계획 검증 → (창업실행) 제품개발 및 창업사업화 → (졸업 후 연계지원)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R&D, 투자유치 연계 등 졸업 후 5년간 지원

2011년 경기도 안산에 최초 개소하였고,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 기존 5개소에서 전국 17개소로 확대하였으며, 2020년에는 구리 캠퍼스를 개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1년에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한 미설치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추가 개소하면서 전국적인 창업지원 인프라를 완성하였다.

그림 1 | 2021년도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현황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청년 CEO가 도전정신과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입교생에게는 기업가정신 등 기본 소양교육과 함께 맞춤형 창업실무 교육을 연간 80학점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창업 전문 인력을 1 : 1 전담으로 배치하여 창업의 쏠단계에 걸쳐 창업자의 고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



2017년부터 초기창업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교기업에게 교육 및 코칭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도 졸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정책자금, 마케팅, 수출 등 “성장 단계별 연계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표 II-1-1-12 | 청년창업사관학교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개요

단계별	창업준비	창업실행	성장단계	안정화단계
사업단계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 후속 연계지원	
주요내용	교육·사업계획검증	사업화 지원	정책사업연계지원	사후관리

* 정책사업 연계지원 : 정책자금, R&D연계, 보육코칭, 마케팅수출, 투자유치 등

또한, 우수창업자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역별 주력산업 및 지자체별 육성분야와 연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고 있다.

표 II-1-1-13 | 청년 CEO 양성 규모

(단위 : 명)

구 분	선발	퇴교	졸업	비고
2011년 1기	241	△29	212	졸업('12.2월)
2012년 2기	229	△16	213	졸업('13.2월)
2013년 3기	301	△47	254	졸업('14.2월)
2014년 4기	307	△23	284	졸업('15.3월)
2015년 5기	278	△26	252	졸업('16.2월)
2016년 6기	324	△24	300	졸업('17.2월)
2017년 7기	500	△27	473	졸업('18.2월)
2018년 8기	1,000	△110	890	졸업('19.3월)
2019년 9기	1,000	△63	937	졸업('20.2월)
2020년 10기	1,035	△52	983	졸업('21.2월)
2021년 11기	1,065	△21	1,044	졸업('22.2월)

'21년(11기)까지 우수 청년 CEO 5,842명을 양성하여 누적 매출 7조 7,991억원, 고용창출 17,308명의 성과와 직방(1기), 토스(2기),뱅크샐러드(2기), 글루가(6기) 등 우수 기업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청년기술창업의 대표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II-1-1-14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구 분	'11 (1기)	'12 (2기)	'13 (3기)	'14 (4기)	'15 (5기)	'16 (6기)	'17 (7기)	'18 (8기)	'19 (9기)	'20 (10기)	'21 (11기)	합계
졸업CEO	212	213	254	284	252	300	473	890	937	983	1,044	5,842
누적매출액	8,818	14,072	5,197	7,840	5,508	3,788	6,324	7,984	8,243	7,559	2,658	77,991
고용인원	794	1,335	591	819	608	862	1,143	1,948	2,362	3,297	3,549	17,308

* 누적매출 측정기준 : [1기~5기 : '20년 말], [6기~10기 : '21.6월], [11기 : '21년말]

나.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인공지능 분야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글로벌 수준의 기술교육·보육을 제공하여 글로벌 혁신기술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설립되었다.

2020년 7월 제1기 입교기업(60개사) 선정과 함께 서울 강남에 임시개소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 4월 G타워(서울 구로) 준공에 맞춰 정식 이전·개소하여 인근 1만 여개 벤처·창업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기존 인공지능 분야에서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주요 지원내용으로 D.N.A 분야 기술특화 교육, 사업화 지원을 비롯하여 글로벌 프로그램*을 패키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 (글로벌기업) AWS, Google Cloud, NVIDIA, MS

* (글로벌 창업기획자) Techstars, 500Global, Plug & Play, SOSV, Startupbootcamp

그림 2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3-Layers 패키지 방식 창업지원체계



한편,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2020년도 예산안 특색사업 77선 선정(기재부, '19.8), 2021년도 예산안 중점 프로젝트 40선에 선정(기재부, '20.9) 되었으며, 최근 청년 창업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1.5)에도 포함되는 등 사업초기부터 대·내외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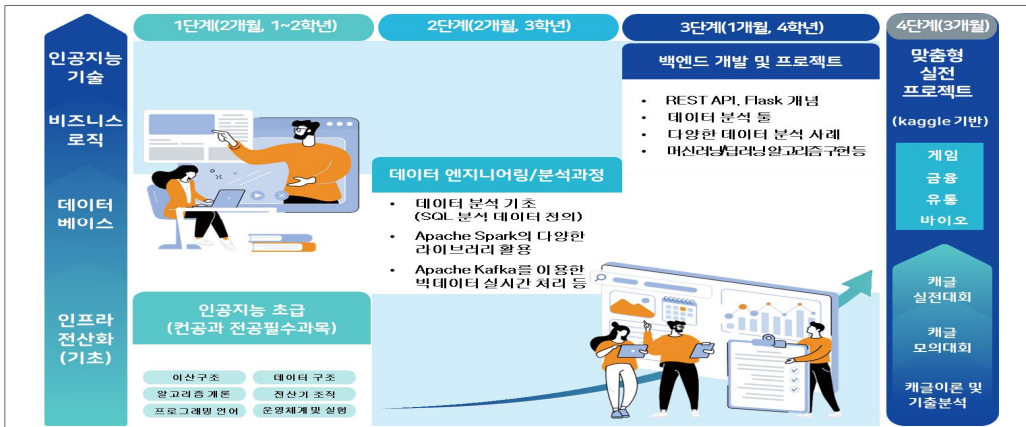
2021년 제2기 졸업기업(58개사)의 경우 총 매출액 119억원, 고용창출 132명, 투자유치 94억원을 달성하였다. 3개사가 해외지사를 설립하였고 5개사가 총 수출액 183만불을 달성하는 등 해외진출 준비단계임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된다.

다.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스쿨)

이어드림 스쿨은 청년 구직난과 개발자가 부족한 스타트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설립되었으며, 만 29세 이하 학력·전공 무관의 청년 인재를 선발하여, 특화 커리큘럼 교육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AI 실무 인재로 양성하고 있다.

2021년 8월 제1기 교육생(100명) 선정과 함께 서울 마포구에 개교하여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4대 분야(게임, 금융, 유통, 바이오)에 대한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 | 이어드림 스쿨 세부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 외 벤처스타트업 현업 전문가(개발자 및 HR 담당자 등) 특강, 역량별 스터디 운영, 현직 개발자 협업 툴 활용, 주기적 역량평가를 통한 추가 과제 제공 및 보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개발자 채용 의사가 있는 스타트업 풀을 구축하여 교육생 맞춤형 채용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1년 이어드림 제1기 교육생은 총 72명이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그 중 40명은 관련 분야에 취·창업 완료(22.7월기준) 하였다. 특히, 교육생 5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은 세계 최대 인공지능 경진대회 플랫폼인 캐글(Kaggle)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팁스(TIPS)는 기술창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스라엘 TIP(Tech Incubator Program)을 벤치마킹하여 지난 '1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기술창업육성 플랫폼'이다.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기부는 기술개발·사업화자금을 연계지원하는 종합 육성지원 프로그램으로, 초기 기술창업기업에게 필요한 R&D 및 사업화·마케팅 자금은 물론 기술사업화를 위한 멘토링, 후속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4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사업 구조(TIPS)

운영사 선정	창업기업 선정	보육/멘토링	졸업/후속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 입찰방식 • 사업자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0개사 내외 • 민간투자사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엔젤, 재단, 창업기획자 등 • 운영기간: 6+α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2년+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창업기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운영사(인큐베이터) 자체심사(12~15배수) - 2차: 정부심사 (1배수) - 수시(년 7회 내외) - 계속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기간: 2+1년 • 투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사 : 1~2억원 내외 (창업담 60%이상, 운영사 30%이하) - 정부 : R&D지원(최대 5억원), 사업화마케팅지원(최대 2억원) • 마일스톤 관리, 적극적인 멘토링, 엔젤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조건 (중 1개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후속투자액 20억원 이상 ② M&A 연계 ③ IPO(코넥스 포함) ④ 연 매출 10억원 이상 ⑤ 연 수출 50만불 이상 ⑥ 신규고용 20명 이상 • 성공 시 기술료 상환 • 후속지원 연계(포스트팁스등)

* 성공판정 시 기술료(정부 R&D지원금의 최대 10%) 상환

팁스(TIPS)에서는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 대·중소기업,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민간 투자사 중 투자, 보육, 멘토링 역량이 우수한 기관을 팁스 운영사²⁾(최초 지정 4년 후 매 2년 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가능)로 선정하고 창업기업 추천권(T/O)을 부여한 후, 운영사가 투자 및 추천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선정평가를 통하여 팁스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2) 성공벤처인 등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기획자 및 엔젤투자회사(법인엔젤), 엔젤투자재단, 창업투자회사 등(연구중심대학, 기술지주사, 출연연,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등 컨소시엄 포함)

운영사는 유망한 기술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부여받은 창업기업 추천권 내에서 2억원 내외의 선투자³⁾ 후 정부에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창업기업은 운영사의 보육공간(BI) 또는 팀스타운,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입주하여, 밀착 보육 및 성공사업화를 위한 멘토링을 받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팀스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운영사가 투자한 엔젤투자금 이외에, R&D자금(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필요에 따라 평가를 통하여 창업사업화자금(최대 1억 원), 해외마케팅자금(최대 1억 원) 등 사업화자금을 연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초기 자본은 없으나 혁신 기술로 무장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과감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2022년에는 상하반기 신규 운영사 공모를 통하여 23개 내외의 신규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총 11개의 신규 운영사가 추가되어, 2021년 12월말 기준 66개 운영사, 1,634개 창업기업이 선정되어 엔젤투자 3,694억원, 정부R&D 6,200억원, 창업사업화자금 902억원, 해외마케팅자금 588억원이 투자지원되었다.

국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경제 환경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투자실적과 우수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운영사가 '21년에 신규로 참여하여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 보육 등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고, 특히 지방 소재 운영사 3개사가 참여⁴⁾함에 따라 비수도권 내 기술창업기업의 팀스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기획자 23개, 창업투자회사 15개 등으로 구성⁵⁾된 TIPS운영사는 성공 창업인, 엔젤투자전문가, 보육멘토링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어, 성공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창업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3) '투자확약'도 추천 가능하나, 협약단계 이전 투자계약 및 투자금입금이 완료되어야 최종 협약이 진행(미이행 시, 협약 취소)

4) (대전) 에트리홀딩스, (울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 소풍벤처스

5) 창업기획자 23개, 창업투자회사 15개, 기술지주사 7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3개, 창조경제혁신센터 2개, 기업형 6개, 유한책임회사 6개로 구성

표 II-1-1-15 | 운영사 및 보육공간 현황

구분	컨소시엄 주간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1차 (‘13년 6월)	카이트창업가재단	김철환	김철환(이미지앤머터리얼스), KAIST	카이스트(대전) 팁스타운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김범수(카카오),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서울대기술지주 팁스타운
2차 (‘14년 2월)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강석훈	장병규(네오위즈),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팁스타운
	퓨처플레이	류중희	류중희(올라웍스), KETI(전자부품연구원), 네오플라이	전자부품연구원 팁스타운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강신혁	BootstrapLabs(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팁스타운
4차 (‘15년 3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	이용관(플라즈마트), 카이스트, 스테이션니오, 시작점	스테이션니오 한국과학기술원 시작점 팁스타운
	현대자동차	하연태 장재훈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BI 광주혁신센터
5차 (‘15년 11월)	인포뱅크	박태형	박태형(인포뱅크), 텀블러, 젠엑시스,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우정바이오, 씨앤벤처파트너스,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자체 BI(경기)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정회훈	씨엔티테크, 행복나눔재단(SK), 카이스트창업원(양재R&CD센터), 핀플레이, SK사회적가치연구원	카이스트창업원 (서울) 팁스타운
6차 (‘16년 11월)	선보엔젤파트너스	최영찬 오중훈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부산TP,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BI(부산), 울산과학기술원, 울산혁신센터, 광주과학기술원
	스프링캠프	최인규	-	자체 BI(서울)
	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	안태성	LG전자, LG생활건강, LGU+, 충북TP,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진흥공단충북지부,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청주상공회의소	자체 BI(충북)
	포스텍기술지주	유주현	포항공대, 포스텍 기업협의체, 포스텍 엔젤클럽,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	포항공대 팁스타운
	시너지아이비투자	이건영	요즈마그룹코리아	자체 BI(경기)
	휴젤	손지훈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LSK인베스트먼트	유전공학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강원혁신센터

구분	컨소시엄 주관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7차 (17년 7월)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박기일	동국제약, (中)SCORE CAPITAL, 진학어플라이, 연세대, 한국자동차연구원, 시공아이피씨	연세대(서울)
	빅뱅엔젤스	황병선	평화홀딩스, 경북대	경북대
	아이빌트	이준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고려대, 충북수출클럽, 비피메이커스랩, 이노보스, HRG, 케이엑셀레이터	자체 BI(세종) 호서대
	에버그린 투자파트너스	홍종국	아이에셋, 아이피택코리아, 송실대, 연세대, 이그나이트, Church&State	송실대 연세대(서울)
	코맥스벤처러스	변우석	코맥스, 와디즈, 히스토리벤처투자, 메가존클라우드	자체 BI(경기) 팁스타운
	킹슬리벤처스	이정훈	한국기술벤처재단, 전남대기술지주, 어썸벤처스, 리앤목특허법인, 케이디벤처팜, 킹슬리자산운용, 서울대학교 벤처경영기업가센터	자체 BI(대구), 케이디벤처팜
	KB인베스트먼트	김종필	KB금융지주, 더인벤션랩	자체 BI(서울)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장재수	고려대의료원, 아이파트너즈,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KU글로벌센터,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고려대학교세종산학협력단	자체 BI (서울, 세종) 아이파트너즈	
8차 (18년 6월)	매쉬업엔젤스	이택경	(미)빅베이션캐피탈, 슈미트, 패스트파이브	패스트파이브 팁스타운
	메디톡스벤처투자	신효진	메디톡스	자체 BI(경기)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목승환	서울대, (미)Church and State Business Center	자체 BI(서울) 팁스타운
	에이치지 이니셔티브	남보현	드림플러스강남센터, 루트임팩트, 본투글로벌센터,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드림플러스 강남센터, 서울혁신센터
	인라이트벤처스	유동기	대구경제혁신센터, 광주경제 혁신센터, (프)EuraTechnologies, 와이앤아처, 다래전략사업화센터, 에이전트엑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BI(대구), 광주혁신센터
	한양대학교 기술지주	이병희	한양대 창업지원단, 한양증권,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미)Founders Space, (싱가폴) Seamo Ventures, brinc, The GAIN, Accrete Innovation, Bridge Partners, Forence Group, HATCH! Ventures, Taiwan Accelerator, Innolab Asia	자체 BI(서울)

구분	컨소시엄 주간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9차 (19년 5월)	김기사랩	신명진	조이시티, EST soft Inc., 워크앤올, 공개임즈, 서울산업진흥원	자체 BI(경기), 서울창업허브
	미래과학기술지주	김판건	카이스트, WSV Capital	자체 BI 카이스트(대전)
	빅베이스캐피탈	윤필구	송영길(NComputing), 신현성 (TMON), 이택경(매쉬업엔젤스),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 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연구원	명지대(경기) 고려대(서울)
	씨엔티테크	전화성	-	자체 BI(서울)
	엔피프틴파트너스	양동민 허제 류선종	엔피프틴, 인천경제산업 정보테크노파크, 세종벤처파트너스, 아이디벤처스, 고려대학교 크림슨 창업가센터, GS칼텍스, 마인즈랩, Harman Connected Services, Queen Consulting Group Private Limited, CampFire, 벌트코리아, KB국민카드	자체 BI(서울), 인천테크노파크
플래티넘기술투자	이창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케이티, 대광경영자문차이나, Nautilus Venture Partners	경기혁신센터	
10차 (19년 9월)	대덕벤처파트너스	이석훈	igniteXL, 컴퍼니에이, 한국수자원공사, 로우파트너스, 엔슬파트너스, IPS벤처스	한국수자원공사, 로우파트너스
	더존홀딩스	김용우	더존비즈온, 키컴, 강원도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TP,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창업보육센터,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자체 BI(강원) 강원대
	데일리파트너스	이승호	MARSInnovation, Longlycapital,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씨애치씨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 바이오센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창업보육센터	생명공학연구원 씨애치씨랩
	벤처스퀘어	명승은	Rehoboth Vietnam,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본투글로벌센터	르호봇비즈니스인 큐베이터 본투글로벌센터

구분	컨소시엄 주관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10차 (’19년 9월)	부산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	성희엽	Saigon Innovation Hub, Able Advisors, 비스퀘어, 스마트파머, 부산관광공사, BNK벤처투자	비스퀘어 스마트파머
	슈미트	김현준	DSC인베스트먼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PHANTOM AI Inc., LVIS Corporation	자체 BI(서울)
	스파크랩	김유진	아산나눔재단, 스파크플러스, 한양대학교기술지주, Sparklabs Taipei, 스파크랩파트너스	마루180, 스파크플러스
	캡스톤파트너스	송은강	코로프라 넥스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팁스타운, 프론트원
	프라이머	권도균	Primer Sazze GP, LLC., 대응제약,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대응제약(용인), 프론트원
	플랜에이치벤처스	원한경	KITA Inc., 네오위즈차이나,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자원공사, 네오플라이, 전남대기술지주회사, 부산대기술지주회사, 울산과학기술지주, 한국표준협회	자체 BI(서울) 한국무역협회
	한국과학기술지주	강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SK Telecom Americas InnoPartners, 원익투자파트너스, 유플스	대전혁신센터 팁스타운
11차 (’20년 8월)	대경지역대학공동 기술지주	권대수	VentureNest Partners, 경북 테크노파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창조경제 혁신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영남대학교 의료원, 에프엠씨인베스트먼트, 삼성증권 대구기업금융지점, 대구테크노파크	자체BI(경북), 경북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더벤처스	김철우	Golden Equator Ventures, WFUNA	자체BI(서울)
	디티앤 인베스트먼트	이승석	COLOPL NEXT, Innolab Asia,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디티앤씨,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아이피에스	경기혁신센터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남기문	스마일게이트희망스튜디오, 스마일게이트홀딩스, Smilegate West, 소문신식과기(상해), Smilegate Barcelona, 서강대학교, 전북대학교기술지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오렌지팜 (서초, 신촌센터)	

구분	컨소시엄 주간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11차 (20년 8월)	아주아이비투자	김지원	Solasta Ventures, 스파크플러스, 한국기술벤처재단,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고려대학교의료원,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특허법인 다해	자체BI(서울), 한국기술 벤처재단
	연세대학교 기술지주	이충용	연세대학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대학교기술지주, 라파스, 한국컴퓨터, 대성창업투자, PrimerSazzePartners	자체BI(서울), 서울혁신센터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이상진	안랩, 이디리서치,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Queen Mary Innovation, TusStar, 한국자동차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대전혁신센터
	포스코기술투자	임승규	POSCO INTERNATIONAL SHANGHAI, 포스코인터네셔널,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인덕대학교, 송실대학교산학협력단, 소사코리아	인덕대, 송실대
	JB벤처스	유상훈	충청남도, 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정보 문화산업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오픈놀, ERA, 순천향대학교 기술지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호서대학교창업지원단, United Ventures Agency, 시너지엑스	자체BI(경북), 충남창조경제혁신 센터, 오픈놀
12차 (21년 7월)	플림벤처스	남홍규	PT.Hanhwa Life Insurance Indonesia, Shorooq Partners, 한화생명보험, 넥슨코리아, 디라이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아이비케이캐피탈, 디에스자산운용, 브이아이피자산운용, 현대에이치티	자체 BI, 한화생명보험 (드림플러스 강남)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	배상승	CONG TYTNH HHIVELAB VINA, Wilt Venture Builder, Vynn Capital, 티에스 인베스트먼트, 덕우전자, 나누리 의료재단, 바디프랜드, 우진아이엔 에스,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대안투자 자산운용, 해원의료 재단,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 국민대학교기술지주	자체 BI, 국민대
	더인벤션랩	김진영	Innolab Asia, 마이워크스페이스, 서울대학교 SI연구원	마이워크 스페이스

구분	컨소시엄 주간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12차 (21년 7월)	소풍벤처스	한상엽	Collaborative Fund Management,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테크노 파크, 보령홀딩스,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디지털헬스케어 파트너스,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넥스트랜스	강원창조 경제혁신센터
	씨앤벤처파트너스	심재희	YOUMEON, IT Works Japan, Kigalabs, 1982 Ventures, KILSA GLOBAL, 엔텔스, 인포뱅크, 에치 에프알, 드림시큐리티, 원앤파트너스, 성균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한밭대학교 기술지주, 시너지엑스, 웹스	성균관대, 한밭대
	액트너랩	조훈제	NEMIC, 와우파트너스	자체 BI
	에트리홀딩스	윤상경	JC VALLEY, ETRI US R&D Cente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북경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피애플인베스트먼트, 신한캐피탈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엔슬파트너스	정재동	대공방코리아, 케이티비네트워크, 어니스트벤처스, 킹고스프링, 한림 대학교산학협력단, 건국대학교 기술지주, 수원대학교산학협력단, 엠에이피에스,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스테이지나인	서울창조 경제혁신센터,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창업허브)
	울산창조경제 혁신센터	김재훈	Creative Valley, 한국조선해양,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울산테크노파크, 스페이스점프, BNK벤처투자, 스케일업파트너스	자체 BI
	패스트벤처스	박지웅	Cowell Investment Group, 패스트파이브	패스트파이브
	BSK인베스트먼트	백승권	Suprema Systems UK, 슈프리마, 퍼스트게이트, SNU공학컨설팅센터, 벤처기업협회	SNU공학 컨설팅센터, 벤처기업협회

TIPS 창업기업은 기술분야별로 정보통신 669개, 바이오·의료 452개, 전기·전자 164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창업기업 대표자 기준으로 석·박사 비율은 58%이고, 삼성, 구글 등 국내외 대기업 경력자가 29%로 고급기술 인력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TIPS 창업기업이 '21년 한 해 동안 M&A 14건, IPO 4건⁶⁾(누적, M&A 40건, IPO 8건)을 포함하여 총 335개 창업기업이 약 2조 9천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누적 후속투자 유치금액은 누적 약 7조 2천억원을 돌파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팁스의 보육·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팁스타운은 지난 2015년 7월 개관 하여, 팁스 창업기업, 운영사, 창업지원기관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역량강화, 투자 유치설명회, 창업 네트워킹,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5개 팁스타운(해성빌딩, 명우빌딩, 현승빌딩, 태광빌딩, 회성빌딩) 30개층이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팁스 창업기업, 팁스 운영사, 창업지원 유관기관 등 94개사 약 700명이 상주하며 성공창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곳에서는 팁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후속투자 연계를 위한 '팁스밋업'과 최고 경영자과정인 '팁스아카데미',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프로젝트', 창업생태계 간 네트워킹 행사인 '팁스서밋'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 팁스타운 인근에는 강남스타트업센터(강남구청), 체인지업그라운드(㈜포스코), 마루 180/360(재)아산나눔재단이 위치하고 있어 '창업가거리'라고 불려진다. 2021년 12월에는 최초로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창업가거리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국내 최고의 창업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업 네트워킹(창업가거리축제)



역량강화 교육(팁스아카데미)



후속투자 연계(팁스밋업)

6) M&A : 차이엑스, 아이로, 메가폰엔터테인먼트, 맘모식스, 핑스플로우, 깃플, 큐로진생명과학, 스트리스, 빅솔, 매드스퀘어, 코드브릭, 플러스티브이, 타스컴, 더식스데이
IPO : 뷰노(코스닥), 맥스트(코스닥), 켈스(코넥스), 지니너스(코스닥)

아울러, 그간 수도권 집중의 창업·벤처 붐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중 틱스 참여 창업기업이 가장 많은 대전 지역에 지방 최초로 틱스타운을 설립하고, 2021년 5월 개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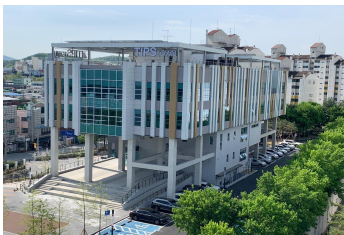
대전 틱스타운은 지역 내 혁신주체인 대학, 민간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등의 역량과 경험 등을 결집하여 지역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소 등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조성되었다.

〈대전 TIP스타운 조성 개요〉

- **(조성위치)**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 내)
- **(조성규모)** 지하 1층~지상 5층
- **(입주시설)** 입주공간(오픈형 75석, 독립형 22개실), 카페, 수면·샤워실, 전시공간, 공용회의실, 중대형 행사 공간 등



충남대학교 내에 5층 규모로 조성된 대전 틱스타운은, 대전지역 유망 창업기업, 틱스 선정기업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독립 사무실(7인실~10인실) 22개실과,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창업관계자 등이 틱스타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오픈형 업무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 75개석, 혁신주체들이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는 회의실, 카페, 행사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틱스타운 전경



독립형 업무공간
(7인실 ~10인실)



오픈형 업무공간
(코워킹스페이스)

2021년 12월말 기준, 22개 스타트업과 8개의 투자기관이 입주 중이며, 입주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상시 밀착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투자기관의 멘토링을 통한 투자유치전략 마련 및 자금조달 기회 제공,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지역 창업기업 간 연계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각계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킹 등 입주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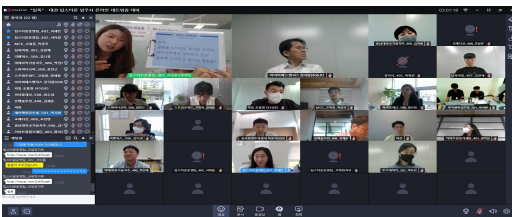
또한, 대전 팁스타운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기업 데모데이,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 세미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개 데모데이



스타트업 세미나



온라인 네트워킹



투자사 멘토링

더불어 스타트업 프로젝트 매니저(SMP, Startup Project Manager) 전문인력 양성 및 대학생 스타트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전 팁스타운은 창업기업들을 위한 입주 공간뿐만 아니라 휴게시설, 공용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중대형 행사 공간 등도 함께 구축되어 있다.

또한, 주변 대학로 등 청년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인접하여 창업 친화적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며, 지역 창업문화 확산, 창업 촉진,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역 혁신주체와의 협업 등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1) 국내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의 기술 기반의 예비창업자 또는 기 창업자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2012년 시작된 사업이다. 해외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자가 글로벌 진출 초기단계에 해외진출 가능성을 검증하고 현지에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글로벌 스타벤처 기업을 양성하고자 함이다.

동 사업은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선발한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 기업에게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사전역량 강화 교육 뿐만 아니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글로벌 피칭경진대회까지 참가 지원한다.

2012년에 미국, 중국 등 2개국을 시작으로 점차 진출 국가를 확대하여 현재 국내 창업자들의 진출 수요가 높은 6개국 8개 지역(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및 상하이,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베트남 하노이, 러시아 모스크바)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총 709개 창업기업을 지원하였으며 2,371억원의 매출액과 2,45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548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나타내었다.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총 256개 창업기업을 지원하였으며 681.2억원의 매출액(국내 605.8억원, 해외 75.4억원)과 765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911.3억원의 투자유치(국내 856.6억원, 해외 54.7억원)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표 II-1-1-16 | 최근 3년간 국내창업기업 해외진출지원 성과

(단위 : 억원, 명)

연 도	예산	선정	투자유치		매출		고용
			국내	해외	국내	해외	
2019	27.9	58	59.7	-	77	24.5	85
2020	34.0	58	52.7	51.4	138.8	24.6	149
2021	87.6	140	745.5	2.0	390.0	26.3	531
합계	149.5	256	857.9	53.4	605.8	75.4	765

* 현지진출유형 : 법인, 지사·사무소, 합작법인

** 환율 : 1,190원 기준

7) 해외 액셀러레이터 : 해외에 거점을 두고 창업기업의 멘토링, 창업공간, 초기투자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창업촉진 전문회사 및 기관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에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탐색 지원



글로벌 밀착 멘토링



글로벌 네트워킹



프로그램 설명회 및 IR

2) 해외 유망 창업기업 국내유치 지원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우리나라의 창업비자제도 도입(2013년 10월)으로 우수 해외인력 유치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해외 유망 창업기업의 국내유치를 통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해외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⁸⁾를 벤치마킹하여, 2016년부터 신규 추진 된 국내 최초 인바운드 프로그램 브랜드이다.

동 사업은 외국국적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국내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의 신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우수한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국내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총 309개 팀 지원, 국내법인 설립 132개, 창업이민비자 취득 270건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표 II-1-1-17 | 해외 유망 창업기업 국내유치 지원성과

(단위 : 억원, 명(개), 건)

연 도	예산	선정(국가)	국내법인설립	창업이민비자	
				창업준비비자	창업비자
2016	50.0	40(21)	18	16	2
2017	45.8	49(21)	23	18	8
2018	73.8	73(31)	34	39	18
2019	44.0	38(20)	14	17	13
2020	60.0	55(24)	26	59	19
2021	60.0	54(33)	17	61	-
합계	333.6	309(150)	132	210	60

* 2021년 12월 기준

8) 미국: 스타트업 3.0,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칠레: 스타트업 칠레 등

바.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부터 창업기업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업력별⁹⁾ 창업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한 46개 전문기관(22년 기준)이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반분야(쑈 기술분야)’, ‘특화분야(소셜벤처, 그린경제, D.N.A 등)’로 구분하여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담당한다.

특히, ‘특화분야’는 각 부처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관부처가 추천하는 산하·유관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였고, 부처 협력을 통한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하여 범부처 추진단^{*}을 결성(19.4)하였다.

* 참여부처 :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산림청, 특허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화 자금과 함께 창업교육(40시간)을 제공하고, 창업·경영 전반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1:1 매칭하여 진도점검, 사업자문 등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년에는 2,300명을 지원하여 협약기간(8개월)동안 2,242개사 창업(창업률 97.5%), 일자리 7,249명, 매출 561억원, 투자유치 218억원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표 II-1-1-18 | 예비창업패키지 주요실적 및 성과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지원	창업	일자리	매출	투자
2018년	101,300	6,677	1,512	1,476	4,299	73,626	15,680
2019년	132,850	8,403	2,207	2,135	5,578	61,933	14,909
2020년	149,184	15,932	2,300	2,242	7,249	56,116	21,844
2021년	100,246	8,488	1,530	'22.8월 최종점검을 통해 성과조사			

9) 예비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 - 초기창업패키지(업력 3년 이하) - 창업도약패키지(업력 3~7년)

사.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초기 창업기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초기창업기업의 사업안정화 및 성장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8년도까지 운영되던 “창업선도대학, 세대융합캠퍼스 및 장년서포터즈, 스마트벤처 캠퍼스” 사업을 초기단계 창업기업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19년부터 단계별(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1년에는 정부의 핵심 산업·경제정책 방향을 고려한 전략 분야를 신설하여 그린 분야(100개사, 「그린벤처·스타트업 육성방안('20.11월)」)를 포함한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유망 신기술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자 하였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관기관 소재 권역 내 창업기업 의무선발 비율(70%)을 적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였다.

표 II-1-1-19 | 초기창업 패키지 주관기관 현황 (40개)

수도권(18)			비수도권(22)				
서울(9)	경기(6)	인천(3)	충청권(6)	호남·제주권(7)	동남권(5)	대경권(3)	강원권(1)
건국대	가천대	인천대	대전창경센터	광주대	동서대	경북대	가톨릭관동대
고려대	경기대	인하대	순천향대	군산대	부경대	대구대	
서울대	단국대	인천TP	충북대	순천대	부산대	대구창경센터	
송실대	성균관대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대기술지주	울산대		
씨엔티테크	수원대		한남대	전북대	영산대		
엔피프틴	한국산기대		한밭대	전주대			
연세대				넥스트챌린지			
인덕대							
한양대							

'21년도에는 1,002억원의 예산으로 40개 주관기관을 통해 960개 기업을 발굴·육성하였으며, 주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기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였다.

* 특화프로그램 : 마케팅, 재무회계 및 지재권 보호, 투자 IR, 네트워킹 및 교류회 등

표 II-1-1-20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 (추경 포함)

(단위 : 백만원, 명, 건)

구 분	예산	신청	지원	매출	일자리
2019년	118,080	8,898	1,078	489,218	4,199
2020년	114,500	13,103	1,111	830,085	5,802
2021년	100,260	7,616	960	-	-
합계	332,840	29,617	3,149	1,319,303	10,001

* '21년 최종성과 조사 중(~'22.9월)

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도약단계(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 등으로 위기를 맞아 사업화에 실패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 (데스 벨리)을 극복하고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6년 10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21년 1,020억원 규모로 확대하였다.

'21년은 도약단계 창업기업 600개사를 선발하여 참여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선,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고도화,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대학 및 공공민간 기관 등 창업지원 주관기관을 통해 교육, 멘토링, 마케팅,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매출이 늘고 신규 고용을 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19년 구글과 처음 시도한 '글로벌 기업 협업프로그램'이 창업기업의 높은 호응과 성과를 보이고, 최근 국내 대기업도 창업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협업 범위를 글로벌 기업에서 국내 대기업으로 확장하고 지원 분야를 다양화한 '대기업 협업프로그램'을 '21년에 시범 추진하였다. 친환경, 클라우드·인공지능, 식품기술(푸드테크), 물류 및 콘텐츠 분야에 각각 노하우와 강점을 가진 SK이노베이션, 네이버클라우드, CJ의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에 교육,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킹, 투자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창업기업 간 공동 사업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표 II-1-1-21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사업화 기준)

(단위 : 억원, 명, 건)

구분	신청	선정	매출	일자리
2016년	683	160	1,017	937
2017년	2,524	813	9,908	6,993
2018년	1,327	441	4,269	4,871
2019년	2,613	435	9,844	7,857
2020년	3,452	750	12,844	12,882
2021년	2,976	600	-	-
합계	13,575	3,199	37,882	33,540

* '21년 최종성과 조사 중(~'22.9월)

자. 혁신분야창업패키지

1)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가가치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이다. '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생산 3배, 수출 5배 증가 등 외형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범용제품 위주의 추격형 전략과 압축 성장으로, 핵심 전략 품목의 만성적 대외 의존 지속, 글로벌 경합도 증가, 부가가치 정체 등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의 자립화·국산화 등을 통해 대외 의존을 탈피하고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9년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100 → 강소기업 100 → 으뜸기업 100'으로 이어지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의 첫 단계인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을 2020년에 신설하였다.

이후 2021년까지 대·중견기업의 수요와 연결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총 40개사를 선정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선정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와 사업화를 지원하였다.

표 II-1-1-22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현황(2020~2021)

(단위 : 개)

구 분	복합소재	산업용IoT	스마트 엔지니어링	친환경	융합바이오	계
2020년	4	4	5	3	4	20
2021년	5	4	4	3	4	20
계	9	8	9	6	8	40

향후 2024년까지 총 100개사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 핵심기술을 선점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BIG3)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BIG3)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혁신성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2019년 12월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을 통해 BIG3 분야의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지닌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키로 하였다.

2020년부터 중소벤처기업 신규 지원대상 25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6억원) 및 R&D, 정책자금, 기술보증 등을 연계 지원했으며, 전문인력과 기술사업화 인프라를 보유한 분야별 주관기관 및 멘토단을 구성하여 BIG3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2021년에는 BIG3 선정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화 및 R&D, 자금, 보증 등 연계 지원을 지속하고, 분야별 주관기관을 6개에서 8개로 확대했다.

위와 같은 지원 결과, BIG3 기업들은 '21년 말 기준으로 기업당 평균 매출 31.4억원, 고용 29명, 투자 45.5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지원 전보다 매출, 고용 측면에서 약 70% 증가, 투자는 약 2.8배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표 II-1-1-23 | 2021년 기준 BIG3 기업 성과 실적현황

구 분	2019년 (지원 전)	2020년 (지원 1년)	2021년 (지원 2년)	'21년 실적 규모(%)	
				'19년 대비	'20년 대비
매출(억원)	18.5	25.8	31.4	169.7	121.7
고용(명)	17	23	29	170.6	126.1
투자(억원)	16.0	31.9	45.5	284.4	142.6

이들 기업 가운데 특히 지능형 반도체(NPU)개발 팹리스 기업 '퓨리오사 에이아이'는 설계 IP 및 관련 기술개발,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성장하여 창업 4년만인 '21년 약 78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고정밀 HD Map 제작기업 (주)스트리스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인수되며 성공적으로 엑시트 하였다. 또한 희귀질환치료제 개발기업 (주)티움바이오는 '21년 500억원의 투자를 받으며 유럽 임상과 FDA 승인 절차 등을 진행중이다.

3)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비대면 형식의 경제·산업활동이 급속도로 확산하였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맞물리며 비대면 시장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비대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혁신적인 창업자들이 뛰어들었으며, 비대면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도 증가하였다.

정부는 비대면 분야의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신설하였다.

동 사업은 6대 비대면 분야*에 해당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창업 사업화 자금과 분야별 특화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분야별 특성이 상이한 비대면 기업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 과정을 범부처 협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 6대 비대면 분야 : 의료, 교육, 생활·소비, 콘텐츠, 기반기술, 유레카(기타 비대면 혁신 아이템)

표 II-1-1-24 |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 분야 및 협업부처 현황

대분야	세부분야	협업부처	대분야	세부분야	협업부처
의료	①비대면 의료	복지부	생활·소비	⑧해운·수산	해수부
	②의료기기	식약처		⑨친환경	환경부
교육	③온라인 교육	교육부	콘텐츠	⑩지역융합 미디어	과기정통부
	④에듀테크	산업부		⑪비대면 스포츠	문체부
생활·소비	⑤온라인 농·식품	농식품부	기반기술	⑫인공지능 등	특허청
	⑥스마트 물류	국토부	유레카	⑬기타 비대면 혁신 아이템	중기부
	⑦스마트 도시				

'21년에는 총 12개 부처*가 협업하여 창업기업 400개사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기업에는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였고, 협업부처와 분야별 주관기관의 전문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멘토링, 기술지원, 시장검증, 투자유치 및 판로지원과 같은 특화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제공하였다.

* 중기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4)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팬데믹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스타트업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나아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개선, 신속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와 난관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협력지원 모델인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정부에서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창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은 보유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교육, 솔루션, 1:1컨설팅, 판로개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협업 글로벌 기업을 2019년 1개사(구글플레이), 2020년 5개사(구글플레이, 엔비디아, AWS, MS, 다쏘시스템), 2021년 6개사(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지원 분야는 ‘구글플레이 : 모바일 앱 및 게임’, ‘엔비디아 : 인공지능’, ‘마이크로소프트 : 클라우드’, ‘다쏘시스템 :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신제조공정, 로봇’, ‘앤시스 : 스마트 모빌리티, 전자·전기, 헬스케어, 소재’, ‘지멘스 : 전자·전기·기계, 장비·부품, 의료용 기기’이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내 정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운영 중이며, 글로벌 기업과 함께 유망 창업기업 총 200개사를 발굴·지원하였다.

표II-1-1-25 | 2021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선정 현황

(단위 : 억원, 명, 건)

프로그램	창구	엔업	마중	다운다	ASK	지중해	합계
선정기업 수	80	30	30	20	20	20	200

향후 미래 유망기술 분야 글로벌 기업 추가 발굴을 통해 신규 협업 분야를 개척하여, 창업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활발한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기업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사내벤처팀(기업)을 육성하면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스타트업과의 상생협력 및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기업의 신규 사업 모델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전략의 하나로 사내벤처제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1년 대중견중소공기업 20개사를 운영 기업으로 신규 선정하고, 사내벤처팀(기업) 135개팀(사)를 지원하였다.

사내벤처팀(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기업 4개사, 중견기업 3개사, 중소기업 13개사 등 총 20개사를 운영기업으로 신규 선정 하여, '21년까지 총 96개 운영기업과 협업하였다.

사내벤처팀(기업)은 추천형, 개방형, 후속지원(실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1년에 추천형은 3차례에 걸쳐 61개팀(사), 개방형은 2차례에 걸쳐 30개사, 후속지원은 44개사 등 총 135개팀(사)를 지원하였다.

또한, 사내벤처팀(기업)의 아이템 사업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창업기획자 등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판로확대 등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22년에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속지원(실증) 선정기업이 제조분야 분사 창업기업일 경우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총 150개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1-1-26 | 2021년 운영(모)기업 유형별 운영기업 및 사내벤처팀(기업) 현황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기타	합 계
운영기업 (%)	20(20.8)	15(15.6)	46(47.9)	15(15.6)	-	96
사내벤처팀(기업) (%)	62(45.9)	10(7.4)	43(31.9)	17(12.6)	3(2.2)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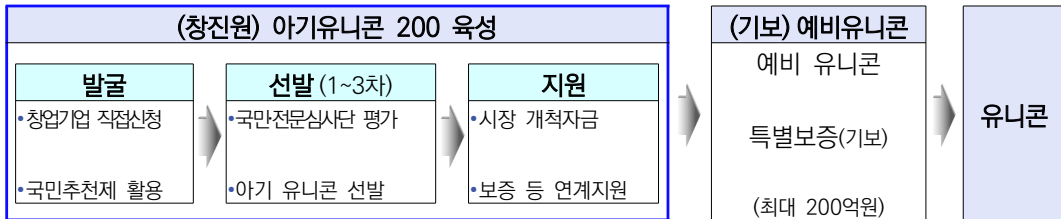
* 내역 시범사업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포함 시, 사내벤처·혁신기업 총 200개사 지원

표 II-1-1-27 | 2021년 사내벤처 선정 운영기업 현황

구 분	운영기업명 (96개사)
대기업 (20개사)	롯데벤처스(주), 신한카드(주),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엘에스전선(주), 엘지디스플레이(주), 현대자동차(주), (주)우리금융지주, 삼성전자(주), (주)엘지씨엔에스, SK텔레콤(주), (주)포스코, 코오롱비티(주), 지에스건설(주), (주)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 (주)케이티씨에스, (주)이노션, 교보생명보험(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엘에스일렉트릭, 메조미디어
중견기업 (15개사)	(주)하나금융티아이, (주)코맥스, (주)한솔교육, 대상(주), (주)다날, (주)엔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솔피엔에스(주), (주)대웅제약, 제이비(주), (주)이랜드리테일, (주)티에이치엔, (주)에치에프알, 이랜드이노플, 한겨레신문사
중소기업 (46개사)	(주)매스씨앤지, (주)삼진엘앤디, (주)엔라인, (주)케이엘넷, (주)프론텍, (주)휴넷, (주)에이치나인, (주)이투, (주)티제이이노베이션, (주)씨아이그룹, (주)에프엔가이드, (주)드림에이스, (주)메이데이파트너스, (주)비전, (주)서울신문사, (주)글로벌홀딩스, (주)비에스알코리아, (주)샘파트너스, (주)이브자리, (주)인키움, (주)신신사, (주)투스라이프, (주)오상헬스케어, (주)유경시스템, (주)이너스커뮤니티, 위즈코어(주), (주)크레마, 크리에이티브파트너스, 나이스디앤알(주), 씨엔티테크(주), 아롬드리자산운용(주), 주식회사 케이씨넷, (주)동해이엔티, (주)에이치엠, (주)인사이트온, (주)뷰티플휴먼, (주)온누리아이코리아, (주)삼호정기, 주식회사 버핏서울, (주)파워풀엑스, (주)사임당화장품, (주)케이피티,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주)위세아이텍, (주)데이터뱅크, (주)바른손
공기업 (15개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카. 아기유니콘200 육성 프로그램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천억 이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 (아기유니콘) 기업가치 1천억 미만 → (예비유니콘) 1천억 이상~1조 미만 → (유니콘) 1조 이상

그간 '20년 40개사, '21년 60개사 등 총 100개 아기유니콘을 선정해 지원하였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고용*이 2배 가까이(91.4%↑) 증가하고 매출*은 2.5배(149.6%↑)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 아기유니콘 고용 : (신청당시) 2,855명 → ('21년말) 5,465명(+2,610명, 91.4%↑)

** '20년 선정 아기유니콘 매출 : (신청당시) 1,338억원 → ('20년말) 3,339억원(+2,001억원, 149.6%↑)

중기부는 선정된 아기유니콘에 신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특별보증(최대 50억원), 정책자금(최대 100억원), 중기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지원체계〉

신시장 개척	선정된 100개 기업에게 「시장개척 지원자금」 최대 3억원 지원		
신시장 진출	[투자 연계] 국내외 VC와 IR	+	[해외진출 지원] 창진원 네트워크
		+	[기술 신시장 진출] 규제샌드박스 지원
금융+R&D	특별보증 최대 50억 (기보)	+	정책자금 최대 100억 (중진공)
		+	중기부 R&D 우선권 (기정원, 지평단)
경영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고용부)	+	방송광고 지원 (KOBACO)
		+	ESG 경영도입 지원 (중진공)

4

창업지원 인프라 운영

- 창업촉진과 문 창 식
- 지역기업육성과 김 철 년
- 창업생태계조성과 이 용 범, 최 용 춘, 박 병 민

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운영

과거, 창업자가 온라인 환경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지방세 납부시스템, 국세통합시스템, 인터넷지로시스템, 4대 사회보험 연계시스템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인설립을 위해 여러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0년 2월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인 '온라인 재택 창업시스템(<http://www.startbiz.go.kr>)'을 구축하였다.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4일에서 4일로 70%가량 단축되었다.

표 II-1-1-28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절 차	기간	절 차	기간
① 상호 검색	1	① 법인인감 제작	1
② 법인인감 제작	1	② 상호 검색 4대보험 등록 취업규칙 신고 법인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등기신청수수료	3
③ 자본금 확인	1		
④ 법인등록세 납부	1		
⑤ 법인설립등기 신청	2	③ 4대 사회보험료 납부	0
⑥ 사업자등록 신청	6	3단계	4일
⑦ 4대 사회보험 가입	1		
⑧ 취업규칙 신고	1		
8단계	14일		

2011년에는 「상법」 개정에 따라, 무액면주식 발행기능을 추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대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설립 가능한 법인형태의 범위를 주식회사에서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 등 모든 유형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3년 9월에는 통합 시스템의 이름을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온라인 법인설립 건수는 13,067건으로 시스템을 도입한 첫해인 2010년 1,005건 대비 약 13배 증가하였으며, '10년 서비스 개통 후 총 73,189개의 법인이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시스템 방문자 수도 2010년 21만명에서 2021년 115만명으로 약 5.5배 증가하였다.

표 II-1-1-29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이용현황

(단위 : 건)

구 분	법인설립	전화상담	방문자
2010년	1,005	18,569	206,018
2011년	1,673	35,642	216,548
2012년	2,403	51,406	262,904
2013년	3,021	51,319	322,011
2014년	4,052	58,837	585,574
2015년	5,045	60,369	584,347
2016년	6,048	61,444	565,776
2017년	7,111	48,673	522,403
2018년	8,195	49,656	538,406
2019년	9,509	64,996	993,797
2020년	12,060	74,331	1,349,375
2021년	13,067	61,494	1,148,472
합계	73,189	636,736	7,295,631

나. 창업보육센터(BI) 운영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창업기업에게 사업공간 및 기술·경영 등 보육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제고하기 위해 '98년부터 창업보육(Business Incubating)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1-1-30 | 최근 5년간 창업보육센터 사업 운영현황

시행시기	내 용
2017년	예산(214억원), BI 지정·운영(262개 BI), 지원실적(운영비 181개 BI, 리모델링 15개 BI, 보육역량 80개 BI), BI 운영성과(5,907개 기업, 매출 2.1조원, 고용 19.8천명)
2018년	예산(165억원), BI 지정·운영(262개 BI), 지원실적(운영비 197개 BI, 리모델링 7개 BI, 보육역량 84개 BI), BI 운영성과(6,290개 기업, 매출 2.2조원, 고용 21.6천명)
2019년	예산(148억원), BI 지정·운영(260개 BI), 지원실적(운영비 190개 BI, 리모델링 6개 BI, 보육역량 94개 BI), BI 운영성과(6,151개 기업, 매출 2.1조원, 고용 21.9천명)
2020년	예산(127억원), BI 지정·운영(259개 BI), 지원실적(운영비 180개 BI, 리모델링 6개 BI, 보육역량 90개 BI), BI 운영성과(6,190개 기업, 매출 2.2조원, 고용 23.4천명)
2021년	예산(121억원), BI 지정·운영(263개 BI), 지원실적(운영비 176개 BI, 리모델링 9개 BI, 보육역량 69개 BI), BI 운영성과(6,227개 기업, 매출 2.3조원, 고용 23.5천명)

2021년 말 기준, 전국 263개 창업보육센터(대학 193, 연구소 13, 정부/지자체 13, 공공기관 11, 기타 33)가 대학·연구소(79.5%) 중심으로 지정되었고, 수도권 87개소(33.5%), 비수도권 172개소(66.5%)가 운영 중에 있다.

표 II-1-1-31 | 창업보육센터 주체별 지정 현황

(단위 : 개)

합 계	대 학	연 구 소	정 부/지 자 체	공 공 기 관	기 타
263	193	13	13	11	33

표 II-1-1-32 |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단위 : 개)

합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263	34	18	36	24	30	48	6	16	15	15	17	4

2021년 창업보육센터에 지원된 정부예산은 총 121억 원이며, 창업보육센터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 등 리모델링비로 6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II-1-1-33 | 창업보육센터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현황

(단위 : 개)

구 분	지 역	선정기관명	
신규	신규지정	강원, 경기, 대구, 전남, 충남, 경북, 세종, 서울 인천, 전남	성남산업진흥원, 리스트(강원사업기술연구소),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빛가람혁신센터), (주)집앤조이, 중부대, 영진대, 경북전문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비체너(동대문지점), 흥익대, (주)미래서비스지사, (주)와이엔에듀테인먼트
		강원	상지대, 강릉원주대
기존 BI	노후시설 개선	경기	안산대, 명지대
		광주전남	호남대
		부산	동서대
		전북	전북대
		충남	충남대
		충북	세명대

또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창업보육 전문매니저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경상비 등 운영비로 75억 원과 창업보육센터별 보육역량강화, 입주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교육, 멘토링 등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37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통해 2021년도 말 기준, 전체 입주기업 매출액 2.3조원, 고용인원 2.3만 명 등의 사업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표 II-1-1-34 | 창업보육센터 운영성과

(단위 : 개사, 억원,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센터수	262	262	260	259	263
입주기업 수	5,907	6,290	6,151	6,190	6,227
매출액	21,109	22,064	21,497	22,150	23,667
고용인원	19,847	21,693	21,943	23,476	23,598

앞으로도, 창업보육센터의 지속적인 운영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율성과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간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의 창업 혁신 주체들과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할 예정이다.



입주기업 멘토링 지원



입주기업 실천투자 대회



선·후배 창업기업 네트워킹

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기존의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10년)하였다.

민간의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 집중 되어있는 반면에 중기부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은 비수도권 도심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여 소규모 중소기업 등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건립 지원에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건립비의 70% 이내로 최대 160억 원 까지 국고를 보조할 수 있고 그 외 건립비와 부지매입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2,734억 원을 지원 하였으며, 현재 10개 센터(1,2,3,4차 선정)가 완공되어 운영 중이고 33개 센터는 건립 중이다. 완공된 10개 센터의 입주기업은 331개사이며 입주율은 평균 89%를 나타 내고 있고 고용인원은 총 2,285명이다.

표 II-1-1-35 | 지식산업센터 운영현황(2021.12)

구분	부산(북구)	대구(북구)	광주(동구)
위치	금곡동 812-8	침산동 999-1	동명동 143-78
규모 (대지,연면적)	지하 1층, 지상 6층 (9,900㎡, 16,226㎡)	지하 1층, 지상 8층 (4,600㎡, 13,479㎡)	지하 1층, 지상 6층 (5,992㎡, 11,650㎡)
공사준공일	'16. 11.	'17. 10	'16. 6.
입주기업	37개사	26개사	53개사
운영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대구 제3산업단지관리공단	광주테크노파크
구분	대구(수성)	대전(동구)	충북(청주)
위치	알파시티1로 160	대동 549번지	양청리 810-13번지
규모 (대지,연면적)	지하 1층, 지상 6층 (5,062㎡, 13,095㎡)	지하 2층, 지상 7층 (4,150㎡, 15,550.71㎡)	지하 1층, 지상 6층 (4,000.3㎡, 8,397.49㎡)
공사준공일	'19. 3.	'20. 3	'19. 12.
입주기업	35개사	28개사	20개사
운영기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한국산업진흥협회
구분	경남(진주)	전북(전주)	울산(남구)
위치	망경남길44번길 22	덕진구 유상로 67	남구 테크노일반산업단 내
규모 (대지,연면적)	지하 1층, 지상 6층 (7,362㎡, 15,856㎡)	지하 1층, 지상 6층 (7,800㎡, 12,212㎡)	지하 1층, 지상 5층 (6,537㎡, 14,481㎡)
공사준공일	'20. 1.	'20. 8.	'21. 3.
입주기업	30개사	45개사	25개사
운영기관	진주시(직영)	(사)캠텍종합기술원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구분	경북(포항)		
위치	북구 흥해읍 경제자유구역		
규모 (대지,연면적)	지하 1층, 지상 7층 (10,000㎡, 13,300㎡)		
공사준공일	'21. 3.		
입주기업	12개사		
운영기관	(재)포항테크노파크		

표 II-1-1-36 | 지식산업센터 건립현황

구분	1차 (' 12.~' 16.)	2차 (' 15.~' 18.)	3차 (' 16.~' 19.)	4차 (' 17.~' 20.)	5차 (' 18.~' 21.)
지역	부산(북구) 대구(북구) 광주(동구)	대전(동구) 대구(수성구) 경남(진주시)	대구(달서구) 충북(청주시) 전북(전주시)	경북(포항시) 울산(남구) 전북(전주시)	부산(남구) 강원(원주시) 충남(천안시) 전남(고흥군)
진행사항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공사중	운영중/공사중	공사중
구분	6차 (' 19.~' 22.)	7차 (' 20.~' 23.)	8차 (' 21.~' 25.)	9차 (' 22.~' 26.)	
지역	울산(중구) 강원(춘천시) 전북(남원시) 전남(나주시) 전남(영광군) 경남(창원시)	부산(강서구) 대구(북구) 광주(북구) 전남(광양시) 전북(전주시) 충남(홍성군) 충북(제천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아산시) 충남(서천군) 충북(충주시) 충북(영동군) 전남(화순군) 경북(경산시)	광주(남구) 강원(강릉시) 충남(금산군) 전북(김제시) 전북(순창군) 경북(영천시) 경남(김해시)	
진행사항	공사중	공사중	설계중	설계준비중	

건립중인 33개 센터는 3차부터 9차까지 선정된 지자체로서 중기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소규모 영세기업에게 장기저가로 임대해주어 입지애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고용확대를 통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로 관련 기업에 대해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 업종을 우선 입주하도록 하고, 업종별 집단화를 통해 집적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입주기업 간 또는 입주기업과 외부기관(대학, 연구기관 등)간 소통, 교류 등을 위한 네트워킹 및 개방형 혁신 공간 등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역의 창조경제 자원과 역량을 연계·활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창업 등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밀착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자율형 방식으로 빛가람(나주), 포스코(포항) 2개 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인력은 내부직원 및 지자체, 전담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파견 나온 인력을 포함하여 각 센터별 평균 3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멘토링, 금융·법률·특허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공모전, 교육·강연,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창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파트너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17년 7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관리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이후 지역창업 기반 마련 및 혁신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는 물론 대기업과의 인위적 연계 등 정부 주도에 따른 부정적 평가에 대해 「혁신 창업 생태계조성방안」('17.11.2.),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18.2.7.)을 통해 혁신센터를 유지하되,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3대 원칙으로 운영하는 지역 창업생태계허브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개편방향을 마련하였다.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 재정립〉

구 분	현 행	개 선
의사결정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지원체계	대기업 경직적 매칭(일방지원)	중견·벤처, 대학 등 자율참여(상생협력)
지자체 참여	자율적 참여 부족	적극적 참여·협력
센터 기능	창업, 중기지원, 특화산업 지원 등 일률부여	초기창업 + 투자기능 집중, 센터별 특화

개편 이후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민간의 다양한 혁신주체('21.12월, 743개)들이 참여하여, 각 센터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파트너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창업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간 소극적으로 참여하던 지자체들도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스스로도 지역의 투자생태계 강화를 위해 액셀러레이터 등록 완료('20.4), 시드머니 확보, 개인투자조합 및 지역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유망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등 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

그림 5 |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전담기업 및 특화기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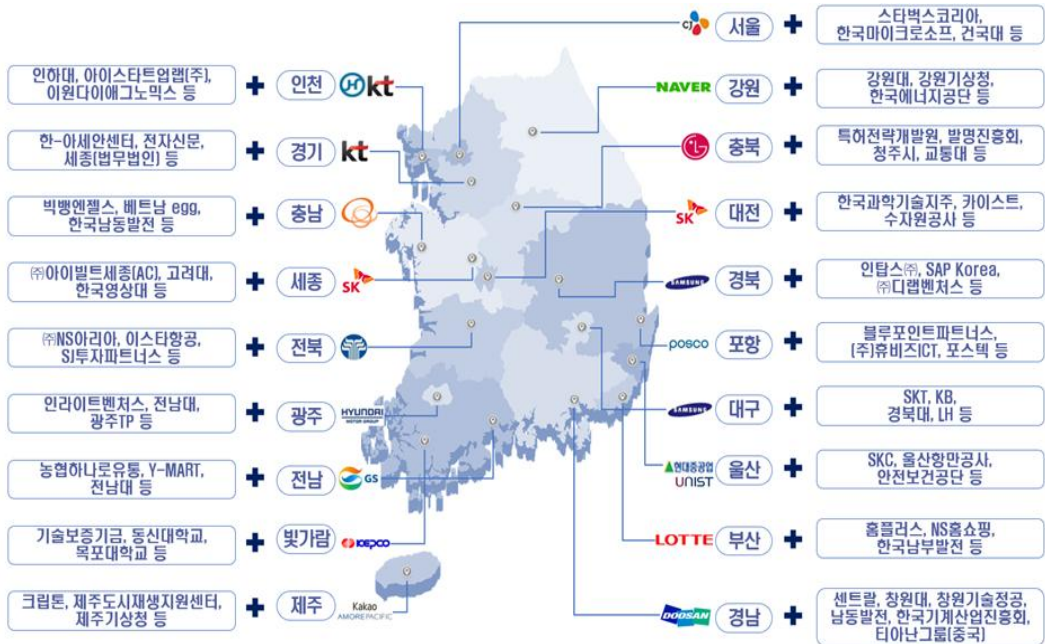


표 II-1-1-37 |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주요기능

지역 (전담기업)	출범	입지	주요 기능
1 대구 (삼성)	'14.9.15	• 북구 삼성창조캠퍼스	• 무인이동체/로봇, 의료/바이오/헬스케어, 그린에너지, ICT/스마트시티, 소셜/콘텐츠 • C-Fab을 메이커 문화 확산 거점으로 활용, 오픈플랫폼 기능 강화
2 대전 (SK)	'14.10.10	• 유성구 KAIST E19	• ICT, AI, 첨단센서, 5G, 공공기술사업화, 소셜벤처
3 전북 (효성)	'14.11.24	• 전주시 전북테크비즈센터	• 탄소융복합, 농생명식품, 금융·핀테크 • 전국 탄소융복합 및 농생명 창업 거점
4 경북 (삼성)	'14.12.17	• 구미시 모바일융합센터	• ICT, 스마트 디바이스, 농·축산식품, 바이오 헬스케어
5 광주 (현대차)	'15.1.27	• 서구 AI스타트업캠프	• AI,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 친환경산업
6 충북 (LG)	'15.2.4	• 청주시 SB플라자	• 바이오
7 부산 (롯데)	'15.3.16	• 해운대구 센텀그린타워	• 스마트시티(IoT), 블록체인, 유통, 해양·물류·관광 • 국내외 유통채널, 온·오프라인 플랫폼 확대를 통한 유통 허브 기능 강화

	지역 (전담기업)	출범	입지	주요 기능
8	경기 (KT)	'15.3.30	• 성남 판교 공공지원센터	· AI, 빅데이터, ICT, 5G, IoT · 미국, 중국 이외에 동남아, 유럽지역으로 협력 거점 확대 · 중소벤처기업·지자체·대학의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확대 운영
9	경남 (두산)	'15.4.9	• 창원시 경남과학기술진흥원	· 기계산업 전반으로 범위 확대, 향노화 · 경남도의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전국 혁신 센터의 기계 분야 스타트업 허브
10	강원 (네이버)	'15.5.11	• 강원대 보듬관·한빛관	· 빅데이터·AI, 디지털헬스케어, 모바일커머스, 로컬크리에이터 · 공공서비스 혁신지원(블록체인 도입 등), 모바일 커머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11	충남 (한화)	'15.5.22	• 천안아산역사, 충남TP	· 태양광, 6차산업 · 전국 무역지원 거점기능 강화
12	전남 (GS)	'15.6.2	• 여수 GS 밸류센터	· 농수산 벤처(창업, 판로), 관광/6차산업, 바이오활성소재 · 농수산 유통 거점기능 강화
13	제주 (카카오)	'15.6.26	• 제주 벤처마루	· ICT 서비스, 로컬크리에이터, 친환경
14	세종 (SK)	'15.6.30	• 조치원읍 SB플라자	· 스마트시티·팜, ICT, 바이오·헬스케어
15	울산 (현대중, UNIST)	'15.7.15	• 울산대, 울산벤처빌딩	· 조선해양, 안전산업, DT, 의료바이오, 3D프린팅 · 전국센터 안전산업 거점
16	서울 (CJ)	'15.7.17	• 용산 푸르지오써밋	· D.N.A. 컨텐츠, 유통, 소재/부품/장비 · 센터간 허브 역할, 지역과-서울의 창업 지원 기관 연계 등 기존 네트워크 거점 기능 확대
17	인천 (한진, KT)	'15.7.22	• 송도 미추홀타워, 남구 제물포 스마트타운	· 스마트물류,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케어 · 중국 진출 거점
민간	포항, 광양 (포스코)	'15.1.30 (포항)	• 포스텍 제1융합관	· 에너지, 환경, 소재 외 바이오 분야 추가 검토 · 기술기반 벤처창업 지원 기능 강화
		'15.8.25 (광양)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광양연구소	· 첨단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 · ECO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부산물 제로화 추진
	나주 (한전)	'17.2.8	• 나주 지식산업센터	· 전력, 에너지신산업(전력ICT, 신재생발전, 전력기자재 등) · 에너지분야 창업 거점, 에너지밸리 활성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6:4 비율 내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1년도에는 국비 364억원, 지방비 266억원을 확보하여 운영하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 이후 기능 개편 등을 통해 창업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 다양한 실적을 내고 있으며, 이는 중기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과 창조경제 혁신센터 간 연계가 강화되고 활성화된 결과이다.

표 II-1-1-38 |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성과('21.12월말, 누적)

창업기업육성	신규채용	혁신센터펀드 및 외부연계투자유치		멘토링·법률·금융·IP 상담지원
		투자유치	투자유치	
13,702개사	38,769명	5,193건	41,587억원	105,602명

마. 메이커 활성화 지원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창의적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실제 창업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의 혁신성장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메이커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조적 혁신의 확산과 혁신성장·창업 촉진을 위한 거점 마련을 위해 2017년 11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을 수립·발표한 후 2018년부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시작하여 '21년 현재 전국에 총 213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였다.

2021년 공모를 통해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을 지원하는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신규 15개와 전문 메이커활동과 제조창업을 연계·지원하는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신규 6개를 선정하여 아이디어가 창업·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시제품 제작, 양산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II-1-1-39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현황('18~'21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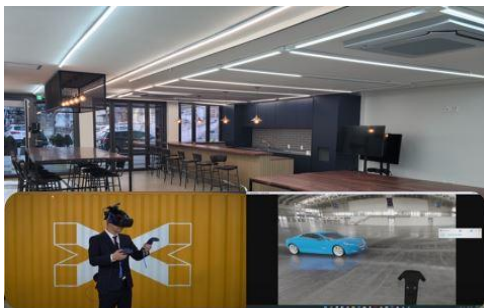
(단위 : 개)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
전문형	4	1	1	1	1	1	1	1	2
일반형	33	34	8	10	7	3	12	8	8
구분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계
전문형	1	1	-	1	1	2	1	-	20
일반형	11	12	6	12	9	8	9	3	193

메이커스페이스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조창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일반랩들이 목공, 금속 등 특정분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다쏘시스템) 협업을 통해 3차원 제품 설계·검증이 가능한 민간협업형 전문랩을 구축하여, 초기 제조창업 기업이 시제품제작을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1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병행하여 메이커의 지속 가능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메이커 활동 및 네트워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메이커 문화의 사회적 저변을 확산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메이크올) 구축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전국적인 메이커 확산을 유도하였다.

메이커 활동을 뒷받침할 인력 양성을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인력, 메이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현장교원 등 온·오프라인 메이커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였다.



민간협업형 전문랩



온라인 통합 플랫폼(메이크올)



메이커 우수사례집



메이커 행사 지원

그간 정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집중 확산 위주의 정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 국민의 메이커 입문교육·체험, 장비·시설 이용을 적극 지원하며 메이커 저변을 확충해왔다. 다만, 일자리·혁신의 원천인 제조창업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앞으로는 제조 창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메이커 스페이스의 창업 연계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퇴직의 본격화 및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조기 퇴직한 중장년(4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년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창업 지원이 시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준비 없는 창업을 할 경우 대부분 영업부진,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생계형 자영업(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 등) 분야로의 쏠림현상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이 퇴직 전 경력, 전문성, 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장년 창업 활성화 정책을 2010년부터 실시하였다.

2014년부터는 교육내용 및 사업구조를 기술창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중장년 창업이 생계형 업종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성장가능성 높은 기술 창업으로 중장년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경력·네트워크 전문성을 보유한 만40세 이상 중장년(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창업교육과 창업거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장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 전문가 자문·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전국에 7개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33개소로 확대·운영하는 한편, 중장년의 전문성을 고려, 창업만이 아닌 창업생태계에 적합한 역할(기술멘토, 기술강사, 투자자 등)로 참여하고 전문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1년부터 기술·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중장년 창업자 발굴을 위해 노사발전재단, 국방전직교육원, 국가과학기술개발원, 한국조폐공사 등(예비)퇴직인력 집적기관과 연계하였으며, 중장년 기술창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협력 기관을 추가 발굴하여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1년 맞춤형 기술창업 교육과 입주공간 지원 및 보육을 통해 1,000개사 창업기업 배출을 했고, 입주공간 지원 및 보육을 통해 매출액 1,226억 원, 고용 995명을 달성했다.

표 II-1-1-40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주요성과(2021)

구 분	창업자수	고용인원	매출액	산업재산권 (특허등록기준)
2018년	보육 : 793명 교육 : 212명	476명	62,084백만원	237건
2019년	보육 : 731명 교육 : 209명	436명	60,397백만원	307건
2020년	보육 : 792명 교육 : 242명	901명	105,492백만원	282건
2021년	보육 : 747명 교육 : 253명	995명	122,640백만원	324건



예비퇴직자 기술창업 인식교육



과학기술인 특화 역량교육



전담인력 역량강화교육

5

1인 창조기업 활성화

▪ 창업촉진과 문 창 식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부동산 등 32개 업종 제외)으로, 기술지식 기반 1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1년 법을 제정하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마케팅·판로개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 제공 및 전문가 상담·교육·네트워킹 등 원활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09년 전국에 21개의 센터를 지정하였고, '22년 기준 48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원센터 입주기업 보육 및 창업지원을 통해 2021년 연간 1,511개사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교육 11,368명, 경영자문 1,045건을 지원하였으며, 매출 165,434백만원 및 고용 창출 1,007명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II-1-1-41 | 2022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

년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소계
22	11	2	9	22	2	4	1	3	4	4	1	3	1	1	2	-	26	48

표 II-1-1-42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사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데스크 (1인 전용 사무공간, 서비스드오피스) 편의시설(회의실, 빔프로젝트, 라운지, 프린트, 카페 등)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등, 아이템 시장 멘토링 교육, 사업·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정보제공 등
교육·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모델(BM) 개발 (사업계획서, 피보팅 등) 아이템 검증, 교육·투자 등
네트 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업종별 창조기업 네트워킹 확대 1인 창조기업-우수창업기업 간, 입주-졸업기업간

나. 1인 창조기업 마케팅·판로개척 지원

‘1인 창조기업 마케팅·판로개척 지원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유하고도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1인 창조기업에 맞춤형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사업화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유망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디자인, 광고홍보 등을 통해 제품과 아이디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 당 최대 12백만원까지)

표 II-1-1-43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구분	과제	세부 지원 분야
마케팅 지원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모바일 앱(웹), 홍보동영상, CM송제작
	디자인	전자·종이카탈로그, 포장·포스터·제품디자인, 브랜드개발
	광고 홍보	TV·라디오·옥외 광고, 신문·전문지 홍보, 온라인 홍보
	전시참가	국내·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부스) 지원

표 II-1-1-44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사, 명)

연도	예산	신청	선정	고용
2016	51.9	2,081	463	314
2017	40.0	1,829	437	752
2018	29.0	1,320	279	416
2019	15.0	1,432	150	198
2020	12.2	511	151	246
2021	8.0	394	194	300

또한, 상품설명회, 구매상담회, 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마켓 입점 등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활동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혁신제품들을 지원하여 유통채널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 및 MD 상담회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네이버)



온라인마켓 입점지원
(위메프)

제2절 벤처열기 확산을 통한 혁신벤처국가 실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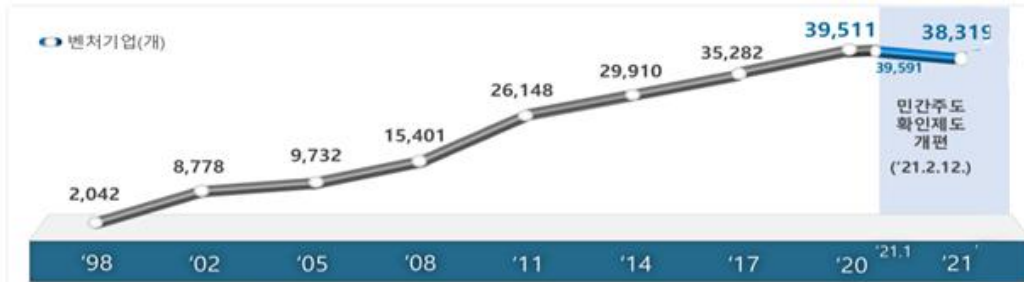
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

- 벤처혁신정책과 이 창 연
- 벤처혁신정책과 이 상 영
- 벤처혁신정책과 강 해 준
- 벤처혁신정책과 정 기 순

그동안 벤처기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3만개를 돌파하였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38,319개를 기록하고 있다. 벤처확인이 최초로 시작된 1998년 2,042개에 비해 18.8배로 성장하였다

그림 6 | 연도별 벤처기업 추이

(단위 : 개)



벤처생태계 성숙에 따라 유니콘기업도 '17년 3개에서 '18년 6개, '19년 10개, '20년 13개, '21년 18개 로 급증하였다. 유니콘기업은 '벤처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를 10억\$(약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은 비상장기업'을 의미한다.

그 간 공공기관 중심 벤처확인제도('06~'20)는 벤처기업 수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보증대출 유형에 편중(85%)되었고, 재무적 성과 위주의 확인으로 벤처다운 벤처를 발굴하는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21년 2월부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개편하였고, 기존의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는 혁신성장유형을 신설하여 벤처기업을 확인하고 있다.

그 결과, 벤처투자유형 및 연구개발유형 비율 증가로 벤처확인 유형 편중 현상이 완화되었는데, '21년 벤처기업 전체를 유형별로 보면, 제도변경 직전인 '20년말에는 보증대출 유형이 가장 높은 85.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1년 2월에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되면서 '21년말에는 벤처투자유형 10.5%, 연구개발유형이 7.3%에서 11.6%로 증가했다.

표 II-1-2-1 | 유형별 벤처기업수(2020년, 2021년)

구분	'20년말 기준		'21년말 기준		비율 증감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벤처투자유형	2,888	7.3	4,022	10.5	3.2%p
연구개발유형	2,886	7.3	4,454	11.6	4.3%p
보증대출유형	33,615	85.1	20,180	52.6	▽32.5%p
혁신성장유형	-	-	9,485	24.8	24.8%p
예비벤처	122	0.3	178	0.5	0.2%p
합계	39,511	100.0	38,319	100.0	

가. 벤처기업 성과

벤처기업은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20년 말 총 고용은 81.7만명으로 4대그룹 고용 69.8만명 보다 11.9만명 더 많고 총 매출액은 206.9조원 재계 2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4.4%로, 대기업 1.8% 대비 2.4배 높고, 특히 중소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 비중 0.8%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국내 산업재산권은 27만 5,907건으로 국내 산업재산권 55만 7,265건의 절반(49.5%)에 해당된다.

〈2020년말 벤처기업 고용매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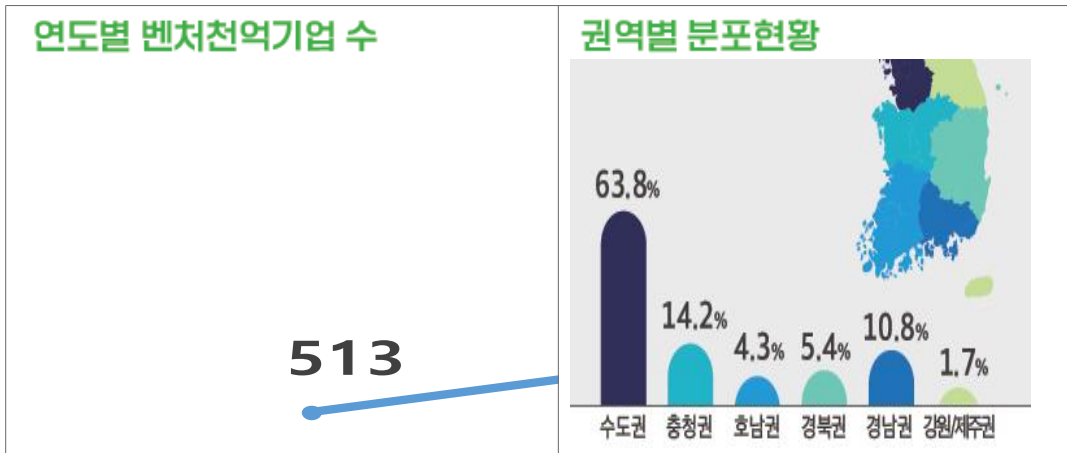


* 출처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벤처천역기업조사, 기업집단포털

또한 창업 이후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매출 1천억 원 이상까지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벤처출신 매출 천억 달성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년말 기준 벤처천억기업은 '19년말 617개사 대비 16개 증가한 633개로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5조원 증가한 151조원, 총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8,668명 (3.7%) 증가한 24.2만명으로 조사되었다. 벤처천억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1%로, 대기업 1.8%, 중견기업 1.2% 보다도 높고, 특히 중소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 비중 0.8%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것을 나타냈다.

〈2020년말 벤처천억기업수, 권역별 분포현황〉



나. 벤처기업 지원현황

2021년 벤처정밀조사 결과 벤처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판로개척',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순이었다. 벤처기업의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직종(1+2순위 기준)은 연구개발이 7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산·품질(51.3%), 홍보·마케팅·영업(41.2%), 전략·기획(22.5%) 등의 순이었다. 벤처기업의 인력확보 애로 직급은 대리급이 75.1%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중간 관리자급(58.7%), 사원급(52.8%) 순으로 나타났다.

1) 벤처기업 인력지원

중기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우수인력의 벤처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벤처기업 공동채용 및 공동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은 벤처기업들의 부정기적인 소규모 개별모집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기업별 수요를 모으고 기간을 정하여 공동으로 인재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채용기업들의 자격을 매출액, 성장률, 연봉수준이 높은 우수한 벤처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대학생 등의 관심 유도과 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효과도 꾀하고 있다.

2021년 벤처기업 일자리 채용 연계 실적*은 3,867명으로 목표(3,550명) 대비 108.9%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이후 고용시장 위축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00명 감소한 3,450명 목표하고 있다

* ('16) 3,545명 → ('17) 3,567명 → ('18) 3,571명 → ('19) 3,608명 → ('20) 3,787명

공동훈련 지원사업은 벤처기업 신입 직원들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이해와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대면교육 참여부담에도 불구하고 400명을 교육하였다.

향후 5년간 SW분야 신규 인력수요는 35.3만명이나 공급규모는 약 32.4만명으로 약 2.9만명 이상 부족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라는 이름하에 관할 5개 협단체를 통해 2,000여명 규모의 3~6개월 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교육생의 50% 이상을 협약된 벤처기업에 채용을 중기부와 협회가 지원하며 채용매칭 지원, 참여기업 대상 중기부 사업* 가점(+5)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채용설명회 및 신입사원 공동훈련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용부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비 및 장려금 국비지원, 채용 후 인건비 지원**할 예정이다

* R&D, 판로, 수출, 인력(산업기능요원), 창업 등 6개 분야, 18개 지원사업(11,642억원 규모)

** 장려금(훈련생 대상 월 30만원 내외), 인건비(1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80만원)

2) 여성벤처 활성화

여성벤처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참여 비중은 OECD 대비 최하위 수준*이며 전체 혁신형 벤처기업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0% 내외**에 불과하여 경쟁력 제고와 창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의 균형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 '20년 기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9.1%로 OECD(평균 63.8%) 38개국 중 32위

** 혁신형 벤처기업 중 여성기업 비중 : 벤처기업(10%), 이노비즈(7.1%), 메인비즈(2.4%)

여성벤처CEO를 꿈꾸는 예비창업자에게 비즈플랜 캠프 → 선배 CEO 밀착코칭 → 사업화 애로해결지원 등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실제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실전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들이 여성벤처 선배CEO 1:1 코칭을 통해 부족한 시장정보를 얻고 사업방향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벤처의 등용문으로 수요의 지속적 증대중이며 '22년 지원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지원 신청 폭주해 경쟁률이 12:1에 이를 정도의 시장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여성벤처 CEO 및 임직원 대상의 혁신 아카데미를 권역별로 개최하여 기술 및 경영관련 정보 등을 제공,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경쟁률: ('17) 3.4:1 → ('18) 3.9:1 → ('19) 4.1:1 → ('20) 5.1:1 → ('21) 5.1:1 → ('22) 12.1:1

2022년에는 여성에 특화된 창업기획자를 발굴해 맞춤형 교육·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협력네트워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로 '22년 사업의 경우 비스퀘어(부산시 소재) / 씨엔티테크(서울시 소재) 기선정한 바 있다. 창업기획자에게 직접 자체자금 투자(기관별 3개사)부터 연계 프로그램 지원운영 의무를 같이 부여해 혁신적인 우수 성공사례 도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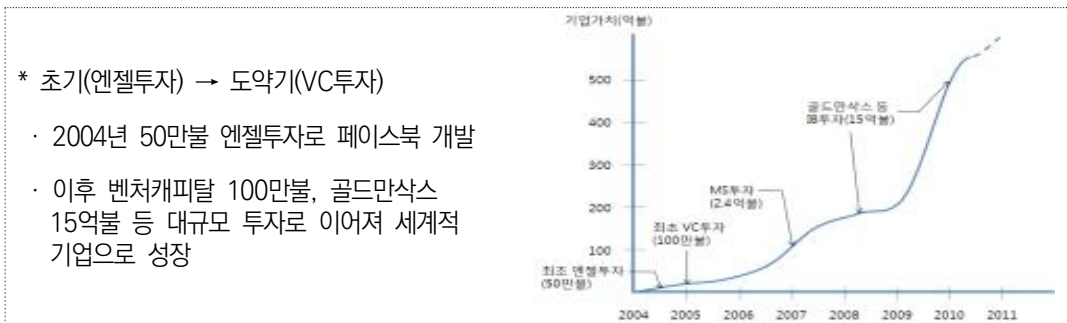
2 벤처투자 현황

- 투자회수관리과 최 형 민
- 투자회수관리과 윤 원 민

벤처투자는 담보나 상환부담이 없고 성공시의 이익뿐만 아니라 실패시의 책임도 투자자와 함께 공유하는 특성이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벤처기업에게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중 가장 유용한 자금이다.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이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을 먼저 발굴하고 투자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7 | 미국의 벤처투자 성공사례 : 페이스북



2021년 우리나라의 신규 벤처펀드¹⁰⁾ 조성 규모는 9조 2,171억 원으로 전년 6조 8,808억 원 대비 약 34.0% 증가하였고, 신규 투자 금액은 7조 6,802억 원으로 전년 4조 3,045억 원 대비 약 78.4% 증가하며 펀드결성, 투자금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벤처투자 시장 활황은 이어지고 있다.

표 II-1-2-2 | 연도별 신규 벤처캐피탈투자(VC) 규모

(단위 : 개사,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투자업체수	692	755	902	1,045	1,192	1,266	1,399	1,608	2,130	2,438
투자금액	12,333	13,845	16,394	20,858	21,503	23,803	34,249	42,777	43,045	76,802

10) 벤처펀드 규모 및 신규투자 집계는 중기부에 등록하는 벤처투자조합(舊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준임

2021년 엔젤투자¹¹⁾ 투자규모도 제1 벤처붐 시절인 2000년 5,493억 원 수준에서 2배이상 성장한 1조 1,47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최대 실적을 기록한 9.2조 원의 펀드결성을 통한 풍부한 투자 여력,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유망 업종으로 떠오른 바이오·의료, ICT서비스 등의 투자 증가, 코스닥 1천 돌파로 더욱 커진 회수시장에 대한 기대감 등이 투자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표 II-1-2-3 | 연도별 신규 벤처투자조합 결성 현황('21년말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조합수	41	55	82	108	120	164	146	170	206	404
결성금액	8,757	17,191	26,100	25,964	36,764	45,856	48,427	42,411	68,808	92,171

11)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의 직접투자 및 개인투자조합 투자 기준

3

벤처투자 확대

- 벤처투자과 신규호
- 투자회수관리과 서정남
- 벤처투자과 김정훈

가. 모태펀드 운영

정부는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의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을 설립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2021년까지 총 7조 2,775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였다.

표 II-1-2-4 | 모태조합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5년~'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계	22,302	2,130	9,750	6,115	4,920	13,265	14,293	72,775
중기부	13,191	1,000	8,300	4,500	2,900	10,000	10,700	50,591

그간 모태조합을 통해 조성된 자펀드는 1,015개, 총 32조 9,353억원 조성('05.6~'21.12월, 누계)이며, 총 8,373개사 중소·벤처기업에 25조 3,382억 원을 투자하였다.

특히 '21년 4조 3,372억원 규모 모태자펀드 신규 조성 및 모태자펀드를 통한 신규투자 3조 9,018억원으로 집계되어,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21년 역대 최대 벤처펀드 결성(9조 2,171억원) 및 신규벤처투자(7조 6,802억원) 등 벤처투자 시장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모태펀드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5 | 모태조합 자조합 결성 및 투자 현황('21년 말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결성	26,133	34,402	31,563	26,919	37,290	43,372
투자	17,436	17,936	24,392	30,882	32,289	39,018

'21년 민간 멘토기업과 협업하여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1.1조원 규모 조성하여 '20년 조성된 1.6조원을 포함, 총 2.7조원 규모로 혁신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나. 엔젤투자 활성화

엔젤투자는 제1벤처붐 시절인 2000년에 5,49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IT 버블이 꺼지면서 엔젤투자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341억원 까지 급감하였다.

이에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및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 엔젤투자는 11,477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2년에 엔젤투자 저변확대를 위해 엔젤투자자가 초기창업기업에 선투자 후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1,920억원)는 2021년까지 1,220개사에 1,585억원의 매칭투자를 실시 하였다.

특히,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은 기업 중 371개사는 VC로부터 5,781억원의 후속투자를 받아 성장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11개사는 M&A가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라 엔젤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기존 1,500만원까지 받던 소득공제 100% 혜택을 3천만원까지 확대하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50%에서 70%로 확대하였다.

표 II-1-2-6 | 엔젤투자 소득공제 현황

기 존			현 행 (18년 시행)	
1500만원 이하	100%	→	3,000만원 이하	100%
1,500~5,000만원	50%	→	3,000~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공제 대상기업도 벤처기업, 기술성평가 우수 초기창업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3천만원 이상 초기창업기업에서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받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등을 추가하여 엔젤투자 세제 혜택 대상기업을 확대하였다.

개인의 엔젤투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엔젤리더스포럼, 지역 포럼 등을 추진 중이며 엔젤투자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엔젤투자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IR, 온라인 포럼 등을 실시하여 온라인으로도 엔젤투자자와 초기창업기업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네트워킹을 강화하였다.

수도권 중심의 엔젤투자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1년에 '엔젤 투자허브'를 충청권과 호남권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구축하였다.

* 엔젤투자·창업 인프라가 우수한 충청권(대전·충청시·충청도), 호남권(광주·전남시·전남도)

허브에서는 지역 민간 창업·투자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하여 엔젤투자 인식개선, 투자자 발굴 및 육성, 창업기업 IR 컨설팅 및 투자자 매칭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엔젤투자 활성화 추진에 따라 엔젤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엔젤투자 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투자자 수는 2021년에 3,067명이 증가하여 총 27,206명에 이르렀으며, 엔젤클럽도 2021년에 10개가 신규 결성되어 총 264개의 엔젤클럽이 활동 중이다.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창업기획자는 2017년 등록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말에는 359개사가 등록되었고 총 3,662개 기업에 6,014억원을 투자하고 3,852개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편,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2020.8)한 이후 2021년말까지 56개 조합이 4,625억원을 결성하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2018년 엔젤투자는 6,417억원으로 제1벤처붐 시절 5,493억원을 돌파하였으며 2021년에는 창업기획자 등 전문투자자 그룹이 늘면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 엔젤투자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투자 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중 선택적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여 '18년 투자는 '18 ~ '21년까지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

표 II-1-2-7 | 엔젤투자 실적(신규)

(단위 : 억원, 개사)

구분	2000년	2001년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투자금액	5,493	3,409	341	950	2,573	3,332	6,417	6,363	8,413	11,477
기업수	1,291	1,007	83	252	547	703	1,299	1,654	2,064	2,135

4

회수시장 활성화

- 벤처투자자 이 총 민
- 벤처투자자 오 선 혜

2021년 국내·외 M&A 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에도 전년도 대비 69.4%가 증가한 약 5,153조원을 기록하였다.

* 출처 : Mergermarket(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M&A 현황), 1\$=1,100원 / 1EUR=1,300원 기준

국내 M&A 시장의 경우 522건, 782억 6,600만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전년 대비 거래건수는 33.5% 거래금액은 76.2% 증가한 실적으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도 거래건수는 14% 거래금액은 44.6% 증가를 보였다.(출처 : Mergermarket, M&A 전문 분석업체)

벤처투자 회수는 전년(3조 6,876억원) 대비 약 63.3% 증가한 6조 224억 원이었으며, M&A, 장외거래 등 매각을 통한 회수비중은 51.9%를 기록하였다.

표 II-1-2-8 | 벤처투자 회수 규모(2021년)

(단위 :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벤처투자회수	23,222	36,876	60,224
매각(M&A, 장외거래 등)	10,018	11,644	31,263
비중	43.1	31.6	51.9

*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는 사인 간의 거래로 거래추진 및 계약정보 공유를 절차상 정부의 직접 개입에는 한계가 있으나, 그간 정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절차 간소화, 인식개선 활동 및 지원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도입('13.5) 및 대상 확대('14.3),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에 따른 계열사 편입 유예 7년으로 확대('15.7), 벤처기업 재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및 창업·벤처기업 전용 PEF(사모펀드) 설립근거 마련('16.7)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을 통해 대기업이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M&A시 인수·합병대가로 50%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M&A에 대한 걸림돌을 완화하고 세제혜택 등 지원도 강화하였다.

2018년 2월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통해 기술자료 거래 시 비밀유지 협약서(NDA) 체결을 의무화 하고, 기술 임치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한편,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하였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공정위와 함께 M&A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 등을 완화하는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12월에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방법을 개선하였고,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였다.

표 II-1-2-9 |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선안
< 설립요건 > ■ 자산규모 기준 ■ 벤처자회사 범위	■ 5000억원 이상 ■ 벤처기업만 포함	■ 300억원 이상 ■ R&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포함
< 행위제한 규제 > ■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 손자회사로 벤처지주설립시 증손회사 요건	■ 지분 5% 이내 ■ 증손회사의 지분 100% 보유 의무	■ 폐지 ■ 기존 증손회사 지분보유 특례(50%)적용
< 인센티브 >	-	■ 대기업 편입유예 확대(7→10년)

2019년 3월에는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통해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M&A 촉진을 위해 2021년까지 1조원의 M&A 전용 펀드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21년 0.1조원 규모의 M&A전용펀드를 조성하여 유망기술을 보유한 벤처창업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을 공급중이다.

2021년 12월에는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신속·적극적인 투자 전략적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 및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21. 12. 30.)되었다.

표 II-1-2-10 |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주요내용

세부항목		주요내용
①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허용
② 설립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지분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부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
③ 부작용 방지	업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행위 (여신 등 타 금융업 금지)
	외부자금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조성금액의 최대 40% 내에서 허용
	투자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20%로 제한, 설립유형별 소관법* 적용 * (창투사) 총자산의 40% 이상 창업·벤처기업 투자 (신기사) 신기술사업자에만 투자
	투자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 계열회사 ■ 대기업집단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투자지분을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회사로서 비지주회사 계열사에 매각 금지
④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VC 출자자 현황, 투자실적 등에 대해 공정위에 정기적 보고
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회사 편입 유예기간 확대(7년→10년)
·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M&A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7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現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삼일회계법인, 벤처기업협회 등 4개 기관을 M&A 지원센터로 공식 지정하여 M&A 관련 상담,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개최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4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5년 신용보증기금, 2016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은행, 한국M&A협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자금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M&A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2개 기관이 지정 취소되고, 2021년 12월에 법무법인 세움, 삼정회계법인, 티에스인베스트먼트, 한국M&A거래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5개 기관이 추가 지정되어 12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M&A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M&A 거래소 역할이 가능한 전문 자문기관 간 거래 플랫폼인 M&A 거래정보망(www.mna.go.kr)을 2012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M&A 거래정보망에는 벤처캐피탈·회계법인·법무법인·소형 M&A자문사 등 53개의 M&A 전문 자문기관이 등록되어 활동 중이다.

2012년 이후 2021년까지 M&A를 희망하는 매도·매수기업 6,471건이 등록되어 631건의 M&A가 성사되는 등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거래정보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M&A를 통한 신기술 획득 등 성장동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를 통해 2004년 이후 46개 조합 22,689억 원 규모의 M&A펀드가 결성되어 2021년까지 302개 기업에 15,936억원이 투자되었다.

이렇듯 M&A는 기업입장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결합하여 신속하게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압축 성장을 실현할 수 있고, 창업가의 원활한 회수를 통한 재도전과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촉진 등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제3절 재도전 환경 조성

1

신속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 재도약정책과 정 미 리
- 재도약정책과 모 윤 택
- 재도약정책과 윤 상 요
- 재도약정책과 박 병 규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전환과 경영악화에 따른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실패가 ‘주홍글씨’가 되어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부실채권을 정리(소각)하는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ERA)에서 발표한 “2021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에 따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20년(43개국/43위), ’21년(47개국/46위)를 기록(낮을수록 실패의 두려움이 없음을 의미)하는 등 대폭 개선되었다.

표 II-1-3-1 | 2021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결과('22.2)

항목		년도 (국가수)	'16 년 (64)	'17 년 (54)	'18 년 (49)	'19 년 (50)	'20 년 (43)	'21 년 (47)
창업에 대한 개인적 인식	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기회가 있는 자 중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망설이는가?)	지수	31.5	32.2	32.8	7.1	13.9	14.7
		순위	43	35	28	50	43	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에 따른 과중한 채무, 신용등급 회복의 장기화 등은 실패 이후 재기하는 데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19~'21, 창업진흥원) 재창업 지원사업(재도전성공 패키지) 신청자의 평균 체납액은 35.6백만원에 달해 재기에 필요한 소요자금 외에도 채무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또한, '21년에 '10~'20년에 재창업사업을 지원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후 재창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①자금부족(49.2%), ②폐업으로 인한 신용등급의 하락(26.0%), ③폐업 시 발생한 채무 미해결(16.6%)등을 꼽고 있으며,

표 II-1-3-2 | 재창업 애로사항('22.2, 창업진흥원, 재창업 실태조사)

구분	내용
창업진흥원('21)	폐업 후 재창업 시 가장 큰 걸림돌로, ①자금부족(49.2%), ②폐업으로 인한 신용등급의 하락(26.0%), ③폐업 시 발생한 채무 미해결(16.6%) 등 응답
현대경제연구원('16)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 체납 국세, 신용불량의 정보 공유,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이 재창업 저해의 주된 원인
재창업자금 지원성과 분석('15)	재창업 주요 애로 요인은 ①기존 채무규모 과다 ②경기침체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판로부족) ③자금부담 順으로 집계

재창업 시 소요자금은 개인 184 백만원, 법인 325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자금 조달시 정부금융을 활용한 비중(44.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1-3-3 | 재창업 시 자금조달 방법('22.2, 창업진흥원, 재창업 실태조사)

구분	조사결과
재창업 자금조달 비중	①정부금융(44.6%), ②자기자본(36.9%), ③민간금융(10.6%), ④투자유치(3.9%)

이에 따라 정부는 재기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후속지원(타 창업사업화, R&D 연계, 성과창출 자금 지원) 등 원활한 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 재창업 교육

재도전 기업인들이 재도전 의욕을 고취하고, 과거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성공적 재창업이 될 수 있도록 재창업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재창업 교육은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투자, 마케팅, 유통 등 재창업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였고, 온라인 강의 제공으로 참여 재창업자들의 편의를 향상하였다.

나. 재창업 자금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자금 조달 문제는 재도전 희망 기업인이 재기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재창업자금을 도입 운영 중이다.

이는 과거 실패 기록으로 인해, 민간금융 이용이 제한적인 재기기업의 애로를 감안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재도전 마중물을 제공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재창업자금은 사업실패로 연체·공공기록 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저 신용자로 분류되어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재도전 기업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성·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용자지원한다.

2021년도 재창업자금 지원규모는 1,000억원으로 업체당 최고 60억원(운전자금 5억원) 이내로 재창업시 소요되는 시설(10년 이내) 및 운전자금(6년 이내)을 신청할 수 있다.

표 II-1-3-4 | 재창업자금 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재창업자,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자 - 고의부도, 회사자금유용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은 자(성실실패자) 	직접 대출 (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 10년(4년거치 6년상환) - 운전자금 : 6년(3년거치 3년상환)

재창업자금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5,596개사에 총 8,560억 원을 지원하여 정직한 실패기업인이 원활하게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향후에도 재창업자금 규모 확대 및 멘토링,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연계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성장→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II-1-3-5 | 재창업자금 연도별 지원 실적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지원기업수 (개사)	15	90	131	263	376	502	576	710	708	813	758	654	5,596
지원금액 (억원)	15	124	202	406	513	700	1,000	1,000	1,200	1,200	1,200	1,000	8,560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교육부터 사업화자금까지 패키지 지원으로 우수 재창업자를 육성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2015년도에 35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2021년에는 140억원으로 207명의 (예비)재창업자를 지원하였다.

예비재창업자나 재창업 7년 이내인 재기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75%(최대 1억 원 이내)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업이 본격 확장되는 시점에는 재창업자금을 활용하여 재창업에 성공하더라도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다만, 이 시점에도 신용등급의 상향이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민간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재도전 기업인들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14년 169억 원, 2015년 150억 원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였다. 조성된 펀드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재도전기업에게 적극 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 추경으로 조성한 3,305억 원 재기지원펀드도 11개 운용사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경영위기기업의 발굴 및 회생 지원

진로제시컨설팅과 회생컨설팅을 통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 진로제시컨설팅 결과에 따라 구조개선자금, 회생컨설팅, 사업정리 등 후속 자금 및 컨설팅을 연계 지원한다.

1) 진로제시컨설팅·회생컨설팅 운영

진로제시컨설팅은 전문가가 연간 평균 286개사 내외의 경영위기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제시하고, 구조개선, 회생절차, 사업정리 등 후속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전용자금도 연계 지원한다. 2021년의 경우 총 233개사가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았다.

회생컨설팅은 연간 평균 89개사 내외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수립, 인가까지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회생을 지원한다.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2021년의 경우 총 76개사가 회생컨설팅을 받았다.

아울러, 2014년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첫 설치한 이후 2015년 부산, 대전에, 2016년 인천, 대구, 광주, 경남에, 2017년 경기, 서울서부, 2018년 전북, 강원, 울산, 경기북부에, 2019년 충북, 경북, 제주, 전남, 충남에, 그리고 2021년 세종에 추가 개소하여 전국에 총 19개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도전 기업인에게 재기 상담부터 신용회복, 멘토링, 회생, 재창업 등 맞춤형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 컨설팅 기능 보강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재도전지원정책의 허브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2) 구조개선 전용자금 지원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위한 구조개선 전용자금은 2015년부터 300억원 내외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낮거나 제도 금융권에서 사실상 자금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돕고 있다.

라.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1)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사업 개요

2006년 3월 제정하여 같은 해 9월에 시행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외부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있다.

기존 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R&D·유휴설비 매각·세제 지원 등의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전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제출한 사업전환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계획 승인, 정책자금 융자 및 지원사업 연계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에는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21.7)을 수립해서 사업전환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전환의 인정범위를 기존 2개 유형(업종전환 및 업종추가)에서 신사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도입, 새로운 제공방식 도입까지 확대한다. 사업전환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설치와 행정규제 해소 절차도 도입한다. 이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1년10월 발의되어 개정을 논의중에 있다.

표 II-1-3-6 |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사 업 전 환 내 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00% 완전전환
업종추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신규 업종 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 수 30% 이상 전환

*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 또는 폐기(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영요령 제2조)

2) 2021년 사업전환 지원실적 및 성과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사업전환을 위하여 2021년에는 총 114개사의 사업전환 계획을 신규로 승인하였다. 사업전환계획 승인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업종추가가 97.4%인 111개사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전환은 2.6%인 3개사였다.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3년간 계획을 이행하고, 전환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융자) 및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을 후속지원을 받게 되는데, 2021년에는 사업전환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II-1-3-7 | 사업전환 지원 추진실적

(단위 : 개사, 억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전환 계획 승인	126	107	100	226	114
사업전환 자금지원	1,250	1,300	1,100	1,570	1,000

2020년 사업전환을 종료한 8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실적 및 성과를 조사한 결과, 사업전환계획 승인 전보다 총매출액은 평균 49.4%, 고용은 57.3%, 수출은 9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전환 승인기업의 이러한 경영성과에 비추어 볼 때,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운전자금 융자, R&D 등 지원사업의 연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사업전환 기업의 성과제고에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재도전 친화적 제도 개선

- 기업금융과 고건호
- 재도약정책과 모윤택
- 재도약정책과 윤상요
- 재도약정책과 박병규

가. 연대보증 폐지 등 실패부담 완화

연대보증 폐지는 중소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으로 제기되어 왔다. 연대보증은 부족한 담보력을 신용으로 메움으로써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 실패 시 부담해야 할 과도한 채무는 혁신 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을 2012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이를 통해 개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폐지 하였으며, 법인기업은 대표이사·최대주주 등 공식적 지위에 있는 책임자 1인만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었다.

이후 꾸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7년 8월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2018년 4월부터는 업력에 관계없이 신규 용자·보증 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2018년 9월부터는 기존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추어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다.

표 II-1-3-8 |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경과

주요 내용	시 기
제3자 연대보증 제도 전면 폐지	제1금융권('12.5), 제2금융권('13.7)
우수기술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정책금융기관('14), 18개 민간은행('14.8)
평가 우수기업 연대보증 면제	중진공('15.1)
창업 5년까지 연대보증 면제	신·기보('16.2)
창업 7년까지 연대보증 면제	중진공, 신·기보, 지역신보('17.8)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II-1-3-9 |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 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1,235억원	24,999억원	38,585억원	34,802억원
신용보증기금	55,855억원	77,831억원	121,522억원	93,019억원
기술보증기금	35,661억원	39,473억원	66,300억원	41,608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6,493억원	9,094억원	15,022억원	13,95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14억원	1,809억원	1,640억원	2,372억원

아울러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정책금융기관(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조4천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1조8천억원을 기관별로 관리종결(소각) 하였다.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30~90%까지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중소기업인은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향후 기존 연대보증의 단계적 폐지의 차질 없는 진행과 부실채권의 적기 정리 등을 통해 실패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신속한 회생 지원

경영위기기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중 법적인 제도인 회생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회생제도 활용기업의 대부분(93%, '13년 기준)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려 중소기업의 애로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13년 10월)에서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생 절차 및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년 6월 간이회생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담보·무담보 채무총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여, 간이회생의 장점인 절차와 기간을 줄이고 회생 가결요건을 완화한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신용회복 및 실패를 포용하는 문화 조성

채무조정을 통해 실패 중소기업인들이 보유한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재창업 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용회복 및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3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중인 중소기업인이 신용회복을 신청할 경우 도덕성 평가와 사업성 평가를 거쳐 채무를 조정(이자 : 전액, 상각채권 원금 : 최대 70% 감면, 정책금융기관은 최대 75% 감면,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등)하고 있다.

표 II-1-3-10 |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내용

대 상	지원 내용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30억원 이하 채무 보유 중소기업인	이자 전액, 상각채권 최대 70% 이내에서 원금감면 (정책금융기관 최대 75%)	조정 후 채무 기준 - 2억원 이하 : 최장 3년 - 2억원 초과 : 최장 5년 (유예기간 중 무이자)	조정 후 채무 기준 - 2억원 이하 : 최장 8년 - 2억원 초과 : 최장 10년

재창업지원위원회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에게는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을 통해 30억 원 내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1월부터는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재창업기업은 정부로부터 기술성·사업성을 인정받은 점을 감안, 과거 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재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신용정보와 연체기록 삭제를 확대 적용하여 신용등급 개선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국세의 체납처분 유예 및 징수유예 제도를 시행하여,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고, 상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일반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 각각 9개월, 12개월인데 비해 재기기업인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재기 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사업 재기 지원을 위해 매출액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2023년 12월31일)하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한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도입한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면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성실경영 노력, 재기준비도 등이 우수한 성실 기업인에 대한 재기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주요 개편사항〉

구분	현행	개편
평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재창업지원기관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기관(1개) 지정운영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

구분	현행	개편
평가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위반 여부 위주로 5개 항목* 평가 → 재창업사업 신청자격 부여 * 재창업 전 실제 경영여부, 기업경영 관련 법 위반, 노동 관계 법 위반, 금융질서 문란, 불성실 경영사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의 평가항목으로 간소화 * 재창업 전 실제 경영여부, 기업경영 관련 법 위반, 노동 관계 법 위반 등
심층 평가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3개 평가항목 통과자 중 희망자* * 민간 참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성실경영 노력, 재기준비도 등 심층평가에 통과한 경우에 한 함 ■ (혜택) 교육컨설팅 상시 제공,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 우대(서면평가 면제 등)

우리 사회 속에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재도전의 날'을 개최하여 실패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나누는 장(場)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책금융기관(지역신보, 중진공, 기보) 부실채권 소각 행사를 함께 개최해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부실채권 소각 현황을 점검했다.

*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행사를 종결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전히 해소

소각행사를 통해 '18년부터 '21년까지 약 1.7조원 규모의 사실상 효력이 소멸된 채권을 소각해 6만 6천 명 이상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꿀 수 있게 됐으며, '22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해 3천억원 이상의 소각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 재도전 인식개선 행사 〉



제2장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성장촉진

1

근로자 임금상승 및 근로환경 개선

- 인력육성과 여 운 상
- 인력육성과 박 성 원
- 인력육성과 이 선 미
- 일자리정책과 송 인 철
- 일자리정책과 이 세 종

그 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하면 이른바 낙수효과를 통해 중소기업과 노동자 등에게 성장의 과실이 전달되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 하에서 우리의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 보다 낙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며 선진 외국 등에서도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 아래 다양한 논의가 전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2-1-1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수준

구분	1998	2008	2018	2019	2020	2021
중소기업(천원)	1,310	2,271	3,019	3,139	3,193	3,316
대기업(천원)	1,720	3,786	5,305	5,356	5,242	5,582
대기업 대비 중기 임금수준(%)	76.2	60.0	56.9	58.6	60.9	59.4

*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영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핵심인력과 중소기업이 1:2 비율(핵심인력 720만원, 기업 1,500만원)로 5년 동안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공동 적립금 2천만 원 이상을 성과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동 사업은 ‘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입된 지 8년째로 중소기업 27,476 개사, 핵심인력 근로자 70,037명이 가입(21.12월 기준, 누계)하였다.

2018년에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15~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개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등이 추진되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체제로 기업(월 20만원, 5년), 근로자(월 12만원, 5년), 정부(1,080만원, 3년)가 공동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만기 시(5년) 청년근로자에게 전액(3천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지원 공제 사업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다.

〈적립구조〉

(단위 : 만원)

구 분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본인납입	720	매월 12 x 60개월 = 720							
기업적립	1,200	매월 20 x 60개월 = 1,200							
정부지원	1,080	120	120	150	150	180	180	180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유입, 우수 재직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다.

내일채움공제가 기업과 핵심인력 근로자간 적립을 하는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적립금(1,080만원)이 추가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중소기업 46,728개사, 청년근로자 135,898명이 가입('21.12월 기준, 누계)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대책의 한시('18~'21) 사업으로 신설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완화를 위해 일몰기간을 1년 연장하고 '22년말까지 신규 2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참여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술력 및 노하우 축적, 기술전수를 취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핵심인력이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여건(공제기간 5년)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8 | 내일채움공제



나.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도입 및 확산

청년층 등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이유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단기간 내에 시장 시스템을 통해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차이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대기업 100, 고용부, '21년): 정액급여 75.8%, 특별급여 23.7%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2018년부터 본격 도입하였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18.6월)을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미래성과공유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정의하고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우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성과공유 유형 정의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가 2018.9월에 제정되었다.

〈 성과공유 유형 〉

구분	성과공유 유형
성과급	①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약정 (현금) 성과공유 상여금 (주식) 우리사주
성과보상공제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
임금수준의 상승	③ 평균 임금증가율이 직전 3개연도 평균 임금증가율 보다 높을 것
우리사주 제도 운영	④ 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복지기금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⑥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⑦기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용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선정 중소기업

한편, 2018년부터 성과공유 교육, 성과공유 도입 컨설팅, 유형별 표준안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9.2월 제정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성과공유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로 법인세 15%, 근로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2020년에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유형에 ‘복지플랫폼 활용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선정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2말 기준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기업 72,222개사(누적)가 확인받았다.

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은 질적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기술개발 인력확보 및 이직’을 꼽고 있다.

- * 기업부설연구소 : 전체 45,139개, 중소기업 42,948개(95.1%)
- * 연구원(석·박사 비중) : 전체 394,113명(32.1%), 중소기업 214,416명(23.8%)
- * 기술개발 실패요인 : 자금부족(43.9%), 기술개발 인력부족 및 이직(14.8%), 설비 및 장비부족(14.2%), 특허기술 선행조사 없이 기술개발 수행(10.7%) 순 (*21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보고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은 자체적으로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공계 학·석·박사 등 고급 연구인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0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작되어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서 이관되었다.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중소기업에 공공연구원의 연구인력을 파견 할 경우 정부가 이들 인건비의 일부(50% 내외)를 일정 기간(3년) 동안 보조하고, 연구인력은 중소기업의 연구소에서 기술개발, 기술 문제 해결, 기술 노하우 전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동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수요는 지속 증가하여 2021년 채용 지원의 경쟁률은 9.2:1을 기록하였다. 자체 조사 결과 동 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성과도 향상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톡톡히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2-1-2 | 채용지원사업 경쟁률 현황

구분	신진 채용			고경력 채용			합계		
	신청	지원	경쟁률	신청	지원	경쟁률	신청	지원	경쟁률
2017	682	150	4.5	263	65	4.0	945	215	4.4
2018	824	437	1.9	499	41	12.2	1,323	478	2.8
2019	1,316	343	3.8	1,211	85	14.2	2,527	428	5.9
2020	2,949	315	9.4	1,916	137	14.0	4,865	452	10.8
2021	2,050	271	7.6	1,511	116	13	3,561	387	9.2

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 및 복지가 열악하다. 그로 인해 취업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체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 임금격차 : 대기업의 59.4%(임금기준, '21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 복지격차 : 대기업의 43.2%(복지비용기준, '20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결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여건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04년부터 주택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하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또는 동일한 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중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표 II-2-1-3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절차



'19년 10월부터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주택특별공급 공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mes.go.kr/sanhakin>, '19.10 구축)

동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장기근속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원활하게 우수 인력을 유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

표 II-2-1-4 | 연도별 추천실적

(단위 : 호)

구 분	추 천				
	계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임대	분양	임대
2017년	2,266	74	244	1,948	-
2018년	1,547	33	234	1,277	3
2019년	1,330	83	176	1,062	9
2020년	3,504	66	1,236	2,202	-
2021년	3,680	92	1,182	2,406	-

* '18년 4월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배정된 전체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추천 실적이며, '18년 5월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따로 구분하여 배정 및 추천

사업주체는 국민주택 및 85㎡이하 민영주택 총 건설물량의 10% 범위내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기관별로 배정*하고 있다. 앞으로, 주택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2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 인력육성과 남 성 진
- 인력육성과 박 성 원
- 인력육성과 고 용 석
- 인력육성과 고 용 석
- 일자리정책과 전 상 용
- 인력육성과 여 운 상

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정부의 특성화전문계고 육성계획(2007년, 교과부)에 따라 2008년부터 교과부의 특성화전문계고 육성사업¹²⁾(66개 전문계고)을 이관 받아 중소제조업, 지식 기반서비스업 등 산업분야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기술을 겸비한 중소기업 기술·기능 인력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2-1-5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교)

구 분	2017년	2018	2019	2020	2021
지원 예산	30,640	33,856	33,856	34,636	34,110
지원 학교	181	200	199	215	215

동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 인력공급의 주요 원천이었던 특성화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학생들의 기술·기능역량을 강화하고, 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산업분야와 연계한 예비 기능인력 양성을 통해서 중소기업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유입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부터 업종별 협·단체가 특성화고와 협력하여 공동교육·채용 행사를 실시하고 회원사 등으로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 구인정보를 발굴하여 특성화고에 실시간 연계하여 취업매칭 하는 등 중소기업 구인수요와 특성화고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마련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 인력양성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 특성화고 육성사업은 기존 교육당국에 의한 일괄관리·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2008년부터 업종별 인력수요 부처(국방부, 농식품부, 문체부, 중기부, 특허청 등)가 학교 운영과정에 참여하여 우수 인력을 양성 중

중소기업특성화고는 중소기업과 학교 간 신학협약 후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산학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업과 학생(교사)이 공동과제를 발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1팀 1기업프로젝트’ 등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II-2-1-6 | 중소기업특성화고 취업맞춤반 수료인원

(단위 :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료인원	8,786	8,406	8,469	8,039	8,473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실습 참여기업 감소 및 취업률 하락 최소화를 위해 현장실습 보완 방안 마련(19.1월) 및 현장실습생의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21.12월)하여 추진 중이고, 고졸인재의 실력향상과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정책 보완 방안(21.7월)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적으로도 기업의 인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나. 기술사관 육성

기술사관은 특성화고-전문대-중소기업 연계 교육과정(4년)을 통해 산업계의 높은 기술 수요에 맞는 숙련된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특성화고-전문대-중소기업 3자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단이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하되, 특성화고(2년)는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실습, 기초 및 전공 소양 과정을 담당하고, 전문대학(2년)은 기술 능력 강화를 위한 이론 및 기술 심화 과정을 운영 한다. 정부는 동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특성화고+전문대)에 학생연수비, 학생활동 지원비, 강사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2009년 시행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매칭되어 교육부와 공동으로 추진되었다. 2016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Uni-Tech 사업과 유사·중복 문제로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어 2018년부터 고등학교 참여 학생 선발을 중단하고 2022년까지 기존 학생만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Uni-Tech 사업이 중단됨에(17.9월) 따라 2019년부터 정상적으로 재 추진 되었다.

2021년도 졸업 학년 참여 학생 191명 중 142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며(취업률 74.3%, '22.8월말 기준), 108명이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취득률 56.5%, '22.2월말 기준)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2-1-7 | 기술사관 육성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5,076	3,850	3,858	2,898	2,898
지원 실적	학교	전문대 15 + 특성화고 24	전문대 13 + 특성화고 23	전문대 12 + 특성화고 17	전문대 12 + 특성화고 18	전문대 9 + 특성화고 17
	학생	2,147	1,565	1,481	1,432	1,027
	기업	962	904	938	996	799

* '17, '18, '19년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과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합한 금액

다.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은 중소기업들(부설연구소)과 대학원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현장중심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서 동 사업을 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도는 10개 대학, 135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199명의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공급하였다.

표 II-2-1-8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

구분	예산	참여대학	참여기업	양성학생
2017년	3,900	11	57	200
2018년	3,790	10	54	200
2019년	3,000	10	95	146
2020년	3,000	10	126	174
2021년	3,000	10	135	199

라.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에 특정 전공에 대한 학위 과정(전문학사~박사) 개설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및 취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 역량 향상 및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입학 대상자의 재직 여부에 따라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과 졸업 후 채용을 약정하고 참여하는 '채용조건형'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등록금의 일부를 유형 및 학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재교육형 석·박사 과정은 기준등록금의 65%, 재교육형 학사·전문학사 과정은 기준등록금의 85%, 채용조건형은 학위와 상관없이 기준등록금의 100%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 외 나머지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소속 기업에서 1~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2010년 시작하여 2021년도에 70개 학과를 통해 2,065명을 지원하였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앞으로도 지역 전략산업, 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표 II-2-1-9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현황

연 도	예산	지원학과*	주요 변경 사항
2017년	103억원	69개 학과	■ 학위연계형 계약학과 운영
2018년	114억원	69개 학과	■ 영마이스터 학과(채용조건형) 선정
2019년	114억원	70개 학과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확대
2020년	114억원	68개 학과	■ 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 확대(3개)
2021년	120억원	70개 학과	■ 인공지능 계약학과 확대(3개) ■ 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 확대(2개)

* 학과수 : 전년도 학과수 - 당해연도 협약해약 학과 + 당해연도 신설학과

마. 국립 공업고등학교 육성

고등학교 및 재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 취업보다는 진학 선호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특성화고의 취업 선도모델로서 ‘한국형 마이스터고¹³⁾ 육성 기본계획’(2008.7월)을 수립하고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3월)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급당 20명의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전면 자율화하였으며, 교장 자격이 없는 산업계 인사의 교장 임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분야의 마이스터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로 입학전형을 시행한다.

표 II-2-1-10 |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일반현황

구 분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학교설립		1954년	1967년	1974년
마이스터고 지정		2008.10월	2009.2월	2009.2월
마이스터고 개교		2010.3월		
학과명 (학급수)		전자회로설계전공(4학급) 전자시스템제어전공(4학급) 자동화시스템전공(4학급) 로봇제어전공(2학급)	기계과(6학급) 산업설비과(3학급) 전자기계과(4학급) 전기과(2학급)	폴리메카닉스과(3학급) 금형설계제작과(4학급) 로봇자동화과(3학급) 메카트로닉스과(3학급)
학급 (학생 정원)	1학년	14학급(224명)	15학급(242명)	13학급(235명)
	2학년	14학급(222명)	15학급(253명)	13학급(222명)
	3학년	14학급(267명)	15학급(289명)	13학급(249명)
	계	42학급(713명)	45학급(784명)	39학급(706명)
위치 및 부지		경북 구미시 223천㎡(6.7만평)	부산 해운대구 142천㎡(4.3만평)	전북 익산시 77천㎡(2.3만평)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3개 국립 공업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산업분야별 현장수요에 맞춰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이스터 육성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비부터 급식비,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공사비 등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13) 초·중등교육법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표 II-2-1-11 |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육성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20예산	'21예산	'22예산
합 계	19,466	26,399	26,999	25,773	26,737
직업교육체제 혁신	7,679	12,032	13,532	16,378	15,594
시설확충	12,137	14,367	13,467	9,395	11,143

3개 국립공고는 마이스터고로 전환 이후 취업률 등에서 월등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21학년 졸업생 취업률은 90.4%이며, 2021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3개 학교는 금 4개·은 7개·동 6개를 수상하였다.

표 II-2-1-12 |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취업률

(단위 : %)

구 분	'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
구미전자공고	98.5	95.2	95.1	91.3	94.1
부산기계공고	84.0	81.5	86.5	84.4	87.5
전북기계공고	95.2	93.1	92.2	87.6	88.7
평 균	92.3	90.0	91.1	87.8	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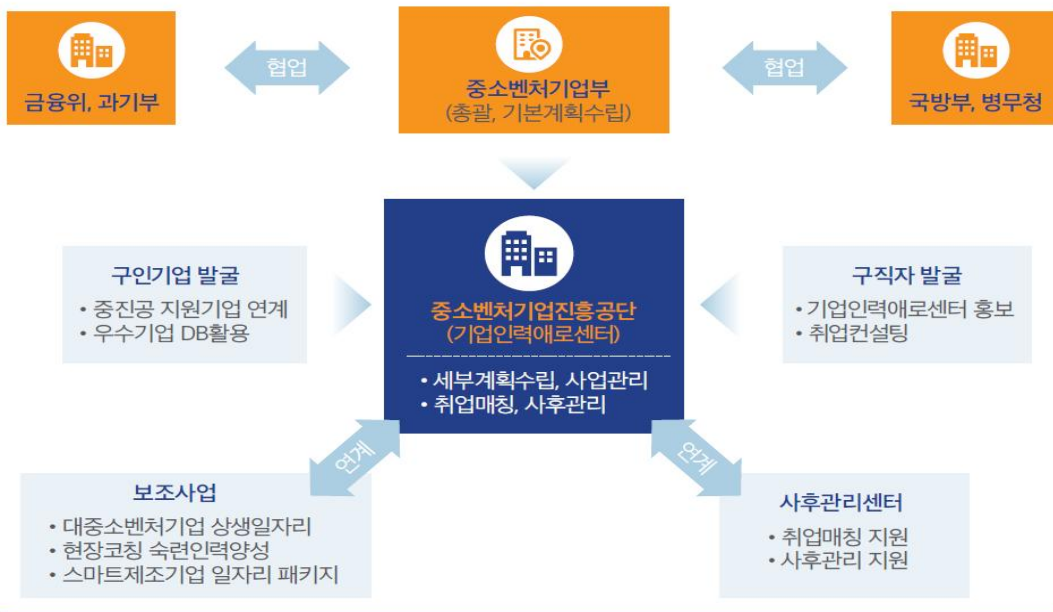
바.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1년 현재 17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운영 중이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 이노비즈협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이 현장실태조사 등 정책자금 지원업무를 통해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적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특성화고·대학·직업훈련기관 졸업생 및 미취업 구직자를 매칭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와 주 52시간제 확대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컨설팅을 중장년 구직자까지 확대하였고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하였다. 또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제조기업 등 신산업 분야 인력매칭 강화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구인인력 애로 해소에도 노력하였다.

그림 9 |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 추진체계



아울러, 대기업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협력사인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청년 구직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매칭을 진행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신규 채용인력을 숙련인력으로 양성·공급하는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2021년 구인기업 11,102개를 발굴하여 3,279명을 취업으로 연계하였으며, 향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인력 애로 해소를 위해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산업현장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사. 중소기업 인식개선

정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가능성을 취업자와 일반 국민에게 바로 알림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¹⁴⁾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과 중소기업의 인력난¹⁵⁾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의 가능성과 비전을 바로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21년에는 1,654백만원의 예산으로 우수 중소기업 발굴·정보제공 및 중소기업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균형 잡힌 중소기업 인식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였다.

아. 중소기업 연수원 운영

1982년 중소벤처기업연수원(본원 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글로벌 리더십연수원(2014년, 태백)과 충청연수원(2021년, 천안)을 건립하여 전국 6개의 재직자 전문연수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기술교육을 선도하여 총 160만여 명 대상에게 연수를 실시하였다.

2021년에는 50,976명의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중소벤처기업 연수원(안산) 19,314명, 지방 연수원(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글로벌 리더십, 충청)은 14,049명, 온라인 연수 17,613명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교육 과정을 확대·개편하여 2021년 기준 14,478명의 스마트공장 제조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2021년 스마트공장 실습인프라인 ‘광주 스마트공장 배움터’ 1개소를 추가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조현장을 진단하고, 기업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도출, 재직자 대상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형 연수를 실시 (2021년 3,415명)하였다.

14)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확산)

15) 중소기업 부족인원 : 32.2만명, 부족률 : 3.1% (출처 : 고용부, '21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구 분	개원	위치	특화분야	연수인원 (2021, 명)
중소벤처기업연수원	'82.10	경기 안산	뿌리기술, 스마트팩토리	19,314
호남연수원	'01.09	광주	철강, 조선, 산업기계	2,929
대구경북연수원	'03.11	경북 경산	자동차 특화	3,740
부산경남연수원	'04.10	경남 창원	공학설계, 현장기술 S/W	3,380
글로벌리더십연수원	'14.09	강원 태백	CEO, 리더십, 식품	2,085
충청연수원	'21.4	충남 천안	스마트팩토리, 바이오등	1,915

* 이러닝, 플립러닝 등 온라인 연수 17,613명

제3장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제1절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1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 기술정책과 남 정 렬
- 기술정책과 최 미 영

2020년 R&D 수행 중소기업체는 50,751개사로 전체 중소기업체 139,894개사의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7년 전인 2014년의 30.0%에 비해 6.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1-1 | R&D 수행 중소기업체 추이(*16부터 종사자수에서 매출액기준으로 변경)

(단위 : 개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R&D수행 중소기업체	37,823	45,307	40,588	45,320	48,961	50,430	50,751
중소기업체수 대비 비중	30.0	33.6	31.4	33.5	35.4	36.0	36.3

* 자료 : 2020년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20.12.31)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2021년 41,888개사로 2014년 30,478개에 비해 1만 1천 4백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소속 연구원 수도 4.6만 명이상 증가하여, 2021년에 20만 9천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2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30,478	33,647	36,026	37,696	38,734	38,887	40,140	41,888
소속 연구원수	163,887	176,084	184,998	190,686	193,724	192,420	199,891	209,421

* 자료 : 기업부설연구소 총괄현황(2021년 1월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와 같은 저변확대에 힘입어 2020년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약 18조원으로 국가 전체 R&D 투자 93조원의 19.4%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3 |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공공연구기관	69,503	72,607	81,127	88,241	91,132	95,432	98,439	101,688	111,186
대 학	52,769	54,803	57,670	59,989	63,399	66,825	70,504	73,716	83,534
기 업	432,229	465,599	498,545	511,364	539,525	625,634	688,344	715,067	735,998
- 대 기 업	320,709	357,781	386,177	389,303	407,787	398,038	438,236	446,658	451,694
- 중견기업						90,687	95,954	101,864	103,691
- 중소기업	111,520	107,818	112,367	122,061	131,738	136,909	154,154	166,545	180,613
합계 (국가 R&D)	554,501	593,009	637,341	659,594	694,055	787,891	857,287	890,470	930,717

* 자료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이러한 중소기업 R&D의 저변확대와 투자증가 등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강화로 선진국 대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2013년 75.6% 수준에서 2020년 기준 2.8% 증가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세계 최고수준 기술대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아직도 차이가 있다.

표 II-3-1-4 |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세계최고수준=100.0, 단위 :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술능력 수준	75.6	77.1	74.3	75.6	77.3	75.4	77.3	78.4

* 자료 : 2021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은 OECD가 1993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술혁신평가 매뉴얼인 '오슬로 매뉴얼'을 기초로 개발한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1,000점)와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평가지표(10등급)를 적용하여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개별 기술수준 평가결과가 B등급(6등급에 해당)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전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기업은 재선정 하고, 미흡한 기업은 선정을 취소함으로써 제도의 대외 신뢰성 유지 및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2001년 이노비즈 선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2021년 현재 20,205개社가 유지되고 있다.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5년부터 기술금융의 활성화로 인해 소폭 증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18,000개社를 넘어서는 등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II-3-1-5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정 현황

(단위 : 개)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업체수	16,878	17,472	17,708	18,091	18,093	18,345	18,920	20,20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기술지원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하는 한편 자금, 판로, 인력, 정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금융 지원 협약은행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 평가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통한 신용대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3-1-6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단위 : 건/억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289	69,635	8,309	67,697	8,154	64,103	7,824	59,542	7,725	70,113	7,803	69,205

2021년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매출액은 154.8억 원이고, 수출기업 비중은 47.6%, 평균 수출액은 66.1억 원(직접 54.9억 원+간접 9.6억 원+현지법인 매출 1.6억 원 추정), 전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20%이상 매출액이 증가한 고성장기업은 998개로 국내 고성장기업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제조기업의 핵심기술을 지속·유지를 위한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혁신은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이외의 요소인 경영혁신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기업의 경쟁력이 반드시 기술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고객서비스 등에서도 혁신적인 역량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벤처 및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제도로는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의 기업군에서 경영혁신 활동을 통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포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하반기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1년 말 현재 20,313개사가 활동 중이다.

2011년 17,558개사로 정점을 찍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은,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였으며, 2021년 정밀실태조사 결과 평균 매출액은 2016년 134.0억 원, 2017년 147.8억 원, 2018년은 152.8억 원, 2019년은 142.1억 원, 2020년은 130.1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I-3-1-7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지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제조업	7,664	7,662	8,175	8,705	9,267	9,892
비제조업	7,177	7,568	8,558	9,312	9,811	10,421
·R&D 서비스	1,605	2,474	2,826	27	218	236
·건설운수	1,676	1,694	1,898	2,491	2,523	2,487
·도소매업	3,378	3,257	3,771	4,195	4,431	4,678
·기타	518	143	63	2,599	2,639	3,020
총합계	14,841	15,230	16,733	18,017	19,078	20,31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R&D, 금융 및 보증, 판로·수출 등 시책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농협,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과 금융협약을 체결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지원 및 보증료 감면, 여신한도 확대, 금리우대,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정밀실태조사를 통한 성과분석 및 육성시책 발굴, 확인업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정보망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9월부터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 왔으며, 2021년에는 총 27,150건 96,205억원을 지원하였다.

향후에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협약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3-1-8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단위 : 억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803	72,072	13,990	51,910	25,040	87,624	27,296	95,733	27,150	96,205



메인비즈 인증희망기업 교육



중소기업 대상 '굿모닝 CEO 학습'

2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기술개발과 신 종 화
- 기술개발과 이 재 천
- 기술개발과 공 윤
- 기술개발과 권 현 주
- 기술개발과 민 선 모
- 기술개발과 임 종 복
- 기술개발과 최 혜 진
- 기술개발과 전 기 중
- 기술개발과 김 연 오
- 기술개발과 김 대 건
- 제조혁신정책과 정 아 봉
- 제조혁신정책과 인 병 진
- 제조혁신지원과 김 동 현
- 제조혁신지원과 박 현 녀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장 및 위상 제고 뒤에는 1997년부터 한결같이 함께 해오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기술 혁신개발사업(이하,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있다.

수출기업, 혁신형 기업 및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별 (초기→도약→성숙)로 지원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 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중소기업 전용 핵심 기술개발사업이다.

① 수출지향형·강소기업 100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년간 20억 원까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1년도부터 소재·부품·장비분야 핵심전략 품목 국산화를 위해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년간 20억 원까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② 시장확대형·소부장전략 기술개발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점전략 분야(BIG3, 신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등)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년간 6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③ 시장대응형·소부장일반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기업, 소재·부품·장비 일반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 분야, 소부장에 대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년간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표 II-3-1-9 | 기술혁신개발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금액	2,448	2,470	2,620	2,260	2,394	2,269	1,193	2,400	3,788
지원업체수	1,081	1,087	1,107	1,029	1,147	1,384	1,085	1,600	1,722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만 1,242개 과제에 2조 1,842억 원을 지원하였고, 최근 3년('19~'21) 간 사업화 실적은 총 2,283건, 2조 5,043억 원의 매출 등 동 사업 지원을 통해 높은 지원성과를 달성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분야 국산화를 선도할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전용 R&D 과제를 신설하고 전략품목을 발굴 및 집중 지원(550개 과제, 1,011억원)을 통해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국산화를 선도할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였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장사다리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단계별 R&D지원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을 도모 하도록 전략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

2002년부터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처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수요처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요처 특성에 따라 구매연계형과제(공공기관, 대·중견·중소기업 등 국내외 수요처) 및 공동투자형과제(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 투자기업)로 구분되며, 구매연계형과제는 2년 이내, 10억 원 한도, 공동투자형과제는 3년 이내, 12억 원 한도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수요처(투자기업)에서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표 II-3-1-10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구매연계형	최대 2년, 10억원 이내	65% 이내	지정공모 /자유공모
공동투자형	최대 3년, 12억원 이내 (투자기업출연금 별도)	65% 이내	

2002년 국방 과제(13개)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동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9조, 「민군기술협력 사업 촉진법」 제3조, 제5조, 제8조에 따라서 추진되었다.

표 II-3-1-11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추진 경과

- (2002년) 중기청-국방부간 「국방기술개발협약」 체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범실시
- (2005년) 사업영역(수요처)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대기업 7개사 참여)
- (200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내에 ‘민·관 R&D 협력펀드 과제’를 신설
- (2009년) 해외 우수기업 및 바이어 등을 수요처로 한 해외수요연계 기술개발 지원
- (2011년) ‘민·관R&D 협력펀드 과제’를 확대 개편하여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신설
- (2014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 (2019년) ‘혁신지향 공공조달방안’의 ‘맞춤형 R&D사업’의 세부추진 과제로 추진
- (2020년) ‘구매연계형(일반조달혁신·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BIG3·소부장)’으로 개편

2002년부터 2021년까지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수요처는 총 1,362개에 이르며, 그간 총 1조 8,048억 원을 투자하여 6,129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동 사업의 사업화율(68%)과 과제 평균매출액(28억)은 중소기업부 전체 R&D 평균 사업화율(50.2%)과 과제 평균매출액(19.7억) 대비 각각 35% 및 30% 이상 높은 성과로서, 동 사업이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를 넘어 매출발생이라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3-1-12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실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억원)	1,386	1,420	1,436	1,438	1,669	2,147	2,103
지원 과제수 (개)	신규	510	565	560	385	519	384
	계속	194	134	323	492	657	1,031
(단위 : %, 과제당, 억원)							
성과조사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화성공률	60.3	59.7	60.2	62.8	63.6	68.0	64.3
매출액	6.7	26.9	21.2	18	32.8	28	30.8

② 공동투자형(구, 민·관 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확대

2008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민관공동R&D 투자협약 과제’를 신설한 이후, 그 재원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총 20개사(신규참여 8개사, 추가협약 12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까지 총 96개 투자기업과 7,949억 원을 조성하였고, 총 1,182개 과제에 6,120억 원 지원을 결정하였다.

표 II-3-1-13 |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협력기금 조성 현황(누계)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조성기업(개)	38	52	56	61	66	71	78	88	96
조성금액 (억원)	3,651	4,386	4,854	5,299	5,654	5,936	6,374	6,957	7,949
정부	1,976	2,370	2,633	2,872	3,066	3,210	3,436	3,744	4,248
투자기업	1,675	2,016	2,221	2,427	2,588	2,726	2,939	3,213	3,701
대기업	1,067	1,617	1,217	1,218	1,245	1,321	1,424	1,477	1,799
중견기업	212	318	413	479	547	559	584	653	681
공공기관	395	531	591	731	796	846	931	1,083	1,221

표 II-3-1-14 |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협력기금 조성 현황(2021년도 말 기준)

구 분	협력펀드	투자기업명
민 간 (72)	5,505억원	포스코, 르노코리아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현대홈쇼핑,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롯데마트, NS쇼핑, 스템코, LG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LS엠트론, SK텔레콤, 포스코에너지, 케이티, KCC건설, 한화시스템, 네이버, 현대퓨처넷, 현대바이오랜드, 인켈, 한솔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인성정보, 크루셜텍, 경창산업, 티오이엠, 휴맥스, 오텍캐리어, 아진산업, 대동, 디아이씨, 톱텍, 국제종합기계, 세하, 아이즈비전, 에스에프에이반도체, 대상, JW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삼지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 다산네트웍스, 파워로직스, 케이엠더블유, 미래나노텍, 루멘스, 대교, 이엘케이, 웅진에너지, 용산, 이래에이엠에스, 에스에너지, 렉스코, 뉴프렉스, 필옵틱스, 엠씨넥스, 진영지엔티, 성림첨단산업, 한백종합건설, 탑엔지니어링, JW바이오사이언스, 라이온켄텍, 아세아텍, 남양넥스모, 토비스, 삼화페인트, 에스지이
공 공 (24)	2,444억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에스알(SRT), 도로교통공단

동 사업은 중소기업과 대·중견·공공기업 등 다양한 수요기업간의 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수요처에 대한 구매실적 관리 강화와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상용화를 제고 및 투자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③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최근 기술개발 환경의 대형화·복합화·고비용화 및 기술 수명주기의 단축 등으로 단독 R&D 수행이 가지는 부담과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혁신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기술개발 및 시장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으로 혁신역량의 상호 보완을 통한 환경변화 대응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폐쇄형 기술개발에 치우치고 있어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R&D를 통한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R&D를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1단계 기획지원과 2단계 기술개발 단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1단계에서는 공동개발기관 매칭, 사업화 전략수립, 상호협력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협력체를 대상으로 정부출연금을 최대 6억 원까지 지원하여 네트워크 협력체가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44개 대해서 기획지원을 하였고, 그 중 142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 (기획지원) 2018년 33개, 2019년 62개, 2020년 100개, 2021년 49개 과제 지원

* (기술개발) 2018년 24개 과제, 2019년 36개 과제, 2020년 52개 과제, 2021년 30개 과제 지원

표 II-3-1-15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기획지원	최대 6개월, 3천만원	90%	자유공모
R&BD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동 사업은 기업간 협력기술 개발의 전주기(기획-기술개발-사업화)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과제 발굴 및 지원방식의 다각화로 개방형 산·산 협력 R&D 환경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3)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

제조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매출의 27.5%, 종사자 19.5%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수의 제조 중소기업은 자금·인력·설비 등의 부족으로 시장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등의 기술개발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에 대외 환경변화와 시장·소비자 니즈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을 지원하여 단기간(2년 이하)에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촉진하는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려를 해소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자동화 전환을 통해 리쇼어링 촉진 및 해외이전 방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0년 내역사업 개편을 진행하여 단순 반복 노동 및 고위험 공정의 자동화·지능화 공정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R&D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기술개발 및 실증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65% 이내를 지원한다.

현장형R&D는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수준의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75% 이내를 지원한다.

표 II-3-1-16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41,503	30,003	31,160	37,714	36,035	44,383	44,383	40,865	48,031
지원과제수	674	611	594	680	838	811	791	1,012	883

향후 제조 중소기업의 고위험, 노동집약, 자동화 난제 공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과 동시에 품질향상,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해외 의존·이전이 많은 공정을 고도화하여 제조 중소기업의 해외이탈 방지 및 리쇼어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 자동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모바일 기기, 로봇 등 신성장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지원

창업기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자본력 및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기업의 생존과 지속 성장의 원동력인 기술개발 투자에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창업기업이 기술개발 시 수반되는 위험과 실패에 대한 부담을 흡수·완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전용 R&D사업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 생존율을 높이고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업력 7년이 지나지 아니 하고,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의 창업기업에게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디딤돌은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R&D 유관기관 추천 과제, 사회문제 해결R&D 등 창업 저변 확대形 단기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년간 1.5억원('22년부터 최대 1년간 1.2억원)까지 지원한다.

전략형은 4차 산업혁명(4IR), 미래 신산업(BIG3), 소재·부품·장비 등 고기술·유망기술 분야의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년간 4억원('22년부터 최대 2년간 3억원)까지 지원한다.

TIPS는 액셀러레이터 등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의 보육·멘토링,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지원한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9,936개 과제에 2조5,92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3-1-17 | 연도별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지원 과제수	90	86*	598	1,331	856	1,102	1,230	1,332	1,364	2,256	2,966	3,286	3,439	19,936
지원 예산	100	100	950	1,136	1,314	1,414	1,624	1,888	1,976	2,800	3,733	4,508	4,381	25,924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 포함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R&D과제 종료기업 성과를 측정한 결과, 정부 출연금 1억원 당 매출액 6.3억원, 수출액 3.6억원, 신규고용 5.6명의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과제 수행 전·후의 기술수준 및 기술자립도는 각각 34.8%p, 36.0%p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은 R&D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우수과제 발굴추진, 국민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과제 지원 등 다양한 신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창업기업 R&D 수요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미래 신산업(BIG3), 디지털 혁신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가능성과 스타트업 적합성 등을 고려한 전략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기술창업의 저변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우수과제 발굴 기능을 강화하였다.

창업기업의 미래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및 다양한 R&D 지원 방식 도입으로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5) 중소기업 R&D역량 제고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R&D 기획역량 및 자체 전문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R&D 기획역량강화교육, 기획지원 및 외부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R&D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R&D 기획지원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① R&D 기획지원사업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기술의 변화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는 성공 가능성 검토,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사전에 충분한 R&D기획 없이 기술개발에 착수한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동 사업은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제에 대해 기획 전문 기관과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등을 분석·진단 후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수립·지원하는 R&D기획지원사업과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R&D 쏠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기획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구분된다.

R&D기획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총 7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913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수행 결과 우수과제는 R&D 사업으로 연계(선정)지원, 2017년부터는 희망하는 R&D 사업 신청 시 연계추천(우대사항 적용)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현황으로는 2020년 259개 중 158개, 2021년에는 54개 중 36개 과제를 우수과제로 선정하고 대상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 가능한 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로 2회('17~'20년도 1회)에 한하여 신청 자격 부여, 서면평가 면제 또는 가점 등으로 우대한다.

또한, 자체 기술개발이나 용자·보증신청, 기업 IR 등 다양한 분야에 R&D 기획 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표 II-3-1-18 | 연도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추진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02~ 2007	2008~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획 지원	과제수	1,406	882	154	204	178	179	342	308	130	130
	금 액	215	235	40	50	45	50	45	46	33	33
R&D 사업 연계	과제수	-	521	92	82	85	108	104	97	144	36
	금 액	-	1,669	311	263	245	-	-	-	-	-

* '16년까지는 R&D사업으로 연계(선정), '17년부터는 연계추천(우대사항 적용)으로 변경

한편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2014년 시행이후 2021년까지 총 26,008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59회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4,469명(온라인교육 : 2,878명 포함)이 수료하였다.

2020년 교육과정의 경우 오프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9.5점, 온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6.8점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자 만족도 조사결과, 오프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8.2점, 온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4.3점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3-1-19 | 연도별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

(단위 : 회, 명)

교육과정	2018		2019		2020		2021		합계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정규	26	957	77	1,502	40	831	42	1,048	185	4,338
방문형	5	194	4	114	6	159	6	145	21	612
협약설명회	4	320	4	165	-	-	-	-	8	970
IP역량강화	2	75	2	43	4	76	5	119	13	313
세미나	1	57	-	-	-	-	-	-	1	57
실무	-	-	-	-	-	-	6	279	6	279
온라인	-	2,533	상시	2,565	-	2,878	-	-	-	7,976
계	38	1,603	87	1,824	50	1,066	59	1,591	234	14,545

②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중소기업은 자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기술애로 해결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 외부 고급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박사급 고급 연구개발 인력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분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의 기술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 사업은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R&D 역량 제고 등 산학연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공학컨설팅센터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에 국·공립대학교로 한정하여 운영하던 공학컨설팅센터를 2018년도에는 우수 사립대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기술애로 지원을 강화하였고, 2019년에는 9개의 공학컨설팅센터(대학 8개, 출연연 1개)로 확대하고 지정범위를 출연연까지 넓힘으로써 더욱 다양한 기술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현장중심의 기술애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고 있다. 2021년 9개 공학컨설팅센터* (대학 9개)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가천대, 인천대, 한성대, 대구대, 금오공대, 한밭대, 전북대, 전남대, 창원대

표 II-3-1-20 | 2021년 공학컨설팅센터별 지원실적

(단위 : 건, %)

구 분		기술애로 해결의뢰서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선정과제	
		접수	비율	접수	비율	선정	비율
서울/경인/강원	가천대	81	8.9	45	7.6	18	10.8
	인천대	98	10.8	48	8.1	18	10.8
	한성대	81	8.9	55	9.3	18	10.8
대구/경북	대구대	104	11.5	78	13.2	19	11.4
	금오공대	113	12.5	71	12.1	19	11.4
대전/충청	한밭대	88	9.7	51	8.7	18	10.8
호남/제주	전북대	148	16.3	108	18.3	20	12.0
	전남대	53	5.8	32	5.4	18	10.8
부산/울산/경남	창원대	141	15.5	101	17.1	19	11.4
총계		907	100.0	589	100.0	167	100.0

③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조선 산업 및 자동차 산업의 경기침체가 본격화·장기화 되면서 동 산업 거점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 고용위기 및 지역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 위기지역(6개) :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경남) 거제시/창원시 진해구/통영시·고성군, (울산) 동구

동 사업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중소기업 및 해당 시도 내의 위기업종 (조선·자동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R&D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혁신 또는 사업다각화를 도모하여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관 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여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 기술협력을 통한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 II-3-1-21 | 2021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경남	울산	전남	전북	합계
현장수요형 R&D	과제수	22	24	19	20	85
	금 액	88	96	76	80	340
Scale-up R&D	과제수	14	12	13	12	51
	금 액	1,400	1,200	1,300	1,200	5,100
총 계	과제수	36	36	32	32	136
	금 액	1,488	1,296	1,376	1,280	5,440

6)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World Class 기업(세계적 수준의 기업) :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한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을 확대하여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

동 사업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0년 3월, 제51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계적인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년 2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30개 기업을 처음으로 선정하였다.

표 II-3-1-22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선정기업	313	30	37	33	56	30	50	36	41
선정취소	34	4	3	6	11	3	4	2	1
누 계	279	26	34	27	45	27	46	34	40

매년 30~50개사를 선정하여 2022년 8월 현재 279개사의 유망 중소·중견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 이거나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요건심사 → 분야평가 → 현장실사 → 종합평가 등 4단계 심층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선정된 279개사를 분석해 보면, 중소기업이 116개사 중견기업이 163개사이고, '20년 기준 수출비중(수출액/매출액)이 평균 54.1% 이며 기술개발 투자비중(연구개발비/매출액)이 4.8%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통신,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의료·광학기기, 섬유, 의약품 등 주력 분야와 신산업 분야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표 II-3-1-23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제조업											비제조업				계
	자동차	전자 전자	금속	기계 장비	석유 화학	고무 플라 스틱	의료 의약	산 음료	광물	섬유 의복	기타	도 소매	건설	SW	기타	
11년	4	8	3	3	1	1	3	0	0	0	0	0	0	3	0	26
12년	3	12	1	8	3	2	2	0	0	1	0	0	0	2	0	34
13년	6	9	1	4	1	0	3	0	0	1	0	0	1	0	1	27
14년	8	15	2	8	0	1	4	0	0	1	0	0	0	6	0	45
15년	3	6	1	5	2	1	6	1	1	0	1	0	0	0	0	27
16년	8	8	4	9	4	2	4	1	0	2	1	0	0	2	1	46
17년	6	7	1	8	3	1	5	0	0	0	0	0	0	2	1	34
18년	4	9	3	9	2	0	7	0	0	0	1	1	1	3	0	40
계	42	74	16	54	16	8	34	2	1	5	3	1	2	18	3	279

선정된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10년간 기술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기업의 향후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간 75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에서 현지진출까지에서 필요한 해외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간 총 3.8억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특허전략개발원,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기업별 성장전략 이행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성장경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선정기업들은 기업 스스로의 성장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선정전 대비 매출액은 28.0%, 수출액은 22.9%, 고용인원은 21.0%가 증가하였다. '11~'18년 R&D 지원과제의 경우, '21년 말 기준 개발제품의 R&D기여 매출액은 1조 4,591억원(R&D기여도 반영)이 발생하였다.

7)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정부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의 보급과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2019년 까지 스마트공장 보급수준은 기초 단계가 79%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단계로 이르는 공급기술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저장 공간 및 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확보를 통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 종사자의 연령이 갈수록 고령화 되고 청년의 제조업 기피로 인해 제조 공정 숙련자의 노하우 단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숙련기술인의 보유기술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수할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생산성향상의 도모가 필요하다.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은 제조데이터의 활용능력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생산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제조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생산현장의 노하우를 디지털화 하여 스마트공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연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한다.

표 II-3-1-24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클라우드기반 데이터플랫폼 개발	최대 2년, 6억이내	80%	자유응모
K-앱시스트기술개발			

표 II-3-1-25 | 2019~2020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 금액	신청 과제 수	지원 과제 수	경쟁률
2019년	36	67	19	3.5:1
2020년	117	102	33	3.1:1
합계	153	169	52	3.3:1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은 2022년 일몰예정으로 2021년부터는 2019년과 2020년에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 지원하였다.

2021년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에 대해 성과조사 결과,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기업 매출(57.75억원), 도입기업 생산비용 절감(6.97억원) 및 신규고용 창출(96명)

스마트공장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현장 노하우 데이터의 축적·분석·활용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제조혁신 및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전주기 R&D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신설되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선도연구기관이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상담과 진단을 지원하고 지원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R&D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한 사업화R&D 지원의 총 3단계 프로세스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문역량을 가진 3개의 선도연구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2020년에는 대내외 환경 변화의 적시 대응 및 소재·부품·장비 부문 집중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개의 선도연구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을 추가 지정하였다.

표II-3-1-26 |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19		'20		'21	
	과제수	예산액	과제수	예산액	과제수	예산액
희망기업진단(1단계)	127	430	181	430	-	
협력기술개발(2단계)	36	9,720	40	4,860	40(계속)	4,860
기술사업화(3단계)	-		18	999	18(계속)	999

9)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기업이 제품화에 성공하였다더라도 사업화를 위한 인허가 등의 규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진입 및 제품판매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때문에 기술규제 대응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관련 규제를 고려하지 못해 R&D 결과물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R&D 기획·수행 단계부터 규제 대응을 위한 기획 및 R&D를 지원하는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이 2020년 신설·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은 규제 대응이 필수적인 R&D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획기관을 지정하여 1단계 기획단계 컨설팅(3주, 과제당 5백만원)을 수행하고 이 가운데 규제대응의 필요성, 기술개발 방법 및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R&D 지원(2년, 과제당 5억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총 기획지원 160개 과제, R&D 62개 과제를 선정·지원하였으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대응 기획기관의 전문가를 “규제도우미”로 지정하고, 협약기간 동안 인허가 등을 위한 컨설팅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의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제기한 각종 규제건의를 소관부처에 안내하는 등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표 II-3-1-27 |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20년(신규)		2021년(계속)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합계	95	222	134	62(계속)
기술규제 해결형	기획지원	8	-	-
	R&D	87	134	62(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대응 컨설팅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각 부처에 공유·협조하고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R&D 사업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 개최를 통한 주요 규제 해결방안, 전략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기술기준(규정) 개정사항, 인·허가 사례 등 최근동향 및 규제 전략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10)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제조기반 중소기업에 필요한 AI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년 신설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기업의 혁신과 신제품 기술개발 창출이 가능한 기술을 중점 선정·지원 하였으며, 고객에게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려는 기업의 니즈(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두어 최대 1년간 3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1년은 2020년에 선정된 계속과제(51개 과제, 74억원)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 종료되었다.

11)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2020년 신설되어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오염원 배출저감 및 실내 공기질 개선 등 노출저감 분야에 대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신속한 개발을 위해 연간 최대 2.5억 원까지 단년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0건(배출저감 12, 노출저감 18)에 7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 종료되었다.

12)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정부에서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와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신북방 정책을 발표('17)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 및 인근 국가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혁신성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외원천 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을 '20년부터 신규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신북방 국가의 혁신원천기술과 우리 중소기업이 강점을 가진 ICT·제조 기술을 접목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기술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표 II-3-1-28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기술진단·기획	최대 6개월, 3천만원 이내	100%	품목지정
상용화기술개발	최대 2년, 4억원 이내	65%	품목지정

러시아 원천·핵심기술 보유자 등 전문가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공정 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술진단·기획' 과제는 최대 6개월, 3천만원 이내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0년 총 25개를 지원하며 종료되었다.

러시아 보유 핵심 기술도입을 통한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지원 및 新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수요기술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상용화기술개발' 과제는 최대 2년, 4억원 이내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0년 총 13개 과제를 지원 하였으며, 2021년 총 6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II-3-1-29 | 2021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신청과제	지원과제	지원금액
상용화기술개발	18	6	9

중소기업이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신북방 국가와의 기술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상용화지원기관’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리혁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현지 기관(기업) 간의 기술협상, 의사소통, 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3-1-30 | 2021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용화지원기관 지원실적

(단위 : 개)

구 분	양국 기업 매칭	소통애로 해소 지원	R&D 사업 연계
상용화기술개발	38	283	18

협력 대상국과 과학기술 중심의 개방·혁신·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기술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협약’을 지원하다. 온라인 상담회, 온라인 기술 이전 계약식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며, 양국 주요 혁신 협력 관련 프로그램 공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시장진출 확대 활성화 방안 논의 등 협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며 종료되었다.

동 사업은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러시아부터 시작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기술 선진국 등으로 기술협력 대상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13)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국가별 인증제도는 과거 미국이나 EU, 일본 등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최근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들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국민의 안전과 산업보호를 위해 표준, 기술규정 등 무역기술 장벽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확보를 통한 수출동력 향상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출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유통·판매되기 위해서는 해당시장이 요구하는 특성 및 생산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시장 진입의 선결조건이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진입 시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의 기술적 목표달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 전 타겟 국가의 인증 및 규격에 적합한 기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출을 위한 추가 비용 및 시간을 절감 할 수 있도록 2020년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이 신설·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은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신제품 또는 기존제품의 타겟국가의 해외 인증을 철저히 준비하여 수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제품 수출시 필요한 타겟 국가의 인증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연계 지원한다.

2021년 총10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114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당 최대 1년간 1.5억원을 지원하여 해외인증 취득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확대 및 사업화 성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II-3-1-31 | 2021년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신청과제	지원과제	지원금액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신규	129	22	32
	계속	-	92	69

향후 성과확산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과의 연계지원을 통해 동 사업 선정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연속성 있는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4)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동 사업은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역량이 우수한 고성장 기업 확대를 위해 예비가젤형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품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2020년에 신설되었다.

최근 3년 간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에서 20% 미만까지 성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성장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하여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하며, 2020년 50개 과제를 신규 선정하여 2021년까지 총 199억원을 지원하였다.

15) 빅데이터기반 서비스개발사업

민간 및 공공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신산업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 신설되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민간(자사 보유 데이터 포함) 및 공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개방형혁신을 통해 데이터 수집·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빅데이터기반 서비스개발사업은 2022년 종료예정으로 2021년부터는 2020년에 선정된 계속과제(53개 과제, 120억원)에 대해 지원하였다.

16)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공장으로 인한 초지능·초연결 기반의 제조 산업 혁신을 위한 가장 일차적인 선행기술은 데이터의 생성을 담당하는 센서 산업이다.

센서는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결합하여 스마트공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핵심 선행기술이다.

하지만 급성장하는 IoT 및 지능화 시장에 비해, 국내 센서 산업의 시장규모는

세계시장을 1.6%,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4%로 경쟁력이 낮아, 센서 수요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의 일환으로 '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의 보급을 지원 중이다. 스마트공장 확산과 IoT 적용의 증가로 센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예정으로 국내 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센서의 국산화와 산업의 부가가치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제조산업의 지능화와 미래 신산업에 필수적인 스마트센서의 개발을 위해 2020년부터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여 제조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센서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은 고부가가치 스마트센서 기술개발을 통해 스마트제조혁신의 핵심 부품과 솔루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현장의 고온·다습·먼지 등의 환경에서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 및 저장·통신·자동보정·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고 노이즈 캔슬링 등 신호열화를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고신뢰성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센서를 개발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저장·전처리(보정)·분석·진단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센서의 지능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최대 2년간 6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80%내에서 지원한다.

표 II-3-1-32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조현장맞춤형 스마트센서	최대 2년, 6억이내	80%	자유응모

표 II-3-1-33 | 2020년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 금액	신청 과제 수	지원 과제 수	경쟁률
제조현장맞춤형 스마트센서	45	124	21	6.2:1

2021년에는 다종의 센서를 융·복합하고 AI,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정보를 생산하는 지능화 개발의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 현장에 적합한 센서 개발을 위해 현장상황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수요부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의 ICT, 시스템 반도체 역량을 결합하여 외산 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센서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생산 현장에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센서 부품·솔루션의 확산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7)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제조기술융합센터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목적으로 2020년 신설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중소기업 제조현장과 연계하여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제조기술융합 분석서비스 제공과 제조현장에 적용가능한 DNA(Data, Network, A.I)기술 도입, 제조데이터 저장·분석·수집을 통한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핵심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등 핵심 성과지표(KPI) 향상을 위해 수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42억원(국비 96.5억, 지방비 345.5억) 규모로 천안·아산KTX R&D집적지구 내에 중소기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제조기술융합센터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97.9억원(국비 42억, 지방비 55.9억)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제조데이터 분석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범공정 및 데이터 수집·분석장비 10종 구축과 제조기술융합센터 건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센터 건축은 천안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충청남도에서 건축비를 지원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10 | 2020~2024년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계획



표 II-3-1-34 | 2021년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실적

구분	구축내용
주력산업 특화연계 테스트베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공정 스마트화 및 분석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구축(10종) <o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 통합운영시스템 추가기능* 개발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QMS) 및 공정관리(SPC) 기능 대용량 데이터 저장관리 장비 (1종) 설비 데이터 저장 장비(엣지컴퓨팅) (1종) 클라우드 기반 설비모니터링 시스템 (1종) 제조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 (1종)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장비 (1종) 설비 데이터 수집 장비 (1종)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시범공정 장비 구축(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별 기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표준 데이터셋 개발 (1종) 제조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DQM) 구축 (1종)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RPA) 개발 (1종) 제조기술융합분석 서비스 개발(R&D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특허 출원 (3건) 제조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 (1건) 데이터 분석 연구 관련 SCI급 논문 게재 (1건)
제조기술융합센터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기술융합센터 건축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기술융합센터 신축 부지*확보(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R&D집적지구 內 부지 확보(충남 천안시 서북구) 제조기술융합센터 신축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 6층, 지하 1층 센터 기본계획(기본계획 : '21.4. 실시설계 : '21.11, 착공 : '22.2, 완공 : '23.4)

18)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사업

사스(2003년), 신종 인플루엔자(2009년), 메르스(2015년) 등 2000년대 들어 신종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및 지속에 따라 국가 보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며, 국민의 보건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의 보건에 있어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마련과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물품·기기의 신제품 개발 및 성능향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현장에 투입된 의료진, 봉사자 등의 애로·개선사항을 수렴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현장맞춤형 방역물품·기기 개발을 지원하도록 2021년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사업’이 신설·추진되었다.

동 사업은 동 사업은 방역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 봉사자 등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적합한 방역물품·기기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2021년 총 8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50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당 최대 2년간 6억원을 지원하여 짧은 주기로 빠르게 확산하는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II-3-1-35 | 2021년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신청과제	지원과제	지원금액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444	50	89.05

동 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로 일상 회복에 따라 '22년 계속과제를 지속 지원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방역물품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 신속한 대응 방역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9)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제조업은 코로나-19위기 국면에서 국내 성장둔화 최소화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였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및 “V자 반등” 시현 등 강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용 인공지능 기술 확보·확산을 지원하는 동 사업을 2021년 신규로 기획하였다.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은 제조 현장에서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공동활용모델 개발을 위하여 제조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역량을 갖춘 연구기관·대학의 전문인력과 중소기업의 공동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II-3-1-36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조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기술개발	최대 21개월, 21억원 이내	75%	품목서 지정공모

표 II-3-1-37 |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21	2022	2023	합계
지원 과제수	신규	6	6	-	12
	계속	-	6	6	12
지원 예산		4,544	11,276	7,122	22,942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계 산업용 인공지능 사용량이 많은 11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가 선행되었다. 2021년, 11개 기술분야 대상으로 총 45개 기술품목서를 접수하였고, 3차에 걸친 과제기획위원회 → 경제성 분석 → 인터넷 게시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과제기획 절차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5개 기술분야 전략품목서(RFP)를 확정(평균경쟁률 9:1)하였다.

표 II-3-1-38 | 세계 산업용 인공지능 상위 11개 기술 및 지원계획

구분	'21년	'22년
지원 품목	①예지보전, ②품질보증, ③생산공정 최적화, ④공급망 최적화, ⑤디지털트윈	⑥시뮬레이션, ⑦자원최적화, ⑧데이터 자동관리, ⑨스마트작업보조, ⑩공정자동화, ⑪스마트유지보수

* (출처 : Industrial AI Market Report 2020-2025 & ResearchGate, 2019.10월)

지원이 확정된 5개 기술분야의 전략품목서(RFP)기반 총 26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접수하였고, 최종 지원대상으로 6개 과제를 선정, 지원(평균경쟁률 4.3:1)하고 있다.

향후, R&D를 통해 개발된 우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등은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에 탑재하여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제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

20)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업선도형과 기반플러스형으로 구성된다. 기업선도형은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도록 10백만원 이내로 바우처를 지원하고, 기반플러스형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첨단장비 포함)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50백만원 이내로 바우처를 지원한다.

2021년 207개 운영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11,928대의 연구장비를 등록하였으며, 85.9억원을 투입하여 1,129개의 중소기업에 12,550건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지원하였다.

표 II-3-1-39 |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실적 현황(2021년)

(단위 : 개, 백만 원, 대)

구 분	예산	참여기업	운영기관	지원건수	장비대수
'21년	8,590	1,129	207	12,550	11,928

21)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

설립 1년 이내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글로벌 창업기업(Born Global)은 빠른 수출 성장성 및 다변화된 수출시장 진출 등이 우수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기업 비중은 매우 미미하며, 내수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은 수익성 악화 등 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글로벌시장 진출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 유망기술을 확보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였다.

이에, 2021년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여 10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13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선정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목표 평가를 병행하여 참여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표 II-3-1-40 |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 분	지원과제수	지원예산
2021년	10	13

22)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 기술개발사업

중간재가 대부분인 중기술(Medium tech) 기반 제품은 그동안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공급라인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라인(Supply chain) 급변으로 인해 중기술 분야 기술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중기술 제조기업 역시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이에, 그간 R&D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기술(Medium tech) 분야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을 신설·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개발 시급도에 맞추어 기업이 직접 제안하는 “자유공모 과제”와 중기술 분야 위기품목을 중점 지원하는 “품목지정 과제”로 구분하여 중위기술의 매출액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전업율 50%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년, 5~6억원 이내로 국내 제조 중소기업 주력제품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3-1-41 | 2021년 제조중소기업글로벌역량강화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신청과제	지원과제	경쟁률	지원금액
제조중소기업글로벌역량강화	자유	101	19	5.3 : 1	35
	품목	54	92	3.6 : 1	22

최근 국내 제조 기업들의 국내 생산기반은 점차 취약해 지고 산업위기가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기술적 열위에 있는 중기술 대상의 사업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수 있도록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3)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은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21년 신설되었다.

이 사업은 최신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급기업 단독형, 특정 수요기업들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신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수요기업 매칭형, 과제의 대규모성 등으로 인해 기술 간 융복합이 필요한 경우 공급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컨소시엄형의 세가지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 총 60.44억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하반기 2차례 공고를 통해 공급기업 단독형 25개, 수요기업 매칭형 8개, 컨소시엄형 1개의 총 34개의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II-3-1-42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공급기업 단독형	최대 2년, 5억이내 (컨소시엄형은 최대 3개 기업 각 5억원, 15억까지)	80%	자유공모
수요기업 매칭형			
컨소시엄형			

표 II-3-1-43 | 2021년 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 금액	신청 과제 수	지원 과제 수	경쟁률
상반기	40	347	22	15.8:1
하반기	17.5	350	12	29.2:1
합계	57.5	697	34	20.5:1

24)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① 수요기반 기술이전

2019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19년.7월) 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정부는 공급 다변화 및 조기 국산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동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단일 국가에 대한 높은 해외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 기획되어, 2020년부터 기술이전 플랫폼인 Tech-Bridge를 통해 대학·연구소의 공공기술의 기술이전을 연결 해주고, 공공 R&D성과물의 이전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금융지원까지 One-Stop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는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우수한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혁신성장과 이후 조기 국산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2년 이내, 8억 원 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부장 핵심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 공모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3-1-44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수요기반 기술이전	최대2년, 8억원 이내	75%	지정공모

소부장 분야의 품목에 부합하는 RFP의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을 통해 21년도 360여개의 RFP를 발굴하였으며, 평가절차를 통해 2021년 1차 20개, 2차 20개, 총 40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표 II-3-1-45 | 2021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신청과제	지원과제	지원금액
1차	66	20	57
2차	69	20	38

22년도 지원을 위해 180여개 RFP를 추가 발굴하였으며, 해외의존도 탈피 및 국산화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 과제를 신규 지원하고 우수한 공공기술 이전과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5)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사업은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인프라·인력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플랫폼화)하여 소부장 기업의 혁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신설되어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1단계(과제기획)과 2단계(전략협력R&D)로 나누어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사업으로, 운영기관 소속 연구자와 참여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운영기관에서 발굴한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품목 관련 RFP를 대상으로 사전연구 등을 수행하는 1단계(과제기획)을 지원한다. 이후, 1단계 지원기업 중 과제기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필요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2단계(전략협력 R&D)를 지원한다.

2021년에는 1단계(과제기획) 선정 30개 과제 및 2단계(전략협력R&D) 선정 20개 과제를 신규로 지원하였으며, 시장에 필요한 소부장 핵심기술의 발굴을 위하여 약 3만개 기업 대상의 수요기술 조사를 통해 소부장 핵심 전략품목 관련 RFP 60개를 발굴하였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100대 전략품목 중 미지원된 품목 관련 기술의 신규 기획 및 지원을 추진하여 정부 정책의 완결성을 제고 하였다.

표 II-3-1-46 | 2021년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21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1단계 과제기획	4.5	30
2단계 전략협력R&D	38	20

26) 산학연 Collabo R&D 지원사업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학의 연구인력 등 보유자원을 활용 지원하는 산학협력R&D,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지원하는 산연협력R&D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예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여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1단계(예비연구)를 도입하여 아이디어 및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R&D를 지원하는 2단계(사업화R&D)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우수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440억원(672개)을 지원하였으며, 2021에는 1단계(예비연구) 150개 과제(산학100개, 산연50개), 2단계(사업화R&D) 272개 과제(산학 190개, 산연 82개)를 지원하였다.

표II-3-1-47 | 산학연collabo R&D 사업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합계	123	250	317	422	448	422	
1단계	산학협력	86	175	102	206	49	100
	산연협력	37	75	44	89	25	50
2단계	산학협력	-	-	119	89	261	190
	산연협력	-	-	52	38	113	82

27)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은 지역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2020년 신설되어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8개 권역별(권역 : 서울경기인천, 강원,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충북)로 컨소시엄(지역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을 구성하여 지역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기술의 기획부터 개발 및 보급·확산까지 R&D 전주기 지원을 목표로 한다. 과제의 지원은 1단계(과제기획), 2단계(공동수요기술 R&D), 3단계(사업화 R&D 및 보급·확산)까지 총 3단계로 나누어 지원한다.

2021년에는 2단계(공동수요기술R&D)선정 22개 과제를 계속 지원하였으며, 사업 참여 구성원 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과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발굴 과제의 기술·사업화 애로에 대한 전문가 매칭 및 현장 해결 등을 통해 성공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표 II-3-1-48 | 2021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20년		2021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1단계 과제기획	13	42	-	-
2단계 공동수요기술R&D	50	22	58	22

* 3단계의 경우 2단계 완료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선정 후 2023년 지원예정

28)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사업 지원

대학에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산학협력 거점으로 개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역량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은 사업수행 기간 대학의 연구실에 1인 이상을 파견하고, 대학은 실험실·연구인력·장비·기술이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분석, 2단계 맞춤형 R&D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20년도 신설되어 2022년까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II-3-1-49 | 운영기관별 참여기업 신청 및 선정 현황

(단위 : 개)

구분		1단계 (기술 역량분석)			2단계 (맞춤형 R&D 수행)			
		신청	지원	경쟁률	추천	신청	지원	경쟁률
수도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45	50	2.9:1	25	25	15	1.7:1
중부권	한밭대학교	91	58	1.6:1	25	25	15	1.7:1
대경권	금오공과대학교	54	40	1.4:1	25	25	15	1.7:1
동남권	창원대학교	58	46	1.3:1	25	25	15	1.7:1
호남권	전북대학교	63	52	1.2:1	25	25	15	1.7:1
합계		411	246	1.7:1	125	125	75	1.7:1

① 기술역량분석

대학은 산학협력R&D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문가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전략을 기획을 지원한다.

표 II-3-1-50 | 중소기업 기술역량분석 추진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20
기술역량분석(1단계)	과제수	246
	금 액	4

② 맞춤형 R&D 지원프로그램

1단계에 수립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참여기업 파견인력과 운영기관의 과제 책임자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하여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기업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3-1-51 | 연도별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 추진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맞춤형 R&D 지원(2단계)	과제수	75(신규)	75(계속)	74(종료)
	금 액	56	112	55

29)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지원사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지원사업은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컨소시엄으로 대학·연구소 기술지주회사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이전·창업 및 사업화 확대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2020년 신설 되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기술지주회사는 신산업분야 창업 유망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발굴하고, 자회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자회사는 신기술 도입을 통해 상용화를 촉진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고 매출실현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전문역량을 가진 10개의 대학·연구소 기술지주회사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과제별 4개 내외 자회사를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여 총 51개 수행기관에 사업화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동사업이 지역사업임을 감안하여 총지원액 기준으로 지역간 비중을 보면 수도권은 30%, 비수도권은 70% 비중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3-1-52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지원사업의 지원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지원과제수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수도권	3	2,160	3,000	2,880	8,040 (30.0%)
비수도권	7	5,040	6,600	6,720	18,360 (70.0%)
합계	10	7,200	9,600	9,600	26,400

동사업의 사업화 성과창출 및 과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1년부터 선도과제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우수성과를 나타낸 컨소시엄을 지정(2개)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동사업의 대표사례를 창출하고 타 컨소시엄 과제의 애로 사항 컨설팅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동사업의 성과는 2021년 국비 9,600백만원을 지원하여 신규일자리 창출 214명, 신규 기술창업은 41건이 발생했다. 예산 10억원당 고용효과는 22명이며, 기술 창업 효과는 4.3건이다. 동 사업의 신규 고용증가율은 '20년 154명에서 '21년 214명으로 전년 대비 3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업화 확대 추진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사업은 신산업의 창업이 증대하며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수행기관별 매출발생액이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의 목적을 잘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다.

표 II-3-1-53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지원사업의 추진성과

(단위 : 명, 건, 억원)

구분	성과목표	2020	2021	누적치
지원예산	-	7,200	9,600	16,800
신규고용(명)	100	154 (15.4)	214 (21.4)	368
기술창업(건)	25	39 (3.9)	41 (4.1)	80
사업지원매출발생액	-	23	75	98

※ 2020년 시작 사업이며, ()는 10개 과제당 평균치.

창업·벤처기업(자회사)의 안정적인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자회사의 투자유치 성과가 중요하다. 투자유치 확보를 위해 기술지주회사 차원에서 자회사의 투자유치 지원 독려와 함께 자회사의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간 네트워크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성과 제고를 할 계획이다.

3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육성

- 기술개발과 권 현 주
- 상생협력정책과 전 상 민

가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정부는 '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19.8.5) 및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19.8.28)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31)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여 소재·부품·장비 전문 '스타트업 → 강소기업 → 으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통해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19.12월 54개사, '20.11월 46개사를 선정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21년부터 프로젝트명을 강소기업100+로 변경하고, 선정분야 확대 등을 통해 '21.11월 20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120개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을 선정하였다.

표 II-3-1-54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120개사)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 개)

계	경기	충남	경남	충북	대전	부산	경북
120	50	11	11	12	6	6	4
광주·전남	대구	인천	울산	서울	세종	전북	강원
5	3	3	2	2	3	1	1

선정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를 이끌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시 우선 지원하고, 지원 사업을 안내받고 애로사항을 One-Stop으로 건의하는 일원화된 창구인 전담 지원단(전담인력 10명)을 운영하여 실시간 소통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일반기업은 불가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도 강소기업은 허용하는 등 사업화 지원도 우대한다.

이를 통해 '21년 12월 기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개사에 1,173억원의 R&D 자금을 비롯하여 총 7,309억원(평균 73억원)을 지원하였고, '21년부터는 기업당 최대 4년·20억원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전용 R&D(누적 70개 과제 선정 완료)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기술개발하는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R&D(최대3년, 12억원, 누적 20개 과제 선정 완료)를 신설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표 II-3-1-55 | 사업종류별 '21년 강소기업 지원 현황(100개사)

(단위 : 억원)

구 분	R&D	정책자금·보증	투자	기타	합계
지원금액	1,173	5,451	593	92	7,309

나. 소재·부품·장비 상생협의회 출범(상생모델 발굴)


정부는 '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19.8.5)을 발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위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산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식 출범('19.10.16)하였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설치·운영 및 상생모델 발굴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20.4.1 시행)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상생모델 개념 마련, 제8조에 상생협의회 근거 및 기능 마련, 시행령 제14조 실무지원단 설치

상생협의회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과 수요 대·중견기업을 연결하는 민간 중심 협의체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유기적 상생모델 발굴 및 성공사례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상생모델은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생산이 가능하면서 중소제품의 판로가 대기업으로부터 일정부분 보장되는 형태이다. 상생모델 발굴에는 중기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수요·공급기업이 직접 참여하며, 상생협의회 의결 및 관계부처의 지원 협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현재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9회 개최('19년 2회, '20년 3회, '21년 4회)하여 '소부장 상생모델' 17건(대기업 26개사, 중소기업 21개사)을 발굴하고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승인하였다. 승인 완료된 17건의 상생모델에 대해서는 19건의 기술개발 과제뿐만 아니라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68건의 정부 요청사항 또한 범부처 연계 협업으로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향후 24년까지 50개 이상의 상생모델 발굴을 목표로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p>협동연구 + 공급망 상생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5G 확대로 인덕터용 트로이달 코일 수요가 증가하고 95% 이상 해외 의존하는 권선장비를 초기부터 대기업과 협력(실증테스트, 스펙제공 등)하여 개발하고 납품 예정 * 수요 대기업 이외에 신규 대기업 등과 납품 계약 진행중 	
---------------------------------------	---	---

4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 제조혁신정책과 염정수
- 제조혁신정책과 홍승한
- 제조혁신지원과 주재범
- 제조혁신지원과 김연호
- 제조혁신지원과 박현녀
- 제조혁신지원과 황진아
- 제조혁신정책과 차유라

가.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크게 신규구축과 고도화로 구분되며, 신규구축은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을 지원하고 고도화 사업은 기 구축된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및 연동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솔루션은 현장자동화(센서, 컨트롤러 등),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 제조현장운영시스템), 제품개발(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수요예측, 생산계획수립 등), 기업자원 관리(ERP)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주도형 스마트공장 보급과 더불어 '18년부터는 대기업·중소기업이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확대되었으며, '21년 말까지 누적 2만5,039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함으로써 당초 목표치(23,800개)를 초과 달성하였다.

표 II-3-1-56 | 민간·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2020	2021	합계
민간	133	304	546	525	679	1,937	2,409	2,480	9,013
정부	144	659	1,014	1,678	2,221	2,820	4,730	2,760	16,026
합계	277	963	1,560	2,203	2,900	4,757	7,139	5,240	25,039

나.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정부주도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02년부터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14년~)과 지역특화산업육성('15년~)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어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였다.('17.7)

'21년도는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2,760개를 보급하였다.

표 II-3-1-57 |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실적(중소벤처기업부)

(단위 :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개)	-	308	649	1,218	2,127	2,820	4,730	2,760
생산현장디지털화(개)	144	137	147	193	-	-	-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개)	-	37	58	46	94	-	-	-

*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은 '18년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은 '19년부터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으로 통합

스마트 제조 저변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21년부터 보급체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연결을 통한 기업간 협업을 강화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21년 8개 컨소시엄 지원)과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 트윈을 적용하여 실시간 원격제어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21년 10개사 지원) 등을 통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민간주도의 대표적인 사업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으로서 '21년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2개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총 270.2억 원을 출연하여 999개 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년부터는 민간의 자발적 스마트공장 구축을 유도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 수준확인 기관을 통해 '19년 914개, '20년 1,409개, '21년 1,456개 등 총 3,779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인하였다.

라. 스마트공장 보급 성과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산성은 28.5% 향상되었고, 품질은 42.5% 향상, 원가는 15.5% 절감, 납기는 16.4% 단축되었다.

표 II-3-1-58 | 스마트공장 지원 성과('14~'18년 7,903개 지원기업 대상)

(단위 : %)

구분	공정개선 성과				경영개선 성과		
	생산성(P)	품질(Q)	원가(C)	납기준수(D)	고용	매출액	산업재해
'14~'18	28.5% ↑	42.5% ↑	15.5% ↓	16.4% ↑	2.6명 ↑	7.4% ↑	6.2% ↓

특히,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매출이 7.4% 증가하면서 고용도 평균 2.6명이 증가하여 제조 경쟁력 확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산업재해율도 6.2%가 감소하는 등 근로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사례(아신유니텍)



우수사례(태림산업)



우수사례(오성전자)

마.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 구축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①제조 데이터 저장·분석 인프라, ②인공지능 개발·활용 도구, ③인공지능 데이터셋과 표준모델, ④상품화된 인공지능 제조 서비스(솔루션), ⑤전문가 컨설팅·실증과 교육 서비스 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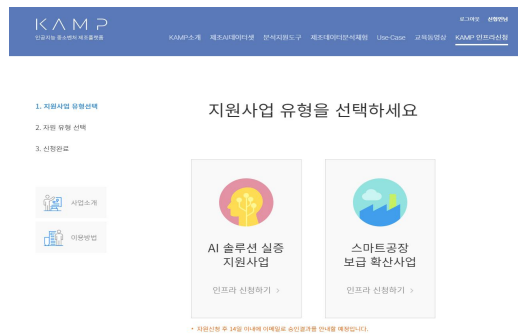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이자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제조업 디지털화 핵심 후속 조치로, 동 사업*을 2020년 신규 기획하여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을 구축하였다.

*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 ('20) 116억 → ('21) 134억 → ('22) 154억

KAMP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인공지능 분석 도구, 인공지능 제조데이터셋, 교육 동영상, 전문가 컨설팅·기술도입(실증)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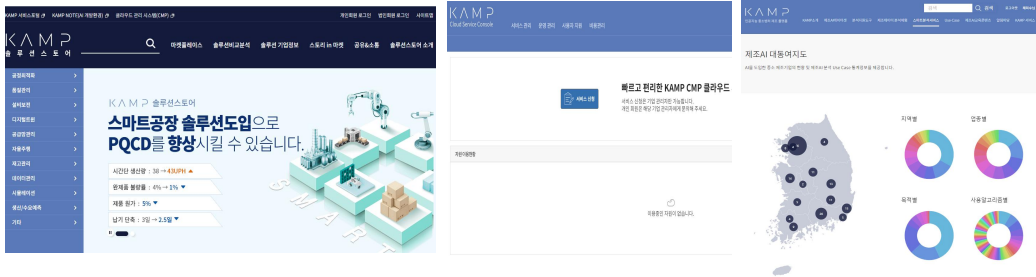
* KAMP 서비스 포털 홈페이지 메인화면



* KAMP 인프라 신청 화면

또한 다양한 솔루션의 등록 및 품질관리, 솔루션간의 비교 거리가 가능한 솔루션 스토어와 KAMP 포털 클라우드 자원활용을 지원하는 CMP(클라우드 자원관리) 등을 구축하여 KAMP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에 더해 인공지능을 통한 제조데이터간 연결 및 의미를 가시화해 보여주는 제조AI대동여지도·트렌드 분석 서비스를 구현하고,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과 데이터셋을 추가 구축하여 기존 서비스도 확충했다.



* KAMP 솔루션 스토어

* 클라우드 자원관리(CMP)

* 제조AI 대동여지도

KAMP는 2021년까지 인공지능 제조 컨설팅 및 실증 지원을 통해 200개 공장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했으며, 업계가 주목할 만한 우수사례*도 다수 창출하였다.

- * (예시) ① 인공지능으로 콘택트렌즈 가공공정 최적화, 도수 적중률 70→95%,
- ② 내화물 품질검사에 인공지능 도입, 불량 판정 신뢰도 90→96% 향상
-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형 단조프레스 진동데이터 학습으로 부품파손 1시간 전 사전예측

표Ⅱ-3-1-59 | 2021년 인공지능 제조 컨설팅 및 실증 연계 지원과제 현황

(단위 : 개)

구분	선정목표	신청과제	지원과제
도입기업	100	204개	100

2022년에는 제조데이터 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조데이터 소유권을 보장 하며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KAMP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제조혁신의 성과를 중소제조업 전반으로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5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 기술정책과 남 정 렬
- 기술정책과 원 미 연
- 제조혁신지원과 임 기 흥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 확대

1) 정부의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부처 및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함)¹⁶⁾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시행기관(중기부 포함 22개)의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는 4조 3,358억원으로, 시행기관 전체 R&D 예산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전체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 7.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부(중기부 포함 15개)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는 2021년 4조 2,929억원으로, 시행기관 전체 R&D 예산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조 6,124억 원을 지원하여 전체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의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1조 3,632억 원(3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95억 원(9.4%), 방위사업청 2,794억 원(6.4%), 국토교통부 1,706억 원(3.9%) 등의 순으로 중소기업 R&D를 지원하고 있다.

16) KOSBIR 시행기관 : (정부부처 15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공기관 7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표 II-3-1-60 |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시행기관 R&D 예산*(a)		183,352	182,487	190,856	223,054	244,503	7.5
중소기업 지원규모**	정부기관(b)	29,984	29,730	29,497	36,246	42,929	9.4
	공공기관(c)	361	387	387	391	429	4.4
	계(b+c)	30,345	30,117	29,884	36,637	43,358	9.3
중소기업 지원비중	정부기관(b/a)	16.4	16.3	15.5	16.2	17.6	-
	공공기관(c/a)	0.2	0.2	0.2	0.2	0.2	-
	계(b+c/a)	16.6	16.5	15.7	16.4	17.7	-

* KOSBIR 시행기관('21년 기준 22개)의 R&D 전체 예산

** '20년부터 중기부가 KOSBIR 시행기관에 포함되어 '17~'19년 실적에 중기부를 포함하여 산출

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 확대

2021년 공공기관(7개)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는 429억원으로, 시행기관 전체 R&D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 239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05억원, 한국가스공사 29억원 등의 순으로 중소기업 R&D를 지원하고 있다.

표 II-3-1-61 | KOSBIR 시행기관별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기 관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78	3,386	2,850	3,376	4,095
산업통상자원부	11,984	11,371	11,659	13,751	16,124
방위사업청	2,253	1,734	1,968	2,554	2,794
국토교통부	1,305	1,297	1,349	1,479	1,706

기 관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환경부	728	840	837	984	1,109
농림축산식품부	614	689	649	508	618
보건복지부	401	487	498	701	1,017
문화체육관광부	328	334	317	402	486
해양수산부	237	277	315	342	399
중소벤처기업부	8,248	8,749	8,476	11,355	13,632
농촌진흥청	196	227	236	267	281
기상청	48	49	41	35	41
산림청	24	38	41	48	74
행정안전부	111	102	100	133	270
특허청	130	147	162	309	284
한국전력공사	218	237	223	221	239
한국가스공사	32	34	35	29	29
한국도로공사	18	19	22	23	23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
한국수자원공사	8	10	9	13	19
한국수력원자력	75	77	85	94	105
한국전력기술	6	8	8	7	7
한전KPS	3	3	5	4	6
합 계	30,345	30,117	29,884	36,637	43,358

나.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9년 녹색기술·첨단융합·고부가서비스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를 수립하는 등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중장기적 기간 설정, 산·학·연 혁신주체 포괄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기술전략은 중소기업 지원 시 해당 분야를 직접 정책에 활용하기에는 애로가 있었으며, 중소기업들도 거시적 로드맵을 활용하여 해당 기업의 사업 운영 방향을 직접적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정부의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0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은 국가 전반의 산업전략과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 발표되었던 정부의 중점 육성분야와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제조기반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각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과 기존 문헌 및 시장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유망기술을 좁혀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21년에는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성장기반, 소재부품장비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부 정책방향, 중기부 R&D 수행과제 조사·분석 등을 통해 41대 전략분야를 도출하고, 기업·전문가·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 조사 등을 거쳐 총 328개의 전략제품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전략제품별로 시장·기술·특허 분석 등을 거쳐 총 1,245개의 요소기술을 도출하고 기술별 기술개발목표 제시한 바 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에 따라 미래 공급망을 창출선점 하기 위해 미래소재, 그린에너지 등 신산업분야를 확대하여 총 104개 핵심전략품목을 도출하였다.

표 II-3-1-62 |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추진경과

- (2010년) 녹색, 융합, 제조기반의 3대 분야로부터 풍력, 수소연료 전지 등 26개 전략분야를 도출하고 112개 전략제품, 1,050개 핵심기술로 구체화
- (2011년) 전년도 로드맵 업데이트를 통해 17개 전략분야, 138개 전략제품, 1,090개 핵심기술 지정하고 각 단계마다 무역현황 등의 분석지표를 추가
- (2012년) 녹색분야 재정의, 서비스분야 신설 등을 추진하고 16개 전략분야, 133개 전략제품, 1,005개 핵심기술을 지정
- (2013년) 수송기계, 안전보안 등을 추가하여 20대 전략분야, 181개 전략제품, 1,404개 핵심기술을 도출
- (2014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smroadmap.smtech.go.kr) 구축을 통해 접근성 향상. 우주항공 분야 등을 추가하여 20대 전략분야, 215개 전략제품, 1,720개 핵심기술 도출
- (2015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ICT융합 분야 등을 추가하여 20대 전략분야, 233개 전략제품, 1,847개 핵심기술 도출
- (2016년) 기존 20대 전략분야를 신성장동력 40대 분야로 확대재편. R&D사업과의 연계성 강화하였고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266개 전략제품, 1,569개 핵심기술 도출
- (2017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으로 재편하여 236개 전략제품, 1,671개 핵심기술 도출
- (2018년)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분야별 산업별 구조분석을 강화하였고, 블록체인, 핀테크 등 신성장분야 추가하여 224개 전략품목, 1,610개 핵심기술 도출
- (2019년) 특허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핵심기술 도출방식을 고도화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추가하여 208개 전략제품, 1,351개 핵심기술 도출
- (2020년) 디지털뉴딜(DNA·비대면), 그린뉴딜 등 한국판뉴딜 분야 전략제품을 추가 발굴하여 296개 전략제품, 1,111개 핵심기술 도출
- (2021년) 디지털, 환경 관련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재밍(Jamming)을 통해 발굴된 국민제안 품목을 반영하는 등 총 32대 분야, 224개 품목을 전략제품으로 선정하고 1,245개 핵심기술 도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그린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선도 신산업 창출 가능한 분야를 확대하여 총 9대 분야, 104개 전략품목을 선정.

기술로드맵은 단순히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R&D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표 II-3-1-63 | 기술로드맵 전략기술 도출현황

구분	전략 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 (23대)	①인공지능 ②빅데이터 ③5G+ ④블록체인 ⑤서비스플랫폼 ⑥실감형콘텐츠 ⑦드론·개인이동 수단 ⑧지능형로봇 ⑨스마트제조 ⑩자율주행차 ⑪시스템반도체 ⑫미래형선박, ⑬재난/안전 ⑭스마트시티 ⑮스마트홈 바이오 의료기기 ⑯기능성 식품 전기·수소차 ⑰신재생에너지 ⑱이차전지 ⑳자원순환·에너지재활용 ㉑CCUS
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①반도체 ②디스플레이 ③전기전자 ④자동차 ⑤기계금속 ⑥미래소재 ⑦바이오 ⑧그린에너지 ⑨비대면디지털
중소기업 성장 분야 (9대)	①유기소재 ②세라믹 ③금속 ④복합소재 ⑤전기전자부품 ⑥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⑦ 정밀기계 ⑧일반기계 ⑨섬유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 등 7개 사업에 대해 기술로드맵 전략기술을 지원하는 전용과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의 전략적 방향성 제시를 해나갈 계획이다.

다. 뿌리중소기업 육성

뿌리산업은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전통주력산업과 로봇, 바이오, 드론, 전기·수소차, 반도체 등 신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뿌리기술)산업으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공정산업 특성상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되고 전수되기에, 개도국이 단기간에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프리미엄 기술영역이라 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근로환경 개선(공정 자동화, 안전·친환경화 등)과 재직자 교육 등을 통한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

표 II-3-1-64 | 뿌리산업 관련 추진경과

- 2010. 5. : 제5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 2011. 7.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
- 2012. 12. :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13~’17년)』 수립
- 2017. 11. :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18~’22년)』 수립
- 2020. 7. :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 수립
- 2021. 6.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정부는 2010년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1, 2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뿌리산업 육성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뿌리산업으로 전환을 위하여 2020년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1년 6월 「뿌리산업법」을 개정을 통해 뿌리산업의 범위*를 확대 개편하였다.

* 기존 주조, 금형 등 공정기술(6개)에서 소재 다원화(금속→플라스틱, 세라믹 등) 공정기술(4개)과 로봇, 센서 등 지능화 공정기술(4개)을 추가하여 6대에서 14대 기술로 확대

1)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2013년부터 뿌리기업 중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1,318개사를 지정하였다.

* 뿌리기술(14대 분야) 중 기술/경제적 가치,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뿌리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고시한 333개 핵심뿌리기술 : 주조(49), 금형(47), 소성가공(49), 용접(50), 표면처리(51), 열처리(40), 사출프레스(8), 정밀가공(8), 적층제조(8), 산업용 필름 및 지류(8), 로봇(4), 센서(3), 산업지능형소프트웨어(4) 엔지니어링설계(4)

향후에도 뿌리산업의 우수 뿌리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뿌리기술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

뿌리기업의 수작업 및 高노동부하공정 등 노후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첨단화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을 2013년부터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22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최근 5년간('17년~'21년) 156개사, 150.5억 원을 지원하였다. 수혜기업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향상(73.2%), 불량률 개선(64.0%), 비용절감(31.8%) 등 공정개선 성과가 있었으며, 근로자의 노동강도 줄이고 및 재해유발 요인제거 등 작업환경 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3-1-65 |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지원성과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실적(개사)	44	22	35	22	22	145
예산(억원)	40.5	20	30	20	20	130.5
생산성향상(%)	65	80	50	81	90	-
불량률개선(%)	55	68	55	73	69	-
비용절감*(%)	35	31	27	17	49	-

* 불필요 비용감소, 리드타임 감소로 인한 비용 감소, 불량률 감소로 인한 반품 비용 감소 등

3)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

뿌리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개별기업에 수행하기 어려운 현장인력 교육을 위해 뿌리기술 Academy를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코칭사업을 통해 전문가(뿌리기술 명장, 연구원 등)의 기술 노하우 전수 등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 뿌리기술 Academy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초·중급 뿌리기술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재직자 1,221명을 교육하였고, 맞춤형 코칭은 뿌리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기업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핵심 공정별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 수요중심의 교육과정 체계를 마련하고, 뿌리기업과 재직자의 역량강화에 기여하였다.

국내 제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뿌리기업의 현장수요에 적극적 대응하고 공정개선과 현장애로 해결, 전문가 양성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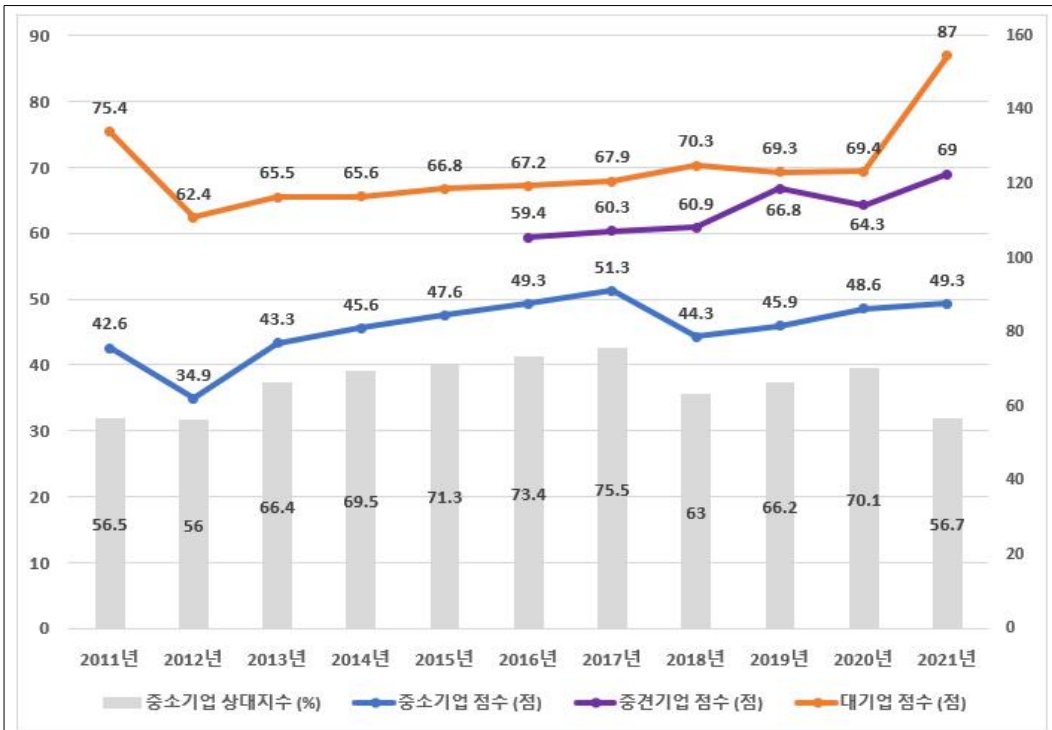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 기술보호과 윤 삼 석
- 기술보호과 추 형 준
- 기술보호과 김 혜 규
- 제조혁신지원과 박 현 녀

가. 中企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9.3점이며, 대기업 대비 상대지수는 56.7%로 조사되었다.

그림 11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점수(중소벤처기업부, 2022)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14년 11월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 추진, 기술보호 기반 확충,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설치·운영 등 사전예방부터 사후구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동법 제14조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4.12.22), 기술보호 및 기술유출 등 관련 사항에 대한 통합 지원창구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고자 법 시행과 동시에 관계부처(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간 업무협력 MOU를 체결('14.12.18)하여 기관 공동대응 기반을 마련하였고, 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소관 정책 정보를 직접 등록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처별(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로 운영되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일원화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를 개소('16.1.28)하여 산업기술유출, 특허침해, 기술유용·유출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중소기업 자체 보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보호 종합대책('16.4)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 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고대응 핫라인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신고·제보 접수기능을 부가하여 체계를 강화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정협의를('17.12, '18.2)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18.2.12)'을 마련·발표하였으며 대책 후속 이행과제로 '기술보호 법무지원단('18.6)과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18.5)' 발족, 기술탈취 근절 TF 운영('18.5)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현장작동 가능한 예방수단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18.6.12)하여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시행일('18.12.13)부터 중기부 공무원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를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상생협력법 개정 시행(22.2.18.)을 통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자료 송부요구권 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그 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이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을 완화시키기도 하였다.

기술자료 유출에 대비하여 기술자료를 주고받은 정황 증거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19년 2월부터 구축·운영 중이며, 비밀유지 협약(NDA) 체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2개에 NDA를 의무화(19.11) 하였다. 또한 민·관 합동 위원회인 '상생조정위원회'를 출범(19.6.27)하여 기술침해·불공정 사건의 신속한 사건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수단으로 기술보호 진단·자문 및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24시 보안관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적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 CEO·임직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1)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의 사전예방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보안 취약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3일간 사전 진단 및 보안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보안상의 문제가 발견되거나 기술유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최대 7일까지 심화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이 확대되고 보안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의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현장자문 지원 분야에 스마트공장 부문을 신설·지원하였고, 2021년 스마트공장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였다. 2021년 기준 총 1,085건을 지원하였다.

2) 기술자료 임치

분쟁발생 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하고 거래기업 간에는 안정적인 기술사용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임치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이다. R&D 성과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201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 R&D 성과물 의무임치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동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기업이 보유한 기술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치수수료의 1/3을 감면해 주고 있다.

2020년 1월부터는 5년 이상 장기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임치수수료의 1/2 감면을 추가하였다. 또한, 2020년 10월부터는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1년간 무료(벤처기업은 5만원)로 임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임치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임치한 핵심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을 위해 2015년부터 임치기술 활용지원 사업을 신규로 운영하여, 임치기술 236건에 대하여 총 52,794백만 원('15~'21년)의 대출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 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인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TTRS)'을 '19.1월부터 시행하여 '21년까지 982건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을 지원하였다.

3) 기술지킴서비스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사이버 침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중요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이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무료 보안관제 제공 및 기술적 애로 사항을 지원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기획 및 설계를 통해 기업의 보안 환경에 적합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4)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 운영

조정·중재제도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분쟁에 따른 소송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1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휘하며,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21년 한 해 동안 25건의 신청을 받아 15개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9건의 조정 성립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5)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제도는 기술탈취에 대한 법적구제방안으로 마련되어 있는 민·형사·특허소송이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18.12월에 도입되었는데, 중기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결과를 「기술침해자문단」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명령을 위해 운영되는 규제기관의 행정조사제도와 달리 조정·중재 성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18.12월 법 시행 이후 '21년 말까지 49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35건의 사건이 종결되었다.

6)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대전 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18.6.11)하고 법무지원단 전문가풀을 구축하였다.

법무지원단은 법무팀을 운영하는 대기업과는 달리 법무역량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법률자문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1 전문가 매칭을 통해 연간 최대 30시간 내에서 법률자문, 컨설팅, 서면작성 등의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1년 한 해 동안 183개사의 기술유출 예방 및 분쟁대응 관련 심층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다.

7) 기술보호지원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책임관과 보안·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을 발족(18.5.10)하여 전국적인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기술보호 관련 제도를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보호에 관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술유출이나 분쟁사건 발생 시에는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초동상담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중기부의 다양한 지원사업 및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

표 II-3-1-66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진실적('21년 기준)

(단위 : 개사,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술보호 진단·자문	430	206	517	898	1,000	617	737	801	821	620	966	1,085
기술자료 임치	453	618	2,706	5,685	7,161	8,562	9,467	9,216	9,522	10,415	11,226	13,457
지킴 서비스	-	253	268	498	1,528	2,468	1,076	919	1,056	955	1,026	1,279
보안시스템 구축	53	-	-	27	27	43	44	34	46	55	56	59
법무 지원단									60	47	164	183
기술분쟁 조정·중재						22	17	19	19	21	30	25
기술보호 지원반									24	30	169	181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기술보호 안전장치를 지원하여 기술탈취유출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공정위, 특허청 등과 범부처 협업체계를 확립하여 조정·중재, 공동조사, 침해기술 판단 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나.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세계경제포럼(WEF)의 ICT 보급지수('20)에 따르면, 조사대상 140여개국 중 1위(스웨덴 4위, 일본 5위, 싱가포르 6위)로 조사되었다. 반면, 동 조사에서 확인된 국가경쟁력('19)은 13위(싱가포르 1위, 일본 6위, 스웨덴 8위)로 조사되었다.(국가경쟁력('20) 조사는 코로나-19 등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 실시되지 않음)

위 결과에 따르면, IT 인프라의 보급 및 구축 수준에 비해 IT 활용 및 이를 통한 효과나 성과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에 대한 접근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지만 잘 갖춰진 IT 인프라를 경제발전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수준 향상과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2000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조사를 실시해 왔다.

2021년에는 총 4,600개 기업(중소기업 4,000개, 대기업 300개, 지원기업 300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정보화수준은 71.52점(100점 만점)으로 대기업(78.99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중소기업 공통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 분야에서는 '전략 수립'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고, '구축활용'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으며 대기업과의 격차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67 | 중소기업 분야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2021년)

구 분	정보화수준	전략수립	추진환경	구축활용
대 기 업	78.99 (기업간협력)	90.68	75.57	70.12
중소기업	71.52 (기업간협력)	82.59	66.61	64.94

* 정보화 발전단계 : 정보화 도입 → 단위 정보화 → 기업 내 통합 → 기업 간 협력 → 전략적 혁신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표 II-3-1-68 | 연도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대 기업	72.78	72.92	75.48	77.37	78.18	78.99
중소기업	59.97	61.05	67.15	68.73	70.81	71.52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1년부터 경영·생산 현장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다양한 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클라우드 기반으로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저비용·고효율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을 지원하는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이 있다.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은 클라우드컴퓨팅 방식으로 특정 업종이나 단체별로 공동사용이 가능한 특화 솔루션과 다수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기 정보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정보화비용 감축 효과 달성은 물론, 시공간에 자유로운 접근성,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다. 2021년 12월 말 기준 대-중소기업간 정보화 격차 해소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 83개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내 대기업과의 정보화 격차를 줄여 나가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뒤처지지 않는 정보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3-1-69 | 연도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규 솔루션 개발	7	14	7	4	10	14	12	9	6

제2절 혁신금융 공급 및 금융안전망 강화

1

금융시장 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 기업금융과 고건호

2021년 국내 금융시장 국고채(3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21년도 3분기 이후 국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외국인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3년물이 2.11%(11월 1일), 10년물은 2.58%(10월 29일)까지 급등하였다.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대출이 직접금융시장(주식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확대의 영향으로 소폭증가에 그쳤으나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 노력으로 큰 폭 증가하여, 2021년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020년에 비해 87.5조원이 증가한 927.3조원으로 확대되었다.

표 II-3-2-1 | 중소기업 대출잔액 및 대출금리(한국은행, 2021년)

(단위 : 조원)

지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출 잔액	중소 기업	839.8	847.9	855.5	864.8	871.6	876.8	886.6	893.2	901.1	910.2	917.7	927.3
	대기업	189.8	190.4	193.1	190.3	189.3	189.7	191.0	191.7	192.3	194.3	197.1	196.0
대출 금리	중소 기업	2.90	2.85	2.88	2.82	2.83	2.85	2.85	2.93	3.05	3.14	3.30	3.37
	대기업	2.41	2.46	2.52	2.44	2.42	2.53	2.45	2.56	2.64	2.67	2.90	2.86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대비 43.1% 증가한 75조 8,133억원을 형성하였다. 대기업은 전년 대비 46.2% 증가한 70조 5,898억원을 조달하여 전년도 증가율 1.5%를 크게 상회하였다.

중소기업의 조달규모는 5조 2,2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고, 주식 발행 및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시장으로부터 전년 대비 10.9% 증가한 5조 15억원을 조달하였다. 회사채 발행금액은 전년 대비 31.0% 증가한 2,220억원을 조달하여 중소기업 주식시장 조달금액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표 II-3-2-2 | 2021 기업 규모별 자금조달 현황(금융감독원)

(단위 : 억원, %)

구분	20년	21년	증가율
전체	529,714	758,133	43.1
대기업	482,940	705,898	46.2
중소기업	46,774	52,235	11.7
주식	109,164	290,903	166.5
대기업	64,080	240,888	275.9
중소기업	45,084	50,015	10.9
회사채(일반)	420,550	467,230	11.1
대기업	418,860	465,010	11.0
중소기업	1,690	2,220	31.4

* 금융채, ABS제외

2021년 중소기업의 내수·수출·영업이익은 상반기에 저점을 기록한 뒤 하반기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주었고, 자금사정은 2월에 66.9 최저치를 기록하고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소폭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II-3-2-3 | 2021 중소기업 경기변동 실적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중기중앙회)

지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내수판매	65.3	64.9	75.1	78.7	77.7	77.3	73.5	70.8	76.3	77.5	82.8	80.5
수출	85.2	79.0	90.8	85.5	86.7	80.2	81.4	76.5	78.9	90.3	91.5	90.5
영업이익	63.2	62.3	70.4	72.9	72.6	72.1	70.1	69.2	72.8	74.0	76.9	77.1
자금사정	67.1	66.9	72.5	74.4	75.8	75.5	71.1	71.3	72.8	73.7	76.5	77.4

2

정책자금 지원

▪ 기업금융과 고건호

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의 및 운영 현황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 자금이다. 또한, 정책자금은 창업기업, 경영 애로기업 등 민간금융에서 기피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직접·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원부자재 가격 및 물류비가 급등하는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편, 경제 및 사회전반의 온라인·비대면화에 기한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기술창업이 증가하여 창업기업의 자금수요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당초 예산 54,100억원 대비 6,000억원(11.1%↑)을 증액한 60,100억원*을 편성하여 경영 애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II-3-2-4 |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사업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0,500	20,460	22,000	27,500	25,500
투융자복합금융	1,500	1,700	2,000	2,000	1,4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750	5,900	2,800	3,000	5,000
신성장기반자금	12,300	10,800	12,100	14,300	17,700
재도약지원자금	2,550	2,790	2,600	3,100	2,500
긴급경영안정자금	3,750	2,500	2,080	13,000	8,000
합 계	46,350	44,150	43,580	62,900	60,100

* 당초 예산 54,100억원, 증액 6,000억원, 총 60,100억원 집행

나. 2021년 정책자금 운용성과

1) 미래 신산업 및 한국판뉴딜 중점 지원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BIG3, D.N.A. 등 미래 신산업 영위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뉴딜 분야와의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촉진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비대면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미래 신산업(혁신성장분야)을 중점 지원분야로 지정하여 우선 지원하였으며, 특히, 국가전략과 산업 측면에서 육성이 시급한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D.N.A.(데이터, 5G, AI)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20년 3,679억원 → '21년 6,558억원)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의 핵심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뉴딜”과 연계하여, 디지털·그린·지역균형뉴딜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였다.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을 확대('20년 5,000억원 → '21년 6,000억원)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및 ICT 기반의 시설투자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역량을 제고하고, 친환경·저탄소 생산설비 도입 및 그린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Net-Zero 유망기업 자금을 신설('21년 200억원)하였다.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21년 지역균형뉴딜 분야 7,449억원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원자재가격·물류비 상승 등 경영애로 해소 지원 및 금융 포용성 강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어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특히, 석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해상물류를 중심으로 국제 물동량이 폭증하여 물류비가 상승했고 제조업체, 수출업체 등의 경영애로가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증액 및 추가 유동성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였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 유지에 애로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플러스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내) 2,000억원을 지원하고,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고용인원 유지 시 금리 인센티브(초저금리 전환)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융 접근성이 낮으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20년 911억원 → '21년 1,117억원), 여성기업('20년 7,621억원 → '21년 7,660억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정책자금 전체 지원실적에서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20년 88.4% → '21년 89.9%)이 증가하였다. 이는 담보력과 신용이 취약하여 민간금융 활용은 어렵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여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 포용성을 제고한 결과였다.

3) 정책자금 지원체계 디지털·비대면 전환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간금융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금융 트렌드 변화에 맞춰 고객 접근성 및 지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체계의 디지털·비대면 전환을 적극 추진하였다.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운영, AI상담 챗봇 도입을 통해 고객 맞춤형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거래조화를 통해 기업 신청서류를 간소화(기업 신청서류 : 기존 7종 → 개선 5종)하여 기업의 신청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AI를 활용한 비대면 전용 평가모형(Zero-Tact)을 도입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게 되었다. 향후에는 디지털·비대면의 범위를 대출약정까지 확대하여 기업이 대출기관인 중진공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출약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웹기반의 약정 시스템을 구축('22년 3월 예정)함으로써 상담부터 대출약정까지 정책자금 지원 전체 프로세스를 전면 비대면화 할 계획이다.

표 II-3-2-5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조건(2021년)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용 자 조 건		
		용자한도	용자기간	지 원 기 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5,500	연간 60억원 (운전 연간 5억원)	10년 이내 (운전 5년)	대상 : 업력 7년미만, 예비창업자 금리 : 기준금리 Δ 0.3%p
투융자복합금융	1,400	성장공유:60억원 스케일업:150억원	5년 이내	대상 : 미래성장성이 큰 기업 금리 : 별도금리 적용
신시장 진출지원자금	5,000	내수기업:5억원 수출기업:20억원 (운전 10억원)	10년 이내 (운전 5년)	대상 :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 수출 유망기업 금리 : 기준금리
신성장기반자금	17,700	연간 60억원 (운전 연간 5억원)	10년 이내 (운전 5년)	대상 : 업력 7년이상, 사설투자기업 금리 : 기준금리+0.5%p
재도약지원자금	2,500	연간 60억원 (운전 연간 5억원)	10년 이내 (운전 5년)	대상 : 사업전환승인, 재창업기업 등 금리 : 기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8,000	연간 10억원 (3년간 15억원)	5년 이내	대상 :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 금리 : 기준금리+0.5%p * 재해기업 : 1.9% 고정 * 코로나19 피해기업 : 기준금리

- 기업금융과 박형묵
- 벤처혁신정책과 윤성웅

중소기업 정책보증 제도를 통해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위변제 등 정책보증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출연하고 있다.

가. 보증지원 규모 확대

정책보증 지원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폭 확대되어 2005년 6월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 하반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정책보증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후, 대외 경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위기 상황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 확대 기조를 지속하여 유지하였다.

보증지원 규모는 2008년 44.3조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08년보다 60.8조원 증가한 105.1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보증기관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이 2008년보다 46.9조원이 확대된 78.6조원을, 기술보증기금이 2008년보다 13.9조원이 확대된 26.5조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표 II-3-2-6 | 연도별·기관별 보증 지원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2008년 (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B)	
								증감 (B-A)	
보증규모(잔액기준)	44.3	69.9	70.7	72.7	72.9	74.3	92.9	105.1	60.8 (137.2%)
신용보증기금	31.7	49.2	49.5	50.8	50.5	52.2	67.2	78.6	46.9 (147.9%)
기술보증기금	12.6	20.7	21.2	21.9	22.4	22.1	25.7	26.5	13.9 (110.3%)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보증기관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다.

2008년 2,500억 원을 출연했던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2조 7,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이로 인해 보증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사고율을 유지하였으며, 금융기관과 특별출연협약 등 자체수입을 증대하여 2012년에는 신·기보 설립 이래 최초로 여유재원 중 5,000억 원(신보 3,500억 원, 기보 1,500억 원)을 정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다.

표 II-3-2-7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 '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본예산	추경	계
합 계	0	45,000	1,300	1,500	1,700	2,900	2,349	2,017	2,540	38,149	7,100	806	7,906
신용보증 기금	0	43,500	700	1,000	1,300	2,100	1,841	1,417	1,510	33,266	3,600	806	4,406
기술보증 기금	0	1,500	600	500	400	800	508	600	1,030	4,883	3,500	-	3,500

2021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예산 7,100억원과 추경을 통해 806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7,90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표 II-3-2-8 | 연도별 보증 사고율 등 추이

(단위 : %, 억원, 배)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증 사고율	신용보증기금	3.5	3.6	3.3	2.4	2.0
	기술보증기금	4.4	4.5	4.5	3.4	2.5
기본재산	신용보증기금	43,852	43,115	44,099	54,859	63,004
	기술보증기금	18,397	15,579	15,570	21,100	29,176
운용배수	신용보증기금	10.1	10.6	10.7	10.0	9.4
	기술보증기금	11.6	14.1	14.0	12.1	9.0

이를 통해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 위기 등을 조기에 감지하여 재정투입 규모 대비 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보증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매출액 증가, 고용안정 등 지원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보증기관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9.3배 수준의 안정적인 보증운용배수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대폭 늘어난 유동성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가상승에 기인한 금리인상, 공급병목 현상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나. 창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원 강화

2021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창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등 중점 지원분야에 2008년 대비 약 398% 증가한 84.1조원을 지원하였다.

표 II-3-2-9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중점분야 지원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2008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6.9	67.3	68.3	71.3	86.7	84.1
창업 + 기술창업	11.6	26.2	27.4	27.4	30.6	29.7
수출기업	5.3	14.2	14.6	15.9	18.1	18.3
신성장동력산업	-	17.0	15.5	17.1	23.8	21.7
고용창출기업	-	9.9	10.8	10.9	14.2	14.4

이를 통해 혁신 창업 및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정된 보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성장기술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업무협약식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 웨비나 개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



창업·벤처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

4

매출채권보험 운용

▪ 기업금융과 박형욱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보험 인수를 통해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 확대

1997년 어음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보험 대상을 외상매출채권까지 확대하여 2004년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을 시작하였으며, 보험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수 규모가 증가하여 2021년까지 총 206조 2,611억원을 인수하였다.

표 II-3-2-10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배)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수총액	196,977	201,605	201,442	203,511	201,921
보험금지급	574	786	765	603	608
정부출연	1,200	-	-	280	550
기본재산	4,943	4,480	3,895	3,847	4,211
운용배수	8.6	10.5	12.9	13.3	12.3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업무 개시 이후 2021년까지 총 9,98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연쇄도산 방지에 기여하였고, 이를 위해 정부는 보험 인수 재원으로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 1,712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다.

2022년에는 2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며, 향후 경제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인수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정책보험 역할 강화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기업을 위해 코로나19 우대보험 5,007억원을 인수하여 약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 대상사업 영위기업에 대하여 1조 2,937억원의 보험을 인수하며 정책 보험으로써의 역할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2019년 도입한 지자체 협약보험을 2021년 14곳의 광역·기초 지자체로 확산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였고,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보험 진입장벽 최소화로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였다.

다. 수요자 중심의 보험 지원체계 구축

효과적인 보험 수요발굴 및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 접점인 은행권의 영업망을 활용한 매출채권보험 모집업무 위탁제도를 시행하였다.

2021년 6월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8월), 국민은행(10월)으로 모집 업무 위탁 협약을 확대하여 2021년 199억원의 보험을 인수하였다. 향후에도 시중 및 지방은행과의 협약을 확대하여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영업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보제공 동의 및 보험 내역 단순 조회 등에 한정되었던 모바일 플랫폼의 기능을 상담부터 인수 심사 및 보험금 지급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온라인 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험 한도를 확대하는 등 고객 선택권 및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제3절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 판로정책과 정익채
- 판로정책과 김명철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가 도입(2006년)된 이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119.7조원이고, 구매율(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총 구매액)은 77.6%를 달성하였다.

표 II-3-3-1 |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구매실적(조원)	67.7	72.0	78.8	78.0	85.5	86.1	92.2	94.0	105.0	116.3	119.7
구매율(%)	67.8	67.7	69.7	70.0	71.7	73.7	74.8	76.2	77.8	79.8	77.6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대상인 구매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술개발제품의 공공 구매를 확대하고자,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1997년부터 도입된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물품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02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6.58조원으로 전년도('20년, 5.63조원)와 비교할 때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구매율은 법정기준보다 여전히 높은 16.9%를 기록하였다.

표 II-3-3-2 | 연도별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구매실적(조원)	1.37	1.68	2.11	2.54	2.62	3.11	3.70	4.52	4.53	5.35	5.63	6.58
구매율(%)	7.5	8.4	9.2	9.1	9.4	10.2	11.9	13.7	13.7	14.5	14.7	16.9

2021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12.84조원으로 총 구매액의 8.3% 수준이며 법정기준(물품·용역 5%, 공사 3%)을 초과 달성(물품 9.3%, 용역 7.7%, 공사 7.9%)하였다.

표 II-3-3-3 | 연도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구매실적(조원)	2.36	2.60	3.41	4.48	5.49	7.14	8.34	9.91	10.6	11.9	12.5	12.8
구매율(%)	2.3	3.2	4.0	4.6	4.9	6.0	7.1	8.0	8.6	8.8	8.6	8.3

또한 2021년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2.4조원으로 총 구매액의 1.6% 수준이며 법정 구매율(1%)을 초과 달성하였다.

표 II-3-3-4 | 연도별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구매실적(조원)	0.21	0.27	0.34	0.68	0.80	1.09	1.32	1.54	1.77	2.1	2.33	2.4
구매율(%)	0.2	0.27	0.3	0.6	0.7	0.9	1.1	1.2	1.4	1.6	1.6	1.6

2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판로 촉진

- 판로정책과 정 의 채
- 판로정책과 이 화 정
- 판로정책과 김 종 길
- 판로정책과 이 철 영
- 판로정책과 박 현 용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¹⁷⁾’란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현행 체계와 같은 공공구매제도는 단체수의계약제도¹⁸⁾가 폐지 결정된 2006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기존에 운영되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가 의무화 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제도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이 도입되었다. 2012년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제품(물품·용역)에 대해서도 소액 입찰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2019년에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제조시설 및 인력을 보유한 기업 혹은 중소기업제품의 소재 및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대기업 등)과 상생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그 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규정

18)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지정한 물품(공사 포함)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 단체인 협동조합으로부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1965년 도입하여 2006년까지 시행

표 II-3-3-5 | 공공구매제도 도입 경과

시행시기	내 용
2007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직접생산 확인제도
2008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 협동조합(적격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참여 허용
2009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3년	-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제도 시행 - 위장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평가대상에 지방공기업을 추가
2014년	- 개선권고 미이행에 대한 입찰절차 일시중지 명령제도 도입 - 기술개발제품 종류 확대(9종→13종)
2016년	-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달성 의무화(중소기업물품의 10% 이상) - 위장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2017년	- 민간보조사업자(국고보조금 100억원 수령기관)의 중기제품 우선구매 권고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 범위(종합공사 20억원→40억원 등) 조정
2018년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 도입
2019년	- 간주 중소기업자에 대해 1억원 미만 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참여 허용
2020년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의 중소기업제품, 여성·장애인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계획 및 직전 연도의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취합하여 매년 4월 국무회의에 보고 및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6년부터 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매년 점검해 왔으며, 2004년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¹⁹⁾」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을 제출할 때 일정 비율(50%) 이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제시토록 법제화하였다.

2005년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목표 비율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5%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2009년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목표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 2020년에는 15% 이상으로 향상하였다.

19) 「판로지원법」 제정(11.5) 이전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규정한 법률

표 II-3-3-6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추진경과

시행시기	내 용
1996년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입실적 점검
2004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50%) 달성 의무 법제화
2005년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5%) 권장
2009년	-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율 상향(5% → 10%)
2014년	-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물품용역 5%, 공사 3%) 달성 의무 법제화
2016년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중기물품 구매액의 10%) 달성 의무 법제화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1%) 달성 법제화(권고)
2018년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1%) 달성 의무 법제화
2019년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상생협력법 시행령 제8조 신설)
2020년	-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율 상향(10% → 15%)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1999년 69개 기관에서 2011년 282개 기관, 2012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495개 기관 등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되어 740개 기관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에는 관리 대상 구매기관이 849개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주요 지표로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0년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119.7조원으로, 총 공공구매액(154.2조원)의 77.6%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3-3-7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 억원, %)

년 도	구 분	총 구 매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 율(%)
2011년		998,494	677,272	67.8
2012년		1,063,598	719,860	67.7
2013년		1,130,013	787,956	69.7
2014년		1,115,489	780,290	70.0
2015년		1,192,070	854,858	71.7
2016년		1,169,332	861,358	73.7
2017년		1,234,078	922,492	74.8
2018년		1,234,134	939,943	76.2
2019년		1,349,802	1,049,912	77.8
2020년		145,790,095	116,276,500	79.8
2021년		154,176,031	119,682,031	77.6

2022년도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과 협의하여 총 구매목표액 160.0조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121.1조원(75.7%), 기술 개발제품 구매목표는 6.90조원(18.1%)으로 설정하였다.

표 II-3-3-8 | 2022년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

(단위 : 억원, %)

연 도	총 구매액	중소기업 제품구매액	구매율	중소기업 물품구매액	기술개발 제품구매액	구매율
2022년	1,600,339	1,211,024	75.7	380,753	690,774	18.1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공공부문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1995년 최초로 도입되고 2006년부터 의무화되었으며,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폐지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상이 되는 경쟁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동 품목을 구매할 실적(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에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존재하여야 한다. 경쟁제품은 3년에 한 번씩 지정되며, 현재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212개(세부품목 614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22년부터 적용될 경쟁제품은 212개(세부품목 632개)로서 2021년 12월말에 이를 고시하였다.

표 II-3-3-9 | 연도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지정일 기준)

(단위 : 개)

구 분	2007	2010	2013	2016	2019	20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개수(개)	226	196	202	204	212	212

한편, 2010년 이후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 중 일부가 기업을 분할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 입찰에 편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 또는 기업 분할을 통해 설립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2012년 6월 시행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소수의 중소기업만 납품하는 공급집중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9년에는 최근 2년 연속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발생한 품목(상위 1개 기업의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이상)은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하여 차기 경쟁제품 지정시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추천시 제외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6개 세부품목이 2019년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되었으나 2021년 경쟁제품 지정시에도 공급집중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2022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는 중기간 경쟁제품의 공급집중도를 매년 분석·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계 스스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최저가 낙찰제를 통한 낙찰자 결정 방법이 제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을 초래하여 적정이윤을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짐에 따라, 2006년 중기간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법으로서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일정한 가격을 보장(예정가격의 88%)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며, 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로 구성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17년에는 신용평가 등급 점수 만점을 부여하는 창업기업의 인정범위를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서 7년이내로 확대하였다. 이후 2018년, 2019년에는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장려와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을 위해 각각 수출우수기업 및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 대한 가점제를 신설하였으며, 2020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신설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가점제도 도입하였다.

라.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조합참여 허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영세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및 5천만 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체결 허용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기관이 2천만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통해 수의계약(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3-3-10 | 연도별 적격조합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적격조합	219	209	210	230	119	139	138	128	143	140

2009년 3월에는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상 금액 범위를 종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G2B(국가조달시스템)를 통하여 계약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추천대상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2020년 8월에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상 금액의 범위를 종전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였다. 2021년에는 총 382건 (추정가액 142억원)의 조합추천이 이루어졌으며, 52개 조합이 참여하였다.

마. 직접생산확인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대기업 혹은 수입 제품 등을 납품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납품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1천만 원 이상 소액수의계약 및 보훈·복지 단체 등과 수의계약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인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직접생산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별로 주요 생산시설·공정, 최소 필요인력 등으로 확인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업이 이들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2010년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다.

표 II-3-3-11 | 연도별 직접생산 확인 현황

(단위 : 업체수)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직접생산확인	23,959	24,017	28,124	26,391	28,703	28,497	32,285	32,396

한편, 그동안 정부예산으로 지원하였던 직접생산확인 비용을 2018.4월부터 신청기업에 부과함으로써 불필요한 확인신청을 줄이고 예산 등 행정비용을 절감 하였으며,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최초 신청 시에는 확인비용을 면제 하여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서 단가후려치기 등의 피해를 당하는 제조중소기업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조건의 공사에 사용될 ‘공사용 자재 지정품목(19년 112개)’을 공급할 경우에는 직접 발주를 통해 해당물품을 구매하여 공사업체에 관급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6년 국무총리 지시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건설공사 설비자재의 분리발주 의무화’가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일괄발주 선호 경향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방식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법제화하였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40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자재 중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관급자재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3-3-12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7	2010	2013	2016	2019	202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145	145	123	127	112	105

그러나, 관리인력 부족, 행정비용 증가, 공사품질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직접구매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임에 따라, 2009년 11월에 「판로지원법」을 제정하면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를 재난관련 공사, 국가안보와 관련한 공사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예외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도록 구체화하였다.

사.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만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판로지원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의 물품·용역에 대해서도 그 추정가격이 일정금액²⁰⁾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을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동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 등이 영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2.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입찰에 따르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한 기술제품에 대해 각종 인증을 부여하고, 이 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목표비율 지정을 통해 구매를 촉진하고 있으며, 각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취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1996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하면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억원)

표 II-3-3-13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추진 경과

시행시기	내 용
1996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2006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법령에 상향 규정
2009년	민·관 공동투자 R&D, 녹색인증, 우수조달 공동상표 추가
2014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산업융합제품, 성과공유기술개발, 개발선정품 추가
2015년	ICT융합품질인증제품 추가
2016년	적합성인증제품,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추가
2019년	연구개발사업 기술혁신인정제품,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추가
2019~2020년	기재부·조달청 혁신제품(Ⅰ,Ⅱ,Ⅲ) 추가
2021년	재난안전인증제품 추가 및 일부 제품 일몰을 통해 총 13종으로 개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은 당초 조달우수물품, 성능인증제품, NEP제품, NET제품, GS제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성공제품의 6종이었으나, 그간 기술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추가되어 왔다. 2021년에는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추가하는 한편 기존 기술개발제품들의 혁신성, 기술성 등을 재평가하여 총 13종으로 정비하였으며, 일몰제를 도입하여 3년마다 우선구매 대상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 개발제품 중 GS제품,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NEP제품, NET제품,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의 구매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구매책임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기술개발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선 구매 여부에 대한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우선구매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지표로 반영하여 왔으며, 2013년부터는 지방공기업 정부권장정책 평가에도 추가로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규모는 2005년 6천억 원에서 2021년도 6.58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3-3-14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금액	1.68	2.11	2.54	2.62	3.11	3.70	4.52	4.53	5.35	5.63	6.58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조건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성능에 대해 확인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앞에서 언급한 기술개발인증 가운데 하나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 II-3-3-15 | 성능인증 발급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성능인증	361	364	310	300	387	395	416	366	394	438

한편 성능보험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여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하고 있다. 성능보험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자체 교체 또는 수리가액을 보상하며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 II-3-3-16 | 성능보험 계약 현황

(단위 : 건, 개,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약건	3	2	11	22	13	16	4	14	20	34
업체수	2	2	11	9	8	8	4	8	8	16
계약금액	912	32	2,767	25,769	13,130	12,220	235	5,877	7,692	19,002

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창업기업 초기 판로 개척을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본격 활성화되어 중소기업 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시행 첫해 2018년 126개 시범구매제품 선정, 60개 공공기관 참여로 268억원의 구매실적을 달성한 이래, 2021년에는 347개 시범구매제품 선정, 490개 공공기관 참여로 3,127억원의 구매실적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표 II-3-3-17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선정제품	126개	194개	252개	347개
참여기관	60개	381개	444개	490개
구매규모	268억원	1,775억원	2,647억원	3,127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기술력이 높다 하더라도 신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조달 진출의 중요 수단으로써 보다 쉽게 공공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년 판로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기관 평가 지표에 시범 구매 실적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를 독려할 예정이다.

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부품기업의 판로 지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입찰 혹은 조달계약에 참여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의 일부를 협력하거나 하청 받는 방식으로, 지원대상 기업의 원활한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상생협력제품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였다.

2020년 3차례 모집공고를 통해 혁신성장과제·소재부품과제·역량강화과제 3가지 유형에서 총 101개 상생협력제품이 선정되어 공공기관을 통해 186.6억원 구매가 이루어졌다.

우수사례로 혁신성장과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및 LED 조명기술 보유 기업인 소기업과 생산 역량을 보유한 중기업이 협력하여 사물인터넷 디지털 센서가 부착된 조명을 생산하여 납품한 사례가 있다.

또한, 소재부품과제를 통해 CCTV를 생산하는 65개 중소기업이 AI 카메라 부품소재를 보유한 대기업과 상생하여 중국산 AI기반 CCTV를 대체할 수 있는 최첨단 영상감시장치를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중기간 경쟁제도 외 제품群으로 선정을 확대하여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공공기관 설비 등 문제점을 기업 간 상생을 통한 제품을 공급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를 추가로 신설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제품 납품 및 구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망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신용평가 등급 등 각종 정보와 기술개발제품 정보가 제공되며 공공기관의 입찰정보와 공공구매 계획 및 실적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용인원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 511천명에서 2021년에는 2,424천명으로 증가하였고, 입찰정보 제공 건수도 2006년 51천 건에서 2021년 1,084천 건으로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사용자들에게 중소기업제품 납품 및 구매 업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자리를 잡았다.

표 II-3-3-18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용자 현황

(단위 : 천명, 천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속자수	3,718	4,228	3,408	1,772	1,133	1,123	1,614	2,170	2,424
신규입찰정보	637	909	919	982	1,031	1,061	1,002	918	1,084

또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온라인 처리,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1년 4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파.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및 모니터링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과 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업무 담당자를 ‘공공구매지원 관리자’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계약의 적절성 검토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3-3-19 |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증대 계획의 적절성 검토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조치의 이행 여부 조사
- 중기간 경쟁입찰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상담 등

공공구매지원 관리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위반한 입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권고이행 여부를 취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2009년도 부터 모니터링, 시정권고,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11년 이후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률이 90% 이상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98% 이상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표 II-3-3-20 | 연도별 공공구매제도 이행 모니터링 결과

(단위 : 건,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이행률(%)	91.5	91.3	92.2	97.4	99.1	98.5	99.2	92.1	97.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적발 건수(B,건)	2,475	2,213	1,480	1,182	673	407	261	315	13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시정 건수(C,건)	2,264	2,021	1,365	1,151	667	401	259	290	130

이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 공공기관은 공공구매제도를 자주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연간 23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시정 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경영평가 등에 반영(감점)하여 제도 이행력을 높이고 있다.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공공구매 촉진대회



제도 순회설명회

3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 판로정책과 송 현 주
- 판로정책과 김 윤 진
- 판로정책과 정 지 용

‘2020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89.6% 중소기업은 수출하지 않는 내수기업이며, 특히 중소제조업 매출 총액 587조원 중 국내 매출액은 9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이나 기술개발을 통해 우수제품을 생산한 중소기업이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처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유망제품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사후 관리 및 대규모 판촉행사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을 위해 마케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 유통망진출지원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우수·유망 제품을 발굴하고, 민간 유통채널과 전용판매장 등을 연계하는 유통망진출지원 사업에 2021년 3,400여 개사가 참여했다.

국내 유통 바이어가 실시간으로 우수제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3,339개 제품을 발굴하였으며,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제품 주문·재고·배송·매출 등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판판셀러)과 민간 온라인쇼핑몰을 추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21년 기준 20개)

또한 대내외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홈쇼핑 방송과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등 민간 유통사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지원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표 II-3-3-21 | 온라인 판로지원 현황('21년 12월 말 기준)

(단위 : 억원, 개사)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참여기업	판매액	참여기업	판매액	참여기업	판매액
온라인기획전	116	161	170	204	300	256
TV홈쇼핑	53	28	54	36	60	43
T-커머스	-	-	8	3	5	3
V-커머스	30	40	30	3	10	5
합계	199	229	262	246	375	307

중소기업의 원활한 유통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사전 시장검증과 홍보 등을 필요로 한다. 유망제품을 생산하고도 자체 매장이거나 새로운 유통채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특수성이 있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운영하여 제품 판매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개소 등 7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911개사 9,272개 품목(중복 포함)의 4,221백만원 판매와 초기제품의 시장 조사·홍보 등을 지원하였다.

표 II-3-3-22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운영 현황('21년 12월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개사)

구 분		개소일	판매액	입점기업 수
면세점	인천공항 T1 (서편)	'21.11.20	86	228
	인천공항 T1 (동편)	'21.11.20	100	348
	인천공항 T2 (동편)	'21.11.20	38	157
대형 유통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8.11.01	7	27
	현대백화점 (판교점)	'16.11.09	656	107
	행복한백화점 (목동)	'11.03.31	3,045	948
교통시설	KTX 부산역	'13.02.05	289	96
합 계			4,221	1,911

향후 중소기업이 온라인 판매를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용판매장 입점 제품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판로지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나. 공동 A/S 지원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품 판매 이후 A/S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여 2006년 7월부터 우수제품을 생산하지만, 자금과 인력으로 A/S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공동 A/S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설명, 교환, 상담하는 공동 A/S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2021년 554개사가 참여하였다.

참여기업은 국내 공장에서 일반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생활가전, 주방가전, AV기기, PC 등 17개 지원 제품군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자재·부품 등 중간재, 의류, 일회·소모성 소비재 등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적은 제품은 제외하고 있다.

표 II-3-3-23 | 공동 A/S 지원 추진 현황

구 분	추진내용
2019년	565개사 참여, 1개 택배센터, 전국 126개 A/S망 연계
2020년	553개사 참여, 1개 택배센터, 전국 134개 A/S망 연계
2021년	554개사 참여, 1개 택배센터, 전국 122개 A/S망 연계

앞으로 공동 A/S 지원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도 향상, 처리결과 환류, 인프라 내실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성과 창출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전국적인 소비 붐 조성 and 내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과 대중소 유통기업, 중소·소상공인, 정부·지자체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상생 판촉행사로 '20년부터 운영하였다.

2021년에는 6.24(목)부터 7.11(금)까지 18일간 운영하였으며, 각 시·도와 처음으로 연계하여 지역별 식품,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지자체 대표 온라인몰 할인판매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였다.

표 II-3-3-24 | 지자체 온라인몰 참여 현황

지 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쇼핑몰	서울ON마켓	크리에이티브샵	무한상사	인천직구
지 역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쇼핑몰	광주김치온라인쇼핑몰	온통대전몰	울산몰	착착착 쇼핑몰
지 역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쇼핑몰	강원마트	청풍명월	농사랑	거시기장터
지 역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쇼핑몰	남도장터	사이소	E경남몰	이제주몰

2021년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라이브커머스,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등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전년대비 355% 판매실적 증가한 1,180억원을 판매하였으며, 향후에도 중소기업과 지역상권 매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표 II-3-3-25 | 대한민국 동행세일 성과

(단위 : 억원)

구 분	온라인·비대면 판매 지원			
	라이브커머스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등	소계
2020년	11억원	81억원	167.4억원	259.4억원
2021년	21억원	268억원	891억원	1,180억원

라. 공영홈쇼핑(채널명 : 공영쇼핑)을 통한 판로지원

상품판매와 동시에 광고기능까지 수행하는 TV홈쇼핑은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및 홍보 효과를 제공하는 좋은 판로지원 수단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여·판매하는 기업은 TV홈쇼핑에 진출하여 방송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희망하지만, TV홈쇼핑사는 대기업·수입제품과 시장에서 잘 팔리는 검증된 기존 상품을 중심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창업 및 혁신기업의 초기제품이나 농수산 식품은 홈쇼핑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 7월 14일, 아이디어 창의혁신제품을 포함하는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을 개국하였다. TV홈쇼핑업계 최저 판매 수수료율 23%를 적용한 채널이었다. 그 후 공영홈쇼핑은 2018년 재승인 심사에서 3% 포인트의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농어민들의 판로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타 홈쇼핑사에 비교하여 공영홈쇼핑은 20번대 하위채널 사용, 대기업·수입제품 판매금지,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만을 100% 취급하는 등 공적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총 9,424억 원의 중기제품 판매지원액 실적을 올리며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위한 판로지원 유통망으로 빠르게 안착해 가고 있다.

표 II-3-3-26 | 공영홈쇼핑 판로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5. 7.~12.	2016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중기제품 판매지원액	1,500	5,057	5,828	6,382	7,156	9,676	9,424	45,023
상품수	799	1,578	1,759	1,647	1,737	1,797	1,763	11,080

특히 벤처기업 신제품, 기술개발 제품 등 총 3,487개의 창의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하여 1조 559억원의 판매지원액을 달성하는 등 창업·혁신기업 사업화 초기 제품의 시장진입 유통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4

비대면 서비스 판로 확대 지원

▪ 비대면경제과 김성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에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원격·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화상회의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표 II-3-3-27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분야

비대면 서비스 분야	세부 내용
①화상회의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②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③네트워크·보안 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④에듀테크	기업 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
⑤돌봄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동 사업은 코로나19의 지속·확산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2020년 제3차 추경을 통해 신설된 사업으로, 2021년은 총 2,1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1년 사업의 미시적 목표는 중소기업 6만개사의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거시적 목표는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연초에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작하여 2021년 1월 수요기업 모집 공고 등 사업추진체계를 신속히 마련하여 2월부터 본격적인 바우처 지원을 시작하였다.

원활한 바우처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신청부터 심사와 선정, 필요한 비대면 서비스의 탐색과 계약 체결, 바우처 결제와 사후정산까지의 사업전과정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을 통한 바우처 지원절차 >



특히 2021년에는 수요기업 선별, 부정행위 엄단 및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고도화 및 사업 운영·관리체계의 비효율성 개선 등 전망위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1년도 지원목표 6만개사를 초과한 112,825개사가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약 6.6만개사에 바우처를 지원하였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정된 공급기업의 서비스 품질 및 관리를 강화하여,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640개사가 6개 분야별 총 2,358개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등 상시 신고채널을 구축하여 해당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관합동점검반을 통한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 취소, 바우처 환수,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의 사업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중소기업의 업무 효율성 개선과 디지털 전환 촉진,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4절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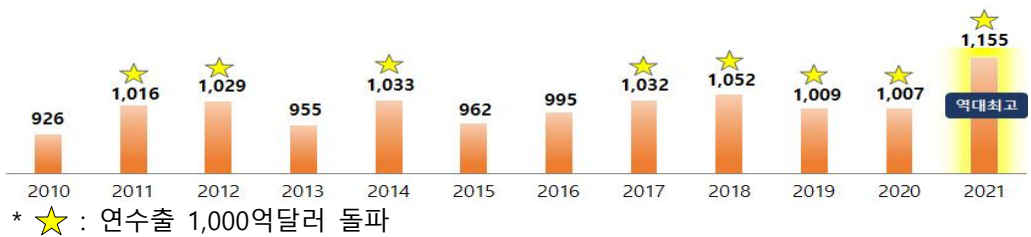
1 수출 현황

▪ 글로벌성장정책과 신 연 재

'21년 중소기업 수출은 역대 최초로 수출 1,100억달러선을 돌파하여, 1,171억달러 신기록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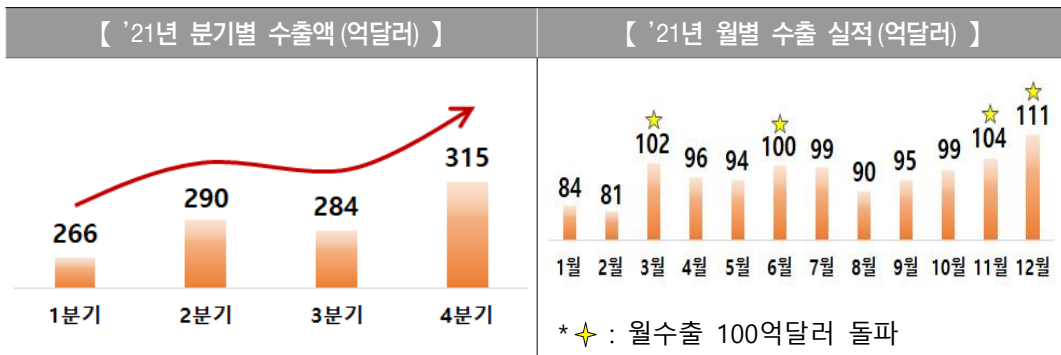
그림 12 | 최근 '10년 중소기업 수출액

(단위 : 억 달러, %)



'21년 중소기업 수출은 1,155억달러로 '20년 대비 14.7% 증가했는데, 수출 증가율이 10% 이상을 기록한 것은 '10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이다. 월 수출액이 1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20.12월이 최초였는데, 올해는 6번이나 100억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림 13 | 2021년 분기별·월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수출기업 수에서도 기념비적인 성과가 많았다. 먼저, 수출 1천만달러 달성 기업이 2,262개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5천만달러 달성 기업 179개사, 1억달러 달성기업 57개사도 모두 사상 최고치이다.

표 II-3-4-1 | 수출액 규모별 수출 중소기업 수

수출액 규모	'20년	'21년		
			비중	증감률
100만달러 미만	81,021	77,091	83.7	△4.9
100~500만달러	9,888	10,455	11.4	5.7
500~1,000만달러	2,094	2,306	2.5	10.1
1,000만달러 이상	1,897	2,262	2.5	19.2
1,000~5,000만달러	1,719	2,026	2.2	17.9
5,000만~1억달러	133	179	0.2	34.6
1억달러 이상	45	57	0.1	26.7
합 계	94,900	92,114	100.0	△2.9

중소기업 수출은 특정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품목에서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 긍정적인 특징이다. 중소기업 10대 품목 집중도는 32.2%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품목 집중도 56.6%보다 낮게 나타났다.

10대 품목 중 8개 품목이 성장한 가운데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반도체제조장비 순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표 II-3-4-2 | 품목별 수출액

【 총 수출 10대 품목 (억 달러, %) 】					【 中企 수출 10대 품목 (억 달러, %) 】				
구 분	수출액	비중	증감률		구 분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반도체	1,247	19.9	29.0	1	플라스틱 제품	54	4.7	3.2
2	자동차	437	7.2	24.2	2	화장품	49	4.3	△1.5
3	석유제품	372	5.9	57.7	3	합성수지	42	3.6	48.4
4	합성수지	250	4.5	51.8	4	자동차부품	41	3.6	6.4
5	선박해양구조물 및부품	224	3.6	16.4	5	반도체제조용장비	37	3.2	15.9
6	자동차부품	208	3.5	22.2	6	반도체	33	2.9	46.5
7	철강판	193	3.5	40.7	7	의약품	33	2.9	46.1
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87	3.3	18.7	8	철강판	31	2.7	37.1
9	컴퓨터	157	2.6	25.2	9	자동차	26	2.3	43.3
10	무선통신기기	142	2.5	22.9	10	기타정밀화학제품	25	2.2	△5.5
	상위 10대	3,645	56.6	30.6		상위 10대	372	32.2	18.5
	전 체	6,444	100.0	25.7		전체	1,155	100.0	14.7

'21년 수출 신기록을 이끈 주요 증가 품목은 합성수지, 반도체, 의약품으로, 이 3개 품목은 전년보다 수출액이 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표 II-3-4-3 | 수출액 증가분 기준 중소기업 10대 품목

(단위 : 백만달러, %)

품 목	수출액		증가분(b-a)	증감률	
	'20년(a)	'21년(b)			
1	합성수지	2,805	4,161	1,356	48.4
2	반도체	2,274	3,331	1,057	46.5
3	의약품	2,275	3,323	1,049	46.1
4	석유제품	663	1,605	942	142.1
5	철강판	2,237	3,068	831	37.1
6	자동차	1,837	2,632	795	43.3
7	정밀화학원료	1,198	1,839	641	53.6
8	반도체제조용장비	3,194	3,703	509	15.9
9	건전지및축전지	582	1,035	453	77.8
10	산업용 전기기기	1,371	1,755	384	28.0
10대 소계		18,436	26,452	8,017	43.5
전체 수출액		100,712	115,480	14,768	14.7

수출 상위 10개국 수출액이 모두 고르게 증가한 가운데,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239억\$), 미국(147억\$), 베트남(113억\$)이었으며, 10대 국가 중 독일의 증가율이 38.3%로 가장 높았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반도체장비·합성수지 위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역대 對 중국 수출액 중 2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주요 수출 품목인 플라스틱제품의 부진에도, 화장품, 전자응용기기 등이 성장을 견인하며 역대 對미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했다. 독일은 자가진단키트 수출 급증, 희토류 등 금속광물 수출이 증가하며 10개국 중 최대 증가율(38.3%)을 기록했다.

표 II-3-4-4 |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국가별 수출

구분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인도	독일	인니	러시아
수출액(억달러)	239	147	113	107	36.8	33.1	30.1	29.8	29.4	27.6
수출증감률(%)	5.1	14.1	14.8	12.7	7.9	26.3	18.1	38.3	23.7	20.1
수출증감(억달러)	11.5	18.1	14.6	12.0	2.7	6.9	4.6	8.2	5.6	4.6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은 전년대비 89.3% 성장한 6.6억달러를 기록했다. 온라인 수출기업 수도 92.2% 증가한 3,141개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성장했다.

온라인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0.6%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매년 급격히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온라인 분야는 K뷰티·K패션·K팝 등의 인기에 힘입어 화장품, 의류와 음향기기 등이 강세를 보였고, 일본,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면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한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집중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II-3-4-5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품목 및 국가

【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품목(백만 달러, %) 】				【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국가(백만 달러, %) 】			
구분	'20년	'21년	증감률	구분	'20년	'21년	증감률
화장품	138.7	261.1	88.2	일본	126.4	231.8	83.4
의류	88.2	100.6	14.1	미국	69.4	205.5	196.2
음향기기	9.7	56.9	484.2	중국	79.9	109.7	37.3
컴퓨터	10.3	26.5	158.0	싱가포르	17.0	19.0	11.8
기타섬유제품	3.9	23.3	499.8	말레이시아	3.4	7.9	135.6
주요품목 소계	250.8	468.4	86.8	주요국가 소계	296.0	573.9	93.9
온라인수출액	347.7	658.3	89.3	온라인수출액	347.7	658.3	89.3

2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글로벌성장정책과 신 연 재
- 글로벌성장정책과 이 상 우
- 글로벌성장정책과 배 주 형
- 글로벌성장정책과 김 범 석

가. 수출지원기반활용

1)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은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등 수출성장단계에 따라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구성된 혁신바우처를 통해 수출역량강화 교육, 홍보 및 제품 디자인, 온라인 수출지원, 해외시장조사,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수출규모별·역량별 맞춤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저변 확대와 수출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1996년에 시작된 동 사업은 2010년까지는 수출 100만불 이하 '수출초보기업'과 내수기업만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2011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지원 대상을 글로벌 강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수출 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017년부터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선택권 확대를, 민간 수출서비스 공급자간에는 경쟁을 유도하는 수출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출바우처 제도는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의 신개념 수출플랫폼으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8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이 추가되어 5개 부처가 공동 운영체제로 개편되었다.

이를 위해 2019년에는 4개의 내역사업을 수출바우처사업 1개의 내역사업으로 통합하고, 하위 내내역사업을 수출성장사다리별로 구성하였다. 기존 개별내역사업의 지원 조건의 칸막이가 해소되어, 수출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이 사업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년 중기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은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혁신바우처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혁신바우처란 중기부 중점추진사업을 수출바우처의 하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별도 지원 트랙으로, 각 혁신유형별로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수출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화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외에 브랜드K 지정, 규제자유특구 입주, 스마트제조혁신 등 3개의 혁신성장유형을 신규 추가하여 총 5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된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기존 성장바우처와 복수 신청을 허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수출바우처 지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고,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연계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II-3-4-6 |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 개편현황

'20년			'21년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지원한도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지원한도
수출 바우처	성장바우처		수출 바우처	성장바우처	
	내수기업	30백만원		내수기업	30백만원
	수출초보기업	30백만원		수출초보기업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5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8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80백만원
	혁신바우처			혁신바우처	
	스타트업	30백만원		스타트업	30백만원
	브랜드 K	100백만원		브랜드 K	100백만원
	규제자유특구	100백만원		규제자유특구	100백만원
	스마트제조혁신	100백만원		스마트제조혁신	100백만원
	〈신설〉			신산업·K-바이오	100백만원
	글로벌강소기업	100백만원		글로벌강소기업	100백만원
	〈신설〉			물류전용바우처	14백만원

2021년에도 2020년의 큰 틀에서의 규모별 성장사다리 지원체계는 유지하고, 수출성장을 위한 바우처와 혁신성장분야 특화 바우처로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특히, 신산업분야, 진단키트·바이오·제약 등 K-바이오산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해 '21년 신산업·K-바이오 모집트랙을 신설하였다.

2021년 급격한 물류비 상승에 따라 수출바우처사업 13번째 '국제운송' 메뉴판을 신설하여 총 176개사를 지원했으며, 물류비 고운임 현상 지속에 따라 109억원 규모의 하반기 추경을 긴급 편성하여 물류전용 바우처를 신설하였다. 해상 및 항공 운임을 지원하는 일반물류지원과 국적 해운선사 HMM 협업 장기운송계약 지원으로 나누어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였고, 그 결과 지원 기업들의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27.3%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수출바우처 공개경쟁모집에서 탈락한 기업 중 정책소외기업을 추가 선정하여 정부정책의 수혜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소상공인기업, 4차 산업분야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65개사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의 서비스 매칭을 위해 매년 1회 개최하던 매칭 페어를 연 2회로 확대하여('21.4월, '21.10월) 참여기업, 수행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상반기 561건, 하반기 842건 등 총 1,403건의 매칭 상담이 수행되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대외 환경을 반영한 탄력적인 행사 개최가 주효하였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들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하는 스타트업 브이데이(V-Day),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컨퍼런스 넥스트 라이즈(Next Rise)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투자유치의 장을 마련하였다.

사업체계 개편, 서비스매칭 활성화, 스타트업 마케팅 홍보 등 다각화된 노력을 통해 2021년에 3,929개사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지원기업들의 수출증가율과 고용증가율은 사업참여 이전년도인 2020년도 대비 각각 24.5%*, 7.2% 상승하는 우수한 사업성과를 달성하였다.

* '21년도 수출중소기업 전체 수출증가율 16.2% 대비 8.3%p 높음

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글로벌 강소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기업 또는 지역주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지역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년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정해 지역의 우수한 수출 기업을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단계별 성장사다리 구축에 노력해오고 있다.

* 수출성장사다리 : 내수-수출초보(10만불 미만)-수출유망(10만불~100만불 미만)-수출성장(100만불~500만불 미만)-수출강소(500만불~1,000만불 미만)-수출선도(1,000만불 이상)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며, 민간 금융기관은 융자 및 보증분야를 우대 지원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신청요건은 매출액 100~1,000억원,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으로(단, 혁신형기업은 매출 50~1,000억원, 수출액 100만불 이상), 2021년에는 200개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자격 유효기간은 4년이다.

2011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11년간 1,643개사를 선정하였으며, 2021년까지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 중 62개사가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상황에서도 글로벌 강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증가(17.1%)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정기업수(개사) : ('11~'17) 833 → ('18) 210 → ('19) 200 → ('20) 200 → ('21) 200

표 II-3-4-7 |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 산	42	40	32	50	40	60	100	100	130.5	121
지원업체	121	162	160	167	150	176	183	270	274	281
수출증가율	9.7	11.7	4.3	1.5	0.6	15.1	12.6	1.7	△2.1	17.1

* 수출증가율은 직전년도 대비 지원년도의 증가율

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1) 수출컨소시엄 사업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동일·유사업종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목표시장에 대한 진출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①사전준비단계,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를 참가하는 ②현지파견단계, 해외 바이어 국내 초청 등의 ③사후관리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상기 세 단계 소요 비용 중 공통비용에 한해 70%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유사 성격의 무역촉진단(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수출컨소시엄 사업으로 통합·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정점이던 '20~'21년에는 화상수출상담회 등 비대면 방식 지원, 온·오프라인 연계 하이브리드 컨소시엄 도입 등을 통해 해외마케팅 지원 방식을 다각화·고도화 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 사업 참여기업의 수출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을 2.9%p 상회하며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향후 '프리미엄 한국관' 확대 추진을 통해 해외 유망전시회에 참여하는 한국관이 단순 전시공간을 넘어, 국격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공간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표 II-3-4-8 | 수출컨소시엄 파견실적

(단위 :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해외전시회	145회 (3,133)	155회 (3,673)	178회 (4,366)	143회 (2,966)	137회 (2,058)	-	-	-
시장개척단	9회 (105)	7회 (73)	7회 (65)	3회 (34)	4회 (38)	-	-	-
수출컨소시엄	26회 (358)	20회 (207)	19회 (204)	49회 (1,393)	63회 (1,514)	184회 (3,072)	139회 (3,472)	83회 (1,602)
업종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	-	-	10회 (1,272)	-	-	-
계	180회 (3,596)	182회 (3,953)	204회 (4,635)	195회 (4,393)	214회 (4,882)	184회 (3,072)	139회 (3,472)	83회 (1,602)

2)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동 사업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형 수출 지원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10,510여개 기업을 지원하여 약 8,522억 원의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다.

주요 동반진출 유형으로는 대기업의 K-POP 공연 등의 문화행사, 스타IP, 콘텐츠 등과 연계한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대기업 해외 홈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방송 판매지원, 기계·전기·전자 등 제조업, 정보·통신의 플랫폼서비스·유통업 등 다양한 대기업들의 해외 인프라와 연계한 해외거점 진출 방식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COVID-19) 변종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지원이 정점을 이루었다. 기존 콘서트를 KCON:TACT로 비대면화하여 한류스타 및 행사의 이미지를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지원하였으며 브랜드콘텐츠 노출, PPL, 러닝개런티 방식의 스타IP 활용 등 비대면방식의 판매가 가능한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였다.

해외거점을 활용한 동반진출에서는 대기업의 기술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판매를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해외현지법인의 설립을 지원하거나, 업종별 유명 국제 전시회에 대기업의 인지도를 활용한 Booth in Booth 방식의 참가지원,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였다.

2022년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Post or With-코로나(COVID-19) 시대를 맞아 한류 오프라인 행사를 강화하고, 글로벌 빅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시범설치와 현지화(PoC-Proof of Concept) 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형과제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확대할 계획이다.

표 II-3-4-9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실적

[단위 : 과제건수(지원개사)]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한류연계	10건(346)	6건(226)	8건(257)	18건(608)	16건(619)	18건(672)
해외홈쇼핑	7건(221)	12건(412)	14건(443)	14건(527)	7건(105)	8건(280)
해외거점	22건(819)	27건(612)	53건(489)	76건(781)	42건(387)	20건(458)
계	39건(1,386)	45건(1,250)	75건(1,189)	108건(1,916)	65건(1,111)	76건(1,410)

3)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2015년 1조 2천억 원 수준이었던 온라인수출이 2018년 3조 5천억 원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세계 각지에서 한국 상품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온라인수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비대면 소비트렌드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관련 수치는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수출액은 89%, 수출 기업 수 92% 상승으로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억달러) : ('20년) 3.5 → ('21년) 6.6(+89%)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기업수(개사) : ('20년) 1,634 → ('21년) 3,141(+92%)

이러한 변화 트렌드와 빠른 디지털화에 급증하는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 사업은 글로벌 온라인쇼핑몰과 국내 자사몰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채널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물류·배송, 통관, 교육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① 온라인 수출대행 사업

해외 쇼핑몰에 판매계정을 보유한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이 인력, 예산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하여 제품 등록, 마케팅, 배송, C/S 등 온라인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523개사를 지원하여 273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하였다.

② 온라인 직접수출 사업

글로벌 쇼핑몰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글로벌플랫폼 입점 교육, 온라인 수출 단계별 컨설팅 및 마케팅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 수출(희망) 중소기업 1,003개사를 지원하여 글로벌 플랫폼 판매실적 982억원을 달성하였다.

③ 자사몰 진출 사업

업종·테마별 전문몰(자사몰)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사몰 글로벌화 리뉴얼, 수출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55개사를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실적 1,932억 원을 달성하였다.

④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을 집적하여 배송비를 낮추고 물류 창고 및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물류애로를 겪고있는 중소기업 2,166개사를 지원하여 1,02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창출하였다.

4)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WTO의 자유무역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중 무역갈등 등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강화 등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21년 TBT 통보문 역대최대치 기록)

* WTO TBT 통보문 현황 : 2,579건('17) → 3,063건('18) → 3,336건('19) → 3,352건('20) → 3,966('21)

또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단키트 등 방역제품 수요 증가와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EU) CE의료기기(MDR) 인증강화('21.5.), 영국 브렉시트로 인한 UKCA인증 발효('21.1) 및 CE 체외진단기기(IVDR) 인증강화('22.5) 등 수출장벽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등 등록강화와 미국의 의약품 등록비 신설 등 수출유망품목의 글로벌시장 선점 지원 필요 등 인증획득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필수로 획득해야하나, 전문인력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증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며, 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등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제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대비 46.5억 원 증액한 1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2,520건의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표 II-3-4-10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예산	206.9	132.6	164.6	176.5	106.5	106.5	106.5	106.5	153
지원인증	3,706	3,416	3,001	2,812	1,897	1,970	1,986	1,927	2,520

더불어, 글로벌기업이 협력사에 강도 높은 ESG 경영 및 탄소중립 대응을 요구하는 추세로, 우리 중소기업도 친환경 원료 사용, 환경인증 획득 등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2022년도부터 ESG·탄소중립 관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늘리는 등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해외규격인증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 및 인증 획득 역량을 제고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5) 브랜드K 육성관리 사업

브랜드K 육성관리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뛰어난 성능과 품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해 해외 판로 개척과 확대에 어려움 및 한계가 있음에, 음악, 영화 등 한류 콘텐츠 성공에 힘입은 국가 이미지 상승 모멘텀을 활용한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K’을 2019년에 개발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에서 생산 (Made in Korea)된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재 명품군 • 대한민국의 ‘K’와 명품 마케팅을 위한 전략 ‘Brand’를 상징
---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용, 식품, 전자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190개를 선정하였다. 2021년에는 우수 제품의 유입 확대를 위해 롯데 홈쇼핑, 11번가,마켓컬리 등 민간 유통사에서 소비자 반응이 좋은 제품을 추천 받아 신청하게 했으며, 평가지표에 내수판매 실적을 추가해 국내 인지도와 검증된 제품 선발에 주안점을 두었다.

구분	생활	미용	식품	주방	전자기기	조명가구	바이오	기타	계
선정 제품 수	32	47	35	20	19	4	13	20	190

* 선정 수(누적) : '19.8월 39개 → '20.5월 120개(+81) → '20.12월 133개(+13) → '21.5월 203개(+70)
→ '21.12월 190개(-13)

2021년 11월에는 브랜드K 및 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플래그십 스토어를 설치하였다. 관광객, 해외 바이어 등의 이동이 많은 코엑스에 설치되어 브랜드 K 및 제품의 국내외 홍보 역할을 하고 있다. 실내 매장은 브랜드K의 '국가 대표'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스타디움 형태이며 키오스크, 대형화면, 진열대, 스테어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팝업 홍보관은 제품 시연 및 체험을 통해 브랜드K 상품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2022년에는 수출컨소시엄, 유통망진출지원 사업 내 브랜드K 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을 마련하고,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온라인 수출지원, 수출인큐베이터 등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중기부 수출·판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브랜드K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3

수출기업 지원 및 해외교류 인프라 확충

- 글로벌성장정책과 이 상 우
- 기술창업과 김 혜 인

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1998년 1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도, 경기북부사무소 등 총 14개의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무역투자 진흥회의(2013.5월) 및 대외경제장관회의(2013.5월)를 통해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수출지원기관을 한데 모아 원루프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지원센터 운영체계를 개편하였으며,

동 계획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3년 8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의 5대 광역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단 설치를 시작으로 17년까지 경기, 인천, 울산, 전북 등 11개 지역에 지원단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접점을 확대하였다.

현재 수출지원센터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표 II-3-4-11 | 수출지원센터 인력 현황('19.12)

(단위 : 명)

구 분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원단			총계
	공무원	전문위원	사무원	파견	계	코트라	중진공	소계	
서울	4	2	1	2	9	-	-	-	9
부산	5	-	-	-	5	21	3	24	29
대구경북	4	-	1	-	5	21	6	27	32
광주전남	2	1	1	-	4	18	3	21	25
제주	3	-	-	-	3	1	1	2	5
경기	1	3	1	-	5	42	4	46	51
경기북부	1	1	1	-	3	19	-	19	22

구 분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원단			총계
	공무원	전문위원	사무원	파견	계	코트라	중진공	소계	
인천	3	1	1	-	5	21	4	25	30
대전충남	5	1	2	-	8	26	4	30	38
울산	1	1	1	-	3	9	2	11	14
강원	2	1	1	-	4	10	-	10	14
충북	3	2	1	-	6	12	3	15	21
전북	2	1	1	-	4	12	3	15	19
경남	5	1	1	-	7	17	2	19	26
소계	41	15	13	2	71	229	35	264	335

표 II-3-4-12 |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단위 : 건, 개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현장수출애로	4,862	5,606	4,892	6,408	6,311
수출유망기업 지정·관리	760	744	772	1,077	1,262
수출바우처사업	1,519	1,419	3,380	3,305	3,03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657	1,834	878	1,056	648
글로벌강소기업	167	150	135	183	200

나.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여 현지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및 회계·법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8년 중진공 해외사무소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신규 개소한 시카고 수출 BI를 시작으로, 2000년도에는 프랑크푸르트 수출BI, 2014년 중국 시안, 카자흐스탄 알마티, 베트남 하노이, 2016년 중국 충칭, 칠레 산티아고, 2017년 태국 방콕, 미얀마 양곤에 개소 완료하였으며, 현재 12개국 20개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260개의 입주공간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3-4-13 |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현황

(단위 : 개)

지역	미 국				멕시코	칠레	러시아	UAE	독 일
	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멕시코 시티	산티 아고	모스 크바	두바이	프랑크 푸르트
설치시기	2006.2	1998.9	2004.3	2003.11	2008.3	2016.11	2006.9	2006.11	2000.4
입주규모	19개	16개	10개	20개	9개	9개	8개	11개	15개

지역	카자흐스탄	일본	중 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알마티	도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시안	충칭	호치민	하노이	방콕	양곤
설치시기	2014.11	2004.3	2002.8	2006.5	2003.11	2014.4	2016.12	2004.12	2014.6	2017.12	2017.12
입주규모	7개	18개	17개	22개	14개	7개	8개	15개	15개	10개	10개

현지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은 수출인큐베이터 입주를 통해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을 저렴하게 이용하여 현지 초기 시장개척과 조기 정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입주기업 및 수출인큐베이터 졸업기업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현지 시장동향 및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상호 정보공유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인프라에 입주해 해외 바이어에게 공신력을 제공하는 등 해외진출 초기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간, 수출인큐베이터 내 공유오피스를 설치하여 개방형 협업을 지원하고, 기존 대면사업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이동 제약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환,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성과 제고에 기여한 바 있다.

2021년도에는 현지 유망분야별 해외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제품 현지화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현지화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여 투자유치, 인증획득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진출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출인큐베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입주제(Pre-BI)를 실시하여 해외진출 촉진 및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II-3-4-14 |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실적

(단위 : 개, 천달러)

국 가	지역	개소 시기	수출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미 국	뉴욕	2006.2	22,660	51,677	23,800	27,374	42,042	17,192	56,376	37,547
	시카고	1998.9	45,039	25,054	28,947	34,372	41,532	50,446	44,971	58,496
	워싱턴	2004.3	15,319	12,500	7,903	13,180	30,179	8,402	8,120	23,071
	LA	2003.11	47,046	72,389	16,750	113,239	91,043	56,485	68,595	77,490
	시애틀	2019.8	-	-	-	-	-	1,015	-	-
브라질	상파울루 (*17년 폐쇄)	2004.11	48,619	1,101	3,814	-	-	-	-	-
독 일	프랑크 푸르트	2000.4	38,816	36,859	127,733	45,647	79,729	63,984	24,823	78,070
일 본	도쿄	2004.3	28,794	31,415	69,492	50,257	53,948	110,549	85,429	89,329
중 국	베이징	2002.8	36,600	38,125	27,072	766	3,754	2,441	4,324	4,098
	상하이	2006.5	130,795	91,349	14,505	84,786	13,938	33,478	47,501	38,949
	광저우	2003.11	10,842	16,826	17,103	25,557	9,021	2,726	13,498	27,364
	청두 (*17.07폐쇄)	2007.12	29,524	96,084	17,376	1,700	-	-	-	-
	시안	2014.4	18,988	6,197	57,550	9,522	6,145	3,318	38,707	1,843
	충칭	2016.12	-	-	-	4,812	6,946	2,501	486	57
베트남	호치민	2004.12	48,843	54,045	36,286	26,629	26,721	32,016	16,431	35,949
	하노이	2014.7	13,554	16,048	38,533	28,125	29,942	39,245	24,726	58,331
싱가포르	싱가포르	2006.8	9,192	15,661	34,295	19,631	23,670	113,080	99,964	-
러시아	모스크바	2006.9	16,255	26,846	17,284	49,193	15,531	13,928	3,656	3,720
UAE	두바이	2006.10	28,002	30,134	36,798	36,933	42,601	19,459	10,174	52,463
인 도	뉴델리	2006.11	27,427	22,611	981	23,547	28,117	30,033	-	-
멕시코	멕시코시티	2008.3	16,444	18,818	35,498	10,549	26,413	9,169	9,514	20,738
카자흐스탄	알마티	2014.11	-	865	2,641	45,220	55,774	24,917	3,963	2,606
칠 레	산티아고	2016.11	-	-	-	1,905	36,481	23,722	5,030	12,123
태 국	방콕	2017.12	-	-	-	0	7,073	22,782	21,466	10,771
미얀마	양곤	2017.12	-	-	-	0	7,809	11,045	7,823	4,760
12개국	20개소	-	632,759	664,604	614,361	652,944	678,409	691,933	595,577	637,775

다.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운영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사업은 국내 유망스타트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정착을 지원하고, 현지 창업 네트워크 발굴 및 강화로 양국 창업생태계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말 기준 싱가포르, 이스라엘, 인도,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미국 총 7개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지역별 시장특징 및 정책 어젠다를 반영한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비즈니스 모델 발굴, IR 및 네트워킹, 사무공간 지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투자유치, 법인·지사 설립, 현지 수출계약 및 고용창출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위하여 현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 및 사업화자금 등 사업연계를 적극 지원하여 현지 창업생태계의 진입, 정착, 성장을 위한 종합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표 II-3-4-15 |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치 현황

설치 연도	'19년			'20년			'21년
지역	시애틀 (미국)	뉴델리 (인도)	텔아비브 (이스라엘)	싱가포르	스톡홀름 (스웨덴)	헬싱키 (핀란드)	파리 (프랑스)
설치 유형	현지진입형	현지진입형	프로그램형	현지진입형	현지진입형	프로그램형	프로그램형
진출 분야	자율주행, 리테일	에듀테크 에그테크	바이오, 방산	핀테크, 스마트시티	AI, 그린산업	AR·VR, 스마트 에너지	문화 콘텐츠

4

국제협력 추진

- 국제협력과 강 성 국
- 국제협력과 박 승 호
- 국제협력과 이 영 순
- 국제협력과 김 석 동
- 국제협력과 장 희 수
- 국제협력과 남 영 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유럽지역 스타트업 진출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 국가 및 방식의 다변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분야 협력 MOU 체결, 고위급 교류 등 정부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여건과 기반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워진 상황이 2021년까지 이어짐에 따라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가 간 협력을 중단없이 추진하였다.

다자간 협력으로 APEC, OECD 등 회의체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회원국과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진출 기반을 다지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고 있다.

가. 양자협력 활동

정부는 중소기업 진출 국가 및 방식 다변화를 위해 유럽,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 등에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환경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정상회담 등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한 중요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1) 유럽 협력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6월 스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스페인 중소기업·스타트업 혁신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책 공유, 기업과 전문가 상호교류, 상호진출 지원, 생태계 협력 강화, 스마트 산업 신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협의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 육성, 상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부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인 'K-Startup Grand Challenge' 및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COMEUP' 관련 내용을 스페인 스타트업들에게 홍보하였다.

'21.6월 중소기업부 장관은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담당 국무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간 스타트업의 상호진출에 대해 논의하고, Korea Startup Center Paris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프랑스 대표단의 COMEUP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11월 행사 개최시 세드릭 오 국무장관이 프랑스 스타트업과 함께 방한하여 COMEUP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게 되었다. 또한,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프랑스 사절단 방문을 계기로 '한-프랑스 스타트업 데이'를 개최하였다.

2) 신남방 지역 협력

중소벤처기업부는 '19.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남방 국가와 스타트업 교류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역내 창업 생태계 발전에 지속 협력하기 위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선언문에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을 반영하였다. 파트너십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기부-ACCMSME²¹⁾ 정책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제1회 한·아세안 정책대화를 시작으로 '21년 하반기까지 총 4차례 개최하였다. 정책대화 논의를 기반으로 '20년부터 한-아세안 간 다수의 스타트업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1년에는 창업진흥원, 중진공, ASEIC 등과 협력하여 총 9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21) ACCMSME(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SMEs)는 아세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정책 등을 논의하는 관련 부처 아세안 고위급으로 구성된 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

특히, '21년 협력사업에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로드맵' 마련이 포함되었으며, 금년 초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로드맵이 최종 완성 및 승인되면 향후 파트너십 이행의 기반으로 활용되어 한·아세안 간 체계적인 스타트업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며 협력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 바, 남은 파트너십 기간(~'24) 동안에도 한·아세안 간의 스타트업 협력은 지속적으로 다변화되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신북방 지역 협력

신북방 지역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해외 진출 환경 직간접 지원 하는 노력도 추진하였다. 러시아의 우수한 연구개발 원천기술과 국내 스타트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한 '한-러 혁신 플랫폼'을 통해, 신규 상용화 기술 개발과제 6개를 포함하여 총 19개의 과제를 지원하였다. 또한 한러 시장진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테크 커넥트(Tech Connect)' 및 '한·러 스타트업 서밋'을 11.23~24일 양일간 개최하고 양국 스타트업 각각 10개사의 IR피칭과 투자유치 네트워킹을 지원하였다. 카자흐스탄과는 '19년에 현지 기술교류센터를 개소한후 양국 중소기업간 지속적인 기술교류 확대를 위해 우리 중소기업이 10개사가 참여한 기술교류상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중기부-우즈벡 혁신개발부 간 중소기업 협력 MOU 체결에 기반하여 우즈벡 테크노파크의 역량강화를 지원 하고 양국간 벤처투자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다. 몽골과는 몽골 농식품 경공업부와의 중소기업 협력 MOU에 기반하여 몽골의 신생 중소기업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의 정책경험 전수 및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나. 다자협력 활동

중기부는 양자뿐만 아니라 APEC, OECD, EU, ASEM 등 다자기구 및 협의체 등과 한국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정책을 널리 홍보하고 협력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1) OECD 협력

코로나19 이후, OECD의 중소기업 정책관심 증대, 회원국 간 정책연계 필요성 등으로 중소기업 작업반의 위원회 승격 추진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글로벌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해 OECD 주요 회원국들과 중소기업 작업반의 위원회 승격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스위스, 영국 등 6개국 중기부 장관 공동명의로 OECD 사무총장에게 중소기업작업반의 위원회 승격을 위한 서한을 제출하였으며, OECD 집행위와 이사회를 거쳐 중소기업 작업반의 '중소기업 기업가정신 위원회' 승격이 '21.4월 결정되었고, 즉시 효력발생이 선언되었다.

2) APEC 협력

APEC 중소기업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참가하여 APEC 회원국 간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우수정책을 전파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최근 주제들은 대부분 디지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회차별로 살펴보면, '19. 9월 칠레에서 개최된 제25차 회의는 '중소기업 금융 및 디지털 전환', '20. 10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26차 회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정책', '21.10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27차 회의는 '코로나19 시대의 중소기업의 회복력 강화'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었다. 우리부는 그간 비대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창업 정책, 스마트공장·상점 등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화 정책 등을 공유하였다.

APEC은 활발한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정책을 홍보하는 중요한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기부는 '16년부터 매년 APEC 기금 확보를 통해 APEC 역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19.10월에는 서울에서 APEC 회원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부 및 민간 관계자를 초청하여 APEC 역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AI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혁신 비즈니스 노하우를 소개하였다. '20.11월에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 강화 노하우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포럼’, 한국의 중소기업 스마트정책 및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기업간 교류를 지원하는 ‘스마트팩토리 포럼’을 개최하였다. ’21년 6월에는 세계 경제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COVID-19 감염병 확산 등 지속적인 위기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의 대응능력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상시위기대응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3) EU(유럽연합) 협력

중소벤처기업부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와 가이아엑스 참여에 합의하고 ’21.11월 중기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가이아엑스 협회(AISBL) 간 ‘가이아엑스 한국 허브 설치’ 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를 거래하거나 활용할 경우 특정 국가나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가이아엑스²²⁾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ASEIC 친환경 협력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M SMEs Eco Innovation Center ; ASEIC²³⁾) 운영을 통해 ASEM 회원국 중소기업의 친환경 혁신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ASEIC(한국), 한스자이델재단(독일), 스톡홀름환경연구소(스웨덴), 아시아-유럽재단(싱가포르),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일본)의 아시아-유럽의 5개 기관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친환경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컨퍼런스, 정책 워크숍, 연구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아시아-유럽 환경포럼(Asia-Europe Environment Forum : 이하 ENV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있다. ’21년 컨퍼런스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

22) Gaia-X : 아마존, 구글 등 미국기업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이 데이터 주권과 자결권 확보를 위해 착수한 프로젝트로 데이터 상호연계에 필요한 규칙과 기술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제 표준화 추진

23) 제8차 아셈정상회의(2010.10, 벨기에) 공식인준에 따라 2011년에 설립된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는 ASEM 회원국 중소기업간 친환경 기술협력을 위해 개도국 대상 컨설팅, 친환경 혁신기술, 글로벌 포럼 개최, 전문가 회의 운영, 지수(ASEI) 개발, 인도네시아 GBC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되었으며, ‘순환 식품산업시스템-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결책’을 주제로 61개국 400여명 참석했다.

’21년 3월에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그린·디지털 트윈 전환(Twin Transition)’이라는 주제로 ‘2021 ASEIC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ASEAN CSR Network 등 국내외 기업과 기관 대표가 참여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그린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과 추진 사례를 공유하였다.

ASEIC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와 공동으로 그린비즈니스센터(GBC)도 운영하고 있다. ’21년 12월 아세안 9개국에서 스타트업 173개사가 참가한 ‘제2회 한-아세안 SDGs 비즈니스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였다.

ASEIC은 ’21년 UNFCCC²⁴⁾의 관리조정기관으로서 ‘베트남 바이오매스 전환을 통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프로그램 CDM²⁵⁾으로 등록하고 한국 중소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분야 창업 역량 개발과 환경분야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 캄보디아·라오스·인니·말련·필리핀 등 아세안 5국에서 에코톤도 개최하였다. ’21년에 최종 수상한 18개 스타트업팀은 중기부에서 주관한 ‘COMEUP2021’에 참가하여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자와 교류 기회를 제공받았다.

5) P4G²⁶⁾ 협력

중소벤처기업부는 ’21.5월 P4G 12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58개 스타트업, 국내외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P4G* 스타트업 챌린지(P4G Startup Challenge)’를 개최하였다. ‘P4G 스타트업 챌린지’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동참을 유인하기 위한 기념행사로 기후위기 해결과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는

24)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기본 협약.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

25)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구온난화 현상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

26)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협의체로, 물, 에너지, 식량·농업, 순환경제, 도시의 5대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

각국 스타트업들이 서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글로벌 투자 상담을 통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 기업인 출입국 지원

코로나19 발생이후 국가간 출입국통제로 대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 참여하여 기업인 출입국 관련 애로해소를 지원하였다

중기부는 우리 중소기업인의 해외출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인 전용기 운항을 건의하여 '20년 중국, 베트남발 중소기업인 전용기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에 중소기업인 전용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지역확산방지를 위해 국내외 출입국자는 의무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중기부는 중요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국내외 기업인에 대해 격리를 면제 하는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운영하였으며, '20.4~'21.12월까지, 26,754업체 기업인 42,791명의 격리면제를 지원하였다.

또한, '20.8월 코로나19 상황에도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활동의 중단 없는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는 산업부와 함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를 개소하여 기업인 격리면제 지원, 기업인 전용기 운항, 각종 기업애로 상담 등을 수행하였으며, 중기부는 '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앞으로 중기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어 기업인들이 자유로운 해외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

우리나라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참가 현황

회의별	장소	발표내용	참가자
1차('94.10)	일본 오사카	▪ 중소기업의 5대 애로분야	산자부 장관
2차('95.9)	호주 Adelaide	▪ 금융시장의 효율성 연구 등	산자부 차관
3차('96.9)	필리핀 Cebu	▪ 중소기업의 세계화 여건 조성 등	이우영 청장
4차('97.9)	캐나다 오타와	▪ APEC 중소기업 활동을 위한 기본틀 마련 등	정해주 청장
5차('98.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말련 주도 중소기업 발전계획 채택	추준석 청장
6차('99.4)	뉴질랜드 Christchurch	▪ 역내 경제위기의 극복방안 등	추준석 청장
7차('00.6)	브루나이	▪ 인적자원, 금융,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한 회원국 경험 공유 등	신동오 차장
8차('01.8)	중국 상해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 논의	최동규 청장
9차('02.8)	멕시코 아까풀코	▪ 협력수혜의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과 개발	이석영 청장
10차('03.8)	태국 치앙마이	▪ APEC 역내 기업이 사회의 강화 주제로 기업이 정신 등 논의	유창무 청장
11차('04.10)	칠레 산티아고	▪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바람직한 정부정책 논의	김성진 청장
12차('05.9)	대한민국 대구	▪ 중소기업 혁신촉진을 주제로 인적자원 개발 등 논의	김성진 청장
13차('06.9)	베트남 하노이	▪ 무역과 투자를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우수사례 공유	이현재 청장
14차('07.3)	호주 호바트	▪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	이현재 청장
15차('08.9)	페루 FLAK	▪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주제 우수사례	홍석우 청장
16차('09.10)	싱가포르	▪ 중소기업 글로벌시장 접근 및 무역 장벽 제거 지원 주제 우수사례	홍석우 청장
17차('10.10)	일본 기후현	▪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녹색기술	김동선 청장
18차('11.5)	미국 몬터나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김동선 청장
19차('12.8)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그린이니셔티브 결과 보고	송종호 청장
20차('13.9)	인니 발리	▪ 선순환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한정화 청장
21차('14.9)	중국 난징	▪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촉진	한정화 청장
22차('15.9)	필리핀 일로일로	▪ 기술창업활성화를 통한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축	한정화 청장
23차('16.9)	페루 리마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혁신	주영섭 청장
24차('17.9)	베트남 호치민	▪ 디지털 시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	이상훈 국장
25차('19.9)	칠레 콘셉시온	▪ 중소기업 금융 및 디지털 전환	주철레 한국대사 대참
26차('20.10)	온라인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정책	박영선 장관
27차('21.10)	온라인	▪ 코로나19시대의 중소기업의 회복력 강화	강성천 차관

* '18년도에는 주최국인 파푸아뉴기니의 사정으로 중소기업 장관회의 미개최

제4장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1절 상생협력 촉진 및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추진배경 및 경과

▣ 상생협력정책과 이 병 삼

우리 경제는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불 돌파, 2020년 글로벌 10위 경제 진입 등 세계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과 임금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가 생겨났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는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진단되고 있다.

대·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확립이 필요하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약하고 빼앗아갔다. 또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생과 가까운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조치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정한 생태계 위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기술의 융복합화로 개별 기업이 아닌 공급망·시스템 차원의 기업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기술의 복잡성 확대 등으로 단일 기업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경쟁환경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 스스로 국내 중소기업과의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위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이 대기업의 경영전략 측면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5년 상생협력 정책을 시작으로 4차례의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왔다. “제1차 동반성장 기본계획(’08.1)”을 통해 협력형 기술개발 확대, 거래관행·결제조건 개선 등 하도급제도 개선을 집중 추진하였다.

이후 민간합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장치 마련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2차 동반성장 기본계획(’11.5)”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해 왔으며,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14.12)” 수립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협력파트너 관계 개선 등 한층 성숙된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였고,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18.5)”을 수립하여 더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제5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1.8)” 수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등 4대 전략과 자상한기업 2.0, 상생결제 확산, 사업영역 보호 실효성 제고 등 12대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이 수직적·폐쇄적 생태계를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 전환과 혁신의 주체인 기업들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였다.

2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 상생협력정책과 최 승
- 상생협력정책과 최 호 성
- 상생협력정책과 남 현 재
- 상생협력정책과 전 상 민

가.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발굴·확산

‘자상한기업’은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의 줄임말로, 대기업 등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협력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부터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자상한기업’을 발굴하고, 관련 협·단체와 상호 연결하여 대기업의 상생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2019년 5월 ‘자상한기업’ 1호 네이버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35개의 자상한기업을 발굴하여 민간 협·단체와 연결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벤처펀드 조성 등 협약기간 내 123조원 규모의 민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의 지평이 기존의 협력사 중심에서 비협력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 수수료이자 감면 등 지원활동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진출 등 협력사업을 마련하였다. 또한 AI 등 신사업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자상한 기업’을 발굴하여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표 II-4-1-1 | 자상한기업 협약체결 현황(2021.12월말 기준)

대상기업	연결단체	MOU 컨셉
네이버 (‘19.05.13)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포스코 (‘19.05.21)	벤처캐피탈협회	1조원 전략 벤처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스타트업 투자지원

대상기업	연결단체	MOU 컨셉
신한금융그룹 (*19.06.24)	벤처기업협회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신산업 육성
KB국민은행 (*19.08.01)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자영업 전용상품출시 등 외식업자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우리은행 (*19.08.2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전용 상품출시 등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소프트뱅크벤처스 (*19.09.26)	한국벤처투자	AI분야 창업 촉진 및 스케일업 투자 활성화
삼성전자 (*19.10.11)	중소기업중앙회	소재부품장비 등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하나은행 (*19.11.14)	이노비즈협회, 연세대	소재부품장비 기업 수요기술 지원체계 구축 및 이노비즈기업 지원
철도시설공단 (*19.11.21)	한국여성벤처협회	여성벤처기업 등 일·가정 양립 및 창업촉진
현대기아자동차 (*19.12.18)	한국자동차 산업협동조합	내연기관에서 미래자동차로 자동차 부품전환산업 지원
한국항공우주산업 (*20.02.03)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	항공산업의 첨단기술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중소기업 육성
Arm (*20.04.22)	벤처기업협회, 서울대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성장
스타벅스 (*20.05.07)	청년창업네트워크 엑셀러레이터협회	청년 스타트업 창업 촉진
SKC (*20.05.13)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정 기술거래와 개방형 혁신을 통한 상생 생태계 구축
LG상사 (*20.07.22)	한국무역협회	현지 네트워크 연결로 중소벤처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촉진
기업은행 (*20.08.05)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우수인력 확보 및 청년실업 해소
KT (*20.09.22)	이노비즈협회	5G 중심의 비대면 분야 활성화
SGI서울보증 (*20.09.28)	메인비즈협회	디지털뉴딜 경제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
프레시지 (*20.10.20)	전국백년가게협의회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20.11.04)	벤처캐피탈협회, 엑셀러레이터협회	그린 뉴딜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 육성
비자·소피파이 (*20.11.11)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0.11.24)	중소기업중앙회	건설건축분야 혁신조달·창업 및 소상공인 재기 지원
CJ E&M (*20.12.2)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컬리 (*20.12.09)	전국상인연합회, 엑셀러레이터협회	지역기반 및 브랜드K 제품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대

대상기업	연결단체	MOU 컨셉
이마트 (20.12.16)	전국백년가게 협의회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및 혁신역량 강화
우아한형제들 (21.1.18)	소상공인연합회	상생협력을 통한 프로토콜 경제의 실현
SK E&S (21.4.22)	이노비즈협회	ESG확산을 위한 수소경제·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문제 해결
바디프랜드 (21.4.27)	-	재도전 성공기업과 함께하는 재도약
한화시스템 (21.5.12)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소부장 및 신산업 분야 핵심기술 보유 유망 중소벤처 육성
SK에코플랜트 (21.6.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	상생 오픈 플랫폼을 통한 그린·스마트 분야 혁신기업 육성
NHN 커머스 (21.6.17)	-	온라인 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LG화학, 신한은행 (21.7.7)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한국전력공사 (21.9.30)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에너지 신산업 혁신기업 육성 및 ESG 문화 확산
포스코인터내셔널 (21.10.14)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중소벤처기업 해외 경쟁력 및 ESG 역량 강화
호반그룹 (21.11.24)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건설 분야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창업 활성화

나.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위탁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목표를 미리 합의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나타난 협력활동의 성과를 사전에 계약한 방법으로 상호 공유하는 경영혁신 모델로, 1959년 일본의 도요타(Toyota) 자동차가 고안한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7월에 민간기업인 포스코(POSCO)가 중소 협력사와 상생과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공유제와 유사한 BS(Benefit Sharing)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후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 5월 ‘제2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고시를 제정(12.4)하여 ‘성과공유 확인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성과공유제 도입·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까지 참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도입(15)하고, 2018년도에는 지방공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 등록기업(누적)은 2012년 77개로 시작하여 2021년 539개로 확대되었으며, 확인과제(누적)는 2012년 997개에서 2021년 11,470개로 증가하였고, 참여 수탁기업(누적)은 2012년 566개에서 2021년 12,833개로 확대되었다.

'18.6월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 수익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배분, 물량매출·확대 등 현금성 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였다.

표 II-4-1-2 |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인센티브	내 용
평가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시 우대
세제혜택	• 참여기업이 성과공유제 시행 목적으로 성과공유 재원을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수익계약	•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그 성과를 확인받은 경우 수익계약 체결 가능
포상	• 성과공유제 시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우선구매	•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선정(공공부문)
정부 R&D 관련 우대	• 산업부 R&D 과제 선정평가에 우대 배점

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18.11월에 발표하였다. 기존의 성과공유제가 수용할 수 없는 협력 유형으로서 제도 도입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수행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18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등록기업(누적)은 2018년 5개사로 시작하여 2019년 56개사, 2020년 106개사, 2021년 164개사로 확대되었으며, 등록과제(누적)는 2018년 6개에서 2019년 561개, 2020년 1,992개, 2021년 4,747개로 증가하였고, 참여 협력기업(누적)은 2018년 6개사에서 2019년 506개사, 2020년 1,685개사, 2021년 3,940개사로 확대되었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를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정부는 민간중심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정착·확산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를 2010년에 신설하였다. 2011년부터 2021년 말 누적 기준 341 기업으로부터 1조 8,328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68,69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 5,362억 원이 지원되었다.

표 II-4-1-3 | 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원, 개)

구 분	출 연				지 원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등	합 계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등	합 계
금 액	12,975	3,028	2,324	18,328	10,940	2,828	1,594	15,362
기 업	146	91	104	341	176,091	15,063	77,539	268,693

* 2021년도 12월 말 기준

2017년부터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율 7%에서 10%로 상향(제8조의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제100조의32) 등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어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지원이 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기금 사용 목적(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약)을 폐지하고 전면 개방(제8조의3)하여 대기업 등은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기금을 활용한 기업의 자율적 상생협력 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2017년 11월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협력 재단에 기금 관리·운영 업무를 추가하고, 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제20조의5)를 마련하였다. 2018년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제13조의4)하여 생산성 향상, 기술 보호, 창업지원, 국내외 판로 등의 사업에도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였다.

라. 상생결제제도

거래 관계에 있어 2차 이하 거래기업이 납품대금 지급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지급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을 목표로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발표(14.11.17)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까지 총 운용액은 670조 4,994억 원, 구매기업은 545개(민간 351개, 공공 194개), 거래기업은 149,641개(1개 거래기업이 여러 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1개로 산정)가 상생결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총 11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상생결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제도 확산을 위해 2021년 10월에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 근거를 마련(제2조 제8호의3, 제22조 제6항)하여,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가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상생결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표 II-4-1-4 | 상생결제제도 운용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총 운용액(억원)	245,931	666,643	935,990	1,074,323	1,155,713	1,198,570	1,427,824	6,704,994
구매-1차(억원)	242,716	658,026	925,797	1,061,231	1,138,789	1,176,986	1,400,776	6,604,321
1차 이하(억원)	3,215	8,617	10,193	13,092	16,924	21,584	27,048	100,673

표 II-4-1-5 | 상생결제제도 기업 규모별 실적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민간				공공		합계	
	상호출자 제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도입기업수(개)	144	168	39	351	134	60	545	
결제액	구매-1차사	5,656,726	770,110	31,862	6,458,698	144,782	843	6,604,321
	1차 이하	89,133	6,375	215	95,723	4,870	79	100,673
	합계	5,745,859	776,485	32,077	6,554,421	149,652	922	6,704,994

마.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상생협력은 민간의 자율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여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하고 있다. 동반성장지수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을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정량)’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대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정성)’ + ‘대기업별 실적평가(정량)’)로 구성되어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평가 결과 공표를 통해 우수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를 받는 기업은 2011년 56개사에서 2017년 185개사 2018년 195개사 2019년 214개사 2020년 210개사 2021년 217개사 2022년에는 223개사로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중견기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2·3차 협력 중소기업으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2013년에 중견기업 20개사를 평가대상으로 포함하였고, 2022년 기준 111개로 전체 평가기업(223개사) 중 약 50%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16년도부터 “미흡” 등급을 신설하여 지수 평가의 취지 및 신뢰를 훼손한 경우에 한해 부여하고 있다. 최우수 및 우수기업에게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에 공표한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한 미거래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대기업의 자발적이고 전방위적 상생협력 활동도 담겨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강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기술협업 등 다양한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그림 14 | 동반성장지수 기본 구조

구 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공정위)	동반성장 종합평가 (동반위)
대 상	대기업	1·2차 협력 중소기업, 대기업
방 식	대기업별 제출실적 평가(정량)	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 대기업별 실적평가(정량)
주 요 평 가 항 목	① 계약의 공정성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 ① 거래관계 · 공정거래, 거래조건의 공정, 적정성
	②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② 협력관계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로, 경영복지, 인력개발, 분야의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③ 상생협력 지원 · 금융(자금)지원 · 기술지원 및 보호 · 인력·채용 지원 · 효율성 증대 정도 ·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협력사 대상 매입액 적극조정 ·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③ 동반성장 체제 · 대기업의 인식 및 비전공유, 추진체계 환경조성 등
	④ (가점) CP협약결과, CCM인증, 경영 직·간접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 등 (감점)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대기업별 실적평가(정량) ④ 상생협력 지원 · 공정한 성과의 배분 · 인력개발 및 교류지원 · 상생협력기금, 창업기업 지원 · 국내외 판로지원, 투명한 결제 시스템 운영
		⑤ (감점) 적합업종 불이행, 동반 성장에 반하는 법위반 행위 등

표 II-4-1-6 |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결과

등 급	기 업 명(가나다순)
최우수 (37개사)	기아, 네이버, 농심, 대상,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삼성SDS, 세메스, 유한킴벌리, 이노션, 제일기획, 파리크라상, 포스코,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DL이앤씨, GS건설, GS리테일(GS25), KT,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에코플랜트, SK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SK하이닉스
우수 (66개사)	경신, 계룡건설산업, 동부건설,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롯데건설, 롯데쇼핑(마트부문), 롯데쇼핑(백화점부문), 롯데정보통신,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GRS, 만도, 삼성물산(패션부문), 삼성전기, 삼성SDI, 신세계건설, 신세계디에프,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인터내셔널, 아모레퍼시픽,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오투기, 오리온,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이마트, 이마트24, 중흥토건, 카카오, 코리아세븐, 코웨이,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CT, 풀무원식품, 하림, 한국인삼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라, 한샘, 한신공영, 한양, 한화, 한화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백화점, 현대상호중공업, 현대오트모에버, 현대제철, 호반건설, 호텔신라, 화신, 효성중공업, BGF리테일, CJ올리브영, DL건설, HDC현대산업개발, HSD엔진, KCC, LG생활건강, LS일렉트릭, LX하우시스, SK실트론, SPC삼립
양호 (73개사)	가온전선, 고려아연,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남양유업, 대덕전자, 대우건설, 대원강업, 대한항공(항공우주), 동국제강, 동원F&B, 두산공작기계, 롯데면세점, 롯데알미늄, 롯데푸드, 르노삼성자동차,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매일유업, 반도건설, 부영주택, 빙그레, 삼양사, 서연이화, 성우하이텍, 세방전지, 세아베스틸, 신원, 아성다이소, 에스에프에이, 에스엘, 엔에스쇼핑, 오텍캐리어, 원익PS, 유라코퍼레이션, 이니스프리, 일진전기, 코닝정밀소재, 코스트코코리아,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쿠쿠전자, 태영건설, 평화발레오, 풍산, 피에이치에이, 하이트진로,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한국지엠, 한국프랜지공업, 한섬, 한솔테크닉스, 한온시스템, 한화솔루션, 해태제과식품, 현대로템, 현대리바트, 현대미포조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앤씨,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휴맥스, 화성전자, CJ푸드빌, DB하이텍, GS홈쇼핑, hy, KCC건설, LF,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LS전선, OCI
보통 (24개사)	다스,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덴소코리아,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볼보그룹코리아, 삼성중공업, 서울반도체, 인터플렉스,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코플라스틱, 영풍전자, 오비맥주, 코리아씨키트, 태광산업, 태광실업, 파트론, 한국바스프, 홈플러스, 화승알앤에이, CJ오쇼핑, LS엠트론, SNT모티브
미흡 (10개사)	서원유통, 신성이엔지, 심텍, 애경산업,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상용차,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한국콜마

*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결과, 동반성장위원회

그림 15 |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

주무부처	인센티브 내용
기획재정부	•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신청(PQ) 가점 부여
법무부	•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국세청	• 최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공정거래위원회	• 최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1년간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 R&D 사업 우수등급 이상 기업 우대
중소벤처기업부	• 최우수등급 기업은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1년간, 연속 면제 미적용)
동반성장위원회	• 최우수 기업의 담당 임직원 중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자를 선정하여 위원장 포상 수여

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민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상생협력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도 부터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를 개정하여, 평가대상 기관을 2021년 기준 133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절대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노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인 평가지표(9개)를 제시하여 평가하고 중소 협력 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5개 등급으로 발표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평가대상 133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대외 공표하였고, 해당 결과가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비계량 지표로 반영될 수 있게 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표 II-4-1-7 | 2021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등 급	기 관 명		준정부기타형
	공기업형		
최우수 (26개)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원자력연구주식회사
우수 (24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양호 (26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보통 (30개)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창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개선 필요 (27개)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코레일유통(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연료진흥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기업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 거래환경개선과 최 형 선
- 거래환경개선과 김 범 철
- 거래환경개선과 강 병 택
- 거래환경개선과 최 병 재
- 거래환경개선과 지 흥 진

가.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매년 실시하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별점²⁷⁾을 부과한다. 그리고 별점이 누적되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별점에 따라 교육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중기부는 위탁기업의 법령 위반 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²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실태조사의 경우 총 조사대상 15,000개사 가운데 744개사가 법을 위반하였으나,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하고 최종 4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별점을 부과하였다.

표 II-4-1-8 | 수·위탁거래 실태조사결과 법령위반기업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조사업체(개)	6,000	6,500	12,000	12,000	15,000
위반업체(개)	479	598	657	596	744
납품대금 분야	478	576	646	587	744
준수사항 분야	2(1)	24(2)	12(1)	9	-
개선요구	68	28	13	15	4

* ()는 납품대금 분야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업체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항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나. 납품대금 결제 현황 및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기업 간 거래에서 수·위탁 관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정상적인 대금결제 여부는 자금력이 미약한 수탁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관련한 애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납품기업에 대한 대금결제 비중을 보면, 현금성 결제비율은 87.6%로 어음결제에 비해 75.2%p 높았다.

표 II-4-1-9 | 위탁기업의 납품기업에 대한 대금결제 비중

(단위 : %)

연 도	현금성 결제			어 음
	현 금	어음대체결제	소 계	
2011년		79.2		20.8
2012년		73.1		26.9
2013년		77.0		23.0
2014년		75.9		24.1
2015년		76.4		23.6
2016년	74.3	4.7	79.0	21.0
2017년	75.8	5.5	81.3	18.7
2018년	78.6	5.8	84.4	15.6
2019년	84.2	3.3	87.6	12.4

* 어음대체결제 :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2012~2020)

2019년 어음 납품대금 평균 60일 이내 결제비율은 3.8%로 전년대비 3.7%p 감소하였으며, 어음분야는 여전히 결제기일이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고 있다.

표 II-4-1-10 | 연도별 어음 납품대금 평균 결제기일

연 도	59일 이내	60일 초과			
		소 계	60~89	90~119	120일 이상
2011년	5.9	94.1	21.5	58.5	14.1
2012년	11.1	88.9	26.1	49.9	12.9
2013년	16.4	83.6	24.9	44.1	14.6
2014년	10.9	89.1	42.1	37.1	9.9
2015년	12.9	87.1	40.1	38.1	8.9
2016년	7.9	92.2	38.6	50.0	3.6
2017년	6.0	94.1	58.3	31.0	4.8
2018년	7.5	92.5	51.4	36.2	4.9
2019년	3.8	96.2	57.8	35.3	3.1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2012~2020)

다. 수·위탁 분쟁조정

수탁·위탁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의 사전 조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05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수·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위탁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 수·위탁거래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

표 II-4-1-11 |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2005~2021)

구분	접수 건수	분쟁유형					조정결과			
		대금등 미지급	발주 기피·중단	대금 감액·인하	수령 거부	기타	성립	불성립*	중단	비대상
2005년	15	12	-	-	-	3	6	6	-	3
2006년	26	22	1	-	2	1	10	15	-	1
2007년	39	30	3	1	-	5	18	21	-	-
2008년	42	30	3	1	-	8	20	19	-	3
2009년	45	36	2	5	-	2	19	24	-	2
2010년	65	50	2	7	-	6	28	33	-	4
2011년	35	32	1	-	1	1	17	18	-	-
2012년	52	40	5	1	-	6	15	34	-	3
2013년	45	30	5	-	-	10	18	23	-	4
2014년	20	12	6	-	-	2	13		7	-
2015년	22	15	5	2	-	-	12	1	9	-
2016년	33	11	5	4	4	9	10	3	20	-
2017년	31	21	1	1	3	5	12	-	19	-
2018년	34	28	3	1	1	1	10	3	21	-
2019년	38	30	3	3	-	2	8	2	28	-
2020년	47	34	4	3	-	6	18	3	23	-
2021년	84	62	11	4	1	6	39	9	33	-
합계	673	495	60	33	12	73	273	214	160	20

* '05~'13년 불성립 : 중단 포함

** '21년 접수된 사건 중 3건은 조정 진행 중

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대기업 등의 갑질 근절을 위해 지역·업종별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확대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고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11.29일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14개소에 설치하였던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중소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2017년 29개소, 2019년 69개소, 2020년 총 70개소로 확대 설치하였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상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자문이나 분쟁 조정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이후 2013년 58건, 2014년 513건, 2015년 593건, 2016년 627건, 2017년 779건, 2018년 1,338건, 2019년 1,148건, 2020년 1,355건, 2021년 1,911건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위탁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2019년 도입되어 중소기업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 대상 여부, 조정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고 있다.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가 있을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실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생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의무고발 요청제도

공정거래 분야는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지만, 공정위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추가 검토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하여야 한다. 2014년 1월 17일부터 의무고발요청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甲의 위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러온 대기업 등을 고발요청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상생문화 조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비율이 낮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것으로, 도입 이후 공정위의 고발비율이 도입 이전에 비해 높아지는 등 소기의 성과('09~'13, 8.7% → '14~'21, 16.1%)를 거두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중기부는 2021년 현재까지 46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고발요청 하였으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 납품대금 미지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피해 중소기업 수 및 피해 정도, 적극적 자진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하였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법 위반기업이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건전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도록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특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바.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중소기업이 기업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기술침해 등 불공정행위를 당하여 당사자간 합의나 조정·중재 없이 고소·고발 및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부처별로 각각 조정·조사·수사 등을 수행하고 있어 부처간 연계가 미흡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행위 사건에 대해 조정·중재를 유도하고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9년 6월부터 민관 공동으로 '상생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거래공정화 관련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업계 대표 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당연직 : 중기부 장관(위원장), 중기부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특허청 차장, 각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8명)

위촉직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대한상의/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교수, 변호사 등(9명)



출범이후 현재('21년말 기준)까지 총 10회 회의를 개최하여, 기술침해·불공정 거래의 조사·조정·중재에 대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하였다.

또한, 제2차 회의('19.9월)에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절차로 연계하기로 결정한후 총 10건이 연계되어 2건이 조정성립으로 해결됐다. 중기부와 검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양 기관간 연계 조정사건을 확대하고 처리기한도 단축하기로 했다.

4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상생협력지원과 김 용 천
- 상생협력지원과 김 원 주
- 상생협력지원과 김 성 진

가. 사업조정 제도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인하여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 등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3+3년)하거나 시설·품목·수량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1961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근거하여 도입하였고, 2006년부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의 신청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9년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확산되자 중소기업인들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본격화하였다.

2021년 말까지 총 1,031건이 접수되어 1,030건(99.9%)이 처리되었고, 1건이 진행중에 있다. 종료건 중 대부분이 자율조정으로 완료(801건, 77.7%)되었고, 정부가 강제조정 권고한 건은 25건(2.4%)이다. 업종별 신청은 SSM이 744건(72.1%)으로 가장 많고, 대형마트가 116건(11.2%)이며, 생활용품판매, 레미콘·아스콘 제조업 등 기타업종이 171건(16.5%)이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신청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로 신청 업종 및 내용 등이 복잡하고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표 II-4-1-12 | 사업조정 처리 현황('09.1.~'21.12.)

(2021년 12월 기준)

구 분	신 청	조정 완료			반 려	진 행
		자율조정	조정권고	소 계		
대형마트	116	90	3	93	23	-
SSM	744	576	15	591	153	-
기타	171	135	7	142	28	1
합 계	1,031	801	25	826	204	1

표 II-4-1-13 | 연도별 사업조정 처리현황(신청일 기준)

(2021년 12월 기준)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신청	145	146	127	137	79	94	68	47	69	59	33	17	10
○ 조정완료	117	125	103	93	63	75	57	38	63	54	21	9	8
자율조정	108	125	103	93	63	72	56	37	58	52	19	8	7
조정권고	9	-	-	-	-	3	1	1	5	2	2	1	1
○ 반려	28	21	24	44	16	19	11	9	6	5	12	8	1
○ 진행	-	-	-	-	-	-	-	-	-	-	-	-	1

* 해당연도 신청 건에 대한 처리결과

정부의 강제적인 권고보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당사자 간에 상생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적합업종

2011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 위원회의 합의 도출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권고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 까지 총 110개 업종·품목이 권고되었다. 그러나 민간(동반성장위원회) 자율 합의 기반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는 대기업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업종·품목을 지정·운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상공인 업체를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적합업종 법제화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고, 국회에서 2018년 6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2018년 12월 13일자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되었다. 또한, 2019년 1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을 제정·고시하였다.

특별법 시행 이후 27개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해당 업종·품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및 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가스연료 소매업」, 「간장 제조업」, 「된장 제조업」, 「고추장 제조업」, 「청국장 제조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면류(국수)」, 「면류(냉면)」, 「떡국떡 및 떡볶이 떡」 등 11개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신청 업종·품목 중 일부는 대기업과 소상공인단체와의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체결되어 소상공인 보호 및 상생협력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영역 조정 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자생력을 확보하여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업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영세한 업종·품목의 중·소상공인이 공정·경영 개선, 원가·비용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6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제2절 협업을 통한 혁신역량 발전

1 중소기업간 협력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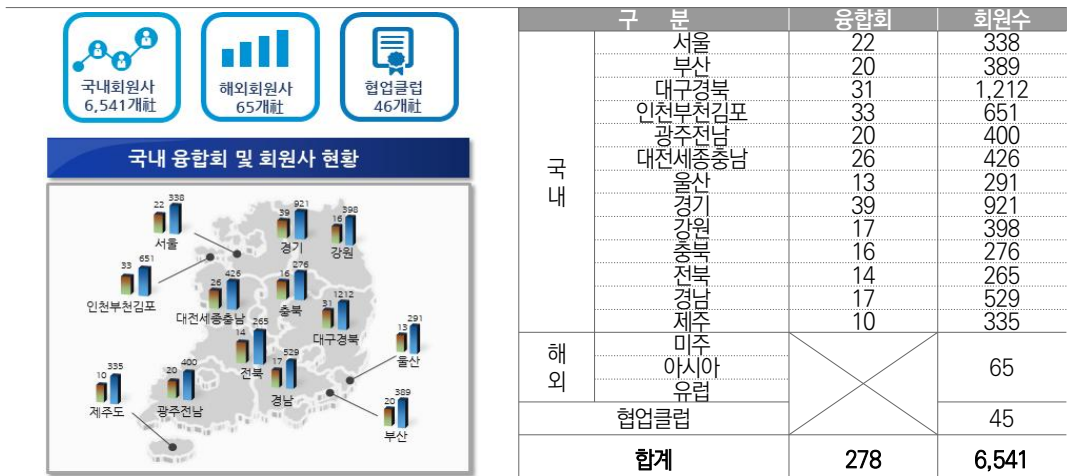
- 지역혁신정책과 장 한 희
- 기술정책과 김 영 철

가. 기업간 교류·협력 활성화

1994년 12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 이업종 교류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 교류지원부를 설치하여 이업종교류 지원업무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업종 단위 교류회 신규결성 및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CEO포럼 등의 사업을 보조하고 매년 단위교류회 및 참여기업의 교류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전시하는 중소기업융합대전 개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간 교류·협력 문화조성 및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6 | 중앙회의 구성 및 현황(2021년)

(단위 :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합회	13	13	13	13	13	13	16	16
융합회	332	315	315	301	269	267	271	278
회원사	7,141	6,546	6,546	6,078	6,058	6,199	6,451	6,541

중소기업융합대전은 2004년부터 이업종교류회 소속 기업의 단합과 교류성과 공유를 위해 전국을 순회 개최하였던 중소기업 한마음대회를 2014년 정부의 융합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토록 중소기업융합대전으로 격상시켜 매년 기업 간 교류와 협력활동의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하여 정부포상 수여를 통해 기업 간 교류와 협력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4-2-1 |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최기간	6.21	5.22~23	9.4~5	5.21~22	4.22~23	4.14~15	5.12~13	4.26~29	5.15~16	6.10~11
개최지역	대전 충남	제주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충북	제주	대구 경북	울산	강원
참가규모	290	400	550	550	1,100	1,200	1,400	1,560	1,558	1,800

표 II-4-2-2 | 중소기업 융합대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최기간	9.26~27	10.28	10.19	10.23	10.30	10.16~17	12. 07	11.17~19
개최지역	천안	대전	서울	익산	대전	안동	대전	제주도
참가규모	1,500	1,000	1,000	1,000	800	2,000	50미만	1,700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개회사



중소벤처기업부 실장 축사



정부포상 수여



협업우수사례발표



수출 R&D상담



성과전시

2019년부터는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기반으로 한 성과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간 생산적 교류활동을 통한 협업과제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협업과제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네트워크형 R&D 이후 사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기업지원중심의 사업을 통해 협업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4-2-3 | 기업지원 사업내용 및 '21년 실적

사업명	주요내용	'20년 지원실적															
지역혁신형 협업체결성 지원	○(목적) 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기술융합 및 협업과제 발굴 등 신사업 창출 및 사업 고도화	17개 협업체 (300백만원)															
	○(내용) 지역혁신형 협업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지역주력, 연고)산업 분야의 융합·협업과제 발굴 및 기획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실 적</th> </tr> <tr> <th>교류활동</th> <th>강의·세미나</th> <th>컨설팅</th> <th>제품기획</th> <th>전시회참관·기업견학</th> </tr> </thead> <tbody> <tr> <td>현황</td> <td>170건</td> <td>56건</td> <td>33건</td> <td>16건</td> <td>10건</td> </tr> </tbody> </table>		구분	실 적					교류활동	강의·세미나	컨설팅	제품기획	전시회참관·기업견학	현황	170건	56건	33건
구분	실 적																
	교류활동	강의·세미나	컨설팅	제품기획	전시회참관·기업견학												
현황	170건	56건	33건	16건	10건												
지역혁신형 협업계획 추진지원	○(목적) 지역 협업체가 발굴한 지역산업(지역주력·특화·연고)분야 협업과제에 대해 협업애로, 제품고도화, 판로개척, 홍보 등 지원하여 공동사업화 성공률 제고	10개 협업체 (1880백만원)															
	○(내용) 협업제품에 대한 고도화 제작지원, 경영애로 컨설팅,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를 위한 투자연계 등 지속성장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실 적</th> </tr> <tr> <th>정보교류</th> <th>제품고도화</th> <th>시험인증</th> <th>지재권획득</th> <th>판로개척</th> </tr> </thead> <tbody> <tr> <td>현황</td> <td>48회</td> <td>25건</td> <td>3건</td> <td>3건</td> <td>11건</td> </tr> </tbody> </table>		구분	실 적					정보교류	제품고도화	시험인증	지재권획득	판로개척	현황	48회	25건	3건
구분	실 적																
	정보교류	제품고도화	시험인증	지재권획득	판로개척												
현황	48회	25건	3건	3건	11건												

나. 기술혁신센터 지원

실리콘 밸리는 혁신 창업가, 대한, 연구소 등이 잘 어우러져 전세계 혁신창업을 주도하는 창업의 메카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IT, BT, CT, NT 및 첨단 융합 기술 관련 국가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하여 첨단 기술단지를 조성하여 관련분야 중소기업이 대거 밀집해 있는 곳이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1월 판교에 대학·연구기관 전문인력을 집적시킨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산업생태계 중심 R&D 및 인적교류 기반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기업 간 또는 대학·연구기관 등과 교류 및 공동 R&D 기획·수행 등을 위해 개방형 사무공간 제공, 기술교류회, R&D멘토링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기술상담 및 특허·법률 상담도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협력 R&D 연계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표 II-4-2-4 | 협력 R&D 연계지원 실적

(단위 : 개)

연도	기계 소재	바이오 의료	에너지 자원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화학	지식 서비스	합계
2017	6	5	2	2	1	4	-	20
2018	3	11	3	3	2	2	1	25
2019	6	3	2	3	-	4	-	18
2020	8	3	4	9	5	1	1	31
2021	1	6	-	5	3	-	-	15

2021년 총 777건의 기술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애로를 해소 하였으며, 기타 교류 프로그램은 총 64회, 1,688명이 참석하였다. 지속적인 협력 기관 모집을 통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표 II-4-2-5 | 교류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 회, 명)

연 도	R&D역량강화교육		R&D멘토링		단독기술교류회		공동기술교류회		합계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2017	8	292	23	927	8	550	6	145	45	1,914
2018	14	363	8	414	3	120	4	593	29	1,490
2019	21	670	27	627	3	166	10	1,517	61	2,980
2020	11	147	14	261	5	126	5	251	35	785
2021	17	395	37	770	5	132	5	391	64	1,688

2

포용적 동반성장 확대

- 정책총괄과 송 상 호
- 소상공인정책과 이 철 한

가. 여성기업 육성 정책

1) 여성기업 일반현황 및 정책개요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 수는 '19년 기준 약 277만개(전체의 40.2%), 창업기업 수는 '21년 기준으로 66만개(전체 창업의 46.6%)로 기업 활동에서의 여성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의 기술기반업종에서의 창업은 '16년 69만개에서 99만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II-4-2-6 | 여성기업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기업	5,893,802	6,085,434	6,301,013	6,643,756	6,893,706
여성기업	2,286,052	2,379,182	2,483,970	2,656,359	2,772,509
비율	(38.8)	(39.1)	(39.4)	(40.0)	(40.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표 II-4-2-7 | 여성창업 현황

(단위 : 개, %)

구분	성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산업	합계	1,190,177	1,256,267	1,344,366	1,285,259	1,484,667	1,417,973
	남성	637,829	669,872	711,543	689,001	790,241	756,441
	여성	551,682	585,737	632,073	595,484	693,927	660,616
	여성비율	(46.4)	(46.6)	(47.0)	(46.3)	(46.7)	(46.6)
기술기반업종	합계	190,674	198,911	212,237	220,607	228,949	239,620
	남성	121,599	124,690	129,768	132,782	135,962	140,213
	여성	68,882	73,993	82,199	87,567	92,815	99,162
	여성비율	(36.1)	(37.2)	(38.7)	(39.7)	(40.5)	(41.4)

*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 : 제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원활한 창업 지원과 여성 기업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기하고자 '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을 제정한 이후 창업, 판로, 컨설팅 등 다양한 여성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체계적으로 여성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여성기업법」을 '20년 2월에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 및 기업육성에 대한 정책을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20~'24년 제1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2) 여성기업 지원 정책

(1) 여성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

여성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창업보육공간('21년 기준 총 238개실)과 함께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벤처창업 케어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여성인력들의 창업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였으며, 유망 여성 창업·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24년까지 120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 벤처펀드도 추가로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 여성기업 판로 촉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여성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14년부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여성기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공공구매 참여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년에는 전년 대비 0.3조원(2.4%)이 증가한 12.8조원 수준까지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여성기업 확인 기업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표 II-4-2-8 |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

(단위 : 조원, %)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 체	119.2	116.9	123.4	123.4	135.0	145.8	154.0
여 성	7.14	8.34	9.91	10.58	11.9	12.5	12.8
비율	6.0	7.1	8.0	8.6	8.8	8.6	8.3

표 II-4-2-9 |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청	10,683	11,723	14,409	19,367	23,860	25,160
발급	9,242	10,450	12,541	16,178	20,650	23,285
누적	24,337	27,601	31,689	38,549	48,753	58,419

아울러,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통해 방송 등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에 맞추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수출실무교육, 전문가 컨설팅, 해외전시회 등을 통해 여성기업들의 해외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3) 여성기업 인력 등 지원

2017년부터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적시에 매칭 가능한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를 통해 여성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 현상 해소와 함께 경력 단절여성 등 여성전문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 CEO 등 여성 경제인들의 혁신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최고경영자 교육 과정, 여성경제인 경영 연수 과정 등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여성경제인 DESK(6개 센터)를 설치하여 경영전략·마케팅·수출 등 분야별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배 여성기업가 또는 여성 전문가 멘토그룹인 ‘여성기업 대사단’도 운영 중이다.

(4) 실태조사, 조사연구 등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국내·외 여성기업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여성기업법」 제7조에 따라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1년 4월 동법 개정을 통하여 그간 2년마다 실시했던 실태조사를 '22년부터는 매년 시행하도록 개편하였다.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승인통계로서, 여성기업 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나.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1) 장애인기업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은 2021년 말 등록 기준으로 총 인구의 5.1%인 264만 명이며,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258만 명이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로 전체 인구 62.8%에 비해 59.4% 수준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34.6%로 전체 인구 60.5%에 비해 57.2% 수준이며, 장애인 실업률도 7.1%로 전체 인구 3.7%에 비해 약 1.9배 정도 높아 장애인의 경제활동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4-2-10 | 연도별 장애인 현황

(단위 : 만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인구	5,133	5,153	5,170	5,178	5,183	5,184	5,182	5,163
장애인구	249	249	251	254	258	261	263	264
비율(장애인구/총인구)	4.85	4.83	4.85	4.85	4.98	5.03	5.08	5.11

자료 : 장애인등록현황(보건복지부, 각 연도) /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안전부, 각 연도)

표 II-4-2-11 | 장애인 경제활동 동향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14년	장애인	2,449	970	39.6	37.0	6.6
	전체 인구	42,453	26,762	63.0	60.8	3.6
2015년	장애인	2,444	922	37.7	34.8	7.9
	전체 인구	42,975	27,211	63.3	60.9	3.8
2016년	장애인	2,441	941	38.5	36.1	6.5
	전체 인구	43,387	27,455	63.3	61.0	3.7
2017년	장애인	2,460	953	38.7	36.5	5.7
	전체 인구	43,735	27,828	63.6	61.3	3.6
2018년	장애인	2,495	922	37.0	34.5	6.6
	전체 인구	44,141	28,184	63.9	61.3	4.0
2019년	장애인	2,526	941	37.3	34.9	6.3
	전체 인구	44,460	28,468	64.0	61.5	4.0
2020년	장애인	2,562	949	37.0	34.9	5.9
	전체 인구	44,785	28,012	62.5	60.1	4.0
2021년	장애인	2,575	960	37.3	34.6	7.1
	전체 인구	45,080	28,310	62.8	60.5	3.7

자료 :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경제활동인구 조사(통계청, 2021년 기준)

2021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체수는 11.5만 여개로 총사업체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90.0%)이 소상공인이고 평균 기업체 종사자수는 3.6명, 그 중 장애인 종사자는 평균 1.1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0.0%를 차지하고 있다.

* 기업규모 : 중소기업 11,553개(10.0%), 소상공인 103,794개(90.0%)

표 II-4-2-12 | 장애인기업 업종별 분포

(단위 : 개사, %)

구 분	제 조	도·소매	개인서비스	숙박·음식업	기타	합계
기업수	20,610	34,435	9,875	22,490	27,937	115,347
분 포	17.9	29.9	8.6	19.5	24.1	100

자료 : 장애인기업실태조사(2021년)

장애인가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일반기업에 비해 크게 높아 장애인가기업이 장애인의 소득 및 안정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4-2-13 | 장애인 고용률 현황('21년 말 기준)

구 분		사업체수(개)	상시근로자수(명)	장애인고용인원(명)	고용률(%)
정부 부문	①공무원	317	931,368	27,618	2.97
	②비공무원	305	401,933	23,418	5.83
③공공기관		764	586,801	22,179	3.78
④민간기업		29,092	6,754,724	195,448	2.89
합계(①~④) ¹⁾		30,478	8,674,826	268,663	3.10
⑤장애인가기업 ²⁾		115,347	402,232	120,683	30.0

1) ①~④ : 고용노동부, 2021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2021년 12월 말 기준)

2) 2021년 장애인가기업실태조사 결과

2) 장애인가기업 지원 정책

장애인가기업도 더불어 잘 사는 경제실현을 위해 육성해야 할 분야로 2005년 7월 「장애인가기업활동촉진법」 제정, 2006년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2008년 (재)장애인가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기반으로 장애인가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장애인 창업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장애인이 경제 주체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장애인가기업이 장애인 고용창출의 안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계적 지원으로 늘어나는 창업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 장애인구 증가(만명) : ('17) 254→('18) 258→('19) 261→('20) 263→('21) 264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 연도〉

* 장애인가기업수 : ('13) 34,761개→('15) 39,536개→('17) 39,967개→('19) 95,589개→('21) 115,347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가기업실태조사, 2021〉

창업교육은 장애 정도와 유형, 경제활동 경력 및 전문기술 보유 여부 등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 지원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이후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과 관련한 기술 교육이 포함된 특화교육, 창업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온라인 기본교육은 1,176명, 특화교육은 135명, 창업컨설팅은 227명이 수료하고, 이중 99명이 창업하여(창업율: 44%) 전년 대비 약 23.8% 창업률이 상승하였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과 POST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드론 자격 취득, E-커머스, 3D 프린터 교육 등)을 운영하였다.

* (드론창업과정) 드론 자격증취득 5명, 창업자 6명, (E-커머스과정) : 수료생 8명, 창업자 5명(3D 프린터과정)수료생 48명, 창업자 4명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유도 및 장애인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지원정책도 지원하고 있다.

표 II-4-2-14 | 연도별 장애인 창업지원 현황

사 업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맞춤형 장애인 창업교육	기초 719명 특화 262명 역량 136명 재기 40명	기초 790명 특화 351명 역량 95명 재기 36명 수출 34명 폐업 94명	기초 916명 특화 172명 역량 112명 재기 52명 코칭 139명 창업컨설팅 162명	기초 1,077명 특화 114명 역량 137명 재기 32명 창업컨설팅 170명	기초 969명 특화 185명 역량 134명 재기 38명 창업컨설팅 227명	기초 874명 특화 135명 역량 216명 재기 86명 창업컨설팅 227명
장애인이기 CEO 교육/연수/세미나	4회, 153명	4회, 162명	8회, 226명	4회, 90명	1회, 62명	1회, 124명
장애인 점포지원	35개 점포	43개 점포	32개 점포	25개 점포	25개 점포	25개 점포
장애인 창업사업화지원			90명 (청년 38명)	90명 (청년 30명)	65명 (청년 21명)	65명 (청년 13명)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창업점포지원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290개 점포의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부터는 그간 지원된 보증금의 상환금(회수)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25개 점포를 지원하였다.

그간 창업점포 지원을 받아 창업한 사업자의 영업지속률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일반사업체 대비 약 2배 가량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II-4-2-15 | 창업점포지원 사업수혜업체와 일반사업체 비교

기 준 연 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창업 연도	점포 수혜자 ¹⁾	일반 기업 ²⁾	창업 연도	점포 수혜자 ¹⁾	일반 기업 ²⁾	창업 연도	점포 수혜자 ¹⁾	일반 기업 ²⁾	창업 연도	점포 수혜자 ¹⁾	일반 기업 ²⁾
2019년	('18)	81.2%	64.8%	('17)	86.0%	51.9%	('16)	45.7%	44.5%	('15)	65.6%	38.5%
2018년	('17)	95.3%	63.7%	('16)	54.2%	52.8%	('15)	68.7%	44.7%	('14)	62.5%	36.7%
2017년	('16)	91.4%	65.0%	('15)	87.5%	52.8%	('14)	75.0%	42.5%	('13)	69.5%	35.6%
2016년	('15)	90.6%	65.3%	('14)	75.0%	50.7%	('13)	69.6%	41.5%	('12)	76.2%	33.5%
2015년	('14)	87.5%	62.7%	('13)	82.6%	49.5%	('12)	81.0%	39.1%	('11)	61.9%	32.8%
2014년	('13)	95.7%	62.4%	('12)	81.0%	47.5%	('11)	76.2%	38.8%	-	-	-
2013년	('12)	100.0%	60.1%	('11)	76.2%	47.3%	-	-	-	-	-	-
2012년	('11)	95.2%	59.8%	-	-	-	-	-	-	-	-	-

주 : 1) 창업점포 수혜자('11년 21명, '12년 21명, '13년 23명, '14년 8명, '15년 32명, '16년 35명, '17년 43명, '18년 32명), 국세청 사업자등록 현황조회

2) 2021년 기업생멸행정통계(2020년 기준) 연도별 신생기업 생존율(2021.12.17. 통계청)

아울러 2018년부터는 창업초기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초도 물품비,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창업사업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2021년 65명의 창업자를 배출하였으며, 이 중 청년창업자가 18명(27.7%)으로 청년 실업률 완화에 기여하였다.

(나) 장애인기업의 자립·성장기반 구축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08년 1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지역센터(124개 창업보육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입주 시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 판로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입주기업은 3.3㎡당 1만원의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표 II-4-2-16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개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주요시설	장애인 창업보육실, 강의실, 경영애로상담실 및 회의실, 편의시설 등
주요사업	장애인 창업지원 및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 관련 창업부터 판로까지 지원

표 II-4-2-17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현황

지역센터	규모(㎡)	보육실 수(개)	설치일자	지원시설
서울	3,127	14	2008.01	보육실, 대강당, 회의실, 재단사무처 등
대구	502	6	2008.12	보육실, 회의실 등
광주	524	9	2008.12	보육실, 창업준비실, 대강당, 회의실 등
부산	687	9	2009.05	보육실, 창업준비실, 회의실 등
대전	420	6	2009.07	보육실, 회의실 등
경기	662	8	2010.11	보육실, 회의실 등
인천	487	8	2012.07	보육실, 회의실 등
경남	523	8	2012.11	보육실, 회의실 등
울산	615	8	2012.12	보육실, 대강당, 회의실 등
전북	527	8	2013.12	보육실, 회의실 등
강원	537	8	2013.12	보육실, 회의실 등
제주	414	8	2013.12	보육실, 회의실 등
전남	334	4	2014.11	보육실, 다목적교육장, 회의실 등
충북	326	8	2014.11	보육실, 회의실 등
경북	730	8	2015.12	보육실, 대강당, 회의실 등
충남	370	4	2015.12	보육실, 회의실 등
합계	10,785	124		

(다) 장애인기업의 수출 및 판로확보 지원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2008년 3월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기업 물품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연도별 장애인기업 확인현황 중 누적 장애인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에도 7,119개사로 2020년 6,037개사 대비 1,082개사 증가하였다.

표 II-4-2-18 | 연도별 장애인기업 확인현황

(단위 : 건)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청	1,263	1,699	1,746	2,081	2,171	2,533	2,911	2,913	2,909
발급	969	1,300	1,414	1,764	1,712	2,132	2,520	2,487	2,182
누적	1,765	2,269	2,714	3,191	3,490	3,839	4,580	6,037	7,119

장애인기업의 구매실적은 2021년의 경우 2.4조원(1.6%)으로 2020년 2.3조원 대비 0.1조원 증가하였으며, 총 공공구매실적과 함께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4-2-19 | 연도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단위 : 억원, 개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공공구매실적	1,192,070	1,169,331	1,234,078	1,234,134	1,349,802	1,457,992	1,540,293
장애인기업생산품 공공구매실적 (구매비율, %)	10,899 (0.9%)	13,231 (1.1%)	15,406 (1.2%)	17,677 (1.4%)	20,952 (1.6%)	23,275 (1.6%)	24,390 (1.6%)
공공기관 수	765	775	788	836	837	838	849

또한 장애인기업에게 국내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여 2019년에는 693개사에서 84,359백만원을, 2020년에는 934개사에서 139,069백만원을, 2021년에는 690개사에서 167,180백만원 낙찰 받는데 성공하였다.

2018년부터는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출이 유망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을 위한 수출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출상담 기회 제공을 위해 화상상담회로 변경하여 지원하였다. 2021년 개별화상상담회에서 30개사, 총 281만 달러의 계약추진금액을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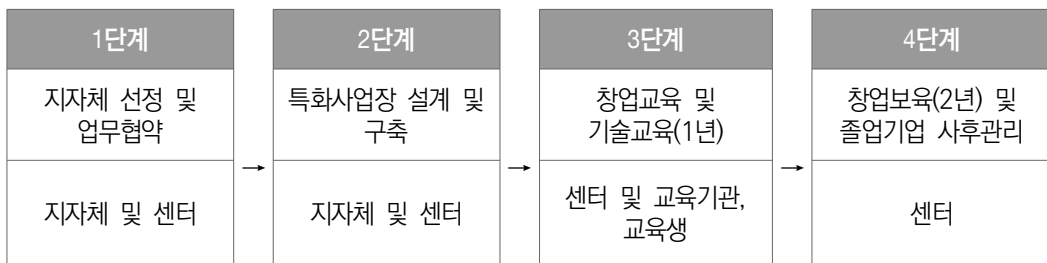
또한, 글로벌 온라인 홍보관 구축, 바이어 타겟 마케팅 등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해외 구매오퍼 대응 원스톱(One-Stop) 지원 등의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여 2019년 8개사의 150만 달러, 2020년 8개사의 95만 달러, 2021년 8개사 170만 달러 등 수출성과를 거두었다.

(라)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공동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회 제공 및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가족에게는 창업교육과 기술교육을 1년간 제공하며, 창업팀에게는 창업준비공간을 최대 2년간 제공한다.

2020년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경상북도 안동시가 선정되어 경상북도 안동시는 2021년 완공이 되었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22년 9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2021년에는 총 4개 지자체(충남 태안군, 충청남도(공주), 제주도, 경남 진주시)를 선정하고, 2022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2022년에는 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연내에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1개소당 20팀(발달장애인 20명, 가족 2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고 이 중 5개의 창업팀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II-4-2-20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추진 프로세스



제3절 지역 중소기업 육성

1 지역 중소기업 현황

- 지역혁신정책과 손인한

가. 지역 경제동향

2020년 시도 전체의 지역내 총생산(GRDP, 명목)은 1,936조원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시도별 규모는 경기(487조원), 서울(440조원), 충남(114조원) 순이며, 세종(13조원)이 가장 적었다. 2020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수도권(1.3%)이 비수도권(-0.5%)보다 높으며, 수도권의 비중(52.5%)이 비수도권(47.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4-3-1 | 지역별 지역내 총생산(GRDP, 명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지역내 총생산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1,902,527,946	1,927,421,209	1,936,043,025	100.0	0.4
- 수도권	992,299,702	1,003,381,164	1,017,040,733	52.5	1.3
- 비수도권	910,228,244	924,040,045	919,002,292	47.5	-0.5
서울	423,742,112	435,927,212	440,320,184	22.7	1.0
부산	89,979,896	93,012,134	91,698,334	4.7	-1.4
대구	56,714,479	58,094,694	57,961,275	3.0	-0.2
인천	88,735,401	90,040,500	90,045,705	4.7	0.0
광주	39,805,406	41,519,553	41,645,971	2.2	0.3
대전	41,308,348	43,092,218	44,102,921	2.3	2.3
울산	73,647,537	74,654,628	68,611,360	3.5	-8.8
세종	11,101,861	11,855,276	12,670,165	0.7	6.4
경기	479,822,189	477,413,452	486,674,844	25.1	1.9
강원	46,925,797	48,822,640	48,839,465	2.5	0.0
충북	69,636,876	69,419,635	71,298,882	3.7	2.6
충남	115,534,184	113,488,325	114,016,811	5.9	0.5
전북	50,595,318	51,997,535	53,177,897	2.7	2.2
전남	75,424,584	76,948,280	78,104,856	4.0	1.5
경북	108,782,638	106,805,459	105,249,629	5.4	-1.5
경남	110,720,199	114,020,931	112,092,547	5.8	-1.7
제주	20,051,121	20,308,737	19,532,179	1.0	-4.0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지역소득

2021년 전국 경제활동인구는 28,310천명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경기(7,422천명), 서울(5,312천명), 경남(1,805천명) 순으로 많으며, 울산(575천명), 제주(395천명), 세종(189천명)은 적은 편에 속했다.

경기가 전년대비 3.1%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울산이 1.7% 감소하여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였다.

표 II-4-3-2 |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구분	2019	2020	2021		
			경제활동인구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28,186	28,012	28,310	100.0	1.1
- 수도권	14,198	14,120	14,363	50.7	1.7
- 비수도권	13,986	13,892	13,947	49.3	0.4
서울	5,319	5,293	5,312	18.8	0.4
부산	1,741	1,712	1,715	6.1	0.2
대구	1,266	1,232	1,265	4.5	2.6
인천	1,653	1,634	1,629	5.8	-0.3
광주	778	778	772	2.7	-0.8
대전	806	816	811	2.9	-0.6
울산	596	585	575	2.0	-1.7
세종	172	185	189	0.7	2.1
경기	7,226	7,193	7,422	26.2	3.1
강원	841	827	840	3.0	1.5
충북	908	919	920	3.2	0.1
충남	1,231	1,218	1,221	4.3	0.2
전북	953	956	974	3.4	1.8
전남	999	998	1,008	3.6	1.0
경북	1,488	1,478	1,457	5.1	-1.4
경남	1,817	1,802	1,805	6.4	0.2
제주	390	388	395	1.4	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 전국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3%p 감소하였다. 시도별 실업률은 서울(4.8%), 경남(4.1%), 인천(4.0%) 순으로 높으며, 세종(2.1%), 전북(2.2%)은 낮은 편에 속했다. 서울(0.2%p)과 경남(0.1%p), 제주(0.6%p)의 실업률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하였다.

표 II-4-3-3 | 지역별 실업률

(단위 : %, %p)

구분	2019	2020		2021	
		실업률(%)	전년대비 증가(%p)	실업률(%)	전년대비 증가(%p)
전국	3.8	4.0	0.2	3.7	-0.3
서울	4.4	4.6	0.2	4.8	0.2
부산	3.7	4.2	0.5	3.4	-0.8
대구	3.7	3.9	0.2	3.7	-0.2
인천	4.4	4.6	0.2	4.0	-0.6
광주	3.7	3.9	0.2	3.6	-0.3
대전	4.2	4.4	0.2	3.3	-1.1
울산	4.2	4.2	0.0	3.6	-0.6
세종	2.7	2.8	0.1	2.1	-0.7
경기	3.8	4.0	0.2	3.7	-0.3
강원	3.6	3.9	0.3	3.6	-0.3
충북	3.1	3.2	0.1	2.5	-0.7
충남	2.9	3.5	0.6	2.3	-1.2
전북	2.7	2.5	-0.2	2.2	-0.3
전남	2.6	2.4	-0.2	2.3	-0.1
경북	3.9	4.0	0.1	3.2	-0.8
경남	3.8	4.0	0.2	4.1	0.1
제주	2.1	2.5	0.4	3.1	0.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지역 중소기업 현황

1) 중소기업 기업수 및 종사자수

2020년 지역별 중소기업 기업수는 경기(1,839,792개), 서울(1,553,371개), 부산(460,729개) 순으로 많으며, 제주(117,100개), 세종(38,190개)은 적은 편에 속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업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세종이 전년대비 10.3%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표 II-4-3-4 | 지역별 중소기업 기업수

(단위 : 개, %)

구분	2019	2020		
		기업수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6,890,203	7,286,023	100.0	5.7
- 수도권	3,534,025	3,769,943	51.7	6.7
- 비수도권	3,356,178	3,516,080	48.3	4.8
서울	1,473,954	1,553,371	21.3	5.4
부산	440,976	460,729	6.3	4.5
대구	309,436	320,972	4.4	3.7
인천	353,964	376,780	5.2	6.4
광주	181,292	189,872	2.6	4.7
대전	178,353	187,594	2.6	5.2
울산	127,741	132,667	1.8	3.9
세종	34,613	38,190	0.5	10.3
경기	1,706,107	1,839,792	25.3	7.8
강원	211,075	221,386	3.0	4.9
충북	204,972	216,508	3.0	5.6
충남	276,828	294,514	4.0	6.4
전북	248,082	260,016	3.6	4.8
전남	256,585	269,026	3.7	4.8
경북	347,445	363,218	5.0	4.5
경남	427,774	444,288	6.1	3.9
제주	111,006	117,100	1.6	5.5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업수

2020년 중소기업 종사자수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25.7%), 서울(23.2%), 부산(6.2%) 순으로 높으며, 울산(1.9%), 제주(1.4%), 세종(0.5%)은 낮은 편에 속했다. 세종이 전년대비 8.5% 증가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반면, 부산(-0.5%), 대구(-0.3%), 울산(-0.3%)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또한, 2020 중소기업 종사자수의 수도권 비중은 54.0%이며, 비수도권 중소기업 종사자수의 전년대비 증가율(0.9%)은 수도권(2.1%)보다 낮았다.

표 II-4-3-5 | 지역별 중소기업 종사자수

(단위 : 명, %)

구분	2019	2020		
		종사자수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17,273,909	17,541,182	100.0	1.5
- 수도권	9,274,918	9,469,368	54.0	2.1
- 비수도권	7,998,991	8,071,814	46.0	0.9
서울	4,073,785	4,064,510	23.2	-0.2
부산	1,094,458	1,089,331	6.2	-0.5
대구	735,552	733,248	4.2	-0.3
인천	868,840	888,231	5.1	2.2
광주	442,597	447,500	2.6	1.1
대전	433,598	443,300	2.5	2.2
울산	341,357	340,219	1.9	-0.3
세종	73,177	79,429	0.5	8.5
경기	4,332,293	4,516,627	25.7	4.3
강원	445,068	446,326	2.5	0.3
충북	525,042	539,672	3.1	2.8
충남	694,751	715,007	4.1	2.9
전북	530,037	537,448	3.1	1.4
전남	565,565	579,661	3.3	2.5
경북	816,109	818,435	4.7	0.3
경남	1,062,131	1,061,497	6.1	-0.1
제주	239,549	240,741	1.4	0.5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종사자수

2) 신설법인

2021년 지역별 신설법인 수는 서울(36,373개), 경기(36,132개), 부산(6,669개) 순으로 많으며, 제주(1,782개), 울산(1,699개), 세종(896개) 등이 적은 편에 속했다. 제주가 전년대비 13.8% 증가하여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반면 전북이 가장 큰 비율(8.6%)로 감소하였다. 또한, 2021년 신설법인의 수도권 비중은 61.8%이며, 수도권 신설법인의 전년대비 증가율(3.5%)도 비수도권(1.8%)보다 높았다.

표 II-4-3-6 | 지역별 신설법인 수

(단위 : 개, %)

구분	2019	2020	2021		
			신설법인 수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109,520	123,305	126,905	100.0	2.8
- 수도권	66,710	75,639	78,381	61.8	3.5
- 비수도권	42,810	47,666	48,524	38.2	1.8
서울	33,023	34,647	36,373	28.7	4.7
부산	5,349	5,942	6,669	5.3	10.9
대구	3,473	3,833	3,888	3.1	1.4
인천	4,886	5,542	5,876	4.6	5.7
광주	3,612	4,016	3,705	2.9	-8.4
대전	2,698	3,048	2,997	2.4	-1.7
울산	1,370	1,621	1,699	1.3	4.6
세종	702	827	896	0.7	7.7
경기	28,801	35,450	36,132	28.5	1.9
강원	2,246	2,680	2,651	2.1	-1.1
충북	2,618	3,096	3,132	2.5	1.1
충남	3,847	4,495	4,668	3.7	3.7
전북	3,371	3,891	3,584	2.8	-8.6
전남	3,873	3,947	3,873	3.1	-1.9
경북	3,934	4,134	4,076	3.2	-1.4
경남	4,312	4,600	4,904	3.9	6.2
제주	1,405	1,536	1,782	1.4	13.8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3) 벤처기업

2021년 지역별 벤처기업 수는 경기(11,637개), 서울(10,450개), 부산(2,024개) 순으로 많으며, 울산(485개), 제주(222개), 세종(177개) 등이 적은 편에 속했다. 전반적으로 전지역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세종이 가장 큰 비율인 10.7%로 증가를 보인 반면, 대구는 -14.7%로 가장 크게 감소 하였다. 또한, 2021년 벤처기업수의 수도권의 비중은 62.1%이며, 전년대비 0.6%가 증가하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3-7 | 지역별 벤처기업 수

(단위 : 개, %)

구분	2019	2020	2021		
			벤처기업 수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37,008	39,511	38,319	100.0	-3.0
- 수도권	21,952	23,661	23,794	62.1	0.6
- 비수도권	15,056	15,850	14,525	37.9	-8.4
서울	8,877	9,880	10,450	27.3	5.8
부산	2,201	2,227	2,024	5.3	-9.1
대구	1,633	1,677	1,431	3.7	-14.7
인천	1,642	1,761	1,707	4.5	-3.1
광주	792	805	769	2.0	-4.5
대전	1,468	1,544	1,509	3.9	-2.3
울산	481	544	485	1.3	-10.8
세종	128	158	177	0.5	12.0
경기	11,433	12,020	11,637	30.4	-3.2
강원	713	760	733	1.9	-3.6
충북	1,011	1,138	1,035	2.7	-9.1
충남	1,297	1,350	1,247	3.3	-7.6
전북	821	875	819	2.1	-6.4
전남	813	889	813	2.1	-8.5
경북	1,671	1,708	1,551	4.0	-9.2
경남	1,816	1,937	1,710	4.5	-11.7
제주	211	238	222	0.6	-6.7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현황

4) 중소기업 매출액 및 수출액

2020년 중소기업 매출액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28.0%), 서울(25.2%), 부산(6.1%) 순으로 높으며, 울산(1.6%), 제주(1.0%), 세종(0.4%) 등이 낮은 편에 속했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액의 수도권 비중은 58.4%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중소기업 매출액은 세종이 전년대비 6.1% 증가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제주가 전년대비 -3.8% 감소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표 II-4-3-8 | 지역별 중소기업 매출액

(단위 : 억원, %)

지역별	2019	2020		
		중소기업 매출액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26,537,548	26,733,019	100.0	0.7
- 수도권	15,415,032	15,605,395	58.4	1.2
- 비수도권	11,122,516	11,127,624	41.6	0.0
서울	6,831,793	6,730,977	25.2	-1.5
부산	1,662,393	1,623,749	6.1	-2.3
대구	1,038,573	1,013,600	3.8	-2.4
인천	1,361,498	1,389,162	5.2	2.0
광주	668,489	672,402	2.5	0.6
대전	552,213	571,439	2.1	3.5
울산	445,246	437,073	1.6	-1.8
세종	95,872	101,678	0.4	6.1
경기	7,221,741	7,485,256	28.0	3.6
강원	485,790	493,894	1.8	1.7
충북	795,510	810,249	3.0	1.9
충남	1,030,943	1,059,648	4.0	2.8
전북	672,266	687,593	2.6	2.3
전남	748,716	779,160	2.9	4.1
경북	1,173,045	1,148,395	4.3	-2.1
경남	1,482,289	1,468,008	5.5	-1.0
제주	271,172	260,735	1.0	-3.8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매출액 통계

2021년 중소기업 수출액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32.4%), 서울(24.8%), 인천(6.5%) 순으로 높으며, 강원(0.8%), 세종(0.3%), 제주(0.3%) 등은 낮은 편에 속했다. 또한, 수도권 비중은 63.7%로 비수도권(36.3%)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2021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충북,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제주가 전년대비 37.1% 증가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표 II-4-3-9 |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액

(단위 : 달러, %)

지역별	2019	2020	2021		
	중소기업 수출액	중소기업 수출액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100,927,597,120	100,712,254,769	115,480,190,029	100.0	12.8
- 수도권	63,146,414,692	62,849,434,277	73,600,012,417	63.7	14.6
- 비수도권	37,781,182,428	37,862,820,492	41,880,177,612	36.3	9.6
서울	25,326,144,790	24,842,178,741	28,683,764,453	24.8	13.4
부산	7,282,216,681	6,436,940,339	7,405,177,910	6.4	13.1
대구	3,345,577,644	2,757,002,828	3,260,730,536	2.8	15.4
인천	5,970,747,685	6,019,211,346	7,458,984,210	6.5	19.3
광주	945,749,706	900,228,943	1,119,273,626	1.0	19.6
대전	1,087,007,262	1,296,134,775	1,700,926,422	1.5	23.8
울산	1,240,460,618	1,296,641,497	1,566,742,904	1.4	17.2
세종	181,178,458	203,839,814	293,000,240	0.3	30.4
경기	31,849,522,217	31,988,044,190	37,457,263,754	32.4	14.6
강원	715,720,876	783,719,380	883,792,690	0.8	11.3
충북	3,061,857,088	4,638,342,634	3,754,884,914	3.3	-23.5
충남	4,842,828,108	5,166,521,548	5,132,873,596	4.4	-0.7
전북	1,198,994,015	1,378,139,762	1,516,365,874	1.3	9.1
전남	1,398,387,826	1,273,947,996	1,668,320,529	1.4	23.6
경북	5,576,930,507	5,357,025,853	6,070,600,198	5.3	11.8
경남	6,735,620,338	6,191,129,162	7,216,030,481	6.2	14.2
제주	168,653,301	183,205,961	291,457,692	0.3	37.1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수출액 통계

가. 규제자유특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신기술의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과 더불어 지역의 혁신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이 절실하였다. 또한,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도 있었다.

신산업 분야에 선 허용-후 규제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18년 산업융합·정보통신(ICT)융합·혁신금융·지역혁신 등 4개 분야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 추진되었다.

지역혁신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되어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세계 최초의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2019년 4월에 도입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도출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을 신청하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 적용과 함께 재정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나. 2021년도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 내 혁신 파급력이 큰 특구를 년 2회(상반기, 하반기) 지정할 계획으로, 사전컨설팅 강화, 지역별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가능성이 큰 특구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사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특구 간, 국책사업 간 연계를 통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여,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이후 정부 정책과의 중복문제, 지역별 희망사업 쏠림(바이오, 미래차, 에너지) 등의 과도한 경쟁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특히 Bottup-Up 방식의 특구신청에 더해 정부부처 간·지역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 산업분야와 탄소중립 분야 중심으로 Top-Down 방식을 통해 특구를 지정하였다.

성과창출을 위해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R&D, 사업화,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2019년 306억원 → 2020년 1,103억원 → 2021년 1,701억원) 하고, 특구사업자를 실증특례 등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관련 부품생산 등 실증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업자까지 특구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사후 관리 강화 측면에서도 기 지정된 특구의 실증 준비, 안전성 검증, 부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성과 제고를 위해 정책 목표, 성과지표 달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 규제특례 및 혁신사업 등의 추진실적·성과를 평가하여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전초기지로 거듭나도록 추진하였다.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실증을 조기에 완료한 사업자가 관계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요청제를 신설하는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였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이 종료되는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안착화를 추진하였다.

안전성이 확인된 실증사업은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사업 등은 실증특례를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추가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착화를 추진하였다.

다. 2021년도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2021년은 두 차례에 걸쳐 총 5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하였고, 이를 통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에 총 29개의 규제자유특구가 구축되어 지역혁신 성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6차 특구(29개) 지정 현황〉

- * 1차 특구('19.07)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 * 2차 특구('19.11) :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충전
- * 3차 특구('20.07) :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울산) 계층서비스, (강원) 액화수소,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전북) 탄소융복합, (경북) 산업융합프
- * 4차 특구('20.11) :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 * 5차 특구('21.07) : (강원) 정밀의료산업, (충북) 그린수소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 * 6차 특구('21.11)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2021년 7월, 5차 특구로 강원 정밀의료산업,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충북 그린 수소산업,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등 4개 특구가 신규 지정되었다.

5차 특구는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과 병행해 중기부에서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을 통해,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으며,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2021년 11월, 6차 특구로 부산 암모니아친환경에너지 1개 특구가 신규 지정 되었으며, 무탄소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였다.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는 실증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2021년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하였다.

법령정비 요청제를 신설하여 실증을 조기에 완료한 사업자가 관계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가 법령 정비를 검토하는 기간에는 실증 특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실증특례가 자동 연장되도록 개선하였다.

실증이 종료되는 특구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인된 실증사업은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사업 등은 실증특례를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추가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착화를 추진하였다.

2019년에 지정되어 2021년에 실증이 종료된 1~2차 특구에서 10개의 실증 사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하였고, 27개의 실증사업에 실증특례를 연장하였다.

또한, 실증특례 후속조치와 함께 안전성이 입증된 특구사업에 대해서는 실증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위치정보법 등 규제법령 정비도 추진하였다.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었다. 특구 내 기업에서 특구 지정 전에 비해 35.9% 증가한 2,409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투자유치(VC투자 포함) 2조 3,572억원, 공장설립 19개사, 기업유치 205개사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2021년말 기준).

또한 블록체인, 자율주행, 원격의료, 수소모빌리티 등 다양한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에서 특허 출원 275건, 특허 등록 30건, 소프트웨어 등록 32건 등의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였고, 해외에서 수입하던 자율주행, 수소연료전지 등의 핵심부품의 국산화도 이루어지는 등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도 강화되었다.

전국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2021년 12월말, 누적기준)

● 1차('19.7.) ● 2차('19.11.) ● 3차('20.7.) ● 4차('20.11.) ● 5차('21.7.) ● 6차('21.11.)

충북

- 스마트 안전제어
- 그린수소

충남

- 수소에너지전환
- 탄소저감 건설소재

대전

- 바이오메디컬

전북

- 친환경자동차
- 탄소융복합

광주

- 무인저속특장차
-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남

- e-모빌리티
- 에너지 신산업

제주

- 전기차 충전 서비스

세종

- 자율주행

강원

- 디지털 헬스케어
- 액화수소
- 정밀의료

경북

-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 산업용 헴프 (Hemp)
- 스마트 그린물류

대구

- 스마트 웰니스
-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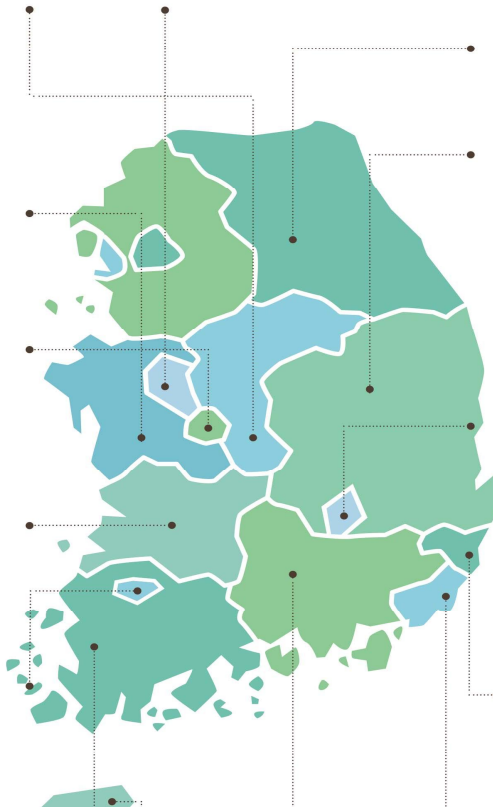
- 수소그린 모빌리티
- 게놈서비스
-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 무인선박
- 5G활용 차세대스마트공장

부산

- 블록체인
- 해양 모빌리티
-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라. 향후 계획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기업 이전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괄목할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구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자율주행 등 유사 산업 특구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규제법령 정비 공동 대응, 사업화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고, 실증사업 이후 신속한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수출, 투자유치 등 다양한 사업화 지원 정책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에 지정되어 2022년에 실증이 종료되는 3~4차 지정 특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실증 추진과 안전성 입증 데이터로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규제 법령 정비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특구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개선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고도화도 추진할 것이다.

3 지역 특화산업 육성

▪ 지역기업육성과 최 정 민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와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시·도별 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99년 국민의 정부에서 4개지역 (부산, 경남, 광주, 대구)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02년 이후 13개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되었다. '04년 제정된 균특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기업에 기술개발과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를 지원해오고 있다. '17.7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표 II-4-3-10 |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구 분	1999~2002년 (국민의 정부)	2003~2007년 (참여정부)	2008~2012년 (이명박정부)	2013~2016년 (박근혜정부)	2017~ (문재인정부)
시·도	전략산업 : 4개 지역 1단계 (1999~2003년)	전략산업 : 9개 지역 1단계 (2002~2007년)	전략산업 : 4개 지역 2단계 (2004~2008년)	Post 4+9 지역 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육성+ (2020년~) - 지역주력산업육성 - 지역연구산업육성 - 지역스타기업육성
시·군·구	지역 특화산업(1995년~, 연고산업 중심)				

표 II-4-3-11 | 지역주력산업현황

사도	주력산업	사도	주력산업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디스플레이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광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대전	차세대 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울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경남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향노화메디컬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중앙-지역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동 사업이 지역 경제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전담기관-관리기관-수행기관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기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14개 시·도가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며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과제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성과 종합관리 등을 담당하고, 14개 지역사업평가단을 통해 평가 및 과제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사업 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림 17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가. 지역특화산업육성+(R&D)

'19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일몰에 따라 후속사업인 지역특화산업육성+(R&D)를 신규 기획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188개 과제에 2,254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사업은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을 산업 성장 주기에 따라 유망신산업, 성장산업, 재도약산업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성장성 및 지역사회공헌도가 높은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형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4-3-12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내역사업별 추진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지원사항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비수도권 시도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국비 2억원당 1명 신규채용 의무)	▶ 과제당 연차별 2억원 내외 ▶ 2년 이내 지원 ▶ 지역기업 단독주관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 (국비 2억원당 1명 신규채용 의무)	▶ 과제당 연차별 2억원 내외 ▶ 2년 이내 지원 ▶ 지역스타기업 단독주관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2020년 12월 연간 지역산업육성 시행계획인 '2021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1년 643개 과제에 1,203억원을 지원하여 순신규고용 849.1명, 사업화매출 1,122억원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국비 10억원당 신규고용 창출은 '20년 6.2명에서 '21년 7.1명으로, 국비 10억원당 사업화매출액은 '20년 2.1억원에서 '21년 9.3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사업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었다.

표 II-4-3-13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성과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2020년	2021년
예 산	1,050	1,203
순신규고용 (10억원당 성과)	652 (6.2)	849.1 (7.1)
사업화매출액 (10억원당 성과)	224 (2.1)	1,122 (9.3)

* 순신규고용 : 동 사업 지원을 통해 창출된 신규고용 실적에 사업 기여율을 반영하여 산정

* 사업화매출액 : 개발기술이 적용된 신제품 매출액에 사업 기여율을 반영하여 산정

선행사업(지역특화산업육성(R&D)) 성과를 바탕으로, 내역사업별 지원대상에 따라 고용목표를 차별화하고 이를 달성하였다.

표 II-4-3-14 | 지역특화산업육성+(R&D)사업 순신규고용효과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예산	순신규고용 실적
2020년	지역주력산업육성*	79,246	462.5
	지역스타기업육성**	25,810	189.5
2021년	지역주력산업육성*	87,862	613.5
	지역스타기업육성**	32,450	235.6

* 선행사업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17년 고용창출계수는 국비 10억원당 7.1명 수준으로 후속사업은 산행사업 고용계수 대비 연평균 5% 고용계수를 증가시키는 목표치를 설정

** 선행사업 매출 100~400억원 이하 기업의 고용창출계수는 '국비 10억원당 7.93명'으로 지역스타기업은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임을 감안, 연평균 10% 고용계수를 증가시키는 목표계수 적용

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은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 및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비수도권 48개 주력산업 분야 지역기업에 기술지도, 사업화(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지원, 마케팅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전략을 구체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1년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 뉴딜과 관련된 산업, 규제특구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산업으로 개편하였다.

'18년부터는 지자체 주도로 성장성이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스타기업'을 선정, 전담 PM매칭을 통한 성장전략 수립, R&D 과제 기획, 기술지원 등 글로벌강소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중소기업간 동반성장으로 지역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2년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선정하여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을 통해 지원 성과, 지역 보유 장비, 기업 모니터링군을 분석하는 지역별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광역 시·도 테크노파크의 기획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1년에는 TP가 보유 중인 시생산, 시험인증 장비 등을 고도화하여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술 사업화 애로 해소를 위한 장비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다.

표 II-4-3-15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내역사업별 추진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지원사항
지역특화 산업육성 (비R&D)	시도기업지원	시도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지원	▶ 과제당 5억원 이내, 기업당 3천만원 이내 ▶ 테크노파크, 대학, 출연연 등 지역혁신기관 활용
	테크노파크 생산장비고도화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노후장비 고도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장비활용 공백 보완 및 사업화 애로 해결 지원	▶ 기업 수요 기반 장비고도화 및 지역 기업의 장비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장비 코디네이터 지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	시도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데이터 기반 지역기업 통계, 연구생산장비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데이터 기반 통계관리 및 성과분석 ▶ 기술교류네트워크 운영, 지역연구장비 플랫폼 구축, 비R&D 총괄연계 등

2021년 총 219개 과제에 868억원을 투입 3,427개사를 지원하여 순신규고용 14,11명, 사업화매출액 886억원을 창출하였다.

표 II-4-3-16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성과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예 산	865	963	868
순신규고용	1,279	1,521	1,411
사업화매출액	814	860	886

4 지역특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지역특구과 주 병 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 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제도를 '04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역특구는 직접적인 재정·세제지원 없이 규제특례를 통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 부처의 특구제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가. 지역특구 지정절차

지역특구는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주민공청회·지방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협의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하게 된다.

표II-4-3-17 | 지역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나. 지역특구 지정 및 운영현황

지역특구제도가 2004년 도입된 이후 2021년 말을 기준으로 220개 특구가 지정되었으나, 24개가 해제·통합되어 총 195개의 지역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2차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 판교 게임 콘텐츠 특구,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 제천 의림지플 자연치유 특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 지정,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를 새로 지정하였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원활한 특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등이 계획 변경을 추진하였다.

표II-4-3-18 | 연도별 지역특구 지정현황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누계	6	41	72	96	118	132	143	150	151	155	163	172	184	194	196	197	195	195	
연도별	지정	6	35	31	25	22	14	11	8	3	5	8	11	16	12	2	2	3	5
	해제	-	-	-	1	-	-	-	1	2	1	-	2	4	2	-	1	5	5

2021년 기준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특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개 중 153개가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 전남도, 제주도는 소속된 모든 기초지자체가 특구를 운영 중이다.

표II-4-3-19 | 지역별 지역특구 지정현황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구수(개)	13	8	5	3	3	1	0	2	19	14	16	18	14	34	27	15	3

다.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활성화

지역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도 특구운영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고려하여 지역특구운영성과를 평가한다.

운영성과가 우수한 특구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포상금을 지급하여 특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및 애로·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특구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 특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188개 특구에 대하여 '20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성과가 우수한 9개 특구를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나주 배산업특구가 최우수특구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2021년 우수특구 시상식

5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 지역기업육성과 장미리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은 자동차, 조선업 등 주요산업 침체로 인해 지정된 위기지역(전북 군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의 경제회복을 위해 위기지역 기업대상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년 4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지역경제에 타격이 우려되는 군산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동년 5월 울산(동구), 경남(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목포·영암·해남)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8년 6월 위기지역 내 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18년 3개 지역(전북, 전남, 울산)의 위기대응지역 내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원기업 컨설팅 및 사업다각화지원을 수행하는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운영하였고, 이후 2019년부터 경남지역을 추가하여 총 4개 지역의 기업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별 신청·접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애로진단,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 뒤 평가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전문가 진단을 통해 도출한 사업다각화 프로그램을 지원 받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의 1대1 매칭을 통한 현장밀착형 컨설팅을 받게된다

2020년부터 동 사업은 수혜기업 대상 양질의 컨설팅 지원을 위한 컨설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동협력형 프로그램 지원 트랙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하여 지역 내 위기기업 간 공동성장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경기 침체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2021년 동 사업 추진을 통해 4개 지역에 지역별 16억원, 총 64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194개사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97개사 대상 143건의 프로그램 사업 다각화지원 결과, 지역의 순신규고용 93.7명 및 사업화 매출액 103.4억원을 창출 하여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II-4-3-20 | '21년 지원기업 수행 프로그램

지역	지원 기업수 (개)	지원프로그램(건)					소계
		시제품제작	특허/인증 지원	마케팅	디자인	기타	
전북	22	15	2	2	2	8	29
전남	26	14	12	3	4	5	38
울산	25	24	6	4	1	-	35
경남	24	17	17	3	4	-	41
합계	97	70	37	12	11	13	143

표 II-4-3-21 | '21년 사업성과

(단위 : 억원, 명)

구 분	예산	고용 (순신규고용)	사업화매출액
2021년	64	93.7	103.4

2022년에는 4개 지역 54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총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당면한 중·단기 기술애로 진단, 제품개발 지도 등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심화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특허·인증·마케팅·공정개선 등 사업다각화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고용위기지역 외에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업종 무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확대 지원하여, 경기침체 및 산업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지원을 통해 산업위기의 선제적인 대응과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5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제1절 소상공인·자영업 활력 생태계 촉진

1

소상공인 현황

- 소상공인정책과 송 승 현
- 소상공인정책과 김 해 선

2020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 수는 684만 개, 종사자 수는 946만 명, 매출액은 969조 원으로 전체 기업의 93.8%, 전체 고용의 43.8%, 전체 매출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대비 소상공인 기업 수는 40만 개(0.4%p), 종사자 수는 24만 명(0.4%p), 매출액은 14조 원(0.1%p)이 증가하였다.

표 II-5-1-1 | 연도별 소상공인 추이

(단위 : 개, 명, 억 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업	전체	6,301,013	6,643,756	6,898,958	7,295,393
	소상공인	5,875,091	6,199,980	6,445,316	6,842,959
	(비중)	(93.2)	(93.3)	(93.4)	(93.8)
종사자	전체	20,094,913	20,591,641	21,254,650	21,580,496
	소상공인	8,535,841	8,969,291	9,223,529	9,461,073
	(비중)	(42.5)	(43.6)	(43.4)	(43.8)
매출액	전체	53,233,447	54,911,068	56,295,399	56,599,655
	소상공인	8,864,085	9,210,477	9,548,951	9,688,748
	(비중)	(16.7)	(16.8)	(17.0)	(17.1)

* 자료 : 중소기업기본통계(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재편·가공)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면, 소상공인 기업 수의 비중은 한국(93.8%, 2020년)이 가장 높았으며, 영국(91.8%, 2021년), 독일(81.9%, 2019년), 미국(64.8%, 2018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 수 비중은 한국(43.8%, 2020년), 영국(27.2%, 2021년), 독일(18.2%, 2019년), 미국(5.5%, 2018년)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5-1-2 | 주요국의 소상공인 현황

구 분	기업 수천 개		종사자 수천 명	
	소상공인	비중(%)	소상공인	비중(%)
한국(2020)	6,843	93.8	9,461	43.8
미국(2018)	3,936	64.8	7,188	5.5
영국(2021)	5,131	91.8	7,341	27.2
독일(2019)	2,124	81.9	5,730	18.2

* 주1 : 한국의 소상공인 종사자 기준 적용(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기타 5인 미만)

* 주2 : 독일의 경우 'Micro-enterprise'로 명시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21 해외중소기업통계(2021년 12월)

업종별 기업 수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24.5%), 숙박 및 음식점업(11.5%), 제조업(7.5%) 순이며,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23.7%), 숙박 및 음식점업(13.0%), 제조업(12.5%) 순이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37.9%), 제조업(17.8%), 숙박 및 음식점업(8.6%)으로 소상공인 기업 수와 종사자 수에서 생활형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5-1-3 | 2020년 업종별 소상공인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매출액 현황

(단위 : 개, 명, 억 원, %)

구 분	기업 수	비 중	종사자 수	비 중	매출액	비 중
전(총) 산업	6,842,959	100.0	9,461,073	100.0	9,688,748	100.0
도·소매업	1,675,994	24.5	2,241,545	23.7	3,668,974	37.9
숙박 및 음식점업	784,621	11.5	1,234,538	13.0	835,617	8.6
제조업	513,192	7.5	1,185,919	12.5	1,723,441	17.8
기타	3,869,152	56.5	4,799,071	50.7	3,460,716	35.7

* 자료 : 중소기업기본통계(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재편·가공)

2020년 기준 소상공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기업 수의 51.4%(3,517천 개)를 차지하고,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은 23.8%,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은 10.0%,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10.1%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종사자 수로는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51.2%(4,842천 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은 24.2%, 충청권은 10.1%, 호남권은 9.8%이다.

표 II-5-1-4 | 2020년 지역별 소상공인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매출액 현황

(단위 : 개, 명, 억 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기업수	1,440,174	433,684	303,507	354,547	178,978	176,294	124,769	36,168
(비중)	(21.0)	(6.3)	(4.4)	(5.2)	(2.6)	(2.6)	(1.8)	(0.5)
종사자	1,934,983	607,184	427,525	491,124	246,680	243,269	171,490	47,237
(비중)	(20.5)	(6.4)	(4.5)	(5.2)	(2.6)	(2.6)	(1.8)	(0.5)
매출액	2,039,089	603,727	425,736	525,216	258,124	234,719	164,492	38,512
(비중)	(21.0)	(6.2)	(4.4)	(5.4)	(2.7)	(2.4)	(1.7)	(0.4)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21,961	211,240	203,779	278,066	247,728	256,386	345,037	420,479	110,162
(25.2)	(3.1)	(3.0)	(4.1)	(3.6)	(3.7)	(5.0)	(6.1)	(1.6)
2,416,253	292,030	283,883	383,608	334,851	348,908	487,203	594,916	149,929
(25.5)	(3.1)	(3.0)	(4.1)	(3.5)	(3.7)	(5.1)	(6.3)	(1.6)
2,689,382	232,721	285,464	389,077	303,274	340,833	473,625	567,710	117,048
(27.8)	(2.4)	(2.9)	(4.0)	(3.1)	(3.5)	(4.9)	(5.9)	(1.2)

* 자료 : 중소기업기본통계(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재편·가공)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21만 명으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08~2009년 경기침체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은 551만 명을 기록하였다.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도 2002년 최고 수준(27.9%)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은 20.2%를 기록하였다.

표 II-5-1-5 |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취업자수	자영업자	동기대비 증감비율				
			고용주	자영자	고용주	자영자	자영업자
2002년	22,232	6,212 (27.9)	2.3	1,614	4.3	4,598	1.7
2003년	22,222	6,066 (27.3)	-2.4	1,630	1.0	4,436	-3.5
2004년	22,682	6,161 (27.2)	1.6	1,677	2.9	4,484	1.1
2005년	22,831	6,141 (26.9)	-0.3	1,656	-1.3	4,486	0.0
2006년	23,188	6,109 (26.3)	-0.5	1,630	-1.6	4,479	-0.2
2007년	23,561	6,048 (25.7)	-1.0	1,567	-3.9	4,481	0.0
2008년	23,775	6,005 (25.3)	-0.7	1,538	-1.9	4,467	-0.3
2009년	23,688	5,749 (24.3)	-4.3	1,532	-0.4	4,217	-5.6
2010년	24,033	5,643 (23.5)	-1.8	1,515	-1.1	4,127	-2.1
2011년	24,527	5,657 (23.1)	0.2	1,526	0.7	4,132	0.1
2012년	24,955	5,768 (23.1)	2.0	1,570	2.9	4,199	1.6
2013년	25,299	5,703 (22.5)	-1.1	1,533	-2.4	4,169	-0.7
2014년	25,897	5,720 (22.1)	0.3	1,581	3.1	4,139	-0.7
2015년	26,178	5,622 (21.5)	-1.7	1,609	1.8	4,013	-3.0
2016년	26,409	5,614 (21.3)	-0.1	1,584	-1.6	4,030	0.4
2017년	26,725	5,682 (21.3)	1.2	1,608	1.5	4,074	1.1
2018년	26,822	5,638 (21.0)	-0.8	1,651	2.7	3,987	-2.1
2019년	27,123	5,606 (20.7)	-0.6	1,538	-6.8	4,068	2.0
2020년	26,904	5,531 (20.6)	-0.8	1,372	-1.3	4,159	2.2
2021년	27,273	5,513 (20.2)	1.4	1,307	-4.7	4,206	1.1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20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21개) 중 11개 주요 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902천 개,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 2,400만 원이며 사업체당 영업 이익은 1,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창업 동기는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64.0%),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27.6%),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6.8%)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소상공인 정보 제공

- 소상공인정책과 송 승 현
- 소상공인정책과 김 해 선
- 소상공인정책과 이 청 수
- 소상공인정책과 정 재 민

가. 소상공인방송(yestv) 운영

소상공인방송(yestv)은 생계활동으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정보, 비대면 교육·경영정보, 전통시장 홍보 등 유용한 정보를 2012년 1월부터 방송(TV)과 뉴미디어(유튜브, 네이버TV 등)를 통해 상시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문 방송채널이다.

소상공인방송은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회복지분야 공익채널’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소상공인방송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필요성과 책임을 수행하는 공익방송으로서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표 II-5-1-6 | 2021~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사회복지분야 공익채널 선정결과

공익성 방송분야	채널명
사회 복지	한국직업방송(WorkTV), 소상공인방송(yestv), 다문화TV

2021년 12월말 기준 소상공인방송은 KT Olleh tv(223번), Sk Btv(271번), LG유플러스(246번) IPTV 3개사와 전국 케이블TV 89개사와 송출계약을 체결, 전체 3,458만 유료방송 가입자 중 2,225만(64.3%) 가구에 1일 24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표 II-5-1-7 | 소상공인방송 실시간방송 송출 현황

구분	회사명	송출사명	채널번호
IPTV	KT	Olleh tv	223번
	SK브로드밴드	Btv	271번
	LG유플러스	U+ tv G	246번
케이블 TV	SKB CATV (23개사)	(서울)종로중구, 서대문, 광진성동, 동대문, 도봉강북, 노원, 강서 (부산)서부산, 동남, 낙동 (대구)대구, 티씨앤대구, 대경 (인천)서해, 남동, 새롬 (경기)수원, ABC, 한빛, 기남 (충남)중부, 세종 (전북)전주	218번 외
	LG헬로비전 (23개사)	(서울)은평, 양천 (부산)해운대기장, 금정, 중부산, 중앙 (대구)대구수성, 대구동구 (인천)북인천 (경기)나라, 부천김포 (강원)영서, 강원, 영동 (충남)충남 (전북)전북 (전남)호남, 아라 (경북)신라, 영남 (경남)경남, 가야, 마산	313번 외
	딜라이브 (16개사)	(서울)중앙, 서서울, 용산, 동서울, 종량, 북부, 노원, 마포, 구로, 송파, 강동, 강남 (경기)경동, 경기동부, 경기, 우리	257번 외
	CMB (11개사)	(서울)동대문, 영등포 (대구)수성, 대구동부 (광주)광주동부, 광주 (전남)광주전남 (대전)대전, 동대전, 충청, 세종	168번 외
	HCN (8개사)	(서울)동작, 관악, 서초 (부산)부산 (대구)금호 (충북)충북 (경북)경북, 새로넷	426번 외
	개별SO (8개사)	(광주)한국케이블TV광주, (울산)제이씨엔울산중앙, (충북)씨씨에스충북, (전북)금강, (경남)서경, (제주)KCTV제주, (대구)한국케이블TV 푸른, (인천)남인천	각기 다름

(주)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21년도 소상공인방송을 시청한 케이블TV 가구는 1일 평균 78,543가구로 2012년 방송 송출을 시작한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II-5-1-8 | 소상공인방송 연도별 케이블TV 일평균 시청 가구수 추이

(단위 : 가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케이블	720	7,615	30,466	29,534	22,075	18,022	46,361	43,921	51,532	78,543

소상공인방송은 중소·벤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대변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및 이슈사항 등을 전달하는 ‘yesTV뉴스’ 프로그램과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진출 교육·컨설팅·판로확대·홍보지원 등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였다.

표 II-5-1-9 | 2021년 소상공인방송 신규 제작 프로그램

(단위 : 편)

분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편수
소상공인	yesTV 뉴스	소상공인·전통시장, 중소·창업·벤처기업의 지원정책 및 이슈사항을 뉴스로 전달	248
	소상공인 솔루션 위원회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세금, 법률정보 등을 콩트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	5
	함께의 가치 공유하췌어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에 참여한 소상공인 12곳 업체의 솔루션 과정을 소개	12
	이 시국에 사장이 되다	코로나 시국, 열정과 도전으로 사장이 된 소상공인 4인방의 스마트한 변신을 소개	1
	어멈유통	소상공인 전문 마케팅·유통회사의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슷폼 드라마로 제작하여 제품 홍보	9
	오늘부터 일촌	연예인들이 1박 2일을 보내며 소상공인 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경험하는 모습을 관찰예능으로 소개	10
전통시장	휴먼다큐 시장 사람들	오랫동안 전통시장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시장 상인들의 인생을 진솔하게 묘사, 훈훈한 감동을 전달	100
	슬기로운 상인생활	온라인진출, 인식개선, 역량 강화, 방역·안전 등 상인들의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20
	다같이 돌아 시장 한바퀴시즌3	국내 전통시장의 넉넉한 인심과 다양한 특색, 볼거리, 먹거리로 즐거운 전통시장 소개	100
	전통시장에 가치삽시다	유튜버와 함께 시장과 청년몰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소개	10
	상인열전	전통시장 이색 명물, 시장에서 평생을 함께한 부창부수 등 전국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소개	200
	시장은 내 친구	전통시장의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제공 등 친근한 전통시장의 이미지 전달	115

방송프로그램 외에도 정책정보, 지원사업 등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영상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소상공인방송과 온라인 매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상시 제공하고 있다.

표 II-5-1-10 | 2021년 영상 카드뉴스 주요 이미지



2)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 '21년 소상공인지원인프라-소상공인빅데이터플랫폼 사업으로 통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과정의 어려운 일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입지선정이 54.9점, 업종선택이 40.3점으로 관련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수집·분석이 어려운 상권정보를 16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상권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상권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특정지역·업종에 대한 11종의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분석서비스, 특정 점포의 개·폐업 이력을 알려주는 점포이력서비스와 같은 현황정보와 특정위치·업종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 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정보를 알려주는 수익분석서비스와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경쟁분석 서비스 등의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 상권정보시스템 주요서비스



창업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권정보·서비스를 개발함에 따라 2006년 7월 개시 당시 월평균 10,185건에 불과하던 이용실적이 2020년 161만 건, 2021년 234만 건으로 최근 5년간 평균 21.7% 상승하였다.

표 II-5-1-11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용실적 (월평균)	1,090,586 (90,882)	1,253,588 (104,465)	1,400,103 (116,675)	1,605,559 (133,797)	2,340,698 (195,058)
증가율	21.5%	14.9%	11.6%	14.7%	45.8%

* 이용건수 증가율 : (당해건수-전년건수)/전년건수×100

또한 민·관간 공유정보 확대 및 상가업소 조사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노력을 통해 상권정보시스템 2021년 이용자의 만족도(5단계척도, '만족'이상)는 89.7%로 대다수의 이용자가 만족을 나타냈다.

표 II-5-1-12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용자 만족도	88.7%	89.1%	89.3%	89.5%	89.7%

2021년에는 사용자 편리성을 위해 자동으로 상권분석 보고서를 전송하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 상권 영역 설정기능을 추가하는 등 분석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공유·수집된 약 220만 건의 상가업소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도에 기여하였다.

2022년도에는 국세청 등 데이터 통합에 용이한 DB구조 재설계, 경쟁업소 현황 및 비교 분석 가능한 시각화 기능 마련, 통계 제공 강화 등 소상공인이 상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3)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별 맞춤형 정책 및 창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2007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증기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간편 로그인 기능, 정보 취약계층의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각, 이동성, 인지 등 관련 시스템 기능 등을 개선하였다.

지속적인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통해 이용실적은 2018년 202만 건, 2019년 268만 건, 2020년 668만 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 71.43% 상승하였으며,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정부 정책지원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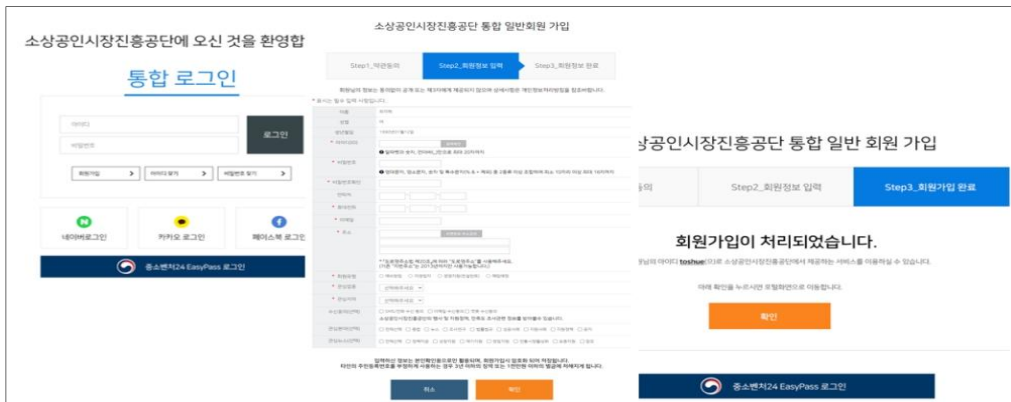
표 II-5-1-13 |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단위 :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용실적	1,370,830	1,456,596	1,524,882	2,016,641	2,682,880	6,682,630

2021년도에는 소상공인마당 회원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소상공인마당 이용자의 중요 개인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림 18 | 소상공인마당 로그인 및 회원가입 화면



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 분야 등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실습,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촉진하고 생태계 내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강원, 경북, 제주 등 전국 15개 광역시·도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교육생을 선발하여 지역별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등에서 150시간 내외의 창업교육을 제공하며, 창업교육 이수 후에는 15개 지역의 18개 체험점포에서 약 3개월간 사업모델 검증 및 고객 응대, 재고 관리, 서비스·마케팅, 홍보 역량 함양 등 실전 창업과 같은 점포경영 실습교육과 분야별 전담 멘토링을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한 이래 2015~2021년간 총 2,621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였고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2021년 12월말 기준 1,94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소상공인창업자금 융자(1억 원 한도)를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교육과 점포체험교육을 이수한 우수 교육생을 별도 심사·선발하여 사업화 보조금을 최대 2천만원 한도(개인부담 50%)로 지원한다.

표 II-5-1-14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국 체험점포 현황('21.12월 기준)

점 포 명		주 소
서울	대학로점	종로구 대학로 149, 유니로드 1층
	종량점	종량구 숙선옹주로 6-9, 묵동자이아파트상가
	명동점	중구 퇴계로 108, 세대빌딩 1층
	드림스퀘어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부산	범일점	동구 자성로133번길 10, 천일빌딩 1~2층
대구	범어점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6, 범어골드타워 1층
	두류점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4, 두류동빌딩 1층
광주	상무지구 1호점	서구 상무중앙로 84, 상무트윈스빌딩 1층
	상무지구 2호점	서구 상무중앙로 24, 엠씨타워 1층
경기	신동점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66, 더판타지움 1층
대전	둔산 1호점	서구 둔산로 59, 아이빌딩 1층
	유성점	유성구 대학교 88, 공동482-2

점 포 명		주 소
인천	부평점	부평구 부평대로 293, 121~125.127~131호
전북	전주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9-5
경남	창원점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1. 1층(117호,122호)
울산	울산점	북구 진장유통로 9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층
전남	순천점	전남 순천시 역전장길 14 2~3층
충북	청주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62번지 1층
강원	홍천점(구축중)	강원 홍천군·읍 희망리 393번지 지하 1층, 2층 일부
경북	안동점(구축중)	경북 안동시 번영길 42-2, 1층~3층
제주	제주점(구축중)	제주시 연삼로 473번지 지하 1층, 1층 일부

다.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방안으로 2018년부터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선정하여 성실실패시 상환의무가 부분 면제되는 정책자금을 최대 2천만원(용자) 지원하고 있다.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발굴·멘토링하고, 성공불용자(최대 2천만 원) 지원 후, 성실 경영 실패시 부분 상환면제로 예비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창업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은 2018년 4,188명을 선정하여 3,657명에게 용자금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1,646명을 선정 1,356명에게 용자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889명 선정, 737명 지원, 2021년에는 775명을 선정하여 664명에게 용자를 지원하였다.

라.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을 운영하고 있다.

PC 외 스마트폰 사용 증가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2018년부터는 플랫폼 기능 개선에 착수하여 2019년 개편된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시·운영하였고, 2021년에는 양방향 학습서비스 구축, 학습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21년에는 신규 890개 과정을 포함하여 1,297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24,97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평균 93.8%의 만족도를 달성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소상공인 경영교육과 통합되어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으로 운영된다.

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자금 애로 해소는 모든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99년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업체당 7,000만원(일부자금 10억 원)까지 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스마트소상공인자금으로 구분된다. 성장기반자금은 제조기반 기술의 경쟁력 강화,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제고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2021년에는 8,573개 업체에 4,459억 원을 지원하였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창업초기, 사업전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조성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자금으로 81,379개 업체에 12,152억 원을 지원하였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감염병 및 사회적이슈, 자연재해 등 갑작스런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영업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2021년부터 경영안정자금에서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용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중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인원·시설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459개 업체에 17,564억 원, 장애인·청년·사회적경제기업과 재해피해기업 등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11,676개 업체에 3,141억 원 등 총 136,135개 업체에 20,705억 원을 지원하였다.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은 혁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고, 스마트기술 도입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온라인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1년부터 성장기반자금에서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용하였다.

백년가계·백년소공인 등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지정된 139개 업체에 94억 원,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 기술장비, 온라인쇼핑몰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소상공인 406개 업체에 200억 원 등 총 545개 업체에 294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II-5-1-15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사,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지원업체	44,233	48,341	64,497	57,625	58,462	186,215	226,632	686,005
지원금액	14,939	17,550	22,450	20,575	22,045	45,500	37,610	180,669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업체 대상 조사결과²⁹⁾,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매출액 증가점포 비율은 55.3%, 고용증가율은('19년 대비 '20년) 8.8%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신규 고용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소상공인 보증 지원

1)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현황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별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2021년 한 해 동안 국내경제 안정화를 위해 24조 6,341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전체 보증공급의 95.3%인 23조 4,86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였다.

29) 2021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분석, (주)아테나컴퍼니, 2022.2.

표 II-5-1-16 |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 보증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총보증	소상공인보증	비중(%)	총보증	소상공인보증	비중(%)
업체수	1,102,797	1,088,273	98.7	1,000,959	988,090	98.7
금 액	285,069	274,735	96.4	246,341	234,860	95.3

보증공급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총 보증공급 24조 6,341억 원 중 도소매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7조 3,038억 원으로 29.6%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소상공인 주요 업종인 음식숙박업(22.8%), 서비스업(20.9%) 순으로 지원되었다.

표 II-5-1-17 |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계
보증공급	업체수	78,549 (7.8%)	223,343 (22.3%)	242,943 (24.3%)	294,166 (29.4%)	161,958 (16.2%)	1,000,959 (100%)
	금 액	27,723 (11.3%)	51,369 (20.9%)	56,155 (22.8%)	73,038 (29.6%)	38,056 (15.4%)	246,341 (100%)
보증잔액	업체수	142,660 (7.4%)	433,730 (22.4%)	495,044 (25.5%)	568,920 (29.3%)	299,007 (15.4%)	1,939,361 (100%)
	금 액	42,530 (9.9%)	91,397 (21.2%)	107,074 (24.9%)	129,102 (30.0%)	60,666 (14.1%)	430,769 (100%)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보증금액별 보증공급 금액은 3천만원 이하 보증금액이 전체의 7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16.8%), 1억원 이하(7.5%), 1억원 초과(4.5%) 순으로 지원되어, 작년 대비 3천만원 이하 소액보증 비중과 1억원 초과보증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표 II-5-1-18 | 금액별 보증공급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계
2020년	금 액	196,489	56,567	24,096	7,917	285,069
	비 중	68.9%	19.8%	8.5%	2.8%	100%
2021년	금 액	175,382	41,412	18,475	11,072	246,341
	비 중	71.2%	16.8%	7.5%	4.5%	100%

2) 주요 특례보증 제도

항 목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신규)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신규)
주요 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및 신용하락으로 금융애로를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육성 도모
대상 기업	사업자등록 후 가동중으로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이며,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수급한 기업	스마트 기술을 이용중이거나 보유중인 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 고용유지 또는 고용창출 기업
시행 시기	2021년 8월	2021년 4월
지원 한도	최대 2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최대 1억원 이내 운전자금
공급 실적	13,454건, 2,273억원 (2021년말 누계 기준)	14,566건, 3,864억원 (2021년말 누계 기준)

항 목	브릿지 보증(신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주요 내용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해 분할상환 보증지원으로 연착륙 도모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을 지원
대상 기업	지역신보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이고 보증만기가 1개월 이내 도래하였으나,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인 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자활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의한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행 시기	2021년 7월	2018년 2월
지원 한도	전차보증의 여신(대출)잔액 이내	4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공급 실적	1,491건, 277억원 (2021년말 누계 기준)	1,373건, 657억원 (2021년말 누계 기준)

3)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정부정책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지원

중앙회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경영애로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21년 총 24조 6,341억원을 공급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화 등 변화한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비대면 보증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정부·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보증대상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증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첫째, 지역신보 사업자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한 사업자를 위해 법적근거(시행령 개정) 마련 후 「브릿지 보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기존 보증을 유지하여 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감소하고 기존 대출금의 정상상환을 유도하여 재기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신용 하락으로 금융애로를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하였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료 지원(1년차 면제, 2~5년차 0.2% 감면)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증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 운영하였다.

셋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Untact) 시대에 대응하고자, 보증 전 과정을 지역신보와 은행 방문 없이 앱(App)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온(溫, ON)택트 특례보증」을 시행하였다. 모바일 기준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으로 고객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넷째, 이외에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화 등 변화한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자를 위한 5천억원 규모의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국내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부에서 선정한 「수출 두드림 기업」을 포함한 「수출유망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였다. 또한, 주 52시간 준수 유도를 위한 「주52시간제 의무화 준수 기업 우대보증」 및 창업 초기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한 「예비창업자 보증」을 시행하여 금융 접근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4) 시스템 혁신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금융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고객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가) 비대면보증 시스템 개발을 통한 보증방식 혁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비대면(Untact) 문화에 대응하고,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히 대규모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자동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금융회사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하고 자동으로 즉시 보증심사가 가능하여 빠르면 신청 당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객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나) 위탁보증 무방문·비대면 기한연장시스템 구축

'20년 대규모로 지원한 위탁보증의 보증만기가 '21년 도래함에 따라 고객의 편의 및 지역신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한연장 업무위탁처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수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상호간 협약체결 및 업무위탁 처리방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지역신보 방문 없이 은행 앱(App)을 통해 보증 및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다.

다)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통한 고객 금융부담 완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21년 2차례 실시하였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보증부대출에 대하여도 추가로 만기연장 방안을 추진하여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라)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 도입

지역신보 주 보증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 고객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지역신보 사회적가치 평가체계”를 도입하였다. 기업철학, 사회적 가치 지향 등 3개 영역 7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체계 도입으로 일정점수 이상 득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상향 등 보증우대조건을 적용할 수 있어 충분하고 신속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 가능해졌다.

마) 고객 제출서류 최소화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확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서류 준비 부담완화 및 서류 위변조 원천 차단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추진하였다. 신규 행정정보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이용사무 적정성 및 공동이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8종을 최종 확정하였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이 38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되어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5) 재보증제도의 정책기능 강화

중앙회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및 재기지원 등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중점지원사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하였으며, 특례보증의 재보증비율을 상향(50%→60%)하여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를 유도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공동 재기지원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1,423개 업체(98억원)에 대한 원금 및 손해금 감면을 추진하였고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보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보증한도를 적기 배정하여 재단의 연간 보증공급목표 달성에 기여하였고, 시대상황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재보증제한업종 완화 및 폐업한 사업자를 위한 브릿지보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단의 보증업무를 적극 지원하였다.

제2절 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재기지원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 지원

-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이 호 중
-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윤 흥 민
-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백 천 일
 - 소상공인정책과 이 제 흥
 - 소상공인정책과 최 우 혁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김 태 우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이 경 규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김 지 은

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1) 손실보상 본지급

손실보상 관련 법률의 시행일인 2021년 10월 8일과 26일에는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안) 및 지급계획(안) 등을 의결 하였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그림 19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현장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심의 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그간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아울러,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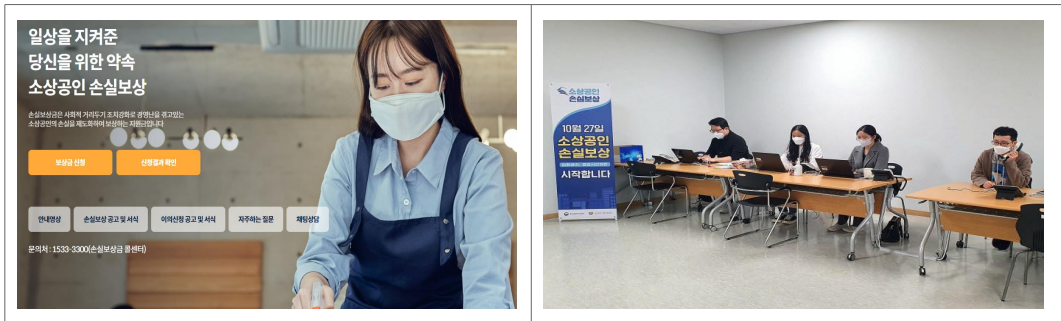
표 II-5-2-1 | 손실보상 대상시설(‘21년 3분기 기준)

방역조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집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홀덤펍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마트·백화점(300m² 이상) ■ PC방 ■ 카지노 ■ 이·미용업(‘21.7.7일~8.8일만 해당)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아울러,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규정하였다.

그림 20 | 손실보상 온·오프라인 접수창구 운영('21.10월~)



IT취약계층 등 특수한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손쉽게 제도를 안내받고, 보상금 신청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 규모로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하였다. 2021년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하였다. 특히,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 전담TF도 구성 및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문 상담인력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를 10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채팅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하였으며, 6일 만에 1조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정도로 신속히 처리하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빠르게 덜어주었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미리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효하였다.

이로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0.9만개사에 대하여 1.82조원의 지급을 완료했다. 특히 정부가 사전에 산정한 보상금에 높은 수용률을 보임에 따라, 향후에도 신속보상 제도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요긴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분기에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 세계 최초로 국가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기반하여 실제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가안전망에 대한 소상공인의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향후 국가로부터 관련 손실에 대한 ‘맞춤형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제공한 것이다.

표 II-5-2-3 | 손실보상 수혜사례

		〈 카페·주점(서울시 종로구) 〉		
		업장유형(소재지)	방역조치 유형	금액
사 례 ①		카페주점(서울시 종로구)	영업시간제한	3,377만원
	○ 인터뷰 내용 : 임대료가 600만원 수준으로 고정지출 비용이 큰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을 통해 어떠한 임차료 할인도 받지 못해 힘든 점이 많았음. 그런 상황 속에서, 손실보상금을 통해 밀린 임차료 등 적자를 보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또한, 기존의 피해지원금 성격보다 손실보상 형태로 지원을 받는 것이 더 두터운 지원이 되었음			
		〈 음식점(대구시 달서구) 〉		
		업장유형(소재지)	방역조치 유형	금액
사 례 ②		음식점(대구시 달서구)	영업시간제한	1,452만원
	○ 인터뷰 내용 :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로 금융권 대출 원리금 및 임대료 등이 큰 부담이 되었으나 손실보상금 수혜로 비용 보전에 큰 보탬이 됨			

2)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성과에도 오미크로 변이 발생, 확진자 급증 등에 따른 연말연시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증하였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2020년 12월 18일부터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했다.

아울러,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1시까지로 제한하였다. 아울러,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상공인법’ 개정안(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이 2021년 12월 22일에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논의의 결과로, 소상공인이 보다 신속히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021년 12월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이다.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21.4분기분 250만원 + 22.1분기분 250만원)으로 총 1.4조원의 규모로 추진하며,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신속하게 대출을 한 뒤 향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정산을 한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020년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상륙하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두로 한 방역조치가 시행되었다.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졌다.

권칠승 장관은 2021년 2월 17일 취임 이후 중소기업계와의 첫 만남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6.2조원(새희망자금 2.8조원, 버팀목자금 4.3조원, 버팀목자금플러스 4.9조원, 희망회복자금 4.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다.

그림 21 | 재난지원금 온라인신청 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관건이었다. 수백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기획재정부(‘보조금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의 유권해석을 얻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 사전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선별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급은행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펌뱅킹(금융자동화시스템)을 활용, 신청 당일 또는 익일 지급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 및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 70곳을 활용해 방문 접수도 병행하였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 절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문의에 답변하기 위해 서울, 대전, 대구 등 콜센터에서 최대 1,000명의 전문상담인력이 대응하였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메인화면에 채팅상담을 개설, 실시간 채팅상담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22 | 재난지원금 콜센터 방문 및 간담회(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2021년 11월 백신접종률 제고, 확진자 감소, 치명률 저하 등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인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라 확진자 급증, 병상부족, 위중증 및 사망자 확대, 치명률 악화 등 방역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방역당국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성고를 제고하기 위해 방역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노래연습장, 경정·경마·경륜장)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서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장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하였다.

방역패스의 도입으로 인해 백신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청소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매출에 타격을 입었으며, 무인으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 등 방역비용의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으로 방역패스 인식 단말기를 비롯한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구입시 최대 1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설하였다.

방역패스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방역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방역당국은 결국 2021년 12월 18일 단계적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을 선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은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도중에 급작스럽게 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연말연시의 특수를 기대하던 소상공인의 기대와 바람은 물거품이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에 대해 지원을 하기 위해 3.2조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긴급하게 편성·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말연시 대목을 놓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등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버팀목 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급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감소 등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속하게 지급하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존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활용했던 시스템을 일부 개선·고도화하여 방역지원금 지급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방역지원금은 정책결정 10일만에 1차로 지급을 개시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가 적용되는 외중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정책 적시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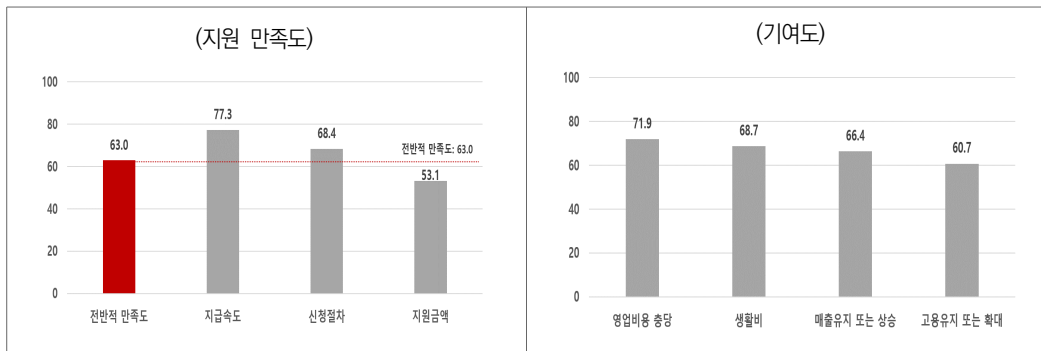
표 II-5-2-4 | 소상공인·중소기업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구분	지원대상 (만 명)	예산 (조 원)	유형별 지원금액			
			집합금지 (만 원)	영업제한 (만 원)	경영위기업종 (만 원)	일반업종 (만 원)
새희망자금 (‘20.9월~’21.3월)	251	2.8	200	150	100 * 경영위기업종 없음	
버팀목자금 (‘21.1월~’21.7월)	301	4.3	300	200		
버팀목자금플러스 (‘21.3월~’21.8월)	291	4.9	500-400	300	300-250-200	100
희망회복자금 (‘21.8월~’21.12월)	190 (진행 중)	4.2	2,000~300 (8개 구간)	900~200 (8개 구간)	400~40 (16개 구간)	-
방역지원금 (‘21.12월~)	320	3.2	100			
업체당 최대 지원금	-	-	3,100	1,650	1000	400

위와 같이 회차가 거듭될수록 지원책을 보완해 신청 및 지급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지원금액을 확대하였다. 특히, 매출감소 판단기준의 경우, 3개(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8개(희망회복자금)로 세분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바 있다. 또한 임차료, 인건비 등 실질적인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였다.

2020년 9월 24일 새희망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매출은 이전 4주 81.8%에서 이후 4주 86.4%로 개선됐다. 2021년 1월 29일 새희망자금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급속도가 최고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셜 빅데이터에 따르면 새희망자금에 대해 ‘희망’, ‘해결’, ‘도움’, ‘감사’ 등 긍정적인 인식이 88%에 달했다.

표 II-5-2-5 | 새희망자금(2차) 만족도 및 기여도



한편, 비자발적 상황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힘썼다. 일례로 전통시장 화재로 인해 매출액이 없었던 시장상인들이 대거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일이 있었다. 2017년 대형 화재 발생으로 3년간의 시장 재건을 마치고 2020년 하반기에 재개장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우 2019년 매출액이 없고 2020년 하반기 매출이 일부 발생하여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특성상 코로나19가 없던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전통시장 상인들은 2019년 시장 재건으로 인해 매출액이 없었던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이러한 비자발적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플러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기준의 특례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해당 시장상인의 69개 소상공인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

재기지원 및 생업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한 경 아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김 마 성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유 환 규

폐업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재기를 위해 폐업(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업종전환·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5.8만여건을 지원했다.

그림 23 | 지원 내용

폐업 지원	취업 지원	업종전환·재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정리컨설팅) 일반, 세무, 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 (법률자문)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신용, 노무, 세무 등에 관한 법률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마인드 변화, 직무탐색 등 지원 ▪ (전직장려수당) 폐업신고 후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 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실무교육 ▪ (멘토링) 마케팅, 경영, 세무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 성공률 제고 ▪ (사업화)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

폐업 절차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 일반, 세무, 부동산 분야에 대한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원상복구 소요비용(최대 200만원, 부가세 제외)을 지원하였다. 또한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 금융,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취업을 위한 마인드 변화, 직업 정보 탐색 등 교육 지원,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커피 트렌드, 매장실습, 고객 서비스, 위생관리 등 40대 이상 소상공인의 카페 취·재창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다.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재창업하는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및 재창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경영, 마케팅, 세무, 창업 등과 관련한 실무교육,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특화 아이템 개발, 마케팅, 사업방식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시행(2007년 9월)되었고, 2021년 말 기준 공제가입자는 220.4만 명(재적가입자는 154.2만 명), 재적부금은 18조788억 원(누적부금 23조 83억 원)이 조성되었다.

폐업,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부상에 의한 퇴임,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 경과한 만 6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에게는 공제 계약대출(납입 부금의 90% 범위 내), 소득공제(연 500만원 한도), 가입 후 2년간 상해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월부금의 150배까지),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로 소득공제 한도는 2017년부터 기존의 연 300만 원에서 최대 연 5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가입자의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연 200~500만 원)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세제지원 상의 소득 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공제의 가입유치 대행이 가능해진 2010년 이후부터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1년 말에는 공제제도 출범 15년 만에 누적가입자 220만 명 달성으로 2022년까지 목표치(160만명 가입)를 초과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향후에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7년 국정과제(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확충)에 반영되어 2018년에 신규 도입된 사업이다.

2019년에는 지원 대상을 기준보수 1~2등급 에서 1~4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확대하였다(2년→3년). 2020년도에는 기존 분기별 지원금 지급방식을 월별 지급으로 변경하여 수혜자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2021년에는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지원 및 지원기간의 확대(3년→5년) 등 지원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자부담 비율의 경감 등 지원 강화로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였다.

제3절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

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백 승 표
-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오 상 옥
- 지역상권과 임 상 철

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지원 도입

ICT 발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와 유통 추세가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변화 되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을 고려하여 역량강화, 채널별 입점지원, 온라인 진출 기반마련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온라인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환경이 생소한 소상공인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2020년에는 전문가를 소상공인과 매칭하여 온라인몰 입점부터 홍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셀러 사업도 신설·운영했다.

아울러, TV홈쇼핑·온라인몰·라이브커머스 등 상품특성에 적합한 채널별 입점 지원으로 상품 판매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오프라인 점포의 온라인 거래 확장을 위해 O2O플랫폼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배달수수료 등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온라인 진출 교육용 강의장 등을 구비한 시설을 구축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했다.

특히, 2021년에는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정기결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21.8)’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손쉽게 구독경제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4개 모델*을 제시했다. 이후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민간 제휴몰 등에 소상공인 구독경제관을 시범운영(4개, ’21.9~)했다.

* 4개 모델 : 밀키트 구독경제, 가치소비, 골목상권 선결제, 소상공인 직접운영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체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반면, 동 사업 참여 소상공인은 매출이 21.1%**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체당 평균 매출(백만원, 중기부) : ('19) 235 → ('20) 224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21.12월)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실태조사 (중소기업 유통센터, '21.3월)

나.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코로나19, ICT 기술 발달 등으로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가 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하여 상가 내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AI, IoT, VR·AR 등)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스마트기술 보급확산의 거점으로 시범상가 113곳을 선정하고, 업종 특성을 반영한 표준모델 구축을 위해 협·단체 5곳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 점포 약 1.3만개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였고, 스마트기술 활용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소상공인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스마트상점 모델도 제시하였다.

한편,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제조 환경에 소공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IoT, AI 등) 접목으로 부분 자동화 등 공정의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소공인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소공인 82개사, 2021년에는 599개사를 지원하여 공정 개선 등 역량 수준 향상, 부분 자동화에 따른 작업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2027년까지 17,000개를 목표로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공인에 대한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부가가치 창출 제고로 제조업 소공인의 자생력과 성장기반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소상공인 성장 지원

- 소상공인정책과 이 청 수
- 소상공인정책과 이 철 한
 - 지역상권과 손 민 국

가.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업종별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 교육 등 실습위주의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비대면 교육 수요에 맞추어 실시간·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고 업종·대상별 교육으로 커리큘럼을 확장 운영하였다.

소상공인 경영교육 프로그램 중 전문기술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사전에 소상공인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민간 교육훈련 기관에서 각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교육 바우처의 경우 1인 당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의 90% 한도로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별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소상공인에게 교육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 서울, 광주, 대전, 부산, 대구 등 5개 지역에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운영하였다. 이 곳은 소상공인 관련 교육행사 등에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직장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도 진행되었다.

2021년에는 전문기술교육 14,266명, 경영개선교육 2,925명, 전용교육장 2,075명 등 총 19,26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온라인 실시간교육의 누적 조회수('21.12월 말 기준)는 158,757회에 이른다.

나. 소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경영 애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홍보, 경영관리, 상품 및 메뉴개발, 세무·노무·특허 등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2021년도 사업은 전문가의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5,311건과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매출액 2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물품 대금, 상가보증금 및 상가 임대차 등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구조 313건을 지원하였다.

표 II-5-3-1 |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 예산	81.8	79.8	80.0
소상공인 컨설팅	5,204	5,302	5,311
무료법률구조	401	440	313
역량 점프업 프로그램	50	-	-
합 계	5,655	5,742	5,624

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모여 협업하는 협동조합 모델이 일자리·지역균형발전·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개별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개발, 생산, 판매, 공유 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화·협업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9년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요내용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조합원)의 매출 및 수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간 자율적인 조직화 및 협업을 유도한 후, 공동의 이익 추구가 기반인 사업인프라의 구축 및 협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과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통해 협업 및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협업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한다.

지난 9년(2013년~2021년) 간 총 1,708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수혜를 받았다. 2021년에는 공동브랜드·네트워크·마케팅·개발 등 공동사업 지원(208개)과 소셜 커머스 입점, 지역판매전 개최 등 판로지원(424개)을 하였다.

아울러,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안정적 설립, 조합원 간 유대 강화, 조합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11개 지역을 거점으로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협동조합 성장에 필요한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II-5-3-2 | 연도별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추진현황

(단위 : 억원, 개, %)

구 분	예산	실적(4,711개)		성과
		협업인프라	판로	지원조합 조합원 평균매출액
2013년	347	433	-	11.0% 증가
2014년	246	361	17	12.6% 증가
2015년	240	377	116	12.9% 증가
2016년	188	311	117	12.8% 증가
2017년	193	283	124	12.5% 증가
2018년	250	291	300	13.3% 증가
2019년	252	256	408	13.3% 증가
2020년	199	210	475	13.2% 증가
2021년	166	208	424	13.4% 증가
계	2,072	2,730	1,981	-


공동사업 지원은 브랜드개발·마케팅·장비·기술개발·네트워크(홈페이지 등) 등의 분야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1~5억 원 한도)의 70~80% 이내를 보조 및 지원 하였으며, 일반형, 선도형, 고성장형으로 조합의 성장단계별 유형을 나누고 우수 성장 모델 발굴, 규모화에 중점을 두었다.

표 II-5-3-3 |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현황(2021년도 12월말 기준)

(단위 : 개)

구분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신청	502	69	46	66	59	60	16	55	21	34	48	28
선정	226	16	28	40	29	26	5	15	13	11	20	23
지원	208	15	27	35	27	25	4	13	12	11	19	20

그림 24 | 공동사업 우수사례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 솜씨협동조합 ▪ 설립일 : '17.8.11. ▪ 지원이력 : '17, '18, '20, '21년 공동사업, '19, '20년 판로지원 ▪ 매출액 : ('20) 13.6억원 → ('21) 22억원 61.8% 증가↑ ▪ 성공요인 : 공동사업의 생산설비 자동화를 통한 원가 절감 및 생산효율화로 빠른 성장, 가정간편식 아이템 개발(밀키트) 	
-------------	--	---


조합성장의 기초가 되는 협업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협업아카데미 1곳을 추가 선정(총 11곳)하고, 협업인큐베이팅(조합설립), 협동조합 실무교육, 갈등관리, 협업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아울러,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로드맵 구축과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디지털·언택트 경제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오프라인 박람회(6회, 324개부스), 유통상담회 3회(서울, 대전, 부산), 소셜커머스(위메프) 입점(100개 조합), 라이브커머스(7회, 19개 조합) 등을 지원하였다.

판로지원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올린 매출액은 113.7억원으로 전년도 매출액(74.8억원) 대비 52%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유명크리에이터(입짧은햇님, 170만유튜버)를 활용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 관련 라이브커머스로 상품 인지도 제고 및 매출 신장을 도모하였다.

향후 규모의 경제 실현,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원활한 성장 등을 위해 협업교육, 판로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며,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화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25 | 판로지원 우수사례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 바다마을협동조합 ▪ 설립일 : '16.7.4. ▪ 매출액 : ('20) 14억원 → ('21) 20억원 42.9% 증가↑ ▪ 성공요인 : 판로지원사업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 및 신규 플랫폼 특가행사 참여, '21년 온라인판로지원사업 통해 403백만원 매출 *라이브커머스 통한 매출 87백만원 포함 	
-------------	---	---

라. 중소슈퍼 지원

먼저, 기존의 나들가게 지원사업 중심의 동네슈퍼 시설 현대화에서 더 나아가 최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슈퍼 및 경험형 스마트마켓 육성을 수행하였다.

먼저, 2020년에는 스마트슈퍼의 시범사업으로,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스마트화를 추진하여 시범점포 5개를 구축하였다. 유·무인 병행운영이 가능한 모델로써, 매출 증가(전년 동기 대비 일평균 매출 23.0% 증가) 및 노동시간 감소(일평균 2.4시간 단축)라는 지원성과를 통해 소상공인 삶의 질 향상을 이뤘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47개의 지자체와 사업비를 매칭하여 지역별 스마트슈퍼 공동 사업지원을 통해 124개의 스마트슈퍼 전환을 지원하였다. 무인계산대, CCTV, 보안기술 등 무인운영이 가능한 스마트기술·장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지역슈퍼연합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동네슈퍼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업종별·지역별로 차별화된 점포 구축을 지원하는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하였다. 전국 226개의 점포를 구축하였고 스마트기술을 바탕으로 특색에 맞는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II-5-3-4 | 지역별 스마트슈퍼 및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현황

지역	스마트슈퍼	경험형 스마트마켓
서울	29	51
부산	4	11
대구	2	11
인천	1	4
광주	-	13
대전	14	9
울산	1	2
세종	-	14
경기도	24	42
강원도	5	5
충청북도	5	13
충청남도	7	6
전라북도	14	6
전라남도	2	11
경상북도	2	15
경상남도	12	10
제주도	2	3
합계	124	226

점포당 2회 이상의 컨설팅 지원, 점포별 1:1 전담 매니저 매칭 등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현장관리·감독과 민원사항에 대한 맞춤형 대응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했다.

또한, 소매점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단체 중심의 공동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2021년에는 중소기업물류센터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여 권역 물류센터 간 우수상품을 전국단위로 유통시키는 ‘거점물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공산품 위주의 유통 품목에서 벗어나, 지역상품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공동구매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국 연합체 주도하에 총 6개 품목을 선정하여 총 21개 조합³⁰⁾이 운영하는 물류센터를 거쳐 중소기업으로 유통시켰다. 특히 21개 조합 중 16개 조합은 기존에 농산물(신선식품)을 취급하지 않았던 곳으로,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취급상품 확대 및 상품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지역별 거점물류센터 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는 지역별로 물류센터를 선정하여 상품 발굴 및 홍보, 공동구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에는 동네단위에서 소상공인 상품이 자생적으로 유통·소비되어 소상공인 중심의 유통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 사업’을 시범 추진하였다. 로컬상품 판매 및 경험형 소비가 가능한 모델숍 9개소를 구축하였으며, 모델숍 내 로컬상품 취급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생산자 교육 및 모델숍 큐레이팅, PB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모델숍과 생산자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추진하였다.

표 II-5-3-5 | 연도별 중소기업 협업화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동네슈퍼 체인화	-	-	578(4)	1,997(11)	1,889(12)	1,168(7)	-	5,632(34)
배송체계 구축	2,040(11)	2,640(16)	1,872(10)	943(10)	776(9)	355(4)	-	8,626(60)
유통채널 구축	-	-	-	-	-	-	1,000(1)	1,000(1)
거점물류 활성화	-	-	-	-	-	-	50(21)	50(21)

30) 서울남서부, 부산동부, 부산북부, 대구동부, 대구중서부, 인천광역시, 경기남부, 경기동부,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고양시, 경북문경, 포항시, 전북전주, 전북정읍, 전남서부, 충북청주, 충남천안, 충북충주, 제주도

마.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프랜차이즈는 개별기업들의 조직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다. 개별 소상공인의 조직화 등 자생력 제고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2009년 9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도입,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체계 구축 및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본격 실시하면서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음식업, 숙박업 등 일부 생계형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과당경쟁 및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직화로 자원제약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성공창업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성장 단계별 지원, 가맹점주 특화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하거나, 가맹점만 20개 이상을 운영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역량, 가맹점 지원역량, 가맹계약 공정성 등 가맹본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가맹본부 특성, 계약특성, 가맹점지원, 관계, 시스템성과 등 5개 범주를 평가한다. 이는 가맹점 보호 중심의 평가체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파트너십으로 공생 발전을 지향하는 평가 제도이다. 평가 점수에 따라 가맹본부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예비창업자에게 가맹본부 선택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표 II-5-3-6 | 수준평가 연계지원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평가결과 지도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지도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I ~ II등급에 대하여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 및 엠블럼 수여
브랜드 재정비 지원	체계구축 컨설팅(브랜드 전략 수립 및 시스템 구축) 등 지원
가맹점주 교육	브랜드별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시행
홍보 지원	소상공인 방송(yestv) 광고, 박람회 개최시 부스를 운영하여 우수프랜차이즈 홍보, 명예의전당 운영

수준평가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389개 업체를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하였고 2021년에는 33개 브랜드에 대한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21개 업체를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하였다.

2021년부터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협력 계획 보유 및 성과가 우수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성장단계별 지원을 진행하였고,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스마트화 및 DB구축,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지원 등의 분야를 지원하여 2021년에는 총 1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가맹점주의 노하우와 창의성이 결합된 신메뉴 굿즈 등을 지원하는 가맹점주 특화지원은 신메뉴 개발, 공간디자인, 마케팅 기법 개발 등의 분야를 지원하여 2021년에는 9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바.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물류비 절감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함) 건립은 중소기업업자의 유통 물류기능의 공동화와 효율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였고, 2009년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지자체로 이관되어 실시 중이다.

중소소매업의 물류단가 인하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물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자단체가 도매 배송, 검품, 보관 등을 위한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할 경우, 건립비의 일정비율(중앙정부:지자체:민간부담 = 6:3:1)을 지원하였다.

공동물류센터에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38개소에 국비 78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현재 부산, 제주 등 전국 40곳에서 운영 중이다

표 II-5-3-7 | 시도별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현황(2020.12)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40	1	3	1	1	1	1	8	3	3	6	2	4	4	1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조합원 간의 공동구매와 제조사 직거래로 슈퍼마켓에 저렴한 가격의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 공급망이 부족한 지방소재 골목슈퍼의 상품구매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켜 중소소매업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물류센터 대상으로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을 추진하였다. 물류센터 내 재고, 발주일정 관리, 온라인 수발주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사.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그동안 소상공인은 사업체·종사자 수 등 양적 측면에서는 확대되어 왔으나 질적 측면에서 볼 때 빈번한 창업과 폐업으로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노포(老鋪)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대를 이어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그 성공사례를 전파하여 소상공인 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바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업력 30년 이상 운영한 우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단일제조업 제외)을 ‘백년가게’로, 2019년부터 업력 15년 이상 운영한 우수한 소공인(단일제조업)을 ‘백년소공인’으로 선정하여 2021년 누적 백년가게 1,158곳, 백년소공인 740곳이 선정되었다.

표 II-5-3-8 | 시도별 백년가게 선정현황(2021.12)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58	142	77	59	46	52	34	21	5	165	72	79	60	72	64	101	97	12

‘백년가게 1호점’ 현판식(2018년 9월)을 시작으로 각 지방청에서 지역별 현판식을 진행하여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선정된 업체에는 현판 및 확인서를 수여하며 개별 점포의 성장스토리를 담은 스토리보드를 지원한다. 또한 2021년부터 선정업체의 역량강화와 지속성장을 위해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온라인 판로지원, 노후화점포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과 전문컨설팅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21년도 선정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8.4%가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90.3%는 고객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이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3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지역상권과 임 상 철

소공인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체를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에 기반하여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다. 전국 50.4만개 기업체에 119.9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제조업 대비 사업체 수는 87%, 종사자수는 25.2%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제조과정에서 부품 및 반제품 제작 시 소공인의 오랜 숙련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지만 노후한 시설 및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과 판로 개척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공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개별소공인의 판로개척 및 안전한 제조환경으로의 개선, 스마트 공정을 위한 스마트공방 등 전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2개 시도에서 식료품 의류제조 등 35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영·기술교육, 컨설팅, 협업공동사업 등 309개 사업으로 총 6,405명을 지원하였다. 성과조사 결과 참여소공인의 48.9%가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4.9%로 나타났다

또한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을 유도하고 집적지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제조장비, 공동창고, 전시·판매장 등 공동기반시설을 경기, 인천지역 등에 7개 설치하였고,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 거점형 복합공간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스마트 제조장비, 전시판매장, 교육장 등)를 경기, 경남 등 3개 지역에 추가 구축하여 총 45개로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업체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참가, 온라인마케팅, 오프라인 매장입점, 미디어콘텐츠 제작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223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성과 조사 결과 매출액 증가율은 29.9%, 고용인원은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3-9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내역(2021.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매장입점	미디어콘텐츠 제작	계 (중복제외)
신청수	55	189	18	198	223
지원액	290	2,887	88	3,165	6,430

표 II-5-3-10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현황(2021.12월말 기준)

연 번	센 터 명	집 적 지	분 야	비 고	
1	서울 창신 의류제조 센터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13년 개소	
2	부산 범일 의류제조 센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3	대구 성내 주얼리 센터	중구(성내동)	귀금속	'14년 개소	
4	서울 장위 의류봉제 센터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15년 개소	
5	서울 봉익 주얼리 센터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6	시흥 대야 기타기계장비 센터	시흥시(신천동)	기계금속		
7	화성 향남 기타기계장비 센터	화성시(팔탄면)	자동차부품		
8	대전 정동 인쇄 센터	동구(정동)	인쇄		
9	대전 상서 금속가공 센터	대덕구(상서동)	기계금속		
10	금산 인삼(식품) 센터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11	부산 범천 귀금속 센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12	부산 범천 가죽가방신발 센터	부산진구(범천동)	가죽신발		
13	광주 서남 인쇄 센터	동구(서남동)	인쇄		
14	전주 팔복 금속가공 센터	전주시(팔복동)	기계금속		
15	고양 장항 인쇄 센터	고양시(장항동)	인쇄		'16년 개소
16	부천 신흥 전기장비 센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연 번	센 터 명	집 적 지	분 야	비 고
17	용인 영덕 전자부품 센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18	인천 송도 기타기계장비 센터	연수구(송도3동)	기타기계장비	
19	대전 오정 기타기계장비 센터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장비	
20	서울 독산 의류제조 센터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21	성남 상대원 제과제빵제조 센터	성남시(상대원동)	제과제빵	
22	청주 중앙 인쇄 센터	청주시(중앙동)	인쇄	
23	전북 순창 장류제조 센터	순창군(순창읍)	장류제조	
24	대구 대봉 의류봉제 센터	중구(대봉동)	의류봉제	'18년 개소
25	군포 당정 금속가공 센터	군포시(당정동)	금속가공	
26	김해 진례 도자 센터	순창군(순창읍)	비금속광물(도자기)	
27	대구 노원 안광학 센터	북구(노원동)	안경	'20년 개소
28	경기 포천 가산가구 센터	포천시(가산면)	가구	
29	경기 안양 전자부품 센터	안양시(관양동)	전자부품	
30	전남 무안 도자 센터	무안군(청계면)	도자	
31	서울 광진 의류제조 센터	광진구(중곡동)	의류봉제	
32	인천 송림 기타기계장비 센터	동구(송림동)	기타기계장비	'21년 개소
33	경기 동탄 전자부품 센터	화성시(동탄동)	전자부품	
34	경기 시흥 정왕전기장비 센터	시흥시(정왕동)	전기장비	
35	서울 문래 광역 센터	전국	전분야	

표 II-5-3-11 | 공동기반시설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2021.12월말 기준)

연 번	명 칭	범 위	비 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C24, C25, C29) 집적지구	문래동	'16년 지정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기타 제품 제조업(C33) 집적지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가족,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집적지구	성수동	
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집적지구	중앙동	'17년 지정
5	경기도 시흥시 대야·신천동 기계·금속(C29, C25) 집적지구	대야·신천동	
6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식료품(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주문진읍 (산업단지 제외)	
7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의류(C14) 집적지구	범일동	
8	경기도 양주시 남면 섬유제품(C13)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남면 (산업단지 제외)	
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집적지구	영덕동	
1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식료품(C10) 집적지구	사천면	
11	강원도 인제군 북면 식료품(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북면 (산업단지 제외)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의류(C14) 집적지구	독산동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의류(C14) 집적지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14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금속가공(C25) 집적지구	군포1동	
15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구(C32) 집적지구	가산면	
16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의류(C14) 집적지구	대봉1동	'19년 지정
17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동 인쇄 및 기록매체(C18) 집적지구	서남동	
18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비금속 광물제품(C23) 집적지구	진례면	
1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식료품(C10) 집적지구	순창읍 일원	
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식료품(C10) 집적지구	상대원동	
2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팔탄·청남면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향남읍, 팔탄·청남면	
2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C26) 집적지구	관양동	
23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 기타 제품(C33) 집적지구	성내동	

연 번	명 칭	범 위	비 고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금속 가공제품(C25),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오정동	'20년 지정
25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비금속광물(C23) 집적지구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2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가구(C32) 집적지구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27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송림동 금속 가공제품(C25), 전기장비(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송현동, 송림동	
28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 금속 가공제품(C25) 집적지구	팔복동	
29	광주광역시 동구 총장로 4,5가 기타제품(C33)집적지구	총장로 4,5가	
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C14) 집적지구	서동	'21년 지정
31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양말제조(C14) 소공인 집적지구	창동	
3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 조원, 미성동 의류봉제 (C14)집적지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33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안경, 안경렌즈 제조업(C27) 집적지구	노원동	
34	양천구 신월동 가방제조업 집적지구	신월동	
35	인천 서구 오류, 왕길 표면처리(C25) 집적지구	오류왕길동	
36	고양 인쇄문화(C18) 허브센터	장항동	
37	K-GIM(광천김) 식료품제조업(C10) 집적지구	광천읍	

표 II-5-3-12 |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현황(2021.12월말 기준)

연 번	지자체	집적지구	주요업종	비 고
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일대	섬유제품(C13)	'19년 지정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상봉동	섬유제품, 의류봉제, 가죽제조(C13, C14, C15)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20년 지정
4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식료품(C10)	
5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금속가공제품(C25)	
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식료품(C10)	'21년 지정
7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기타 기계장비(C29)	
8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식료품(C10), 음료제조(C11)	

제4절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1

전통시장 현황

- 전통시장육성과 윤 상 준
- 전통시장육성과 김 은 성

많은 국민들의 생업 터전인 전통시장은 2020년 현재 전국에 1,401개, 20.7만 개 점포(노점상 제외), 32.5만 명 상인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전통시장은 12개 감소, 점포는 약 500개가 감소하였고, 상인은 1.7만여 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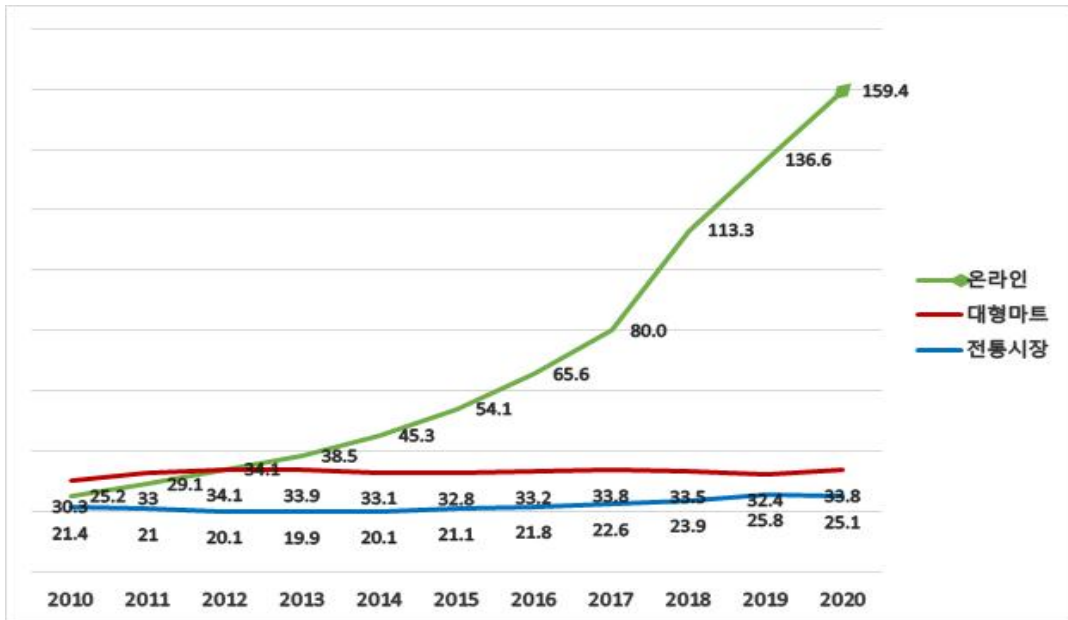
표 II-5-4-1 | 연도별 시장수·점포수·상인수 비교

구 분	시 장 수	점 포 수	상 인
2014년	1,398개	203,643개	353,070명
2015년	1,439개	207,083개	356,176명
2016년	1,441개	209,193개	368,930명
2017년	1,450개	209,884개	363,660명
2018년	1,437개	205,271개	359,049명
2019년	1,413개	207,643개	342,031명
2020년	1,401개	207,145개	325,492명

대형마트·SSM 등 기업형 유통점의 골목상권 잠식, 소비 트렌드 변화(온라인·소량·근린형 등),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서민층의 소비여력 저하 등으로 2013년까지는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감소세였으나, 2014년 이후 매출액 반등 전환한 후 2019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60년대) 전통시장 ⇨ ('70~'80년대) 연쇄점·수퍼마켓 ⇨ ('90년대) 편의점·대형마트 ⇨ ('00년대 이후) 온라인·홈쇼핑·SSM

그림 26 | 유통형태별 매출 추이



- 1) '10년~'14년 대형마트 매출액은 소매업체별 판매액 지수를 이용하여 추정된 수치임
- 2) 온라인쇼핑동향조사는 2019.2월 표본개편으로 시계열 변경
- 3) 자료 : 온라인쇼핑동향조사(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통계청),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활성화가 양호한 시장이 42.0%(588개), 취약한 시장은 15.5%(216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 대비 상위 수준인 '활성화' 수준이 감소하고(9.4%p) '취약' 수준은 증가하여(3.7%p), 전반적인 활성화 기준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5-4-2 |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2020년)

전 체	활 성 화		보 통	취 약	
	A수준 (매우 활발)	B수준 (활발)	C수준 (보통)	D수준 (미흡)	E수준 (침체)
1,401개	113	475	597	197	19
	588		597	216	
100.0%	8.1	33.9	42.6	14.1	1.4
	42.0		42.6	15.5	

2

시장경영혁신 지원

- 전통시장육성과 장 수 환
- 전통시장육성과 윤 상 준
- 전통시장육성과 이 종 균
- 전통시장육성과 김 은 성

가. 시장경영패키지지원(舊. 시장경영바우처)

시장경영패키지지원은 기존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 서비스 5개 사업을 통합·개편하여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 효율성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원 대상은 전년도 하반기에 모집 후 중소벤처기업부 13개 지방청에서 지역별 평가로 선정되며, 선정된 전통시장·상점가는 5개 사업 부문(마케팅, 교육, 자문,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중 희망 사업 부문을 선택하고,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희망사업부문에 자율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에는 본예산 385억원으로 345곳, 추경예산 60억원으로 261곳의 전통 시장 및 상점가를 지원하였으며, 개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2022년에는 온라인마케팅 부문을 추가하여 6개 사업부문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온라인 마케팅 등을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진행 할 수 있도록 시장매니저를 대상으로 시장 기본데이터 조사, 시장특성 분석 등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 온누리상품권 발행

상품권은 모든 국민이 애용하는 결제수단이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업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매출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해 왔다.

온누리상품권은 2021년 3조 1,573억 원이 판매되었다. 본예산 기준으로 3조 원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전통시장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여 1,500억원을 추가 발행하였다. 상품권 구매자별 현황을 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이 6.7%,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이 6.0%인 반면, 개인 구매 비율이 8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5-4-3 | 2021년도 온누리상품권 주체별 구매비율

(단위 : 억원, %)

공공부문	기업부문	개인부문	계
2,116.0(6.7%)	1,901.7(6.0%)	27,703.7(87.3%)	31,721.4(100%)

온누리상품권을 처음 발행한 2009년에는 판매액이 105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판매액은 3조 1,721억 원으로 12년만에 판매 규모가 30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누적 판매액은 약 14조 9,323억 원을 달성하였다.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상품권 구매 실적 배점을 2011년 0.1점에서 2012년 0.3점, 2013년부터 0.3~0.5점으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10%)를 활용하여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특히 2019년에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지속적인 판매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2019년 9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액도 2021년도에 3,572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도 판매액(2019년 9~12월) 66억원 대비 5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021년 기준 7.4만개(2019년 기준 3.5만개)이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이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전통시장의 대표브랜드로 안착한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단일 상품권으로써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특성화시장 육성

1) 지역선도형시장

지역선도형시장은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시장의 롤모델이자 지역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 협업사업의 기준이 되는 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특화요소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18년에는 희망사업프로젝트로 일부 개편되면서 신규시장 2곳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19년~2021년도에는 각각 신규시장 1곳씩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표 II-5-4-4 | 연도별 지원실적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선정수	4곳	7곳	2곳	1곳	1곳	1곳

그림 27 | 지역선도시장 2021년 우수사례



2) 문화관광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의 자원(관광·문화·예술·특산품)과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공간조성, 관광 상품개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2018년에는 희망사업프로젝트로 부분 개편하여 신규시장 31곳 및 2~3년차 시장 57곳을 지원하였고, 시장의 고유브랜드 개발, 지역관광지와 연계, 스토리텔링

도입 등으로 시장매출 증대 및 고객유인에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시장에서 도약한 20곳을 포함한 42곳의 신규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2019년도에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시장에서 도약한 16곳을 포함한 45곳의 신규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21년은 2020년도에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시장에서 도약한 4곳을 포함한 42곳의 신규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22년에는 2021년도에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시장에서 도약한 4곳을 포함한 41곳의 신규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표 II-5-4-5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신규	4곳	6곳	8곳	6곳	15곳	32곳	23곳	33곳	22곳	35곳	31곳	42곳	45곳	42곳	41곳 (예정)	385 곳

표 II-5-4-6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점지원사항 변경내역

시행시기	내 용
2008년~2009년	시설현대화 사업과 혼합하여 하드웨어 위주
2010년~2012년	스토리텔링, 캐릭터 개발, 장터 공연단, 시장라디오 등 소프트웨어 사업위주
2013년~2017년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ICT 및 디자인 융합 등 휴먼웨어 중심
2018년~	희망사업프로젝트 도입으로 기반이 확립된 시장에 한해 특성화 집중 지원

그림 28 | 문화관광형시장 2021년 우수사례

<p>회원제를 통한 고객확보</p>		<p>(포항큰동해시장) 지역주민 고객회원제와 멤버십 콘텐츠 구축으로 고객회원 3,600여명 참여, 객단가 160% 상승, 점포매출 평균 40% 증가를 달성, 지역주민과 전통시장 상생 동력 확보</p>
<p>상생협력 구축</p>		<p>(당진전통시장) 노브랜드·장난감도서관 유치 및 지역 기업과의 상생협력 체결 등 대기업·지역커뮤니티와의 상생 강화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미래 소비자 확보</p>

3) 특성화 첫걸음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은 기반조성사업과 컨설팅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반조성사업은 3대 고객서비스 혁신(편리한 결제, 고객신뢰, 위생청결)과 2대 역량강화(상인 조직역량, 화재 안전관리)로 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대체하여 신설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 34개 신규시장을 선정·지원하였다. 특히 해당사업은 1년간의 사업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곳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2021년도에는 신규시장 10곳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31곳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첫걸음 컨설팅사업은 특성화 기반조성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이 미흡한 곳을 대상으로 기초 환경분석을 실시하고 시장 원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21년도에는 10곳, 2022년도에는 21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5-4-7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18	'19	'20	'21	'22	계
첫걸음 기반조성	34곳 (20곳 도약)	30곳 (16곳 도약)	30곳 (5곳 도약)	10곳 (4곳 도약)	31곳 (예정)	135곳
첫걸음 컨설팅	24곳	31곳	20곳	10곳	21곳 (예정)	106곳

그림 29 | 특성화첫걸음시장 2021년 우수사례

<p>결제편의 개선</p>		<p>(관고전통시장) 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한 이벤트와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제로페이 가맹률 30.8%p 상승, 온누리 가맹률 33%p 상승 등 편리한 결제환경 조성</p>
<p>컨설팅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p>		<p>(용운시장) 첫걸음 컨설팅사업을 통한 기초역량 진단 및 서비스 개선방안 수립, 결제편의·가격표시 등의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 '22년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시장 선정</p>

라.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1)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의시설 및 협업공간 조성, 청년상인 창업교육, 점포 임차료 및 인테리어,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지원하며 2016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6년 14곳, 2017년 12곳, 2018년 9곳, 2019년 4곳, 2020년 3곳을 선정하여 전통시장 청년상인 집적지구를 조성했고, 2021년에는 1곳을 선정하여 현재 지구를 조성 중이며, 2022년에 개장예정이다.

2017년까지 청년몰당 지원 금액은 점포 20개 기준 15억 원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기존 청년몰 지원(청년상인들만 입점)에서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청년몰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문화센터 등이 포함)으로 보다 확장되어 지원금액도 최대 4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 지원금액 구성 :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를 기본으로 지자체별 상이

표 II-5-4-8 | 청년몰 조성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시장 수	14	12	9	4	3	1

2)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기지원한 청년몰의 시장안착을 위해 2018년부터 활성화지원(청년몰의 홍보, 마케팅, 교육 등), 확장지원(시설개보수, 추가공간조성 등)을 병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활성화지원 16곳과 확장지원 8곳, 2019년은 활성화지원 3곳과 확장지원 2곳, 2020년에는 활성화지원 7곳과 확장지원 3곳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활성화지원 4곳과 확장지원 2곳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활성화지원 8곳을 지원 중이다. 청년몰 활성화지원은 1년간 5억 원, 청년몰 확장지원은 1년간 10억 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다.

※ 지원금액 구성 :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를 기본으로 지자체별 상이

표 II-5-4-9 | 청년몰 활성화·확장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예정)
활성화지원	16	3	7	4	8
확장지원	8	2	3	2	-

3)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 영업중인 청년상인의 경영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신메뉴 개발, 홍보마케팅, 제품·포장디자인 개선, 온라인 진출 지원 등 청년상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7곳, 2019년 222곳, 2020년 231곳, 2021년 281곳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350곳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표 II-5-4-10 | 청년상인 도약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정)
지원점포 수	48	107	222	231	281	350

마.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 관리 강화

전통시장은 특성상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2013년부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화재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전통시장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표 II-5-4-11 |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예산	450	1,220	2,972	2,972	2,972	2,272	2,458	3,243	3,243
대상시장수	200	501	773	747	357	382	446	562	599*

※ 2013~2015년 1차, 2016~2018년 2차, 2019~2021년 3차 전수검사

* 559개 = 전통시장(545개), 상점가(54개)

2018년부터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통시장 내 발화요인(연기, 열, 불꽃 등)을 조기에 감지하여 소방관서·상인이 화재를 초기 진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구조 및 특성에 따라 개별점포형과 오픈점포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1점포당 설치비를 국비기준 최대 56만원까지 지원한다. 2021년까지 총 473개 시장, 53,126개 점포를 대상으로 국비를 교부하였다.

표 II-5-4-12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유형별 지원내역 및 한도

구분	설치내역	지원한도(국비 기준)
개별점포형	○ 개별점포 : 감지기(유·무선) ○ 공용부분 : CCTV, 수신기, 속보설비 등	○ 시장당 최대 '56만원 x 신청점포수 산출금액' 이내 (개별점포+공용부분=56만원) * 국비 70%, 지방비 30%
오픈점포형	○ 공용부분 : 감지기(유·무선), CCTV, 수신기, 속보설비 등	

2019년부터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노후화된 전선 및 설비 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설하였고, 2021년까지 총 188개 시장을 선정·지원하였다.

화재피해로 당장 생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전통시장 상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도 운영 중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전통시장 상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최대 6천만원 한도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2021년에는 특약상품(점포 휴업일당)을 추가하여 보장범위를 넓히고, 지자체(경기도) 업무협약 등의 방안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 시켰다.

표 II-5-4-13 |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예시(1년 주계약 기준)

구분		2천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연 66,000원	연 132,000원
		B급	연 101,500원	연 203,0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음식물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자기부담금 30만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 중 5천만원 한도		
	화재벌금	- 추가공제료 : 연 100원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보상 (형법 170조) 1.5천만원 / (형법 171조) 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26,600원(자기부담금 10만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 중 1억원 한도		
	점포휴업일당	- 추가공제료 : 연 2,400원 - 1사고당 30일한도(매 1년마다 총 60일 한도(1일 당 5만원)) -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건물구조급수(A/B급) :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눈 등급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바.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우수시장박람회는 2004년부터 개최된 국내 최대의 전통시장 행사로, 전통 시장 및 상점가가 모여 상인간 교류를 촉진하고, 우수 전통시장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발전하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홍보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21년에는 코로나19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 개최('21.12.3~12.5, 제주)하였으며, 지방자치 단체와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하였고,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약 70곳이 전시 부스로 참가하였다.

박람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하는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의 우수한 전통시장 상품을 전시·홍보하는 등 판촉 활동을 지원하면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은 전통시장·상점가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인근에 고객전용 공영 주차장을 신규 조성 및 증축하는 공용주차장 건립과 개량 및 보수를 지원한다. 공영 주차장 조성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인근 공공 및 사설 주차장의 사용비용(주차 쿠폰 수수료 및 쿠폰 발행 비용)의 보조지원이 가능하다.

국정과제('22년까지 주차장 84% 보급)와 연계하여, '21년 기준 1,188곳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보급하여 목표대비 8%를 초과달성하였다.

'22년에는 신규 건립 13곳을 추가 지원하고, 23년부터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방균특회계로 편성지원함으로써 정부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향후 지원목표는 신규 건립 90곳을 포함한 총 490곳의 주차시설 개선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3

상권 활성화

- 지역상권과 장 지원
- 지역상권과 임종영

우리 주변을 보면 특정지역에 많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상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지하도상가 등을 포함하여 주변 상업지역 점포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상권을 형성하여 오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및 대형마트 입점 등에 따른 상권 쇠퇴가 발생하였고, 그간 개별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지원과 주차장, 아케이드 등 시설 기반의 지원 정책은 상권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통시장(상점가)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고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상업지역 중 상업활동이 침체되었거나 침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점포수 기준 : 시·군·구의 인구가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 침체 및 침체 우려 기준 : 구역 내 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액 및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상권 전반에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하여 상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사업으로 해당 구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 사업*과 활성화사업**을 모두 실시하였다. 사업이 지역특색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콘텐츠, 디자인, 도시재생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업계획 보완 등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비영리법인 형태의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인·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테마별 거리디자인 등

** 활성화 사업(예시) : 테마거리 운영(음식, 패션 등), 특화상품 개발 및 판로지원, 홍보, 상인 역량강화 등

표 II-5-4-14 | 상권활성화 지원 현황(2016년)

지역	상권활성화구역명	구역내 시장 및 상점가	점포수 (개소)
경기 의정부	의정부시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3) :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의정부 청과야채시장 ○ 상점가(5) : 의정부지하상가, 녹색거리, 로데오거리, 행복로, 부대찌개 거리	2,546
경기 성남	산성로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단대마트시장 ○ 상점가(2) : 산성대로, 광명로	2,419
충남 부여	부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부여중앙시장, 부여전통시장 ○ 상점가(1) : 석탑로(궁남로)	966
전남 순천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중앙시장 ○ 상점가(6) : 옷장 인접상가, 원도심상점가, 중앙지하상가, 문화의거리, 황금로패션가, 중앙지하상가	636
울산 울주	언양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언양공설시장, 언양종합시장 ○ 상점가(1) : 언양상점가시장	419
부산 해운대	해운대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해운대시장 ○ 상점가(2) : 구남로, 애항길	627

2014년부터 경기 의정부를 비롯한 6개 구역 상권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대비 구역별 2016년 연평균 매출액은 8.5% 증가하고, 고객수는 5.7% 증가하여, 상권 내 서민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0 |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예시



2018년부터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 12. 20.)의 핵심 과제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30곳의 대표 상권을 육성·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사업방식을 국비 50%, 지방비와 민간 자부담 50%로 개편하여 5년간 총 80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발생하는 상권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상인 간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상생협약, 사업추진에 대한 1/2 이상 동의가 필수요건이며,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타부처 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19년 하반기 공모 상권부터는 평균 사업비를 80억 원에서 95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상권 규모에 따라 60억 원에서 120억 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 개편 이후 2021년 12월까지 28곳을 선정했고, 2022년에는 8개 내외의 상권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상생 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역상권법」(2022년 4월)이 시행됨에 따라,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지원된 상권은 지역 주민과 상인의 협력 모델로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마중물 역할로 발전될 것이 기대된다.

표 II-5-4-15 | 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2021년)

지 역	상권활성화구역명	구역내 시장 및 상점가	점포수 (개소)
대구 북구	칠성종합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8) : 칠성시장, 대구청과시장, 삼성시장, 칠성전자주방시장, 칠성진·경명시장, 칠성원시장, 본시장	897
경기 수원	수원역전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3) : 역전시장, 역전지하도상가시장, 매산시장 ○ 상점가(1) :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946
전남 강진	강진 중앙로 상권활성화구역	○ 상점가(1) : 중앙로상점가	413
경남 진주	진주중앙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진주중앙시장, 진주논개시장 ○ 상점가(3) : 진주청과상점가, 진주로데오거리, 진주중앙지하도상가	1,762
충남 천안	천안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천안역전시장 ○ 상점가(2) : 명동대흥로상점가, 천안역지하상가	720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7) : 양동건어물시장, 양동경열로시장, 양동수산시장, 양동닭전길시장, 양동산업용품시장, 양동시장, 양동복개상가	1,092
경기 구리	구리시 행복상권 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구리전통시장	643
전북 군산	군산시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공설시장, 신영시장	607

지 역	상권활성화구역명	구역내 시장 및 상점가	점포수 (개소)
부산 연제구	연제오방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연일시장, 연일골목시장	602
강원 정선	정선읍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정선아리랑시장	415
충남 공주	공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공주산성시장, 산성시장활성화구역	742
서울 관악구	별빛 신사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신원시장, 관악종합시장, ○ 상점가(1) : 서원동상점가	715
서울 동작구	동작 LINK 상권	○ 전통시장(1) : 남성사계시장 ○ 상점가(1) : 사당1동역자골목상점가	819
경기 양평	양평 물맑은상권	○ 전통시장(1) : 양평물맑은시장	620
강원 춘천	춘천 원도심상권	○ 전통시장(2) : 춘천중앙시장, 제일시장 ○ 상점가(4) : 춘천명동상점가, 요선상점가, 육림고개상점가, 춘천지하상가상점가	1,246
충북 제천	제천 원도심상권	○ 전통시장(3) : 제천중앙시장, 내도전통시장, 동문전통시장 ○ 상점가(2) : 문화의거리, 명소화거리	1,063
전북 부안	부안 마실상권	○ 전통시장(1) : 부안상설시장	636
전남 진도	진도 남문로상권	○ 전통시장(1) : 진도군상설시장 ○ 상점가(1) : 남문로상점가	450
경북 문경	문경 점촌원도심상권	○ 전통시장(1) : 문경 중앙시장 ○ 상점가(2) : 문화의 거리상점가, 점촌역전 상점가	494
경남 창원	창원 진해군항상권	○ 전통시장(1) : 진해중앙시장	837
인천 중구	인천 중구 개항희망문화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신평국제시장, ○ 상점가(3) : 차이나타운로상점가, 신평상가연합회상점가, 개항누리길상점가	1,174
경북 안동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 ○ 상점가(2) : 남서상점가, 중앙문화의거리상점가	931
경북 경주	경주시 중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경주중심상가시장	630
경남 밀양	밀양 원도심 햇살문화상권	○ 전통시장(1) : 밀양아리랑시장	412
광주 동구	광주 총장 상권활성화구역	○ 상점가(4) : 총장로상점가, 총금지하도상가, 금남지하도상가 1공구, 금남지하도상가2공구	1,439
광주 광산구	광주 송정역세권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1913 송정역시장	737
전북 익산	익산 dae로움 상권활성화구역	○ 상점가(1) : 백제상점가	810
인천 부평구	부평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부평문화의거리 ○ 상점가(5) : 부평테마의거리상점가, 부평지하상가(부평중앙·부평역·신부평), 부평시장로타리지하상가	1,564

제6장

규제·행정 혁신 및 기업애로 지원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채식

규제는 안전·환경·보건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피규제자는 통상 규제이행에 따른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체력을 줄여 기업의 기술혁신 등 경쟁력 제고와 산업의 자율경쟁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은 민간의 자율적 문제해결능력을 경시하고 순응 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채 규제기준을 획일적으로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규제의 영향은 매우 크다. 규제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중소기업에 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부담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 및 불공정 경쟁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대응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1997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법 제정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시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2008년 12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도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되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이외에도 경쟁제한평가(공정거래위원회) 및 기술규제영향평가(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영역에 대해 개별부처에서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 차단하는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유연성 법을 벤치마킹하여 규제대상 기업수, 규제준수 의무사항, 중소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안모색, 다른 규제와의 중복성 등을 검토해 규제신설을 최소화하고, 도입 불가피 시 최소 부담으로 규제목적 달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최적대안(준수 요건, 시행시기 차별화, 일부 업종/지역 적용 면제, 이행수단 차등 등)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규제형평 원칙도 입법화(2018.4.17.)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하였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중기부가 요청한 규제차등화, 규제유예·면제 등 95건이 해당 부처에서 수용·반영되었다. 그로 인해 규제 신설·강화에 따른 약 8천억원의 비용을 방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기부 검토의견 반영건수는 2019년 19건, 2020년 55건, 2021년 21건이며, 수혜대상 기업 및 금액은 60,191개사/2,544억원, 233,562개사/2,433억원, 81,166개사/2,905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II-6-1-1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실적

(단위 : 건)

연 도	평가대상		검토의견		검토의견 반 영 률
	법령건수	규제건수	제출건수	반영건수	
2017년	147	359	34	17	50.0%
2018년	306	649	50	28	56.0%
2019년	521	1,039	31	19	61.3%
2020년	807	1,552	86	55	63.9%
2021년	696	1,185	32	21	65.6%
총 계	2,477	4,784	233	140	60.0%

출처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성과분석

표 II-6-1-2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대표사례

<p>□ 2019년 : 60,191개 기업 2,544억원 절감</p> <p>① 과도하게 짧게 설정(5년)된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의 교체주기 의무를 폐지해 940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교체비용 1,335억원 절감</p> <p>② 약취 절감표준기술 및 측정기준을 명확하게 한후 방지시설 설치를 도입토록 하여 11,028개 축산농가의 규제비용 219억원 절감</p> <p>③ 과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과도한 설비 구축 이후에만 음식물 폐기물의 가축사료 사용을 허용한 규제를 철폐해 215개 업체의 965억원 절감</p> <p>④ 난연성을 표시하는 단열제 표면정보 표시사항 변경시 과도한 표기 규제를 완화해, 발포플라스틱 제조사(118개사)의 규제비용 15억원 절감</p>
<p>□ 2020년 : 233,562개 기업 2,433억원 절감</p> <p>① 3년마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보고 대상(건축물관리자)에서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하여 46,481개사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검토비용 등 1,146억원 절감</p> <p>②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자료 제출대상을 전문의약품제조업으로 축소(일반의약품 제외)하여 127개사의 제조단위 생산비용 및 밸리데이션 자료 작성비용 등 260억원 절감</p> <p>③ 신용정보 등의 평가 요건 중 인력요건을 명확히하고, 물적 시설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여 119개사의 물적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 58억원 절감</p> <p>④ 국내항해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에 있어 수입 내항선의 규제 강화시기를 조정*하여 규제적용 시점 유예에 따라 789개사의 규제비용 100억원 절감 * (기준 1) '21년 → '25년, (기준 2) '25년 → '30년으로 조정</p>
<p>□ 2021년 : 81,166개 기업 2,905억원 절감</p> <p>①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등록요건 중 시설물관리 업체의 인력기준을 당초 20명에서 10명으로 50% 수준 완화하여 2,363개사 인건비 부담 2,694억원 절감</p> <p>②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 외부 홍보물이 주류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을 축소하여 78,210개사의 간판 교체비용 등 151억원 절감</p> <p>③ 100병상 이상 150병상 미만인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시 전담근무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여 기존 인력의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159개사의 전담인력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56억원 절감</p> <p>④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분리·보관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을 의무교육에서 자율교육으로 완화하여 200개사의 의무교육 참여에 따른 시간비용 0.1억원 절감</p>

2

중소기업정책심의회

▪ 정책평가과 남기동

일자리 창출·경제성장 주역으로서의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정부·지자체에서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부재로 부처간 협업을 통한 효과적 정책 대안 마련에는 미흡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조정 중소기업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중소기업기본법(6월) 및 동법 시행령(12월)을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 전문가,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가 포함되었다. 동 심의회는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심의·조정한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구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원장),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 전문가, 업계 대표 등 30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당연직으로는 중소기업정책 유관 부처 및 위원장이 인정하는 부처 차관급이며, 위촉직으로는 업계대표, 연구기관,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하위위원회인 실무조정회의 구성은 심의회 안건 발굴 및 부처간 실무조정으로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전문위원회 구성은 창업·금융·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각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2021년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총 3회 개최하였으며 1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3

적극행정

▪ 혁신행정담당관 민 승 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더믹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여건 속에서 다양화·세분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 관점에서의 적기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창업, 벤처, 소상공인, 상생협력 등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중기부의 적극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중기부도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적극행정을 중기부 조직문화로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적극행정 추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창의적인 조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일하는 공간 변화’를 위해 장관과 직원이 함께 고민하여 혁신적인 공간을 구성하였다. 공간 혁신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4월), 공용공간 명칭 공모(6월), 국별 전용회의실 디자인 컨테스트 공모(6월)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중기부는 중앙부처 내 ‘벤처·창업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업무뿐만 아니라 공간도 ‘창업기업’처럼 혁신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직접 방문해 북 카페, 개인공간, 중앙휴게실 등을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방문 민원인이 편안하게 대기하고 접견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카페형 공간으로 구성했고, 민원인 전용 대면·영상 회의실 등을 마련해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 결과, 민원인들이 방문 공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내부 직원들에게도 조직 내 혁신과 소통,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21.10월 직원 설문조사)

〈직원 설문조사〉

- [공용공간] 소통과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89.1%)
- [근무환경]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87.9%)
- [화상회의실] 업무에 도움이 된다(93.4%)

둘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우수직원 포상 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청중(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발표심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본부 각과 및 지방청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23건을 선정하였으며, 분위기 확산 및 참여유도를 위해 우수직원 20명에 대해서는 특별승급, 성과급 최우수등급 부여, 승진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셋째, 적극행정 기반 구축을 위해 중기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21.12.9)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최대 위원규모를 확대(20명→45명)하고, 청년 위원 1인 이상 위촉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또한 타 기관 권한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적극행정 분야 국민체감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①소상공인 경영 회복, ②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역·판로혁신 촉진, ③중소기업의 선도형 경제 주역화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전략적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장관 주재 혁신 토론회, 실·국장의 공직경험을 전수하는 'MSS아카데미', MZ세대 공무원과 선배공무원의 대화방인 '삼삼오오 토론방'을 운영하는 등 조직 내부 소통을 강화하여 적극행정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징계 또는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전직원 대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특강, 이러닝 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직원의 적극 행정 이해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4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 제공 및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

- 정책통계분석과 안 병 철
- 정책통계분석과 최 준 영
- 고객정보화담당관실 표 종 민
-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정 룬 조

현대사회는 정보의 취득 여부에 따라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정보화 사회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은 매우 다양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많은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무슨 정책이 있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실정이다.

이는 인터넷으로 정책을 알아보려면 일일이 지원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고 어렵사리 홈페이지에 접근해도 지원시책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또 지원시책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려워 실제로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공감할 때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정부 지원정책을 인터넷, 전화, 면담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중소기업인들의 이해증진과 정책이용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 제공 및 원스톱 애로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번 없이 ☎1357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직원을 통해 정책안내, 애로상담을 지원하는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비즈니스지원단을 운영하여 지방청에 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여 정책정보 안내·상담부터 현장방문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정책포털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범정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제공한다.

가. 온라인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마당’

기업마당(www.bizinfo.go.kr)은 산재된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한 곳에서 적시 전달해주는 중소기업 정책포털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구축된 동 시스템의 브랜드명을 Spi-1357 → 비즈인포 → 기업마당으로 전환하였고, 화면 디자인 개선 및 검색기능(관심정책 스크랩, 해쉬태그 등) 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기업인들이 보다 쉽게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그림 31 | 기업마당 웹사이트 초기 화면



(기존) 복잡하여 정보검색이 어려움

(개선) 핵심 콘텐츠를 부각하고 단순

기업마당은 2021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538개 지원기관에서 추진한 지원사업, 행사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14,577건을 기관별·분야별(금융·기술인력수출 등)로 구분하여 홈페이지, 이메일, 앱 등을 통해 제공하였다.

표 II-6-1-3 | 2021년 기업마당 정보제공 현황

(단위 : 건)

구분	사업공고	행사정보	정책뉴스(보도자료)	입주기업모집공고	계
제공건수	10,556	2,371	1,235	415	14,577

또한, 정책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영상 등 정책홍보물 자료를 제공하고, 중기부 화상회의실 예약포털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공용 화상회의실 정보(1,500여개)를 제공하는 등 신규 지원정보를 확충하였다. 아울러 지원사업 데이터를 창업기업, 은행 등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 카카오톡 기반 ‘지원사업 검색’ 서비스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기업마당 시스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499만건의 접속수, 174백만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활용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다양한 정책정보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기능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정책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에게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번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1357을 누르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상담사와 통화연결이 가능하도록 '전국단위 전화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원정책 안내는 물론 경영애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2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중소기업종합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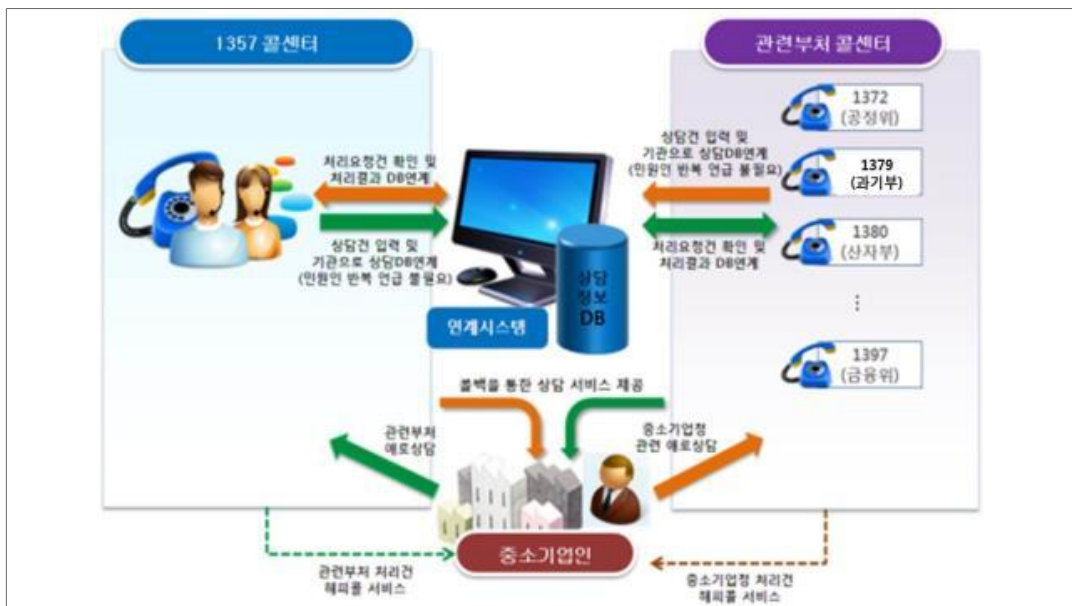
2014년 5월부터 자금, 창업, R&D 등 주요 정책별로 분산되었던 중소기업 관련 6개 기관* 콜센터를 1357 단일번호로 통합하고, 2015년 1월에는 콜센터 업무공간도 한 곳으로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구축하였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산학연협회

2015년도에는 무역·금융·조달·특허·고용 등 중소기업 관련 7개 중앙부처 8개 콜센터와 연계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 9개 중앙부처 10개* 콜센터 연계를 완료하여 중소기업이 9개 부처 어느 콜센터로 전화해도 한 통의 전화로 모든 애로사항에 대해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1357 중소기업통합콜), 산업통상자원부(1381 인증표준콜, 1380 FTA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79 기업공감원스톱지원), 고용노동부(1350 고객지원), 금융위원회(1397 서민금융다모아콜), 조달청(1588-0800 정부조달콜), 특허청(1544-8080 특허고객상담), 국세청(126 국세상담)

그림 33 | One Call 통합 상담 서비스



2021년에는 2016년 53.6만 건에 비해 약 1.9배 가량이 증가한 100.7만 건의 애로사항 등을 처리하였으며, 매년 1357 중소기업 콜센터의 처리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6-1-4 | 1357 중소기업 콜센터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담건수	536,020	794,466	885,889	804,093	1,108,229	1,007,383

* 총 누계(2006년~2021년) : 6,918,564건

다.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380여만개 중소기업 숫자만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다양하다. 특히, 대내외 경제환경 및 경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여건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 상황, 인력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22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애로를 적시 지원하고자 지방중기청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상주하면서 기업애로상담부터 현장해결까지 지원해주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 법률, 노무, 회계, 기술, 특허, 수출 등의 기업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애로까지 해결해 주는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경영·기술 지도사 등의 전문가로 비즈니스지원단을 구성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6-1-5 | 비즈니스지원단 현황('21)

(단위 : 명)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명장 기능장	기술사	기술 지도사	경영 지도사	공공 기관 경력자	기타	계
36	59	27	42	70	9	421	14	54	70	735	46	301	1,884

비즈니스지원단은 13개 지방청과 5개 사무소(1개 센터 포함)에 상주하면서 인터넷(www.smes.go.kr/bizlink),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방문(지방청)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있다.

표 II-6-1-6 |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실적

(단위 : 건)

구 분	창업 벤처	법무 규제	금융 환위험	인사 노무	세무 회계	경영 전략	기술 특허	정보화 융합기술	생산 관리	마케팅 수출입	계
'21	15,530	3,196	8,941	12,433	9,476	16,400	10,793	2,098	5,159	15,060	99,086
누계 ('09~'21)	229,711	38,140	141,380	146,837	134,914	209,734	110,774	42,703	67,987	163,265	1,285,445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7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장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6-1-7 |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실적

(단위 : 건)

구 분	창업 벤처	법무 규제	금융 환위험	인사 노무	세무 회계	경영 전략	기술 특허	정보화 융합기술	생산 관리	마케팅 수출입	계
'21	204	8	51	1,116	82	693	179	22	81	471	2,907
누계 ('09~'21)	2,076	746	576	10,525	802	5,419	1,383	678	2,051	3,771	28,027

비즈니스지원단은 연평균 약 10만건의 전문상담과 2천여 건의 현장클리닉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5

중소기업 ombudsman 제도 운영

▪ ombudsman지원단 전 영 선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뿌리이자 경제성장 동력의 원천으로 기업체수의 99.9%, 종업원수의 81.3%를 차지한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2009년 7월에 중소기업 ombudsman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ombudsman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다. 중소기업 ombudsman은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중소기업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개선 건의 및 권고,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조사분석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감경·면제를 건의 하고, 규제개선 등에 의견을 제출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매년 1월말까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규제 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인 ombudsman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직속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외에 타 부처·지자체 파견 공무원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직원, 자체 채용한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처리 절차는 규제발굴, 규제유형 분류, 유형별 검토, 부처협의, 규제개선 종결, 사후관리로 이루어진다.

그림 34 | 규제애로 발굴·처리 절차



규제 발굴은 중소기업이 직접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또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와 127개 공공기관에 설치된 ‘기업성장응답센터’에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 등에서 이루어지며,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 분석하여 소관부처·기관에 개선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건의된 과제가 개선된다. 다만, 건의된 과제 중 개선 타당성이 있으나 소관부처·기관에서 불수용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옴부즈만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관부처·기관에 개선권고까지 이루어지고, 만일 개선권고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표하게끔 되어 있어 개선권고의 이행력이 제고되고 있다.

표 II-6-1-8 | 규제애로 분야별 발굴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금융	기술	보건	안전	상생	세제	수출	인력	입지	창업	판로	환경	기타
'21	4,868	216	171	297	125	99	701	42	693	760	228	959	222	355
누계 ('09-'21)	36,548	2,309	2,272	2,990	1,019	1,095	1,920	412	2,995	6,403	2,751	4,141	2,447	5,794

표 II-6-1-9 | 규제애로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09 ~ '20년				'21년				누계			
	계	제도 개선	안내 시정	장기 검토등	계	제도 개선	안내 시정	장기 검토등	계	제도 개선	안내 시정	장기 검토등
건수	30,610	6,343	13,380	10,887	4,987	2,527	1,329	1,131	35,597	8,870	14,709	12,018
비율	100.0	20.7	43.7	35.6	100	50.7	26.6	22.7	100	24.9	41.3	33.8

중소기업 ombudsman은 그간 금융, 기술, 안전, 수출, 인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매년 5천 여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후 36,548건을 발굴하여 8,870건을 제도 개선하였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그간 치킨집에서 생맥주 배달이 불법이었으나, 관계 부처와 꾸준히 협의한 결과 음식과 함께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인데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내연기관 차량 정비용 검사장비·기구를 등록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설부담을 완화하였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역별·분야별 간담회와 현장 방문 155회를 실시하였으며, 간담회 및 현장 방문, 370개 지자체·공공기관의 신고센터와 ombudsman 홈페이지에 중소기업이 직접 접수 등을 통해 4,868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하였다. 발굴된 과제에 대해 기업관점에서 검토 분석하여 해당 부처·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그 중 2,527건을 제도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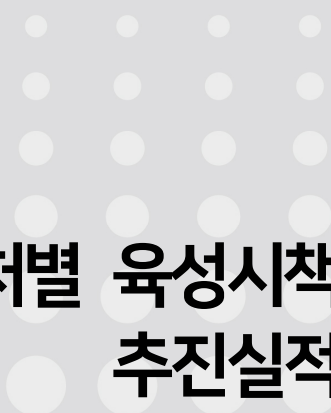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규제 개선이다.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약 28,600개 이며, 이중 기업관련 위원회가 6,400여개에 달한다. 기업은 위원회의 중복 심의, 과도한 서류 제출, 복잡한 절차 및 기간 장기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 규제애로에 대해 심의대상 현실화, 기준·절차 합리화, 행태·제도 개선의 46개 중점과제, 1,882개 세부과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이 각종 위원회에 준비하는 연간 이행비용 약 5,300억원을 절감하였다.

세부 사례로는 A재건축조합은 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단위세대 평면 일부가 변경되어 용적률이 단 0.19% 증가하였음에도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불만을 호소하여 경관위원회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심의를 통과한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경관심의가 빈번하고 기업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관위원회의 변경심의가 면제되는 사항 중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증가 범위를 일정 규모로 정함으로써 변경심의를 대상을 최소화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규제도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하였다.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각종 규제 애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27개 공공기관별 기업성장응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금융, 조달, 기술 등 공공기관의 핵심규제를 발굴하여 그중 670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세부 사례로는 각종 수수료 등 준조세 납부시 현금 및 계좌이체만 허용되었으나, 카드·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납부수단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B지역에서는 손님이 없어 공항청사 운영시간을 단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면적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여, 공급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같이 2021년도에는 많은 규제애로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지만 소관 부처에서 개선건의를 불수용함에 따라 옴부즈만위원회 심의를 거쳐 3건의 개선권고도 이루어졌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 발굴·개선 업무 외에도 적극적인 규제개선 직무 중 위법행위 등으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면제 및 감경을 건의할 수 있으며, 그간 적극적인 징계 면책을 건의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한 3개 지자체 7명에 대해 징계 수위가 당초보다 한단계 아래로 감경되었다. 또한, 기업은 인허가 및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불이익 조치 및 차별 등을 우려하여 규제 애로 건의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토로함에 따라 기업 민원인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등을 선언하는 내용의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 현장’을 마련하도록 각 기관에 제정을 권고한 결과, 2021년도말 기준 23개 정부부처, 243개 지자체, 127개 공공기관 등 393개 정부·공공기관이 보호현장을 제정하는 등 기업민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3부

- | | |
|-----------------|---------------|
| 제 1 장 기획재정부 | 제14장 식품의약품안전처 |
| 제 2 장 교육부 | 제15장 공정거래위원회 |
| 제 3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16장 금융위원회 |
| 제 4 장 행정안전부 | 제17장 국세청 |
| 제 5 장 문화체육관광부 | 제18장 관세청 |
| 제 6 장 농림축산식품부 | 제19장 조달청 |
| 제 7 장 산업통상자원부 | 제20장 병무청 |
| 제 8 장 환경부 | 제21장 방위사업청 |
| 제 9 장 고용노동부 | 제22장 농촌진흥청 |
| 제10장 여성가족부 | 제23장 산림청 |
| 제11장 국토교통부 | 제24장 특허청 |
| 제12장 해양수산부 | 제25장 기상청 |
| 제13장 방송통신위원회 | |

제1장

기획재정부

□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 (기술창업) 비대면(400개사), BIG3*(250개사), 그린(100개사) 등 유망분야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확대('20년 300개 → '21년 400개)

* 성장잠재력이 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창업 지원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R&D·사업화 연계의 기술창업 지원

- (우수인재)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 옵션) 과세특례* 확대

* 비상장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행사시 시가 - 행사가격)에 대하여 비과세,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 특례 제공

-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확대('21.12, 조특법)
- 혁신기업 인수 후 우수인재의 근속 및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에게 대해서도 비과세 인정('21.12, 조특법)

- (투자선순환) 벤처투자·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21년중 모태펀드가 총 1.7조원(예산 1.4조원, 회수재원 0.3조원)을 출자하여, 스마트대한민국펀드(1.2조원) 등 4.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소멸합병시에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고,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 완화**('21.12, 법인세법)

* 소멸합병시에는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계속 의무', '합병 후 피합병법인 주주의 지분 보유 의무'(연도 말까지 50% 이상 보유) 등 요건 적용 제외

**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순차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1회 50% 초과 취득' →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

- (혁신거점) 벤처·창업기업 인큐베이팅을 위해 그린 스타트업타운(1개소), 스타트업파크(2개소) 등 거점 추가 조성
- (해외 진출)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신설('21년 300억원) 등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극복 지원

- (재난지원금 지급) 4차례 총 16.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 * 집행실적('22.2월 기준) : 버팀목 4.2, 버팀목+ 4.8, 희망회복 4.2, 1차 방역지원금 3.2조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소상공인 한정, 최대 3백만원, '21.1~), 버팀목자금 플러스(최대 5백만원, '21.3~), 희망회복자금(최대 2천만원, '21.8~), 방역지원금(100만원, '21.12~) 지급
- (금융지원) 소상공인의 시급한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1% 초저금리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집행
 - 피해가 집중된 특별피해업종(금지·제한·위기 등)에 대해 임차료·저신용용자, 중저신용특례보증 등 저금리로 6조원 규모 자금공급('21.7~)
 -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여행업 등 포함) 중 매출감소 업체 대상 '일상회복 특별용자'를 신설하여 초저금리(1.0%, 최대 2천만원) 대출 2조원 공급('21.11~)
 - 이와 함께, 쏠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원리금상환 유예도 지속
 - * 지원실적('20.4~'21.12월) : 284.4조원(만기연장 270조원, 원리금 상환유예 14.4조원)
- (임대료 부담 완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등 민·관 임대료 감면 실시
 -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20.1~'21.12월) * '20년은 50%
 -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재산가액의 3→1%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5% 조정) 등 부담완화('20.4~)

-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연체료 경감(연체 이자율 최대 5%)(’20.3~)
 -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소상공인 유동성 제고를 위한 국세 환급금 신속 지급
 -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매각 최장 1년 유예
 - (계약 특례) 국가·지자체 계약시 절차 간소화, 입찰보증금 경감(5→2.5%), 대가 신속지급(5→3일) 등 한시특례 적용(’20.5~)
- 중소기업 스마트화 가속화 및 인프라 지원 강화
- (스마트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 지원 확대 추진
 -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신규 구축 지원을 통해 ’21년 5,239개를 보급하여 누적 보급규모 25,038개 달성
 - * 스마트공장 보급(누적, 천개): (’17) 5 → (’18) 8 → (’19) 13 → (’20) 20 → (’21) 25
 -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디지털 트윈 등이 적용된 대표공장을 육성하는 ‘K-스마트 등대공장*’ 구축 본격 착수(’21. 10개)
 - (인프라 지원 강화)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등 성장 인프라 지원
 -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2배 이상 확대*하였으며, ‘투자형 R&D’ 등 시장 친화적 R&D** 도입·지원
 - * 중소기업 전용 R&D(조원) : (’17) 1.17 → (’18) 1.54 → (’19) 1.72 → (’20) 2.31 → (’21) 2.47
 - ** (투자형) 先 민간VC 기업 선별·투자 → 後 정부(모태펀드) 매칭 투자 지원
 - 아울러, 중소기업이 특히 조사·분석을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21.2, 조특법 시행령)

- (상생협력) 상생결제를 확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세액공제율 0.1~0.2 → 0.15~0.5%) ('21.12 조특법)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既연장('20년→'22년, 조특법)
- (중소기업 수출지원) 수출바우처('21. 1,064억원) 사업*을 활용해 개별 수요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
 - *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해외영업지원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식(수출 바우처 메뉴판 13개 항목)으로 지원
 - 이와 함께 전세계적 물류대란에 대응하여 '21년 추경 예산(109억원)을 긴급 편성하여 국제운송비에 사용가능한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최대 2천만원)

제2장

교육부

① 현장 중심의 중등 직업교육 내실화

□ 신산업 기초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

- (직업계고 체질개선)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인력수요가 확대 되는 서비스 분야 등 학과·교육과정 개편 및 고도화 지원(101교 148개 학과*)

* 학교유형 전환 1교, 학급증설 2교, 학과개편 98교 지원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우수사례〉

- 삼척마이스터고(전기전자제어과→전기과) : 4차 산업혁명, 자동화 등 대응하여 산업용 로봇 조작, 자동 제어 설비 등 시설·장비 구축 및 교육과정 마련, '21년 충원을 100%
- 경기자동차과학교(자동차과→미래자동차과) : 전기차, 자율주행, 수소차 등 모빌리티 신산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전기차산업협회 등과 산학협력체계 구축, 21년 충원을 100%, 22년 학급 증설 예정

- (도제학교 내실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65개 사업단, 143교 171개 과정)

- 산업현장수요를 반영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신규 선정('21.11월, 총 11교)
- 학교의 행정·평가부담 경감 및 체계적인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 '22년 운영 과정 대상 교육부-고용부 도제학교 성과평가 일원화 실시

- (신산업 콘텐츠 개발) 신산업분야 등 신규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학습모듈(교재)을 개발(34개 세분류) 및 보완(30개 세분류) 실시

□ 직업교육 체질 개선 및 학생 보건 강화

- (특성화고 혁신지원) 학교별 당면한 문제에 따라 자발적인 목표 설정 및 혁신을 추진하는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지원('20년 200교 → '21년 250교)

구분	I 유형 (가고싶은학교)	II 유형 (머물고싶은학교)	III 유형 (실력을키우는학교)	IV 유형 (꿈을이루는학교)	계
학교 수	76	48	66	60	250

○ (마이스터고 혁신) 지난 10년간의 마이스터고 운영성과와 한계·발전 방향 등을 분석한 정책연구 추진(~'21.12월)

○ (직업계고 안전·보건 강화) 직업계고 실험실습생 및 교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습실 작업환경측정('21년 1,856개)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21년 배치전 42천 명, 배치후 58천 명)

※ 산업안전보건법 130조 상 작업환경 내에서 근무자의 건강상태를 파악·보호하기 위한 검진

□ 학습중심 현장실습 내실화 및 취업의 질 제고

○ (현장실습 내실화) 학교와 노무사가 직접 실사·점검하여 실습여건 등이 확인된 '선도기업'을 지속 발굴('21년 24,303개)

- 실습 참여학생 등의 평가 등을 바탕으로 '우수 선도기업'을 선정('21.8월 200개)하여 인센티브 지원

○ (실습관리 강화) 현장실습생을 관리·교육할 기업현장교사가 현장실습생 1명을 전담하여 내실있는 현장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21년 205억 원)

- 실습생의 권익을 상시적으로 보호하고, 실습기업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학교별 전담노무사(1교 1노무사) 지정·운영('21년 561명)

○ (취업연계역량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졸 취업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관계 부처 합동 '직업계고 취업지원정책 점검 및 보완방안' 발표('21.7월)

- '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20.6월~) 및 본격 운영 추진, 중앙단위 고졸 일자리 발굴*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

* 대구테크노파크, 한국철도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업무협약 체결('21.1~6월)

- ‘고졸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21.8월)하여 고졸 채용·기업 정보 등 일자리 정보 적시 제공,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로 면접·구직기회 제공

* 고졸인재 일자리콘서트(3월),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6월), KB굿잡 온택트 취업박람회(6월, 11월), 2021 디지털 뉴딜·수출중소기업x청년일자리엑스포(10~12월)

②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제공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육성(‘17~’21) 추진

- (산학협력 고도화형) 산학연계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한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속 추진 및 거점센터(기업협업센터 등) 구축을 통해 인력양성-기술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기업 지원 체계 확충

※ (‘21년) 일반대 55교 2,253억 원, 전문대 15교 157억 원

-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신산업 분야* 협약반 40개(일반대 20개, 전문대 20개) 운영

* (4차 산업혁명 관련) D.N.A(Data, Network, AI)+BIG3(바이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관련)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핵심전략품목 관련 산업 분야

※ (‘21년) 일반대 20개교 303억 원, 전문대 40개교 787억 원

□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

- 지역사회·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재직자·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30개교(일반대 23교, 전문대 7교) 지속 지원(‘21년)
- 재학연한 폐지, 학점당 등록금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대학 진학 및 역량 개발 활성화

※ ‘21년 사업 참여 대학 신입생 중 중소기업 재직 신입생 비율 : 43.5% (3,417명 중 1,488명)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으로 대학의 자율성·경쟁력 제고

- 대학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혁신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19~’21)’ 실시

- 기존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14~'18)을 대학 전반을 지원하는 일반재정 사업으로 확대·개편

※ 자율협약형(Ⅰ유형) 87교, 역량강화형(Ⅱ유형) 10교, 후진학선도형(Ⅲ유형) 25교 등 97교 지원(단 후진학 선도형 대학은 자율협약형 87교 중 선정)

-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을 통해 지역-대학-산업체 등 연계한 단기 비학위 과정 운영 등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기능 확대

※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운영 현황('21.11월 기준) : 운영과정 1,400개, 참여자 약 21,900명

□ 대학생 취·창업 활성화

- (대학창업펀드) 대학 구성원의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여 대학 發 초기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 조성 현황('17~'21년 누적) : 30개 조합 1042.1억 원 조성('21년 120억 원 출자하여 192억 원 조성)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지난 4년간 25개 대학을 지원하여 대학원 내 창업문화 확산* 및 후속 R&D 지원(367개 기술)을 통해 137개 창업

* 창창업대체논문제(고려대), 창업학점교류제(성균관대), 교원평가에 창업실적 반영(건국대)

※ 창업기업 중 54개사는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최초로 연계하여 사업화 자금 및 공간, 멘토링 등 후속 성장지원

□ 재직자 대상 교육·재교육 기회 확대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급) '先취업 後학습' 문화조성을 위해 고졸 재직자(산업체 재직경력 2년 이상) 중 대학 신입·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19년) 9,100명 328억 원 → ('20년) 11,200명 390억 원 → ('21년) 10,784명 424억 원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 및 데이터 기반 창업 지원 〉

□ 실험실 창업(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 (창업 활성화 지원) '21년 10개大 신규 선정을 통해 쏘 4년제 대학(200여개)의 10%를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실험실 창업 활성화 지원
 - 선정대상을 초기창업패키지(중기부) 주관기관에서 쏘 4년제 대학으로 확대하여 우수 연구성과 보유 대학의 창업 활성화
- (창업유망기술 발굴·지원) 대학 내 창업유망기술에 후속 R&D 및 사업모형 수립 등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실험실 창업기업 설립 지원
 - 4년간('18~'21년) 창업유망기술 367개를 지원하여 199개 실험실 창업기업 설립, 307명 고용창출 및 9,161백만원 후속투자 유치
 - 54개(누적) 초기 실험실 창업기업을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실험실 특화)로 연계하여 사업화 자금, 공간, 멘토링 등 후속 성장 지원

□ 데이터 활용 및 사업화 지원

- 데이터 활용 기반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에 데이터 사업화 선정*·지원(25개社) 및 데이터 특화 컨설팅, 데모데이 등 후속 지원
 - * 경쟁률: '19년 382건(31.8대1), '20년 414건(34.5대1), '21년 480건(19.2대1)
 - 민간투자유치 약 228억원, 국내·외 수상 17건, 고용창출 168명 등 성과 달성
- 중소 데이터 기업 대상 솔루션·서비스 현지화 개발 및 수출마케팅 지원(12社), 해외 바이어 발굴연계 및 기업간 네트워킹 등 수출 수요 발굴 기회 제공

□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 중소·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혁신 및 新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바우처 형식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 지원('21년 1,230억원)

- 데이터바우처 지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요기업 대상 데이터 구매·가공(일반/AI) 바우처 총 2,637건 선정(당초목표 2,580건) 및 지원
- 데이터 판매·가공서비스 전문 공급기업 육성·발굴 및 지정

※ 데이터 공급기업(판매·가공) 1,126개社 및 데이터 상품 1,639개 발굴·지정

○ K-ICT 빅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 기반 분석 인프라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에 데이터기반 사업화 지원(20개 기업)

〈 멘토링 지원 〉

□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중소기업 R&D 기술애로에 대해 중장기(기술멘토링) 및 단기(상시 현장자문) 현장방문 자문* 지원

*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85과제, 상시현장자문 166개사 지원

□ ICT 혁신기업 멘토링 서비스 지원

○ (ICT 혁신기업 멘토링 지원) 성공·실패 경험을 가진 CEO멘토단의 1:1전담 멘토링, 실전창업교육, 투자역량강화, 선도기업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ICT 분야 초기창업기업 및 재도전, 예비창업자 창업성공을 제고

- '21년 전담멘티 407개사 대상 7,086건 전담멘토링, 일반창업자 1,567개사/명 대상 4,195건의 오픈멘토링 서비스 제공

- '21년 투자 유치 103건(784억원), 자금유치 503억원, 특허 출원·등록 299건, 법인 설립 71건, 고용증대 2,106명 등 성과창출

〈 기술개발 지원 〉

□ 인공지능반도체 응용기술개발 지원

-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를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중소 팹리스 등)을 중심으로 학·연의 원천기술, 설계인력 등을 활용하여 제품화 지원*(7개 과제, 71억원)

* 자율주행, 스마트가전 등 인공지능반도체 활용 과제 발굴 지원

□ ICT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 3D프린팅 제작기술의 혁신적 도입·적용으로 우주항공·자동차 등 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 제품·부품 제작실증을 통한 3D 프린팅 전문 강소기업 육성 및 수요시장 창출 지원(6개 과제, 60억원)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ICT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자금 저리(1.60%) 용자 지원(80개 과제, 255.89억원)
-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 ICT기반 혁신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 및 고객검증 후 시장중심의 속도가 있는 추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지원(14개 과제, 29억원)
 - 대국민 공모전 추진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이후 기술개발·사업화 지원(10개)
 - 기존 정부 ICT R&D 성과의 후속 사업화 개발·실증 지원(4개)
-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정부-대기업 협력 기반의 유망 ICT 스타트업 공동 발굴을 통한 신규 및 계속 지원(35개, 56억원)
 - (정부) '21년 35개(신규 19개, 계속 16개) ICT 스타트업 대상 총 56억원 지원을 통한 신규고용, 사업화매출, 특허 등 성과창출

* 신규고용 74명, 사업화매출(잠정치) 약 108억원(10억원당 약 21억원), 특허 질적분석결과 4.25 (출원 및 등록 47건), 대기업-스타트업 컨소시엄 만족도 92.4점, 신용보증기금(사업협력기관) 연계 보증 약 56억원 지원, CES혁신상 4개(최고혁신상 1개 포함) 등 성과창출

- (대기업) '21년 35개 ICT 스타트업에 대한 1:1* 맞춤형 멘토링, 투자연계** 등 창업 프로그램 지원

* 멘토(멘티) : 삼성(3개), 현대차(1), SK(8), KT(2), 롯데(3), 한화(2), 교보(1), 메트라이프(1), 신한(5), KB(3), 하나(3), NH(3)

** 대기업 투자연계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액 1,100억원 이상 달성(13개 과제)

〈 전문기업 육성 〉

□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인공지능 전문기업 육성)

- 기업별 기존 제품·서비스에 AI를 접목한 신규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육성('21년 61.25억원 지원)

- (계속) '20년 선정된 7개 기업*에 기업 당 5억원 연구비 지원(총 35억원)

- (신규) '21년 선정된 7개 기업**에 기업 당 3.75억원 연구비 지원(총 26.25억원)

* 비에스소프트, 메디픽셀, 라이트비전, 네오컨버전주식회사, 비즈데이터, 가우디오랩, 티맥스에이아이

** 제인소프트, 미소정보기술, 경성테크놀러지, 제스아이앤씨, 보리, 인텔리시스, 유니온플레이스

□ 디지털콘텐츠 기업경쟁력 강화

- (기술선도형 CG콘텐츠) 컴퓨터그래픽 기술 기반의 XR·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및 전문기업 육성 지원

- (CG전문기업육성) ICT기반의 전문기업육성으로 성장을 목표로 고품질 디지털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4개 과제)

* 매출액 54,970백만원 달성, 신규 일자리 창출 46명, 메타버스 관련 1,200억원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대통령상 수상 등

- (CG기반 신비즈니스 모델) 영화·드라마 등 일반 영상콘텐츠 이외에 CG기술과 新기술이 융합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10개 과제)

* 매출액 4,700백만원, 신규 일자리 창출 53명, 코스닥 상장사 배출

- (국내외 마케팅) CG전문인력 발굴 및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 리크루팅 캠프 참가자 50명 중 11명 취업 연계 성공, 비즈니스 로드쇼 NDA 3건, MOU 1건 달성

- (시장창출형 디지털콘텐츠) 실생활, 휴먼케어, 스포테크 등 시장창출형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
 - (스마트콘텐츠) 온라인 유통·커머스, 소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화를 위한 ICT 기반 디지털콘텐츠·서비스 개발지원(21개과제)
 - * 매출액 11,099백만원, 신규 일자리 창출 93명, 시리즈 A 투자유치 약 40억원 등
 - (휴먼케어콘텐츠) 치료보조, 재활훈련 등 휴먼케어 콘텐츠 개발지원 및 제품 상용화 지원(9개 과제)
 - * 매출액 2,879백만원, 신규 일자리 창출 32명
 - (ICT융합스포츠콘텐츠) 기존 스포츠 산업에 ICT 융합기술이 적용된 ‘스포테크 (Sport Tech)’를 통해 흥미있는 융합형 스포츠 콘텐츠 발굴(5개 과제)
 - * 매출액 1,125백만원, 신규 일자리 창출 12명
- 타산업과 협업을 통한 XR콘텐츠 개발·글로벌 진출, 콘텐츠 해외 공동제작 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다각화
 - 디지털콘텐츠기업 동반진출 지원*, 5G 전략시장 공동제작 지원**
 - * 총 6개 과제 지원, 국내·외 과제매출액 8,151백만원, 글로벌 계약 23건, 글로벌 계약액 2,852백만원, MOU10건, 신규일자리창출 40명 등
 - ** 총 4개 과제 지원, 국내·외 과제매출액 277백만원, 글로벌 계약 3건, 글로벌 계약액 307백만원, 신규 일자리창출 30명
- 글로벌 주요 거점 진출 상시 지원체계 마련과 환경변화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강화
 - 해외진출 주요거점 인프라 지원*,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해외 신흥시장 진출 지원***
 - * 총 144개사, 지원 요청사항 774건 접수·지원으로 해외 매출액 41억원, 해외 계약액 21억원, MOU/NDA 15건, 법인설립 4건, 지원기업 만족도 ‘우수’ 이상 달성 등
 - ** 해외계약 27건, 해외계약액 22.5억원, 일자리 창출 28명, MOU 16건, 대표 홍보채널 운영(구독자 2,050명, 영상조회 303만회), 온라인 전사·비즈니스 로드쇼(상담건수 226건) 등
 - *** 가상전시관 구축 및 전시회 개최(계약 14건, 약 38억원 체결) 등

□ VR·AR콘텐츠산업육성(舊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 (XR 융합 프로젝트) 공공·산업 분야 XR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산업 효율성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대규모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 부처 간 협업(국방부, 경찰청, 소방청)으로 대규모 융합 선도 프로젝트 추진 ('21년 190억원(뉴딜), 9건)

※ (대표성과 지원과제) ① XR기반 복합테러 대응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② XR기반 증증외상 처치 훈련 시스템 구축 ③ XR기반 제조설비 디지털 운영 시스템 구축

○ (차세대 실감콘텐츠 개발지원)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따른 글로벌 신시장·플랫폼 선점을 위한 초고속·대용량 XR 실감콘텐츠 선도개발 및 상용화 지원 (36개 과제)

○ (VR·AR 콘텐츠 상용화 지원) XR 콘텐츠 수요맞춤형 홍보·마케팅, 수출상담, 비즈매칭 지원 등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서비스 개발 지원(9건)

○ (2021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핵심 주자 발굴·시상을 통해 산업 활성화 촉진

○ (VR·AR 산업거점 고도화) XR 콘텐츠 성과확산, 비즈니스마케팅,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상설전시관 'XR쇼룸' 운영 및 XR 콘텐츠 시험·검증을 위한 'Shared Infra' 제공 등 VR·AR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지원거점 운영

○ (실감콘텐츠 인프라 조성) K-실감스튜디오 인프라 기반의 Volumetric 콘텐츠 제작 시범 지원 사업을 통해 11개 프로젝트 발굴 등 총 20여개의 프로젝트 지원(시설이용 만족도 점수 92.7점)

○ (지역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 지역특화산업 연계 XR 융합콘텐츠 제작(실증) 지원을 통해 융합콘텐츠 발굴(85건), 지역기업육성(120개사), 고용창출(300명), 매출향상(181억원) 등 기존 지역주력산업의 XR 기술 활용·확산 성과

○ 메타버스 저변확대를 위한 KMF(Korea Metaverse Festival) 2021 개최

※ KMF(온·오프라인 합산 총 158개 기업 312부스(오프라인 134개사 232부스, 온라인 80개사 80부스)전시, 11,130명(오프라인 9,764명, 온라인 1,366명) 참관)

□ 글로벌SW전문기업육성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SW기업을 선정·집중 지원하여 성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76.35억원)
 - (SW고성장기업지원) 머신러닝 통합 자동화 솔루션, 클라우드IDE 서비스 응용기술 연구개발 등 'SW고성장클럽200' 선정 중소기업의 R&D자금 지원 (16개 과제, 34.35억원)
 - (글로벌SW전문기업육성) 제조 완전 자동화를 위한 의사결정 인공지능 시스템, 글로벌 AI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 유망 SW 기업의 글로벌화 위한 고도화 지원(6개 과제, 42억원)

□ 스마트미디어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 스마트미디어 관련 ICT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OTT, 소셜미디어 등 6대 분야의 혁신 R&D 기술에 대한 (중소·벤처기업 자체 또는 산·학·연에서 이전된) 결과물의 후속 사업화(R&BD)지원
 - * 총 6개 과제(종료 6개) 18.5억원 지원('21년)
 -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에 대한 자문·컨설팅 및 진도점검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성과창출* 지원
 - * 신규고용 총 14명('21년)으로 10억원당 7.56명 일자리 창출, 매출액 연 16.49억원 달성, 누적 사업화 건수 287건 기록, 총 10개 특허출원 등 예상
-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 AI,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과 융합된 스마트미디어분야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지원(12개 과제, 6.4억원 지원)
 - 스마트미디어X 캠프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과 플랫폼사 간 컨소시엄 매칭을 실시하고(컨소시엄 매칭 84건), 우수 서비스를 선정하여 개발 자금 및 상용화 지원

〈 인프라 지원 등 기반 조성 〉

□ 우주기술산업화 및 수출지원

○ (우주부품 국산화 기반지원) 우주부품시험센터를 통해 발사체, 위성체 부품 및 소자에 대한 우주환경시험 지원

- '21년 162건의 우주부품·소자 등 시험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우주부품시험센터 개소('20.2월) 이후 40개기업 총 300건의 시험지원 실시

○ (위성수출 활성화 지원)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성 소자급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6社, 28억원) 및 위성정보 활용 SW개발지원(3社, 7억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부품시험센터, KAIST와 중소기업 6곳에서 우주급메모리, Power MOSFET, Magnetic부품, Heater소자, Thermistor, Diode, Connector, Capacitor, Resistor 9종 국산화

□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 인공지능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컴퓨팅 연산자원을 민간 임차하여 중소·벤처 등에게 제공('21년 240억원, 1,002개 기관에 월30.6PF 자원 제공)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보화 수준 향상 지원

○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지원

- (바우처) 클라우드 기반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컨설팅을 기반으로 한 전환비용, 이용료 지원(92.5억원, 1,006개 기업)

□ 지역SW산업진흥지원

○ (지역SW기업성장지원) 14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기업수요 기반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 및 SW기업경쟁력강화지원(28.82억원)

* 14개 광역중심 사업지원 체계 구축, 수혜기업 만족도 92.3점, 신규고용 882명

-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역소재 강소SW기업 및 초기 스타트업 대상으로 SW기반의 신규서비스 발굴 및 제품화를 위한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 (80.41억원)

*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 42개 과제, 55개 기업 지원(직·간접 신규고용 387명, 수혜기업 만족도 91.7점 등)

- (지역SW품질역량강화) SW품질역량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내 중소SW기업 및 관련 프로젝트의 테스트, 컨설팅,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12.4억원)

* SW품질 컨설팅 284건, 테스트 지원 414건, 인증 96건 등

□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 (제조운영체제 개발) 국제표준 기반의 미들웨어 구현 및 제조공정을 적용한 개방형 제조운영체제(Open-MOS)의 국산화 개발('21년 17.6억)

- 독일 I4.0 제조자산표준(AAS) 적용을 통해 제조환경에서의 각종 자원(데이터, 네트워크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운영체제를 개발하고, MOS클라우드 및 엣지 커넥티비티(OPC UA/5G/TSN) 등을 연계

- MOS와 연계된 자동차부품 공정(용접, 소성가공)을 위한 AAS Meta model Schema 및 확산을 위한 XML/JSON 포맷 변환 시스템 개발

* 제조운영체제 관련 기술개발(4건) 및 성능검증(9건), 특허출원 2건, 신규고용 23명 등

- (제조 특화서비스) 공정 특성 및 제조환경에 최적화된 MOS 기반 제조 운영 협업시스템 및 자동차부품 특화서비스 2종 개발('21년 10.5억원)

- 공통, 생산, 자재, 품질, 설비, 리포트의 6개 부문을 제조현장의 실행 영역 및 관리 영역의 표준화된 MSA(Microservice) 구조로 구현하고, AMR기반의 물류 자동화 및 제조공정의 3D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KPI 성과예측 서비스 개발

- (실증 및 검증) 실 제조라인에 대한 5G 환경 구축 및 현장적용을 통한 사업 성과를 실증하고, IIC 국제인증을 위한 프로세스 추진('21년 7억원)

- 공장 전용 Private 5G 환경 등 실증사이트를 구축하고, 제조운영체제 및 특화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을 위한 파일럿 수행을 통해 IIC 인증/사례 등재 추진
- ILNI4.0, IDTA 등과 제조 분야에 대한 국제 표준기술 협업 활동 수행
- * MOS 적용기업 2개사, 실증사이트 구축 3건, 국제 기술 교류 3건 등

□ ICT 혁신선도 연구 인프라 구축

- 5G 장비·단말 등에 대한 국제공인시험 인증, 무선전력전송 등 ICT 핵심분야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국내 ICT기업 경쟁력 확보

- 5G 코어 등 5G 장비 시험 검증 인프라 구축* 및 5G 단말 테스트 제공을** 위한 28GHz 방사성능 분야 국제공인 시험인프라 구축

※ 5G 장비 검사 인프라 제공 등을 통한 기술지도, 시험성적서제공, 기술컨설팅 등 기업지원(251건)
5G(3.5GHz, 28GHz) 단말 분야 공인시험인프라를 활용한 시험인증 등 기업지원(93건)

- 스마트 단말·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초소형 분야, WPC* 소·중·대전력 분야, 주방용 가전제품 분야 등 무선전력전송 국제공인인증시험 인프라 구축

* WPC(Wireless Power Consortium) : 세계 최대 규모 무선충전 국제 규격 추진 단체

※ 무선전력전송 국제공인시험 인프라를 통한 규격획득, 시험평가, 시제품제작지원 등 기업지원(102건)

□ 정보통신시험인증허브기반구축

- ICT 융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 개발, 인증심사 및 시장 진출 지원 등 종합적 인증체계 지원

- 품질인증기준 26건 제정 및 융합제품 26종 인증*

* 스마트항공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제어기반 증발냉방장치, 전파강수계 등

- 101개 공공기관에 ICT융합품질인증제품(216개)이 납품되어 약 61억원 규모의 매출 달성

〈 해외진출·투자유치·수출 지원 〉

□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SW 고성장 기업 지원

- (글로벌 현지화·마케팅 진출지원) SW 사용자 환경·기능·언어 등의 현지화 및 국내 SW·ICT 기업의 수출마케팅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21년 기준) 9개 과제 지원 및 멘토링(45회)·비즈매칭(46회), SW현지화·전시마케팅 교육 개최(3회)

- (SW고성장기업 지원) 성장 가능성 높은 고성장기업과 예비 고성장기업 143개사를 선정하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자율과제 이행자금과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 신규 고용 창출 등의 성과 창출

* ('21년 기준) 지원기업 총 매출 3,791억원, 투자 유치 2,506억원, 신규 고용 3,284명 창출

□ ICT 중소 벤처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K-ICT 본투글로벌센터 운영) ICT분야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역량 성장을 위한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여 현지 진출 성공률 제고

- ICT분야 해외진출 유망기업에게 법률·특허·회계·마케팅 등 총 1,960건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 투자유치를 위한 온라인 IR 개최**등

* 해외 법인설립 11건, 투자유치 85건/12,995억원(직/간접), 해외 특허 및 상표·디자인 출원 81건 등

** 국내·외 총 25회 데모데이 개최, 총 83개사에 사업발표 기회 및 투자자 네트워크 지원

-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디지털 뉴딜 중심의 AI, 5G, 블록체인, VR·AR 등 ICT·SW 新산업 분야 성장동력산업 특화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선발하여 육성(6개사)

* (액셀러레이터) 액셀러레이터별 8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총 51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국내·외 교육, 투자, 멘토링, 네트워킹, 데모데이 등 지원

** (보육 스타트업) 매출(국내 206억원, 해외 66억원), 투자유치(국내 193억원, 해외 1.9억원), 사업계약·제휴(국내 143건, 해외 19건), 특허출원·등록(국내 787건, 해외 16건), 고용창출 191명 등

-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AI, AR·VR 등 ICT 분야 혁신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발굴·사업화를 위해 전문가 교육·멘토링, 기술 세미나, 개방형 협업공간, 우수 스타트업 선정 및 상금 등 지원

* '21년 33개의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중 국내외 법인설립 6건, 투자유치 9건(12억원), 특허출원·등록 36건, 신규고용 59명 등 성과 창출

-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ICT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진출 자금(투·융자) 제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해외 현지 특화프로그램(미국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하노이, 호치민), 자금 보증지원(신용보증기금), 민간투자 연계, 창업·벤처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예비 유니콘 기업 성장지원

* '21년 15개사 선정하여, 매출 1,224억원(국내 1,172억원, 해외 52억원), 투자유치 1,173억원(국내 1,138억원, 해외 35억원), 고용 277명, 특허 출원(등록) 361건(327건) 성과 창출

** (해외현지특화프로그램) 멘토링/컨설팅 299건, 비즈니스 미팅 246건, 데모데이 2회, 해외 VC투자 유치 50억원, 현지법인 설립 1건 지원

*** (보증지원/보증보험지원) 13개사 대상 622.9억원 보증서 발급 완료(신용보증기금), 28개사 대상 739건, 688억원 대상 보증보험 발급(SGI서울보증)

□ ICT 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수출 지원

- 전시·수출상담회, 스타트업 IR, 컨퍼런스 등 해외마케팅 행사(K-Global@)를 통해 국내 ICT 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우수사례 및 기술력을 홍보하여 해외진출 판로 확보 및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

- '21년 중국 베이징(8월), 미국 실리콘밸리(11월) 등 2개 지역에서 K-Global@ 행사 개최(국내기업 77개사, 총 642건 수출상담)

□ 정보보호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기술지원) 국내 정보보호업체의 제품 연구개발 시험환경 제공, 기술 지원

-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에 고성능(100G급 트래픽 처리) 시험환경을 구축해 국제적 수준의 고성능고사양 보안제품 개발 선도, 상용화 촉진(42건)

* 테스트베드 이용(159개사), 이용업체 대상 기술자문(670건), 시스템운용교육(8회)

- (수출지원)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한 국내 정보보호업체들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5대 해외진출 전략거점 구축 및 수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수출지원(수출예비기업 16개社, 수출유망기업 12개社), 스타트업 해외진출(국내외 엑셀러레이팅, 기술가치평가), 파트너십 프로그램(현지진출전략 상담회 및 웨비나 총 6회 개최)

- 해외 5대 전략 거점을 통해 현지 사업 및 기업의 진출수요 발굴, 21개국 산업시장 동향정보 및 권역별 진출 전략 보고서 발간

* 해외 사업수요 발굴 및 수출지원(수출성공률 35.7%, 823.8억원)

〈 해외 5대 전략거점 사무소〉

권역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북미
국가	오만	탄자니아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미국
거점 사무소	주오만대한민국 대사관 (무스카트)	KOTRA 무역관 (다레살람)	중미 경제통합은행 (산호세)	현지 연락사무소 (자카르타)	PNP (실리콘벨리)

- (중소기업 보안지원) 지역의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밀착형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10개소)* 운영

* 강원, 경기, 경북, 대구, 동남(부산), 인천, 울산, 중부(충북), 충남, 호남(광주)

- 보안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1,336개)

제4장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R&D)
 - 재난안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실용화·제품화 등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 기술개발 과제(21개 과제) 지원
 - 21개 과제를 통해 23개 중소기업에 41.3억 지원
 - 지역의 재난안전 현안을 지자체, 지역 중소기업, 지역대학 등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17개 과제)
 - 17개 과제를 통해 29개 중소기업에 42.7억 지원

제5장

문화체육관광부

- 소비 할인권 발행으로 피해업계 지원 및 내수활성화 추진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관 업계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할인권 사업 추진
 - 숙박, 여행, 공연, 영화, 전시,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총 7종

분야	예산(억원)	할인 내용
숙박	565	온라인 예약시 2~3만원 할인
여행	90	공모 선정된 국내여행상품 40% 할인
공연	139	1인당 8천원 할인
영화	123	1인당 6천원 할인
전시	86	미술관 1~5천원 / 박물관 40% 할인(최대 3천원)
실내체육시설	330	월 누적 이용금액 8만원 이상시 3만원 환급
프로스포츠	30	축구·야구·농구·배구 관람 50% 할인(최대 7천원)

- 예술기업 창업 및 단계별 육성 지원
 - (예비창업 지원) 예술분야 혁신적 창업 아이디어 발굴 위한 경진대회 개최, 선발된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자금 및 교육·멘토링 지원('21년 25개)
 - (초기기업 지원)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상 사업화자금 및 교육·컨설팅 등 인큐베이팅 지원('21년 40개)
 - * 투자유치 71.8억원(10개), 전년('20년) 대비 매출 227% 증가
 - (성장기업 지원) 창업 3년 이상 기업 대상 사업화자금 및 교육·컨설팅 등 액셀러레이팅 지원, 기업·투자자 등 외부자원 연계 지원('21년 26개)
 - * 투자유치 133.6억원(5개), 전년('20년) 대비 매출 259% 증가

- (자원연계 다각화) 클라우드 펀딩(11개), 예술분야 투자상담회 운영(3회), IR 피칭 및 투자자·기업과의 네트워킹 지원

-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 (관광벤처 발굴·지원) 혁신적 관광벤처를 발굴,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 및 교육·컨설팅, 국내외 홍보·판로개척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예비-초기-성장) 관광벤처기업 발굴(182개) 및 사업화 자금,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등 지원
 - 관광기업지원센터 관광기업 입주지원(60여개) 및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지원 등 안정적인 기업성장 및 협업 환경 조성
 - (관광기업 성장지원) 관광기업의 성장(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경영 혁신, 해외진출, 기술융합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 민간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연계 관광기업의 고도성장 지원 및 민간 직접투자 유도(30개 기업)
 - 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 혁신적인 성장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바우처 지원(142개 기업)
 - 관광분야 혁신적인 선도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네트워킹, 투자 유치, 사업화자금 지원 등 지원(31개 기업)
 - 중기부 TIPS 선정기업 중 관광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술 기업을 발굴하여, 관광산업으로의 사업 영역 확대 지원(7개 기업)
 - (투자 유치 지원) 기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광기업 육성펀드, 클라우드 펀딩 등 투자 지원
 -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운용('15~'21년 총 2,281억 원, 기금 1,430억 원 포함)

- 제1호 펀드('15년 결성): 총 220억(관광기금 130억, 민간 90억)
- 제2호 펀드('16년 결성): 총 200억(관광기금 100억, 민간 100억)
- 제3호 펀드('17년 결성): 총 270억(관광기금 150억, 민간 120억)
- 제4호 펀드('19.2월): 총 280억(관광기금 170억, 민간 110억)
- 제5호 펀드('19년 결성): 총 220억(관광기금 130억, 민간 90억)
- 제6-1~3호 펀드('20년 결성): 총 441억(관광기금 300억, 민간 141억)
- 제7호 펀드('21년 결성): 총 650억원(관광기금 450억, 민간 200억)

- 관광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활용 자금 확보 지원(펀딩설계, 콘텐츠 제작·펀딩 수수료 등), 투자자문위원회 개최 등 후속 투자유치 지원

□ 스포츠기업 종합 지원 기반 마련 및 성장단계별 지원 규모 확대

-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설을 통한 스포츠 기업 종합 지원 기반 마련

*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기업보육공간 및 전시체험공간 운영

- (성장단계별 지원) 스포츠기업 융자 지원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창업-엑셀러레이터-중소기업-선도기업 지원 등 성장단계별 육성 지원('20년 167.8→'21년 293.8억원)

구 분	지원 사업
① 예비창업~창업초기(3년)	창업지원센터(7개소) : 상품서비스 개발비 지원, 창업 교육
② 창업 중기(7년)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5개소) : 사업화 지원금, 사업 모델 수립
③ 재창업	재창업지원센터(5개소) :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자금지원
④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78개) : 경영·해외진출컨설팅, 해외전시 등
⑤ 선도기업 지원	선도기업 육성(29개) :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 (R&D 연계 확대)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6개 과제(42.91억원) 및 선도기업 육성 핵심 기술 개발 3개 과제(17.01억원) 지원

□ 금융 지원 대폭 확대 및 지역 스포츠기업 육성 지속

- (금융 지원) 스포츠기업 용자 지원 확대('20년 1,261억원 → '21년 1,361억원)
및 스포츠산업 펀드 결성 지속('20년 100억원 → '21년 130억원 신규 출자)
- (지역 스포츠기업 육성)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지원

* 연 25억원씩 4년간 지원(부산 / 2022년까지)

제6장

농림축산식품부



□ 기능성식품산업육성

-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 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 연구 지원 및 산업활성화 기반 구축 추진
 - 지역 농특산물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시험(동물시험 및 안전성 평가) 11개 품목, 인체적용시험(임상시험) 20개 품목 지원
 - 기능성 규명 사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사업단 운영, 기능성 농식품자원 실태조사, 통합DB 운영,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으로 체계적 산업육성 지원
 - 지원규모('21) : 61억 원
- * 식품기능성평가지원(18억원), 기능성농식품자원실태조사(1억원), 기능성농식품자원통합DB운영(1억원), 국산소재기능성규명(1억원), 기능성원료은행구축(31억원)

□ 식품외식종합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체에게 식품의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 국산원료 매입에 필요한 자금 등 융자 지원
 - 지원규모('21) : 1,958억 원(식품가공원료매입 1,400억원, 농식품시설현대화 100억원, 외식업체육성 200억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238억원, 식품원료계열화 20억원)
- * 지원조건 : 융자 80%, 시설자금(연 2.0~3.0%, 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연 2.5~3.0%, 1년 상환)

□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식품기업의 식품 위생·안전 및 품질개선 등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농공상 융합형중소기업 대상 전용판매관 운영 및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대한민국 식품대전(KFS) 개최 등 판로개척

- 지원규모('21) : 30억 원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10억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12억원), 대한민국식품대전(8억원)

- 국산원료를 사용하여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유용 종균 보급 등 기술지원,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

- 지원규모('21) : 53억 원

* 소스산업화센터 운영지원(13억원),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35억원), 종균활용발효식품 산업지원(5억원)

□ 사료산업종합지원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실시하여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사료 원료구매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융자 지원

- 사업규모('21) : 506억 원(사료원료구매자금 486억원, 시설개보수자금 20억원)

* 지원조건 : 원료자금 융자 80%(2년 거치 일시상환, 3%), 시설자금 융자 80%(3년거치 7년상환)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 현대화 자금을 융자로 지원

- 지원규모('21) : 3,729억원(원료구매지원 3,681억원, 수출시설현대화 48억원)

* 지원조건 : 원료자금 융자 80~90%(고정금리 (2.5~3.0%)·변동금리 중 택일, 1년 상환), 시설현대화 융자 80%(고정금리 (2.0~3.0%)·변동금리 중 택일,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농산물전문 생산단지’, 품목별 전문판매조직인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 및 수출업체 대상으로 수출물류비·안전성검사·검역·통관·보험·브랜드 홍보 등 맞춤형 지원 추진

- 지원규모('21) : 809억 원(생산기반 구축 28억원, 판매조직육성 79억원, 농식품우수기업육성 702억원, 농식품수출바우처지원 4억원)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국비 50~100)

제7장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확대

- (지사화) K —OTRA 해외무역관 등*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역량 및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수출지원**

* 진입(OKTA, 기초 마케팅) ↔ 발전(KOTRA, 수출·성약 지원) ↔ 확장(중진공, 현지화 지원)

** 지원기업수 : ('19) 5,017개사 → ('20) 5,209개사 → ('21) 5,666개사

- (글로벌 파트너링) 글로벌 기업의 협업수요에 기반, 국내기업과 정보교환 및 매칭이 가능한 '온라인 GP 전용관' 구축 추진*

*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수요에 따라 온라인 전용관 신규 구축

- 첨단산업·전략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GP센터* 확대

* 기존 7개소+[3개소 : 실리콘밸리(반도체), 뮌헨(미래차), 오사카(전력·철도·기계)] → 총 10개소

- (전자상거래) 글로벌 플랫폼 및 해외 시장별 가장 영향력 있는 유통망 협업*을 통해 국내기업 입점·판촉 등 온라인 수출 지원

- 총 39개국 유통망 166개와 협력, 국내 소비재기업 4,262개사(전년대비 55%↑) 지원, 매출액 3.51억불(전년대비 123%↑) 창출

* (중국) Taobao, JD.com, (일본) Rakuten, (유럽) Carrefour, Douglas, (북미) Walmart, (동남아) Lazada, (인도) Flipkart, (중남미) Mercado Libre, (러시아) Wildberries 등

- (수출바우처) 물류대란 대응을 위해 국제운송서비스 신설('21.3월)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운영('21.8~12월)

* 지원기업수 : ('20) 1,078개사 → ('21) 1,045개사(본예산 기준), 1,331개사(추경포함)

- (해외전시회) 현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온·오프 융합) 등 해외전시회(87회) 참가 지원
- (온라인 전시관) 주요 업종별 온라인 상설전시관 활용, 국내 O2O 전시회 (총 10회)* 개최

* 전자·기계·로봇·조선해양·건축기자재·전기·패키징 등 O2O 전시회 10회 개최

- (무역보험)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6.6조원 지원

* 중소·중견 지원실적(조원) : ('19) 56.2(중소35.7) → ('20) 59.6(중소39.4) → ('21) 66.6(중소40.4)

- (FTA활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FTA활용 애로해소 지원 강화

- (컨설팅·원산지관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전자 원산지관리시스템 무료 보급 확대

* FTA 활용 컨설팅(개사): ('20) 4,463 → ('21) 3,050 <사업개편으로 실적 집계기준 변경>

** 원산지관리시스템 무료 보급(개사): ('20) 23,204 → ('21) 25,426

- (해외센터) 신남방정책, RCEP 발효 등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해외FTA 활용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유망 신흥시장 진출 촉진

* '21년 신규 개소: 캄보디아('21.6월), 호주('21.12월) → 총 15개소

□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

- (기술사업화)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업화 R&D, 기술이전·거래, 판로확보 등 전주기 지원
- 기술잠재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R&D, 투자유치,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 ('21) 57개 과제, 118억원

- 대기업, 공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기술의 對중소기업 무상이전(기술 나눔 사업) 확대
 - * 기술나눔 실적 : ('20) 226개社, 444건 → ('21) 288개社, 490건
- 대학·공공연 등이 보유한 공공R&D 성과물의 이전과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 R&D 재발견 프로젝트 지원 : ('20) 91억원 → ('21) 103억원
- 신산업분야 기업의 초기판로애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혁신수요기반의 기술개발 지원,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조달시장 연계
 - * 공공조달혁신지원단 신설 및 신규사업(공공수요기반 신기술사업화, '21년 63.9억원) 추진
 - ** 우수 R&D성과물의 혁신제품 지정(패스트트랙1) : '21년 총 39개 지정
- (R&D 국제협력)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 확대 지원
 - * 신규과제 지원 : ('17) 48개 → ('18) 57개 → ('19) 51개 → ('20) 46개 → ('21) 79개
- 유레카(EUREKA), 호라이즌(Horizon)* 등 글로벌 R&D 프로그램 참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 * 독일, 프랑스 등 범유럽 기술강국 49개국(한국 포함)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R&D 네트워크
 - ** '21년 유레카를 포함한 다자공동연구에 22개 신규과제 지원
- 기존 G2G협력과 더불어, 우리측이 필요로 하는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선도 기관과 다각적인 기술협력 지원
 - * 글로벌 수요연계형 R&D, 글로벌 협력거점형 R&D, 글로벌 기술도입형 R&D(X&D)
- 탄소중립 등 민간 중심 국제협력 지원을 위해 ①공공연구소 활용 글로벌 기술협력 협의체 발족*, ②글로벌 기술협력 지원단(K-TAG)** 확대
 - * 6개 센터(전자기술원(반도체·디스플레이), 전자통신연(전자·전기), 자동차연(자동차·운송), 기계연(기계·조선), 화학연(석유화학), 생기연(부리·철강))
 - ** 유럽·美·日 거주 한인공학자 네트워크로 국제공동R&D 타당성과제 지원 역할 수행('21년 463명)

□ 업종별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 (시스템반도체) 「K-반도체 전략」(‘21.5), 혁신성장 BIG3 회의를 통해 반도체 중소기업의 세제·금융·R&D·인력양성 등 분야별 정책 마련

- ▶ (K-반도체벨트)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 정부·지자체 신속 인허가,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 ▶ (인력·기술) 대학정원 확대, 인력 프로그램 신설, 차세대 전력반도체, AI반도체 등 R&D
- ▶ (세제·금융) 국가전략기술 R&D, 설비투자 세제지원(중소 우대), 설비투자 특별자금 지원 등
- ▶ (생태계 지원) 인프라, 투자, 규제개선 등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 (팹리스·상생)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중소 팹리스에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설계 소프트웨어, 반도체 IP 활용 지원

- (디스플레이) OLED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석박사급 우수인력 지원 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 중 국내 개발이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OLED 공정장비용 핵심 부품 중심으로 국산화 추진(‘21년 76억원)
- 중소·중견기업의 부품·장비 관련 인재 확보 지원을 위한 석사급 미래인력 양성사업 추진(‘21년 25억원)

- (엔지니어링·디자인·SW) 중소 제조 기업의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17개사) 및 중소 소프트파워 기업의 생산 아웃소싱(10개사) 지원(13.2억원)

- 지방소재(대구·울산·익산) 중소기업에 제품 제조 전주기에 걸친 설계 엔지니어링 관련 SW·장비 활용 및 기술 지원(지역별 각 4억원)

- (뿌리산업) 글로벌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간극 극복 뿌리기술 R&D 34개 과제 지원(‘21년 272억원)

*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 17개, 계속 17개 과제 지원

- 뿌리-스마트 융합 석사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확대(4개교*), 대학별 기술분야(인하대_산업지능형 SW, 한양대_3D프린팅, 센서) 추가 신설

* 인하대, 산업기술대, 조선대, 한양대

- 대·중소 상생, 주력산업 연계 등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밀크런 공동 물류 사업 등 공동활용시설 및 혁신활동 지원(79.1억원, 13개)

* 울산/영암(조선+용접·표면처리), 충주(승강기+금형), 부산(자동차+소성가공)

- (에너지) 에너지R&D 성과의 사업화 강화를 위한 '에너지R&D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수립·이행('21.3월)

- 개발선행품 지정 가이드라인 마련(9월),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R&D 평가관리지침 제정(12월) 등 관련 제도 마련 및 개선

□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절약 지원

- (에너지절약) 중소·중견기업 대상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비를 장기·저리로 용자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금리 우대('21년 3,260억원)

* 분기별 변동금리('21년 중소 1.50%, 중견 1.75% 적용), 3년거치 5~7년 상환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대상 시설(86개 항목)에 지원

- (에너지진단) 중소기업에 에너지진단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국가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유도('21년, 5.75억원)

-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1만toe 중소기업에 진단비용 30% 지원

□ ESG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 본격 착수

-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발표('21.12월)

- 국내외 주요 평가·공시기관의 평가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ESG 이행·평가에 대한 핵심사항 제시

* 공시·환경(E)·사회(S), 지배구조(G) 4개 분야 총 61개 문항 제시 → 중소기업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27개 문항 선별 제시

- ‘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 발족(‘21.12월)
 - 공급망 실사 제도 확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수출 중기 대상 ESG 모의평가 및 수출 인센티브* 제공
 - * 수출 마케팅·전시회, 판로 개척, 수출보험 우대 등 지원(무역협회, 무보, 코트라)
- 중소기업 교육 지원* 및 ESG 우수기업 포상(장관표창 8점) 수여
 - * ESG 사내전문가 육성과정 27개社, 찾아가는 지속가능경영 교육 32개社 지원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수출) 내수중견 전용트랙 신설* 등 해외마케팅 지원(‘21년 349개사), ‘세계 일류상품’ 63개 신규선정(누적 913개)
 - * 수출 비중 10% 미만 내수 중견기업 중심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구성(‘21년 49개사), 수출 멘토링 및 유망시장 발굴·진출 지원
 - (R&D)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기술개발* 및 온라인 기술문제해결 플랫폼* 지원을 통해 강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 * 중견-중소기업 상생혁신 R&D사업(‘21년 47억원)
 - (인력) 중소·중견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21년 2회) 등 매칭 지원 활성화
 - *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5.24~6.4),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9.28~10.5)
 - (성장디딤돌) ‘중소→중견’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세제 등 9개 성장 걸림돌 과제 개선 완료
 - * 초기 중견 부설연구소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구간 신설(행안부),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전체 중견으로 확대 등

제8장

환 경 부



- 글로벌담 환경기술개발사업(31.4억원)
 - 환경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수출산업화 제고를 위해 에코스마트상수도 시스템 기술개발,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 개발, 유용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과제 지원(21개)

-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27.8억원)
 - 자연재난(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환경시설의 파괴, 기능정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관리 기술개발 과제 지원(9개)

-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57.2억원)
 - 폐비닐·폐플라스틱, 폐유리병의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재활용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적 환경문제로 대두된 폐플라스틱, 폐유리병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간 사용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13개)

- 대기환경 관리기술 사업화연계 기술개발(113억원)
 -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기술, 대기환경측정 현장실증기술, 디지털 기반 스마트 측정·관리 실증 기술개발 과제 지원(21개)

-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개선 기술개발(69.7억원)
 - 재활용저해제품의 순환이용성 개선과 적정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류 및 재활용저해 전자제품 순환이용성 개선기술, 재생에너지 폐기물 재활용 기술 등 과제(10개) 지원

-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대상 기술지원(18억원)
 - 중소기업 중 악취저감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악취저감기술 지원 실시(291개소 기술지원)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기술지원(25억원)
 - 유증기회수설비 운영 주유소의 운영 방법 및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부적합률, 유증기 배출량 저감(185개 컨설팅)

- HAPs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2.5억원)
 - 기술력 부족,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제도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78개소 컨설팅)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19.7억원)
 - 굴뚝 TMS 부착 사업장 중 중소기업장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정도관리비, 유지관리비 등 일부 지원(153개소)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1,497억원)
 -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저녹스버너 설치 포함) 지원(3,755개소)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137억원)
 - 할당대상업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탄소중립 설비 설치비 지원(31개 업체, 38개 사업)
 - 연료전환설비, 폐열회수 설비, 인버터 압축기·LED 고효율 기기 등의 설비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등 지원

-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537억원)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 제공, 기존 유해성정보 일제조사·제공, 등록 전과정 지원

- 중소기업 사업장 화학 안전진단 지원사업(44억원)
 - 중소기업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취급시설 기준 등 컨설팅, 노후산단 가스·전기설비 안전진단, 맞춤형 안전교육,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등

-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22억원)
 - 기업의 자원순환목표(최종처분을 및 순환이용률) 달성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폐기물 감량,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개선 및 설비도입, 폐기물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 등 소요자금 지원 (총 33개소)

-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23억원)
 - 중소기업 사업장에 수질TMS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61개 사업장)

□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20억원)

- 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21년 10개사 추가 지정)

※ '20~'21년 누적 20개사, 기업별 연간 1억원씩 5년간 지원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업 지원(28억원)

- 물산업 육성 거점인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을 통한 물기업 기술개발 및 해외 진출 등 지원
 - 물기술제품의 스마트 기능 탑재 등 디지털 기술개발을 위한 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5개사), 물산업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3개사), 대·중·소 공동수출 지원 등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830억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345억원)
 - 컨설팅 및 사업화 자금(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등) 지원 110개사, 투자유치 지원 52개사, 재활용기업 사업화 지원 111개사 등
-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135억원)
 - 중소기업의 현장 실증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실규모 환경설비 제작·설치 소요 자금 지원(25개 과제)

* 미세먼지, 자원순환(계속) 외 녹색 신산업, 일반환경 분야까지 확대 지원

○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사업(350억원)

-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기술 개발 자금 동시 지원(신규 16개사, 계속 20개사)

* 중기부와 협업, '22년까지 100개사 선정·지원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303억원)

- 중소·중견 제조업체의 녹색전환 지원, 종합 환경관리* 설비 도입 비용 지원 및 전문 컨설팅 제공(30개사)

* 오염물질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소음·진동 최소화, 악취 저감, 에너지 절감 등

□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182억원)

-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3개국 27억) 및 해외 유망환경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통한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16개 과제, 55억 원)
-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국내 환경기업이 해당국 위탁기관과 공동으로 국내 기술을 현지에 실증하여 해외 진출 및 수출 촉진(40억원, 18과제)
- (우수 환경기업 수출기업화) 우수환경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등 제반비용 지원으로 유망 환경기업 육성(50억원, 33개사)
-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벤더* 등록,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 및 입찰 참여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10억원, 7개사)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3,111억원)

- 환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녹색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582개사 4,349억원)

□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300억원)

-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여 성장잠재력이 있는 녹색산업 영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17년부터 8개 펀드 2,035억 출자)

제9장

고용노동부

□ 기업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 신산업·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분야 훈련 및 신규 공동훈련 센터(도제학교) 지정
 - ('21년) 4차산업혁명 유망직종 훈련 7개교 279명 실시 및 공동훈련센터(도제학교) 16개교(과정추가 8개교) 신규 선정
- 학과 재구조화 실시 특성화고에 신기술·신산업 분야 훈련기관의 프로그램 등을 제공,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고졸 인력 양성 지원
 - ('21년) 8개학과(6개교), 195명 훈련 실시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사업 운영

- (인증부여) 능력 중심 인재 채용관리, 재직 근로자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
 - 양질의 고졸일자리 확대와 고졸근로자의 역량개발·처우개선을 위해 인증사업 내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 신규 도입
 -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고용지원금제도* 중소기업 신청 시 가점,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5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지원대상(선취업후학습기업)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대한민국일자리 으뜸기업,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 '21년 133개 기업(중소기업 111개 기업) 참여, 80개 기업 인증(중소기업 61개 기업)

- (기타 참여기업 지원) 인증 탈락기관 중 희망 기업에 대해 맞춤형 HRD 컨설팅('21년 6개 기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개발 활성화

- 중소기업 재직자 중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21년) 1,612천명 실시 및 200,215백만원 지원(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 ('21년) 253개 공동훈련센터를 통하여 198,871명* 훈련실시

* 대중소상생형, 전략분야, 지역산업맞춤형, 산업계주도맞춤형 및 미래유망분야 훈련인원 포함

- K-Digital Platform을 통한 디지털 융합훈련 제공 및 시설 공유
 - 전국 거점지역 내 5개소*를 선정, 2,102명이 18,292시간 시설·장비 활용
- * 한국산업기술대학교(경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충청), 부산대학교(영남),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영남), 광주과학기술원(호남)

- 오랜 경험과 고 숙련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인을 선정, 중소기업·특성화고 대상 기술전수 및 기업자문(HRD 등) 역할 수행(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 기술 및 컨설팅 능력을 갖춘 산업현장교수의 인력풀 확대* 및 중소기업 기술전수** 강화

* (인력풀) '21년 산업현장교수 172명 추가 선정

** (기술전수) '21년 중소기업 기술 및 HRD 컨설팅 1,648개소 실시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들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
 - * 임금상한액 월 300만원 이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자(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 ** 만기공제금 (2년형) 1,200만원 = 청년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기업 300만원

- ('21년) 청년 119,763명, 기업 51,162개소 신규 가입(누적 청년 507천명, 기업 11천개소)하고, 누적 133,065명의 청년이 만기공제금 수령('16.7~'21년)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지원

*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건강, 가족, 스트레스 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심리적 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

- 300인 미만 기업 및 소속 노동자 대상 15개 분야 온·오프라인 무료 사회·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단위 : 건)

구 분	합계	직무스트레스	조직내소통	업무역량강화	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내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온라인	2,329	484	193	21	1	29	592	86	217	317	5	110	20	146	38	70
오프라인	9,053	2,403	494	269	22	37	330	822	1,440	1,699	19	496	31	515	356	120

□ 고용위기 대응 지역고용촉진 활성화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 ('18.4.5.~'22.12.31.) 군산시, 통영시, 거제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 '18.5.4.~'22.12.31.) 목포시영암군

-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 ('21년) 총 1,783명 고용을 창출한 267개 사업장에 14,387백만원 지원

□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

- ('21년) 노동자 322만명(사업체 76만 개소)에 대해 1조 627억원 지원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유지 지원

- (고용장려금) 고용기회 확대, 고용안정 프로그램 운영, 고용유지조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실시한 기업에 장려금 지원
 - (고용창출) 취업취약계층 고용, 청년 고용, 장년 고용,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141,891명)
 - (고용안정) 근로시간 단축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일가정양립 환경 개선, 정규직 전환지원 등 재직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지원('21년 115,194명)
 - (고용유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338,921명)
 - (환경개선)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등에 소요되는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용자(28개소)

□ 중소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 대상 요건 확대

- (신중년 고용창출) 신중년의 어려운 고용 상황을 반영,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직무를 확대('19년 70개 → '22년 245개)하여 지원 강화**

* 만 50세 이상의 신중년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 1년간 지원)

** ('19) 3,119명, 16,642백만원 → ('20) 3,522명, 17,635백만원 → ('21) 3,996명, 19,684백만원

□ 중소기업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지원

- (컨설팅 지원) 중소·영세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2,484건)

* 근로시간단축·평생학습체계 구축·작업조직/환경 개선·임금 평가제도 개선 등 9개 분야

- (교육 지원) 근로문화 개선, 임금·평가체계 개선 등 일터혁신 주요 분야 관련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지원을 위한 교육 제공(1,684명)
 - 중소기업 CEO 대상 혁신 마인드, 경영기법, 사례 등 코칭 지원(70개소)

□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 (인건비) 사회적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21년 85,331백만원, 8,860명 지원

- (사업개발비)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기술개발 및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21년 21,280백만원, 1,249개소 지원

-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전문유통 조직(소셜벤더) 역량 강화 지원 및 공공·민간 기관 협력을 통한 온라인 판로지원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상품개선 75개, 시장 경쟁력 점검 품평회 17회, 기획전 46회 지원

□ 중소기업 유해·위험 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중소기업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보조 및 용자 지원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3,990억원, 시설개선 16,513개소 / 위험기계·기구 교체 2,770대),
▲산재예방시설 용자 (3,191억원, 2,525개소)

- 측정·특검 제도 미이행 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측정·특검 비용지원대상 적극 발굴 및 신규 사업장 설립단계부터 지원 안내 등으로 지원을 제고

*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179억원, 49,259개소),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238억원, 360,003명)

□ 중소기업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및 성과 창출

- 시험장비 및 자금여력이 열악한 중소기업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에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제품의 방호장치·보호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기여

- 연구·개발(총 소요비용 60% 이내) 및 시험장비구매(총 소요비용 50% 이내)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21년 지원 실적: 524백만원·15개사(연구·개발 5개사, 시험장비구매 10개사)

** '21년 연구개발 자금지원 효과: 고용 창출(3개사 7명 채용), 매출액 140% 증가 효과 창출

□ 우수 방호장치·보호구 제품 홍보 및 해외 시장진출 지원으로 성과 창출

-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개최 및 우수 방호장치·보호구 홍보

* 8개 사업장 8개 품목(보호구·방호장치 각 4개 품목) 발굴, 수상 제품 홍보책자 제작 및 홈페이지 홍보로 판매량 25%, 매출액 50% 증가 효과 창출

- 국내 안전모·안전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인증 취득지원을 위한 국외 시험지원을 실시하여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간·비용 절감 및 해외 시장진출 활성화 지원

* 2개 사업장의 7개 품목 시험지원 실시로 해외인증(CE마크) 방진마스크 2건 취득 및 보호복 1건 진행 중

제10장

여성가족부

□ 성별균형 포용성장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대상) 기업 내 성별 다양성 확대에 관심이 있는 기업
- (컨설팅 내용)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의 성별균형수준 진단을 통한 기업분석 제공, 기업별 맞춤형 제도설계 지원 및 관련 교육 제공 등
- (컨설팅 지원) 총 40개 기업(기관)에 성별균형 포용성장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지원 수 : ('19년) 27개 → ('20년) 18개 → ('21년) 40개

□ 여성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기업 직장문화개선 지원

- 전국 7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및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인사·노무·경영·조직관리 컨설팅, 기업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2,375개사 지원)

□ 가족친화인증 확대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를 통한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 '21년 인증기업·기관은 4,918개사로 전년(4,340개사)에 비해 13.32% 증가 하였으며 이중 중소기업이 67.4%(3,317개사)를 차지하여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는 등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인증 참여 유인책 확대

* 정부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18년) 186개 → ('19년) 211개 → ('20년) 220개 → ('20년) 239개

□ 가족친화인증제 내실화

○ 가족친화 인증기준(고시) 개정 추진(~12월)

- 가족친화인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기준 및 평가체계 등 개정 추진

○ 기업 및 공공기관의 수준조사 결과 발표(5월)

- '21년 가족친화지수는 46.9점으로 '18년보다 6.3점 상승

* 가족친화지수(FFI) : (15년) 36.1점 → (18년) 40.6점 → (21년) 46.9점

- 가족친화지수(Family-Friendliness Index, FFI): 기업, 공공기관 등의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이용 수준을 체계적·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100점 만점)

제11장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 물류효율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물류효율화) 중소기업의 물류체계 진단을 통해 개선안 수립 등 물류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제3자물류 컨설팅) 제3자 물류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물류진단, 개선안 수립 등 컨설팅 지원('21, 20개사)
 - (공동물류) 중소기업 간 운송, 보관 등 물류공동화 추진을 위해 공동화 사업 모델, 경제성 등 컨설팅 지원('21, 12개사)
 - (해외진출) 물류·화주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동반 진출하려는 경우 공급망 설계, 환경조사 등 컨설팅 지원('21, 4건)
 - 글로벌 물류체계 진단·분석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현지동향, 노무·법률 등의 현지정보도 수집·제공
- *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최대 50% 수준(4천만원 내외)으로 보조금 지원

- 친환경물류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 다각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를 확대하여 친환경물류 활동 확산
 - * '20. 310개사 → '21. 345개사, (신규 35개사 추가)
 - 물류·화주 기업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시스템, 장비장착 보조금 지원(1,246백만원, 사업비의 30~50%)
 - *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에어스포일러 등 5개 사업에 대해 419개사 선정 및 지원

- 물류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이 우수한 물류·화학기업 26개사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관리, 친환경물류 활동 확산 도모

* '11년~'21년 누적 26개사(지정증 갱신을 위한 정기점검 3년 주기로 시행)

□ 스마트건설 스타트업 지원

-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41개 업체, 64억 원)

- 전문가 1:1매칭으로 실·검증 연구 및 시제품 제작 등 기술고도화와 사업 계획 컨설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기업진단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 41개 스타트업·창업 입주기업 지원하여, 총 매출 227억원(기업 당 5.5억원), 고용 296명(기업당 7.2명), 투자유치 79.8억원 등 가시적인 성과 달성 중

* 전년 대비 기업 31→41개, 매출 127억→227억, 고용 186명→296명, 투자유치 25.1억→79.8억

□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추진

- 대학의 유휴교지를 활용하여 창업부터 본격 기업경영까지 가능한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지원*(5곳, 23,520백만원)

* 1차사업('19년 선정,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ERICA), 2차사업('21년 선정, 경북대, 전남대)

- (1차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현재 단지 조성 공사 중
- (2차사업) 경북대, 전남대 2곳을 선정('21.4)하여 산단계획 승인 신청('21.12)

□ 지역 자동차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부품 개발 공동 활용장비 구축

- 전북도 내 자동차부품 기업이 보유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원가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 2,500톤 유압식프레스(29억), 3D레이저가공기(14억), 레이디얼 드릴링머신(1억), 금형운반대차(1억) 등 공동 활용장비 구축 완료(국비 45억)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新시장 개척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기업의 新시장 개척을 위한 주요 활동비(사업성 조사비, 현지 수주 및 조사 활동비, 발주처 인사 초청비 등) 지원

* '21년도 프로젝트 지원(46건, 19억원) 중 중소기업에 80%, 중견기업 60% 지원

- 중소기업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소 지원

-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인 법률, 계약, 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설팅 제공

* '21년 법률컨설팅 26개사 30건, 전문가컨설팅 27개사 32건 지원

□ 공간정보 기반 창업기업 지원

- (맞춤형 컨설팅) 공간정보 창업기업(10개)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개선 등 안정적 초기 성장 지원(5~10월, 50회, 100H)

- (투자유치 전략교육)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기업(10개)을 대상으로 투자전략 교육(집체 7H+개별 5H)을 통한 역량강화(8.23~9.14, 120H)와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 모의IR 발표회 실시(9.15)

- (법률자문 지원) 공간정보 분야 창업기업(30개)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규제 샌트박스, 투자·근로계약, 전자상거래 등 각종 법률문제 해결 지원 (6~11월, 30회, 30H)

□ 드론 기업지원허브 운영

- 드론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업무 공간 제공 및 기업역량강화 지원('21.12. 21개사 입주)

- 드론센터 입주과정 지원, 분야별(특허·세무·금융 등)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 지원

* 시제품제작(24건), 지식재산권(22건), 투자유치 지원(93건) 등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R&D)

-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36개 과제, 130.10억원)
 -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통해 우수 기술이전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위험요소 최소화
-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78개 과제, 257.02억원)
 -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을 시장 수요 및 요구수준에 부합하도록 기술개량,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신기술 인증 확보 등 지원

□ 국토교통 혁신펀드

- 국토교통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21년까지 526억원 규모(3개 자펀드, 정부 300억, 민간 226억)의 펀드 조성하여 운용중

제12장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및 창업투자 활성화

- 창업기획자, 사업화 자금, 컨설팅 지원 등 110개 해양수산 기업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 164명, 매출액 436억원 창출
-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으로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신규일자리창출 1,482명 및 창업기업 35개사 발굴

*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 6개소(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

□ 해양모태펀드 및 수산모태펀드 지원

- (해양모태펀드) 해양모태펀드 100억원을 출자하여, 자펀드 1개를 추가 조성* 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투자지원을 통한 新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 총 143억원(정부출자 100억원, 민간 43억원)

** '19.~'21. 12월말 누적 투자 실적 : 총 16개사, 166억원

- (수산모태펀드) 180억원을 출자하여 총 255억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신규 결성*하고 수산경영체에 지속 투자하여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 도모**

* 수산펀드 2개 : 수산일반펀드 1개(150억원), 수산벤처창업펀드 1개(105억원)

** '10~'21년 간 2,285억원 규모의 15개 펀드 조성, 수산분야에 1,275억원(89건) 투자

□ 해양수산분야 연구개발(R&D) 중소기업 지원

-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상향식(Bottom-up) 산업화 연구개발 지원

- 해양수산산업 분야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53개 과제 136억원 지원
-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확인된 중소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8개 과제 24억원 지원

□ 수산물 수매자금 용자 사업의 신규 지원기업 확대

- (우수수산물) 수출 유망 상품 등을 생산·가공하는 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원료 구매부터 가공 및 수출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경영자금 1,324억원을 129개사에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대출자금 이용 시 원료 구매 의무 부담 완화*

* 대출액의 70%이상 해외 매출 시 원료 구매 의무(대출액의 50%) 면제

- (수매지원) 유통·가공업체 등이 필요한 원료를 적기에 수매토록 지원하고, ‘수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용자 수혜업체의 수매실적 관리 강화

- 분기별 수매실적을 분석(품목별 가격, 물량 등)하여 가격 불안정 시 긴급 방출 명령을 통한 수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

* 용자 대상업체 선정 시 전산입력 관련 매뉴얼 배포 및 현장 교육 실시(연중, KMI)

□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기술 개발

- (해운분야) 국적 외항선사가 노후선박을 해체 또는 매각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21년 외항화물선 13척 대체건조(21년 예산 191억원)

* 지원대상선박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중소선사 3점, 중견선사 2점)

- (항만분야) 고생산성 자동화 컨테이너 하역시스템(Overhead Shuttle System) 상용화를 위한 운영 가상 터미널 체계 개발, 항만자동화 하역장비* 시제품 제작

* Overhead Shuttle(항만 야드영역 크레인 역할) 및 Flat Car(항만 이송영역 트럭 역할)

□ 중소기업 수출입물류 지원 대책 추진

- (전용선박 제공) 中企전용선박으로 미주, 구주 등 주요 항로에 항차당 900TEU*를 제공하여, 총 126회, 14,147TEU 지원**('21.1~'21.12)

* 항차당 美서안 680TEU, 美동안 50TEU, 유럽 50TEU, 동남아 120TEU 제공

** 美서안(55회, 11,712TEU), 美동안(31회, 1,310TEU), 유럽(22회, 1,118TEU), 동남아(18회, 7TEU)

- (임시선박 투입) 정기운항하는 선박 이외에 他항로 운항일정 조정, 선박 용선, 공동운항 등을 통해 확보한 여유선박을 추가투입

- 주요항로에 총 84척 투입하여 수출화물 175,266TEU 수송('21.1~'21.12)

* (미주) 61척, 152,483TEU / (유럽) 4척, 9,586TEU / (동남아) 19척, 13,197TEU

제13장

방송통신위원회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개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방송광고의 어려움을 겪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해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송출비를 할인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 (방송광고 제작지원)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광고 26개사, 라디오 광고 18개사 등 총 44개사에 대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지원 자격 부여('21년)

* TV광고 50%(최대 4천5백만원), 라디오광고 70%(최대 3백만 원) 지원('21년 총 11.6억 원 지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사와 함께 중소기업 대상으로 방송광고 송출비의 최대 70%를 할인하는 사업으로, '21년 총 246개 중소기업에 대해 1,230억원의 송출비 할인

- 방송광고에 대한 전문 인력과 지식이 없는 중소기업이 방송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 대상기업 중 총 18개사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원효과) '21년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 효과평가 결과 제작지원 기업들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12.9%, 직원 수는 평균 7.7%(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지원액 대비 6.7배인 78.8억원의 신규 방송광고 수요를 창출함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 (개요) 자금 및 정보의 부족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및 광고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방송광고시장으로의 선순환 발전 기반 조성

-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소상공인 136개사 대상(지역 권역별 쿼터 적용 선발) 방송광고 제작비 및 로컬 방송광고 송출비 지원(총 12억원)
 - * 9백만원 한도 내 방송광고 제작비·송출비 중 90% 지원
- (방송광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대상 광고 제작·집행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광고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광고마케팅 컨설팅 제공
 - * 제작·송출 지원 소상공인 136개사 대상. 7시간 이상 대면 컨설팅 포함
- (지원효과) '21년 사업효과 평가 조사 결과, 지원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31%, 직원 수는 평균 22.4%(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소상공인 광고 송출로 인한 지역방송사 광고 매출 약 10억원으로 지역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함

제14장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소 식품업체의 안전관리인증(HACCP) 지원 강화
 - HACCP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56억원)
 - 시설 개선 후 HACCP 인증 시 최대 2천만원의 50% 지원
 - * 지원대상 : 소규모(5억원 미만 또는 21명 미만) 식품 및 축산물(HACCP 의무대상에 한함)
 - 식품 및 축산물 HACCP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현장 맞춤형 기술상담
 - HACCP 인증 전·후 기술지원 : ('21) 5,906건
 - 소규모 영업장 위해예방관리계획 확대 및 적용지원
 - 신규 영업등록 및 간편식 등 미인증 업체 적용·지원

- 첨단의약품 등 제품화 지원 강화
 -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 지원을 위한 '고강도 신속 제품화 프로그램(고(GO)·신속 프로그램)' 운영 지속
 - 임상단계부터 제품별 전담심사팀 지정, 맞춤형 상담 및 신속 심사
 - * ('21) 맞춤형 상담 31품목, 임상시험계획 심사 52건
 - 국내 치료제·백신 중 개발단계가 빠른 품목 밀착 상담 협의체 운영
 - * 개발집중지원협의체('21.4~) : 국내 치료제 개발 3개 업체(총 20회)
 - * 임상지원협의체('21.6~) : 국내 백신 개발 8개 업체 대상(총 49회)

- 개발 상담 사례집, 심사 가이드라인 등 개발 지원 정보제공
 -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5월),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6월),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6월)
 -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상담 사례집(4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사례집(5월), 코로나19 감염 동물모델 사례집(7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서 정보집(8월)
- 국내 첨단약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
 - 개발단계별, 제품별 허가심사 전주기 맞춤형 기술상담
 - * (화학약품) '제품화 내비게이터' 지정 품목 기술상담(연중), 제품화 지원 설명회(4월)
 - * (바이오약품) '마중물 사업' 대상 맞춤형 상담, 규제과학상담의날(24회, 139건 지원)
국가 R&D 전담컨설턴트 7과제 지원, 4과제 임상 진입(누적)
 - 첨단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선제적 심사 가이드라인 제공
 - * 마이크로니들 의약품(2월, 6월) 및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의약품(11월) 가이드라인, 융복합 의료제품 심사 사례집(10월)
 - 의약품 개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허가·심사 교육 제공
 - * ICH 가이드라인 온라인 교육 개최(11월), 교육누리집(www.ich-elearning.kr) 운영
 - * 첨단바이오약품 허가 교육 워크숍(6월), 비임상·품질시험 전문 교육(7월, 11월)
유전자재조합약품 신약개발 지원 워크숍(6월), 생물학적제제 인허가 지원 워크숍(10월)
 - 선진국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 개최(9월) 및 주요 수출국 규제정보 제공을 통한 국산의약품 글로벌 진출 지원
 - * 미국, 일본, 호주 등 10개 국가별 의약품허가제도 안내서 발간
- 혁신성장 차세대 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집중지원
 - '허가도우미' 운영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기 등 신속제품화 지원
 - 허가도우미 지속 운영(총 176개 제품 지원) 및 '21년 품목허가 19건
 - * 세계최초 생분해성 골절합용나사('15.4), 국내최초 로봇수술기('17.8) 등 총 58건 허가완료

- 코로나19 진단시약(전문가용, 개인용)의 맞춤형컨설팅 운영 추진('20.4.24~)

* 전문가용: 지정(29개 제품), 허가완료(19개 제품), * 개인용: 지정(10개 제품), 허가완료(3개 제품)

○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으로 전주기 밀착 지원

- 첨단 의료기기 신속허가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및 성공지원

* (대상) 정부지원과제, 핵심기술 보유업체, 수입의료기기 국산화가능 대상 144건 지원

*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반 골연령 측정 시스템('18.5), 국내최초 손목형 심전도 측정('19.3) 등 품목 허가 31건 제품화 성공('16~'21년)

○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운영으로 정보제공 확대

- 의료기기의 해외진출 확대 및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한 개발·허가·수출 등 전주기 맞춤형 정보 제공

* 해외 수출국(19개국 등) 규제 및 시장·기술 동향, 인허가절차, 부작용 정보 등 전주기 맞춤형 정보 약 600건 제공

제15장

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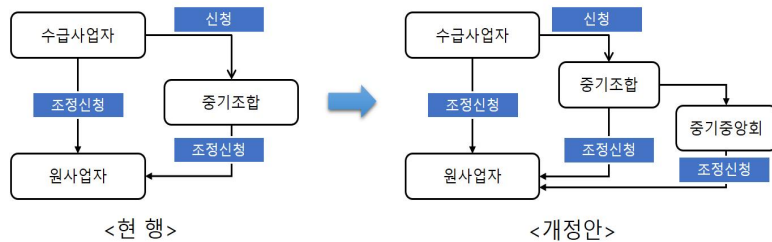
1.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 및 피해구제 활성화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협의권자①, 조정신청 사유② 확대(하도급법 개정, '21.12월)

- ① 중기조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협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 부여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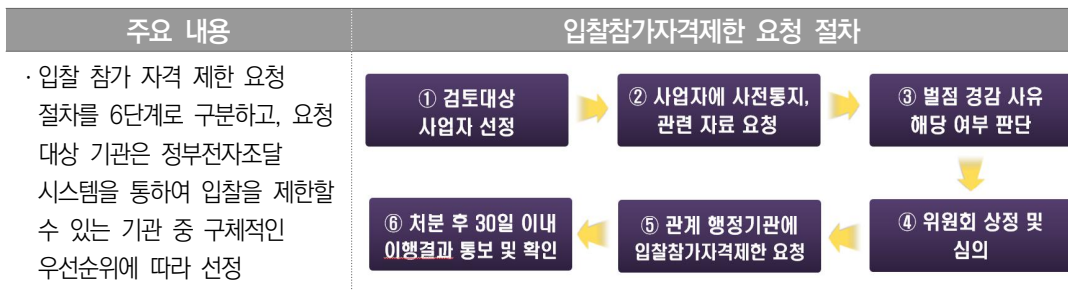
- ②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CR 약정(Cost Reduction, 협력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단가를 인하), 자동차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계약 형식

〈중소기업 피해구제 활성화〉

-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 대기업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도급법 개정, '21.8월)
- 자발적 피해구제 시 벌점을 감경함으로써 중소기업 피해구제 확대(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1.1월)
 - * 피해를 모두 구제하면 벌점의 25%~50%, 피해의 50% 이상 구제하면 벌점의 25%까지 경감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21.6월)



2.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혜택 확대

- 과징금 일시납으로 인한 자금난 완화를 위해 과징금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법에 명시(하도급법 개정, '21.12월)
- 명절 「하도급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유도
 - '21년 총 388개 중소기업체가 미지급 하도급대금 471억원을 지급받고, 총 48,758개 중소기업체가 6조 4,752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지급 받음

* 전국 5개 권역 10개 신고센터 설치운영

3. 중소기업 자산·기술 보호강화 및 기술탈취 근절

- 기술자료 유용행위 규제대상 확대
 - 기술자료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완화*(하도급법 개정, '21.8월)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된'으로 요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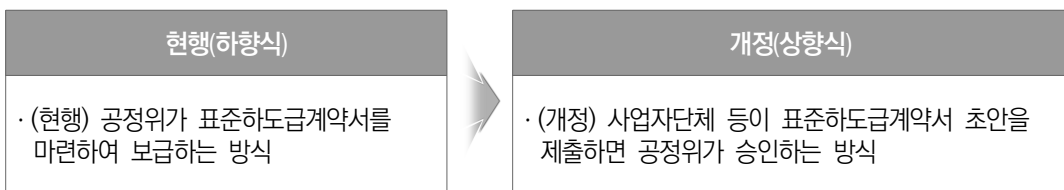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하도급법 개정, '21.8월)
- 하도급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규제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급법 개정, '21.12월)

4.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유도

-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표준계약서 활용도 제고
 -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21년 14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21.12월)

구분	업종
제정(2종)	금형제작업종, 해운업종(내항화물운송용) ※ 48개→50개 업종으로 확대
개정(12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종, 섬유업종, 소방시설공사업종, 엔지니어링활동업종, 음식료업종, 의료기기업종, 정밀광학기기업종, 제1차 금속업종, 조경식재업종, 철근기공업종, 출판인쇄업종, 화학업종

- 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안)을 제안하는 상향식 제·개정 방식 도입 (하도급법 개정, '21.12월)



- 중견기업 등 하위 거래단계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21.8월)

〈주요 개정내용〉

-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의 협약 참여 독려시 좋은 점수 부여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조업종의 '기술지원 및 보호' 항목 배점 상향
- 대기업의 협력사 안전관리시설 지원, 안전관리 관련 각종 비용 지원 등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에 대해 가점 부여
- 어음 교부일 30일 초과시 감점하여 어음 교부일 단축 유도

5.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완화*,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21.12월)

*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 완화(5,000억원→300억원), 벤처자회사에 R&D 5%이상 중소기업 추가, 벤처자회사 비중 요건 특례 신청제도 도입(전체 자회사 자산의 50%→30%)

**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7년→10년)

제16장 | 금융위원회

□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및 모험자본 공급

-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성장 기업*에 정책금융(대출투자보증) 54.5조원 공급(산기은, 신보)

* 2021년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9개 분야 306개 업종

-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기반 마련 및 투자 지속

* '20~'21년 소부장 펀드 1.2조원 조성 → '21년중 0.4조원 투자

'18~'20년 혁신성장펀드 9.9조원 조성 → '21년중 3.3조원 투자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속 발굴 및 민간투자 확산

- 10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835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에 5.6조원의 정책금융(대출투자보증) 지원

*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복지부, 해수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특허청, 방사청

○ 선정기업 중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등에 「넥스트라운드 특별세션*」 등 민간투자 유치 기회 제공**

* KDB 넥스트라운드 : 벤처기업을 위한 시장형 투자유치 플랫폼

** KDB NextRound(11개사)·NextRise(70여개사), 성장금융 K-Growth 포럼(1개사) 개최 등

○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의 시장 안착 도모

- (뉴딜펀드) 재정 5,100억원을 마중물로 5.6조원 규모 펀드를 결성*하여 뉴딜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성장자금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

* 당초 '21년중 4조원 규모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목표대비 1.6조원 초과 달성

- (뉴딜금융) 뉴딜 정책금융(대출보증투자) 52조원 지원 완료*

* 산은 20.5조원, 기은 7.5조원, 수은 11.5조원, 신보 12.5조원

□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확충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등 마련('21.3월, '21.9월)

-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中企·소상공인에게 지원 하고, 대출원리금 증장기 분할납부 등 금융부담 완화

* 산은 재무안정동행 등(2조원), 신보 밸류업 등(1조원), 기은 연착륙 지원 등(1조원)

-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신청기한 연장* 등을 통해 175조원+@ 규모의 금융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기간기금 자금 지원기한 2회 연장('21.4월 → '21.12월 → '22.12월)

- 자산·기술력을 토대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환경 구축

- (상거래신용지수) 신용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상거래 신용지수가 양호한 1,038개 기업에 2,169억원 보증 지원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21년 시범사업(신보) 운영 및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21.12월)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신보에 매도하여 조기 현금화(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을 신보가 부담하며,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은 없음)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 인하('21.1.18) 이후 '21.8월 보증료 추가 경감·지원한도 확대 실시*

* (보증료) 1~2년차 전면 면제, 3~5년차 0.4% (지원한도) 기존 1천만원 ⇒ 2천만원

- '21.1월 3조원 규모로 영업제한업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21.8월부터 경영위기업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제17장 국세청

□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대책

- (지원체계 개편) 민관합동 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 개편¹⁾ 등을 통해 유관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세무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²⁾

1) (당초) 세정지원소통·영세납세자 지원분과 → (개편) 소상공인·혁신뉴딜 지원분과

2) '21년 운영실적(본청) : 정례회의 개최(4회), 검토안건(78건)

- (납세유예)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세정지원 실시
 - 방역조치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납세자 및 지역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고지 제외 등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 연도별 납부기한 등 연장 실적 |

(만건, 조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43.0	32.7	38.9	704.4	1063.1
금액	7.7	6.9	7.1	32.3	20.6

- (가업승계 지원) 피상속인 생전에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선제적 지원

*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 세법개정내용을 반영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국세청 누리집 및 유선상담 등 비대면 위주로 제도안내 실시

-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혁신중소기업, 뉴딜기업,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 (간편조사 실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조사 지속 실시

□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 (세정지원) 코로나19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 실시

- ▶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등 연장, 최장 1년까지 압류·매각 유예, 부가세·연말정산 등 환급금 최대한 조기 지급 등
- *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 1,389만 건, 33.5조원 상당
- ▶ (직권 신고·납부 연장)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직권 연장
- * (부가) '20.2기 신고·납부(1개월)·'21.1기 납부(2개월) 연장, (소득·법인) 납부기한(3개월) 연장

- (세무검증 제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 (14천여 건)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21년말 까지 연장 시행

* (지원내용) 정기조사 선정 제외, 조사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 (기간) '18.8월~'21.12월

- (과세자료 등 적극 제공) 5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과세자료를 관련 부처에 적기 제공, 손실보상제도 법제화 지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 판단 등을 위해 매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 특수형태근로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4개 직종 대상

□ 맞춤형 사전안내 확대 및 세무신고편의 제고

- (신고도움자료) 빅데이터와 내·외부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업종·규모·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실효성 높은 신고도움 자료 제공*

* [부가] ('20) 97종, 216만명 → ('21) 98종, 238만명, [소득] ('20) 70종, 84만명 → ('21) 69종, 96만명, [법인] ('20) 40종, 23만개 법인 → ('21) 45종, 25만개 법인

- (모바일 안내) 세무신고시 조세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규모 법인 대표자*에게 「주요 공제·감면제도」를 모바일로 직접 안내

* 창업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대상(27만 여개)

- (신고편의) ARS1)·모바일2) 간편신고 확대, 모두·미리채움3) 확대, VAT 세액 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 및 대화형 신고4) 도입 등으로 납세편의 제고

- 1) [부가] 인증절차 간소화를 통한 무실적 신고, [소득] 종교인소득 모두채움
- 2)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 종교인, 비사업소득
- 3) [법인] 중간예납 신고시 직전 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을 자동 계산
- 4) [부가] 조기환급(시설투자) 신고, [소득] 단순경비율 및 근로소득 대상자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수집 확대)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 기관 의료비를 간소화자료로 추가 수집·제공

-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회사가 모바일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여 납세편의 증진

* ①간소화자료 제출 → ②공제신고서 작성 → ③지급명세서 제출에 이르는 연말정산 전 과정이 모바일에서 가능하도록 고도화 완성

- (중소기업을 위한 책자 발간 등) 중소기업을 위한 세액공제·감면 혜택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제도」 책자 발간

- Short-form콘텐츠¹⁾, 제도설명 PPT²⁾ 등을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 및 유관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1)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등 주요세액 공제·감면 10종에 대한 홈택스 신고방법을 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공
- 2) 고용, 투자촉진, 중소기업지원 등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제도, 고용증대세액 공제 계산사례 등을 PPT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

□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주요 진출국과의 세정협력 강화

- (양자 간 청장회의)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주요국 국세청과 우호관계*를 구축,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전달 및 세정지원 요청

*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덴마크, 헝가리 등 청장급 회의 5회 개최

- (다자 간 청장회의) 지역별 국세청장 협의체*에 참여,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에 우호적 세정환경 조성 지원

* 범미주(CIAT, 6월), 유럽(IOTA, 7월), 아시아(SGATAR, 11월), OECD 청장회의(12월) 등

○ 현지 세무정보 지속 제공

- (세무애로 수집·해소) 대사관, KOTRA 무역관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세무애로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 해소방안* 모색

* 현지 세무설명회 및 실시간 화상 세무설명회 실시, 테마별 세법영상 제작 등

- (해외세정안내서 발간) 해외 세정정보를 수록한 안내서*를 발간하여 현지 세무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성실 납세 지원

* 캐나다,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대한 해외세정안내서 및 '해외납세자들을 위한 세무 안내' 리플릿

제18장 관세청

-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특화된 통관체계 구축
 - (신고혜택 확대) 정식 수출신고 보다 간소한 통관절차를 제공하면서 환급까지 가능한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 ’20.10월 구축 활용 확대*
 - * (’20.12월) 15개사 / 227건 → (’21.12월) 191개사 / 1,760천건
 - (수출 지원 사업) 관세청 주도, 민·관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추진
 - * 전자상거래 공급망 매칭 시범사업(7월~), 이커머스 매칭 비즈니스(EMB)사업(6월~), 업무협약을 통한 민·관 협업 : 쿠팡(7월), 코트라·CJ대한통운(8월), 11번가(10월)
 - (특화제도·조직 운영) 비대면·온라인 소비 등 개인무역 특성에 적합한 전용 제도를 마련*하고 전담조직(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 * 풀필먼트(Fullfilment) 방식에 대한 전용거래코드 신설, 잠정가격 신고대상 포함(사후정정 최소화)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관물류 체계 혁신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반입후 검사 수출물품을 지원대상 항목으로 추가(’21.11월)
 - * (’21년) 42천건, 74억원 지원 // ** (기존) 중소기업만 지원
 - (면세점)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점을 계획 일정에 맞춰 정상 개소*
 - * ’21.11.15. 인천공항 출국장 T1, T2에 입점

- (물류 인프라) 글로벌 셀러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유치 확대를 위해 GDC 규제 완화 및 물품 반출입프로세스 개선*

* 동물검역 대상물품의 수출국 검역증 제출 면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반출입-국외반송 시스템 개선 및 해외 온라인 투자상담회 진행

- (보세공장) 적극행정 등을 통해 보세공장 물류비 절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코로나진단키트와 임상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허용, 수출지연 철도차량의 장외장치기간 연장, 장외 작업장에서 FTZ로 직접 보세운송 허용, 동일법인 수출물품 합배송 허용 등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FTA 활용지원 추진

- (맞춤형 지원) 전국 6개 세관에 'K뉴딜·新성장기업 지원센터'를 설치('21.2월), 지역 유망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추진(총 28개 분야 889社)

* [인천] 전자상거래지원, [서울] 식품산업협회와 K-푸드 수출지원 등

- (제도지원) 협정관세 재적용 신청 제한을 폐지('21.3월)하고, 인도의 입항전 신고 의무화 대응하여 C/O 상시발급 시행*('21.4월)

⇒ FTA 수출 활용률 증가에 기여('20년 74.8% → '21년 75.7%)

* 휴무일 C/O 발급(217건, 수출금액 947백만불)

- (컨설팅·교육) 기업특성에 맞춘 종합컨설팅(287社)과 업무에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실무중심의 FTA 전문교육(2,350社, 6,087명) 제공

※ 중소기업 실무자의 수강편의 제고를 위해 비대면(원격수업·온라인과정) 교육 도입

-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자 편의를 위한 FTA-PASS 기능개선*, 중소기업 무상보급 확대(2,366社, 원산지관리비용 약 473억원 절감효과)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기능 개발, 관세청장 인정 농수축산물 원산지확인서류(16종), 원산지 확인서 유통 편의(수발신 모니터링 등) 개선

〈 2021년 FTA 활용지원 성과 〉

(단위 : 기업수)

구 분		찾아가는 상담센터	컨설팅지원	FTA전문교육	합계
지원기업 수		2,192	287	2,350	4,829
성과 유형	FTA-PASS 가입	359	130	100	589
	FTA신규활용	1,028	37	264	1,329
	인증수출자 취득	476	193	476	1,145
	소계	1,863	360	840	3,063

□ 수출기업의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해외통관 지원 추진

- (사본인정 확대) 원산지증명 통관애로가 빈번한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 기간 ‘한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사본인정* 확대’

⇒ 對아세안·베트남·인도 원산지증명서(연 29만건, 약 276억불) 사본 인정으로 연간 567억원 상당 물류비용 절감

- * ① [베트남]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C/O 사본 제출을 허용하는 지침 발행(8.17)
- ② [아세안]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9.29)에서 아세안 10개국 모두 C/O 사본인정 합의
- ③ [인도] C/O 사본 제출시 요구되는 담보완화 세칙 시행 확인(10.1)

- (애로해소활동)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관세관 및 관세당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지원

- * ① 國內, 세관 간 컨택포인트 정비(115國), 통관분쟁국과 수시 영상회의(베트남, 과테말라 등) 개최, 10대 산업협화와 협의회 운영 ② 國外, 현지기업 간담회와 연계한 청장회의(9월 우즈벡·타지, 10월 인도·러시아, 12월 튀니지), 청도주재관 직제화 등 관세관 활동 확대

※ 해외통관애로 해소('21년) : [해소] 149건, [해소율] 92.5%, [수출기업 비용절감] 682억원

- (해외 원산지검증 강화 대응) 인도의 원산지 심사 강화('20.9~)에 따른 통관애로 급증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특혜 향유 지원

⇒ [對인도 FTA 수출 활용률 증가] ('20) 74.6% → ('21) 77.8%

- * 상대국 협력 촉구('21.3. 이행위), 증빙서류(Form 1) 작성 지원('21.5.), 관세관을 통한 현지 대응

- (정보제공) 주요국 물류·통관정보(분기별 해외통관브리핑), FTA무역리포트(분기별 e-book), 해외관세 동향 제공(수시 온라인)

□ AEO활용 증대를 위한 지원활동 지속

- (진입장벽 완화) 중소기업의 AEO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규준수 및 재무건전성 공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 전체 AEO기업(873개) 중 중소기업 수는 523개로 전체의 약 60% 수준임('21.12월)

- (유관기관 협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기업**과 지속적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유지 지원 등 기업경쟁력 강화 노력

* 관세청-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협업('17~)을 통해 22개사 신규공인 지원

** 에너지 공기업과 협력('16~)을 통해 중소 협력사 대상 공인비용 지원 (53개사)

- (AEO 상호인정약정 확대) 우리나라 AEO기업이 수출상대국에서도 AEO기업으로 인정받는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지속 확대하여 우리기업에 유리한 해외통관환경 조성

* [신규 발효] 한-말련 AEO 상호인정약정('21.10월), [혜택 확대] 한-뉴질랜드 AEO 상호인정약정(혜택 대상 : 해상화물 → 해상+항공화물, '21.6월)

- (정보제공·홍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AEO 공인획득 지침서* 발간·배포

* 「AEO 공인심사 Q&A」('21.3월),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AEO 공인신청 길라잡이」('21.8월)

□ 무역통계 서비스 확대

- (통계공표) 수출입 속보치(10일 단위) 공표항목을 확대*하고, 과거 5년치 통계를 공개하여 민간의 산업·경기 등 시계열 분석 지원

* 주요 국가품목 각 8개 → 10개로 확대, 증감률에 더해 수출입 금액도 공표

- (신규통계) 관세청 수출운임 데이터를 활용, 우리 업계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수출 컨테이너 운임통계」 개발·공개(11월~)

제19장 | 조달청

□ 창업·벤처기업 등 조달시장 참여 활성화

○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및 성장 유도

- 벤처나라(창업·벤처기업 전용몰)를 통한 거래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¹⁾ 하고, 등록된 기업들이 조달우수제품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²⁾

1) ('17) 54억원→('18) 128억원→('19) 490억원→('20) 813억원→('21) 1,255억원(누적 2,740억원)

2) 지금까지 161개사가 벤처나라를 거쳐 우수제품(50개) 및 MAS(111개) 등 시장 진출

○ 서비스산업 공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정부 역점 추진 과제 뒷받침을 위해 디지털 뉴딜 서비스 등을 상품화하고 정기구독 및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 추세를 반영한 상품 개발

* ①무정전원장치 임대서비스, ②화초류 임대서비스, ③화훼 정기구독서비스, ④공기순환기 임대서비스, ⑤노트북 임대서비스, ⑥ 독도체험서비스, ⑦임시학교건물 임대서비스, ⑧소독서비스

□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해외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G-PASS기업 지정 확대¹⁾ 및 수출 지원²⁾

1) 기업 수 : ('19년) 663개사 → ('20년) 832개사 → ('21년) 1,022개사(전년대비 22.8%↑)

2) 수출실적 : ('19년) 7.4억\$ → ('20년) 7.4억\$ → ('21년) 12.5억\$(전년대비 68.9%↑)

○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 마련(관계부처 합동, 대경장)

- ①수출지원 기반 정비·보강, ②혁신조달 기업·제품 인지도 제고, ③통합과 협업을 통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 확립

○ 국내외 협업을 통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반 강화

- (국내협력) 중기부, 외교부, KOTRA 등 관련부처 협업 강화

* (중기부) 해외시장 진출 지원 협력 MOU(3.22), (외교부, KOTRA)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개최

** MOU를 통한 해외실증(Test-bed) 지원(중부발전, 6.4, 남부발전 12.10)

- (국제협력)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공공조달 국제회의 주최1」·참여2」

1」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연계 국제조달워크숍(9월) 개최

2」 OECD 공공조달 작업반 회의(10월),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11월) 등

□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기반 강화

○ 사회적 가치 반영을 통한 상생·협력하는 조달제도 정립

-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조합추천 소액수의 조달대행 확대('21.5.1)

* 2개 업종/2개 조합(30개 세부품명) → 10개 업종/13개 조합(159개 세부품명)

- 사회적 경제기업의 물품구매 입찰 시 가점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조달시장 진입 지원('21.4.1)

* (관련규정) ①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②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개정내용) 정책지원 신인도 가점항목 적용대상을 (종전) 고시금액 이상 → (개선) 고시금액 미만까지 적용 확대

제20장 병 무 청

- 전문연구요원 최대 지원으로 R&D 인력 양성·지원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연 2회 선정, 우수 R&D 인력 확보 기회 확대
 - * '21년 선정업체 : 총 300개 업체(상반기 112개, 하반기 188개)
 - ** 중소기업연구소 병역지정업체 현황 : ('19)1,571개 → ('20)1,687개 → ('21)1,682개
 -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지속 확대, 전체 배정인원내 모든 필요인원 신청중소기업 채용·편입 가능
 - * 배정인원 : ('18) 892명 → ('19) 900명 → ('20) 993명 → ('21) 993명
 - ** 편입인원 : ('18) 868명 → ('19) 886명 → ('20) 790명 → ('21) 678명
 -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19. 11. 21.) 연계 중소기업 최대 지원 및 소재·부품·장비분야 연구소 우선 배정으로 연구역량 강화
 - * '22년 중소기업 배정인원 993명, 이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체 57개 155명 배정
-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대 등 청년·기술인력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충역 채용 희망업체 상반기 추가 선정
 - * '21년 선정업체 : 총 896개 업체(상반기 199개, 하반기 697개)
 -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3,600명)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로 배정하여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 지원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 : '22년 3,155명(87.6%)

- 보충역 배정인원(7,000명)은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편입가능하도록 총괄배정
-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업체·의무자간 구인구직 매칭지원 강화
 - 고용부·자치체 등 유관기관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609개 업체 참여)
 -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352개 업체 참여)

〈'21년 중소기업 배정/편입인원〉

(단위 : 명)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배정	편입	%	배정	편입	%	배정	편입	%
13,993	11,029	78.8	993	678	68.3	13,000	10,351	79.6

제21장

방위사업청



□ 부품 국산화 지원을 통한 기술기반 기업 육성

○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 (부품국산화 지원확대) 국산화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 됨에 따라 방산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기술역량 제고

* 부품국산화 지원규모 : ('20년) 202.70억원, 32개 과제 → ('21년) 886.35억원, 75개 과제

- (일반부품국산화 시험평가비 지원) 업체 자체 개발한 일반부품국산화 품목에 대해 '21년부터 시험평가비를 지원('21년 예산 : 66.75억원)

○ 부품국산화 지원유형 다양화로 국내 방산 부품업체 경쟁력 제고

- (수출연계형 신규지원) '21년부터 수출 유망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의 국산화 과제를 신규 지원하여 국내 부품 중소기업의 해외 매출액 발생 기회를 마련

* '21년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12개 과제에 129.49억원 신규 지원

- (전략부품국산화 신설) 국내 부품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 시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유형 신설('21.12.)

〈 전략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지원내용 〉

- 개발업체 : 과제규모 및 개발난이도를 고려하여 기업 유형과 무관하게 참여가능
- 지원규모 : 최대 5년 간 총 과제비 500억원 이내(기업유형별 정부지원금 차등)
- 개발성공 혜택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수익계약 혜택

○ 국산개발 부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산부품 등록제도」 시행

- 무기체계 개발 시 등록된 개발품목의 활용을 검토하게 하는 「국산부품 등록제도」를 시행('21.7월)하여 중소기업 개발 부품의 활용도를 높여 매출보장 여건 마련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국방 참여 확대

○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강화

- (진입 :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분야 확대* 및 72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방산분야 신규 진입 촉진

* 부품국산화 컨설팅 지원 분야 신설

- (성장 : 국방벤처 지원사업) 신규과제 13개 선정 및 53개 계속과제 관리를 통해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매출 증대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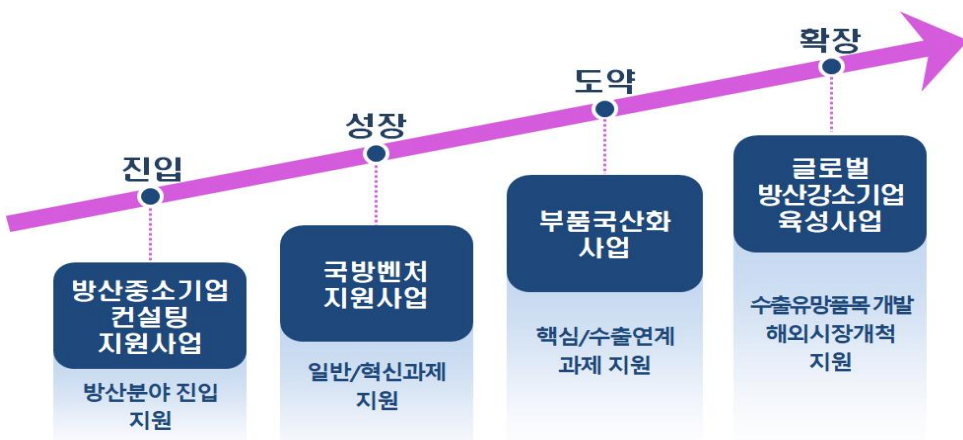
* 협약기업 군 관련 매출 : ('20년) 6,331억 → ('21년) 8,777억

- (도약 : 부품국산화 사업)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사업 신설 및 지원과제 관리 강화를 통해 매출액('21년도 218억원) 발생

- (확장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신규과제 4개 선정 및 계속과제 15개 관리 등 수출지원 강화

- (자금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용자규모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45개사 813억원 용자지원 등 자금지원 강화

* 용자 규모 : ('20년) 1,842억 → ('21년) 3,55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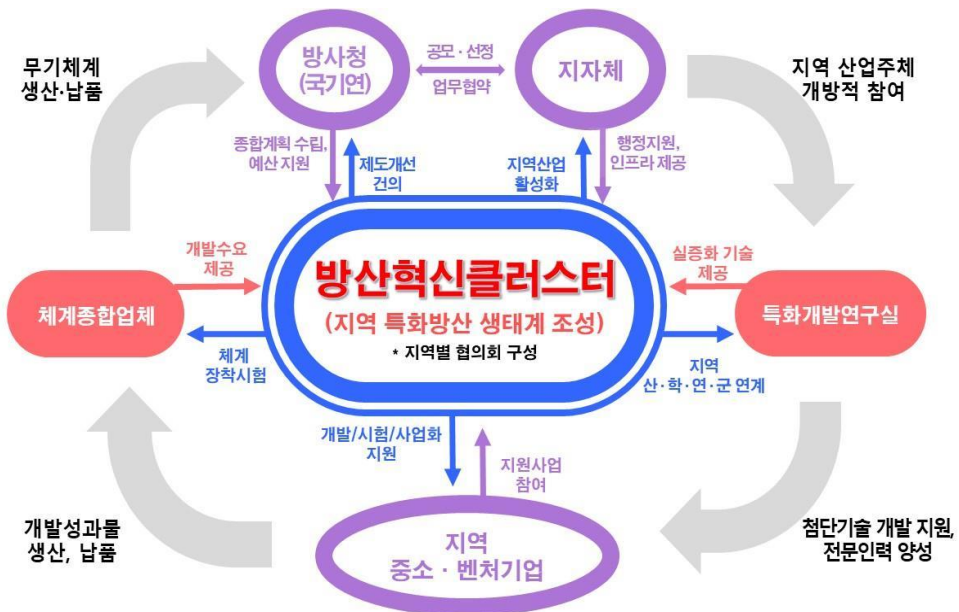
○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절충교역 일부를 반드시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으로 이행하도록 절충교역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는 중소기업 의무할당제 도입
- 국내 유망 방산중소기업의 품목을 발굴하여 국외업체와 협상시 최우선 협상 방안으로 활용하는 유망목록 제도 개선

□ 지역기반 지원을 통한 방산기업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경남·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으로 지자체 주도 방산 협력 생태계 구축 및 수출계약 추진(757억원 상당) 성과 달성
-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 경남·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지역기반 산학연 연계를 통해 주력산업 성장 시너지 창출하여 5개사 창업, 50여개 일자리 창출

〈방산혁신클러스터 개념도〉



- 일원화된 지원창구 마련을 위해 방산현장지원센터를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 센터*로 개편하고 지원영역을 방사청 수행 소 업무로 확대

* '21. 12월 기준 4개소 운영 : 구미, 창원, 대전, 판교



- 충북 국방벤처센터를 신규 개소하였고, 국방시장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국방 벤처센터 협약기업* 지속 확대

* ('20년) 441개사 → ('21년) 505개사

표 Ⅲ-1-1-1 | 지역별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현황('21.12월 기준)

센터	설립	협약기업 수	센터	설립	협약기업 수
부산	'08.12.	59	구미	'14.03.	55
경남	'09.09.	63	전남	'15.09.	44
전북	'09.09.	38	울산	'19.08.	43
대전	'11.11.	73	충남	'19.09.	39
광주	'13.12.	55	충북	'21.07.	22

제22장

농촌진흥청



- 현장수요 맞춤형 창업보육을 통한 농업인 가공창업 활성화 도모
 - (기반조성)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보급과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공동 가공시설 및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농산물종합가공센터) : 10개소, 24억원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 25개소, 12.2억원
 - * 창업보육 경영체 매출액 증가 : ('20) 97.4백만원 → ('21) 110.9백만원(13.9% ↑)
 - * 창업교육(7,115명), 시제품 개발(1,280건), 상품화 지원(683건), 기술이전(325건)
 - (기술지원) 소비트렌드, 법령, 정책 등 대내외 변화에 대응한 수준별 가공기술과 유관기관 협력 기술지원 체계 구축
 -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가공역량 향상 지원
 - * 가공창업 리빙랩 매뉴얼 개발(1종), 가공창업 Q&A집·가공기술 보급(62건) 등 교육·컨설팅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협력 기술지원
 - * 진흥원(가공기계 검정·현장기술지원), 인증원(식품안전관리 MOU, 현장컨설팅) 등
-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 (상품개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우수상품 개발 및 상품성 개선 지원
 - 사업규모('21) :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12개소, 국비 6억원)
 - * 마케팅 참여 경영체 매출액 증가 : ('20년) 199.5백만원 → ('21년) 234.2백만원(17.4% ↑)

- 민간기업 협력을 통한 농가맛집 메뉴 활용 포장형 상품개발확대

- * 롯데마트 공동 밀키트 개발(1종): 매출 258백만원(6개월), 참여농가 로열티 수익발생
- * 외식기업 연계, 즉석제조판매 가능한 포장형 상품 개발(4종), 사례집 제작(500부)

○ (소비확대) 소비변화에 따른 온라인, 비대면 등 판매기회 제공

- 비대면 소비변화에 따른 라이브방송 등 새로운 마케팅 모델 구축

- * 우리청 대표채널 개설, 특화작목 + 가공상품 판매(8개소, 시간당 평균매출 5.8백만원)

- 농업인의 온라인 마케팅 기회제공 및 역량강화를 통한 판로확대

- * 온라인 채널 입점 및 판매지원(60개소), 참여 대상자 역량교육(6월, 122명)

-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상품개발 및 판매 우수사례 선정 및 홍보

- * 가공상품 마케팅 우수사례 경진(8개소, 장관 1·청장 7), 선정사례 소개·홍보

□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생산안정화 기반기술 개발

○ 기능성 지역농산물 접목 식육 간편식 개발 플랫폼 구축

- (생산) 기능성 강화 차조기·수박 재배기술접목 계약재배단지 조성

- * 생산체계 구축 : 차조기(3,300 m²), 수박(5,500 m²) 계약재배 착수(5월)
- * 간 마늘 전처리(유기산0.5%, 5분) 최적화로 위생성 향상 : 미생물 84% 저감

- (소재화) 기능성 농산물(달래 등)활용 식육 간편식 소재화, 생산공정 설정

- * 지역 식육 HMR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7주)

- (제품) 차조기와 라이코펜 고함유 수박을 이용한 시제품 개발

- * 수박칩 생산 규격 설정, 수박 칩 OEM(팜인더), 수박시럽 레시피 개발

- (유통) 하나로마트 유통 활용 시장성 평가

- * 시제품 : 수박 칩, 차조기 환, 표고버섯 떡갈비, 달래 순대, 마늘 만두 등

			
방울토마토 소시지 볼카츠	표고버섯 만두	에스에프씨바이오티 (차조기 티 백)	수박통통젤리 (수박 젤리)

○ 기능 산채와 과일류, 콩류 결합 건강간식 및 식사대용식 개발

- (생산) 산채, 콩, 사과 의 원료 안정수급을 위한 수확기 확대

- * 겨울철 지중가온으로 병풀 생육기간 연장(파종시기 2개월 당김, 수확시기 50일 단축)
- * 콩 수확후 15℃ 저장 가장우수, 사과 에세폰 처리에 따른 수확시기별 발현 분석 중

- (소재화) 다양한 농산물 고품질 건조, 최적 블렌딩 기술 개발

- * 슬라이스잼(콩+병풀), 저당 강정(곡물+건조사과), 고구마 페이스트 제조

- (제품) 잔대·더덕 순 비빔밥, 병풀 수제비, 충주증편 시제품 개발(6월)

- * 시제품 : 산나물비빔밥, 병풀수제비, 사과·복숭아 활용 간식, 발고추장찌개 등

			
건조순 제조방법 기술이전	시제품 생산	시판제품(자연농푸드)	개발된 조리매뉴얼 (18종의 메뉴 수록)

제23장 산 립 청



- 산림임업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개발(R&D) 확대 및 중소기업 연구 개발 역량 강화 지원
 - 임업 및 산림의 안정적인 자원공급 기지화를 위한 첨단기술 개발 및 미래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 개발(R&D)’ 지원
 - ICT 기반 유통관리 시스템, 임산물 활용 기능성 원료 개발 등 산림 분야 미래성장을 위한 8개 총괄주관과제, 총 2,050백만 원 지원
 - * 해당 연구사업으로 중소기업에게 760백만원 지원
 -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 구축 및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대량 이용도 제고 및 융복합 첨단화 기술 개발을 위한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R&D)’ 지원
 - 목재 가공기술 고도화, 목재 제품화 등 목재 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32개 총괄주관과제, 총 8,550백만 원 지원
 - * 해당 연구사업으로 중소기업에게 1,831백만원 지원
 -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의 신속대응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위한 ‘산림분야 재난·재해의 현안 해결형 연구개발(R&D)’ 지원
 - 산불·산사태 예방 및 대응과 산림병해충 예찰·진단·방제를 위한 16개 총괄주관과제, 총 3,600백만 원 지원
 - * 해당 연구사업으로 중소기업에게 896백만원 지원되며 '22년도 지원액 상향 예정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임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R&D)’ 지원

- 산림경영 혁신 과 스마트 산림 소득창출을 위한 24개 총괄주관과제, 총 5,400백만 원 지원

* 해당 연구사업으로 중소기업에게 832백만원 지원되며 '22년도 지원액 상향 예정

-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산림휴양 장비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치유 인자 분석 기술 개발을 통해 산림 헬스케어의 의과학적 효과를 입증하는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R&D)' 지원

- 치유 물질·인자 활용 및 응용·공유 기술개발, 재활운동의 임상적 효과 규명을 위한 21개 총괄주관과제, 총 5,100백만 원 지원

* 해당 연구사업으로 중소기업에게 989백만원 지원되며 '22년도 지원액 상향 예정

□ 중소기업 주관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R&D) 세부사업 계속 지원

- 산업체 중심의 유망 사람과학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R&D)' 세부사업 계속 지원(4,786백만원)

- 기술이전 기업의 추가 상용화 개발비 절감 등을 목표로 미활용 산림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후속 연구 지원(11개 총괄주관기업, 평균 157백만원)

-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초기지반 구축 및 제품의 생산 실증을 위한 생산 공정 연구 지원(12개 총괄주관기업, 평균 206백만원)

- 산림과학기술 기반 창업 및 스타트업 기업 안정화를 위한 R&D 및 R&BD 맞춤형 지원(5개 총괄주관기업, 평균 107백만원)

- R&D를 통한 특허, 사업화, 기술이전 등 성과 지원으로 중소기업 성장 및 발전에 기여

- 해당 사업을 통해 5년간 매출액 350억원 및 신규일자리 750개 창출 기대

□ 중소기업의 R&D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선정평가 가산점 계속 부여

- 사회적 기업, 농업회사법인,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할 시 선정평가에서 2~3% 가산점 부여

제24장 | 특 허 청

- (IP-R&D 전략지원)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 중소기업의 핵심특허 확보, 특허분쟁 회피, 최적의 R&D 방향 설정을 위한 R&D 현장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
 - 48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 획득전략 1,672건, 장벽특허 대응전략 2,311건, R&D 방향제시 2,025건 등 총 6,008건의 전략 제공
- ※ 지원현황 : ('19) 221개(162.0억원) → ('20) 474개(262.8억원) → ('21) 486개(229.7억원)

- (IP-R&D 전략지원) 기술혁신 IP융합 전략개발 지원
 - 중소기업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허와 디자인·브랜드·서비스를 융합한 IP 종합전략 지원
 - IP 획득전략 279건, 디자인(UX/UI, 제품, 브랜드) 개발 전략 198건, R&D 방향제시전략 102건 제시
- ※ 지원현황 : ('19) 28개(31.8억원) → ('20) 31개(36.4억원) → ('21) 43개(51.6억원)

- (IP-R&D 전략지원) IP-R&D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강화
 - IP-R&D 전문인력 양성, 인식제고 등 IP-R&D 자율 수행 환경 조성
 - IP-R&D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 여성가족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협업으로 IP-R&D 교육과정 운영(101명 수료, 65명 취업)
- ※ 이공계 인력 대상 특허 빅데이터 교육과정 운영('20) 75명 → ('21) 151명 수료)

- 중소기업 연구자가 R&D를 수행할 때 특허 조사·분석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IP-R&D 가이드북 발간·배포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강화

○ (지식재산 금융)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에 대해 IP 가치평가를 통한 보증·대출·투자 등 1조 5,686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연계 지원

※ 투·융자 연계 금융지원 금액(억원): ('19) 7,168 → ('20) 11,635 → ('21) 15,686

- IP사업화기업, 지식재산 서비스기업 및 IP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2,565억 원 규모의 IP 투자펀드 조성

※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조성금액(억원) : ('18) 994 → ('19) 2,200 → ('20) 2,472 → ('21) 2,565

- 발명의 평가기관 신규 지정*('22년 4월) 실시 및 레벨제 도입·운영을 통한 평가역량 강화 유도

※ 발명의 평가기관 현황 : ('21) 20개(민간9개) →('22.4월) 23개(민간14개)

○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특허거래전문관을 통해 IP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IP기반 제품혁신·제품기반 IP패키지 이전 등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

-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거래전문관(17명)을 기술분야 및 권역별로 매칭하여 IP거래를 위한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를 지원

※ 지식재산거래소 IP거래 건수 : ('17) 491 → ('18) 564 → ('19) 653 → ('20) 523 → ('21) 584

- 역량있는 민간 거래기관 육성을 위해, 특허거래전문관을 통한 민간 거래 기관과의 IP공동 중개(민간·공공 협력형 거래지원) 실시

※ 민간·공공 협력형 거래사업 참여 이후, 민간 거래기관은 IP거래가 확대되어 '21년 중개수수료 실적 4.2배 상승 (참여前 3년 평균 214만원 → 참여後 '21년 실적 902만원)

※ 민간 거래기관 육성 현황(누적, 3년간 지원) : ('20) 6개社 → ('21) 12개社

- 중소기업이 IP 제품개발 중에 겪는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타 기관 연계를 통한 시제품 제작 등 해결방안 검증 지원

※ IP제품혁신 지원 과제(건) : ('17) 59 → ('18) 77 → ('19) 81 → ('20) 51 → ('21) 89

※ '21년 중기부, 대전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등 10개 기관과 50개 과제 연계 지원

- 대학·공공연구가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IP를 제품기반 패키지로 구성하여 민간에서 사업화하도록 이전

※ 제품기반 지식재산 패키지 구축 지원 과제(개) : ('16) 20 → ('17) 24 → ('18) 35 → ('19~'21) 18

□ 지역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IP 나래 프로그램) 창업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IP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IP전략 지원

※ 지원 기업수(社) : ('19) 460 → ('20) 709 → ('21) 700

※ 세부지원 내역(건) : 특허출원 763, 디자인출원 80, 상표출원 21, 해외출원 32건 등(총 896건 지원)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IP 애로사항을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수시 발굴 및 즉시 해소 지원

※ 지원 기업수(社) : ('19) 1,173 → ('20) 1,271 → ('21) 1,043

※ 세부지원 내역(건) : 특허맵·디자인맵 198건, 디자인개발/목업 290건, 브랜드개발 116건, 특허 기술홍보영상제작 55건, 해외 권리화 181건(총 1,139건 지원)

-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맞춤형 지식재산 종합 지원을 통한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 기업수(社) : ('19) 570 → ('20) 820 → ('21) 820

※ 세부지원 내역(건) : 해외출원비용지원 2,005건, 해외출원OA·등록비용지원 497건, 비영어권 브랜드개발 12건, 특허&디자인컨버전스 19건, 브랜드&디자인컨버전스 47건, 기업IP경영진단구축 31건, 특허·디자인맵(심화) 334건, 특허·디자인맵(일반) 73건, 디자인개발 313건, 브랜드개발 122건, 특허기술홍보영상 133건, 디자인목업 80건(총 3,666 지원)

-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4차산업 등 유망 스타트업 대상으로 지식재산 바우처를 발급하여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지원

※ 지원 기업수(社) : ('20) 269 → ('21) 197

※ 세부지원 내역('21년 기준, 건) : 국내외 IP 권리화 573, 특허조사 분석 및 컨설팅 162, 특허기술 가치평가 3건, 영업비밀보호 28건 등 총 766건의 서비스 지원

제25장 | 기 상 청

- 기상기후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체계 구축
 - 기상기업(내수, 초보, 유망) 해외 수출활동 및 마케팅 지원
 - 글로벌 기상기후 및 기상융합분야 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및 프로젝트 수주활동 지원(3개사)
 - 해외인증·특허 획득, 해외시장조사, 홍보물제작, 기술현지화 지원(10개사)
 - 수출전문기관(KOTRA) 연계를 통한 전문위원 매칭 컨설팅 지원(9개사)
 - 해외 기상산업 시장동향 및 해외 입찰정보 제공으로 국내 기상기업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참여기회 확대(연중)
 - 기상기후산업 온라인 수출상담 지원을 통해 기업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 지원기업대상 상담회 참가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8월)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기상기업 1:1 온라인 수출상담 지원(9월/13개사)
 - * 영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총 12개국 32개사 바이어 참여
 - *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발굴 및 1:1 매칭, 상담회 및 참가기업 사전·사후 마케팅, 상담회 부스 및 관련 기자재 제공, 통역 지원 등
 - 글로벌 기후적응 프로젝트 수주기반 마련을 위한 산·학·연·관 관계자 참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개최(12월)
- 기상기후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

- 기상기후산업 분야 아이템 발굴 및 창업·사업화 지원(7개팀)
 - * 창업자금 지원: 각 20백만원/7개팀
 - * 창업캠프(6.24.), 창업경연대회(10.21.) 등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지원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 ‘기획-개발-생산-판로-마케팅’ 전주기 성장지원사업 지원(9건)
 - * 개별 지원: 7건/총153.7백만원 , 컨소시엄 지원: 2건/총69.5백만원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졸업기업 후속성장지원사업(8건)
 - * 지원 내역: 8개 기업/총150백만원
 - 지역 기상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기상기후산업 창업·성장 지원(8건)
 - * 창업 지원: 2건/총 20백만원 , 융합 지원: 6건/30백만원
 - 우수특허 창출지원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3월~11월)
 - 입주기업간 협업 강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네트워킹데이 운영(4회)
- 기상기후산업 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 기상기후산업 창업·경영애로 해결을 위한 상사·심화 종합상담 지원
 - ※ 전문기관 협약 체결(2.19., 3.23.) 및 전문기관·자문가 심화상담 23건 지원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제4부

제1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2장 기술보증기금

제3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4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6장 창업진흥원

제7장 한국벤처투자

제8장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제9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10장 (주)공영홈쇼핑

제11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12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3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14장 신용보증기금

제15장 중소기업은행

제16장 한국수출입은행

제17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1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제19장 한국무역협회

제20장 한국생산성본부

제21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22장 산업연구원

제23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24장 한국디자인진흥원

제25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26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제27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제28장 대한상공회의소

제29장 금융감독원

제30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제1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일반현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근거, 1979년 1월 30일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2022년 기준 9.7조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중진기금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구조혁신 등 민간 참여가 어려운 고위험영역을 집중 지원하여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장 실패 보완 및 시장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중진공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경제 대전환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 성과 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코로나19 피해 연착륙을 적극 지원 하였으며, D.N.A(Data, Network, AI),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혁신성장유망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수출 마케팅, 인력양성, 지역산업혁신 등의 지원사업을 전방위로 종합 연계 지원하였다.

2021년 한해 60,1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역대 최대 수출지원성과 66.8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인력양성 사업은 성과 보상공제 가입 누적 713만명 달성, 5만명 연수 지원 등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지역산업혁신 사업은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17개 지역산업성장프로젝트 지자체-유관기관 협업 가동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중진공은 이처럼 향후에도 정부정책을 최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이 경제구조 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정책자금 용자

2021년도 정책자금 용자 규모는 60,100억원(당초 54,100억원, 증액 6,000억원)으로 총 22,592개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추경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6,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창업기업의 혁신성장과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여 팬데믹 시기에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경영 확산에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디지털 및 그린 뉴딜 분야와 비대면 유망산업을 대상으로 약 2조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였고, 정책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립하였다.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창업 활성화 및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1998년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 재창업자금지원자금이 신설되었고, 2012년에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신설되었으며, 2019년에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편입되고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이 도입되었다, 2020년에는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지원자금 및 혁신성장 분야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미래기술육성자금·고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하였다.

2021년에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예산 25,500억원(창업기반지원자금 14,000억원, 일자리창출촉진 자금 5,0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900억원, 미래기술육성 자금 1,800억원, 고성장촉진자금 1,800억원)을 11,296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표 N-1-1-1 | 혁신창업사업화원자금 집행실적(2021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창업기반지원	1,400,000	9,078	2,060,827	7,263	1,400,000
일반	1,040,000	4,705	1,449,507	4,347	1,040,000
청년전용창업	210,000	3,556	392,117	2,147	210,000
시니어기술창업	50,000	249	71,324	237	50,000
비대면분야창업	100,000	568	147,879	532	100,000
일자리창출촉진	500,000	1,848	697,832	1,768	500,000
개발기술사업화	290,000	1,409	437,459	1,333	290,000
미래기술육성	180,000	508	245,907	490	180,000
고성장촉진	180,000	453	254,337	442	180,000
계	2,550,000	13,296	3,696,362	11,296	2,550,000

2) 신성장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등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당초 구조개선자금 내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과 협동화사업을 통합하여 경영혁신자금이란 명칭으로 2007년부터 신규 추진되었다.

2009년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효율화 방안에 따라 명칭을 경영혁신자금에서 신성장기반자금으로 변경하였다. 2010년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신성장기반자금에 통합하였고, 2014년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2015년 고성장(가젤형)기업 전용자금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2018년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을 신설하였다. 2019년부터는 혁신성장지원과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으로 이원화하였다. 2021년에는 저탄소·친환경 제조기업을 지원하는 Net-Zero자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V-1-1-2 |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실적(2021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혁신성장지원	1,150,000	2,369	1,643,973	2,128	1,150,000
제조현장스마트화	600,000	458	838,951	416	600,000
Net-Zero 유망기업 지원	20,000	98	28,740	90	20,000
계	1,770,000	2,925	2,511,664	2,634	1,770,000

3)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대형사고 및 재해 피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거 구조개선자금 내 특별경영안정사업의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재해복구 지원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하였고, 2009년 사업전환지원사업의 회생 특례지원자금까지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하였다. 2016년에는 수출금융을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으로 이관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유지플러스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표 IV-1-1-3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2021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일시적경영애로지원	400,000	692	171,770	669	135,180
재해중소벤처기업		10	2,390	10	2,150
코로나19 피해기업		1,959	410,560	1,851	262,670
고용유지플러스	200,000	1,503	309,845	1,411	200,000
코로나 피해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200,000	1,112	276,600	1,066	200,000
계	800,000	5,276	1,171,165	5,007	800,000

4) 투융자복합금융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은 미래성장가치와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성장공유형 대출과 스케일업금융으로 나뉜다. 201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2012년부터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21년에는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을 인수하는 대출방식인 성장공유형 대출을 96개사 700억원을 지원하였고, 회사채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지원하는 스케일업금융은 66개사 700억원(민간자본 2,373억원)을 지원하여, 총 164개사에 1,40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IV-1-1-4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2021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성장공유형 대출	70,000	259	307,500	98	70,000
스케일업금융	70,000	-	-	66	70,000
계	140,000	259	307,500	164	140,000

5) 모태조합 출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유망 창업·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조합 출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펀드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등 10개 부처(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부처 출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계정별로 운영(21년말 기준 19개 계정)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모태조합은 7조 2,775억원을 출자하여, 총 1,015개, 32조 9,353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운영 중으로 출자금 대비 4.5배의 승수효과를 달성하였다.

표 N-1-1-5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2021)

(단위 : 억 원)

구분	중진	청년	엔젤	지방	혁신 모험	소재 부품 장비	문화	특허	영화	과기 정통	연구 개발 특구	보건	관광	스포 츠	환경	교육	도시 재생	국토 교통 혁신	해양	계
'05-'15	11,101	-	2,090	100	-	-	4,661	1,600	520	1,100	-	800	130	200	-	-	-	-	-	22,302
'16	1,000	-	-	-	-	-	360	-	100	370	-	-	100	200	-	-	-	-	-	2,130
'17	5,000	3,300	-	-	-	-	530	-	180	200	-	-	150	70	200	120	-	-	-	9,750
'18	575	-	-	-	4,000	-	540	200	100	150	-	-	170	100	130	150	-	-	-	6,115
'19	2,400	-	-	-	500	-	630	100	80	150	-	-	130	100	280	150	200	-	200	4,920
'20	5,100	600	-	-	3,700	600	1,130	200	240	150	95	-	300	100	200	150	200	300	200	13,265
'21	8,700	600	-	-	800	600	1,248	200	350	300	95	-	450	130	300	120	100	200	100	14,293
계	33,876	4,500	2,090	100	9,000	1,200	9,099	2,300	1,570	2,420	190	800	1,430	900	1,110	690	500	500	500	72,775

6)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과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자금과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하의 수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급증기업 및 수출선도기업에 대한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전용자금을 지원하였다. 총 2,380개사에 5,00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기업이 수출성장률 22.9%를 달성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 및 수출 회복에 적극 기여하였다.

표 N-1-1-6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지원실적(2021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150,000	1,019	219,680	959	150,000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350,000	1,500	535,258	1,421	350,000
계	500,000	2,519	754,938	2,380	500,000

7) 재도약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은 실패경영인 및 부실징후 기업 그리고 위기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자금이다. 업종전환 및 추가, 사업재편, FTA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자금, 실패경영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창업 자금 및 부실징후기업 정상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에는 재도약지원자금 예산 2,500억원(사업전환 1,000억원, 재창업 1,000억원, 구조개선 500억원)을 1,111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표 IV-1-1-7 | 재도약지원자금 지원실적(2021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자금	100,000	233	137,892	218	100,000
재창업자금	100,000	774	171,825	654	100,000
구조개선전용자금	50,000	259	79,867	239	50,000
계	250,000	1,266	389,584	1,111	250,000

8)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경기침체 지속, 저성장 경제환경 하에서 증가하는 위기 및 실패기업의 경영애로 극복과 원활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2014년 서울 재도전 종합지원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말 기준 총 18개소가 운영 중이다. 센터는 사전 전문상담, 자금지원, 멘토링, 연계지원 등 맞춤형 원스톱 재도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2,991건 상담이 실시되었다.

표 IV-1-1-8 | 재기지원 상담실적(2021년)

(단위 : 건)

재기지원 상담		
일반상담*	전문상담**	계
2,926	65	2,991

* (일반상담) 재창업·구조개선전용자금, 타사업연계, 재기컨설팅 등

** (전문상담) 신용회복, 법률·세무 상담, 개인회생·파산 등

나.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74조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다.

1979년 해외기술도입 및 중소벤처기업 해외투자지원 등 해외산업협력지원을 시작으로, 1996년 공공부문 최초 온라인 B2B사이트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구축하고, 1998년 수출인큐베이터(BI)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8년 해외마케팅 지원 창구 단일화 조치 및 2013년 중소·중견기업 총력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재의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이 완성되었다.

중진공은 33개 지역본·지부의 국내 인프라와 정책자금 등 다양한 연계지원 수단을 통해 ‘유망내수기업 및 제품발굴 → 육성 →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해외 진출’ 순으로 이어달리기식 지원을 한다. 대내뿐만 아니라 대외 지자체, 수출유관 기관과 협업하고 공동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지원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금리환급, 수출전용자금 지원규모 확대 추진 등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출 성장단계별(내수기업 → 수출초보 → 수출유망 → 수출성장)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 지원을 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선복 부족 등 물류 애로가 심화되었으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확대, 코로나19 재확산,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 수출 환경 급변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잇따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진공은 물류바우처사업을 신설하고 글로벌 특송사와 협업하여 물류지원체계를 고도화하였으며, 국내외 온라인수출플랫폼 연계 강화와 VR, 3D 등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해 온라인수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내외 중진공 거점을 연계하여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사전시장테스트를 지원하는 Pre-BI를 신규 도입하였다. 이처럼 여러가지 난관 속에서도 중진공은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증진에 기여하였다.

1) 수출바우처사업

수출바우처사업은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등 수출성장단계에 따라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스타트업,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글로벌강소기업을 지원하는 혁신바우처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 역량강화 교육, 홍보 및 제품 디자인, 온라인 수출지원, 해외시장조사,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수출규모·역량별로 맞춤형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저변 확대와 수출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2021년에는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혁신바우처 지원 분야에 신산업·K-Bio 모집유형을 추가하는 등 지원분야를 세분화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총 109억원 규모의 하반기 추경예산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으로 운용하여 급격한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적극 대응하였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매칭페어를 연 2회로 확대 개최하여 참여기업의 서비스 매칭을 활성화하고, 해외거점을 활용한 현지판매전을 통해 소비재 해외판매를 촉진하였으며, 수출지원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탈락기업 중 일부를 추가 선정함으로써 수혜범위를 확대하였다.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은 수출역량과 잠재적 성장성이 높은 3,929개사에 총 1,173억원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24.5%의 수출성장과 7.2%의 고용증가를 달성하는 등 높은 지원성과를 창출하였다.

표 IV-1-1-9 | 수출바우처사업 수출 성과(2021년)

(단위 : 개사, 억 원, 백만 불, 명, %)

지원기업수	지원금액	수출성과		고용성과	
		실적	증가율	실적	증가율
3,929	1,173	8,941,278	24.5	101,445	7.2

* 전체 수출중소기업 수출증가율 16.2% 대비 8.3%p 상회

2)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역사절단과 해외전시회 등 해외마케팅과 해외바이어 알선지원, 계약실무, 무역협상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증진공은 해외마케팅창구 단일화 조치에 따라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전시회 등 현지마케팅이 전면 중단되자, 온라인 기반으로 해외전시회 2회, 무역사절단 39회, 수출상담회 13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6회 등 비대면 사업을 60회 추진하여 972개사, 4,819회의 상담을 지원하였다.

표Ⅳ-1-1-10 |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상담 및 수출계약 실적(2021년)

(단위 : 개사, 건, 백만 불)

유 형	지 원		성 과		
	횟수	참가기업	상담금액	상담횟수	계약체결액
해외전시회	2	10	2	175	3
무역사절단	39	658	10,553	3,569	1
수출상담회	13	185	89	909	18
지역특화마케팅	6	119	1	166	13
계	60	972	10,645	4,819	35

3)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청년글로벌마케터 사업은 청년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청년기업 대상 교육 및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2021년에는 총 162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이 중 수출기업 123개사의 수출성장률은 19.2%로 중소기업 전체 수출증가율 17.6% 대비 1.6%p 높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내수기업 39개사 중 8개사가 첫 수출에 성공하여 20.5%의 첫 수출성공률을 달성하였다.

표Ⅳ-1-1-11 |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지원실적(2021년)

(단위 : 개사, %)

구 분	지원기업 수	성 과	
		평균 수출증가율	첫수출 성공률
청년글로벌마케터	162	19.2	20.5

4) 글로벌조달마케터사업

글로벌조달마케터사업은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1년 신규사업으로, 주요 지원내용은 국제기구 조달시장 종합컨설팅, 조달마케터 인력육성 지원이다.

최근 3년간 연 10건 이상의 입찰수요가 있고 한국기업이 수주 가능한 유형으로 8대 유망 품목을 지정하였으며, 해당 품목 관련 중소기업 4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지원기업 40개사 전원 UN조달 벤더등록에 성공하고, 8개사는 UNOPS Possibilities 승인을 취득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UNGM 및 UNOPS 입찰을 전방위로 지원하여 총 181건(UNGM 입찰 141건, UNOPS Possibilities 40건)의 투찰을 진행하였으며, 지원기업 1개사는 수주에 성공하여 23,800달러 규모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IV-1-1-12 | 글로벌조달마케터사업 지원실적(2021년)

(단위 : 개사, 건, 달러)

구 분	지원기업 수	성 과	
		입찰건수	납품금액
글로벌조달마케터	40	141	23,800

5)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현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시제품 제작, 바이어 테스트 등 제품 현지화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 현지화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유럽·중국·일본·베트남·UAE 진출을 희망하는 현지 유망산업 분야 중소기업 113개사를 지원하여 약 180억원의 투자유치, 인증 획득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진출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출인큐베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입주제(Pre-BI)를 실시하여 549개사를 지원, 583백만달러 수출성과를 창출하였다.

2021년 말 기준, 수출인큐베이터는 미국(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시안, 충칭), 일본(도쿄),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멕시코(멕시코시티), 카자흐스탄(알마티), 칠레(산티아고), 태국(방콕), 미얀마(양곤) 등 12개국 20개소 260개실이 운영되고 있다.

표 IV-1-1-13 |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2021년)

(단위 : 실)

지역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UAE	멕시코	카자흐스탄	칠레	태국	미얀마	계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시안	충칭	도쿄	호치민	하노이	모스크바	두바이	멕시코시티	알마티	산티아고	방콕	양곤		
입주규모	16	20	10	19	15	15	17	14	22	7	8	15	15	8	11	9	7	9	10	10	260	

5) 코리아스타트업센터(K-스타트업 센터)사업

코리아스타트업센터(K-스타트업 센터) 사업은 전세계 혁신 거점에 설치된 해외 진출 플랫폼으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해 네트워크, 공간 등을 종합 지원하여 현지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국가별 창업생태계, 정책방향 및 해당국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스타트업 센터를 조성한다.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말 기준, 싱가포르, 이스라엘, 인도,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미국총 7개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 중 미국(시애틀), 인도(뉴델리), 싱가포르(싱가포르), 스웨덴(스톡홀름) 4개소에는 중진공이 거점형 센터를 직접 설치·운영 중에 있다.

표 IV-1-1-14 | 코리아스타트업센터 개소현황(2021년)

구 분	미국 (시애틀)	인도 (뉴델리)	싱가포르	스웨덴 (스톡홀름)	프랑스 (파리)	핀란드 (헬싱키)	이스라엘 (텔아비브)
개소시기	2019년	2019년	2020년	2020년	2020년	2020년	2019년
특화업종	자율주행 리테일	에듀테크 에그테크	핀테크 스마트시티	AI 그린산업	문화콘텐츠	AR, VR 스마트에너지	의료바이오 방산

6) 글로벌협력기반구축사업

국내·외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유용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정보 및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국제기구 및 해외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MOU체결(13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류(7개국 29명), 매칭상담회 및 세미나(6회), 정책담당자 연수(3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B2B 매칭상담회(17회)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115개사가 332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하였다.

표 IV-1-1-15 | 해외협력기반 실적(2021년)

(단위 : 회)

구 분	실 적	내 용
MOU 체결	13건	카자흐, 인도, 미국, 러시아, UAE 등 6개국 13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류	29명	중국, 베트남, 독일, 인도 등 7개국 29명
세미나 및 설명회	6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경영전략 세미나 등 6회
B2B 온라인 상담회	17회	인도, 태국, 우간다 등 15개국과 17회 B2B 상담회 제공
해외 정책담당자 연수	3회	ACCMSME, 케냐 스타트업 정책담당자 연수 등 3회

7)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이 2017년도부터 산업부 수탁 ‘해외지사화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중진공, 코트라, OKTA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증진공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컨설팅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민간 컨설팅 기업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해외지사화 사업의 수행사로 활용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37개국 123개사의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지정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협력파트너 발굴, 법률자문, 기술수출, 현지법인 설립, 국제조달시장 진출 등 다양한 해외진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IV-1-1-16 | 해외지사화사업 지원실적(2021년)

(단위 : 건, 백만 불)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기업 수	475	370	370	370	370
수출실적	902	353	379	221	진행중
투자유치	3.6	-	-	-	
현지법인(지사)설립	11	7	2	3	
기술협력 계약체결	4	5	-	-	

* 사업기간: ('19년) '19.1월~'20.8월 / ('20년) '20.1월~'21.8월 / ('21년도) '21.1월~'22. 8월

8) 해외기술교류사업

해외기술교류사업은 한국과 신흥국 정부간(G2G) 협력을 통해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해외 현지기업에 수출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기술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국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수요·공급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칭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술교류단의 현지파견 및 사후지원을 통해 기술수출을 촉진한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0회의 온라인 기술교류상담회를 기획·운영하고, 현지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국내 기술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국내 공급기업 376개사와 1,617개의 현지 수요기업을 매칭하여 123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개최국가, 상담횟수 확대 등 사업의 외형 확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였다.

표 IV-1-1-17 | 해외기술교류단 운영실적(2021년)

(단위 : 개사, 건)

국가	회차	국내공급기업	해외수요기업	상담	MOU
카자흐스탄	1	10	53	53	2
일본	1	10	47	47	3
	2	1	1	1	-
말레이시아	1	10	57	57	16
	2	2	3	3	-
인도	1	10	56	56	1
중국	1	9	42	42	-
	2	8	14	14	-
	3	10	35	35	2
	4	7	13	13	-
	5	15	78	78	4
UAE	1	15	61	61	-
태국	1	15	69	69	5
	2	5	18	18	-
몽골	1	13	99	99	-
러시아	1	10	51	51	-
	2	10	49	49	13
	3	9	13	13	-
	4	10	18	18	-
	5	10	50	50	6
베트남	1	10	52	52	7
	2	5	5	5	-
	3	6	6	6	1
	4	9	43	43	3
인도네시아	1	10	86	86	16
	2	15	76	76	9
	3	10	82	82	2
캄보디아	1	10	65	65	4
터키	1	12	59	59	-
	2	9	31	31	-
총 계	63	285	1,332	1,332	94

9)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온라인수출지원사업은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을 통해 해외홍보 및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 대상 디지털 무역환경에 부응하는 다양한 온라인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6년 공공기관 최초로 개시하였다. 온라인수출인프라 구축, 기업 및 상품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무역 전문가를 활용한 거래알선 및 사후관리 등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에 꼭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수출플랫폼 내에 지원기업을 위한 상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전용 상품관을 제작한다. 구글, 야후 등 바이어가 주로 이용하는 해외 유명 사이트 대상 검색엔진최적화(SEO) 및 키워드 광고를 지원하여, 유효 구매오피 발굴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 및 상품 특성을 고려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활동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약 1만6천개의 신규 수출 유망상품을 발굴하였고, 총 128백만달러의 온라인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온라인수출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해외바이어의 구매오피에 대해 「인콰이어리 검증→對 바이어 협상→수출계약 체결→사후관리」의 수출 쏠단계를 지원하는 구매오피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총 35,498건의 사후관리를 지원하였다.

또한, 고비즈코리아에 축적된 데이터(국내기업 상품정보, 해외바이어 관심품목 등)를 AI화하여 최적의 국내기업 추천하고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홍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고비즈코리아 SNS 채널을 활성화하여, 국내 우수기업 및 상품 홍보, 자체이벤트, 정책 홍보 등을 통해 팔로워 수 60만명, 페이지뷰 53백만뷰를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최대 70% 이상의 할인과 무료샘플 등을 제공하는 고비즈 Week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104개사 173개 제품에 대해 총 674건의 인콰이어리를 획득, 958천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2021년에는 22백만명이 고비즈 코리아에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N-1-1-18 |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지원실적(2021년)

(단위 : 건, 개사, 백만 불)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입점기업수(누적)	61,218	68,021	72,634
구매오피	20,374	32,271	35,498
수출성과	53	114	128

10)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지원

전자상거래활용 수출사업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수출대행, 직접수출, 자사몰 진출 등 단계별 육성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한다. 2021년에는 총 7,837개사를 지원하여 462백만달러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였다.

전자상거래활용 수출사업 중 온라인수출대행 사업은 아마존, 쿠팡 등 글로벌 쇼핑몰 판매경험이 풍부한 기업을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중소벤처 기업 제품의 온라인수출(판매)에 필요한 전 과정을 대행하여 지원한다. 2021년에는 협력 플랫폼을 확대하고, 시장별 특화 전문셀러를 활용하는 등 수출대행 방식을 다양화하였으며, 일본, 러시아 등 현지 쇼핑몰 내 한국관 구축 및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지원기업 3,658개사가 31백만달러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온라인직접수출 사업은 전문기업을 활용한 글로벌 쇼핑몰 입점 교육·컨설팅, 테스트마케팅 및 유망기업 후속마케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2021년 1,003개사가 83백만달러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사몰 진출 사업은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의 자가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직접판매, IT서비스 등 보조금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우수 자사몰 비대면 IR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원기업 84개사가 163백만달러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였다.

온라인전시회사업의 경우 IT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오프라인의 '물리적·시간적·비용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전시회를 연중 상시개최 하고, 926개사에 상설 전시관 구축 및 브랜딩을 통한 전시관 활성화 마케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산재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물량을 집적하여 물류비 절감 및 해외 진출을 촉진시키는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은 2021년에는 글로벌 플랫폼 (6개사) 및 전자상거래 특화 민간물류사(9개사)와의 협업을 통한 원스톱 물류 체계를 구축하여 최저 물류단가 제공, 국내 및 해외 물류창고 지원, 국가·시즌별 물량집적 프로모션을 지원하였다. 한해 동안 총 2,166개사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였으며, EMS 비용을 기존 할인율 목표(50%)보다 18.6%p 높은 68.6%로 할인 제공하고, 물류거점 지원 및 물량집적 프로모션을 통해 185백만달러의 판매 실적을 달성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표 IV-1-1-19 |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지원 사례(2021년)

온라인쇼핑물 판매대행		
온라인전시관 홍보영상 제작	자사물 비대면 IR	라이브 커머스 지원
		

다. 인력양성 및 창업

인력양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인력 부문에 있어 기업으로의 원활한 유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통하여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벤처기업이 국민경제의 주역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N-1-1-20 | 중진공 인력양성사업 분야(2021년)

구분	인력유입		일자리 발굴·매칭	인적역량 강화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사업	산학협력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및 성과공유	기업인력 애로센터	연수	성과보상공제
주요내용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	우수 중소벤처기업 지정·홍보 및 성과공유 문화 확산	취업컨설팅, 취업매칭	단기 집합연수 웹비나연수 이러닝연수	성과보상금 형태의 공제기금 운영

인력양성사업은 1982년 중소벤처기업연수원(경기도 안산) 개원과 함께 연수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4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산학연계 인력양성 사업을 이관 받고, 성과보상공제기금이 출범하면서 확대되었다. 2018년에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사업 및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취업활성화를 위한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이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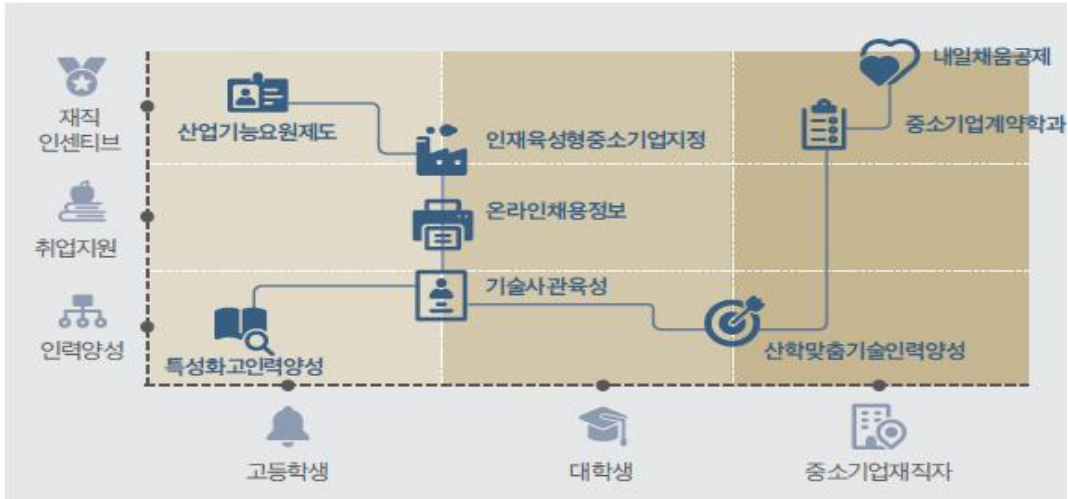
특히 6개 연수원을 거점으로 한 광역별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진공 전국 32개 지역본·지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맞춤형 인력 지원과 인력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사업)간 연계지원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1)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은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특성화고·대학을 통해 우수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벤처기업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중진공은 선취업·후진학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일·학습 병행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의 유입, 양성 및 장기재직을 견인하고 있다.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사업 등 총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용부터 장기재직 유도, 기업 역량강화까지 이어지는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 IV-1-1-21 |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체계도



특히,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2021년 215개 특성화고를 지원하였다. 핵심 프로그램인 취업(산학)맞춤반 과정을 통해 8,732명을 지원하여 8,473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이 중 5,416명(63.9%)을 취업연계하였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거점학교 18개교를 지정하여 스마트제조 인력양성 관련 교육운영을 지원하였다.

표 IV-1-1-22 | 사업별 주요 추진실적(2021년)

구 분		추진 실적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215개 특성화고에 8,732명이 참여하여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 수업, 진로지도 및 연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평균 1.4억 내외 지원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기술사관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개 사업단(1,172명)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2,593백만원 지원 및 관리
	중소기업 계약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48개 대학, 70개 계약학과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에게 학과 운영비 및 등록금 지원(2,065명, 11,603백만원 지원) 인공지능(AI) 분야 3개 학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2개 학과 등 총 5개 학과 신설

2)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및 성과공유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사업은 우수 중소벤처기업 지정 및 홍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중소벤처기업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입하는 사업이다. 2021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280개사를 지정하고, 우수사례로 19개사를 발굴하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노력을 이어나갔다.

특히,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12인을 선정하고, KBS 1TV <사장님이美쳤어요(총 7편)> 방영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인의 우수사례를 소개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국정과제 41번 목표 달성을 위해, 대-중소벤처기업 임금격차 축소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우수인력 유입을 확산하고자 <중소벤처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성과공유기업의 정의, 성과공유 유형,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래성과공유기업 72,222개사를 지정하였다.

중진공은 성과공유기업 확산을 위해 국내 최초로 사업주-근로자간 미래성과공유 협약서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공유 도입증빙자료 제출 청구인 성과공유기업 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설하였다. 또한 성과공유기업 확인기준 등을 규정한 고시를 개정(’20.4)하고, 2021년 8월부터 복지플랫폼 활용 우수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편입하여 성과공유기업의 유형을 확대하였다. 성과공유 문화 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사전 협조한 9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전광판 176개소를 활용하여 홍보도 적극 수행하였다.

3) 연수사업

1982년 중소벤처기업연수원(본원 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글로벌 리더십연수원(2014년, 태백), 충청연수원(2021년, 천안) 등 6개의 지역 연수원이 개원하였다. 중진공은 연수원을 통해 임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연수사업을 운영하였으며, 39년간 중기재직자를 포함하여 총 160만여명의 인력양성에 기여하였다.

2021년에는 전국 6개 연수원에서 50,976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정과제인 스마트제조인력 6만명 양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배움터,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 심화과정(160H/1인), 스마트랩 등의 과정을 운영하여 14,478명, 누적 5.1만명 스마트제조인력 양성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스마트랩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스마트공장 이론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1,058명을 교육하였고, 스마트공장 배움터는 VR, AI 등 다수의 첨단 기술을 도입·활용하여 9,178명을 교육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재직자의 중단없는 교육지원을 위한 비대면 연수과정을 고도화하여 이러닝 17,613명, 웨비나 21,886명을 교육하였다.

표 IV-1-1-23 | 연수실적(2021년)

(단위 : 명)

과 정		2019년	2020년	2021년
직무역량향상연수	스마트공장	11,046	12,100	14,478
	부리·생산기술	4,031	1,171	2,897
	경영·품질	5,968	3,145	13,336
	소 계	21,045	16,416	30,711
정책연수		11,643	8,303	20,265
온라인연수		17,656	18,483	-
맞춤연수		3,194	1,786	-
합 계		53,538	44,988	50,976

4) 기업인력애로센터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인력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ne-Stop지원사업이다. 중진공은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인애로 기업을 발굴하고, 채용조건을 확인하여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전문학교 졸업생, 청년장병 등의 구직자와 맞춤형 취업매칭을 진행한다. 동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17개 기업인력애로센터가 개소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 구인수요를 상시 발굴·접수하여 실시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청년 중심의 일자리 지원을 중년·신중년으로 확대하여 연령별로 맞춤형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11,102개사의 구인 기업을 발굴하여 1,630개사에 3,080명을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표 N-1-1-24 | 중소벤처기업 구인수요 발굴 및 취업매칭 실적(2021년)

(단위 : 개사, 명)

구 분	구인기업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매칭
2018년	8,223	21,434	14,082	2,657
2019년	8,513	49,185	33,462	3,520
2020년	8,626	42,814	48,248	3,626
2021년	11,102	28,659	45,117	3,080
합 계	36,464	142,092	140,909	12,883

5)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우수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취업기피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4년도 8월에 출범하였다. 동 기금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는 내일채움공제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를 연계한 신규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청년취업에서 장기재직까지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청년과 사업주, 정부가 각각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을 적립하여 만기 재직 시 근로자에게 1,200만원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2018년에는 청년일자리대책 및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공제사업을 기존 2개에서 재직청년 대상 신규 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4개로 확대하였으며, 2021년에는 공제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장기재직과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였다. 성과보상공제사업은 출범 후 2021년 말까지 190,417개사 713,147명(누적기준)이 가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IV-1-1-25 | 공제가입실적(2021년)

(단위 : 개사, 명, 백만 원)

구 분		가입업체 수		가입자 수		공제납입금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내일채움 공제	일반	4,311	27,476	11,598	70,037	153,818	708,976
	청년재직자	9,578	46,728	30,422	135,740	650,034	1,685,340
	소계	13,889	74,204	42,020	205,777	803,852	2,394,316
청년내일채움공제		18,414	116,213	119,783	507,370	1,689,338	4,757,988
합계		32,303	190,417	161,803	713,147	2,493,190	7,152,304

한편, 지자체 및 공대기업과 내일채움공제 상생협력형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공·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동반성장 및 지역균형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다. 2021년에는 민간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을 유치하여 총 179명을 신규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경상북도, 영천시, (주)케이씨씨 등 지자체 5곳과 공·대기업 7개사를 신규 유치하고 관내·협력 중소벤처기업의 공제 납입금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표 IV-1-1-26 | 공기업·지자체와 내일채움공제 간 연계 협업 실적(2021년, 누적)

(단위 : 개사, 명,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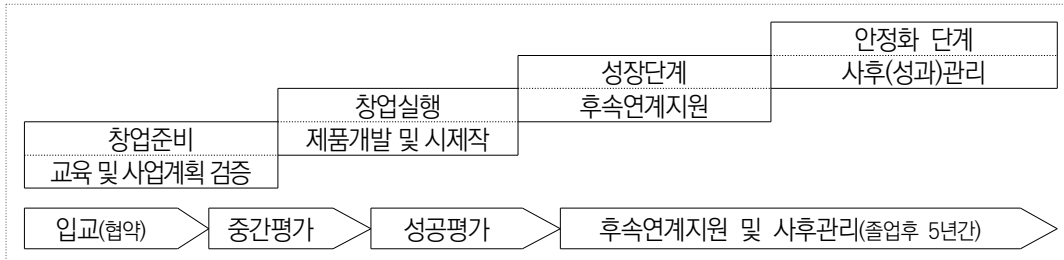
구 분		협력사 업체 수	지원 인원 수	지원액
공기업 및 대기업	한국남동발전	109	237	1,422
	한국서부발전	85	204	1,401
	한국가스공사	28	70	420
	한국전력공사	18	50	658
	CJ제일제당	53	114	821
	한국동서발전	15	42	252
	한국중부발전	20	42	252
	한국수력원자력	27	91	546
	인천항만공사	12	18	108
	한국수자원공사	32	39	234
	한국남부발전	28	70	420
	한국토지주택공사	37	229	1,374
	한국항공우주산업	20	79	284
	부산항만공사	20	44	264

	한국가스기술공사	10	15	90	
	울산항만공사	9	30	180	
	한국국토정보공사	10	10	6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2	12	
	인천국제공항공사	4	4	24	
	한국교통안전공단	2	4	24	
	KT	6	21	101	
	여수광양항만공사(21)	9	31	186	
	현대엔지니어링(주)(21)	32	179	2,500	
	(주)케이씨씨(21)	2	3	15	
	농업기술실용화재단(21)	1	1	2.4	
	국가철도공단(21)	11	11	66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	1	3	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21)	5	8	48	
지자체	강원도	219	881	8,556	
	대전시	270	594	5,346	
	울산시	162	285	683	
	충북도	870	1,408	8,448	
	계룡시	12	29	209	
	제주도	887	1,619	14,480	
	포항시	126	259	310	
	부천시	143	252	1,058	
	산청군	6	15	108	
	김해시	27	55	79	
	익산시	17	48	137	
	양주시	78	201	868	
	완주군	13	41	295	
	군포시	46	100	600	
	시흥시	65	101	581	
	진주시	102	284	93	
	포천시	67	152	656	
	인천서구(21)	34	50	450	
	금천구(21)	33	50	450	
	영천시(21)	32	50	180	
	김포시(21)	17	28	161	
	경북도(21)	28	73	438	
		계	3,861	8,226	55,951.3

6)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 창업 소단계를 원스톱 패키지방식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D.N.A(Data, Network, AI) 분야의 글로벌 역량 보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AI 실무인재 양성 및 혁신벤처 스타트업과의 매칭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스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고용·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 집약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타트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성공 창업에 기여하였다.

표 N-1-1-27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체계(2021년)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사업화 지원금, 교육·코칭, 창업 및 시제품 개발 공간, 판로지원까지 청년창업 원스톱(one-roof) 시스템으로 일괄 지원한다. 2011년 개교 이래 총 5,842명의 청년 CEO를 양성하고, 매출액 77,991억원, 일자리창출 17,308명, 지식재산권 등록 19,475건의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D.N.A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자를 선발하여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교육 및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현장 상주 보육 제공 등 글로벌 수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020년 개교 후 현재까지, 혁신 창업자 118팀을 양성하여 매출액 203억원, 고용 657명, 투자유치 153억원, 수출액 24억원, 국내외 AI 경진대회 9개사 수상 등의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이어드림 스쿨은 21년도 시범 추진을 통해 AI 분야 잠재 역량이 우수한 청년인재 100명을 선발하여 AI 특화 커리큘럼을 통해 기초부터 실무까지의 역량을 육성하고 혁신 벤처·스타트업과의 채용연계를 지원하였다.

라. 지역산업 혁신

중진공은 지역산업 혁신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보증, 수출, 인력, 기술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연계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신기술 및 신사업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면제하고, R&D 보조금 등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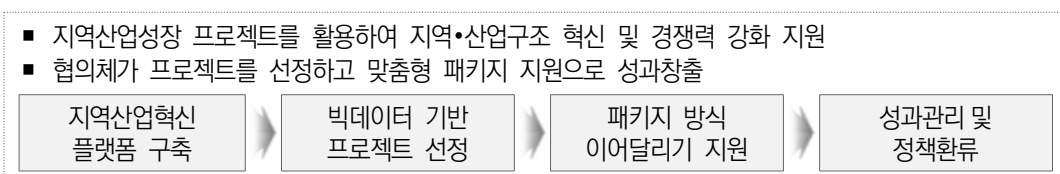
아울러, 기술·경영역량 부족으로 대외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전문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과,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진단을 통한 사업화 지원, 시장검증 및 기능개선(R&D)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1) 지역주력산업 성장촉진 프로젝트

지역주력산업 성장촉진 프로젝트(이하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는 지역주력 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종합적인 연계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1년 지역별 지역산업 정책에 중진공의 특성을 입힌 전국 17개 지역산업 성장 프로젝트를 구축하였고, 28개 산업분야 1,449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지원 기업은 프로젝트 참여 이후 전년 대비 매출액(82%), 고용인원(8%), 투자유치(87%), 특허 취득실적(16%) 등이 증가하였으며, 신기술, 신제품 개발(82%), 핵심 인력 확보 및 고용유지(77%) 등 다방면으로 성과를 내었다. 또한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는 2021년 12월까지 누적 4,679명의 신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표 IV-1-1-28 |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운영체계(2021년)



2) 규제자유특구 사업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현재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신기술 및 신사업 기반의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면제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크게 ①규제혁신 3종 세트(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②메뉴판식 특례(총 201개 특례 자율선택) ③재정 지원(실증R&D, 사업화 지원, 실증기반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중진공은 정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관련 신기술 분야 특구를 발굴하였다. 탄소중립특구 TF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5차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특구 Top-down 지정('21.7)에 성공하였으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특구사업자에게 맞춤형 연계지원(정책자금 416억원, 바우처 40건 등)함으로써 실증기술 개발을 지원하였다.

또한, 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통해 특구사업과 관련된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사업화 멘토링, IR 영상 제작, 성장공유형 자금 지원 등 사업화의 초기 기틀을 마련해주었다. 그 결과, 1~6차 29개 특구에서 2,261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표 IV-1-1-29 |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2021년)

차수	특구사업
1차 (19.7.23)	① (부산)블록체인, ② (대구)스마트웰니스, ③ (세종)자율주행, ④ (강원)디지털헬스케어, ⑤ (충북)스마트안전제어, ⑥ (전남)e-모빌리티, ⑦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2차 (19.11.12)	① (광주)무인저속특장차, ② (대전)바이오메디컬, ③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④ (전북)친환경차, ⑤ (전남)에너지신산업, ⑥ (경남)무인선박, ⑦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3차 (20.7.6)	① (울산)계몽서비스산업, ② (강원)액화수소산업, ③ (경북)산업용헬프, ④ (전북)탄소융복합산업, ⑤ (대구)이동식협동로봇, ⑥ (충남)수소에너지전환, ⑦(부산)해양모빌리티
4차 (20.11.13)	① (광주)그린에너지 ESS 발전 ② (경남)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③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5차 (21.7.1)	① (강원)정밀의료산업, ② (충북)그린수소산업, ③ (충남)탄소저감건설소재 ④ (경북)스마트그린물류
6차 (21.11)	①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3)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혁신 바우처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0년 코로나19 영향 및 경기둔화로 위기에 직면한 제조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진단과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갖춘 수행기관을 통해 메뉴판 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대 50백만원 이내에서 3개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한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을 통해 기술유망 소기업 1,672개사에 약 44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482건의 서비스(컨설팅: 414건, 기술지원:938건, 마케팅:808건, 탄소중립:322건)를 연계했다. 아울러 고탄소 배출 10대 업종 기업을 39.3% 비중(716개사)으로 지원하여 제조 소기업의 탄소저감에 힘썼다. 또한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기업을 전체 지원기업의 83% 비중(1,385개사)으로 지원하여 영세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지원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3.83% 성장하여 제조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였고, 1,579명의 고용 실적을 달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표 N-1-1-30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세부지원 프로그램(2021년)

구 분	지원 분야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컨 설 팅	경영기술전략, 스마트공장추진전략, 규제대응, 산업안전, 융복합, 탄소중립, 재기지원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마 케 팅	디자인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컨설팅(필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기술지원(선택)	시제품 제작, 에너지효율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탄소 저감 관련 설계

4) 재기컨설팅 바우처 사업

재기컨설팅 바우처 사업은 경영위기 기업들의 자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기 및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기 기업에게 진로를 제시해주는 진로제시컨설팅 사업과, 회생절차 이행을 돕는 회생컨설팅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2021년도에는 중소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309건의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가)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은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의 심층진단으로 기업에 필요한 진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정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퇴출을 유도하여 시장 내 명맥만 유지하는 ‘좀비기업’의 양산을 막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년에 5억원 규모로 총 23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로제시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이 중 181개사에는 “구조개선” 판정으로 수출마케팅, 워크아웃, 자금 등 지원정책을 연계하였고, 14개사에는 “회생지원” 처방을 통해 회생컨설팅을 연계하였으며, 이외 3개사에는 “사업정리” 처방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폐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재창업자 컨설팅을 신설하여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35개사에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재기성공전략 수립과 종합진단을 통한 사업계획 점검 및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표 IV-1-1-31 | 진로제시컨설팅 처방 현황(2021년)

(단위 : 개사)

구 분	회생컨설팅 지원	사업정리	구조개선 등	재창업자 컨설팅	합계
지원기업	14	3	181	35	233

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

중소벤처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법원 회생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나 회생절차 비용조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회생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원 조사위원 경험을 보유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법원 회생개시신청서 작성, 조사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의 성공적 이행을 돕고 있다.

2013년 57개사, 2014년 65개사, 2015년 51개사, 2016년 55개사, 2017년 90개사, 2018년 92개사, 2019년 95개사, 2020년 95개사, 2021년 76개사 등 총 676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법원 회생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회생인가율을 제고하고 있다.

표 IV-1-1-32 | 회생컨설팅 지원실적(2013~2021년)

(단위 : 개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지원기업	57	65	51	55	90	92	95	95	76	600

5)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기능개선(R&D) 등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R&D 투자효율 개선 및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매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정부 R&D 성공기술 및 특허등록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벤처기업이며, 최종 선정기업에게는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85개사를 진단하여 사업화 지원 분야에 32개사를 선정·지원하였으며,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분야에서는 20개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업)를 지원하였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평가에 한국형 뉴딜(디지털, 그린) 관련 가점(2점)을 두어 비대면 및 친환경 분야를 중점 지원하였다.

표 IV-1-1-33 |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2021년)

(단위 : 개사)

구 분	기술사업화 진단	기술사업화 기획	시장친화형기능개선
지원기업	85	32	20

6)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고부가가치 자전자·해양 레저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경륜경정법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필수 사업으로, 코로나 19에 따라 개인용 이동수단 수요증가로 지원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사업 지원 부문은 기술개발 지원과 맞춤형사업화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기술개발 부문은 자전자·해양 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지원기업은 산업 전문가의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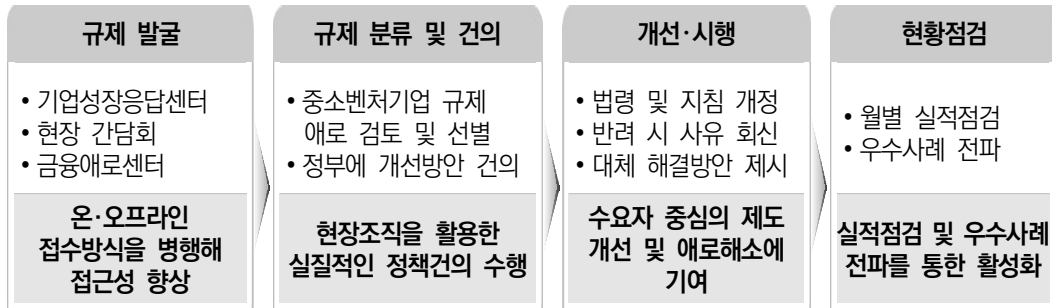
특히, 기술개발 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연구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의 기존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뿐만 아니라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1년 기술개발 부문에는 총 29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하고 이 중 4개 기업이 신규 선정되어 7.2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신규과제 4건, 계속과제 4건으로 총 8개 과제에 대해 1,56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특허등록 및 출원 7건, 시제품 출시 7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맞춤형사업화 부문은 사업화 기획 3건, 사업화 지원 4건 등 총 7건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액 대비 신규 매출액 71.4%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7) 규제혁신(정책중개)

중진공은 2011년부터 지역본·지부 등 현장조직의 강점을 살려,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정책중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업 성장응답센터, 기업인 간담회 등 현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한 규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정부에 정책개선 과제로 제안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표 IV-1-1-34 | 정책중개 추진절차



2021년 총 408건의 정책개선 과제를 정부에 발굴·건의하였고, 이 중 109건이 정책에 반영되어 약 27%(전년 대비 12%p 상승)의 높은 정책반영률을 달성하였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이다.

표 IV-1-1-35 |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 주요 개선사례

건의명	규제내용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급 규정 변경 요청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 잠식 상태인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신청 제한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 가능 * (결과) '21.10월 고시 개정 → '22년 시행

8) 중소기업정보제공(기업나라)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기술 트렌드, 우수 성공 사례,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등의 정보를 담은 월간 『기업나라』를 1979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기업나라』는 최신 산업동향 및 이슈 관련 중소벤처기업 사례를 심층 취재하는 <특집>, <기획>코너와 <Story>, <Trend & Info>, <Culture & Global>, <Insight & Inspiration> 등 4가지의 카테고리의 기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을 소개하는 코너와 청년창업기업의 좌충우돌 창업 이야기를 다루는 코너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매월 1일 발간되는 『기업나라』는 중소벤처기업 경영자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회비 납부방식의 정기구독 회원제로 운영된다. 연간 회원에게는 정가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주요기사를 엄선해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정기구독 회원에 대한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시중 서점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판매를 진행했으며, 인터넷 웹진을 통해 주요기사를 제공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제고했다.

이와 더불어, 독자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엄선된 지원시책을 소개하는 코너(정책정보 아카이브)도 함께 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언론 노출 기회가 적은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취재하여 홍보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1년 독자 모니터링단 설문을 통해 『기업나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척도 기준 4.38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성공사례’와 ‘지원시책’ 관련 기사에 대한 독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1-1-36 | 기업나라 기사 사례(2021년)

중소기업정보제공 사업		
기업나라 표지	CEO 경영 이야기	로컬 전성시대
		

3

향후 추진방향

2022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 ②중소벤처기업 성장기반 마련, ③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점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정부정책을 최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원스톱 종합지원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업을 경제구조 전환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 정책자금

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성장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목표 '21년 2.6→'22년 3.2조원, 0.6조원↑)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시설투자 지원을 강화하여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 저감장치 설비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Net-Zero유망기업자금 200→1,200억원, 1,000억원↑)을 확대하고, 금리 인센티브(탄소저감 성과기업에 최대 0.2% 인하) 제공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다.

나) 포스트코로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전망 역할 수행

기준금리 상승, 오미크론 확산 등 지속적인 대내외 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만기 연장 및 채무조정 등 위기 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연락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경우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고, 부실징후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지원방안 마련 및 적극적 채무감면 등 신속한 재기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금융 서비스 제공

유동성 확보에 대한 중소기업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출채권을 인수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존 용자와 다른 방식의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375억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비대면 스마트 진단 및 디지털 용자신청서·전자정보 자동수집 기술을 신규 도입하여 비대면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2)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지원

가) 전자상거래수출 인프라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해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라이브커머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여 중기제품의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자사 쇼핑몰 구축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수출 기업에게 물품 창고보관, 포장, 배송 등을 일괄 지원하는 풀필먼트 지원도 작년보다 확대(1,500→2,500만원) 지원한다.

나) 온라인수출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수출 지원 고도화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수출단계 및 품목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바이어 검증·계약 등을 밀착 지원한다. 이와 함께, B2B 플랫폼 내 신기술을 적용하여 기능을 고도화하고, 민관협력 및 홍보강화를 통해 고비즈코리아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다)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다각화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신규 ODA사업인 우간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운영(20억원)을 추진하고, 주요 해외거점의 수출BI와 현지 전문기관 및 국내·외 지자체간 협력사업 등을 통해 해외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한다.

3) 인력양성 및 창업

가) 신기술·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유망산업 인력양성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한 스마트 제조 인력의 직무역량 강화(32억원)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분야 특화 기술교육 및 채용연계 프로그램(27억원)을 운영한다. 또한, 미래유망 분야 中企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미래차(4개), 탄소중립(3개), 지역특화산업(4개), 학위연계(6개) 계약학과를 신설·운영한다.

나)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우수인력 유입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K-기업가정신 함양 및 대국민 인식확산 관련 교육인프라를 확충(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37억원)하고, 데이터 분석 기반 취업매칭 및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90억원)으로 우수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 내일채움공제 확산을 통한 재직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21→'22년) 및 신규가입 2만명 추가지원 등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제가입자에 대한 ESG분야 교육, 휴가비 지원, 복지물 제공 등 교육·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지원한다.

4) 지역산업 혁신

가) 지역별 특화산업 및 혁신거점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협동화자금(1,000억원)을 규제자유특구와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에 연계 지원하고, 지역 정책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스마트혁신지구를 확대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지역균형을 실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618억원) 확대 및 지역기업의 위기극복 컨설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혁신에 앞장설 계획이다.

나) 지역창업 활성화로 지역혁신성장 견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선발·운영 시 지역주력산업, 창업여건 등 지역특성에 맞춘 특화트랙을 신설하고, 데모데이 개최 등을 통해 비수도권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창업기업 선발 규모를 확대(28→42개사)하여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5) 중소기업 新사업 전환 지원

가) 산업구조 전환 대응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노동·디지털 전환을 위해 진단에서 후속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125억원)하는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신설(10개소)한다. 전문가를 통한 진단과 컨설팅으로 구조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정·금융·세제지원 등 후속사업을 연계하여 중소기업 사업·노동·디지털 전환의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 재도전 수요확대에 대비한 지원기반 강화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사업규모를 확대(250→350억원)한다. 또한, 재도전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성실경영평가 평가기관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우수기업에 재창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재도전 전용트랙을 운영한다.

6) 중소기업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 대응

가) 중소기업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수준진단 기반의 컨설팅, 용자 등 맞춤형정책을 연계하는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사업(50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컨설팅, 설비도입 등 다각화된 지원을 위해 탄소중립 경영혁신바우처(172억원), 탄소중립전환지원(55억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40억원) 사업을 운영한다.

나) 중소기업 ESG경영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및 솔루션 제시

ESG 비대면 자가진단, 심층진단을 통해 ESG경영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목표 15,000개사)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ESG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민관협업 기반의 ESG 분야별·단계별 경영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ESG경영안내서, 우수사례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를 통해 ESG 경영도입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제2장

기술보증기금

1

일반현황

기술보증기금은 1989년 설립 이후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약 418조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하여 기술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선도하였다. 특히, 기업의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전문성 있는 기술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과 중소기업 수요기술 매칭·이전 지원, 기술 신탁, 기술임치, 지식재산공제 등의 기술보호사업,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 혁신형 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 투자시장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직접투자 등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술금융 종합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해오고 있다.

앞으로 기술보증기금은 Post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창업에서 도약, 성장에 이르기까지 기술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유니콘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는 등 기술평가 기반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탄소가치평가보증 등 그간 준비해 온 다양한 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양방향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의 비전인 “기술에 가치를 더하는 중소벤처기업의 No.1 혁신성장 파트너”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기술보증

1) 기술보증 총괄 지원 실적

기술보증기금은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기술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1년도에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술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5.5조원의 보증을 지원하였고, 2021년말 기준 보증잔액은 2020년말 대비 약 8천억원 증가한 26.5조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고자 기술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 혁신성장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양한 기술보증 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하였다.

표 N-2-1-1 | 주요 기술보증 종류별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총보증 지원금액	220,020	100.0%	254,398	100.0%	254,903	100.0%
기술혁신기업	213,037	96.8%	247,984	97.5%	248,497	97.5%
지식문화산업	41,827	19.0%	50,290	19.8%	53,791	21.1%
혁신성장산업	54,852	24.9%	82,191	32.3%	91,404	35.9%
수출중소기업	31,467	14.3%	37,121	14.6%	34,387	13.5%
청년창업기업	16,683	7.6%	17,157	6.7%	18,412	7.2%
R&D보증	55,456	25.2%	61,021	24.0%	62,992	24.7%
유동화회사보증	1,559	0.7%	1,064	0.4%	1,182	0.5%
총보증 잔액	221,122	-	257,045	-	264,929	-

* 지원금액은 신규보증 외 만기연장 등 포함 금액 / ** 중복 지원 포함 금액

2) 경제활력 회복 지원

①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2020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정부 예산 미편성에도 불구하고 긴급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1조원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추가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7.2조원의 보증을 공급하였고, 18.3조원 규모의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증 심사기준 완화를 통해 보증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3.8조원의 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였고, 대출이자, 보증료 등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하여 특별출연금 1,283억원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15개 은행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96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고,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역시 강화(신규 보증의 8.8%)하였으며, 비대면 보증제도인 원클릭 보증 지원 확대(1,528억원→3,819억원), 비대면 보증신청 및 전자약정 활성화 등을 통한 고객 대면 최소화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고객 편의를 제고하였다.

② 일자리 창출·보호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지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보호하였고, 신규 보증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용 유형별 특화 지원 프로그램인 ‘굿잡(Good-Job) 보증’ 제도를 통해 1조 985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3) 중소기업 ESG 경영 참여 지원

ESG 경영이 글로벌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ESG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인력 등의 문제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동참을 지원하고자 “지속가능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소·벤처기업의 ESG 동반자”라는 ESG 경영 비전을 수립하고 ESG 각 분야별 보증 제도를 마련하여 환경(E) 분야 1.2조원, 사회(S) 분야 1.8조원, 투명경영(G) 분야 0.1조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참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N-2-1-2 | ESG 분야별 주요 보증제도 및 신규보증 지원 실적(2021년)

(단위 : 억원)

구분	보증 제도	지원 대상내용	2021년 지원금액
E	녹색보증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업	1,312
	기후환경보증	녹색성장·환경·에너지산업 등 영위기업	8,821
	신재생에너지보증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및 산업기업	1,752
S*	굿잡보증	고용유형별 일자리창출 해당기업	10,985
	안전인프라보증	안전취약기업 및 안전우수기업	1,713
	행복일터유지보증	향후 1년간 고용유지 협약기업	972
	소셜벤처임팩트보증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된 기업	1,476
	사회적기업우대보증	(예비)사회적기업,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282
	여성·장애인기업보증	여성·장애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5,703
G	클린플러스보증	대출금 사용의 적정성을 사전 점검하는 보증	1,041

* 중복 지원 포함

4) 도전적 혁신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

① 혁신창업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과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창업 단계별로 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업 유형에 따라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첼린저창업, 기술경력·뿌리 창업, 첨단·성장연계창업 등 창업 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기업 등을 지원하는 등 청년테크스타 보증을 신설하였으며, 사업화 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우수 기술인력 대상의 마이스터(Meister) 기술창업 보증과 풍부한 현장 경험과 기술력, 네트워크 등을 갖춘 중장년 대상의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표 N-2-1-3 | 청년·경력자 창업 분야 신규보증 지원 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청년창업기업 보증	3,739	4,697	3,263	3,789	2,805	3,811
청년테크스타 보증*	-	-	-	-	70	136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320	722	973	2,818	525	1,359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1,089	2,879	1,629	3,604	1,364	2,881

* 2021.8월 도입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 이후 지원하는 신규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고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해 나감으로써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우수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표 N-2-1-4 | 기존 보증 연대보증 면제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대보증 면제 보증금액(누적)	53,726	85,569	120,256

② 스케일업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혁신성장기업이 K-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기업을 창업 연한, 성장 단계 등에 따라 프런티어 벤처기업과 Kibo-Star 벤처기업으로 구분하여 Two-Track으로 지원하던 것을 'Kibo-Star벨리'로 통합하여 혁신형 고성장전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수, 연구원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이들이 개발한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TECH밸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80개 창업선도대학과 U-Tech밸리 협약을 체결하였고, 1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R-Tech밸리 협약을, 3개 대기업과 M-Tech밸리 협약을 체결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은 혁신성장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2021년 Kibo-Star밸리 및 Tech밸리 프로그램을 통한 보증 지원 확대에 노력하였다.

표 N-2-1-5 | Kibo-Star밸리 및 Tech밸리 보증 지원 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Kibo-Star밸리* 보증	122	2,668	79	1,267	179	2,813
Tech밸리 보증	106	1,945	119	2,334	123	2,612

* 2021.4월 기준 '프린티어 벤처'와 'Kibo-Star 벤처'를 'Kibo-Star밸리'로 통합

5) 문화산업 및 글로벌 진출 지원

①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제도 개선 및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지원 대상 콘텐츠 분야에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최신 융복합 기술 및 업종 품목 23개를 추가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중 시장 규모가 큰 출판 분야를 지원 장르에 포함하였다. 또한, 지역 기반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대전에 문화콘텐츠 금융센터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공연 등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별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보증을 적극 지원하였다.

표 N-2-1-6 | 문화콘텐츠산업 보증 지원 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 액
문화콘텐츠산업 보증지원	7,022	14,193	7,557	16,104	8,855	20,405

* 신규보증 외 만기연장 등 포함 금액

②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기업의 수출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제도와 해외시장 진출기업 지원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업의 수출 성장단계에 따라 수출 예상기업(1단계), 수출실적기업(2단계), 수출주력기업(3단계)으로 분류하여 우대 보증을 지원하는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해외종속기업을 보유한 국내지배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해외진출보증의 경우 국내 지배기업의 영위업종 제한을 제조업, 제조업 겸영 도소매업, 서비스업에서 쏠 업종으로 확대 하여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N-2-1-7 | 수출기업보증 및 해외진출보증 지원 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수출기업보증 지원	4,275	31,467	4,731	37,121	4,553	34,387
해외진출보증 지원	28	196	101	1,105	39	419

* 신규보증 외 만기연장 등 포함 금액

6)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한국판 뉴딜 2.0 성공 지원을 위한 보증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등 기술중소기업이 Post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 4대 뉴딜 체계에 부합하는 보증상품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① 디지털 뉴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ICT) 산업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 핵심 신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D.N.A.+BIG3* 보증, 비대면·디지털 보증, 인더스트리 4.0 보증, 스마트제조·서비스분야 보증 등을 통해 2021년 4.8조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 Data(데이터), Network(5G 네트워크), AI(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② 그린 뉴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저탄소 그린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그린 산단 입주(예정)기업과 물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그린 뉴딜 부문 보증상품을 다양화하여 2021년 4.0조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③ 휴먼 뉴딜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격차 해소 등을 통한 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성·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에 대한 밀착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촉진하고, 작업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기업의 안전 경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휴먼 뉴딜 부문에 대해 2021년 5.9조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④ 지역균형 뉴딜

지역경제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지자체, 지방은행 등과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236개 기업에 474억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존 제조업에 국한된 지역이전기업 우대사항 적용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력산업 핵심품목을 232개에서 260개로 조정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21년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지원 비중을 51%(업체 수 기준)로 확대하였다.

표 IV-2-1-8 | 뉴딜 분야별 주요 보증상품 및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지역균형 뉴딜
주요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D.N.A.+BIG3 보증 비대면·디지털 보증 인더스트리4.0 보증 스마트제조·서비스 분야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 보증 물산업 우대 프로그램 기후환경 보증 신재생에너지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인프라 보증 굿잡보증 행복일터 유지 보증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여성·장애인기업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 뉴딜 협약보증 규제 샌드박스 보증 등
지원 금액	(‘20년)4.0→(‘21년)4.8	(‘20년)3.9→(‘21년)4.0	(‘20년)5.1→(‘21년)5.9	(‘20년)4.8→(‘21년)5.4

나. 기술평가

1) 기술평가 개요

① 기술평가의 개념

기술평가는 기술의 미래 경제적 가치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신용평가 등급이 낮아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려운 창업기업, 기술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N-2-1-9 | 기술평가의 범위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의 개요 국내외 기술동향 기술개발환경 및 기술수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규모 및 특성 동업계 현황 시장수요 전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전망 가격과 품질경쟁력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는 평가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구분되며,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표 N-2-1-10 | 기술평가의 종류

구분	세부 내용
기술가치평가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새로 사업화하거나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등급·평점 등으로 평가
종합기술평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등급·금액 등으로 평가

② 기술평가 조직·인력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 업무를 총괄기획하는 본부부서인 기술평가부와 함께 기술평가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업무 난이도, 수요 등을 기준으로 영업조직을 차별화하여 2021년말 현재 중앙기술평가원 1개, 기술혁신센터 8개, 기술평가센터 61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 N-2-1-11 | 기술평가 조직(영업점) 현황

구 분	역 할	주요 업무
중앙기술평가원 (1개)	고도로 전문화된 핵심 평가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난이도 및 프로젝트성 기술가치평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기술평가 품질관리
기술혁신센터 (8개)	전문기술평가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업무 수행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정책사업용 평가 기술이전 투자용 기술가치평가 정부 정책연계 R&D/IP 평가 기술이전·M&A 사업화 지원
기술평가센터 (61개)	보증용 기술평가 중심의 정형화된 기술평가업무 수행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평가보증 정형화된 IP 평가보증, R&D보증 등 벤처이노비즈기업 선정용 평가 기술평가인증 등 기타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한편, 기술평가 전반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실무 수행을 통해 일정한 자격과 평가역량을 갖춘 기술평가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확대하고 있다.

표 N-2-1-12 | 기술평가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술평가전담 인력*	688	750	761
박사급 인력	257	269	284

* 기술평가 전담인력 : 박사급인력, 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팀 소속 직원, 중앙기술평가원·기술혁신센터 등 소속 직원, 본부(기술평가부, 벤처혁신사업부, 혁신투자실, 기술거래보호부) 소속 직원 등

또한, 자체 보유 평가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 Pool을 구성하여 기술 평가에 참여시키고 있다.

③ 기술평가시스템

기술보증기금은 2005년 7월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해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을 평가하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인 KTRS(Kibo Technology Rating System)를 개발하여 업무에 도입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왔다.

2020년 6월에는 축적된 33만여 건의 기술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평가등급을 산출하는 새로운 기술평가시스템(AIRATE)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1.1월부터 기술평가 업무에 전면 적용하고 있다.

AIRATE는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한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사업성장등급과 위험등급의 독립적인 산출이 가능하고, 모듈형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정책 목적에 따라 맞춤형 활용이 가능하며, 성능 검증 결과 기존 시스템 대비 예측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유망 기술 기업의 발굴·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① 기술평가 총괄 수행 실적

기술보증기금은 1997년 3월 기술평가업무를 개시한 이후 2021년말까지 총 806,069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 실적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32,881건, 종합기술평가 5,813건, 기술가치평가 2,115건 등 총 40,809건이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기술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 평가, 법원 및 소송 참고용 평가, 코스닥시장 상장 심사용 평가 등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고난이도 전문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말까지 누적 실적은 40,464건이다.

② 특허평가시스템(KPAS) 활용 등을 통한 IP금융시장 선도

기술보증기금은 2006년부터 지식재산(IP) 기반의 선진형 기술금융인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 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등을 국내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후, 2013년 8월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식재산(IP) 평가보증'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기술중소기업이 보유 또는 인수한 우수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증제도 운용을 통해 IP금융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표 N-2-1-13 | 지식재산(IP) 관련 보증 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IP 평가보증	6,533	13,225	7,254	14,864	8,523	18,238
IP 가치보증	3,985	8,883	4,288	9,387	5,081	11,107
IP 등급보증	977	2,366	1,151	3,167	1,419	4,335
IP 인수보증	1,571	1,976	1,815	2,310	2,023	2,796

* 신규보증 외 만기연장 등 포함 금액

기술보증기금은 AI 기반의 특허등급평가시스템(KPAS-I) 및 특허가치평가시스템(KPAS-II)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제도를 도입하여 IP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KPAS-I 기반의 IP 등급보증 4,335억원과 KPAS-II 기반의 IP 패스트보증, IP 벤처특별보증 등을 1,775억원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중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우수 IP 보유기업에 대한 IP 평가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국내 IP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한 R&D 종합지원 강화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를 통해 사업화 성공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R&D 과제를 선별하여 사업화 과정 쏠 주기를 지원하는 R&D보증을 2008년에 도입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중소기업의 R&D 자금을 보완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표 N-2-1-14 | R&D보증 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R&D보증	22,330	55,456	23,117	61,021	23,977	62,992
개발단계	11,220	15,446	10,914	14,573	11,088	14,689
사업화단계	11,110	40,010	12,203	46,448	12,889	48,303

* 신규보증 외 만기연장 등 포함 금액

한편, 정부부처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2021년 11월 혁신 R&D 사업화지원 특별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사업화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정부 지원 중소기업 R&D 과제를 선별하여 기업이 아닌 과제 중심으로 평가하여 해당 과제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R&D BM(Business Manager)이 과제 발굴부터 성과관리까지 주도적으로 일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인 상품으로,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은 과제단위 R&D 사업화 전용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R&D 사업화 단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R&D 사업화의 밀착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④ 소부장 강소기업 발굴·지원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대응 뒷받침

기술보증기금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 대책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프로젝트를 전담 수행하여 2019년 54개사, 2020년 46개사를 발굴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명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로 변경하고, 선정분야를 기존 6개에서 바이오, 환경·에너지(그린에너지), S/W·통신(비대면디지털) 등을 포함한 9개로 확대하여 20개사를 추가 발굴하였다.

또한,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누적 7,309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매칭을 통해 우수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⑤ 녹색인증평가녹색보증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기술보증기금은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과 더불어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녹색인증 평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1개 평가기관 중 유일한 금융기관이다.

2021년도에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 인증 158건, 녹색기술제품 확인 414건, 녹색전문기업 확인 5건 등 총 577건의 녹색인증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까지 누적 평가 건수는 2,959건이다.

표 N-2-1-15 | 녹색인증 평가 수행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녹색기술 인증	120	142	158
녹색기술제품 확인	256	350	414
녹색전문기업 확인	2	4	5
합 계	378	496	577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보증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지정(2021.4.16.)되었고, 2021년 6월 ‘탄소가치평가’ 방법 개발 및 이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기업 및 산업기업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증’ 제도를 마련하여 2021년에 1,752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다. 기술거래·기술보호

1) 기술거래

기술거래는 기술이 기술 보유자에서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소, 대학 등으로부터 이전받아 사업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 탐색, 기술이전 중개, 사업화 금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 4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1년 4월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업무 전담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전국 8개 거점지역에 기술혁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이와 함께 개방형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인 Tech-Bridge를 구축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융합형 기술거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Tech-Bridge는 연구소, 대학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기술(공급기술)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기술) 정보를 한데 모아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술정보 제공 모듈과 공급수요기술 자동 매칭 시스템 등을 갖춘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가 탑재되어 있다. 2021년말 현재 약 41만 건의 공급기술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매년 약 1,500건 이상의 수요기술을 발굴하여 기업, 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등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 N-2-1-16 | 기술거래 및 IP 인수보증 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술수요 발굴 건수	1,490	1,559	1,524	1,537	1,760
기술이전 계약 건수	528	553	619	721	841
이전된 기술 건수	725	737	856	900	1,030
IP 인수보증(신규) 지원금액	608	593	641	613	712

2) 기술보호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탈취 근절과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보호를 위한 세부 서비스로는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등이 있다.

표 N-2-1-17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 종류

구 분	주요 내용
기술신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고 이전될 수 있도록 기보가 기술과 사용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보호하고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
기술임치 (기술지킴이)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경영상 핵심 비밀 등을 기보에 그 비밀을 보관하고, 기술 유출 발생 시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개발기업의 파산 시 사전 약정한 거래기업이 임치된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증거지킴이:TTRS*)	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 TTRS :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기술보증기금은 2019년 기술보호제도를 시행한 이후 기술신탁 948건, 기술임치 4,239건, TTRS 982건의 누적 기술보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표 N-2-1-18 | 기술보호 지원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누 계
기술신탁	219	317	412	948
기술임치	1,037	1,522	1,680	4,239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272	367	343	982
합 계	1,528	2,206	2,435	6,169

라. 지식재산공제

지식재산공제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적립한 부금을 재원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국내외 출원 등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한 가입자의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대출을 지원하는 상호 부조 공제제도로,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의 특허공제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에 참여하여 2019년 1월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8월부터 가입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가입기업이 납입한 월부금은 일정 비율로 적립되어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환급되며,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식재산권 심판·침해소송 및 이전·사업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금 적립액의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대출을, 자금경색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금 적립액의 90% 이내에서 경영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입기업에게는 보증지원 우대, 지식재산권 분쟁, 계약, 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무료 자문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말 기준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수는 8,737개사, 수납부금 잔액은 906.5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N-2-1-19 | 지식재산공제 가입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2020년 (A)	2021년			총계 (E=A+D)
		신규(B)	해지(C)	순증(D=B-C)	
가입기업 수	5,162	4,201	626	3,575	8,737
수납부금 잔액	331.0	658.6	83.1	575.5	906.5

마. 기업혁신지원

1) 투자연계보증

투자연계보증은 민간 V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증으로, 기술보증기금은 투자 쏠 단계에 걸쳐 투자와 결합된 다양한 보증제도를 마련하여 민간투자 유치기업의 투자 단계별 성장자금을 후속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유망기업의 Scale-Up을 촉진하고 있다.

표 N-2-1-20 | 주요 투자연계보증 상품 현황

구 분	지원대상	보증 최고한도	보증금액 산정특례
엔젤투자 연계보증	최근 3년 이내 3천만원 이상 기보엔젤파트너스* 투자 유치 기업(창업 후 7년 이내)	30억원	3억원/5억원
포스트엔젤 보증	엔젤투자 유치 or 엔젤투자연계보증 지원기업 중 성과(매출·수출·고용·후속투자 유치 등) 우수기업	30억원	3억원
벤처투자 연계보증	벤처투자기관(혁신모험펀드 포함) 투자 유치기업	30억원	10억원
VC투자매칭 특별보증	①6개월 이내 20억원 이상 벤처투자기관 투자를 유치한 기보VC파트너스** 추천기업 ②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선정기업 ③TIPS R&D 성공기업 or 포스트 팁스 참여기업	50억원	20억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①벤처투자 50억원 이상 유치 및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 20% 이상인 기업 ②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	100억원 (‘22.4월부터 200억원)	30억원
투자옵션부 보증***	①창업 후 7년 이내 기술력 우수기업 ②엔젤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연계보증 및 VC투자매칭 특별보증 취급기업	①10억원 ②관련보증 한도	①해당없음 ②관련보증 특례

* 중기부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 기보가 선정(132개사)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벤처캐피탈(VC) 중 기보가 선정(58개사)

*** 보증지원 후 투자 유치 등 성과 달성 시 일부 보증금액의 투자 전환 옵션이 부여된 보증

2) 보증연계투자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성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금융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보증과 연계한 직접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초기 창업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연계투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 영역의 사각 지대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후속투자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N-2-1-21 | 보증연계투자 제도 개요

구분	주요 내용
투자대상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단,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등 예외) 기술보증기금과 보증 거래 중인 기업 투자용 평가등급 T18등급 이상인 기업
투자방식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
투자한도	기업당 30억원(보증투자 합산 200억원), 총액 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20%

기술보증기금은 2005년 투자제도 시행 이후 2021년말까지 총 395개 기업에 3,747억원을 투자하여 32개 기업이 IPO에 성공, 누적 투자순이익 1,248억원, 누적 투자수익률 33.3%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2021년에는 역대 최대인 963억원의 투자수익을 기록하였다.

표 N-2-1-22 | 보증연계투자 투자실적 및 투자수익

(단위 : 개사,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누적('05년 이후)	
	기업 수	금액	기업 수	금액	기업 수	금액	기업 수	금액
투자 실적	33	259	52	255	50	394	395	3,747
투자 손익	259		△18		963		1,248	

아울러, 기술보증기금 투자기업 중 후속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103개 기업의 기업현황, 기술평가등급, 투자포인트, 경영진·주주현황, 재무제표 등의 정보를 투자정보플랫폼을 통해 민간 벤처캐피탈에게 제공하였다.

3) 기보벤처캠프

기보벤처캠프(Kibo Venture CAMP)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평가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신생 벤처기업을 집중 보육·지원함으로써 성공 창업을 견인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2021년 전국단위 모집에 768개 기업이 기보벤처캠프(제8기·9기) 참여 신청을 하여 1차 서류평가, 2차 PT평가를 통해 최종 100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체계를 구축하고 91개 업체에 190억원의 보증과 1개 업체에 5억원의 투자 및 6개 업체에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제3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일반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전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2014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신설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협업·조직화 지원, 전통시장별 특색에 맞는 시설 및 경영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창업 및 경영정보 제공, 소상공인·전통시장 현황조사 및 정책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및 용자지원 등이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멘토링 및 사업화 자금 지원(보조 및 융자), 상권정보 제공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6년에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종합적인 교육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신사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변경함으로써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도록 개편하였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이 신사업 아이템 등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유망 영역 등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실습교육, 점포경영체험, 멘토링, 사업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이다.

설립 이후 2015~2021년간 총 2,621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였고 창업교육, 점포 경영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2021년 12월말 기준 1,94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2021년 기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강원, 경북, 제주 등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등에서 150시간 내외의 창업교육을 제공하였다. 창업교육 이수 후에는 15개 지역의 18개 체험점포에서 약 3개월 간 사업모델 검증 및 고객 응대, 재고 관리, 서비스·마케팅, 홍보 역량 함양 등 실전 창업과 같은 점포경영 실습교육과 분야별 전담 멘토링을 지원하였다.

한편, 창업교육과 점포경영 실습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졸업생 중에 우수 교육생을 별도로 심사·선발하여 본격적인 창업에 소요되는 사업화 보조금을 최대 2천만원 한도(개인부담 50%)로 지원하였다.

표 IV-3-1-1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국 체험점포 현황('21.12월 기준)

점 포 명		주 소
서울	대학로점	종로구 대학로 149, 유니로드 1층
	중랑점	중랑구 숙선옹주로 6-9, 목동자이아파트상가
	명동점	중구 퇴계로 108, 세대빌딩 1층
	드림스퀘어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부산	범일점	동구 자성로133번길 10, 천일빌딩 1~2층
대구	범어점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6, 범어골드타워 1층
	두류점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4, 두류동빌딩 1층
광주	상무지구 1호점	서구 상무중앙로 84, 상무트윈스빌딩 1층
	상무지구 2호점	서구 상무중앙로 24, 엠씨타워 1층
경기	신동점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66, 더판타지움 1층
대전	둔산 1호점	서구 둔산로 59, 아이빌딩 1층
	유성점	유성구 대학교 88, 공동482-2
인천	부평점	부평구 부평대로 293, 121~125.127~131호
전북	전주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9-5
경남	창원점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1. 1층(117호,122호)
울산	울산점	북구 진장유통로 9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층
전남	순천점	전남 순천시 역전장길 14 2~3층
충북	청주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62번지 1층
강원	홍천점(구축중)	강원 홍천군·읍 희망리 393번지 지하 1층, 2층 일부
경북	안동점(구축중)	경북 안동시 번영길 42-2, 1층~3층
제주	제주점(구축중)	제주시 연삼로 473번지 지하 1층, 1층 일부

2)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고급기술이 필요 없는 생활분야 틈새시장의 생활혁신형 창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생계형 업종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18년 3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신설되었다.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발굴·멘토링하고, 성공불용자(최대 2천만 원) 지원 후, 성실 경영 실패 시 부분 상환면제로 예비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창업프로그램이다.

2021년에는 총 1,948명이 지원하여 775명이 선정되었으며, 664명이 창업(사업자등록)을 완료해 성공불 용자를 지원받았다.

우수 사례

- 가벽닷컴('19년 선정, 2천만원 용자 지원)
 - '21년 제 6회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 대상 수상자
 - 셀프 분해와 재설치가 가능한 조립가벽으로 높은 가격경쟁력과 설치유연성은 '19년 선정 당시 매출 11백만원에서 '21년 150백만원으로 성장



3)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2018년에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 개편에 착수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PC 및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상공인이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상시 교육 프로그램(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창업-성장-재기'의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평생 교육 프로그램 및 업종별 직무 기술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여 점포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창업·경영 역량 강화 및 경영안정화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이다.

2021년에는 신규 890개 과정을 포함하여 1,297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24,977명이 교육을 수료(교육과정 기준)하였고, 평균 93.8%의 만족도를 달성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소상공인 경영교육과 통합되어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으로 운영된다.

4)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 '21년 소상공인지원인프라-소상공인빅데이터플랫폼 사업으로 통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과정의 어려운 일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입지선정이 54.9점, 업종선택이 40.3점으로 관련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수집·분석이 어려운 상권정보를 16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상권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상권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특정지역·업종에 대한 11종의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분석서비스, 특정 점포의 개·폐업 이력을 알려주는 점포이력서비스와 같은 현황정보와 특정위치·업종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 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정보를 알려주는 수익분석서비스와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경쟁분석 서비스 등의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 상권정보시스템 주요서비스



창업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권정보·서비스를 개발함에 따라 2006년 7월 개시 당시 월평균 10,185건에 불과하던 이용실적이 2020년 161만 건, 2021년 234만 건으로 최근 5년간 평균 21.7% 상승하였다.

표 IV-3-1-2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용실적 (월평균)	1,090,586 (90,882)	1,253,588 (104,465)	1,400,103 (116,675)	1,605,559 (133,797)	2,340,698 (195,058)
증가율	21.5%	14.9%	11.6%	14.7%	45.8%

* 이용건수 증가율 : (당해건수-전년건수)/전년건수×100

또한 민·관간 공유정보 확대 및 상가업소 조사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노력을 통해 상권정보시스템 2021년 이용자의 만족도(5단계척도, '만족'이상)는 89.7%로 대다수의 이용자가 만족을 나타냈다.

표 IV-3-1-3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용자 만족도	88.7%	89.1%	89.3%	89.5%	89.7%

2021년에는 사용자 편리성을 위해 자동으로 상권분석 보고서를 전송하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 상권 영역 설정기능을 추가하는 등 분석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공유·수집된 약 220만 건의 상가업소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도에 기여하였다.

2022년도에는 국세청 등 데이터 통합에 용이한 DB구조 재설계, 경쟁업소 현황 및 비교 분석 가능한 시각화 기능 마련, 통계 제공 강화 등 소상공인이 상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나. 소상공인성장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경영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업종별 전문 교육 제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협업활성화, 스마트슈퍼 육성, 중소슈퍼 협업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소상공인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교육은 업종별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 교육 등 실습 위주의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까지 총 665,007명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온라인교육 제외)

전문기술교육은 신메뉴 개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소상공인이 수강을 희망하는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직접 수강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이 능동적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영성과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신 경영 및 마케팅 전략 등 경영개선 교육을 개설·운영 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 대면형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실시간 교육채널(유튜브 포함)을 활용한 실시간·온라인 교육을 도입 하였다.

2021년에는 전문기술교육 14,266명, 경영개선교육 2,925명, 전용교육장 2,075명 등 총 19,26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온라인 실시간교육의 누적 조회수('21.12월 말 기준)는 158,757회에 이른다.

한편, 2021년 소상공인 경영교육 수료생의 98.4%가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참여 후 수료생의 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 93.4%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상공인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주요 권역별로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3월부터 대전·서울·광주·부산 등 전국 4개 지역에 개소한데 이어, 2010년에는 대구에 개소하여 현재 총 5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창업·경영 교육 지원, 시·공간적 제약으로 교육받기 어려운 소외계층(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22명의 재소자가 교육을 수료하였다.

2)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IV-3-1-4 | 소상공인컨설팅 제도 도입 경과

시행시기	내 용
2005년 5월 31일	영세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에 의하여 시범사업 추진
2005년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사업 추진
2006년	자영업 컨설팅사업 추진
2015년	소상공인 역량 Jump-Up프로그램 추진
2016년	소상공인 컨설턴트 등급제 시행

경영 애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홍보, 경영관리, 상품 및 메뉴 개발, 세무·노무·특허 등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표 IV-3-1-5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 예산	81.8	79.8	80.0
소상공인 컨설팅	5,204	5,302	5,311
무료법률구조	401	440	313
역량 점프업 프로그램	50	-	-
합 계	5,655	5,742	5,624

2021년도 동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활동 강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운영 하였다. 전문가의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5,311건과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물품 대금, 상가보증금 및 상가 임대차 등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구조 313건을 지원하였다.

표 N-3-1-6 | 연도별 지원성과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증가업체비율	65.1	66.7	66.9	58.2	45.5	49.6
매출증가율	7.4	5.8	10.6	8.7	8.0	21.0

3)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모여 협업하는 협동조합 모델이 일자리·지역균형발전·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개별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개발, 생산, 판매, 공유 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9년째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소상공인 간 자율적인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유도한 후, 공동의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한 사업인프라 구축과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조합원)의 매출 및 수익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과는 차별화 된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통해 협업 및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소상공인이 협업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 8년(2013년~2021년) 간 총 1,708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수혜를 받았다. 2021년에는 공동브랜드·네트워크·마케팅·개발 등 공동사업 지원(208개)과 소셜 커머스 입점, 지역판매전 개최 등 판로지원(424개)을 하였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안정적 설립, 조합원 간 유대 강화, 조합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11개 지역을 거점으로 소상공인 협업 아카데미를 추진함으로써 협동조합 성장에 필요한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IV-3-1-7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개, %)

구분	예산	실적(4,712개)		성과
		협업인프라	판로	지원조합 조합원 평균매출액
2013년	347	433	-	11.0% 증가
2014년	246	361	17	12.6% 증가
2015년	240	377	116	12.9% 증가
2016년	188	311	117	12.8% 증가
2017년	193	283	124	12.5% 증가
2018년	250	291	300	13.3% 증가
2019년	252	256	408	13.3% 증가
2020년	199	210	475	13.2% 증가
2021년	166	209	424	13.4% 증가

공동사업 지원은 브랜드개발·마케팅·장비·기술개발·네트워크(홈페이지 등) 등의 분야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1~5억 원 한도)의 70~80% 이내를 보조하여 지원 하였으며, 일반형, 선도형, 고성장형으로 조합의 성장단계별 유형을 나누고 우수 성장 모델 발굴과 규모화에 중점을 두었다.

표 IV-3-1-8 |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인프라 구축 지원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경북	대전 세종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신청	455	58	51	13	36	63	24	55	6	22	32	28	40	27
선정	227	16	26	5	23	41	6	29	5	13	11	9	20	23
지원	209	15	25	4	22	36	6	27	5	12	11	7	19	20

공동사업
우수사례

- 업체명 : 솜씨협동조합
- 설립일 : '17. 8. 11
- 지원이력 : '17, '18, '20년 공동사업, '19, '20년 판로지원
- 매출액 : '20년 13.6억원 → '21년 22억원(61.8% 증가)
- 성공요인 : 공동사업(고성장형)의 생산설비 자동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생산효율화, 온·오프라인 판로 확보로 매출 상승세 유지




조합성장의 기초가 되는 협업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국 1곳에 협업 아카데미를 추가 선정(총 11곳)하고 협업인큐베이팅(조합설립), 협동조합 실무 교육, 갈등관리, 협업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인프라를 확충하였고,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로드맵 구축과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디지털 경제, 언택트 경제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프라인 박람회(6회), O2O(Online to Offline) 연계(우체국쇼핑몰), 라이브커머스를(6회) 지원을 하였다.

판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올린 매출액은 89.1억원으로 전년도 매출액(60.2억원) 대비 148%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유명크리에이터(입짧은햇님, 쫄쫄)를 활용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인지도 제고 및 매출 신장을 도모하였다.

향후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업교육, 판로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며,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화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판로지원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 바다마을협동조합 • 설립일 : '16. 7. 4 • 지원이력 : '21년 판로지원사업 • 매출액 : '20년 14억원 → '21년 : 21억원(42.9% 증가) • 성공요인 :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 및 신규 플랫폼 특가행사 참여, DA 광고 상품 반복 노출로 매출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상품 : 수산물(활전복, 김) 	

4) 스마트슈퍼 육성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비대면 쇼핑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최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 202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355개의 스마트슈퍼·경험형 스마트마켓을 지원하였다.

‘나들가게 지원사업’, ‘나들가게 성과확산’ 등 동네슈퍼의 시설현대화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 소비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슈퍼 및 경험형 스마트마켓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스마트슈퍼의 시범사업으로,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스마트화를 추진하여 시범점포 5개를 구축하였다. 유·무인 병행운영이 가능한 모델로써, 매출 증가(전년 동기 대비 일평균 매출 23.0% 증가) 및 노동시간 감소(일평균 2.4시간 단축)라는 지원성과를 통해 소상공인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였다.

2021년부터는 47개의 지자체와 사업비를 매칭하여 지역별 스마트슈퍼 공동사업지원을 통해 124개의 스마트슈퍼 전환을 지원하였다. 무인계산대, CCTV, 보안기술 등 무인운영이 가능한 스마트기술·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무인운영 시간 추가 매출을 통한 경영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2021년부터는 사업을 개편하여 동네슈퍼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는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하였다. 매장에서의 특별한 소비경험 또는 지역 특색을 살린 경험요소와 스마트기술·장비를 함께 결합한 매장을 총 226개소 구축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슈퍼와 경험형 스마트마켓의 평균 매출이 6.35% 증가하였으며,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소상공인 개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점포당 2회 이상의 컨설팅 지원, 점포별 1:1 전담 매니저 매칭 등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현장관리·감독과 민원사항에 대한 맞춤형 대응으로 고객만족도 제고가 가능하였다.

2022년부터는 오프라인에 특화된 이색체험과 스마트기술이 함께 적용된 ‘경험형 스마트마켓’을 지원할 계획이다.

5) 중소슈퍼 협업화

정부는 골목슈퍼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소매점포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단체 중심의 공동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복잡한 유통단계의 축소와 조직화된 단체의 구매력을 통합함으로써, Buying-power 상승에 따른 원가 절감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소기업물류센터 운영 역량 강화와 중소기업단체 중심의 공동구매 추진을 위해 ‘배송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소슈퍼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동네슈퍼 체인화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슈퍼조합 중심의 동네슈퍼 체인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중소기업물류센터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여 권역 물류센터 간 우수상품을 전국단위로 유통시키는 ‘거점물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존 대다수 중소기업물류센터는 상품 조달비용 및 폐기 등의 문제 등으로 주류 및 공산품 위주의 상품을 취급하였다. 이에 정부는 물류센터의 상품경쟁력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상품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공동구매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국 연합체 주도하에 총 6개 품목을 선정하여 총 21개 조합³¹⁾이 운영하는 물류센터를 거쳐 중소슈퍼로 유통시켰다. 특히 21개 조합 중 16개 조합은 기존에 농산물(신선식품)을 취급하지 않았던 곳으로,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취급 상품 확대 및 상품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지역별 거점물류센터 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는 지역별로 물류센터를 선정하여 상품발굴 및 홍보, 공동구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에는 동네단위에서 소상공인 상품이 자생적으로 유통·소비되어 소상공인 중심의 유통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 사업’을 시범 추진하였다. 로컬상품 판매 및 경험형 소비가 가능한 모델숍 9개소를 구축하였으며, 모델숍 내 로컬상품 취급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생산자 교육 및 모델숍 큐레이팅, PB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모델숍과 생산자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추진하였다.

표 N-3-1-9 | 연도별 중소슈퍼 협업화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동네슈퍼 체인화	-	-	578(4)	1,997(11)	1,889(12)	1,168(7)	-	5,632(34)
배송체계 구축	2,040(11)	2,640(16)	1,872(10)	943(10)	776(9)	355(4)	-	8,626(60)
유통채널 구축	-	-	-	-	-	-	1,000(1)	1,000(1)
거점물류 활성화	-	-	-	-	-	-	50(21)	50(21)

31) 서울남서부, 부산동부, 부산북부, 대구동부, 대구중서부, 인천광역시, 경기남부, 경기동부,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고양시, 경북문경, 포항시, 전북전주, 전북정읍, 전남서부, 충북청주, 충남천안, 충북충주, 제주도

6)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음식업, 숙박업 등 일부 생계형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과당경쟁 및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직화로 자원제약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성공창업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성장 단계별 지원, 가맹점주 특화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하거나, 가맹점만 20개 이상을 운영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역량, 가맹점 지원역량, 가맹계약 공정성 등 가맹본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가맹본부 특성, 계약특성, 가맹점지원, 관계, 시스템성과 등 5개 범주를 평가한다. 이는 가맹점 보호 중심의 평가체계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맹 본부와 가맹점 간의 파트너십으로 공생 발전을 지향하는 평가 제도이다. 평가 점수에 따라 가맹본부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예비창업자에게 가맹본부 선택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수준평가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389개 업체를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하였고 2021년에는 33개 브랜드에 대한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21개 업체를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하였다.

2021년부터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협력 계획 보유 및 성과가 우수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성장단계별 지원을 진행하였고,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스마트화 및 DB구축,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지원 등의 분야를 지원하여 2021년에는 총 1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가맹점주의 노하우와 창의성이 결합된 신메뉴 굿즈 등을 지원하는 가맹점주 특화지원은 신메뉴 개발, 공간디자인, 마케팅 기법 개발 등의 분야를 지원하여 2021년에는 9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7)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사업이다. 2021년 누적 34,676개의 혁신형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국정 과제(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인 2022년까지 발굴목표 15,000개를 초과 달성하였다.

가) 혁신형 소상공인 관리

혁신형 소상공인은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스마트 소상공인, 디지털마케팅 활용형, 네트워크 활용형 등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수출유망소상공인, 디지털특성화대학 수료 소상공인, 생활혁신형 창업 성공판정 소상공인, 재창업지원 수혜 소상공인 등 4개의 유형이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혁신형 소상공인 DB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2021년에 139개사에 94억원 규모의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하였다.

나)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과 성공CEO를 매칭하여 노하우를 전수하고, 맞춤형 보육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사업이다. 주요지원내용은 성공CEO 보육(컨설팅), 상품개발·판로지원·마케팅지원 등 사업화지원,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지원, 영상콘텐츠 홍보 등으로 사업비는 소상공인 한 곳당 최대 1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2년 총 88곳의 소상공인이 성공CEO 47명과 매칭되어 지원을 받았다.

이익공유는 성공CEO 보육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추진한 결과물로 재무적 성과를 창출하고, 재무성과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사업 종료 후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법정·지정 기부처에 자율적으로 사회환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2021년 지원 소상공인 88곳 중 86곳이 총 99,782천원의 이익공유를 실시하였다.

2022년에는 기부와 함께 친환경경영 등 ESG경영 도입을 권장하여 직·간접적인 사회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8)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유통시장의 비대면·온라인화 등에 소상공인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출 역량강화, 온라인 채널 진출, 구독경제 등의 분야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교육과 배달앱 등 O2O플랫폼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교육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교육·상담을 통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이론교육(e-러닝), 지역 대학을 활용한 온라인 특성화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21년도 지원 목표 10,000명 대비 실적 12,881명으로 목표 대비 실적 129%를 달성했다.

소상공인 O2O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은 민간 플랫폼 진출과 공공플랫폼 진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민간 O2O란 공신력 있는 민간 O2O플랫폼사와 공단 간 협약을 맺어 광고비, 배달비 등 이용 수수료를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별지원 하는 것이다. '21년도 지원 목표 16,000명, 실적 17,209명으로 목표 대비 108%를 달성했다. 공공 O2O지원은 각 지자체의 공공배달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진출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지자체 3곳(서울, 충북, 군산)과 협업하여 진행하였다.

9)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장수 소상공인 육성하고, 성공 모델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역량을 보유한 우수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을 2025년까지 2,900개사를 발굴·지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명의의 '확인서'와 현판을 제공하고, 개별 점포의 성장스토리를 담은 스토리보드를 지원하고 있다. '21년도 백년가게 1,158개사, 백년소공인 740개사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2021년부터 지정·관리하고 있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의 지속성장을 위해 온라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판로지원과 노후화된 점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지원을 통해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성장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2021년도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등 100개사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지원하였으며, 512개사에 전문기관의 사전진단에 따라 시설개선을 지원하였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대표사례 발굴하여 업체 소개집과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소비촉진과 백년가게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대국민 이벤트를 추진하였다.

10)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비대면·디지털화되는 소비유통시장에서의 소상공인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매장에 서빙로봇,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1년에 본사업을 추진하였다.

소상공인에게 스마트기술을 보급함과 동시에 도입 필요성 인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스마트기술이 보급된 소상공인 점포가 한 곳에 집적 될 수 있도록 ① (스마트 시범상가 구축) 상점가를 선정하여 상점가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에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② (업종별 스마트상점 조성) '21년에는 업종별 필요 스마트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하여, 업종별 협단체를 선정하여, 협단체를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였다.

시범사업이 도입 된 '20년에는 본예산 16.5억원, 추경84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55개의 스마트 시범상가를 조성하였으며, '21년에는 24.5억원의 본예산으로 총 113개 스마트 시범상가를 선정·지원하였다.

특히, '21년에는 5개 업종별 협단체*를 선정하여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기술보급을 지원하였다.

* 대한미용사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한안경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독서교육협의회)

2022년에는 상점가 및 협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을 위하여 개별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등으로 비대면·온라인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다. 소상공인재기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임금근로자 및 재창업·업종전환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N-3-1-10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건)

사업실적 \ 사업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예산		439	1,715	1,195
지원 실적	폐업지원	13,303	18,809	31,833
	취업지원	18,700	15,495	16,936
	업종전환 재창업지원	6,412	5,929	9,027
	재도전장려금(추경)	-	71,284	236,487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5,547	10,145	14,679

* ('19년) 7.5억, ('20년) 1,273억 ('21년) 479억 추경포함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재기를 위해 폐업(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업종전환재창업(교육,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5.8만 여건을 지원했다,

표 IV-3-1-11 | 사업 지원내용

폐업 지원	취업 지원	업종전환·재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분야 컨설팅 지원 ■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 (법률자문)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신용, 노무, 세무 등에 관한 법률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직무탐색 및 취업마인드 제고 등 교육 지원 ■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완료 소상공인 대상 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업종별 이론 및 실습, 경영공통교육 지원 ■ (멘토링) 마케팅, 경영, 세무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 성공률 제고 ■ (사업화)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

폐업 절차 및 신고사항, 재산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직업탐색 등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분야에 대한 사업정리컨설팅과 사업정리비용(점포철거·원상복구) 소요비용(최대 200만원, 부가세 제외)을 지원하였다. 또한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신용, 노무,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및 채무해소 Fast-Track 구성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파산·회생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의 취업을 위한 마인드 변화, 직업 정보 탐색 등 교육 지원과 폐업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관·공·학과 협업하여 에어컨 설치·관리, 소형건설기계 등 전문기술인력교육, 커피 바리스타 과정 등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취업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였다.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재창업하는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및 재창업을 성공률 제고를 위해 업종별 전문 이론 및 실습교육, 전문가 자문, 사업화를 지원했다. 향후 위기 소상공인의 선제적 경영정상화지원을 통해 폐업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험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7년 국정과제(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확충)에 반영되어 2018년에 신규 도입된 사업이다.

2019년에는 지원 대상을 1~4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차등하였으며, 지원기간도 확대하였다(최대 3년). 2020년도에는 기존 분기별 지원금 지급방식을 월별 지급형태로 변경하여 수혜자만족도 및 대응성을 향상시켰다.

2021년에는 지원대상 확대(1~7등급) 및, 지원기간의 확대(5년)로 지원기준을 확대하며,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자부담 비율의 경감 등 지원을 강화하여 1.4만 여건을 지원하였다

향후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직접 홍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시스템 모바일 개편 등으로 소상공인의 지원 사업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3)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재도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년 제4 회 추경으로 신규 도입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 '21년 지속지원 필요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06억원이 반영되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년 8월 16일 이후 재도전 기반마련을 위해 50만원을 지원했으며, 국세청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 사전 선별하고, 대상자 통보 후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3만명에게 익일 신속지급(71.4%) 하였다.

라.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여섯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소공인 집적지 내에 소공인특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업종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고, 기획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를 구축 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중기부와 공단은 이러한 공동 인프라 사업을 통하여 집적지 활성화 및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집적지 외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시·박람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수공업 위주 제조의 스마트화 추진,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개선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소공인특화센터 설치·운영사업은 집적지³²⁾ 소공인에게 특화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공인 집적지에 소공인특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집적지 소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6개 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2014년 8개 센터, 2015년 24개 센터, 2016년 36개 센터, 2017년 32개 센터, 2018년 ~2020년까지 34개 센터, 2021년 35개 센터로 확대 운영하였다. 소공인특화센터 운영을 통해 소공인 상담 및 특화 교육,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의 맞춤형 특화사업, 정책서비스 추천 등을 지속 추진 중이다.

표 N-3-1-12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명)

사업연도 사업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운영센터수	8	24	36	32	34	34	34	35
지원예산	2,800	10,400	14,250	12,440	12,405	13,183	16,400	11,900
수혜자수	2,233	3,416	4,527	5,614	5,998	5,026	6,386	6,405

2021년에는 서울 문래동 내 광역특화지원센터를 최초 구축하였다. 이로써 소공인 및 산·학·연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제품 제작, 기술교류 등 협업 성장 기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성과평가 고도화, 졸업제 도입 등을 통한 성과중심 사업운영을 통해 소공인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31)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특정한 공간에 모여 있는 지역을 의미

그림 35 | '21년 광역특화지원센터 우수사례

<p>기술교류 및 시제품 제작</p> 	<p>[폐기 태양전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기 시제품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술대학교와 소공인 간의 기술교류를 통해 폐기 태양전지를 재활용한 마이크로 태양광 발전기 시제품 개발 -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우즈베키스탄 등)에 샘플 제품 제안 및 납품 계약 추진
--	---

2)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서,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집적지구 내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장비실, 전시·판매장 등의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구축 지원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2016년부터 총 37곳의 집적지구를 지정하여 소공인의 원재료 및 상품 보관, 공동 인프라를 통한 제품 생산, 상품개발, 공동전시장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공인의 제품 및 기술 역량강화, 공동구매한 재료를 사용한 비용절감, 정밀장비를 활용한 제품 부가가치 제고 등 소공인의 제품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IV-3-1-13 | 2015년~2017년 구축 공동인프라 현황(10개소)

시설명	인프라 구축현황
<p>서울 창신동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장비실·전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재단실, 장비실, 전시장, 교육실, 사무실 • (장비) 봉제장비, 연단기, CAD/CAM, 사무집기 등
<p>서울 석관동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전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전시장, 상담·회의실, 사무실 • (장비) 전시장비, CAD/CAM, 빔프로젝터 등
<p>대전 정동 인쇄 소공인 공동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동창고, 교육실, 사무실
<p>부산 범천동 귀금속 소공인 공동장비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상담·회의실 • (장비) 파괴분석기, 용접기, 3D프린터, 3D캐드 등
<p>부산 범천동 수제화 소공인 제품홍보관·장비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전시장, 상담·회의실 • (장비) 전시장비, 촬영장비, 3D프린터, 사무집기 등
<p>서울 봉익 주얼리 소공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상담·회의실 • (장비) 용접기·가공기, RP 출력기

시설명	인프라 구축현황
화성 향남 기타기계 공동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교육실 • (장비) 음향영상장비, 교육용 기구
부천 신흥 전기장비 공동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 (장비) EMI·ESD 시험장비, 설드룸 등
대구 성내 주얼리 공동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 (장비) 3D프린터, 레이저가공기 등
전주 팔복 금속가공 공동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 (장비) 머시닝센터, 3차원측정기 등

3) 소공인 집적지구 복합지원센터구축 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소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회를 통한 집적지구 활성화와 집적지구 내 소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활용 시설을 통해 기획에서부터 신제품 개발, 상품제작,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8곳의 집적지구를 지정 및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전시 판매와 바이어미팅을 통한 수출판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표 N-3-1-14 |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37곳)

집적지구명	분야	선정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 (C24, C25, C29) 집적지구	기계금속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기타 제품 제조업(C33) 집적지구	귀금속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집적지구	수제화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집적지구	인쇄	
경기도 시흥시 대야·신천동 기계·금속(C29, C25) 집적지구	기계금속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남면 섬유제품(C13)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섬유제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집적지구	전자부품	

집적지구명	분야	선정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의류(C14) 집적지구	의류	부산광역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식료품(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식료품	강원도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식료품(C10) 집적지구		
강원도 인제군 북면 식료품(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의류(C14) 집적지구	의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의류(C14) 집적지구	의류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금속가공(C25) 집적지구	금속가공	경기도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구(C32) 집적지구	가구제조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의류(C14) 집적지구	의류	대구광역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기타 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기타기계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식료품(C10) 집적지구	식료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집적지구	전자부품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집적지구	인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비금속 광물제품(C23)집적지구	도자 제조	경상남도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식료품(C10) 집적지구	식료품	전라북도 순창군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 기타 제품(C33)집적지구	주얼리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금속 가공제품(C25),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금속, 기계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비금속광물(C23) 집적지구	도자 제조	경기도

집적지구명	분야	선정기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가구(C32) 집적지구	가구 제조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송림동 금속 가공제품(C25), 전기장비(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금속, 전기, 기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 금속 가공제품(C25) 집적지구	금속가공	전주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5가 기타제품(C33)집적지구	주얼리	광주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C14) 집적지구	의류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양말제조(C14) 소공인 집적지구	의류제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조원·미성동 의류봉제(C14) 집적지구	의류제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안경·안경렌즈 제조업(C27) 집적지구	안경제조	대구광역시
양천구 신월동 가방제조업(C15) 집적지구	가방제조	서울시 양천구
인천 서구 오류·왕길 표면처리(C25) 집적지구	금속가공	인천광역시 서구
고양 인쇄문화 허브센터(C18)	인쇄	경기도
K-GIM(광천김) 식료품제조업 집적지구(C10)	식료품	충청남도 홍성군

표 N-3-1-15 |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8곳)

집적지구명	분야	선정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섬유제품 제조(C13) 집적지구	섬유제품	충청남도 공주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상봉동 패션·봉제 (C14, C13, C15) 집적지구	의류봉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집적지구	인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식료품(C10) 집적지구	식료품	경상북도 영주시

집적지구명	분야	선정기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금속가공제품(C25) 집적지구	금속가공	경기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 야생차소공인 집적지구(C10)	식료품	경상남도 하동군
경기도 김포시 소공인 집적지구(C29)	기타기계장비	경기도
충청남도 금산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C10, C11)	식음료	충청남도 금산군

4)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성장 잠재력 있는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신규판로 확보와 매출 향상, 수익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매장입점, 미디어콘텐츠 제작 등이 있다.

2015년 지원을 시작하여 21년까지 1,930개사를 선정·지원하였으며, '21년의 경우 사업참여 전·후의 전체매출액 증가율이 무려 29.9%(약 1,770억→약 2,300억)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기부와 공단은 앞으로도 개별 소공인 판로개척과 같이 온·오프 공동기획전, 해외수출 등 추가적인 판로연계지원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5)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 기술(IoT, AI 등)을 접목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정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제조환경에 소공인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기술 확보·개발 및 제품개선과 기초 스마트기술(IoT, AI 등)을 접목하여 부분 자동화 등 공정개선을 지원한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소공인 82개사, 2021년에는 599개사를 지원하여 공정 개선 등 역량 수준 향상, 부분 자동화에 따른 작업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특히 월평균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각각 전년대비 매출액 13.4%, 고용인원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이에 중기부는 공단과 함께 향후 2027년까지 17,000개를 목표로 스마트공방 사업을 지속 추진 하기로 하였다.

6)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소공인 작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를 지원하는 안전조치, 근로자의 작업환경 내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근로환경개선과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클린제조환경사업은 202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2,209개사, 2021년 1,654개사 등 총 3,863개사를 지원하였다. 성과 분석 결과 중기부와 공단의 지원을 받은 작업장의 사고 위험성이 59.9%나 감소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와 공단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대상과 분야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마. 시장경영혁신지원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한 마케팅, 상인교육, 온누리상품권, 특성화시장 육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정적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1) 시장경영패키지지원(舊.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은 기존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 서비스 5개 사업을 통합·개편하여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본 사업은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하고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원 대상은 전년도 하반기에 모집 후 중소벤처기업부 13개 지방청에서 지역별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상점가는 5개 사업 부문(마케팅, 교육, 자문,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중 희망 사업 부문을 선택하고,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희망사업부문에 자율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에는 본예산 141억원으로 345곳, 추경예산 212억원으로 633곳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지원하였으며, 개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2021년에는 기존 5개 사업 부문 외 온라인플랫폼바우처를 신규 개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였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대면 상인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하였다.

2022년에는 온라인마케팅 부문을 추가하여 6개 사업부문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온라인 마케팅 등을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진행 할 수 있도록 시장매니저를 대상으로 시장 기본데이터 조사, 시장특성 분석 등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

2) 전통시장 홍보

①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국 15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한자리에 모여 발전하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국내 최대의 전통시장 행사이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우수 사례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상품을 전시·홍보·판매하여 전통시장 인지도 제고와 이용활성화를 도모한다.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9월 말부터 10월 초에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② 지역상품전시회

지역상품전시회는 지역 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을 국민에게 발굴·소개하여 상품 홍보 및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우수상품 교차전시를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 병행운영으로 대전, 울산, 강원, 경북, 부산, 대구, 인천, 충북, 경남 총 9개 지역에서 지역상품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관람객 27만명 방문 및 접속 관람, 매출액 911백만 원이 발생하였다.

2022년 지역상품전시회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총 11개 지역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③ 6시 내고향

6시내고향 사업은 한국방송공사(KBS)와 협력하여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6시내고향'에 전국 각 지역 전통시장의 매력 및 특화 상품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연중 매주 목·금요일 18:00~18:55분 동안 방영되었으며, 힘내라! 전통시장 등 정규방송 50편, 우수시장박람회, 크리스마스 특집방송 2편 등 총 52편이 제작·송출되었다.

2022년에는 연중 매주 목요일 18:00~18:55분 동안 방영될 예정이며, 정규방송 40편 및 특집방송 2편 등 총 42편이 제작·송출될 예정이다.

표 N-3-1-16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회, 편)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제작 및 송출	총 50회 (정규 46편, 특집 4편)	총 52회 (정규 43편, 특집 4편 등)	총 46회 (정규 44편, 특집 2편 등)	총 49회 (정규 47편, 특집 2편 등)	총 52회 (정규 50편, 특집 2편 등)	총 42회 예정 (정규 40편, 특집 2편 등)

④ 지역민방

지역민방 사업은 지역민간방송사를 활용하여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의 편리성, 지역명물, 시장 맛집과 같은 정보를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광주(KBC), 경인(OBS), 대전(TJB), 울산(UBC), 강원(G1), 충북(CJB), 제주(JIBS), 경남(KNN), 전주(JTV) 등 9개 민영 방송사를 활용하여 총 191편(정규 170편, 기획 21편)을 제작하여 송출하였고, 2022년에는 경쟁을 통해 9개 지역민영방송사가 선정되었으며 총 153회(정규 135회, 기획 18회) 이상 송출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⑤ 전통시장 홍보모델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며 중장년층의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청년 등 다양한 신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객이 전통시장에서 느끼는 친근한 이미지에 착안, 일반인 홍보 모델 발굴·활용을 통해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

2022년에도 대국민 전통시장 관심도 제고를 위해 선발된 전통시장 홍보모델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셀러, 제품 홍보대사 및 전통시장 홍보방송 출연이 예정되어 있다.

* (2021년) 아동 3명, 청소년 3명, 청년 3명, 장년 4명, 중년 3명, 노년 4명 등 총 20명 선발

⑥ 시장하시쇼

홍보 대상별 콘텐츠를 발굴하고 최적의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 정책대상 유용 정보제공 및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카카오톡 채널 '상인정보통' 기반으로 긴급 정보, 정책 메시지, 이벤트 안내 등의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2년에는 시장별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지'를 제작할 계획이다.

3)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공동상품권을 발행 및 유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2009년 7월부터 전국 전통시장 공동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였다. 2009년 200억 발행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3조 1,573억을 발행해

3조 1,721억을 판매했으며(발행누적 15조 6,331억, 판매누적 14조 9,323억), 소비자 및 상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19만 6천개 가맹점, 취급 금융기관 16곳을 확보하였다. 특히, 전통시장의 신규고객층 유입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2019년 9월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신규 도입하여, 현재 지류상품권(5천원권, 1·3만원권), 전자상품권(5·10만원 기명식, 충전식), 모바일상품권(5천원권, 1·3·5·10만원권)을 발행·공급하고 있다.

표 N-3-1-17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만 개)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발 행 액	900	2,400	4,060	5,000	6,360	7,381	10,030	12,850	15,016	20,074	40,487	31,573
판 매 액	753	2,224	4,258	3,258	4,801	8,607	10,946	10,743	14,916	16,853	40,139	31,721
가 맹 점	11.6	14.0	16.2	16.9	17.4	17.9	18.2	18.6	18.7	19.5	19.6	19.6
지원예산	27	64	149	321	360	732	797	792	1,080	1,768	4,382	2,956

4) 특성화시장 육성

① 지역선도형시장

지역선도형시장은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시장의 롤모델이자 지역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 협업사업의 기준이 되는 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특화요소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18년에는 희망사업프로젝트로 일부 개편되면서 신규시장 2곳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19년~2021년도에는 각각 신규시장 1곳씩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표 N-3-1-18 | 연도별 지원실적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선정수	4곳	7곳	2곳	1곳	1곳	1곳

그림 36 | 지역선도시장 2021년 우수사례



도심형시장

(신매시장) 신매시장의 대표 특화상품 “신나고양품” 개발과 근거리배송 ‘GO배달’ 서비스 확대로 소비자 만족도 상승 및 도심형관광시장으로 육성

② 문화관광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의 자원(관광·문화·예술·특산품)과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공간조성, 관광 상품개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2018년에는 희망사업프로젝트로 부분 개편하여 신규시장 31곳 및 2~3년차 계속시장 57곳을 지원하였고, 시장의 고유브랜드 개발, 지역관광지와 연계, 스토리텔링 도입 등으로 시장매출 증대 및 고객유인에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시장에서 도약한 20곳을 포함한 42곳의 신규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19년도에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시장에서 도약한 16곳을 포함한 45곳의 신규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20년도에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시장에서 도약한 20곳을 포함한 42곳의 신규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표 IV-3-1-19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신규 선정 수	4곳	6곳	8곳	6곳	15곳	32곳	23곳	33곳	22곳	35곳	31곳	42곳	45곳	42곳	344곳

표 IV-3-1-20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점지원사항 변경내역

시행시기	내 용
2008년~2009년	시설현대화 사업과 혼합하여 하드웨어 위주
2010년~2012년	스토리텔링, 캐릭터 개발, 장터 공연단, 시장라디오 등 소프트웨어 사업위주
2013년~2017년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ICT 및 디자인 융합 등 휴먼웨어 중심
2018년~	희망사업프로젝트 도입으로 기반이 확립된 시장에 한해 특성화 집중 지원

참고 | 문화관광형시장 '20년 우수사례

회원제를 통한 고객확보		<p>(포항근동해시장) 지역주민 고객회원제와 멤버십 콘텐츠 구축으로 고객회원 3600여명 참여, 객단가 160% 상승, 점포매출 평균 40% 증가를 달성, 지역주민과 전통시장 상생 동력 확보</p>
--------------	---	---

상생협력 구축		<p>(당진전통시장) 노브랜드·장난감도서관 유치 및 지역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 등 대기업·지역커뮤니티와의 상생 강화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미래 소비자 확보</p>
---------	---	---

③ 특성화 첫걸음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사업은 기반조성사업과 컨설팅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반조성사업은 3대 고객서비스 혁신(편리한 결제, 고객신뢰, 위생청결)과 2대 역량강화(상인 조직역량, 화재 안전관리)를 통해 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대체하여 신설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 34개 신규시장을 선정·지원하였다. 특히 해당사업은 1년간의 사업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곳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신규시장 30곳씩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10곳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첫걸음 컨설팅사업은 특성화 기반조성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이 미흡한 곳을 대상으로 기초 환경분석을 실시하고 시장 원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24개, 2019년에는 31곳, 2020년도에는 20곳, 2021년도에는 10곳을 지원하였다.

표 N-3-1-21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18	'19	'20	'21	계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34곳 (20곳 도약)	30곳 (16곳 도약)	30곳 (5곳 도약)	10곳 (4곳 도약)	104곳
첫걸음 컨설팅사업	24곳	31곳	20곳	10곳	85곳

참고 | 특성화첫걸음시장 2021년 우수사례

<p>결제편의 개선</p>		<p>(관고전통시장) 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한 이벤트와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제로페이 가맹률 30.8%p 상승, 온누리 가맹률 33%p 상승 등 편리한 결제 환경 조성</p>
--------------------	--	--

<p>컨설팅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p>		<p>(용운시장) 첫걸음 컨설팅사업을 통한 기초역량 진단 및 서비스 개선방안 수립, 결제편의·가격표시 등의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 '22년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지원시장 선정</p>
------------------------------------	--	--

5)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①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의시설 및 협업공간 조성, 청년상인 창업교육, 점포 임차료 및 인테리어 지원,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6년 14곳 시장, 2017년 12곳 시장, 2018년 9곳, 2019년 4곳 시장을 선정하여 전통시장 청년상인 집적지구를 조성했고, 2020년에는 3곳 시장을 선정하여 조성완료하고, 2021년에 1곳을 지원하여 2022년에 개장 예정이다. 2017년까지 청년몰당 지원 금액은 점포 20개 기준 15억 원로 지원 되었으나, 2018년부터 기존의 청년상인들만 입점하던 청년몰 지원에서 확장 되어, 청년몰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어 지원금액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금액 구성 :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를 기본으로 지자체별 상이

표 IV-3-1-22 | 청년몰 조성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시장 수	14	12	9	4	3	1

②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기 지원한 청년몰의 시장안착을 위해 2018년부터 청년몰의 홍보, 마케팅, 교육 등 S/W중심의 청년몰 활성화지원과 시설개보수, 추가공간조성 등 확장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활성화지원 16곳과 확장지원 8곳, 2019년은 활성화지원 3곳과 확장지원 2곳, 2020년에는 활성화지원 7곳과 확장지원 3곳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활성화지원 4곳과 확장지원 2곳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활성화 8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몰 활성화지원은 1년간 5억 원, 청년몰 확장지원은 1년간 10억 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다.

* 지원금액 구성 :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를 기본으로 지자체별 상이

표 IV-3-1-23 | 청년몰 활성화·확장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활성화지원	16	3	7	4	8
확장지원	8	2	3	2	-

③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층 고객 유입을 위해 전통 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창업에 따른 교육,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20개 시장 218개 점포를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21개 시장 178개 점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14개 시장 112개 점포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중앙에서 별도 모집하여 45개 점포를 입점 지원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점포당 지원 금액은 최대 40백만 원이었으며, 2018년에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다.

표 N-3-1-24 | 청년상인 창업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2018년
지원시장 수	20	21	14	중앙모집
지원점포 수	218	178	112	45

④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 영업중인 청년상인의 경영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신메뉴 개발, 홍보마케팅, 제품·포장디자인 개선, 온라인 진출 지원 등 청년상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48곳, 2018년 107곳, 2019년 222곳, 2020년 231곳, 2021년 281곳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35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N-3-1-25 | 청년상인 도약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정)
지원점포 수	48	107	222	231	281	350

⑤ 청년몰 대학협력

청년몰(전통시장)-대학협력 사업은 대학의 전문인력, 지식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시장 맞춤형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이다. 2019년부터 대상이 청년몰로 한정되어 청년몰의 애로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개편되어 기존 전통시장(2년차) 4곳, 청년몰 8곳을 지원했으며, 2019년에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다.

6) 상권활성화

최근 구도심 쇠퇴와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상권 위축 등의 문제가 개별 시장만을 한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011년 6곳, 2014년 신규구역을 선정해 2016년까지 지원하였다.

이후 지역상권법이 발의되면서 새로운 법에 따른 상권활성화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상권활성화 지원이 일시 중단되었다. 이후 기존 전통시장법에 따라 상권활성화 지원을 재개하며, 이전의 지원이 3년간, 30억 원(국비 50%, 지방비 등 50%)로서 사업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개선해, 5년간, 80억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등 50%)로 확대했으며,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이 붙여졌다.

이에 따라 '18년에는 3개, '19년 9개, '20년 8개, '21년 8개 구역을 선정하였고, '22년에는 약 9개 구역(부산 사하포함, '22.1 선정)을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상권환경개선(거리정비, 주차장 설치 등), 상권활성화(상인교육, 이벤트 등)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며, 특히 '22년부터는 지역상권법 시행('22.4.28)을 근거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권단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표 N-3-1-26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곳)

구 분	상권활성화구역		상권르네상스				
	('11년~'13년)	('14년~'16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수	6	6	3	9	8	8	9곳(예정)

* 상권활성화구역 : 서울 마포 도화용강 상점가 활성화구역, 경기 성남 수정로활성화구역, 강원 동해 활성화구역, 충북 청주용거리·성안길 상권, 부산 동구 조방앞 상점가, 경남 창원 오동동어시장 상권, 경기 성남 산성로활성화구역, 경기 의정부 구도심 활성화구역, 충남 부여도심 활성화구역, 전남 순천 원도심 활성화구역, 울산 울주 언양시장 일원 활성화구역, 부산 해운대 활성화구역

* 상권르네상스 :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경기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구역, 전남 강진읍상권활성화구역, 경남 진주시 중앙 상권활성화구역, 광주 서구 양동통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충남 천안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경기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충남 공주시 산성상권활성화구역, 전북 군산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서울 관악 별빛신사리상권활성화구역, 부산 연제 오방상권활성화구역, 정선 아리랑상권활성화구역, 문경시 점촌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부안마실상권활성화구역, 양평물맑은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진도읍 남문로 상권활성화구역, 진해군항 상권활성화구역, 동작구 사당역~이수역 상권활성화구역, 춘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인천 부평구 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 인천 중구 개항희망문화상권활성화구역, 광주 광산구 송정역세권상권활성화구역, 광주 동구 충장상권활성화구역, 전북 익산시 익산다e로움상권활성화구역, 경북 경주시 중심상권활성화구역, 경북 안동시 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 경남 밀양시 원도심햇살문화상권활성화구역, 부산 사하구 온택트괴정스마트상권활성화구역

7)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은 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점포 밀집 및 시설이 노후한 상가건물 등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전통시장에 대해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소방·전기·가스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년부터 시행하였다.

전국 전체 전통시장의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 관련 주기적·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상인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는 상인회 및 관할지자체와 공유하여 자율개선 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개·보수 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인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및 캠페인 개최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 홍보를 통해 상인들의 안전의식 수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6년도부터는 시장별 안전등급제를 도입하여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른 안전등급(A~E)을 부여하여 개별시장의 취약정도 등 현황 파악 용이 및 D~E 등급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및 협력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3년 단위의 지속적·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거하여 분야별 점검기관의 법정 점검과 통합 운영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안전점검 성과제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지자체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였다.

표 IV-3-1-27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예산	445	1,220	2,972	2,972	2,972	2,272	2,458	3,243	3,243
대상시장수	200	501	773	747	357	382	433	562	599

* 2013~2015년 1차, 2016~2018년 2차, 2019~2021년 3차 전체시장 전수점검 완료

참고 | 분야별 안전등급 현황

○ 소방분야 안전등급 현황

구 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점검제외*
시장수(개)	47	231	192	99	29	1
비 율(%)	7.9	38.6	32.1	16.5	4.8	0.1

* 시장 미운영, 철거, 점검대상 설비 無, 기존시장과 공동운영 등

◆ 안전등급 기준

○ 배점 = 진단 전문가 평가 점수(60%) + 설비별 점검결과 점수(40%)

○ 등급별 점수

등급	총점	내용
A	90 이상	설비가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관리상태 우수한 수준
B	80이상-90미만	설비 또는 관리상태가 일부 미흡하나 전반적인 설비 신뢰도가 양호한 수준
C	70이상-80미만	설비·관리상태가 일부 미흡하나 개선을 통해 신뢰도 회복이 용이한 수준
D	60이상-70미만	설비 기준 미달·관리상태가 미흡하여 일정 수준의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
E	60 미만	설비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관리상태 불량으로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

○ 전기분야 안전등급 현황

구 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점검제외*
시장수(개)	101	387	37	7	1	66
비 율(%)	16.9	64.6	6.2	1.1	0.2	11.0

* 시장 미운영, 철거, 점검대상 설비 無, 기존시장과 공동운영, 코로나19로 인한 점검제한(상인회 요청, '22년 중 추가 점검 예정) 등

◆ 안전등급 기준배점

○ 배점(설비안전도) = 전기적 요소(70%) + 환경적 요소(30%)

○ 등급별 점수

등급	총점	내용
A	90 이상	전기설비 상태가 양호
B	80이상-90미만	전기설비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C	70이상-80미만	시설물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요소 일정 부분 존재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보수·정비필요
D	60이상-70미만	중대한 부적합사항 발생으로 즉시 개·보수 또는 사용제한 여부 결정 필요
E	60 미만	중대한 부적합사항 3개 이상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 및 사용제한 필요 상태

○ 가스분야 안전등급 현황

구 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점검제외*
시장수(개)	221	69	53	48	149	59
비 율(%)	36.9	11.5	8.8	8.0	24.9	9.8

* 시장 미운영, 철거, 점검대상 설비 無, 기존시장과 공동운영 등

◆ 안전등급 기준

○ 배점 = 전통시장 내 가스사용 업소(점포)에 대한 부적합 업소와의 비(부적합률)

○ 등급별 점수

등급	내용
A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10% 이하로서 주요 지적사항이 없는 시설
B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10% 초과 ~ 20% 이하인 시설
C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20% 초과 ~ 30% 이하인 시설
D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30% 초과 ~ 40% 이하인 시설
E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40%를 초과하는 시설

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통시장 내 조기 발화요인(연기, 열, 불꽃 등)을 감지하고 소방관서·상인에게 통보함으로써 화재 초기 진압이 가능케 하는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특별법 상의 등록, 인정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장 영업점포의 30%이상이 신청·동의 및 민간부담금이 확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전통시장 구조 및 특성에 따라 개별 및 공용부분에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개별 점포형과 건물구조가 개방되어 있어 공용부분에만 설치를 지원하는 오픈점포형으로 구분한다. 총사업비는 개별점포 및 공용부분을 합계하여 1점포당 최대 80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국비 70%와 지방비를 포함한 민간부담금 30%로 구성된다.

2017년 6개 시장에 시범적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구축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IV-3-1-28 | 유형별 지원내역 및 한도

구분	설치내역	지원한도(국비 기준)
개별점포형	○개별점포 : 감지기(유·무선) ○공용부분 : CCTV, 수신기, 속도설비 등	○시장당 최대 '56만원 x 신청점포수 산출금액' 이내 (개별점포+공용부분=56만원) * 국비 70%, 민간 30%
오픈점포형	○공용부분 : 감지기(유·무선), CCTV, 수신기, 속도설비 등	

②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노후전선을 정비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특별법 상의 등록, 인정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장 영업점포의 30%이상이 신청·동의 및 민간부담금이 확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개별점포의 노후된 전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점포당 최대 250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국비 50%와 지방비를 포함한 민간부담금 50%로 구성된다.

2019년 신설되어 전통시장 개별점포의 노후된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을 개선하였으며, 전국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를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③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7년 상품판매를 개시하여 향후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시장 특별법 상의 등록, 인정시장 내 점포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2021년에는 신규특약상품(점포 휴업일당)을 추가하여 보장범위를 넓히는 등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가입률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소멸성 상품이며 가입한도는 6천만 원(건물 3천만, 동산 3천만)이다.

표 IV-3-1-29 |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예시(1년 주계약 기준)

구분		2천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연 66,000원	연 132,000원
		B급	연 101,500원	연 203,0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음식물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 중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 30만원		
	화재벌금	- 추가공제료 : 연 100원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보상 (형법 170조) 1.5천만원 / (형법 171조) 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 10만원		
	점포휴업일당	- 추가공제료 : 연 2,400원 - 1사고당 30일한도(매 1년마다 총 60일 한도(1일 당 5만원)) -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건물구조급수(A/B급) :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눈 등급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8) 조사 및 평가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상인 조직, 매출액 등 일반 및 경영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영업 중인 전통시장 수는 1,401개로 전년 대비 12개가 감소하였고, 시장 당 일평균 매출액은 5,732만원으로 전년 대비 17만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승인 제309002호)

표 N-3-1-30 | 전통시장 실태조사 연도별 일반 현황

(단위 : 개, 명, 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통시장수	1,398	1,439	1,441	1,450	1,437	1,413	1,401
점포수	203,643	207,083	209,193	209,884	205,271	207,643	207,143
총 상인수	353,070	356,176	368,930	363,660	359,049	342,031	325,492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4,672	4,812	4,988	5,125	5,409	5,749	5,732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평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가능할 수 있는 주요 척도인 매출액 증감 여부를 정부 지원을 받은 실시시장과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미실시 시장으로 구분해 공표함으로써, 정부지원 사업의 정책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2020년 실시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994원이 증가하여 54,651원 감소한 미실시 시장에 비해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N-3-1-31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평가

(단위 :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증감률
실시시장	529,705	542,699	12,994	2.5
미실시시장	395,515	340,864	-54,651	-13.8

바.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기체감 및 예상경기를 파악하여 정보수요자들이 경기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용자 지원업체 사전진단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 효과,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1) 소상공인포털(소상공인마당)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국의 전통시장을 위한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로서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2007년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콘텐츠 확충과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 실적이 2019년 268만 건, 2020년 668만 건, 그리고 2021년 685만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정책 지원 및 자금 지원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방문이 급증하였다.

표 IV-3-1-32 | 소상공인포털(소상공인마당) 이용 추이

(단위 :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접속건수	1,456,596	1,524,882	2,016,641	2,682,880	6,682,630	6,855,772

2021년에는 회원관리 기능 개선으로 보안성을 향상시켰고, 웹 UI 개선을 통하여 사용자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2022년에는 소상공인 지원이력 정보 연계확대, 디자인 및 메뉴구성을 개편하여 정보접근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2) 소상공인 지능형 상담 챗봇(소담봇)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시공간 제약 없이 상담이 가능한 지능형 응대서비스 챗봇을 운영하고 있다. 챗봇은 2019년 구축되어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11월 정식 서비스가 시작 되었으며,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식DB 확충 및 현행화 등 질의응답 준비를 통해 챗봇 응답 실패율이 2020년 20.6%에서 2021년 15.3%로 개선되었다.

2021년에는 지식DB 강화뿐만 아니라 챗봇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코치마크 가이드(도움말)를 제공하고 자동완성기능 구축을 통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정책자금 지원정보와 연계하여 대출잔액 및 상환일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2022년에는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별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여 챗봇에서 지원받은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소상공인주간활성화

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최

소상공인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의지를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2007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개최해 왔다.

‘2021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2021년 11월 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145점의 포상을 수여하였다. 소상공인 제품 판매관, 무료체험관, 정책홍보관 등의 부대 행사와 함께, 양복맞춤협회, 메이크업미용사회 등 4개 단체의 기능경진대회도 개최하였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모두 다함께 국가 재난난을 이겨낼 것이라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2022년에는 11월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소상공인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추진 예정이다.

나)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개최

소상공인의 우수기술을 발굴 및 전파하고,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업종별 기능경진대회’를 2013년 신규로 개최하였다.

2021년에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맞춤양복, 메이크업, 외식, 펫산업애견, 분장 예술, 제과, 선물포장, 미용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하여, 업종별로 특화된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3,750명의 소상공인과 일반인이 결선에 참가하고, 약 4만8천명의 일반시민이 참관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우수기능인을 발굴하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업종별 교류·협력의 기회를 제공했다.

2022년에는 11월 4일~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와의 통합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추진 예정이다.

4)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

가)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는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체감경기 및 전망경기를 파악하여 정보 수요자들이 경기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현안 문제 해결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제142004호, 2001년)

표 N-3-1-33 | 그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표본수 변화

(단위 :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소상공인	2,000	2,200	2,200	2,400	2,400	2,400	2,400	2,400
전통시장	1,000	1,000	1,000	1,300	1,300	1,300	1,300	1,300

* 기존 각각 실시하던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 전통시장 경기동향조사를 2014년에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로 통합

* 2017년 소상공인 표본 수는 제조업 추가, 전통시장은 지역별 지수 공표를 위해 각각 증가

소상공인은 제조업,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계형 주요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정보, 경기전반·매출·영업이익·자금사정·원재료조달사정의 체감경기 및 전망경기 등을 조사한다.

전통시장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의류·신발, 가정용품, 음식점, 기타소매업 및 근린생활 서비스업 등 주요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정보, 경기전반·매출·영업이익·자금사정·원재료조달사정·구매고객수의 체감경기 및 전망경기 등을 조사한다.

조사기간은 매월 18~22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이다.

표 N-3-1-34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추이

구분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1.10	'21.11	'21.12
소상공인	체감	35.8	43.8	59.2	54.0	55.8	53.6	32.8	34.8	57.6	62.5	66.2	39.3
	전망	62.8	75.0	77.5	71.6	71.5	71.9	45.4	65.2	78.1	87.6	85.4	66.6
전통시장	체감	33.5	43.7	44.5	46.4	48.1	49.2	26.6	32.6	77.4	57.9	67.0	41.2
	전망	67.8	68.6	72.7	73.3	65.1	76.8	43.4	79.2	73.0	88.7	83.8	66.2

나) 소상공인시장 정책조사연구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증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방안 연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개선방안 연구」, 「소상공인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모형 개발 및 추정에 대한 연구」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였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이슈페이퍼·브리프 발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동향분석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현안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소상공인전담연구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자체연구가 가능한 박사급 전문연구인력(5명) 및 연구보조(2명)를 충원·배치하였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연구, 소상공인 배달플랫폼 활성화 및 상생협력방안 등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방향 설정에 기초가 되는 기초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임차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정부의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 연구자문 등 유기적 협력, 연구저변 확대 및 상호 협력을 강화하였다.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의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산·학·연 간 소통의장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부정책의 이해를 돕고,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하였다.

5) 정책자금 운영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IMF 외환위기 이후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용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1년부터 자금의 정책 목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기반자금,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IV-3-1-35 | 연도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사,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지원업체	44,233	48,341	64,497	57,625	58,462	186,215	226,632	686,005
지원금액	14,939	17,550	22,450	20,575	22,045	45,500	37,610	180,669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업체 대상 조사결과³³⁾,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매출액 증가점포 비율은 55.3%, 고용증가율은('19년 대비 '20년) 8.8%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신규 고용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 성장기반자금

성장기반자금은 제조기반 기술의 경쟁력 강화,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2021년에는 8,573개 업체에 4,459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 기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위탁 운영하였던 소공인특화자금을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규 운용하였고,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하여 성장기·성숙기 소상공인에 성장동력을 공급하였다.

표 IV-3-1-36 | 2021년 성장기반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사, 억원, %)

연도	예산	신청		대출		집행률 (금액기준)
		업체	금액	업체	금액	
2021년	4,500	15,810	11,121	8,573	4,459	99.1

33) 2021년 소상공인 용자사업 성과분석, (주)아테나컴퍼니, 2022.2.

나)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은 혁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고, 스마트기술 도입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온라인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1년부터 성장기반자금에서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용하였다.

백년가계·백년소공인 등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지정된 139개 업체에 94억 원,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 기술장비, 온라인쇼핑몰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소상공인 406개 업체에 200억 원 등 총 545개 업체에 294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IV-3-1-37 | 2021년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사, 억원, %)

연도	예산	신청		대출		집행률 (금액기준)
		업체	금액	업체	금액	
2021년	300	568	493	545	294	98.0

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창업초기, 사업전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조성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자금으로 81,379개 업체에 12,152억 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이행으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70,609개 업체에 8,638억원의 임차료 용자를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표 IV-3-1-38 | 2021년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사, 억원, %)

연도	예산	신청		대출		집행률 (금액기준)
		업체	금액	업체	금액	
2021년	11,000	118,416	27,219	81,379	12,152	110.5

라) 특별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감염병 및 사회적이슈, 자연재해 등 갑작스런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영업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2021년부터 경영안정자금에서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용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중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인원·시설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459개 업체에 17,564억 원, 장애인·청년·사회적경제기업과 재해피해기업 등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11,676개 업체에 3,141억 원 등 총 136,135개 업체에 20,705억 원을 지원 하였다.

표 IV-3-1-39 | 2021년 특별경영안정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사, 억원, %)

연 도	예 산	신청		대출		집행률 (금액기준)
		업체	금액	업체	금액	
2021년	40,200	159,972	30,302	136,135	20,705	51.5%

2022년에도 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규자금 지원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4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일반현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2002년 1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으로 개원하였으며, 2006년 동법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기반 조성,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R&D사업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기능과 정보화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 보급 확산 및 부합화 지원,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수준평가,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12월, 중소기업분야 R&D 사업 평가관리 기능이 일원화됨에 따라 모든 중소기업이 성장단계에 따라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었다. 위의 정책 기초에 발맞춰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유망기술분야 발굴 및 확산, 수요자 중심의 평가관리체계 개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등에 힘썼으며, 사업성 심층평가 확대 및 R&D 성공기업 사업화 지원·성과 확산,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및 사후조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성과 중심의 R&D 지원 및 관리 강화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기준 9,447개 과제에 총 1조 1,591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자생적인 성장,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장 및 위상 제고 뒤에는 1997년부터 한결같이 함께 해오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이하,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있다.

수출기업, 혁신형 기업 및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별(초기→도약→성숙)로 지원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중소기업 전용 핵심 기술개발 사업이다.

① 수출지향형·강소기업 100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년간 20억 원까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1년도부터 소재·부품·장비분야 핵심전략 품목 국산화를 위해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년간 20억 원까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② 시장확대형·소부장전략 기술개발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점전략 분야(BIG3, 신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등)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년간 6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③ 시장대응형·소부장일반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기업, 소재·부품·장비 일반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 분야, 소부장에 대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년간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표 N-4-1-1 | 기술혁신개발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금액	2,448	2,470	2,620	2,260	2,394	2,269	1,193	2,400	3,788
지원업체수	1,081	1,087	1,107	1,029	1,147	1,384	1,085	1,600	1,722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만 1,242개 과제에 2조 1,842억 원을 지원하였고, 최근 3년('19~'21) 간 사업화 실적은 총 2,283건, 2조 5,043억 원의 매출 등 동 사업 지원을 통해 높은 지원성과를 달성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분야 국산화를 선도할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전용 R&D 과제를 신설하고 전략품목을 발굴 및 집중 지원(550개 과제, 1,011억원)을 통해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국산화를 선도할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였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장사다리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단계별 R&D지원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을 도모하도록 전략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

2002년부터 기술개발 단계부터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상용화하여 판매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요처 특성에 따라 구매연계형과제(공공기관, 대·중견·중소기업 등 국내·외 수요처) 및 공동투자형과제(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 투자기업)로 구분되며, 구매연계형과제는 2년 이내, 10억 원 한도, 공동투자형과제는 3년 이내, 12억 원 한도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수요처(투자기업)에서 일정 기간 구매를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표 N-4-1-2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구매연계형	최대 2년, 10억원 이내	65% 이내	지정공모 /자유공모
공동투자형	최대 3년, 12억원 이내 (투자기업출연금 별도)	65% 이내	

국방 과제(13개)를 시범사업으로 2002년 시작한 동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9조, 「민군기술 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 제5조, 제8조에 따라서 추진되었다.

표 N-4-1-3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추진 경과

- (2002년) 중기청-국방부간 「국방기술개발협약」 체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범실시
- (2005년) 사업영역(수요처)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대기업 7개사 참여)
- (200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내에 '민·관 R&D 협력펀드 과제'를 신설
- (2009년) 해외 우수기업 및 바이어 등을 수요처로 한 해외수요연계 기술개발 지원
- (2011년) '민·관R&D 협력펀드 과제'를 확대 개편하여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신설
- (2014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 (2019년) '혁신지향 공공조달방안'의 '맞춤형 R&D사업'의 세부추진 과제로 추진
- (2020년) '구매연계형(일반·조달혁신·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BIG3·소부장)'으로 개편

2002년부터 2021년까지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수요처는 총 1,362개에 이르며, 그간 총 1조 8,048억 원을 투자하여 총 6,129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R&D 평균 사업화율(50.7%) 및 과제 매출액(19.8억)에 비해 높은 동 사업의 사업화율(64.3%) 및 과제 매출액(30.8억) 수치는, 동 사업이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를 넘어 중소기업의 매출발생이라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표 N-4-1-4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억원)	1,386	1,420	1,436	1,438	1,668	2,130	2,094
지원과제수 (개)	510	565	560	385	519	697	384

성과조사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화성공률 (%)	77.0	81.6	79.0	79.4	74.4	68.0	64.3
매출액 (과제당, 억원)	6.7	26.9	21.2	18	20.5	28	30.8

② 공동투자형(구, 민·관 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확대

2008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민관공동R&D 투자협약 과제’를 신설한 이후, 그 재원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 민·관공동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총 20개사(신규참여 8개사, 추가협약 12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까지 총 96개 투자기업과 7,949억 원을 조성하였고, 총 1,182개 과제에 6,120억 원 지원을 결정하였다.

표 N-4-1-5 |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협력기금 조성 현황(누계)

(단위 : 억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조성기업(개)	38	52	56	61	66	71	78	88	96
조성금액 (억원)	3,651	4,386	4,854	5,299	5,654	5,936	6,374	6,957	7,949
정부	1,976	2,370	2,633	2,872	3,066	3,210	3,436	3,744	4,248
투자기업	1,675	2,016	2,221	2,427	2,588	2,726	2,939	3,213	3,701
대 기 업	1,067	1,617	1,217	1,218	1,245	1,321	1,424	1,477	1,799
중견기업	212	318	413	479	547	559	584	653	681
공공기관	395	531	591	731	796	846	931	1,083	1,221

표 N-4-1-6 |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협력금 조성 현황(2021년도 말 기준)

구 분	협력펀드	투자기업명
민 간 (72)	5,505억원	포스코, 르노코리아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현대홈쇼핑,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롯데마트, NS쇼핑, 스템코, LG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LS엠트론, SK텔레콤, 포스코에너지, 케이티, KCC건설, 한화시스템, 네이버, 현대퓨처넷, 현대바이오랜드, 인켈, 한솔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인성정보, 크루셜텍, 경창산업, 티오이엠, 휴맥스, 오텍캐리어, 아진산업, 대동, 디아이씨, 토탉, 국제종합기계, 세하, 아이즈비전, 에스에프에이반도체, 대상, JW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삼지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 다산네트웍스, 파워로직스, 케이엠더블유, 미래나노텍, 루멘스, 대교, 이엘케이, 웅진에너지, 용산, 이래에이엠에스, 에스에너지, 렉스코, 뉴프렉스, 필옵틱스, 엠씨넥스, 진영지엔티, 성림첨단산업, 한백종합건설, 탑엔지니어링, JW바이오사이언스, 라이온켄텍, 아세아텍, 남양넥스모, 토비스, 삼화페인트, 에스지이
공 공 (24)	2,444억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에스알(SRT), 도로교통공단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수요처에 대한 구매실적 관리강화,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상용화율을 제고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③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혁신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술개발 및 시장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기술개발환경의 대형화·복합화·고비용화 및 기술 수명주기의 단축 등으로 단독 R&D 수행이 가지는 부담과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으로 혁신역량의 상호 보완을 통한 환경변화 대응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나, 중소기업은 아직 폐쇄형 기술개발에 치우치고 있어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R&D를 통한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R&D를 지원하였다.

동 사업의 기획지원 단계에서는 공동개발기관 매칭, 사업화 전략수립, 상호협력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협력체를 대상으로 정부출연금을 최대 6억 원까지 지원하여 네트워크 협력체가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33개 과제, 2019년 62개 과제, 2020년 100개 과제, 2021년 49개 과제에 대해서 기획지원을 하였고, 2018년 24개 과제, 2019년 36개 과제, 2020년 52개 과제, 2021년 30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표 N-4-1-7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기획지원	최대 6개월, 3천만원	90%	자유공모
R&BD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동 사업은 기술개발의 전주기(기획-기술개발-사업화)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형 유망 과제 발굴 및 지원방식의 다각화로 개방형 산·산 협력 R&D 환경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3)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

제조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매출의 27.5%, 종사자 19.5%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수의 제조 중소기업은 자금·인력·설비 등의 부족으로 시장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등의 기술개발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에 대외 환경변화와 시장·소비자 니즈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을 지원하여 단기간(2년 이하)에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촉진하는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려를 해소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자동화 전환을 통해 리쇼어링 촉진 및 해외이전 방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0년 내역사업 개편을 진행하여 단순 반복 노동 및 고위험 공정의 자동화·지능화 공정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R&D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기술개발 및 실증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65% 이내를 지원한다.

현장형R&D는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수준의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75% 이내를 지원한다.

표 N-4-1-8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41,503	30,003	31,160	37,714	36,035	44,383	44,383	40,865	48,031
지원과제수	674	611	594	680	838	811	791	1,012	883

향후 제조 중소기업의 고위험, 노동집약, 자동화 난제 공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과 동시에 품질향상,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해외 의존·이전이 많은 공정을 고도화하여 제조 중소기업의 해외이탈 방지 및 리쇼어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 자동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모바일 기기, 로봇 등 신성장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지원

창업기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자본력 및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기업의 생존과 지속 성장의 원동력인 기술개발 투자에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창업기업이 기술개발 시 수반되는 위험과 실패에 대한 부담을 흡수·완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전용 R&D사업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 생존율을 높이고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업력 7년이 지나지 아니 하고,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의 창업 기업에게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디딤돌은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R&D 유관기관 추천 과제, 사회문제 해결R&D 등 창업 저변 확대형 단기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년간 1.5억원(22년부터 최대 1년간 1.2억원)까지 지원한다.

전략형은 4차 산업혁명(4IR), 미래 신산업(BIG3), 소재·부품·장비 등 고기술·유망기술 분야의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년간 4억원(22년부터 최대 2년간 3억원)까지 지원한다.

TIPS는 액셀러레이터 등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의 보육멘토링,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지원한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9,936개 과제에 2조5,92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4-1-9 | 연도별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지원 과제수	90	86*	598	1,331	856	1,102	1,230	1,332	1,364	2,256	2,966	3,286	3,439	19,936
지원 예산	100	100	950	1,136	1,314	1,414	1,624	1,888	1,976	2,800	3,733	4,508	4,381	25,924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 포함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R&D과제 종료기업 성과를 측정한 결과, 정부 출연금 1억원 당 매출액 6.3억원, 수출액 3.6억원, 신규고용 5.6명의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과제 수행 전·후의 기술수준 및 기술자립도는 각각 34.8%p, 36.0%p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은 R&D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우수과제 발굴추천, 국민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과제 지원 등 다양한 신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창업기업 R&D 수요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미래 신산업(BIG3), 디지털 혁신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가능성과 스타트업 적합성 등을 고려한 전략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기술창업의 저변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우수과제 발굴 기능을 강화하였다.

창업기업의 미래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및 다양한 R&D 지원 방식 도입으로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5) 중소기업 R&D역량 제고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R&D 기획역량 및 자체 전문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R&D 기획역량강화교육, 기획지원 및 외부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R&D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R&D 기획지원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① R&D 기획지원사업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기술의 변화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는 성공 가능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사전에 충분한 R&D기획 없이 기술개발에 착수한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동 사업은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제에 대해 기획 전문기관과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등을 분석·진단 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수립·지원하는 R&D기획지원사업과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R&D 쏠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기획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구분된다.

R&D기획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총 7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913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수행 결과 우수과제는 R&D 사업으로 연계(선정)지원, 2017년부터는 희망하는 R&D 사업 신청 시 연계추천(우대사항 적용)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현황으로는 2020년 259개 중 158개, 2021년에는 54개 중 36개 과제를 우수과제로 선정하고 대상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 가능한 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로 2회('17~'20년도 1회)에 한하여 신청 자격 부여, 서면평가 면제 또는 가점 등으로 우대한다.

또한, 자체 기술개발이나 용자·보증신청, 기업 IR 등 다양한 분야에 R&D 기획 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표 N-4-1-10 | 연도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추진실적

(단위 : 개, 억원)

구분		2002~2007	2008~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획 지원	과제수	1,406	882	154	204	178	179	342	308	130	130
	금액	215	235	40	50	45	50	45	46	33	33
R&D 사업 연계	과제수	-	521	92	82	85	108	104	97	144	36
	금액	-	1,669	311	263	245	-	-	-	-	-

* '16년까지는 R&D사업으로 연계(선정), '17년부터는 연계추천(우대사항 적용)으로 변경

한편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2014년 시행이후 2021년까지 총 26,008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59회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4,469명(온라인교육 : 2,878명 포함)이 수료하였다.

2020년 교육과정의 경우 오프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9.5점, 온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6.8점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자 만족도 조사결과, 오프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8.2점, 온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4.3점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N-4-1-11 | 연도별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

(단위 : 회, 명)

교육과정	2018		2019		2020		2021		합계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정규	26	957	77	1,502	40	831	42	1,048	185	4,338
방문형	5	194	4	114	6	159	6	145	21	612
협약설명회	4	320	4	165	-	-	-	-	8	970
IP역량강화	2	75	2	43	4	76	5	119	13	313
세미나	1	57	-	-	-	-	-	-	1	57
실무	-	-	-	-	-	-	6	279	6	279
온라인	-	2,533	상시	2,565	-	2,878	-	-	-	7,976
계	38	1,603	87	1,824	50	1,066	59	1,591	234	14,545

②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중소기업은 자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기술애로 해결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 외부 고급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박사급 고급 연구 개발인력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분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의 기술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 사업은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R&D 역량 제고 등 산학연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공학컨설팅센터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에 국·공립대학교로 한정하여 운영하던 공학컨설팅센터를 2018년도에는 우수 사립대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기술애로 지원을 강화하였고, 2019년에는 9개의 공학컨설팅센터(대학 8개, 출연연 1개)로 확대하고 지정범위를 출연연까지 넓힘으로써 더욱 다양한 기술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현장중심의 기술애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고 있다. 2021년 9개 공학컨설팅센터* (대학 9개)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가천대, 인천대, 한성대, 대구대, 금오공대, 한밭대, 전북대, 전남대, 창원대

표 N-4-1-12 | 2021년 공학컨설팅센터별 지원실적

(단위 : 건, %)

구 분	기술애로 해결의뢰서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선정과제		
	접수	비율	접수	비율	선정	비율	
서울/경인/강원	가천대	81	8.9	45	7.6	18	10.8
	인천대	98	10.8	48	8.1	18	10.8
	한성대	81	8.9	55	9.3	18	10.8
대구/경북	대구대	104	11.5	78	13.2	19	11.4
	금오공대	113	12.5	71	12.1	19	11.4
대전/충청	한밭대	88	9.7	51	8.7	18	10.8
호남/제주	전북대	148	16.3	108	18.3	20	12.0
	전남대	53	5.8	32	5.4	18	10.8
부산/울산/경남	창원대	141	15.5	101	17.1	19	11.4
총계	907	100.0	589	100.0	167	100.0	

③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조선 산업 및 자동차 산업의 경기침체가 본격화·장기화 되면서 동 산업 거점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 고용위기 및 지역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 위기지역(6개) :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경남) 거제시/창원시 진해구/통영시·고성군, (울산) 동구

동 사업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중소기업 및 해당 시도 내의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R&D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혁신 또는 사업다각화를 도모하여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관 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여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 기술협력을 통한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 N-4-1-13 | 2021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경남	울산	전남	전북	합계
현장수요형 R&D	과제수	22	24	19	20	85
	금 액	88	96	76	80	340
Scale-up R&D	과제수	14	12	13	12	51
	금 액	1,400	1,200	1,300	1,200	5,100
총 계	과제수	36	36	32	32	136
	금 액	1,488	1,296	1,376	1,280	5,440

6)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정부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의 보급과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2019년 까지 스마트공장 보급수준은 기초 단계가 79%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단계로 이르는 공급기술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저장 공간 및 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확보를 통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 종사자의 연령이 갈수록 고령화 되고 청년의 제조업 기피로 인해 제조 공정 숙련자의 노하우 단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숙련기술인의 보유기술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수할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생산성향상의 도모가 필요하다.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은 제조데이터의 활용능력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생산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제조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생산현장의 노하우를 디지털화 하여 스마트공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연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한다.

표 N-4-1-14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클라우드기반 데이터플랫폼 개발 K-앱시스트기술개발	최대 2년, 6억이내	80%	자유응모

표 N-4-1-15 | 2019~2021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 금액	신청 과제 수	지원 과제 수	경쟁률
2019년	36	67	19	3.5:1
2020년	117	102	33	3.1:1
2021년	89.5	-	52 (계속과제)	-
합계	242.5	169	52	3.3:1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은 2022년 일몰예정으로 2021년부터는 2019년과 2020년에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 지원하였다.

2021년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에 대해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기업은 매출이 증가(57.75억원)하였으며, 도입기업은 생산비용 절감(6.97억원) 및 신규고용창출(96명) 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스마트공장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현장 노하우 데이터의 축적·분석·활용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제조혁신 및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전주기 R&D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신설되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선도연구기관이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상담과 진단을 지원하고 지원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R&D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한 사업화R&D 지원의 총 3단계 프로세스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문역량을 가진 3개의 선도연구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2020년에는 대내외 환경 변화의 적시 대응 및 소재·부품·장비 부문 집중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개의 선도연구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을 추가 지정하였다.

표 N-4-1-16 |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19		'20		'21	
	과제수	예산액	과제수	예산액	과제수	예산액
희망기업진단(1단계)	127	430	181	430	-	
협력기술개발(2단계)	36	9,720	40	4,860	40(계속)	4,860
기술사업화(3단계)	-		18	999	18(계속)	999

8)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기업이 제품화에 성공하였더라도 사업화를 위한 인허가 등의 규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진입 및 제품판매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때문에 기술규제 대응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관련 규제를 고려하지 못해 R&D 결과물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R&D 기획·수행 단계부터 규제 대응을 위한 기획 및 R&D를 지원하는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이 2020년 신설·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은 규제 대응이 필수적인 R&D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획기관을 지정하여 1단계 기획단계 컨설팅(3주, 과제당 5백만원)을 수행하고 이 가운데 규제대응의 필요성, 기술개발 방법 및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R&D 지원(2년, 과제당 5억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총 기획지원 160개 과제, R&D 62개 과제를 선정·지원하였으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대응 기획기관의 전문가를 “규제도우미”로 지정하고, 협약기간 동안 인허가 등을 위한 컨설팅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의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제기한 각종 규제건의를 소관부처에 안내하는 등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표 N-4-1-17 |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20년(신규)		2021년(계속)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합계		95	222	134	62(계속)
기술규제 해결형	기획지원	8	160	-	-
	R&D	87	62	134	62(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대응 컨설팅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각 부처에 공유·협조하고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R&D 사업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 개최를 통한 주요 규제 해결방안, 전략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기술기준(규정) 개정사항, 인·허가 사례 등 최근동향 및 규제 전략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9)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제조기반 중소기업에 필요한 AI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년 신설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기업의 혁신과 신제품 기술개발 창출이 가능한 기술을 중점 선정·지원 하였으며, 고객에게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려는 기업의 니즈(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두어 최대 1년간 3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1년은 2020년에 선정된 계속과제(51개 과제, 74억원)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 종료되었다.

10)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2020년 신설되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오염원 배출저감 및 실내 공기질 개선 등 노출저감 분야에 대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신속한 개발을 위해 연간 최대 2.5억 원까지 단년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0건(배출저감 12, 노출저감 18)에 7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 종료되었다.

11)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정부에서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와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신북방 정책을 발표(17)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 및 인근국가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혁신성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을 '20년부터 신규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신북방 국가의 혁신·원천기술과 우리 중소기업이 강점을 가진 ICT·제조기술을 접목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기술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표 N-4-1-18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기술진단·기획	최대 6개월, 3천만원 이내	100%	품목지정
상용화기술개발	최대 2년, 4억원 이내	65%	품목지정

러시아 원천·핵심기술 보유자 등 전문가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공정 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술진단·기획’ 과제는 최대 6개월, 3천만원 이내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0년 총 25개를 지원하며 종료되었다.

러시아 보유 핵심 기술도입을 통한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지원 및 新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수요기술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상용화기술개발’ 과제는 최대 2년, 4억원 이내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0년 총 13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 총 6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N-4-1-19 | 2021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신청과제	지원과제	지원금액
상용화기술개발	18	6	9

중소기업이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신북방 국가와의 기술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상용화지원기관’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리혁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현지 기관(기업) 간의 기술협상, 의사소통, 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표 N-4-1-20 | 2021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용화지원기관 지원실적

(단위 : 개)

구 분	양국 기업 매칭	소통애로 해소 지원	R&D 사업 연계
상용화기술개발	38	283	18

협력 대상국과 과학기술 중심의 개방·혁신·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기술협력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협의’를 지원하다. 온라인 상담회, 온라인 기술이전 계약식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며, 양국 주요 혁신 협력 관련 프로그램 공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시장진출 확대 활성화 방안 논의 등 협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며 종료되었다.

동 사업은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러시아부터 시작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기술 선진국 등으로 기술협력 대상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12)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국가별 인증제도는 과거 미국이나 EU, 일본 등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최근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들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국민의 안전과 산업보호를 위해 표준, 기술규정 등 무역기술 장벽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확보를 통한 수출동력 향상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출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유통·판매되기 위해서는 해당시장이 요구하는 특성 및 생산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시장 진입의 선결조건이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진입 시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의 기술적 목표달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 전 타겟 국가의 인증 및 규격에 적합한 기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출을 위한 추가 비용 및 기간을 절감 할 수 있도록 2020년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이 신설·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은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신제품 또는 기존제품의 타겟국가의 해외인증을 철저히 준비하여 수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제품 수출시 필요한 타겟 국가의 인증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연계 지원한다.

2021년 총10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114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당 최대 1년간 1.5억원을 지원하여 해외인증 취득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확대 및 사업화 성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IV-4-1-21 | 2021년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신청과제	지원과제	지원금액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신규	129	22	32
	계속	-	92	69

향후 성과확산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과의 연계지원을 통해 동 사업 선정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연속성 있는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3)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동 사업은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역량이 우수한 고성장 기업 확대를 위해 예비가젤형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품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2020년에 신설되었다.

최근 3년 간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에서 20% 미만까지 성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성장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하여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하며, 2020년 50개 과제를 신규 선정하여 2021년까지 총 199억원을 지원하였다.

14) 빅데이터기반 서비스개발사업

민간 및 공공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신산업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 신설되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민간(자사 보유 데이터 포함) 및 공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개방형혁신을 통해 데이터 수집·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빅데이터기반 서비스개발사업은 2022년 종료예정으로 2021년부터는 2020년에 선정된 계속과제(53개 과제, 120억원)에 대해 지원하였다.

15)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공장으로 인한 초지능·초연결 기반의 제조 산업 혁신을 위한 가장 일차적인 선행기술은 데이터의 생성을 담당하는 센서 산업이다.

센서는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결합하여 스마트공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핵심 선행기술이다.

하지만 급성장하는 IoT 및 지능화 시장에 비해, 국내 센서 산업의 시장규모는 세계시장을 1.6%,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4%로 경쟁력이 낮아, 센서 수요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의 일환으로 '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의 보급을 지원 중이다. 스마트공장 확산과 IoT 적용의 증가로 센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예정으로 국내 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센서의 국산화와 산업의 부가가치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제조산업의 지능화와 미래 신산업에 필수적인 스마트센서의 개발을 위해 2020년부터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여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센서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은 고부가가치 스마트센서 기술개발을 통해 스마트제조혁신의 핵심 부품과 솔루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현장의 고온·다습·먼지 등의 환경에서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 및 저장·통신·자동보정·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고 노이즈 캔슬링 등 신호열화를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고신뢰성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센서를 개발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저장·전처리(보정)·분석·진단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센서의 지능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최대 2년간 6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80%내에서 지원한다.

표 IV-4-1-22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조현장맞춤형 스마트센서	최대 2년, 6억이내	80%	자유응모

표 IV-4-1-23 | 2020 ~ 2021년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 금액	신청 과제 수	지원 과제 수	경쟁률
2020년	45	124	21	6.2:1
2021년	106	173	26	6.7:1
합계	151	297	47	6.3:1

2021년에는 다종의 센서를 융·복합하고 AI,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정보를 생산하는 지능화 개발의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 현장에 적합한 센서 개발을 위해 현장상황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수요부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은 2023년 일몰예정으로 2021년부터는 2020년과 2021년에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 지원하였다.

동사업 지원을 통해 국내의 ICT, 시스템 반도체 역량을 결합하여 외산 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센서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생산 현장에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센서 부품·솔루션의 확산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6)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제조기술융합센터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목적으로 2020년 신설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중소기업 제조현장과 연계하여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제조기술융합 분석서비스 제공과 제조현장에 적용가능한 DNA(Data, Network, A.I)기술 도입, 제조데이터 저장·분석·수집을 통한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제조기업의 핵심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등 핵심 성과지표(KPI) 향상을 위해 수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42억원(국비 96.5억, 지방비 345.5억) 규모로 천안·아산KTX R&D집적지구 내에 중소기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제조기술융합센터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97.9억원(국비 42억, 지방비 55.9억)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제조데이터 분석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범공정 및 데이터 수집·분석장비 10종 구축과 제조기술융합센터 건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센터 건축은 천안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충청남도에서 건축비를 지원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37 | 2020~2024년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계획



표 N-4-1-24 | 2021년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실적

구분	구축내용
주력산업 특화연계 테스트베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공정 스마트화 및 분석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구축(10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클라우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통합운영시스템 추가기능* 개발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QMS) 및 공정관리(SPC) 기능 - 대용량 데이터 저장관리 장비 (1종) - 설비 데이터 저장 장비(엣지컴퓨팅) (1종) - 클라우드 기반 설비모니터링 시스템 (1종) 2) 제조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 (1종)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장비 (1종) - 설비 데이터 수집 장비 (1종) 3)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시범공정 장비 구축(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별 기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표준 데이터셋 개발 (1종) - 제조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DQM) 구축 (1종) -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RPA) 개발 (1종) • 제조기술융합분석 서비스 개발(R&D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특허 출원 (3건) - 제조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 (1건) - 데이터 분석 연구 관련 SCI급 논문 게재 (1건)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제조기술융합센터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기술융합센터 건축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기술융합센터 신축 부지*확보(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R&D집적지구 內 부지 확보(충남 천안시 서북구) - 제조기술융합센터 신축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 6층, 지하 1층 센터 기본계획(기본계획 : '21.4. 실시설계 : '21.11, 착공 : '22.2, 완공 : '23.4)

17)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사업

사스(2003년), 신종 인플루엔자(2009년), 메르스(2015년) 등 2000년대 들어 신종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및 지속에 따라 국가 보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며, 국민의 보건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의 보건에 있어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마련과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물품·기기의 신제품 개발 및 성능향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현장에 투입된 의료진, 봉사자 등의 애로·개선사항을 수렴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현장맞춤형 방역물품·기기 개발을 지원하도록 2021년 ‘현장 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사업’이 신설·추진되었다.

동 사업은 동 사업은 방역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 봉사자 등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적합한 방역물품·기기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2021년 총 8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50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당 최대 2년간 6억원을 지원하여 짧은 주기로 빠르게 확산하는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IV-4-1-25 | 2021년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신청과제	지원과제	지원금액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444	50	89.05

동 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로 일상 회복에 따라 '22년 계속 과제를 지속 지원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방역물품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 신속한 대응 방역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8)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제조업은 코로나-19위기 국면에서 국내 성장둔화 최소화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였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및 “V자 반등” 시현 등 강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용 인공지능 기술 확보·확산을 지원하는 동 사업을 2021년 신규로 기획하였다.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은 제조 현장에서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공동활용모델 개발을 위하여 제조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역량을 갖춘 연구기관·대학의 전문인력과 중소기업의 공동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IV-4-1-26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조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기술개발	최대 21개월, 21억원 이내	75%	품목서 지정공모

표 IV-4-1-27 |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21	2022	2023	합계
지원 과제수	신규	6	6	-	12
	계속	-	6	6	12
지원 예산		4,544	11,276	7,122	22,942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계 산업용 인공지능 사용량이 많은 11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가 선행되었다. 2021년, 11개 기술분야 대상으로 총 45개 기술품목서를 접수하였고, 3차에 걸친 과제기획위원회 → 경제성 분석 → 인터넷 게시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과제기획 절차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5개 기술분야 전략품목서(RFP)를 확정(평균경쟁률 9:1)하였다.

표 IV-4-1-28 | 세계 산업용 인공지능 상위 11개 기술 및 지원계획

구분	'21년	'22년
지원 품목	①예지보전, ②품질보증, ③생산공정 최적화, ④공급망 최적화, ⑤디지털트윈	⑥시뮬레이션, ⑦자원최적화, ⑧데이터 자동관리, ⑨스마트작업보조, ⑩공정자동화, ⑪스마트유지보수

* (출처 : Industrial AI Market Report 2020-2025 & ResearchGate, 2019.10월)

지원이 확정된 5개 기술분야의 전략품목서(RFP)기반 총 26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접수하였고, 최종 지원대상으로 6개 과제를 선정, 지원(평균경쟁률 4.3:1)하고 있다.

향후, R&D를 통해 개발된 우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등은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에 탑재하여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제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

19)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업선도형과 기반플러스형으로 구성된다. 기업선도형은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도록 10백만원 이내로 바우처를 지원하고, 기반플러스형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첨단장비 포함)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50백만원 이내로 바우처를 지원한다.

2021년 207개 운영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11,928대의 연구장비를 등록하였으며, 85.9억원을 투입하여 1,129개의 중소기업에 12,550건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지원하였다.

표 IV-4-1-29 |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실적 현황(2021년)

(단위 : 개, 백만 원, 대)

구 분	예산	참여기업	운영기관	지원건수	장비대수
'21년	8,590	1,129	207	12,550	11,928

20)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

설립 1년 이내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글로벌 창업기업(Born Global)은 빠른 수출 성장성 및 다변화된 수출시장 진출 등이 우수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기업 비중은 매우 미미하며, 내수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은 수익성 악화 등 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글로벌시장 진출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 유망기술을 확보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였다.

이에, 2021년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여 10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13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선정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목표 평가를 병행하여 참여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표 N-4-1-30 |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 분	지원과제수	지원예산
2021년	10	13

21)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 기술개발사업

중간재가 대부분인 중기술(Medium tech) 기반 제품은 그동안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공급라인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라인(Supply chain) 급변으로 인해 중기술 분야 기술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중기술 제조기업 역시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이에, 그간 R&D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기술(Medium tech) 분야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을 신설·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개발 시급도에 맞추어 기업이 직접 제안하는 “자유공모 과제”와 중기술 분야 위기품목을 중점 지원하는 “품목지정 과제”로 구분하여 중위기술의 매출액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전업율 50%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년, 5~6억원 이내로 국내 제조 중소기업 주력제품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4-1-31 | 2021년 제조중소기업글로벌역량강화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신청과제	지원과제	경쟁률	지원금액
제조중소기업글로벌역량강화	자유	101	19	5.3 : 1	35
	품목	54	92	3.6 : 1	22

최근 국내 제조 기업들의 국내 생산기반은 점차 취약해 지고 산업위기가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기술적 열위에 있는 중기술 대상의 사업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수 있도록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2)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은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21년 신설되었다.

이 사업은 최신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급기업 단독형, 특정 수요기업들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신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수요기업 매칭형, 과제의 대규모성 등으로 인해 기술 간 융복합이 필요한 경우 공급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컨소시엄형의 세가지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 총 60.44억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하반기 2차례 공고를 통해 공급기업 단독형 25개, 수요기업 매칭형 8개, 컨소시엄형 1개의 총 34개의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IV-4-1-32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공급기업 단독형	최대 2년, 5억이내 (컨소시엄형은 최대 3개 기업 각 5억원, 15억까지)	80%	자유공모
수요기업 매칭형			
컨소시엄형			

표 N-4-1-33 | 2021년 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 금액	신청 과제 수	지원 과제 수	경쟁률
상반기	40	347	22	15.8:1
하반기	17.5	350	12	29.2:1
합계	57.5	697	34	20.5:1

23)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① 수요기반 기술이전

2019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19년.7월) 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정부는 공급 다변화 및 조기 국산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동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단일 국가에 대한 높은 해외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 기획되어, 2020년부터 기술이전 플랫폼인 Tech-Bridge를 통해 대학·연구소의 공공기술의 기술이전을 연결 해주고, 공공 R&D성과물의 이전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금융지원까지 One-Stop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는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우수한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혁신성장과 이후 조기 국산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2년 이내, 8억 원 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부장 핵심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 공모로 지원하고 있다.

표 N-4-1-34 | 지원 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수요기반 기술이전	최대2년, 8억원 이내	75%	지정공모

소부장 분야의 품목에 부합하는 RFP의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을 통해 21년도 360여개의 RFP를 발굴하였으며, 평가절차를 통해 2021년 1차 20개, 2차 20개, 총 40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표 IV-4-1-35 | 2021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신청과제	지원과제	지원금액
1차	66	20	57
2차	69	20	38

22년도 지원을 위해 180여개 RFP를 추가 발굴하였으며, 해외의존도 탈피 및 국산화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 과제를 신규 지원하고 우수한 공공기술 이전과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4)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사업은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인프라·인력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플랫폼화)하여 소부장 기업의 혁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신설되어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1단계(과제기획)과 2단계(전략협력R&D)로 나누어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사업으로, 운영기관 소속 연구자와 참여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운영기관에서 발굴한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품목 관련 RFP를 대상으로 사전연구 등을 수행하는 1단계(과제기획)을 지원한다. 이후, 1단계 지원기업 중 과제기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필요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2단계(전략협력 R&D)를 지원한다.

2021년에는 1단계(과제기획) 선정 30개 과제 및 2단계(전략협력R&D) 선정 20개 과제를 신규로 지원하였으며, 시장에 필요한 소부장 핵심기술의 발굴을 위하여 약 3만개 기업 대상의 수요기술 조사를 통해 소부장 핵심 전략품목 관련 RFP 60개를 발굴하였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100대 전략품목 중 미지원된 품목 관련 기술의 신규 기획 및 지원을 추진하여 정부 정책의 완결성을 제고 하였다.

표 IV-4-1-36 | 2021년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21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1단계 과제기획	4.5	30
2단계 전략협력R&D	38	20

25) 산학연 Collabo R&D 지원사업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학의 연구인력 등 보유자원을 활용 지원하는 산학협력R&D,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지원하는 산연협력R&D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예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여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1단계(예비연구)를 도입하여 아이디어 및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R&D를 지원하는 2단계(사업화R&D)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우수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440억원(672개)을 지원하였으며, 2021에는 1단계(예비연구) 150개 과제(산학100개, 산연50개), 2단계(사업화R&D) 272개 과제(산학 190개, 산연 82개)를 지원하였다.

표 IV-4-1-37 | 산학연collabo R&D 사업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합계	123	250	317	422	448	422	
1단계	산학협력	86	175	102	206	49	100
	산연협력	37	75	44	89	25	50
2단계	산학협력	-	-	119	89	261	190
	산연협력	-	-	52	38	113	82

26)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은 지역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2020년 신설되어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8개 권역별(권역 : 서울·경기·인천, 강원,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충북)로 컨소시엄(지역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을 구성하여 지역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기술의 기획부터 개발 및 보급·확산까지 R&D 전주기 지원을 목표로 한다. 과제의 지원은 1단계(과제기획), 2단계(공동수요기술 R&D), 3단계(사업화 R&D 및 보급·확산)까지 총 3단계로 나누어 지원한다.

2021년에는 2단계(공동수요기술R&D)선정 22개 과제를 계속 지원하였으며, 사업 참여 구성원 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과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발굴 과제의 기술·사업화 애로에 대한 전문가 매칭 및 현장 해결 등을 통해 성공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표 IV-4-1-38 | 2021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20년		2021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1단계 과제기획	13	42	-	-
2단계 공동수요기술R&D	50	22	58	22

* 3단계의 경우 2단계 완료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선정 후 2023년 지원예정

27)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사업 지원

대학에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산학협력 거점으로 개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역량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은 사업수행 기간 대학의 연구실에 1인 이상을 파견하고, 대학은 실험실·연구인력·장비·기술이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분석, 2단계 맞춤형 R&D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20년도 신설되어 2022년까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N-4-1-39 | 운영기관별 참여기업 신청 및 선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1단계 (기술 역량분석)			2단계 (맞춤형 R&D 수행)			
		신청	지원	경쟁률	추천	신청	지원	경쟁률
수도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45	50	2.9:1	25	25	15	1.7:1
중부권	한밭대학교	91	58	1.6:1	25	25	15	1.7:1
대경권	금오공과대학교	54	40	1.4:1	25	25	15	1.7:1
동남권	창원대학교	58	46	1.3:1	25	25	15	1.7:1
호남권	전북대학교	63	52	1.2:1	25	25	15	1.7:1
합 계		411	246	1.7:1	125	125	75	1.7:1

① 기술역량분석

대학은 산학협력R&D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문가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전략을 기획을 지원한다.

표 N-4-1-40 | 중소기업 기술역량분석 추진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20
기술역량분석(1단계)	과제수	246
	금 액	4

② 맞춤형 R&D 지원프로그램

1단계에 수립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참여기업 파견인력과 운영기관의 과제책임자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하여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기업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N-4-1-41 | 연도별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 추진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맞춤형 R&D 지원(2단계)	과제수	75(신규)	75(계속)	74(종료)
	금 액	56	112	55

가.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크게 신규구축과 고도화로 구분되며, 신규구축은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을 지원하고 고도화 사업은 기 구축된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및 연동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솔루션은 현장자동화(센서, 컨트롤러 등),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 제조현장운영 시스템), 제품개발(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수요예측, 생산계획수립 등), 기업자원 관리(ERP)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주도형 스마트공장 보급과 더불어 '18년부터는 대기업·중소기업이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확대 되었으며, '21년 말까지 누적 2만5,039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함으로써 당초 목표치(23,800개)를 초과 달성하였다.

표 N-4-1-42 | 민간·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2020	2021	합계
민간	133	304	546	525	679	1,937	2,409	2,480	9,013
정부	144	659	1,014	1,678	2,221	2,820	4,730	2,760	16,026
합계	277	963	1,560	2,203	2,900	4,757	7,139	5,240	25,039

나.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정부주도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02년부터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14년~)과 지역특화산업육성('15년~)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어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였다.('17.7)

'21년도는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2,760개를 보급하였다.

표 N-4-1-43 |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실적(중소벤처기업부)

(단위 :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개)	-	308	649	1,218	2,127	2,820	4,730	2,760
생산현장디지털화(개)	144	137	147	193	-	-	-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개)	-	37	58	46	94	-	-	-

*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은 '18년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은 '19년부터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으로 통합

스마트 제조 저변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21년부터 보급체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연결을 통한 기업간 협업을 강화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21년 8개 컨소시엄 지원)과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 트윈을 적용하여 실시간 원격제어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21년 10개사 지원) 등을 통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민간주도의 대표적인 사업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으로서 '21년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2개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총 270.2억 원을 출연하여 999개 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년부터는 민간의 자발적 스마트공장 구축을 유도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 수준확인 기관을 통해 '19년 914개, '20년 1,409개, '21년 1,456개 등 총 3,779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인하였다.

라. 스마트공장 보급 성과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산성은 29.3% 향상되었고, 품질은 42.7% 향상, 원가는 15.9% 절감, 납기는 16.8% 단축되었다.

표 IV-4-1-44 | 스마트공장 지원 성과('14~'19년 12,660개 지원기업 대상)

(단위 : %)

구분	공정개선 성과				경영개선 성과		
	생산성(P)	품질(Q)	원가(C)	납기준수(D)	고용	매출액	산업재해
'14~'19	29.35% ↑	42.77% ↑	15.95% ↓	16.82% ↑	1.5명 ↑	6.4% ↑	4.91% ↓

특히,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매출이 6.4% 증가하면서 고용도 평균 1.5명이 증가하여 제조 경쟁력 확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산업재해율도 4.91%가 감소하는 등 근로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사례
(에이치엔에스하이텍(주))



우수사례(아주스틸)



우수사례((주)품림파마텍)

마.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 구축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①제조 데이터 저장·분석 인프라, ②인공지능 개발·활용 도구, ③인공지능 데이터셋과 표준모델, ④상품화된 인공지능 제조 서비스(솔루션), ⑤전문가 컨설팅·실증과 교육 서비스 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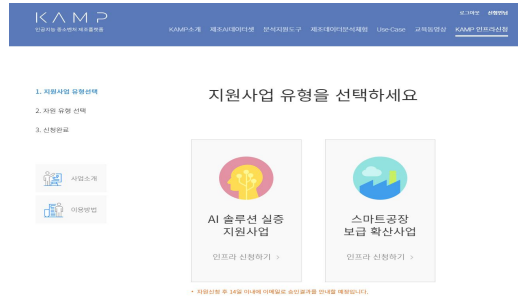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이자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제조업 디지털화 핵심 후속 조치로, 동 사업*을 2020년 신규 기획하여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을 구축하였다.

*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 ('20) 116억 → ('21) 134억 → ('22) 154억

KAMP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인공지능 분석 도구, 인공지능 제조데이터셋, 교육 동영상, 전문가 컨설팅·기술도입(실증)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 KAMP 서비스 포털 홈페이지 메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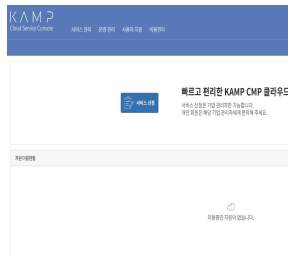
* KAMP 인프라 신청 화면

또한 다양한 솔루션의 등록 및 품질관리, 솔루션간의 비교 거래가 가능한 솔루션 스토어와 KAMP 포털 클라우드 자원활용을 지원하는 CMP(클라우드 자원관리) 등을 구축하여 KAMP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에 더해 인공지능을 통한 제조데이터간 연결 및 의미를 가시화해 보여주는 제조AI대동여지도·트렌드 분석 서비스를 구현하고,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과 데이터셋을 추가 구축하여 기존 서비스도 확충했다.



* KAMP 솔루션 스토어



* 클라우드 자원관리(CMP)



* 제조AI 대동여지도

KAMP는 2021년까지 인공지능 제조 컨설팅 및 실증 지원을 통해 200개 공장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했으며, 업계가 주목할 만한 우수사례*도 다수 창출하였다.

- * (예시) ① 인공지능으로 콘택트렌즈 가공공정 최적화, 도수 적중률 70→95%,
 ② 내화물 품질검사에 인공지능 도입, 불량 판정 신뢰도 90→96% 향상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형 단조프레스 진동데이터 학습으로 부품파손 1시간 전 사전예측

표 IV-4-1-45 | 2021년 인공지능 제조 컨설팅 및 실증 연계 지원과제 현황

(단위 : 개)

구분	선정목표	신청과제	지원과제
도입기업	100	204개	100

2022년에는 제조데이터 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조데이터 소유권을 보장하며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KAMP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제조혁신의 성과를 중소제조업 전반으로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제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

일반현황

중앙회는 2000년 8월 설립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을 위한 보증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특례보증 및 맞춤형 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신보를 통해 총 732만건, 174.8조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였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24조 6,341억원을 공급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인 재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포함하여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브릿지 보증」,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등 특례 보증을 시행함으로써 보증대상별 맞춤 지원과 보증대상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파트너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서민의 행복추구에 기여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보증지원’,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및 실현’, ‘소상공인 중심의 보증서비스 혁신’, ‘건전한 기관 운영 및 국민신뢰 제고’로 구성된 4대 전략목표에 따라, 12개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등 서민전문 보증지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특히, 2021년 보증공급 중 업체수 기준 99.8%(99.9만건), 공급액 기준 99.1%(24.4조원)을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등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탄력적 보증지원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지원 강화

2021년 지역신보는 국내경제 안정화를 위해 24조 6,341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소상공인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전체 보증공급의 95.3%인 23조 4,86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였다.

표 IV-5-1-1 | 연도별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보증	소상공인보증	비 중
2016	업체수	464,329	456,504	98.3%
	금액	111,849	100,564	89.9%
2017	업체수	478,419	470,843	98.4%
	금액	116,229	105,476	90.7%
2018	업체수	497,304	489,287	98.4%
	금액	120,743	111,774	92.6%
2019	업체수	570,247	557,195	97.7%
	금액	140,239	126,202	90.0%
2020	업체수	1,102,797	1,088,273	98.7%
	금액	285,069	274,735	96.4%
2021	업체수	1,000,959	988,090	98.7%
	금액	246,341	234,860	95.3%

보증공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7조 3,038억원으로 총 보증공급 24조 6,341억원 중 29.6%를 차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주요 업종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순으로 지원되었다.

표 IV-5-1-2 |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 타 ^{주)}	계
2020	29,604	61,832	69,552	83,730	40,351	285,069
2021	27,723	51,369	56,155	73,038	38,056	246,341
비중	11.3%	20.9%	22.8%	29.6%	15.4%	100%
증 감	△1,881	△10,463	△13,397	△10,692	△2,295	△38,728

주)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보증금액별 보증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3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액 비중이 71.2%로 나타나 보증수혜 고객의 과반이상이 소액보증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보증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1-3 | 금액별 보증공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계
2020	196,489	56,567	24,096	7,917	285,069
2021	175,382	41,412	18,475	11,072	246,341
비중	71.2%	16.8%	7.5%	4.5%	100%
증 감	△21,107	△15,155	△5,621	3,155	△38,728

지역신보의 주된 보증대상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공급비중은 95.3%로 전체 보증공급 대상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증공급이 소·중기업에 비해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V-5-1-4 | 기업규모별 보증공급 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계
2020	274,735	8,257	2,077	285,069
2021	234,860	9,363	2,118	246,341
비중	95.3%	3.8%	0.9%	100%
증 감	△39,875	1,106	41	△38,728

2) 주요 특례보증 제도시행

가)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신규)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육성을 위한 저금리 자금지원

- * 대상기업 : 스마트 기술을 이용·보유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기업
- * 시행시기 : 2021년 4월
-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14,566건, 3,864억원 (2021년말 누계 기준)

나) 브릿지 보증(신규)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중이나 경제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해 5년 이내 분할 상환으로 연착륙을 돕는 금융지원

- * 대상기업 :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중으로 ①보증만기가 1개월 이내 도래하고 ②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990점이 또는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③지역신보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은 기업
- * 시행시기 : 2021년 7월
- * 지원한도 : 전차보증의 여신(대출)잔액 이내
- * 공급실적 : 1,491건, 277억원 (2021년말 누계 기준)

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신규)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 감소 및 신용도 악화로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 후 가동중으로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수급하였으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기업
- * 시행시기 : 2021년 8월
- * 지원한도 : 최대 2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13,454건, 2,273억원 (2021년말 누계 기준)

라) 온(溫, ON)택트 특례보증(신규)

코로나19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비대면(Untact) 문화에 대응하여, 지역신보와 은행방문 없이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보증 지원

-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후 1년 경과하여 현재 가동중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인 개인기업
- * 시행시기 : 2021년 8
- * 지원한도 : 7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174건, 33억원 (2021년말 누계 기준)

마) 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신규)

국내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 * 대상기업 : 중소기업부 선정 수출두드림기업 또는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이며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 * 시행시기 : 2021년 12월
- * 지원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7건, 3억원 (2021년말 누계 기준)

바)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서비스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고 사회통합 지원

- * 대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자활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의한 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시행시기 : 2018년 2월
- * 지원한도 : 4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1,373건, 657억원 (2021년말 누계 기준)

사)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용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관광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 대상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로서 현재 가동중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기업 (단, 특별지원기업의 경우 개인신용평점 적용 제외)
- * 시행시기 : 2019년 5월
- * 지원한도 : (일반지원기업) 최대 2억원 이내 (특별지원기업) 최대 2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2,826건, 1,335억원 (2021년말 누계 기준)

아)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재해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최대 2억원까지 신속한 보증지원으로 경영정상화 도모

- * 대상기업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 시행시기 : 2005년 12월
- * 지원한도 : 2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10,442건, 4,298억원 (2021년말 누계 기준)

자)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 기업에 대한 경영성장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

-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인 장애인기업
- * 시행시기 : 2008년 7월
-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5,866건, 1,673억원 (2021년말 누계 기준)

3)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정부정책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지원

중앙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매출부진, 고정비용 부담 등 경영애로 상황에 직면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24조 6,341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정부·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보증대상을 발굴하고 적극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시행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였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로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폐업사업자의 일시상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브릿지보증」을 시행하였다. 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폐업사업자)에 대한 보증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최초 공급목표였던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보증공급을 확대, 1년차 보증료 0.5%p를 감면 하는 등 폐업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셋째, 코로나19로 관광업이 위축됨에 따라 경영난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관광사업자 지원을 위한 「영세관광사업자 협약보증」의 추가 출연을 통해 총 지원 규모를 1,1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보증료율을 0.8%에서 0.5%(0.3%p 감면)로 인하, 기본한도 10백만원을 상향하여 저신용 영세 기업을 위한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넷째, 이외에도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재단과 은행 방문없이 전 과정을 앱(App)을 통해 최대 3천만원 대출 지원 가능한 「온택트 특례보증」, 국내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원을 지원하는 「수출유망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을 7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대상기업 확대(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추가)로 사회적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나. 비대면(Untact) 문화 대응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1) 비대면보증 시스템 개발을 통한 보증방식 혁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보증 시스템 개발 필요성 증대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3개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와 「비대면보증 도입을 위한 포괄 MOU」를 체결하고 비대면보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다. 시중은행 6개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를 개발 상대처로 추가 협약을 체결하여 금융회사 앱(App)을 통한 비대면 보증과 대출을 신청하고 자동심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위탁보증 무방문·비대면 기한연장시스템 구축

'20년 시행한 5.8조원 규모의 기업은행 초저금리3 위탁보증 만기 도래 건에 대하여 고객이 매년 지역신보를 방문하지 않고 은행 앱(App)을 통한 기한연장이 가능토록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역신보의 경우 기한연장 업무처리 시스템의 자동화로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보증 실수요자에 대한 적기의 금융지원과 함께 보증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3)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기업의 상환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의 일환으로 「브릿지보증」을 도입하였다. 브릿지 보증은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회수하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증근거를 마련하였고, 선제적 조치를 위해 시행령 개정 이전 한시적으로 「휴폐업기업에 대한 기한연장 업무처리방법」을 현실에 맞게 운영(임대차 계약서 대신 사업재기계획 약정서 징구)하여 폐업사업자의 연착륙을 돕는 금융지원에 기여하였다.

4)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 확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6종 이용 중이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하였다.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표준 증명원을 포함하여 총 8종의 서류에 대해 고객이 구비하여 제출할 필요 없이 재단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면·실물 서류 위주의 업무처리를 전자화하여 비대면 보증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다. 효율적인 재보증제도 운영

1) 재보증제도의 정책기능 강화

중앙회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및 재기지원 등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중점지원사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하였으며, 특례보증의 재보증비율을 상향(50%→60%)하여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를 유도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공동 재기지원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1,423개 업체(98억원)에 대한 원금 및 손해금 감면을 추진하였고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였다.

2) 재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지원

보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보증한도를 적기 배정하여 재단의 연간 보증공급목표 달성에 기여하였고, 시대상황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재보증 제한업종 완화 및 폐업한 사업자를 위한 브릿지보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단의 보증업무를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개별약정 심사 제도를 통해 고액보증(2억원 이상)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여 정부재원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였고, 축적된 데이터 및 금융환경변화를 고려한 평가모형 적합성 검증 및 개선을 통해 제도의 효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라.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일사천리 재기지원」 사업 운영

1)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채무부담 완화

실폐소상공인을 포용성장으로 응원하기 위해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적 부실채권 관리방안에 따라 중앙회 및 지역신보에서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였다.

지역신보가 보유한 특수채권 '매각'을 통해 실익 있는 채권회수에 집중하여 회수 금액 확대 및 관리업무의 질적 제고를 추구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완성 등 추심이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소각'을 실시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의 실효적 재기를 위해 부실채권에 대한 매각보단 소각에 집중하여 정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실적은 총 2,773억원으로 채권매각 246억(1,756건), 채권소각 2,527억(24,455건)이다. 이는 정부의 부실채권 정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목표(1,876억) 대비 148% 수치로 약 900억 초과달성 하였다.

(단위 : 억원, %)

구분	부실채권 정리								
	매각			소각			합계(a)		
	목표	실적	비중	목표	실적	비중	목표	실적	비중
'18년도	371	369	99	1,183	1,477	125	1,554	1,846	119
'19년도	987	633	64	1,258	2,375	189	2,245	3,008	134
'20년도	641	284	44	1,346	1,950	145	1,987	2,234	112
'21년도	688	246	36	1,188	2,527	213	1,876	2,773	148
합 계	2,687	1,531	57	4,975	8,329	167	7,662	9,861	129

2) 소상공인 재기교육·컨설팅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각채무자를 대상으로 재기교육·컨설팅 이후 자금(보증) 지원까지 연계하는 “일사천리 재기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총 30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재무·금융, 법률 등의 대면교육 18시간과 업종별 창업, 마케팅, 경영 중심의 과목으로 12시간 집중 교육하였다.

재기교육 수료자 중 신청자에 한해 재기컨설팅을 3회 진행하였으며, 수진자는 재기지원 전문 컨설턴트와 1:1로 필요분야에 대해 추가로 학습하였다. 교육·컨설팅의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후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번 일사천리 재기프로젝트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24회차로 진행되어, 재기교육은 총 317명 수료로 목표(500명) 대비 약 63% 달성되었으며, 재기컨설팅은 총 56명 이수로 목표(100명) 대비 56%로 기록되었고 자금(보증)지원은 77건으로 약 14억원 공급하였다.

교육·컨설팅 종료 후 설문을 통해 교육환경, 내용 등 조사결과 재기교육 수료자 92%(294명)가 교육 전반에 대해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컨설팅 수진자 75%(42명)가 ‘만족’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재창업 전·후 사후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IT인프라 구축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비대면(Untact) 채널 확보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량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전파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비대면(Untact) 문화가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정책 및 보증지원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였다.

이에, 금융회사 모바일 앱(App)을 통해 보증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무방문·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보증부 대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보증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비대면 채널 확보로 인한 보증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최신의 대외연계서버 도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마련하였다.

2) 업무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보증수요 폭증으로 인해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 직원들의 업무량은 급증하였다. 이에,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도입하여 단순반복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을 통해 자동화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 인력의 고부가가치 업무전환으로 노동생산성 확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증수요 폭증 대비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고성능 서버 도입 등 정보시스템 성능 향상 및 전산센터 구축 설계

신보중앙회 사옥 신축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전산센터 구축의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산센터 구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운영현황 분석,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최신의 전산센터 구축을 위한 기반환경 설계 및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으며,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에 대비한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코로나19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고성능 서버 도입 등 IT인프라 고도화 및 시스템 재구성을 통해 주요 업무 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하였고, 최신의 IT기술을 활용한 장애예측으로 발생 가능한 장애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현황

신용보증재단은 신용상태가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공익법인이다. 주요 업무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경영지도, 기본재산의 관리, 구상권의 행사 등이며, 세종재단 설립으로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별로 17개의 신용보증재단에서 160개 본·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표 IV-5-1-5 | 지역재단의 지점 수 현황('21.12월 기준)

(단위 : 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8	26	14	11	7	7	2	8	26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1	5	8	11	8	3	9	6	

1)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속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보증재원이며 적정한 대위변제를 위한 준비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타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표 IV-5-1-6 |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단위 : 억원)

구분	출연현황				이월이익금(B)	기본재산(A+B)
	지자체	정부	금융기관 등	계(A)		
2021년	29,722	8,459	30,298	64,478	△19,096	49,382

2) 지역재단의 신용보증지원 현황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2021년 보증공급은 24조 4,538억 원, 보증잔액은 42조 5,23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보증잔액의 영향으로 1.5%대의 비교적 낮은 보증사고율을 기록했다.

표 N-5-1-7 | 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

(단위 : 건, 억원, %, 배)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보증 공급	건 수	983,878	1,080,201	536,708	462,060	444,193
	금 액	244,538	282,705	136,474	116,848	112,650
보증 잔액	건 수	1,846,637	1,629,798	1,018,259	918,903	871,332
	금 액	425,239	387,263	221,865	196,444	183,844
보증 사고 순증	건 수	33,574	32,884	38,294	34,263	29,207
	금 액	6,382	5,948	6,371	5,722	4,971
	사고율	1.5	1.5	2.9	2.9	2.7
대위 변제 순증	건 수	22,125	25,365	28,249	22,518	19,162
	금 액	4,303	4,420	4,529	3,849	3,098
	변제율	1.0	1.1	2.0	2.0	1.7
운용배수		9.1	9.6	6.6	6.1	6.5
기본재산		46,580	40,213	33,897	32,080	28,503
재단 수		17	16	16	16	16

* 햇살론 제외

제6장

창업진흥원

1

일반현황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 의거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며,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서비스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008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국내외 진출지원, 창업자를 위한 자금·인력·판로지원 및 정보제공, 창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 창업실태 통계조사 및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은 4본부 23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예산은 9,823억 원으로 창업저변 확대, 창업사업화 지원,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는 창업 준비부터 도약까지 성장단계별 창업지원을 비롯하여 소재·부품·장비, BIG3(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혁신기술 분야 창업을 본격 지원하였다. 또한 K-스타트업, 법인설립시스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업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창업저변확대

1) 청소년 비즈쿨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대표적 사업인 비즈쿨(Bizcool)은 학교(School)내에서 경영(Business)을 배운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모의 창업 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밖 센터 등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총 4,702개교, 245만명을 지원하였다. 특히 평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를 위해 2021년에는 전국 424개 학교 및 센터를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로 지정하여 비즈쿨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표 N-6-1-1 | 비즈쿨 운영실적

구 분	'02~'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지원예산 (억원)	216.1	45	50	60	83	76.65	76.65	76.65	62.5	61.65
비즈쿨학교 (개교)	1,027	135	200	412	448	513	561	495	487	424
참여학생수 (천명)	582	116	133	190	247	262	283	242	221	178
비즈쿨캠프 (명)	8,850	1,808	1,035	585	989	469	417	283	813	649
창업동아리 (개)	4,622	830	1,053	1,329	2,092	2,781	2,803	2,468	2,288	2,059



청소년비즈쿨 캠프



청소년비즈쿨 체험교육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2) 실전창업교육

실전창업교육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정립과 사업계획 도출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준비된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자 2019년 신설되었다.

‘창업기본교육 → 실습교육 → 후속연계’ 단계별 교육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와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BM 구성 요소들을 수립 및 변경해 가며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하였다. 실습단계에서는 린스타트업 중심교육으로 교육생 비즈니스모델의 핵심 기능만 최소한으로 구현하고, 잠재고객과 시장 대상으로 반응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였다. 후속연계 단계에서는 모의 IR, 타사업 연계 등의 교육지원을 하였다.

표 IV-6-1-2 | 실전창업교육 교육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1단계] 아이디어 개발교육	[2단계] 비즈니스모델 수립	[3단계] 린스타트업 교육
2019년	3,060	1,222	323
2020년	3,267	2,413	320
구분	[1단계] 온라인 창업교육	[2단계] 온오프라인 실습교육	[3단계] 후속연계
2021년	2,281	251	25
총계	8,608	3,886	668

3) 창업에듀

예비창업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로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지원하는 창업에듀는 '09년 구축되어 '10년도부터 운영되어온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이다.

'16년 온라인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여 창업과 관련한 핵심 이론 및 실사례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만 짧게 구성하는 강의로 신규 개편하고 스마트 기기 등에서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다.

창업단계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강생들이 필요한 주제별 강좌를 개발 또는 외부 기관과 제휴하였고,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회계 등의 주제강좌 약 471개를 운영하고 있다.

표 IV-6-1-3 | 창업에듀 성과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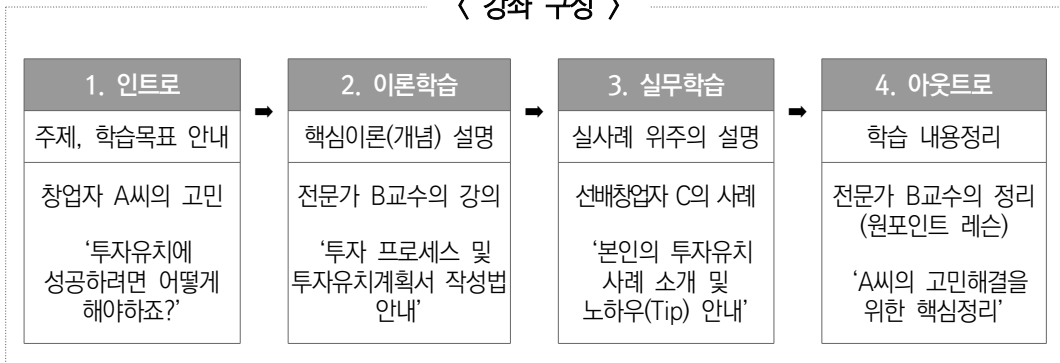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신규회원	19,198	14,531	3,620	7,496	8,246	8,021	11,073	10,913	12,347	15,501	28,823	17,457
방문건 수	91,414	70,740	108,601	147,716	178,480	212,693	252,775	186,932	225,683	272,916	612,956	741,719
수료생 수	3,075	17,017	34,170	54,979	56,143	27,881	40,968	161,192	303,126	360,658	694,154	459,668

개편 전('10~'16년) 평균 33,462명이던 교육 수료생이 개편 후 '19년 360,658명, '20년 694,154명, '21년 459,66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편 시 도입된 기관별 맞춤형 교육서비스인 '패키지 과정'은 첫째 신청 기관이 18개 기관(25개 과정)에서 '21년 149개 기관(293개 과정)으로 약 8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표 IV-6-1-4 | 창업에듀 강좌 구성(예시)

〈 강좌 구성 〉



4) 창업경진대회 등 기업가정신 함양

가) 도전! K-스타트업

'도전! K-스타트업'은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로서 유망한 (예비)창업자와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창업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부터 진행해오던 '창업경진대회'가 2016년 중기부,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도전! K-스타트업'이란 브랜드로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점차 참여부처를 확대하여 2022년에는 총 11개 부처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서 자리매김했다.

* 2022년 참여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산림청, 특허청

도전! K-스타트업은 각 부처별 특성을 살린 예선대회와 통합본선, 결선 그리고 최종 왕중왕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왕중왕전에서 수상한 팀에게 상금과 정부시상을 수여한다. 2022년에는 부동산 신산업, 국방과학기술활용 분야의 예선리그를 신설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리그 내 전국 창업중심대학과 초기창업패키지 창업클럽(동아리)을 대상으로 클럽리그를 신설하는 등 보다 다양한 산업분야와 계층의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 2022년 예선대회(10개) : 혁신창업리그 일반·클럽(중기부), 학생리그(교육부·과기부), 국방리그(국방부), 여성리그(중기부·여가부), 관광리그(문체부), 환경리그(환경부), 부동산신산업리그(국토부), 국방과학기술리그(방위사업청), 산림리그(산림청), 지식재산리그(특허청)

2021년에는 총 7,352개의 대회 참가팀 중 각 예선리그를 통해 총 200개팀이 통합본선에 진출하였고, 최종 왕중왕전 20개팀을 선발하여 총 상금 15.3억과 대통령·국무총리 등 정부시상을 하였다.

* 2021년 예선대회 : 혁신창업리그(중기부), 학생리그(교육부·과기부), 국방리그(국방부), 여성리그(중기부·여가부), 관광리그(문체부), 환경리그(환경부), 산림리그(산림청), 지식재산리그(산업부·특허청), 청년리그(중기부)

* 총 접수건수(7,352건) : 혁신창업리그(1,933건), 학생리그(897건), 국방리그(671건), 관광리그(671건), 여성리그(1,292건), 환경리그(362건), 지식재산리그(380건), 산림리그(121건), 청년리그(537건)

또한 대회 참가팀과 수상팀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창업사업화(예비·초기·도약·재도전패키지), 특허·기술보증과 더불어 해외진출(컴업스타즈, 해외전시회 지원) 등 사업화 자금확보와 창업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후속연계 지원한다.

표 N-6-1-5 | 도전! K-스타트업 주요 추진 성과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참가자 수(팀)	4,055	5,770	3,894	7,112	7,352	28,183
수상자 수(팀)	10	10	20	20	20	80
경쟁률 (%)	405:1	577:1	195:1	356:1	367:1	391:1



대회 홍보 포스터



온라인 홍보(네이버 해피빈)



왕중왕전 시상식

나) 글로벌스타트업 페스티벌(컴업)

2001년부터 지속된 벤처창업박람회는 2019년 '컴업(COMEUP)'으로 행사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스타트업 및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외 진출과 글로벌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축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사 컨셉을 전환했다.

본 행사는 민관의 역량을 종합하여 국내 우수 스타트업과 AC·VC 등 투자자,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의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연(컨퍼런스)



스타트업 IR



행사장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의 관객 유치 등 국내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대외에 알리는데 성공하였다.

표 IV-6-1-6 | 행사 참가규모 (최근 3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지원 스타트업	80개	120개	72개	272개
참관객	21,102명 (오프라인)	59,054명 (온라인)	50,291명 (온오프라인)	130,447명

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2019년도까지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 우수기업 홍보 후속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부터 국내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통합 브랜드 「K-STARTUP」 BI를 활용하여 통합관을 운영하여 해외 바이어 및 투자자들과 한국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통합전시관 구축, 전시 참가 등 전시지원부터 기업별 홍보콘텐츠 제작, 참여성과 홍보 등 후속 홍보까지 종합 지원하여 전시회 참가하는 기업들을 A부터 Z까지 지원한다.

2021년에는 Tech Crunch DISRUPT(미국), TNW(네덜란드)의 2개의 온라인 전시회와 CES(미국)의 1개의 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하여 국내 유망 창업기업 총 59개사를 지원했다.



Tech Crunch DISRUPT



TNW



CES

표 IV-6-1-7 | 참가 전시회 및 지원규모('21년도)

구 분	참여전시회	지원 규모	주요성과
2021년	TechCrunch DISRUPT(미국)	17개사	19건 바이어 상담(약 74억원)
	TNW(네덜란드)	12개사	2개기업 피치배틀 본선 진출, 8건의 바이어 상담 (약 35억)
	CES(미국)	30개사	혁신상 6개 수상, 661건의 바이어 상담 (약 60억원)
총계		59개사	

5) 조사연구

창업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1년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등의 정책 자료와 창업기업 실태조사, 대학 창업인프라 실태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등 24건의 과제(연구과제 : 18개, 창업통계 : 6개)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제 수행과 국내·외 창업 동향 분석 자료는 신규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고도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표 IV-6-1-8 | 창업조사·연구 연도별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추진과제	15	15	14	20	24	88

6) K-스타트업(K-startup)

K-스타트업은 창업정보와 사업 신청 및 선정, 사업비 정산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한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등 정부 창업 사업을 통합제공 하는 창업포털(www.k-startup.go.kr)이다.

2015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 545개 기관의 창업정보의 종합 제공과 수요자 관심분야를 고려한 분류체계 구성 및 맞춤형 간편검색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창업정보를 온라인 창구로 단일화하여 (예비)창업자가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창업에 관한 애로를 해소하였다.

K-스타트업을 통해 창업교육부터 멘토링, 판로·해외진출까지 창업에 관한 제반 정보를 One-Way, One-Gate로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사용자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을 위해 ‘창업생애주기’, ‘창업 내비게이션’, ‘창업 인프라지도’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제공하였다. 이 밖에 모바일, 태블릿 등 PC 외 기기에서 접근성 및 이용성 확대를 위하여 반응형 웹을 구축하였으며, 사용량 증가에도 안정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였다.

표 N-6-1-9 | K-스타트업 이용실적

(단위 : 건, 명)

구 분	총 방문자수	월평균	일평균	회원수
2018년	4,925,304	410,442	13,494	309,731
2019년	6,835,397	569,617	18,727	366,003
2020년	7,380,070	615,006	20,500	466,145
2021년	8,068,254	669,641	22,016	562,371

7)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구축·운영

분산되어 운영 중인 법인 설립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창업자들의 법인 설립 시 겪어왔던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 2월 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http://www.startbiz.go.kr>)을 개통하였고, 2013년 9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등기소, 지방세납부 시스템, 국세통합시스템, 인터넷지로시스템, 4대 사회보험 연계시스템 등을 통합·연계한 시스템으로 법인설립의 쉐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N-6-1-10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절 차	기간(일)		절 차	기간(일)
① 상호 검색	1	➔	① 법인인감 제작	1
② 법인인감 제작	1		② 상호 검색 4대보험 등록 취업규칙 신고 법인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등기신청수수료	3
③ 자본금 확인	1			
④ 법인등록세 납부	1			
⑤ 법인설립등기 신청	2			
⑥ 사업자등록 신청	6		③ 4대 사회보험료 납부	0
⑦ 4대 사회보험 가입	1			
⑧ 취업규칙 신고	1		3단계	4일
8단계	14일			

2011년 상법 개정에 따라 무액면 주식발행기능을 추가 하였으며, 연계기관인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신청 시스템 개편에 따른 신규 프로세스 개발 등 지속적으로 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법인설립만 지원하던 시스템을 대법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모든 유형의 법인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 운영 이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법인 설립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이후 총 73,189명의 창업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설립을 완료 하였으며 2021년 한해만도 1만 3천명이 넘는 창업자가 법인설립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표 N-6-1-11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현황

(단위 : 건)

구 분	법인설립	전화상담	인터넷 접속
2010년	1,005	18,569	206,018
2011년	1,673	35,642	216,548
2012년	2,403	51,406	262,904
2013년	3,021	51,319	322,011
2014년	4,052	58,837	585,574
2015년	5,045	60,369	584,347
2016년	6,048	61,444	565,776
2017년	7,111	48,673	522,403
2018년	8,195	49,656	538,406
2019년	9,509	64,996	993,797
2020년	12,060	74,331	1,349,375
2021년	13,067	61,494	1,148,472
합계	73,189	636,736	7,295,631

8)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구축·운영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본격 시행(21년~)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cert.k-startup.go.kr)을 구축·운영 중이다.

2021년 누적 14,657건의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 휴·폐업사실증명원 등 창업기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의 제품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소개 페이지를 확인시스템에 구축하여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는 재무 상황이 열악한 초기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기술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창업자의 사업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청년 일자리 대책(18.3)」의 일환으로 '18년 신설되었다.

세무·회계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2개 주관기관(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21년에는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에 총 16,200개사를 지원하였다.

표 IV-6-1-12 | 2021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선정절차

모집공고	요건 검토	지원대상 확정	협약체결
K-startup 신청	자격, 기타 요건 등 검토	우선 신청자 순으로 확정	3자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

지원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의 바우처를 연 100만원 한도(최대 2년)로 지원하며, 세무·회계 부문은 기장대행 수수료 및 결산·조정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술보호 부문은 기술임치 계약(갱신)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다.

'18년에 8,698개사를 지원한 이후 '19년 16,586개사, '20년 20,115개사, '21년 16,200개사를 지원하였고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로 한정했던 지원범위를 '20년부터 간편 장부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창업기업까지 지원하였다.

나. 창업사업화 지원

1)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제품 개발, 창업교육, 멘토링 등 초기 창업 사업화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모집을 위하여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선정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선정하여 최대 1억원 한도로 초기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사업계획에 따라 시제품 개발비, 재료비, 지적권확보비 등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자금으로 협약기간(8개월)동안 사용 가능하며 창업경험이 없는 예비창업 단계임을 고려하여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 함양을 위해 단계별 창업 교육을 운영하고, 창업·경영 전반 지식을 보유한 전담멘토를 예비창업자와 1:1로 매칭하여 사업계획 고도화 등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 서비스를 지원한다.

표 IV-6-1-13 | 예비창업패키지 단계별 창업교육 내용

구분	교육시간	교육시기	운영주체	교육내용
사전교육	8시간	협약체결 전	전담기관	사업비 계좌개설, 시스템 사용방법, 사업비 집행기준 등 안내
역량강화 교육	16시간	협약기간 중	주관기관	기업가정신, 회계, 법률, 지적권 등 창업지식 함양 교육
심화교육	16시간	협약기간 중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수요를 반영하여 IR 스킬, 선배기업 간담회 등 맞춤형 교육

'21년에는 48개 주관기관을 통해 유망 예비창업자 1,530명을 발굴·육성하였으며, 지원종료 후 우수한 성과(매출, 투자, 일자리 등)를 달성한 졸업기업에게 초기창업패키지·창업 R&D 사업 연계를 통해 지속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의 첫 창업 도전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별도 추진하여 유망 청년 창업인재 400명을 발굴·육성하였으며, 성과 발표회를 통해 최우수(상위 10%)로 선정된 자는 차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신청 시 서면평가 면제 혜택을 부여하였다.

표 IV-6-1-14 |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현황 (48개)

일반분야(중 기술분야)	특화분야(소셜벤처, SI 등)
창조경제혁신센터(19개) -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빛가람,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포항 전국 소재 대학교(16개) - 건국대, 경기대, 계명대, 대구대, 동국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수원대, 연세대, 인천대, 전북대, 전주대, 한밭대, 한양대, 호서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광주과학기술원, 벤처기업협회, 서울과기대,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초기 창업기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초기창업기업의 사업안정화 및 성장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8년도까지 운영되던 “창업선도대학, 세대융합캠퍼스 및 장년서포터즈, 스마트 벤처 캠퍼스” 사업을 초기단계 창업기업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19년부터 단계 별(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1년에는 정부의 핵심 산업·경제정책 방향을 고려한 전략 분야를 신설하여 그린 분야(100개사, 「그린벤처스타트업 육성방안(20.11월)」)를 포함한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유망 신기술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자 하였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관기관 소재 권역 내 창업기업 의무선발 비율(70%)을 적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였다.

표 N-6-1-15 |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현황 (40개)

수도권(18)			비수도권(22)				
서울(9)	경기(6)	인천(3)	충청권(6)	호남제주권(7)	동남권(5)	대경권(3)	강원권(1)
건국대	가천대	인천대	대전창경센터	광주대	동서대	경북대	가톨릭관동대
고려대	경기대	인하대	순천향대	군산대	부경대	대구대	
서울대	단국대	인천TP	충북대	순천대	부산대	대구창경센터	
송실대	성균관대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대기술지주	울산대		
씨엔티테크	수원대		한남대	전북대	영산대		
엔피프틴	한국산기대		한밭대	전주대			
연세대				넥스트챌린지			
인덕대							
한양대							

'21년도에는 1,002억원의 예산으로 40개 주관기관을 통해 960개 기업을 발굴·육성하였으며, 주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기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였다.

* 특화프로그램 : 마케팅, 재무회계 및 지재권 보호, 투자 IR, 네트워킹 및 교류회 등

표 N-6-1-16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 (추경 포함)

(단위 : 백만원, 명, 건)

구분	예산	신청	지원	매출	일자리
2019년	118,080	8,898	1,078	489,218	4,199
2020년	114,500	13,103	1,111	830,085	5,802
2021년	100,260	7,616	960	-	-
합계	332,840	29,617	3,149	1,319,303	10,001

* '21년 최종성과 조사 중(~'22.9월)

3) 창업도약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도약단계(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 등으로 위기를 맞아 사업화에 실패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

(테스 벨리)을 극복하고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16년 10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21년 1,020억원 규모로 확대하였다.

'21년은 도약단계 창업기업 600개사를 선발하여 참여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고도화,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대학 등 창업지원 주관기관을 통해 교육, 멘토링, 마케팅, 네트워킹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매출과 신규 고용이 늘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19년 구글과 처음 시도한 '글로벌 기업 협업프로그램'이 창업기업의 높은 호응과 성과를 보이고, 최근 국내 대기업도 창업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협업 범위를 글로벌 기업에서 국내 대기업으로 확장하고 지원 분야를 다양화한 '대기업 협업프로그램'을 '21년에 시범 추진하였다. 친환경, 클라우드·인공지능, 식품기술물류 및 콘텐츠 분야에 각각 노하우와 강점을 가진 SK이노베이션, 네이버 클라우드, CJ는 전문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에 교육,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킹, 투자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기업-창업기업 공동사업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표 IV-6-1-17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사업화 기준)

(단위 : 억원, 명, 건, 협약기간 기준)

구 분	신 청	선정	매출	일자리
2016년	683	160	1,017	937
2017년	2,524	813	9,908	6,993
2018년	1,327	441	4,269	4,871
2019년	2,613	435	9,844	7,857
2020년	3,452	750	12,844	12,882
2021년	2,976	600	-	-
합계	13,575	3,199	37,882	33,540

* '21년 사업 진행 중('22.9월경 최종 성과조사 예정)

4)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의 기술 기반의 예비창업자 또는 기 창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12년 신규로 도입되었다. 해외 액셀러레이터³⁴⁾를 활용하여 창업자가 글로벌 진출 초기단계에 해외진출 가능성을 검증하고 현지에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을 양성하고자 함이다.

동 사업은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선발한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에게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사전역량 강화 교육 뿐만 아니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글로벌 피칭경진대회까지 참가 지원한다.

2012년에 미국, 중국 등 2개국을 시작으로 점차 진출 국가를 확대하여 현재 국내 창업자들의 진출 수요가 높은 6개국 8개 지역(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및 상하이,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베트남 하노이, 러시아 모스크바)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IV-6-1-18 | 최근 3년간 국내창업기업 해외진출지원 성과

(단위 : 억원, 명)

연 도	예산	선정	투자유치		매출		고용
			국내	해외	국내	해외	
2019	27.9	58	59.7	-	77	24.5	85
2020	34.0	58	52.7	51.4	138.8	24.6	149
2021	87.6	140	745.5	2.0	390.0	26.3	531
합계	149.5	256	857.9	53.4	605.8	75.4	765

* 현지진출유형 : 법인, 지사·사무소, 합작법인

** 환율 : 1,190원 기준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총 256개 창업기업을 지원하였으며 681.2억원의 매출액(국내 605.8억원, 해외 75.4억원)과 765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911.3억원의 투자유치(국내 856.6억원, 해외 54.7억원)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34) 해외 액셀러레이터 : 해외에 거점을 두고 창업기업의 멘토링, 창업공간, 초기투자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창업촉진 전문회사 및 기관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에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탐색 지원

5)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가가치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 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이다. '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생산 3배, 수출 5배 증가 등 외형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범용제품 위주의 추격형 전략과 압축 성장으로, 핵심 전략 품목의 만성적 대외 의존 지속, 글로벌 경합도 증가, 부가가치 정체 등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의 자립화·국산화 등을 통해 대외 의존을 탈피하고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9년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100 → 강소기업 100 → 으뜸기업 100'으로 이어지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의 첫 단계인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을 2020년에 신설하였다.

이후 2021년까지 대·중견기업의 수요와 연결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총 40개사를 선정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선정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와 사업화를 지원하였다.

표 IV-6-1-19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현황(2020~2021)

(단위 : 개)

구 분	복합소재	산업용 IoT	스마트 엔지니어링	친환경	융합바이오	합계
2020년	4	4	5	3	4	20
2021년	5	4	4	3	4	20
합계	9	8	9	6	8	40

향후 2024년까지 총 100개사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 핵심기술을 선점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나)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헬스 · 미래차(BIG3)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BIG3)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혁신성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2019년 12월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을 통해 BIG3 분야의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키로 하였다.

2020년부터 중소·벤처기업 신규 지원대상 25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6억원) 및 R&D, 정책자금, 기술보증 등을 연계 지원했으며, 전문인력과 기술·사업화 인프라를 보유한 분야별 주관기관 및 멘토단을 구성하여 BIG3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2021년에는 BIG3 선정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화 및 R&D, 자금, 보증 등 연계 지원을 지속하고, 분야별 주관기관을 6개에서 8개로 확대했다.

위와 같은 지원 결과, BIG3 기업들은 '21년 말 기준으로 기업당 평균 매출 31.4억원, 고용 29명, 투자 45.5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지원 전보다 매출, 고용 측면에서 약 70% 증가, 투자는 약 2.8배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표 N-6-1-20 | 2021년 기준 BIG3 기업 성과 실적현황

구 분	2019년 (지원 전)	2020년 (지원 1년)	2021년 (지원 2년)	'21년 실적 규모(%)	
				'19년 대비	'20년 대비
매출 (억원)	18.5	25.8	31.4	169.7	121.7
고용(명)	17	23	29	170.6	126.1
투자 (억원)	16.0	31.9	45.5	284.4	142.6

이들 기업 가운데 특히 지능형 반도체(NPU)개발 팹리스 기업 '퓨리오사 에이아이'는 설계 IP 및 관련 기술개발,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성장하여 창업 4년만인 '21년 약 78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고정밀 HD Map 제작기업 (주)스트리스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인수되며 성공적으로 엑시트 하였다. 또한 희귀질환치료제 개발기업 (주)티움바이오는 '21년 500억원의 투자를 받으며 유럽 임상과 FDA 승인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팬데믹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스타트업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나아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개선, 신속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와 난관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협력 지원 모델인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정부에서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및 창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은 보유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교육, 솔루션, 1:1 컨설팅, 판로개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을 2019년 1개사(구글플레이), 2020년 5개사(구글플레이, 엔비디아, AWS, MS, 다쏘시스템), 2021년 6개사(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로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6개 글로벌 기업에서 협력하고 있는 지원 분야는 ‘구글플레이 : 모바일 앱 및 게임’, ‘엔비디아 : 인공지능’, ‘마이크로소프트 : 클라우드’, ‘다쏘시스템 :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신제조공정, 로봇’, ‘앤시스 : 스마트 모빌리티, 전자·전기, 헬스케어, 소재’, ‘지멘스 : 전자·전기·기계, 장비·부품, 의료용 기기’이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내 정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함께 해당 분야 유망 창업기업 총 200개사를 발굴·지원 하였다.

표 IV-6-1-21 | 2021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선정현황

(단위 : 개)

프로그램	창구 (구글플레이)	엔업 (엔비디아)	마중 (MS)	다운다 (다쏘시스템)	ASK (앤시스)	지중해 (지멘스)	합계
선정기업 수	80	30	30	20	20	20	200

향후 지속적으로 미래 유망기술 분야의 글로벌 기업 발굴을 통해 신규 협업 분야를 개척하여, 창업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활발한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 해나갈 계획이다.

라)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비대면 형식의 경제·산업활동이 급속도로 확산하였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맞물리며 비대면 시장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비대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혁신적인 창업자들이 뛰어들었으며, 비대면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도 증가하였다.

정부는 비대면 분야의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신설하였다.

동 사업은 6대 비대면 분야*에 해당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창업사업화 자금과 분야별 특화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분야별 특성이 상이한 비대면 기업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 과정을 범부처 협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 6대 비대면 분야 : 의료, 교육, 생활·소비, 콘텐츠, 기반기술, 유레카(기타 비대면 혁신 아이템)

표 IV-6-1-22 |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 분야 및 협업부처 현황

대분야	세부분야	협업부처	대분야	세부분야	협업부처
의료	①비대면 의료	복지부	생활·소비	⑧해운·수산	해수부
	②의료기기	식약처		⑨친환경	환경부
교육	③온라인 교육	교육부	콘텐츠	⑩지역융합 미디어	과기정통부
	④에듀테크	산업부		⑪비대면 스포츠	문체부
생활·소비	⑤온라인 농·식품	농식품부	기반기술	⑫인공지능 등	특허청
	⑥스마트 물류	국토부		유레카	⑬기타 비대면 혁신 아이템
	⑦스마트 도시				

'21년에는 총 12개 부처*가 협업하여 창업기업 400개사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기업에는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였고, 협업부처와 분야별 주관기관의 전문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멘토링, 기술지원, 시장검증, 투자유치 및 판로지원과 같은 특화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제공하였다.

* 중기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다. 민간협력창업자 육성

1) 민간공동창업자발굴 육성

팁스(TIPS)는 기술창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스라엘 TIP(Tech Incubator Program)을 벤치마킹하여 지난 '1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기술창업 육성 플랫폼'이다. 민간의 유망 기술창업기업 선별, 보육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투자와 매칭한 기술개발·사업화자금을 연계지원하는 종합 육성지원 프로그램으로, 초기 기술창업기업에게 필요한 R&D 및 사업화·마케팅 자금은 물론 기술사업화를 위한 멘토링, 후속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6-1-23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사업 구조(TIPS)

운영사 선정	창업기업 선정	보육/멘토링	졸업/후속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 입찰방식 • 사업자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0개사 내외 • 민간투자사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엔젤, 재단, 창업기획자 등 • 운영기간: 6+α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2년+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창업기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운영사(인큐베이터) 자체심사(12~15배수) - 2차: 정부심사 (1배수) - 수시(년 7회 내외) - 계속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기간: 2+1년 • 투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사 : 1~2억원 내외 (창업팀 60%이상, 운영사 30%이하) - 정부: R&D지원(최대 5억원), 사업화마케팅지원(최대 2억원) • 마일스톤 관리, 적극적 멘토링, 엔젤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조건 (中 1개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후속투자액 20억원 이상 ② M&A 연계 ③ IPO(코넥스 포함) ④ 연 매출 10억원 이상 ⑤ 연 수출 50만불 이상 ⑥ 신규고용 20명 이상 • 성공 시 기술료 상환 • 후속지원 연계(포스트팁스등)

* 성공판정 시 기술료(정부 R&D 지원금의 최대 10%) 상환

팁스(TIPS)에서는 엔젤투자사, 벤처캐피탈,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민간 투자사 중 투자, 보육, 멘토링 역량이 우수한 투자사를 팁스 운영사³⁵⁾ (최초 지정 4년 후 매 2년 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가능)로 선정하고 창업기업 추천권(T/O)을 부여한 후, 운영사가 투자 및 추천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선정 평가를 통하여 팁스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운영사는 유망한 기술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부여받은 창업기업 추천권 내에서 2억원 내외의 선투자³⁶⁾ 후 정부에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창업기업은 운영

35) 성공벤처인 등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기획자 및 엔젤투자회사(법인엔젤), 엔젤투자재단, 창업투자회사 등 (연구중심대학, 기술지주사, 출연연,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등 컨소시엄 포함)

36) '투자확약'도 추천 가능하나, 협약단계 이전 투자계약 및 투자금입금이 완료되어야 최종 협약이 진행 (미이행 시, 협약 취소)

사의 보육공간(BI) 또는 팁스타운,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입주하여, 밀착보육 및 성공사업화를 위한 멘토링을 받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팁스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운영사가 투자한 엔젤투자금 이외에, R&D자금(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필요에 따라 평가를 통하여 창업사업화자금(최대 1억 원), 해외마케팅자금(최대 1억 원) 등 사업화자금을 연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초기 자본은 없으나 혁신 기술로 무장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과감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2022년에는 상·하반기 신규 운영사 공모를 통하여 23개 내외의 신규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총 11개의 신규 운영사가 추가되어, 2021년 12월말 기준 66개 운영사, 1,634개 창업기업이 선정되어 엔젤투자 3,694억원, 정부 R&D 6,200억원, 창업사업화자금 902억원, 해외마케팅자금 588억원이 투자지원되었다.

국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경제 환경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투자실적과 우수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운영사가 '21년에 신규로 참여하여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 보육 등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고, 특히 지방 소재 운영사 3개사가 참여³⁷⁾함에 따라 비수도권 내 기술창업기업의 팁스 참여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기획자 23개, 창업투자회사 15개 등으로 구성³⁸⁾된 TIPS운영사는 성공 창업인, 엔젤투자전문가, 보육-멘토링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어, 성공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창업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 N-6-1-24 | 운영사 및 보육공간 현황

구분	컨소시엄 주권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1차 (13년 6월)	카이트창업가재단	김철환	김철환(이미지앤머터리얼스), KAIST	카이트(대전) 팁스타운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김범수(카카오),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서울대기술지주 팁스타운

37) (대전) 에트리홀딩스, (울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 소풍벤처스

38) 창업기획자 23개, 창업투자회사 15개, 기술지주사 7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3개, 창조경제 혁신센터 2개, 기업형 6개, 유한책임회사 6개로 구성

구분	컨소시엄 주간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2차 (‘14년 2월)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강석훈	장병규(네오위즈),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팁스타운
	퓨처플레이	류중희	류중희(올라웍스), KETI (전자부품연구원), 네오플라이	전자부품연구원 팁스타운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강신혁	BootstrapLabs(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팁스타운
4차 (‘15년 3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	이용관(플라즈마트), 카이스트, 스테이션니오, 시작점	스테이션니오 한국과학기술원 시작점 팁스타운
	현대자동차	하연태 장재훈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BI 광주혁신센터
5차 (‘15년 11월)	인포뱅크	박태형	박태형(인포뱅크), 텀블러, 젠엑시스,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우정바이오, 씨앤벤처파트너스,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자체 BI(경기)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정회훈	씨엔티테크, 행복나눔재단(SK), 카이스트창업원(양재R&CD센터), 핀플레이, SK사회적가치연구원	카이스트창업원 (서울) 팁스타운
6차 (‘16년 11월)	선보엔젤파트너스	최영찬 오중훈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부산TP,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BI(부산), 울산과학기술원, 울산혁신센터, 광주과학기술원
	스프링캠프	최인규	-	자체 BI(서울)
	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	안태성	LG전자, LG생활건강, LGU+, 충북TP,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진흥공단충북지부,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청주상공회의소	자체 BI(충북)
	포스텍기술지주	유주현	포항공대, 포스텍 기업협업체, 포스텍 엔젤클럽,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	포항공대 팁스타운
	시너지아이비투자	이건영	요즈마그룹코리아	자체 BI(경기)
	휴젤	손지훈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LSK인베스트먼트	유전공학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강원혁신센터

구분	컨소시엄 주간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7차 (17년 7월)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박기일	동국제약, (中)SCORE CAPITAL, 진학어플라이, 연세대, 한국자동차연구원, 시공아이피씨	연세대(서울)
	빅뱅엔젤스	황병선	평화홀딩스, 경북대	경북대
	아이빌트	이준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고려대, 충북수출클럽, 비피메이커스랩, 이노보스, HRG, 케이액셀러레이터	자체 BI(세종) 호서대
	에버그린 투자파트너스	홍종국	아이에셋, 아이피텍코리아, 송실대, 연세대, 이그나이트, Church&State	송실대 연세대(서울)
	코맥스벤처러스	변우석	코맥스, 와디즈, 히스토리벤처투자, 메가존클라우드	자체 BI(경기) 팁스타운
7차 (17년 7월)	킹슬리벤처스	이정훈	한국기술벤처재단, 전남대기술지주, 어썬벤처스, 리앤목특허법인, 케이디벤처팜, 킹슬리자산운용, 서울대학교 벤처경영기업가센터	자체 BI(대구), 케이디벤처팜
	KB인베스트먼트	김종필	KB금융지주, 더인벤션랩	자체 BI(서울)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장재수	고려대의료원, 아이파트너즈,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KU글로벌센터,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고려대학교세종산학협력단	자체 BI (서울, 세종) 아이파트너즈
8차 (18년 6월)	매쉬업엔젤스	이택경	(미)빅베이스캐피탈, 슈미트, 패스트파이브	패스트파이브 팁스타운
	메디톡스벤처투자	신효진	메디톡스	자체 BI(경기)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목승환	서울대, (미)Church and State Business Center	자체 BI(서울) 팁스타운
	에이치지 이니셔티브	남보현	드림플러스강남센터, 루트임팩트, 본투글로벌센터,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드림플러스 강남센터, 서울혁신센터
	인라이트벤처스	유동기	대구경제혁신센터, 광주경제 혁신센터, (프)EuraTechnologies, 와이앤아처, 다래전략사업화센터, 에이전트엑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BI(대구), 광주혁신센터

구분	컨소시엄 주간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한양대학교 기술지주	이병희	한양대 창업지원단, 한양증권,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미)Founders Space, (싱가폴) Seamo Ventures, brinc, The GAIN, Accrete Innovation, Bridge Partners, Forence Group, HATCH! Ventures, Taiwan Accelerator, Innolab Asia	자체 BI(서울)
9차 (19년 5월)	김기사랩	신명진	조이시티, EST soft Inc., 워크앤올, 공개임즈, 서울산업진흥원	자체 BI(경기), 서울창업허브
	미래과학기술지주	김판건	카이스트, WSV Capital	자체 BI 카이스트(대전)
	빅베이스캐피탈	윤필구	송영길(NComputing), 신현성 (TMON), 이택경(매쉬업엔젤스),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 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연구원	명지대(경기) 고려대(서울)
	씨엔티테크	전화성	-	자체 BI(서울)
	엔피프틴파트너스	양동민 허제 류선중	엔피프틴, 인천경제산업 정보테크노파크, 세종벤처파트너스, 아이디벤처스, 고려대학교 크림슨 창업가센터, GS칼텍스, 마인즈랩, Harman Connected Services, Queen Consulting Group Private Limited, CampFire, 벌트코리아, KB국민카드	자체 BI(서울), 인천테크노파크
	플래티넘기술투자	이창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케이티, 대광경영자문차이나, Nautilus Venture Partners	경기혁신센터
10차 (19년 9월)	대덕벤처파트너스	이석훈	igniteXL, 컴퍼니에이, 한국수자원공사, 로우파트너스, 엔슬파트너스, IPS벤처스	한국수자원공사, 로우파트너스
	더존홀딩스	김용우	더존비즈온, 키컴, 강원도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TP,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창업보육센터,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자체 BI(강원) 강원대
	데일리파트너스	이승호	MARSInnovation, Longlycapital,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씨애치씨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 바이오센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창업보육센터	생명공학연구원 씨애치씨랩
	벤처스퀘어	명승은	Rehoboth Vietnam,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본투글로벌센터	르호봇비즈니스인 큐베이터 본투글로벌센터

구분	컨소시엄 주간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부산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	성희엽	Saigon Innovation Hub, Able Advisors, 비스퀘어, 스마트파머, 부산관광공사, BNK벤처투자	비스퀘어 스마트파머
	슈미트	김현준	DSC인베스트먼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PHANTOM AI Inc., LVIS Corporation	자체 BI(서울)
	스파크랩	김유진	아산나눔재단, 스파크플러스, 한양대학교기술지주, Sparklabs Taipei, 스파크랩파트너스	마루180, 스파크플러스
	캡스톤파트너스	송은강	코로프라 넥스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팁스타운, 프론트원
	프라이머	권도균	Primer Sazze GP, LLC., 대응제약,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대응제약(용인), 프론트원
	플랜에이치벤처스	원한경	KITA Inc., 네오위즈차이나,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자원공사, 네오플라이, 전남대기술지주회사, 부산대기술지주회사, 울산과학기술지주, 한국표준협회	자체 BI(서울) 한국무역협회
	한국과학기술지주	강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SK Telecom Americas InnoPartners, 원익투자파트너스, 윗스	대전혁신센터 팁스타운
11차 (’20년 8월)	대경지역대학공동 기술지주	권대수	VentureNest Partners, 경북 테크노파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창조경제 혁신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영남대학교 의료원, 에프엠씨인베스트먼트, 삼성증권 대구기업금융지점, 대구테크노파크	자체BI(경북), 경북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더벤처스	김철우	Golden Equator Ventures, WFUNA	자체BI(서울)
	디티앤 인베스트먼트	이승석	COLOPL NEXT, Innolab Asia,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디티앤씨,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아이피에스	경기혁신센터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남기문	스마일게이트희망스튜디오, 스마일게이트홀딩스, Smilegate West, 소문신식과기(상해), Smilegate Barcelona, 서강대학교, 전북대학교기술지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오렌지팜 (서초, 신촌센터)

구분	컨소시엄 주간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아주아이비투자	김지원	Solasta Ventures, 스파크플러스, 한국기술벤처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려대학교의료원,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특허법인 다해	자체BI(서울), 한국기술벤처재단
	연세대학교 기술지주	이충용	연세대학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대학교기술지주, 라파스, 한국컴퓨터, 대성창업투자, PrimerSazzePartners	자체BI(서울), 서울혁신센터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이상진	안랩, 이디리서치,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Queen Mary Innovation, TusStar, 한국자동차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대전혁신센터
	포스코기술투자	임승규	POSCO INTERNATIONAL SHANGHAI, 포스코인터네셔널,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인덕대학교, 송실대학교산학협력단, 소사코리아	인덕대, 송실대
	JB벤처스	유상훈	충청남도, 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오픈놀, ERA, 순천향대학교 기술지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호서대학교창업지원단, United Ventures Agency, 시너지엑스	자체BI(경북),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놀
12차 ('21년 7월)	글림벤처스	남홍규	PT.Hanhwa Life Insurance Indonesia, Shorooq Partners, 한화생명보험, 넥스코리아, 디라이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아이비케이캐피탈, 디에스자산운용, 브이아이피자산운용, 현대에이치티	자체 BI, 한화생명보험 (드림플러스 강남)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	배상승	CONG TYTNH HHIVELAB VINA, Wilt Venture Builder, Vynn Capital, 티에스 인베스트먼트, 덕우전자, 나누리 의료재단, 바디프랜드, 우진아이엔 에스,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대안투자 자산운용, 해원의료 재단,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 국민대학교기술지주	자체 BI, 국민대
	더인벤션랩	김진영	Innolab Asia, 마이워크스페이스, 서울대학교 SI연구원	마이워크스페이스

구분	컨소시엄 주간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소풍벤처스	한상엽	Collaborative Fund Management,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테크노파크, 보령홀딩스,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디지털헬스케어 파트너스,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넥스트랜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씨앤벤처파트너스	심재희	YOUMEON, IT Works Japan, Kigalabs, 1982 Ventures, KILSA GLOBAL, 엔텔스, 인포뱅크, 에치에프알, 드림시큐리티, 원앤파트너스, 성균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한밭대학교 기술지주, 시너지엑스, 윗스	성균관대, 한밭대
	액트너랩	조훈제	NEMIC, 와우파트너스	자체 BI
	에트리홀딩스	윤상경	JC VALLEY, ETRI US R&D Cente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북경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피엔피인베스트먼트, 신한캐피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엔슬파트너스	정재동	대공방코리아, 케이티비네트워크, 어니스트벤처스, 킹고스프링, 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 건국대학교 기술지주, 수원대학교산학협력단, 엠에이피에스,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스테이지나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창업허브)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김재훈	Creative Valley, 한국조선해양,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울산테크노파크, 스페이스점프, BNK벤처투자, 스케일업파트너스	자체 BI
	패스트벤처스	박지웅	Cowell Investment Group, 패스트파이브	패스트파이브
	BSK인베스트먼트	백승권	Suprema Systems UK, 슈프리마, 퍼스트게이트, SNU공학컨설팅센터, 벤처기업협회	SNU공학컨설팅센터, 벤처기업협회

TIPS 창업기업은 기술분야별로 정보통신 669개, 바이오·의료 452개, 전기·전자 164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창업기업 대표자 기준으로 석·박사 비율은 58%이고, 삼성, 구글 등 국내외 대기업 경력자가 29%로 고급기술 인력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TIPS 창업기업이 '21년 한 해 동안 M&A 20건, IPO 4건³⁹⁾(누적, M&A 46건, IPO 8건)을 포함하여 총 335개 창업기업이 약 2조 9천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누적 후속투자 유치금액은 누적 약 7조 2천억원을 돌파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팁스의 보육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팁스타운은 지난 2015년 7월 개관하여, 팁스 창업기업, 운영사, 창업지원기관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역량강화, 투자유치설명회, 창업 네트워킹,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5개 팁스타운(해성빌딩, 명우빌딩, 현승빌딩, 태광빌딩, 회성빌딩) 30개층이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팁스 창업기업, 팁스 운영사, 창업지원 유관기관 등 94개사 약 700명이 상주하며 성공창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곳에서는 팁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후속투자 연계를 위한 '팁스밋업'과 최고 경영자과정인 '팁스아카데미',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프로젝트', 창업생태계 간 네트워크 행사인 '팁스서밋'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 팁스타운 인근에는 강남스타트업센터(강남구청), 체인지업그라운드(㈜포스코), 마루 180/360((재)아산나눔재단)이 위치하고 있어 이곳을 '창업가 거리'라고 부른다. 2021년 12월에는 최초로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창업가 거리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국내 최고의 창업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업 네트워킹 (창업가거리축제)



역량강화 교육 (팁스아카데미)



후속투자 연계 (팁스밋업)


39) M&A : 차이엑스, 아이로, 메가폰엔터테인먼트, 맘모시스, 핑스플로우, 깃플, 스무디, 큐로진생명과학, 스트리스, 박쑈, 매드스퀘어, 알커미스, 시큐어티앤에스, 코드브릭, 플라스티비이, 타스컴, 더식스데이, 데이블, 브릴리온포토닉스, 오늘의픽업

IPO : 뷰노(코스닥), 맥스트(코스닥), 켈스(코넥스), 지니너스(코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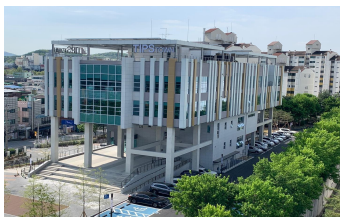
아울러 그간 수도권 집중의 창업·벤처 붐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중 틱스 참여 창업기업이 가장 많은 대전 지역에 지방 최초로 틱스타운을 설립하고, 2021년 5월 개관하였다.

대전 틱스타운은 지역 내 혁신주체인 대학, 민간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등의 역량과 경험 등을 결집하여 지역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소 등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조성되었다.

표 N-6-1-25 | 대전 TIPS타운 조성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위치)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 내) • (조성규모) 지하 1층~지상 5층 (입주공간 22개) • (입주시설) 입주공간(오픈형 75석, 독립형 22개실), 카페, 수면샤워실, 전시공간, 공용회의실, 중대형 행사 공간 등 	
---	--

충남대학교 내에 5층 규모로 조성된 대전 틱스타운은, 대전지역 유망 창업기업, 틱스 선정기업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독립 사무실(7인실~10인실) 22개실과,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창업관계자 등이 틱스타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오픈형 업무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 75개석, 혁신주체들이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는 회의실, 카페, 행사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틱스타운 전경



독립형 업무공간 (7~10인실)



오픈형 업무공간 (코워킹스페이스)

2021년 12월말 기준, 22개 스타트업(틱스 선정기업 12개사 포함)과 8개의 투자기관(틱스 운영사 3개 포함)이 입주 중이며, 8개의 투자기관 등을 통해 입주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상시 밀착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투자기관의 멘토링을 통한 투자유치전략 마련 및 자금조달 기회 제공,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지역 창업기업 간 연계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각계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킹 등 입주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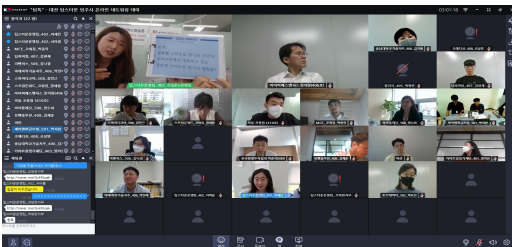
또한 대전 팀스타운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기업 데모데이,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 세미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개 데모데이



스타트업 세미나



온라인 네트워킹



투자사 멘토링

더불어 스타트업 프로젝트 매니저(SPM, Startup Project Manager) 전문인력 양성 및 대학생 스타트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전 팀스타운은 창업기업들을 위한 입주 공간뿐만 아니라 휴게시설, 공용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중대형 행사 공간 등도 함께 구축되어 있고, 주변 대학로 등 청년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인접하는 등 창업 친화적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창업문화 확산, 창업 촉진,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역 혁신주체와의 협업 등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기업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사내 벤처팀(기업)을 육성하면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스타트업과의 상생협력 및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기업의 신규 사업 모델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전략의 하나로 사내벤처 제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1년 대중견중소공기업 20개사를 운영기업으로 신규 선정하고, 사내벤처팀(기업) 135개팀(사)를 지원하였다.

사내벤처팀(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기업 4개사, 중견기업 3개사, 중소기업 13개사 등 총 20개사를 운영기업으로 신규 선정하여, '21년까지 총 96개 운영기업과 협업하였다.

사내벤처팀(기업)은 추천형, 개방형, 후속지원(실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1년에 추천형은 3차례에 걸쳐 61개팀(사), 개방형은 2차례에 걸쳐 30개사, 후속지원은 44개사 등 총 135개팀(사)를 지원하였다.

또한, 사내벤처팀(기업)의 아이템 사업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창업기획자 등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판로확대 등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22년에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속지원(실증) 선정기업이 제조분야 분사 창업기업일 경우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총 150개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IV-6-1-26 | 2021년 운영(모)기업 유형별 운영기업 및 사내벤처팀(기업) 현황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기타	합 계
운영기업수 (%)	20(20.8)	15(15.6)	46(47.9)	15(15.6)	-	96
사내벤처팀(기업) (%)	62(45.9)	10(7.4)	43(31.9)	17(12.6)	3(2.2)	135

* 내역 시범사업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포함 시, 사내벤처·혁신기업 총 200개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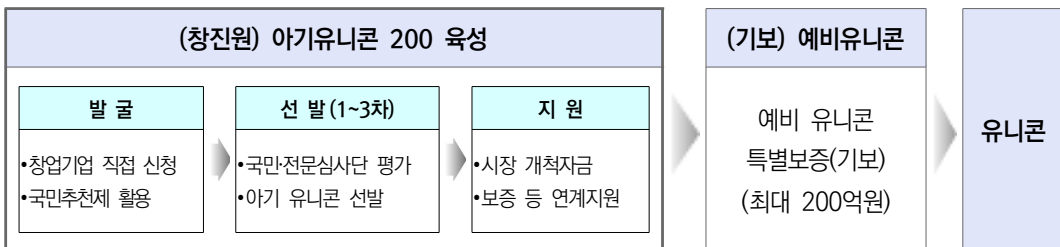
표 IV-6-1-27 | 2021년 사내벤처 선정 운영기업 현황

구 분	운영기업명 (96개사)
대기업 (20개사)	롯데벤처스(주), 신한카드(주),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엘에스전선(주), 엘지디스플레이(주), 현대자동차(주), (주)우리금융지주, 삼성전자(주), (주)엘지씨엔에스, SK텔레콤(주), (주)포스코, 코오롱베니트(주), 지에스건설(주), (주)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 (주)케이티씨에스, (주)이노션, 교보생명보험(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엘에스일렉트릭, 메조미디어
중견기업 (15개사)	(주)하나금융티아이, (주)코맥스, (주)한솔교육, 대상(주), (주)다날, (주)엔글,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한솔피엔에스(주), (주)대웅제약, 제이비(주), (주)이랜드리테일, (주)티에이치엔, (주)에치에프알, 이랜데이노플, 한겨레신문사
중소기업 (46개사)	(주)매스씨앤지, (주)삼진엘앤디, (주)엔라인, (주)케이엘넷, (주)프론틱, (주)휴넷, (주)에이치나인, (주)이투, (주)티제이이노베이션, (주)씨아이그룹, (주)에프앤가이드, (주)드림에이스, (주)메이데이파트너스, (주)비전, (주)서울신문사, (주)글로벌홀딩스, (주)비에스알코리아, (주)샘파트너스, (주)이브자리, (주)인키움, (주)신신사, (주)투스라이프, (주)오상헬스케어, (주)유경시스템, (주)이너스커뮤니티, 위즈코어(주), (주)크레마, 크리에이티브파트너스, 나이스디앤알(주), 씨엔티테크(주), 아름드리자산운용(주), 주식회사 케이씨넷, (주)동해이엔티, (주)에이치엠, (주)인사이트온, (주)뷰티플휴먼, (주)온누리아이코리아, (주)삼호정기, 주식회사 버핏서울, (주)파워플렉스, (주)사임당화장품, (주)케이피티,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주)위세아이텍, (주)데이터뱅크, (주)바른손
공기업 (15개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3) 아기유니콘200 육성 프로그램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해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천억 이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표 IV-6-1-28 | 아기유니콘 기업 육성개요



* (아기유니콘) 기업가치 1천억 미만 → (예비유니콘) 1천억 이상~1조 미만 → (유니콘) 1조 이상

그간 '20년 40개사, '21년 60개사 등 총 100개 아기유니콘을 선정해 지원하였으며, '22년 상반기에 60개사 '22년 하반기에 40개사가 추가 선정되어 총 20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간 '20년 40개사, '21년 60개사 등 총 100개 아기유니콘을 선정해 지원하였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신청 당시보다 1,920개(기업당 19.2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여 1.5배(55.6%↑) 증가, 매출**은 2.8배(177%↑)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 아기유니콘 고용 : (신청당시) 3,451명 → ('21년 말) 5,371명 (+1,920명, 55.6%↑)

** 아기유니콘 매출 : (신청당시) 3,429억원 → ('21년 말) 9,273억원 (+5,844억원, 177%↑)

중기부는 선정된 아기유니콘에 신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특별보증(최대 50억원), 정책자금(최대 100억원), 중기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연계지원 외에 해외진출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ESG 경영도입 지원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가하여 아기유니콘에게 더욱 풍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표 IV-6-1-29 |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지원체계

신시장 개척	선정된 100개 기업에게 「시장개척 지원자금」 최대 3억원 지원		
신시장 진출	[투자자 연계] 국내외 VC와 IR	+	[해외진출 지원] 창진원 네트워크
		+	[기술 신시장 진출] 규제샌드박스 지원
금융+R&D	특별보증 최대 50억 (기보)	+	정책자금 최대 100억 (중진공)
		+	중기부 R&D 우선권 (기정원, 지명단)
경영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고용부)	+	방송광고 지원 (KOBACO)
		+	ESG 경영도입 지원 (중진공)

라. 중소기업 재기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

2015년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사업계획을 보유한 재도전기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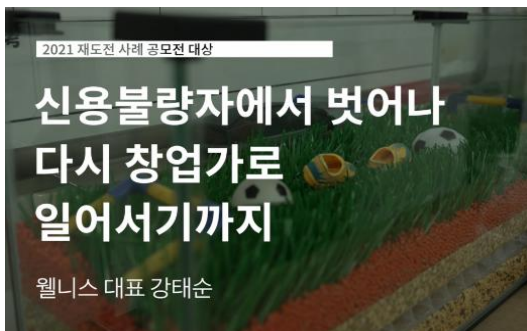
2021년 207개의 재도전기업을 선발하여 평균 42백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였고, 동시에 실패원인 분석, 마케팅 등의 교육 프로그램, 1:1 멘토링 등 지원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우수한 사업계획을 보유하였으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재도전 기업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 재도전 기업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도전 성공패키지는 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도전 인식개선 홍보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매년 재도전 사례공모전을 개최하여 재도전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도전의 날 등 다양한 콘텐츠 생산 및 행사 개최를 통해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도전 기업인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하여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며, 재도전 인식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도전 사례공모전 수상자 홍보영상



재도전의 날

마. 창업생태계 기반구축

1) 메이커 활성화 지원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창의적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실제 창업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의 혁신성장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메이커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조적 혁신의 확산과 혁신성장·창업 촉진을 위한 거점 마련을 위해 2017년 11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을 수립·발표한 후 2018년부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시작하여 '21년 현재 전국에 총 213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였다.

2021년 공모를 통해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을 지원하는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신규 15개와 전문 메이커 활동과 제조 창업을 연계·지원하는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신규 6개를 선정하여 아이디어가 창업·사업화로 연결 되도록 시제품 제작, 양산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N-6-1-30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현황('18~'21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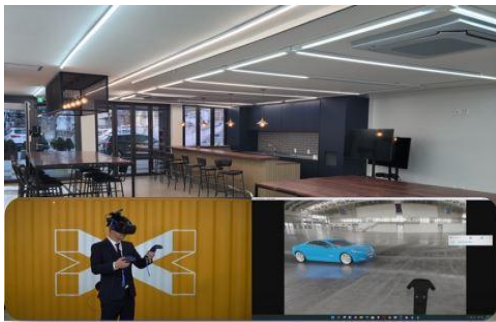
(단위 : 개)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
전문형	4	1	1	1	1	1	1	1	2
일반형	33	34	8	10	7	3	12	8	8
구분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계
전문형	1	1	-	1	1	2	1	-	20
일반형	11	12	6	12	9	8	9	3	193

메이커 스페이스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조창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일반랩들이 목공, 금속 등 특정분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다쏘시스템)협업을 통해 3차원 제품 설계·검증이 가능한 민간협업형 전문랩을 구축하여, 초기 제조창업 기업이 시제품제작을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1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병행하여 메이커의 지속 가능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메이커 활동 및 네트워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메이커 문화의 사회적 저변을 확산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메이크올) 구축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전국적인 메이커 확산을 유도하였다.

메이커 활동을 뒷받침할 인력 양성을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인력, 메이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현장교원 등 온·오프라인 메이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였다.



민간협업형 전문랩



온라인 통합 플랫폼(메이크올)



메이커 우수사례집



메이커 행사 지원

그간 정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집중 확산 위주의 정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 국민의 메이커 입문교육·체험, 장비·시설 이용을 적극 지원하며 메이커 저변을 확충해왔다. 다만, 일자리·혁신의 원천인 제조창업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앞으로는 제조 창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메이커 스페이스의 창업 연계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 (만 40세 이상)을 발굴하고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공간 및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전국에 7개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33개소까지 확대 설치하여 중장년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비퇴직자
기술창업 인식교육



과학기술인 특화 역량교육



전담인력 역량강화교육

2021년 맞춤형 기술창업 교육과 입주공간 지원 및 보육을 통해 857개사 창업 기업 배출을 했고, 입주공간 지원 및 보육을 통해 매출액 1,226억 원, 고용 995명을 달성했다. 2021년부터는 비수도권 인프라 확대(20개소 → 24개소)와 더불어 기술·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중장년 창업자 발굴을 위해 노사발전재단, 국방전직교육원, 국가과학기술개발원, 한국조폐공사 등 (예비)퇴직인력 집적기관과 연계하여 창업 저변을 확대하였다.

표 N-6-1-31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주요성과 (2021년)

구 분	창업자수	고용인원	매출액	지식재산권 (특허등록기준)
2018년	보육 : 793명 교육 : 212명	476명	62,084백만원	237건
2019년	보육 : 731명 교육 : 209명	436명	60,397백만원	307건
2020년	보육 : 792명 교육 : 242명	901명	105,492백만원	282건
2021년	보육 : 747명 교육 : 253명	995명	122,640백만원	324건

3)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창업 등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한전(나주), 포스코(포항) 2개 기관에서 민간 자율형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멘토링, 금융·법률·특허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공모전, 교육·강연, 투자 설명회 등 창업지원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트너 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N-6-1-32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기관(센터) 명	지역	기관(센터) 명	지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도 춘천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도 성남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기업, 대학, 지자체 등 지역의 다양한 혁신 주체들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파트너 대기업의 기술, 테스트베드, 판로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5G, IoT, AI, 비메모리, 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가능한 특화분야 창업기업을 포함한 13,702개에 달하는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4조 1,587억원의 투자유치와 38,76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보육기업 중 30개 기업이 관련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등 Exit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 내 공공 액셀러레이터로서 1조 3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직·간접적으로 운영 중이며, 약 376억원의 개인투자조합을 결성, 시드머니 투자는 76억원을 달성하였다.

4) 1인 창조기업 활성화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자가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대표(공동사업자)이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으로, 기술지식 기반 1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1년 법을 제정하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 제공 및 전문가 상담·교육·네트워킹 등 원활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09년 전국에 21개의 센터를 지정하였고, '21년 기준 전국에 48개의 센터를 운영 하였다.

표 IV-6-1-33 | 2021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

년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소계
21	11	2	9	22	2	4	1	3	4	4	1	3	1	1	2	26	48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보육 및 창업지원을 통해 2021년 연간 1,511개사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교육 11,368명, 경영자문 1,045건을 지원하였으며, 매출 165,434백만원 및 고용 창출 1,007명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IV-6-1-34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시행주체
사무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데스크 (1인 전용 사무공간, 서비스드오피스) 편의시설(회의실, 빔프로젝트, 라운지, 프린트, 카페 등) 	주관기관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등, 아이템 시장 멘토링 교육, 사업·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정보제공 등 	
교육·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모델(BM) 개발 (사업계획서, 피보팅 등) 아이템 검증, 교육·투자 등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업종별 창조기업 네트워킹 확대 1인 창조기업 - 우수창업기업 간, 입주 - 졸업기업간 	

나)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우수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유하고도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1인 창조기업에게 맞춤형 마케팅 및 다각적 판로채널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유망 1인 창조기업들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유망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디자인, 광고홍보 등을 통해 제품과 아이디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표 N-6-1-35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내용

구 분	과 제	세부 지원 분야
마케팅 지원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모바일 앱(웹), 홍보동영상, CM송제작
	디자인	전자·종이카탈로그, 포장·포스터·제품디자인, 브랜드개발
	광고 홍보	TV·라디오·옥외 광고, 신문·전문지 홍보, 온라인 홍보
	전시참가	국내·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부스) 지원

표 N-6-1-36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실적

(단위 : 억원, 개사, 명)

연 도	예 산	신 청	선 정	고 용
2016	51.9	2,081	463	314
2017	40.0	1,829	437	752
2018	29.0	1,320	279	416
2019	15.0	1,432	150	198
2020	12.2	511	151	246
2021	8.0	394	194	300

또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활동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혁신제품들이 다각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상품설명회, 구매상담회, 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켓 입점 등을 통한 유통채널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 및 MD 상담회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네이버)



온라인마켓 입점지원
(위메프)

5) 판교 창업존 운영

판교 창업존은 미래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제공, 인프라시설 지원, 보육 프로그램 등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 보육공간이다.

[6층] 창업자 지원인프라			[7·8층] 창업자·지원기관 입주공간		
					
대회의실	중회의실	교육장	개방형 공간	독립형 공간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보육공간인 ‘창업존’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업기업을 모집·선발하여, '21년 12월 기준 신산업 분야 115여개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스타 벤처기업으로의 도약을 향해 노력 중이다.

판교 창업존에서는 입주기업의 빠른 성장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3D 제작보육실, 글로벌 테스트베드, 통·번역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 지원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기업 맞춤형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표 N-6-1-37 | 판교 창업존 인프라 지원실적

구분	지원내용	'17~'18	'19	'20	'21	합계(건)
통·번역센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전문 통·번역 서비스 및 교육 제공	419	252	197	232	1,100
3D 제작보육실	디자인·설계 및 3D프린터 등 장비를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4,650	2,877	2,673	4,846	15,046
글로벌 테스트베드	해외 통신환경 구축 및 글로벌 상용망 테스트 서비스 제공	1,901	4,154	4,246	4,674	14,975
KT 클라우드 오픈스페이스	클라우드 및 플랫폼 관련 자문, 사업화 연계 등 기술 고도화 지원	-	-	-	176	176
합계		6,970	7,283	7,116	9,928	31,297

표 N-6-1-38 | 판교 창업존 보육 프로그램 지원실적 ('21년 12월 기준)

구분	교육	심층 멘토링	IR	마케팅	글로벌 지원	네트워킹
참여자	1,636명	95개사	96개사	116개사	68개사	5,478명

6) 스타트업 파크 운영

스타트업 파크는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거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타트업 파크는 개방성, 집적화, 지속가능성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개방성) 건물 내부 개방공간 조성, 건물간 연결, 외부와 원활한 네트워킹, (집적화) 대학, VC, 대기업 등 혁신주체 집적, 창업 인프라 연계 (지속가능성) 지역·민간 주도, 집중 지원 프로그램(자금·R&D·판로 등) 운영, 입주자 정주여건 고려 (주거·문화·복지 시설, 친환경 기술 활용) 등이 그 내용이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지는 인천, 대전, 천안 세 지역이 선정되었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2020년 12월 조성 완료되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나머지 대전과 천안 지역은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 중에 있다.

표 IV-6-1-39 | 스타트업 파크 조성지 현황

선정년도	광역시자치	대표협력기관	위치
2019	인천광역시	인천 테크노파크	인천 송도
2020	대전광역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유성구 공동 (KAIST-충남대)
	충청남도(천안)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천안역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210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 AC, 기업 등과 협력하여 AI·IoT 실증랩, 글로벌 진출 지원, 멘토링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7)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창업기업 입주·성장 지원 인프라와 주거·문화·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결합한 친환경 복합창업공간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및 청년층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화·복지·교육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도시에 조성한다. 충청남도 천안, 광주광역시가 서면 평가, 현장 확인, 발표평가 등의 평가 절차를 거쳐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두 지역 모두 건물 설계·건축 중에 있다.

표 N-6-1-40 |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지

선정년도	광역자치체	대표협력기관	위치
2020	충청남도(천안)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천안역
2021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역

충청남도 천안은 스타트업 파크 복합형에 선정되어 스타트업 파크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동시에 조성중(2개동 신축)이다. 어울림 타워, 이노스트 타워 일부 층에 그린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천안은 친환경 모빌리티·정밀의료 등을 신성장 특화사업으로 정하고, 맞춤 지원을 위해 R&D, LAB, 테스트베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에 선정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광주역 도시재생지구에 그린 스타트업 타운(복합허브센터), 스타트업 파크(스테이션 G), 기업혁신성장센터, 행복주택 등 대규모 창업집적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친환경에너지·스마트바이오·인공지능(AI) 분야를 특화사업으로 정하고 이에 맞춰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창업기업 지원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향후 인근의 연합기술지주회사, 대학교, 창업지원기관 등과 연계사업을 펼쳐나갈 거점이 된다.

바.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

유망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7대 분야로 구분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가치 창업가의 협업 프로젝트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지역가치 창업 7대 분야) ① 거점브랜드 ② 지역가치 ③ 로컬푸드 ④ 지역기반제조 ⑤ 자연친화활동 ⑥ 지역특화관광 ⑦ 디지털 문화체험

2021년에는 개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과 함께, 협업 과제를 별도로 신설하여 지원하였으며 자금지원 외 지역창업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6개 권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킹과 판로확보 등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V-6-1-41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선정현황

(단위 : 명)

구분	강원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제주	합계
2020	21	61	53	76	42	27	280
2021	40	51	51	59	44	58	303

사.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1)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비대면서비스 바우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원격근무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 일환으로 2020년 하반기에 신설되어 2,880억원(3차 추경)의 예산으로 78,148개사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였다.

사업에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4백만원(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받고, 플랫폼에서 제공중인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표 IV-6-1-42 |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분야

비대면 서비스 분야	세부내용
① 화상회의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② 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③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④ 에듀테크 (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기업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 등 교육서비스
⑤ 돌봄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⑥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20년도에 이어 '21년도에도 640개의 공급기업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2,160억원의 예산으로 66,786개사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였다.

2)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 회의실 포털 구축·운영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포털 구축·운영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화상 회의실은 전국의 주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구축되었으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업종별 협·단체 등 전국주요 시설에 회의 장비 및 회의공간 구축을 지원하며, 일반형 1,562개소, 확장형 5개소를 구축하였다.

표 IV-6-1-43 | 전국 화상회의실 구축·운영현황

(단위 : 개소)

지역	선정결과	지역	선정결과	지역	선정결과
서울	299	충북	77	울산	44
경기	295	충남	66	광주	70
인천	51	대구	60	전남	89
강원	53	경북	90	전북	80
대전	66	경남	107	제주	25
세종	11	부산	84	총합	1,567

일반형 화상회의실은 10여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회의실이며, 출장자, 원격 근무자 등 짧은 시간,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워크 부스 설치도 지원하였다. 확장형 화상회의실은 1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대규모 공간에 구축되어 수출상담회, IR 대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장소로 활용된다.

화상회의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가 화상회의실 정보를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인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예약포털(www.smes.go.kr/boms)을 구축하였으며, 지역별·규모별 화상회의실 위치 정보조회, 회의실 내 시설·장비 현황 안내 등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화상회의실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성’을 기본원칙으로 기획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쏠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 전환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화상회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비대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7장

한국벤처투자

1

일반현황

한국벤처투자는 '05년 6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가 설립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현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 전문기관으로, '07년 4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년 8월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거 법정기관화 되어 벤처투자 모태조합(기존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이하 '모태펀드')을 운영하고 있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벤처캐피탈 등이 결성하는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조합이다. 모태펀드는 '09년까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천억 원,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재정 4천억 원으로 총 1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결성 이후 기존 출자자의 추가 출자금 납입 및 신규 출자자 참여(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를 통해 '21년 말 기준 7조 2,775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운용기간은 30년으로 회수된 자금은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해졌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운용 외에 창업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VC 글로벌 펀드를 '13년부터 조성하였으며, 미국·중국·싱가포르에 사무소를 개소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 및 유니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 R&D기술사업화에 기여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성장지원 펀드, 하이테크 기술개발 사업화펀드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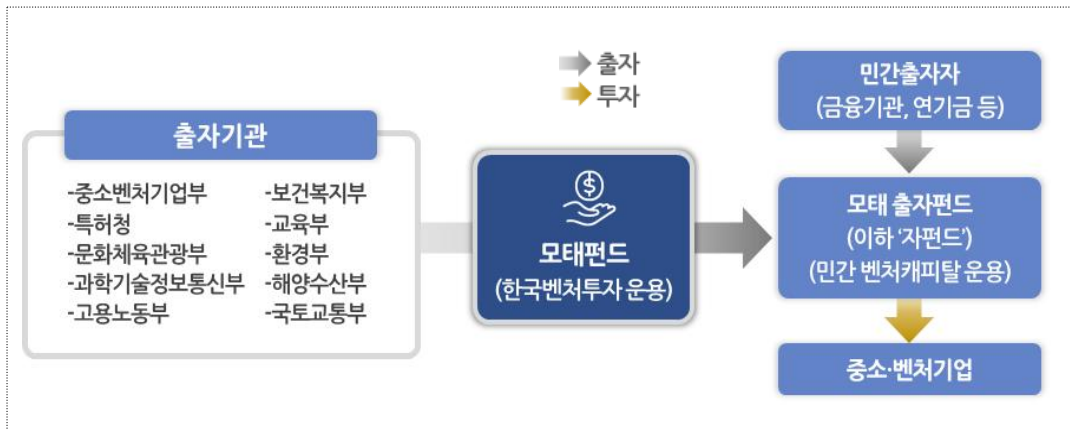
주요 사업 추진 실적

가. 모태펀드 운용을 통한 벤처생태계 확대

1) 총괄

모태펀드는 벤처금융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출자 및 관리를 담당하고,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 벤처캐피탈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정부가 재원을 공급하되 출자 의사결정은 한국벤처투자에, 투자 의사결정은 민간 벤처캐피탈에 맡기는 시스템으로 출자·투자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단년도 예산배정 범위 내 지원방식에서 탈피, 회수재원의 재순환 방식(Revolving System)으로 운영됨에 따라 벤처투자 시장에 안정적으로 투자 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표 N-7-1-1 | 모태펀드 운용 체계



'21년 말 기준 중기부, 문체부 등 총 10개 부처가 모태펀드에 출자하였으며, 그 규모는 7조 2,775억 원이다.

표 N-7-1-2 | 모태펀드 조성규모

(‘21년 12월 말 기준, 단위 : 억 원)

부 처	계 정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중기부	중진	17,101	575	2,400	5,100	8,700	33,876
	청년	3,300	-	-	600	600	4,500
	지방	100	-	-	-	-	100
	엔젤	2,090	-	-	-	-	2,090
	혁신	-	4,000	500	3,700	800	9,000
	소재부품장비	-	-	-	600	600	1,200
	소계	22,591	4,575	2,900	10,000	10,700	50,766
문체부	문화	5,551	540	630	1,130	1,248	9,099
	영화	800	100	80	240	350	1,570
	관광	380	170	130	300	450	1,430
	스포츠	470	100	100	100	130	900
	소계	7,201	910	940	1,770	2,178	12,999
과기부	과기정통	1,670	150	150	150	300	2,420
	연구개발특구	-	-	-	95	95	190
	소계	1,670	150	150	245	395	2,610
국토부	도시재생	-	-	200	200	100	500
	국토교통혁신	-	-	-	300	200	500
	소계	-	-	200	500	300	1,000
특허청	특허	1,600	200	100	200	200	2,300
복지부	보건	800	-	-	-	-	800
교육부	교육	120	150	150	150	120	690
환경부	환경	200	130	280	200	300	1,110
해수부	해양	-	-	200	200	100	500
총 계		34,182	6,115	4,920	13,265	14,293	72,775

* '05~'17년 누계

2)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 주도(제2벤처붐 견인)

모태펀드는 지속적 출자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시키며 제2벤처붐을 주도하고 있다.

'21년 신규 벤처펀드 조성 규모는 전년(6조 8,808억 원) 대비 약 34% 증가한 9조 2,17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신규 벤처투자액은 7조 6,802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4조 3,045억 원)에 이어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표 IV-7-1-3 | 벤처캐피탈 시장 현황

('21년 12월 말 기준, 단위 : 억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	45,856	48,427	42,411	68,808	92,171
신규 벤처투자 금액	23,803	34,249	42,777	43,045	76,802

*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모태펀드는 '21년 1조 7,102억 원을 출자하여 4조 3,372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모태펀드는 누적 기준으로 10조 8,189억 원을 출자하여 1,015개, 32조 9,353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 펀드(이하 '모태 자펀드')를 조성하였다.

표 IV-7-1-4 | 모태펀드 출자 계정별 모태 자펀드 결성 현황

('21년 12월 말 기준, 단위 : 억 원, 개)

결성년도 계정별	2017년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조합수	결성액	출자액	조합수	결성액	출자액	조합수	결성액	출자액	조합수	결성액	출자액	조합수	결성액	출자액	조합수	결성액	출자액
중진	342	136,086	30,954	31	16,146	3,265	19	7,760	3,038	23	9,589	3,815	65	26,901	9,605	480	196,482	50,677
청년	52	10,905	6,185	6	1,550	835	-	-	-	5	1,132	600	1	340	200	64	13,927	7,820
지방	11	1,326	640	1	100	60	8	1,021	562	6	763	415	2	152	79	28	3,362	1,756
엔젤	19	2,960	2,660	-	-	-	4	343	180	6	565	318	4	160	86	33	4,028	3,244
혁신	-	-	-	22	9,316	3,660	29	10,584	3,833	29	15,074	4,023	17	4,341	1,440	97	39,315	12,956
소부장	-	-	-	-	-	-	-	-	-	4	1,529	600	3	1,134	600	7	2,663	1,200
문화	72	15,554	6,737	10	2,036	1,268	11	2,248	1,230	12	2,713	1,610	12	2,741	1,540	117	25,292	12,385

결성년도 계정별	2017년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조합수	결성액	출자액	조합수	결성액	출자액	조합수	결성액	출자액	조합수	결성액	출자액	조합수	결성액	출자액	조합수	결성액	출자액
영화	10	1,750	980	1	170	120	1	193	95	2	464	310	3	561	362	17	3,138	1,867
관광	2	420	230	1	270	150	2	500	300	3	441	300	1	650	450	9	2,281	1,430
스포츠	5	845	470	1	170	100	-	-	-	3	294	200	1	185	130	10	1,494	900
과기	18	3,692	1,385	2	350	220	2	300	210	2	345	220	3	930	541	27	5,617	2,576
연구	-	-	-	-	-	-	-	-	-	-	-	-	2	380	190	2	380	190
도시	-	-	-	-	-	-	-	-	-	1	250	200	1	250	200	2	500	400
국토	-	-	-	-	-	-	-	-	-	1	170	100	3	427	300	4	597	400
특허	40	10,453	3,587	3	718	270	8	2,696	605	5	2,065	360	5	1,802	609	61	17,734	5,431
보건	4	4,350	800	1	300	180	-	-	-	-	-	-	1	1,300	150	6	5,950	1,130
교육	5	189	120	6	257	150	4	145	106	9	260	194	6	192	120	30	1,043	690
환경	1	420	200	-	-	-	2	435	280	3	571	330	2	638	300	8	2,064	1,110
해양	-	-	-	-	-	-	2	295	200	1	155	100	2	286	200	5	736	500
공동*	5	1,260	590	1	180	100	1	400	240	1	910	600	-	-	-	8	2,750	1,530
계	586	190,210	55,538	86	31,563	10,378	93	26,920	10,879	116	37,290	14,295	134	43,370	17,102	1,015	329,353	108,189

* 공동계정: 종진/특허, 종진/과기정통/문화, 문화/과기정통, 종진/보건(스마트대한민국) 공동출자 자펀드

모태 자펀드는 '21년 3조 9,018억 원의 신규 벤처투자를 집행하였다. '21년 말 기준, 모태 자펀드의 누적 투자금액은 25조 3,382억 원이다.

3)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벤처투자 시장의 확대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콜옵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규 민간 출자자의 벤처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1년 모태펀드는 1조 7,102억 원을 출자하여 4조 3,372억 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약 2.5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했으며, 누적적으로는 10조 8,189억 원을 출자하여 32조 9,353억 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약 3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했다. 모태 자펀드의 출자자금 중 민간자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N-7-1-5 | 최근 10년 모태 자펀드 출자자금 구성 비율

('21년 12월 말 기준, 단위 : 억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민간 자금	금액	16,441	15,719	13,699	19,529	24,412
	비율	47.8%	49.8%	50.9%	52.4%	52.7%
정부, 공공기관 등	금액	17,962	15,844	13,221	17,761	21,944
	비율	52.2%	50.2%	49.1%	47.6%	47.3%

4) 유니콘 기업 성장 주도 및 코스닥 시장의 새로운 주역 발굴

한국벤처투자자과 모태펀드는 대한민국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1년말 기준 국내 유니콘 기업 수는 18개이며, 그 중 17개 사가 모태 자펀드 투자로 성장하였으며, 코로나19 하에서도 리디 등 새로운 유니콘을 탄생 시켰다.

또한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혁신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특례 상장제도 등을 활용하여 상장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최근 3년('19~'21년)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243개 중 63.4%인 154개 사가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통하여 성장했다.

표 N-7-1-6 | 국내 유니콘 기업 수 현황(누적)

('21년 12월 말 기준, 단위 : 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내 유니콘 기업 수	3	6	11	13	18

5) 취약분야 지원 강화

모태펀드는 수익성 뿐 아니라 정책 목적성을 보유한 펀드로서,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창업초기·지방·여성 등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모태펀드 출자한도 상향 및 성과보수 우대 등을 통해 펀드를 결성하여 지속적으로 투자재원 공급하고 있다. 또한 버팀목펀드를 결성하여 코로나19로 대면 기회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공연·콘텐츠, 여행·관광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창업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지역 소재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약 1,320억원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1년부터 3년간 부산, 충청, 경남·울산 3개 권역에 모펀드 2,676억 원 및 자펀드 약 4,000억 원을 조성하고, 추가 권역에도 모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중소벤처기업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1) 해외VC 글로벌 펀드 조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지 네트워크가 뛰어난 해외VC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벤처투자는 글로벌 우수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해외VC 글로벌 펀드를 2013년부터 조성해오고 있다.

'21년 말 기준으로 Altos Ventures, Legend Capital, Northzone Ventures 등 해외 유명 39개 벤처캐피탈과 4조 4,512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기업 384개에 7,557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여 누적 모태 약정금액 4,007억 원 대비 약 1.88배의 투자유치 효과를 시현하였다.

표 N-7-1-7 | 해외VC 글로벌 펀드 조성 현황

('21년 12월 말 기준, 단위 : 억 원)

구 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펀드 조성액	16,706	6,015	7,536	3,384	10,871	44,512
모태 출자액	1,895	822	654	407	231	4,007
한국기업 투자액	4,343	758	1,073	940	443	7,557

* '13~'17년 누계

2) 국가간 협력펀드 조성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한국벤처투자는 '20년 국제기구 Asian Development Bank(아시아개발은행, 이하 ADB) 펀드에 \$10M를 출자하였다. 총 \$60M 규모로 조성된 ADB 펀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농업 기술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기후변화 및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조성되었다.

'21년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ADB 펀드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성평등 보장의 주제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총 69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최종 5개 기업이 IR 기회를 얻었다. 앞으로 정기적 IR 행사를 개최해 ADB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벤처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3)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유니콘 성장 지원

한국벤처투자는 미국('13년), 중국('14년), 싱가포르('15년)에 해외 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해외 사무소를 통해 국내 기업, 현지 벤처캐피탈, 한국 벤처캐피탈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사무소에서 '18년 총 45건, '19년 총 88건, '20년 약 100건, '21년 약 120건 이상의 국내기업-해외 투자자 연결을 진행하였다.

국내기업 해외투자자 연결 및 해외VC 출자를 통해 '21년 Light Street, Pavilion Capital, Goodwater Capital 등 해외투자자에게 총 6,386억 원 후속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유니콘 기업 탄생에 기여하였다. 또한, '20년부터 이어온 온라인IR 영상 제작 사업을 지속하여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국내 우수 기업과 해외 투자자들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4) 벤처펀드 운용 노하우 전파를 통한 국내 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한국벤처투자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도모하고자, '21년 사우디아라비아(SVC)와 한국·사우디 간 잠재 유망 벤처 투자 파트너 연결 및 모태펀드 정책 수출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행사 초청 및 양국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 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

1) 일자리 창출 기업 육성

한국벤처투자는 일자리 창출 성장지원 펀드를 직접 운용하며 기관투자자와 매칭의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동 펀드는 투자기업의 고용성과에 따라 기업과 매칭투자자에게 펀드 지분에 대한 매입 권한을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이다.

1호 펀드는 '20년까지 총 27개 기업에 467.5억 원을 투자를 완료하였다. 투자 기업은 '21년 말까지 누적 1,759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투자금 1억 원 당 4.27명 수준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21년에는 205억 원 규모의 2호 펀드를 추가 결성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2) 투자형 R&D 사업 확대

한국벤처투자는 기존 보조금 지급 방식의 경직된 R&D 지원에서 벗어나서 기업 중심의 사업화 평가·관리·자금 사용의 활용도 개선을 추진하고, 나아가 투자재원 회수를 통한 예산의 환류-재출자를 통해 신규 기업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이테크 기술개발 사업화 펀드'를 '20.8월 결성해 직접 운용하고 있다.

동 펀드는 소재·부품·장비, 그린뉴딜, 비대면, BIG3, D.N.A분야의 우수 R&D 기업에 기관투자자와 매칭의 방식으로 '21년 총 21개 기업에 235억 원을 투자했으며,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성과에 따라 기업과 매칭투자자에게 펀드 지분에 대한 매입권한을 부여하여 기업의 도전적인 R&D를 독려하고 있다.

3) 투자활성화 지원

한국벤처투자는 유니콘 성장 지원을 위한 「K-유니콘 라이징스타」 기업 POOL을 178개사로 확대하고,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 VC가 직접 포트폴리오 기업을 해외VC에 소개하는 ‘국내외 VC 비즈니스 밋업’을 개최하여 65개 스타트업의 IR이 진행되는 등 투자유치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통계를 심층 분석하고 국내외 벤처캐피탈 동향 등을 조사한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여 벤처투자 생태계 참여자에게 주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벤처투자 정보의 비대칭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 KVIC Newsletter 월 2회, KVIC MarketWatch 연 6회 발간

제8장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

일반현황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종합마케팅판로지원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판매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995년 12월 21일에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판로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지원, 온라인(홈쇼핑, 온라인몰, 라이브커머스 등) 및 오프라인(공항면세점, 백화점 등) 유통 채널 진출 지원과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공공구매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조직은 5본부 13실·3단 1센터 4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벤처·소상공인 판로지원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기능별로 마케팅판로본부, 소상공인디지털본부, 유통사업본부, 공공구매판로본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본부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판로지원 강화를 위해 4개의 출자회사(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출자회사를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제품의 홈쇼핑 채널 진출 등을 도모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각화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유통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마케팅 판로 지원기능 수행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온·오프라인 유통망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뿐만 아니라, 혁신제품통합유통플랫폼 운영, 온·오프라인 기획전 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개최, 공동 A/S 지원, 판로혁신지원 등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판로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1) 혁신제품통합유통플랫폼 운영

시장성과 상품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발굴하고 해당 제품이 온·오프라인 유통사에 입점할 수 있도록 판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대형유통망 입점 연계를 위한 매칭데이 프로그램과 중소 유통망 입점 연계를 위한 MD 공개소싱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수제품 DB를 3,339개 발굴하였고, CJ올리브영,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사와 협력하여 매칭데이 4회와 쇼피코리아 등 중소 유통사와 협력하여 MD 공개소싱 54회를 운영하였다.

표 N-8-1-1 | 우수제품 DB 발굴 및 참여현황(2021년)

우수제품 DB 발굴(개)	입점 연계 프로그램 운영건수(회)	
	매칭데이	MD 공개소싱
3,339개	4회	54회

2) 판로혁신지원

중소기업 판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정책 수요자의 편리성 제고 및 판로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판로정보플랫폼(구. 아임스타즈 → 현. 판판대로)를 개선하였다. 주로, 기능·목적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 들을 집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판로정보를 안내하고, 이용자가 판로정보·동향 등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졌다. 2021년 서비스 운영 주요 실적으로 중소기업 35,737개사와 제품 96,012개를 플랫폼에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 (운영) www.판판대로.kr (2022. 3. 서비스 개시)

표 IV-8-1-2 | 판로혁신지원 주요 서비스 내용(2021년)

구분	주요 서비스 내용
판판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안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및 MRO 지원 신청·접수 등 사업 관리·운영 • (제품 소개) 발굴한 우수 중기제품을 유통 MD 등에 홍보하여 판로 개척할 수 있도록 재료 설명, 특징, 효과성 등을 게시 • (조달청 연계) 기업의 관심 분야에 대해 나라장터 입찰·낙찰 정보 조회 등
판판 셀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쇼핑몰 통합관리) 온라인 판매 중소기업이 상품의 주문·재고관리·매출 분석 등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연계(20개, '21년) -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판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로 동향) 마케팅 트렌드, 정책·연구·산업 동향에 대한 카드 뉴스, 인포그래픽 등 온라인 콘텐츠 및 정책·연구 DB를 공유·안내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 (DB 관리) 판로정보플랫폼 등록기업 및 제품 현황, 지역·업력 등 기업별 일반현황 및 사업 참여 이력, 통계 서비스 등

3) 온라인시장진출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시장 진출을 위한 TV홈쇼핑 방송, 온라인쇼핑몰 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 지원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온라인쇼핑몰 연동에 기반을 둔 쇼핑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시장진입 및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다. 2021년 동안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온라인 기획전 및 홈쇼핑 등 방송지원을 통해 307억 원 규모의 매출을 지원하였다.

표 IV-8-1-3 | 온라인시장진출 지원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매출(억원)	횟수(회)	업체수(개)	매출(억원)	횟수(회)	업체수(개)
온라인기획전	204	52	170	256	66	300
4대 홈쇼핑	20	34	34	27	40	40
공영홈쇼핑	16	20	20	17	20	20
T-커머스	3	8	8	3	5	5
V-커머스	3	30	30	4	10	10
합계	246	144	262	307	141	375

4) 오프라인 기획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을 진행,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 및 대형유통업체 입점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021년 온·오프라인 채널을 연계한 기획전은 총 82회 개최되었고 총매출액 약 68억 원의 성과를 이뤄,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추진하였다.

표 IV-8-1-4 | 오프라인 기획전 지원현황(2021년)

구 분	오프라인			온라인		계
	유통망	지자체	코세페	기획전	코세페	
횟 수(회)	28	30	11	2	11	82
업체수(개)	196	216	144	300	721	1,577
제품수(개)	2,011	1,520	1,310	2,310	3,046	10,197

5)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 운영

공항면세점, 대형유통망 및 교통시설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설치·운영하여 창업 및 아이디어 혁신기업의 초기 제품에 대한 시장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유통시장으로의 진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 확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연말 기준 총 7개의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1,911개 사의 제품 9,272개 품목을 판매지원하고 있다.


표 IV-8-1-5 | 중소기업 전용매장 운영 현황(2021년)

구 분		오픈일	매장규모(m ²)	업체수(개)	품목수(개)	연매출(백만원)
면세점	인천공항(동편)	'21.11.15	351	348	1,574	100
	인천공항(서편)	'21.11.15	76	228	761	86
	인천공항(T2)	'21.11.15	84	157	557	38
	현대(무역센터)	'18.11.01	13	27	101	7
대형 유통점	현대(판교)	'16.11.09	69	107	1,043	656
	행복한백화점	'11.3(오픈)	1,815	948	4,454	3,045
교통 시설	부산역	'13.02.05	44	96	782	289
전용 판매장 합계			2,452	1,911	9,272	4,221

6) 대한민국 동행세일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판촉 행사를 전개하여 실질적인 판매 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캠페인 및 언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하며 전국적 내수 활성화 캠페인을 확산하고 있다. 2021년 동행세일은 6/24부터 7/11까지 진행되었고, 新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비대면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통시장·백화점 등 오프라인 채널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중소 상생 할인행사를 추진하였다. 이 기간에 2,870개 이상 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 대기업 및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포함)가 참여하였으며, 온라인·비대면 1,180억 원 매출을 기록하였다.

표 N-8-1-6 | 대한민국 동행세일 지원현황(2021년)

유통채널	매출 지원액(억원)	비 고	로 고
라이브커머스	21.4	가치샵시다 등 10개 채널	
온라인기획전	267.5	G마켓 등 28개 채널	
TV홈쇼핑 / T-커머스	891	공영홈쇼핑 등 7개 채널	
계	1,180		

7)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A/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A/S 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 A/S 센터는 기본적인 고객 응대부터 불만 해결, 사용법 안내 등 각종 소비자 민원 사항을 처리해 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A/S 서비스망 구축 지원을 통한 A/S 대행 처리와 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A/S 역량 강화 교육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 공동 A/S 지원 사업에 554개 사의 참여와 A/S 상담 200만 콜 및 A/S 처리 20만 건을 추진하였다.

표 N-8-1-7 |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 운영·처리 현황(2021년)

구 분	A/S 상담(건)	A/S 교육(개사)	A/S 상담지원콜건	A/S 처리지원(건)
실 적	352	202	2,002,093	201,466

8) 브랜드K 육성관리

제품 품질 인증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육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제품의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형성된 신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 확대 등 판로개척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8-1-8 | 브랜드K 선정제품 현황

구분	'19년(1기)	'20년(2기)	'21년(3기)	합 계
선정(건)	26	79	75	180

9)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대기업 중소소모성자재(MRO)사에 비해 열악한 여건으로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납품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배양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내 '중소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IV-8-1-9 |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현황(2021년)

구분	온라인 교육(개)	코칭 (개사)	입찰정보제공			MRO 납품관리 시스템 지원(개)	상담 (개)
			업체수 (개)	낙찰기업 (개)	낙찰금액 (억원)		
실 적	116	81	888	179	509	31	150

표 IV-8-1-10 | 마케팅 판로지원사업별 주요 지원현황(2021년)

사업명	주요 지원현황
혁신제품통합유통플랫폼 운영	◦ 우수제품 DB 발굴 성과 : 3,339개 제품
온라인시장진출	◦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T-커머스 등 141회 / 375개社 지원
오프라인 기획전	◦ 대형유통망, 팝업스토어, 지자체 및 기관 등 현대, 롯데, 신세계 등 82회 / 1,577개社 / 10,197개 제품 지원
중소기업전용판매장 운영	◦ 7개소, 1,911개 기업의 9,272여 개 품목의 제품 판매지원
대한민국 동행세일	◦ 온라인·비대면(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매출 1,180억 달성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	◦ 총 554개 중소기업의 A/S 인프라 및 A/S 역량 강화(교육) 지원
브랜드K 육성관리	◦ 180개 중소기업에 '브랜드K' 선정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MRO납품기업 지원	◦ 총 1,266개 중소납품업체 지원

나. 소상공인 신규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온라인 채널 진출 지원, 구독경제 지원, 인프라 구축 강화 등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IV-8-1-11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카테고리별 세부 지원사업 현황(2021년)

구분	내용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 상품개선 컨설팅, 전담 셀러, 우수제품 홍보 광고,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 채널 진출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V-커머스, 해외쇼핑몰 진출 지원, 라이브커머스 지원, O2O 융합 판매 기획전 지원
구독경제지원	민간채널 등에 구독경제관 운영, 소상공인 직접 구독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기 결제 등 구독시스템 및 판매 활성화 지원
인프라 구축	가치샵시다 플랫폼,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1)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역량 제고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의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의 상품성 개선 기회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인플루언서 교육, 상품개선 컨설팅, 전담 셀러 매칭, 홍보 광고 및 콘텐츠 제작 지원을 수행하였다.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 프로그램은 디지털 트렌드에 발맞추고 교육생 니즈를 반영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전문 인플루언서 육성을 도모하여 판로지원을 촉진하였다. 2021년에는 1,287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상품개선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상품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품 디자인 개선, 소비자 선호도 반응조사, 콘텐츠 개선 등 상품개선에 필요 되는 항목을 컨설팅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1,200개의 상품이 개선 컨설팅을 받았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마케팅 대행 관련 전문역량을 갖춘 전담 셀러를 소상공인과 매칭하여, 컨설팅, 상품정보 콘텐츠 가공, 온라인 마케팅 등 온라인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소상공인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해 콘텐츠 홍보 채널 운영 및 광고 콘텐츠 제작 지원을 제공하며, 소상공인이 온라인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커머스, 광고형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하고 있다.

표 IV-8-1-12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역량 제고 지원 실적(2021년)

사업명	인플루언서 교육(명)	상품성 개선(개)	전담 셀러 매칭(개)	홍보 및 콘텐츠 제작(개)
지원현황	1,287	1,200	2,051	홍보 : 300 콘텐츠 : 1,950

2) 소상공인 온라인 채널 진출

소상공인의 신규 유통채널 진출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다양한 채널에 대하여 소상공인 제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표 IV-8-1-13 | 소상공인 온라인 채널 진출 지원 개요(2021년)

구분	내용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온라인 민간쇼핑몰 內 소상공인 제품 전용 기획전 개최 및 상세페이지 제작, 프로모션 등을 지원
TV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 지원	소상공인의 민간 TV홈쇼핑, T-커머스 입점 및 판매 지원 등
라이브커머스 지원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 후 라이브 기획·제작·송출을 지원
V-커머스 입점 지원	e커머스 판매 동영상(VOD) 콘텐츠를 제작 및 판매지원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	해외 진출 희망 소상공인의 해외쇼핑몰 진출 교육 및 입점 지원, 판매 및 마케팅을 지원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및 T커머스, V-커머스 등 유통 채널에 진출 지원하여 7,736개 업체에 대하여 1,647억 원 판매 매출 지원하였다.

표 N-8-1-14 | 소상공인 온라인 채널 진출 지원 개요(2021년)

사업명		'19년	'20년	'21년
온라인쇼핑몰	업체수(개)	463	4,677	6,031
	매출액(백만원)	13,634	72,018	135,477
TV홈쇼핑 및 T-커머스	업체수(개)	124	211	303
	매출액(백만원)	5,258	8,786	11,095
V-커머스	업체수(개)	304	2,000	1,000
	매출액(백만원)	3,936	6,404	14,415
해외몰	업체수(개)	51	405	402
	매출액(백만원)	33	2,948	3,695

아울러, 내·외부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통해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연간 686회 방송을 송출하며, 총 1,163개 업체의 제품이 기획·제작되어 방송 판매되었다.

표 N-8-1-15 | 라이브커머스 제작 및 운영 지원현황(2021년)

구분	가치데이	직접제작	현장라이브	계
운영 횟수(회)	465	200	21	686
지원 업체수(개)	1,004	100	59	1,163
상품수(개)	6,798	200	235	7,233

마지막으로, O2O 융합 판매 기획전을 개최하여, 지역 상권과 온라인 시장을 연계한 마켓을 마련하고 우수한 온라인상의 소상공인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홍보·판매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39,298개 업체를 지원하여 1,031억 원 매출 성과를 이뤘다.

표 N-8-1-16 | O2O 융합 판매 기획전 지원현황(2021년)

장 소	일 정	실적	구분				계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	TV 홈쇼핑	오프라인 /전통시장 등	
홍대 축제거리	'21.12.18. ~12.26.	지원 업체수(개)	8,625	150	913	29,610	39,298
		매출액(억원)	398	12	587	34	1,031

3)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인프라 조성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뒷받침하는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9년 온라인 기반 구축을 위해 공적 플랫폼 “가치샵시다” 구축을 시작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판매가 가능한 오프라인 인프라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및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를 구축 및 운영하였다.

가치샵시다 플랫폼을 통해 민간채널을 활용한 소상공인 판로 지원과,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종합 정보 지원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도 플랫폼 내 소상공인 2,276개 업체와 6,365개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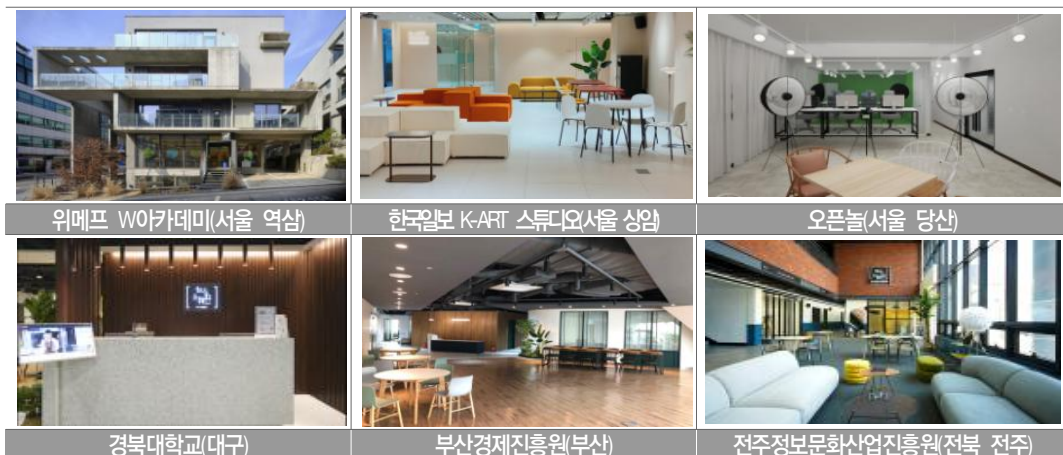
표 N-8-1-17 | 가치샵시다 플랫폼 소상공인 업체 및 상품 등록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업체수(개)	127	1,432	2,276
상품수(개)	468	10,567	6,365

가치샵시다 플랫폼을 통해 민간 연계 판매, 라이브커머스 및 구독경제관 등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은 촬영 스튜디오, 영상편집실, 교육장, 공유 오피스 등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라이브커머스 방송, 크라우드펀딩 등) 진출을 위한 인프라 시설로서, 2021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및 지역 거점에 6개소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표 N-8-1-18 |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설치·운영 현황 (2021년)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에서 스튜디오 및 장비대여, 라이브커머스 지원, 컨설팅, 디지털커머스 교육 및 실습,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판매 기획전, 크라우드 펀딩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소담상회)는 소상공인의 제품의 판매와 체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재미를 제공하고 스마트 기기 활용 및 온라인 연계 상품 판매를 통하여 O2O 연계 판로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2021년 2개소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2021년 소담상회 내 소상공인 업체 1,100개 사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온라인 연계, 교육·컨설팅 홍보를 지원하였다.

표 IV-8-1-19 |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소담상회) 설치·운영 현황(2021년)

구 분	서울 인사동(쌈지길)	서울 서교동	서울 한남동
운영사	백패커		인터파크
오픈일	2021.10.15.	2021.11.16.	2021.12.29.
규 모	109평(361.65㎡)	283평(934.96㎡)	약 285평(942.15㎡)
구축현황			

표 IV-8-1-20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별 주요 지원현황(2021년, 중복포함)

사업명	주요 지원현황
소상공인 인플루언서교육	◦ 총 1,287명 인플루언서 교육지원
상품 개선 컨설팅	◦ 총 1,200개 업체 상품 개선 컨설팅 지원
전담 셀러 매칭 지원	◦ 총 2,051개 업체 전담 셀러 매칭 지원
우수제품 홍보·광고 지원	◦ 총 300개 업체 우수제품 홍보·광고 지원
콘텐츠 제작 지원	◦ 총 1,950개 업체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 총 6,031개 업체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TV 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 지원	◦ 총 303개 업체 TV 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 지원
V-커머스 입점 지원	◦ 총 1,000개 업체 V-커머스 입점 지원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	◦ 총 402개 업체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지원	◦ 총 1,163개 업체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지원
O2O 융합 판매기획전	◦ 총 4만여개 업체 O2O 융합 판매·기획전 지원
가치샵시다 플랫폼 운영	◦ 총 2,276개 업체 가치샵시다 플랫폼 입점 지원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 총 2,904개 업체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운영 지원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운영	◦ 총 1,100개 업체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운영 지원

다. 공공구매지원 기능 수행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판로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술개발제품 등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강화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성능인증제도(EPC)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 R&D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제품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제품 등 신청 대상 제품이 다양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공공판로를 지원하는데 대표적인 인증제도 중 하나이다. 성능인증을 취득하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2021년에 438건의 신규·연장 인증서를 발급하였다.

표 N-8-1-21 | 성능인증제도(EPC) 운영 현황

구 분	'10~'15	'16	'17	'18	'19	'20	'21
신청 건수(건)	8,753	1,459	1,398	1,661	1,068	1,182	1,441
발급 건수(건)	1,947	370	420	416	366	394	438

* (신청 건수) 당해, 신규+연장+규격추가+정보변경, (발급 건수) 신규+연장

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창업기업 초기 판로개척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중기부·유통센터가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업기업 또는 공공기관 납품실적 부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지원 대상(시범구매 제품)을 선정한 후, 공공기관 대상 홍보 대행 및 기관 시범구매실적 평가 등 구매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였다.

시행 첫해 2018년 126개 시범구매제품 선정, 60개 공공기관 참여로 268억 원의 구매실적 달성, 2021년에는 347개 시범구매제품 선정 490개 공공기관 참여로 3,127억 원의 구매실적을 달성하여 성과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표 IV-8-1-22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청 건수(건)	418	700	575	652
선정 건수(건)	126	194	252	347
누적 참여 기관(개)	60	381	444	490
구매 실적(억원)	268	1,775	2,647	3,127

3)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핵심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를 촉진하는 제도로써, 판로지원법 및 그 시행령 등에 근거를 두어 '20년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 대상 과제로는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역량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 국산화 및 중기제품 혁신을 제고하는 '소재부품 과제',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간 융합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기술융합과제', 사회적·경제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서비스 등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가치창출 과제' 등이 있으며, 2020년 1월, 1차 모집을 시작으로 지속적 제품 수 확대 및 품목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99개 기업의 135개 제품을 선정함에 따라, 2020년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사업시행 이후 누적 기준 187개 기업의 236개 제품 선정하고 상생협력 제품 확인서를 168건을 발급하였다.

표 N-8-1-23 | 공공구매지원제도 제도별 주요 지원현황(2021년)

제도명	주요 지원현황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 신규·연장 신청 건수 1,207건, 신규·연장 인증서 발급 건수 438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 신청 제품 건수 652건, 선정 제품 건수 347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 187개 기업·236개 제품 선정, 확인서 발급건수 168건 ('20~'21년 누계)

4)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운영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은 공공구매 수요자(공공기관) 및 공급자(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 정보를 양방향으로 제공하는 공공판로 지원 대민 포털 사이트이다. 공공구매 관련 제도 운영,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각종 확인서 신청 및 발급, 공공입찰·구매 관련 정보제공 등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효율성을 높이고 구매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표 N-8-1-24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최근 5개년 운영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방문자수(천명)	1,133	1,123	1,614	2,170	2,424	
회원수(천명)	중소기업	182	207	232	250	278
	공공기관	48	46	55	56	59
입찰정보(천건)	1,031	1,061	1,002	918	1,084	

5) 공공구매촉진대회

공공구매촉진대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조달제품 품질 향상에 노력한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격려하여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대회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년부터 본 행사를 주관하여 유공자포상, 공공구매 우수사례 발표 등 본 행사 및 시범구매·상생협력제품 비대면 전시회, 구매상담회 등 부대 행사를 진행하였고, 계속해서 유공자 포상 및 격려를 통한 공공구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N-8-1-25 | 공공구매촉진대회 유공자포상 현황(2021. 12. 7.)

구 분		계	우수기관	기관 유공자	모범중소기업인
정부포상	대통령표창(건)	4	2	2	-
	국무총리표창(건)	6	3	3	-
기관장표창	중기부장관(건)	35	-	25	10
	환경부장관(건)	1	-	1	-
	조달청장(건)	4	-	-	4
합 계		50	5	31	14

라.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기능 수행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높은 시장 진입장벽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국내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행복한백화점을 개점 및 운영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오프라인 판로의 지원과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홈쇼핑 판매 대행 사업과 동반성장몰을 운영하여, 온라인 판로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 중소기업 백화점(행복한백화점) 운영

1999년 12월 3일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목동 판매장(행복한 백화점)을 개점하여 중소기업 제품 판매지원을 하고 있으며, 민간 백화점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표 N-8-1-26 | 백화점(목동 판매장) 판매지원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실적(억원)	469	433	328	321
지원 업체수(개)	367	403	370	390

특히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아이디어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판판샵)을 설치하여 우수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입점 업체는 초기 창업기업(창업사관학교, 창업·벤처기업), 우수 중소기업(인증·특허 상품), 기관·지자체(지역특화사업, 장애인지원센터 등), 브랜드K 등 새내기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다.

입점 중소기업에는 낮은 수수료 지원, 매장 판매사원 인건비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판매전, 상담회 등을 통한 대형유통채널 연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2021년도에는 O2O 채널 연계 강화를 통해 입점 중소기업에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온라인 채널과 진출 브랜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라이브커머스 연계를 통해 크리에이터와 입점 제품을 매칭하여 총 39개의 상품에 대하여 12회 방송 판매를 진행한 바 있다.

2) 홈쇼핑 판로지원

홈쇼핑 판매 경험,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홈쇼핑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의 다양한 판로지원을 위해 7대 홈쇼핑사 및 T-커머스와 업무제휴를 통해 2021년까지 5,56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4조 원의 홈쇼핑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표 IV-8-1-27 | 홈쇼핑 사업 판매지원 현황

구 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판매 지원액 (억원)	19,182	3,136	3,594	3,163	3,134	4,239	3,670	40,118
지원 업체수 (개)	3,062	373	361	406	442	456	461	5,561

상품 발굴·기획, 홈쇼핑사 제안, 런칭 및 방송지원 등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방송 런칭을 위한 'One-Stop' 판로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지속 등의 대외 변수에도 중소기업 제품 3,670억 원의 매출을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공영홈쇼핑(최대 주주), 홈앤쇼핑(3대 주주)에 주요주주로 참여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홈쇼핑 유통망 진입 및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3) 동반성장몰 운영

동반성장몰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동반성장 포인트) 등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도록 구축된 폐쇄형 온라인 쇼핑몰이다.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의 세금 포인트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온스토어에 동반성장몰을 구축하여, 전 국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범위를 확장을 추진한 바 있다.

2021년도에는 총 180개(누적) 공공 및 민간기관에 동반성장몰을 도입하여 1,389개의 업체에 대하여 7만여 개의 제품을 입점 지원하고 있다.

표 N-8-1-28 | 동반성장몰 판로지원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도입 기관 현황 (개)	공공	29	82	128
	민간	14	29	44
	기타	5	10	8
	합계	48	121(+73)	180(+59)
지원 업체수(개)		500	1,383	1,389
입점 지원 제품수(개)		30,015	51,000	70,000

제9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개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내외 중소벤처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평가를 통해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기관 운영의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다.

2004년 민법에 의거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에 설립근거를 변경하는 사항이 반영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근거한 법정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21.6.9부 시행).

조직은 2021년 말 기준, 7실 2단 6센터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13 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사와 분석, 다각적 연구와 사업을 수행 중이며 주요사업은 크게 연구 사업과 조사평가 및 교육 사업으로 나뉜다.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초연구,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대·중소기업 협력관련 사업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며, 조사평가 및 교육 사업에는 중기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분석·효율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영향평가 사업, 중소기업-근로자 성과공유 확산 등이 포함된다.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정책 연구 분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의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비전 및 대안 제시와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는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이론과 현장의 균형 감각을 배양하고 연구품질 제고를 통해 중소벤처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며,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는 연구기관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1) 정책연구

정책연구 사업의 주된 목적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2021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주요 정책분야의 정책평가 등 국정과제 성과점검 관련 기본과제 연구를 포함하여 총 31개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한 결과물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에 폭넓게 반영된 바 있다.

향후에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자체 및 중기부 연구과제 제안을 토대로 정부 정책방향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 성과의 질과 정책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표 IV-9-1-1 | 2021년 정책연구 추진 현황

연번	보고서명
1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어음대체제도 개선방안 연구
2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성과 분석 및 성과 제고 방안
3	기술기반 벤처기업을 위한 IP금융 고도화 방안
4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5	수출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현황 및 정책과제
6	중소기업 교역구조 다변화 성과와 과제
7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활용 가이드라인 연구
8	시중 유동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9	벤처투자 SAFE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
10	창업·벤처 지원사업의 성과창출 유형 식별
11	해외 주요 스타트업 육성정책 심층연구
12	중소 제조업 보안 현황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연구 - 스마트 공장을 중심으로
13	중소기업 속보성 패널 구축 및 타당성 분석
14	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지역경제 영향 분석
15	테크노파크 기능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과제
16	산업부문별 혁신생태계 평가모형 및 혁신역량 지도 구축 : 바이오헬스산업
17	소상공인 범위 기준 재검토
18	소상공인 배달플랫폼 활성화 및 상생협력 방안
19	온라인플랫폼 관련 하위법령 연구
20	경쟁제품의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22	포스트 코로나시대 재도전정책 발전방안
2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24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관한 연구
25	중소기업 정책평가와 향후 과제 : 일자리 분야
26	중소기업 정책평가와 향후 과제 : R&D 분야
27	중소기업 정책평가와 향후 과제 : 소상공인 분야
28	중소기업 정책평가와 향후 과제 : 규제정책 분야
29	중소기업 정책평가와 향후 과제 : 창업벤처 분야
30	플랫폼 경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연구(대외비)
31	중소기업 ESG 연구 -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2) 현안연구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진단 및 제언과 학술연구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안연구의 주요 결과물(발간물)로는 『중소기업 포커스』, 『KOSI 중소기업 동향』, 『중소기업 정책연구』 등이 있다.

가) 중소기업 포커스

『중소기업 포커스』(연 25건 발간)는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적기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시사점 또는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외부기관의 보고서 활용도 제고를 지향한다.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ESG 및 저탄소 경영 등과 같은 시의성 있는 현안주제에 대응하여 시사점 및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개발 및 정책연구로 이어졌으며, 총 454건의 언론보도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IV-9-1-2 | 2021년 『중소기업 포커스』 발간 현황

연번	제 목	연번	제 목
1	2021년도 중소기업 경영 전망과 정책과제	14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 방향
2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벤처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칠 영향 분석	1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3	중소수출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지원방안	16	지역별 고탄소배출 업종 비중 추정-중소기업을 중심으로
4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 변화 분석(1999-2019)	17	중소기업 주식취득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및 시사점
5	오프라인 유통의 혁신, 서비스로서 유통(RaaS, Retail as a Service)	18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 검토
6	선진국 AI 공공 정책 활용 현황과 시사점	19	우리나라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적 효율성 제고방안
7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현황과 발전과제	20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연대보증과 책임경영심사
8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시사점	21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본 신생기업 생존의 영향요인 : OECD 국가 비교 분석
9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하도급 체계개편과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22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동산채권담보 활성화 전략
10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활용방안	23	2022년 중소기업금융시장 정책대응 방안
1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단계별 추진 전략	24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동향 및 이슈
12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25	국내외 재창업 지원 정책 비교 및 시사점
13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위상진단과 정책방향	-	-

나) KOSI 중소기업 동향

『KOSI 중소기업 동향』(월 1회 발간)은 중소기업 관련 통계 데이터의 생산·가공·분석 등을 수행한 월간 보고서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생산·출하·재고·가동률, 내수·수출 판매액, 고용, 창업·파산, 대출금리 및 원자재 가격동향 등 중소기업과 연관성이 높으며 월별 발표되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동향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다) 중소기업 정책연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학문적 개념 확립과 논리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발간된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중소기업 맞춤형 학술연구지로서 기존 학회지와 차별화된다. 학술지 발행규정을 제정하고, 심사요건을 강화하여 학술지 정책 영향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여 2021년 1월 KCI 등재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표 IV-9-1-3 | 2021년 『중소기업 정책연구』 주제 및 논문 구성 현황

구분	호별 연구 논문 구성 현황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정책 60년사 고찰 :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 상생협력 협력사의 기업가정신의 심리학적 결정요인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사고 특성 연구 : 지역신용보증재단 자료를 중심으로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규제 개선 정책 효과 실증 연구 : 기술규제를 중심으로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 분석: 2차 확산 시기를 중심으로 · 대·중소규모 사업체의 산업재해 발생특성 비교분석 ·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의 개선방안 ·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이 일자리창출과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인의 직무불안정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용가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대졸자의 ICT 창업 현황 및 창업 촉진 방안 · '기업 AI Index' 수준 진단 및 중소기업 AI 수준 맞춤형 지원 연구 · 화주기업의 불확실성이 물류아웃소싱 거래 전후 단계 요인과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인식 차이 비교

3) 연구기반 구축

정책 DB 콘텐츠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정책연구의 인프라 환경 구축 등이 포함된다. 관련 주요 과업으로는 정책동향 모니터링 및 DB 업데이트(수시),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발간(월간), 웹진 발행(주간), 주요국 정책브리프(수시) 작성 등이 있다.

가) 정책 DB 내실화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비교 및 해외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 제공이 대표적이며 보고서는 주요국(미국, EU,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의 법령, 정책지원 기관 현황, 정책 정보 등을 조사·정리한 자료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각국의 대응 및 정책내용을 반영한 유용한 자료를 제작하고, 중소기업 정책 연구 자료의 지속적 등록을 통한 정책연구 DB 내실화 작업도 꾸준히 수행 중이다. 그 결과 2021년 정책DB 접속자수 131,827명, 정책 정보 다운로드 건수 43,501건으로 꾸준히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나) e-Newsletter 개편

연구원 발간물, 국내외 중소벤처기업 동향 등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e-Newsletter는 17,830명의 회원에게 온라인 형태로 격주 간격 발송된다. 2021년에는 가독성 높은 이미지 형태로 편집·디자인하여 SNS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다) 연구과제 통합정보시스템 개선

연구과제의 체계적인 관리에 적합한 과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자의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구과제 진행 상황별 개별 알림 기능 등의 신규 기능을 추가하여 연구능률과 편의성 향상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있다.

4) 정책 공유

중소기업 정책방향의 선도 및 연구교류 기반 확대,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집단지성 활용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정책공유 사업을 수행 중이다. 정책 공유 사업의 경우, 크게 정책연구회와 학술 세미나 등으로 구분된다.

가) 정책연구회

주요 현안 및 이슈, 정책수요 등을 반영한 분과를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의 정보 공유 및 토론을 위한 정책연구회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7개 분과(중소기업 정책, 혁신금융, 지역중기 혁신, 상생협력, 중소기업 미래비전, 규제혁신, 신기술·신산업)에 걸쳐 총 36회를 실시했다.

나) 학술세미나

분야별 전문기관과 공동 포럼·세미나 개최를 통한 대외기관과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학술세미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총 10회를 수행하였고, 학회, 연구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공동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외연을 확대할 수 있었다.

특히 학술세미나를 통해 정책 및 연구 성과 공유와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표 IV-9-1-4 | 2021년 학술세미나 개최 실적

일 자	행 사 명	공동주최기관
'21.03.09	'COVID-19 전후 한국 벤처부의 평가와 미래 과제' 세미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기업가정신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벤처투자
'21.04.06	이노비즈 혁신 공동 세미나 : 혁신성장의 성과와 과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노비즈정책연구원
'21.04.16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2021년 한국상사판례학회 춘계학술대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상사판례학회
'21.05.20	규제자유특구 시행 2년, 향후 발전방안 포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1.09.16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포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21.11.12	제2벤처부와 벤처창업 생태계 (2021 한국벤처창업학회 추계학술대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창업학회
'21.12.03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 벤처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 세미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중소기업학회

일 자	행 사 명	공동주최기관
'21.12.03	디지털 혁명과 중소기업 정책의 과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질서경제학회
'21.12.15	글로벌 ESG 동북아시아 협력방안 및 기업생태계 변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국립공주대학교 경제금융네트워크연구소 중앙대학교 미세먼지특성화대학원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현대중국학회
'21.12.17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및 중소기업생태계의 과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기업가정신학회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평가 및 교육 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평가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효율화, 규제영향평가 등이 있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및 지원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을 구축운영 중이다. 분석 대상 사업에는 중소기업 지원이 주 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이상인 사업들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은 초기에 중기부 및 중앙부처 일부 사업에 대한 지원이력 구축에서 시작하여 분석범위를 쉰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 사업까지 확대하였고, 나아가 수요자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반을 마련 해왔다.

이력 정보의 신뢰성이 기존에 비해 크게 제고되면서 2021년에는 중앙부처·지자체의 1,751개 사업(세부사업 기준)에 대한 사업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약 390만개 기업, 1,657만건(877조 원)의 지원이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10년 ~ '21년 누적 기준)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세청, 고용노동부, 관세청, 특허청 등으로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보 약 340만건을 확보하였다.

* 국세청(매출액 1,180,969건, 창·폐·휴업일 1,412,597건), 고용부(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80,531건), 관세청(수출액 48,706건), 특허청(산업재산권 79,498건)

위와 같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의 2021년 총 사용자 수는 2,837명, 총 접속 횟수는 6만 9,138회로 2020년 대비 26.8%가 증가하였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는 상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2021년 총 10,556건(사업공고)을 제공하였고, 기업마당 정책 페이지뷰(Page View)도 9천 9백만 건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4.1% 증가, 누적 가입회원 수는 15.9만 명을 기록하였다.

표 IV-9-1-5 | 통합관리시스템 정책정보 제공건수/페이지뷰 및 기업마당 활용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제공건수	8,313건	10,138건	10,556건
페이지뷰	196백만건	226백만건	9천 9백만 건
정책정보 조회수	656.8만 건	1,099만 건	1,057만 건
누적 가입회원수	13.8만 명	14.8만 명	15.9만 명

2)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통합관리시스템의 객관적 자료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지원효과, 운영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정책개선 및 효율화 방안 도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을 8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기초 지표, 성장 지표, 만족도 지표, 자체 성과지표를 적용한 기본평가를 실시하고, 소상공인 사업군 대상 전주기적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효율성 및 정책효과성을 점검하였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중기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 부처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를 통해 해당 정보 분석 결과를 각 수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3) 규제영향평가사업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분석서 작성) 및 총리훈령(제638호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위탁업무를 수행 중이며, 이는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규제동향 파악 등 관련 연구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2021년 신산업 규제현안과 같은 중소기업 관련 핵심규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국내외 동향, 중소기업 영향, 규제대안 등을 심층 분석하고, 정부 및 의원입법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연구원에서는 규제자유특구 관련 자료 조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 대상 사전컨설팅, 전문가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이 있으며 심의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 이후 2021년까지 6차에 걸친 특구지정을 통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에서 총 29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성과를

창출하였다. 에너지, 모빌리티, 의료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별 기술·시장·규제 동향 등 총 37건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이와 관련 정책연구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쟁점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이 육성되어 지역 투자유입과 일자리 창출 유인 및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 국가균형 발전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출범 2주년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21.05.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실증 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기지정 특구(①부산 블록체인 특구, ②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 ③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특구)를 대상으로 핵심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개정 조문안 법률 검토를 지원하였다.

5) 중소기업-근로자 성과공유 확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성과공유 교육은 핵심 교육, 심화 교육, 사례 교육으로 나누어지며,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 및 도입을 위한 올바른 기업가 정신, 동반성장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다. 2021년에는 성과공유 교육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총 6,238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성과공유 도입을 위한 인식 전환, 유형별 도입 효과와 성공 사례 등에 대해 교육이 실시되었다.

아울러 성공적인 성과공유 도입을 위해 총 74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특히 잠재수요가 많은 경영성과급, 스톡옵션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컨설팅하고, 기업 상황에 맞게 실무형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성과공유기업과 비 성과공유기업의 통계적 비교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공유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기업별, 업종별, 유형별로 적합한 홍보방안 및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제10장 (주)공영홈쇼핑

1

일반현황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지원하고, 공정한 유통거래 선도 및 상생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상법」 제4장에 의거하여 2015년 3월 5일에 설립되었다. 2015년 7월 14일에 채널명 '아임쇼핑'으로 개국 후, 2018년 11월 1일에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책임 의지를 담아 '공영쇼핑'으로 채널명을 변경하였다.

공영홈쇼핑의 조직은 4본부 12실 4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로개척과 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기능 및 채널별로 TV사업 본부의 상품개발1,2실, 방송제작실, 방송지원실, 모바일사업본부의 모바일마케팅실, 모바일영업실, 마케팅본부의 마케팅실, CCM실, 정보전략실, 경영본부의 경영지원실, 기획조정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6개 홈쇼핑사와는 다르게 중소기업제품 및 우리 농축수산물로만 100% 판매방송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6개 홈쇼핑사 평균('20년 29.7%) 대비 약 10% 포인트 낮은 20% 수준의 판매수수료율로 운영하고 있다. ('18. 4월부터 판매수수료율 20% 시행)

TV 채널 중심에서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3 스크린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사업 및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직매입 판매· 해외 수출 등의 다양한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지자체·유관기관 등과 상생·협력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상품개발에서부터 입점·홍보 지원 및 창업 상품의 명품화 육성까지 초기 창업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중소기업 제품 및 우리 농수축수산물물의 판로지원기능 수행

공영홈쇼핑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높은 시장 진입장벽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TV 채널을 중심으로 온라인·모바일 판로지원 및 상품개발·홍보지원 등 중소기업 종합 마케팅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TV홈쇼핑 ‘공영쇼핑’ 채널 운영

2015년 7월 14일 중소기업제품 및 우리 농축수산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개국 후 2021년까지 총 11,080개 상품에 대하여 4조 5,023억 원의 판매 지원을 하고 있다. 다른 홈쇼핑사 대비 약 10% 포인트 낮은 최저 판매 수수료율로 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며 상생협력의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채널로 자리매김하였다.

표 N-10-1-1 | 공영쇼핑 채널의 판매지원 현황

(단위 : 억원/개)

구 분	2015.7.14.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공산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농축수산물	
중기제품 판매 지원액	3,935	2,622	3,339	2,489	3,319	3,063	3,481	3,675	4,405	5,271	3,927	5,497	45,023
지원 상품수	1,348	1,029	1,039	720	948	699	973	764	990	807	882	881	11,080

‘공영쇼핑’ 채널운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제품 및 우리 농축수산물만을 100% 판매방송 편성을 원칙으로 하여, 수익보다는 상생협력·지역발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영 최우선 순위 목표로 하고 있다.

2) 창업·벤처기업 제품들의 시장 진입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기술력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높은 시장 장벽과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초기 창업·벤처기업들의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혁신제품들을 개국 후 7년간 3,487개 발굴하여 1조 559억 원의 판매 지원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용 판매 프로그램 방송 및 일반 프로그램 상시 운영을 통해 판매방송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표 N-10-1-2 | 창의혁신 제품 판매지원 현황

구 분	2015.7.14.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기제품 판매지원액	740억원	916억원	1,631억원	2,019억원	2,630억원	2,623억원
지원상품수	360개	508개	552개	662개	713개	692개
편성비중	22.3%	21.9%	28.3%	33.0%	31.8%	32.1%

표 N-10-1-3 | 판매지원 중인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창의혁신 상품들

구 분	주 요 내 용
스타트업 상품	○ 창업초기(창업 5년 이내) 기업 상품
벤처기업 상품	○ 벤처기업 등 신기술 개발 상품
정책지원 상품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육성 상품 * 창업지원, R&D지원, 마케팅지원, 자금지원 대상 상품
정부시행 각종 인증 수상기업 상품	○ 정부기관 인증기업 및 인증기업의 상품 *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굿디자인 인증, NET인증, NEP인증 등
국제규격 인증 상품	○ 국제·해외 규격 인증 상품 * ISO, CE, FCC, UL 인증 등 / 국내·외 발명대전 수상 상품
각종 특허 상품	○ 특허출원 및 등록,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의장등록 등 ○ 기술 또는 기능 및 디자인 개선 상품
문화창달 상품	○ 국내 지자체 축제, 관광지 등과 연계한 문화여행 상품 ○ 국내 농·어촌 체험 및 문화 체험상품
전통시장 상품	○ 전통시장 연계판매 상품
사회적기업 상품	○ 사회적 기업 생산 공익 상품
국가기술이전상품	○ 국가기술 사업화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생산한 상품 ○ 농업기술원 등의 기술이전을 통한 상품 등
소비자 추천 상품	○ 소비자 아이디어 공모 상품, 크라우드 펀딩 상품
기타 창의혁신 상품	○ 기능 또는 디자인 등 창의혁신성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상품

3) 중소기업 제품들의 명품화를 위한 우수상품 육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 판매홍보를 통해서 7년간 950개의 우수상품 (연 판매지원액 10억 원 이상)으로 육성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고 있다.

표 N-10-1-4 | 우수상품 판매지원·육성 현황

(단위 : 개)

구 분	10~20억	20~30억	30~50억	50억 이상	합계
2015년	22	1	0	0	23
2016년	87	23	9	1	120
2017년	79	27	10	3	119
2018년	77	16	16	7	116
2019년	74	37	15	10	136
2020년	130	44	30	18	222
2021년	117	48	32	17	214
소계	586	196	112	56	950

4) 온라인 채널(인터넷·모바일) 육성을 통한 판로지원의 확대

TV홈쇼핑 채널의 판매방송 편성시간의 물리적 제약과 성장률이 둔화되어 가는 시장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판로지원 확대를 위하여, 2015년 10월 12일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였다. 외부 제휴 확대 및 광고 활성화로 '21년 약 3,000억 원 채널로 성장하였고, 2021년부터는 모바일 라이브커머스(공영라방)를 신규 추진 하여 방송 입점이 어려운 중소·소상공인들의 판로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N-10-1-5 | 온라인·모바일 채널의 판매지원 현황

구 분	2015.10.12.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기제품 판매지원액	648억원	1,010억원	1,505억원	1,645억원	2,716억원	3,094억원
운영상품수	64,901개	335,079개	339,849개	460,109개	252,277개	101,138개

나. 상생협력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공영홈쇼핑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상품개발·마케팅 코칭 지원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 상생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판로개척 지원 및 상생협력을 위해 7년간 40개의 정부기관·지역자치단체·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품발굴·지역특산물 홍보·마케팅 지원·판로확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표 N-10-1-6 |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현황

체결일	업무 협약처	체결일	업무 협약처
'15. 8. 31	농협 중앙회 전북지역본부	'17. 7. 21	한국농어촌공사
'15. 10. 2	서울산업진흥원	'17. 8. 21	파주시
'15. 10. 13	충청북도	'17. 11. 9	인제군
'15. 10. 29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	'18. 1. 2	대한상공회의소
'16. 1. 26	산림조합중앙회	'18. 8. 3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6. 1. 27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8. 10. 19	경상북도
'16. 4. 28	경상북도	'18. 11. 29	담양군
'16. 5. 10	경기도	'19. 1. 31	Kotra
'16. 5. 25	제주테크노파크	'19. 6. 27	한국미라클피플사
'16. 6. 17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19. 7. 1	아리랑국제방송
'16. 6. 20	창업진흥원	'19. 7. 17	전라남도
'16. 7. 15	제주도	'19. 9. 9	군포시
'16. 9. 9	소상공인진흥공단	'19. 11. 26	공정거래위원회
'16. 10. 19	하동군	'20. 4. 29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6. 11. 3	경주시	'20. 6. 18	한국문화재단
'16. 11. 9	경상남도	'20. 8. 7	해양환경공단
'17. 2. 6	양산시	'20. 11. 25	한국소비자원
'17. 2. 20	강원도	'21. 6. 2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17. 5. 12	충주시	'21. 10. 6	중소기업유통센터
'17. 7. 11	충청남도	'21. 11. 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제약이 있었지만, 매년 중기부 및 농림부·지자체와 협력하여 우수상품 발굴 확대를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입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박람회 등 전시관을 운영하여 상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해오고 있다. '21년에는 정책기관과 협력하여 38회의 상품 품평회에 참가하여 마케팅 코칭 등을 지원하였다.

2) 기획 판매방송 프로그램의 고정 운영을 통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방송품질 개선 및 차별화된 테마 등을 개발하여, 공영쇼핑 채널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면서 마케팅이 필요한 상품들에 대해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8개의 고정 판매방송을 운영하였으며, 특별 기획전 등을 운영하여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 N-10-1-7 | 고정 판매방송 프로그램 운영 현황('21년 기준)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명	판매방송 횟수	중기제품 판매지원액	주요상품
THE착한마켓	50	5,083	공기정화식물, 인제오미자 등
TV하나로마트	104	21,613	여수갓김치, 김규흔한끼영양바 등
리셋스튜디오	81	11,693	풍기인견 상하의, 신강식기모팬츠 등
스타일샵(#)	4	931	선진밍크, 스넬리이지웨어 등
어랍쇼	61	9,593	법성포굴비, 섬진강제첩국 등
창의혁신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47	3,658	총무타올, 더마삼푸, 백년가게 연잎밥 등
필마트	7	772	생필품(물티슈, 세제, 청소밀대 등)
해피하우스	46	7,470	황사마스크, 밀폐용기, 침구세트 등
합계	400	60,813	

* '21년 특별기획 판매방송 프로그램 운영 현황

특별기획 판매방송 프로그램

- 열려라 꽃길 제주도 특집전(3.25), 장애인의 날 특집(4.20), 패션 원데이 특집(4.21), 가정의 달 두근두근 선물 특집전(4.26~5.2), 복날 보양식 특집(6.1~6), 햇농산 특집전(6.7), 쌀의 날(쌀데이) 특집(8.18), 한우의 날 특집(11.1), 브랜드 K 특집(11.11) 등

3

향후 추진방향

가. 기관 고유의 공공성 제고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제품 및 우리 농축수산물의 100% 방송판매 편성과 업계 최저 수수료율 20%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사업을 강화하여 중소기업들이 시장 진입부터 우량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인큐베이팅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 차별적 공적기능의 확대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사업단 신설('21.12)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마케팅·판로지원(TV, 온라인, 모바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유망 상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판매지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요 공익사업을 발굴하고 무료 홍보를 지원하여 대국민 지역사업·정책 인지도 제고 등 지역균형발전 도모에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중소납품업체의 안정적 거래대금 회수를 돕기 위한 상생결제는 기관의 공공구매(물품구매, 용역 등)에 의무 적용 및 상품거래 부문까지 전면 도입하여 향후 연간 약 8천 억원 규모로 크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상생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공영홈쇼핑과 거래하는 중소·소상공인들이 저렴한 금리로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 벤더 납품거래 구조개선

민간 벤더 거래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일부 대형벤더 거래 집중현상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과도한 벤더 수수료율 적용 및 납품대금 지급 지연/미지급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들을 방지하고자 '직거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직거래 편성비중을 연간 60% 편성 목표로 하며, 민간 벤더사를 통한 홈쇼핑 입점 행태의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직거래 비중 : ('17년) 41% → ('18년) 49.6% → ('19) 63.4% → ('20) 69.3% → ('21) 70.6%

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

1) 모바일사업 확대

TV채널 성장이 둔화되고 온라인채널은 계속 성장하여, 온라인 매출 중 모바일 비중이 '15년부터 인터넷(웹) 비중을 추월하는 상황 속에서 공영홈쇼핑은 차별화된 모바일라이브커머스(이하 공영라방)를 '21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유통 경험이 부족한 중소·소상공인들을 위해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운영 노하우 교육·전수 및 판매기회 제공 등 급변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장진출 지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영라방이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영라방 진행현장을 TV로 동시송출하는 TV공영라방, TV 스튜디오에서 공영라방을 함께 진행하는 더블라이브, 공영라방과 민간 모바일라이브커머스와 동시송출 등 차별적·이색적 연출로 외연 확장 및 판로지원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결제수단을 신규 도입하고,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채널 내 전통시장 상품 전용관 운영을 강화하여 전국의 전통시장 상품 입점·판매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방송 품질 개선 및 방송 차별화 시도

미디어월 도입 및 C스튜디오 활용을 통한 슬림화, 단순화, 고급화된 세트운영을 추진하여 화면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들에게 상품정보 전달력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이색적인 고정 기획 프로그램 개발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상품 무료 방송 등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송 차별화 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3) 소비자중심경영을 위한 서비스 품질 향상

공영홈쇼핑은 2020년 첫 소비자중심경영(CCM, 공정위, ~'21.12) 인증 취득에 이어 2021년 연속 인증(~'23.12) 획득에 성공하였고, 고객신뢰 강화를 위해 원스톱

고객불만대응체계 구축 및 CCM회의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중심 경영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화응대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ARS(자동주문전화) 셀프시스템 도입, CS전용번호 도입, 고객 상담전화 회선 확충 등 다방면의 개선 노력으로 고객 응대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안정적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원 스마트워크체제를 도입(상암 콜센터, 구로 콜센터, 재택상담으로 3원화)하여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모바일 채널 로딩속도 개선, 본인인증 절차 및 주문절차 간소화, 웹기술서 자동검수 시스템 구축,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리뉴얼, 온라인 상품 정보 제공 확대, 이미지 최적화 솔루션 도입 등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편성 의무송출 기관이 아님에도 '19년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21년엔 428시간을 운영하였고, 향후에도 지속 확대하여 중소·소상공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건전한 홈쇼핑 시장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앞장서고자 한다.

제11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

일반현황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설립된 장애인기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장애인 창업 촉진 및 기업 육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장애인의 경제 참여율을 제고하고 비장애인과의 상생협력 및 공존 실현에 기여하고자 '08년 2월에 설립되었다.

조직은 3본부 7팀 1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기업육성사업은 센터운영,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장애인 창업육성의 3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로는 장애인 창업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 우수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및 창업보육실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판로(수출 등) 및 기술사업화 지원, 장애인기업 제품 인식개선 및 우선구매 활성화 등 장애인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장애인 기업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 관리 및 관련 정보 제공, 비장애인과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장애인 창업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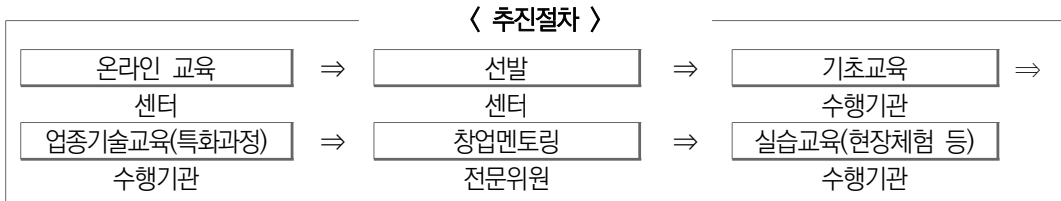
정부는 경제주체로서 장애인의 위상을 정립하고 장애인기업을 통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자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창업재기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8 | 창업교육 프로세스



'08년부터 운영되어온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의 수료생은 최근 3년간 1,530여명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표 IV-11-1-1 | 연도별 창업교육 수료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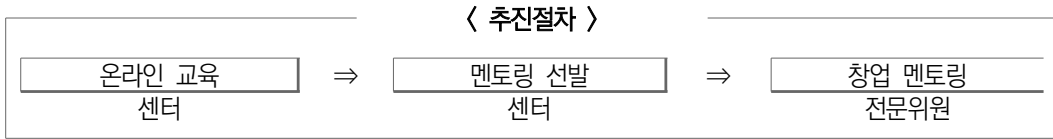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수료생	187	181	241	834	864	953	976	984	1,157	1,400	1,553	1,530	1,533	1,530

'21년의 경우 총 277명이 창업멘토링을 수료하고, 이 중 99명이 창업하여(창업율: 44%) 전년 대비 약 23.8% 창업률이 상승하였다.

*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이수 후 창업률: '18년 26.5%, '19년 32.4% '20년 35.2%

그림 39 | 창업멘토링 프로세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과 POST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드론 자격 취득, E-커머스, 3D 프린터 교육 등)을 운영하였다.

'21년에는 기존 온라인 교육(기초, 역량강화, 재기 교육) 외 협동조합 교육을 신규 개설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장애유형별(시각, 청각)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육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표 N-11-1-2 | '21년 혁신성장 선도사업 기술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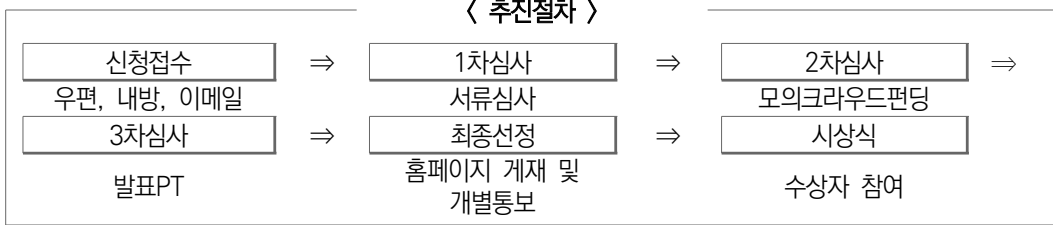
연번	기관명	기술아이템	교육신청	교육수료	달성률(%)	창업자
소계			137	135	96.9%	26
1	가톨릭상지대학교	버섯영농창업(발달장애인)	20	20	100%	6(취업)
2	국립공주대학교	곤충 스마트팜	17	17	100%	2
3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중증 안마 창업	22	22	100%	3
4	조선대학교	드론자격증	20	20	100%	6
5	원경영정보컨설팅(주)	3D 프린팅+미디어특화교육	48	48	100%	4
6	장애인고용공단&SKT	E-커머스	10	8	80	5

'22년에는 더 맞춤지원을 위해 장애유형별 특화교육 과정(신규)을 운영하며, 창업 분위기 도모를 위한 청년 장애인 대상 창업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및 멘토링 시 IT 취약 계층을 위한 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지원 시스템 내 노후화된 강의 신규 제작을 통한 고도화, 챗봇 도입을 통한 기능개선을 통해 교육 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창업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발굴·포상하여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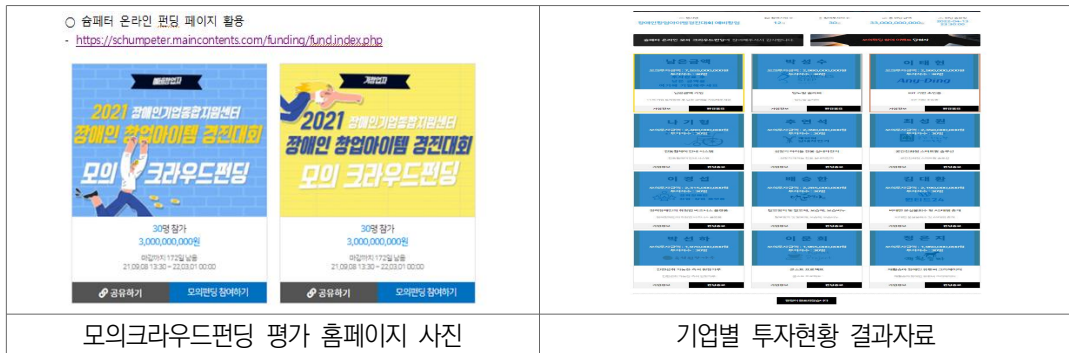
그림 40 |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프로세스



총 11개의 아이টে에 대한 시상 및 포상을 하며, 대상 상금 10백만원 포함 총 32백만원의 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장애인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 시 우대 지원한다.

1차 신청서를 통한 서류심사, 2차 모의크라우드 펀딩심사, 3차 PPT 발표심사 과정으로 세분화된 과정을 통해 신청아이템의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한다. 모의크라우드 펀딩은 시스템을 통한 전문평가단을 통한 창업아이템의 가상투자 방식으로, 대상자별 IR자료를 구축·검토하는 모의투자 방식을 통해 아이টে의 가치를 평가하여 창업아이টে의 시장성과 사업성의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다.

그림 41 | 모의크라우드 펀딩 자료



'21년에는 기 창업자의 지원기준을 3년에서 7년으로 변경하여, 수요자 접근성 및 유망 아이টে의 발굴 가능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21년에는 89명의 신청자 중 8.1:1의 경쟁률을 거쳐 최종 11명이 선정되어 '전국장애경제인대회'와 연계해 시상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20년부터 예비창업자 쿼터제를 운영해 구분하여 모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예비창업자 6명(대상포함), 기창업자 5명이 수상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창업 붐 조성에 기여하였다.

3)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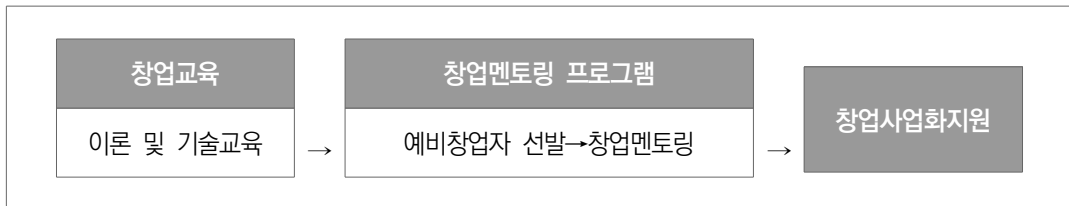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은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초기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장 모델링, 기술개발 및 앱개발, 집기 및 설비구입, 마케팅 비용에 최대 20백만원 한도로 지원하였으며,

'21년은 65명의 창업자 중 중증 장애인 40명(61.5%), 저소득 장애인 11명(16.9%)으로 취약 계층 창업에 대한 수요검증이 가능하였다.

특히 장애인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은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과 연계되어 교육에서 컨설팅, 창업까지 패키지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되어 통합 창업지원을 수행하였다.

그림 42 | 창업지원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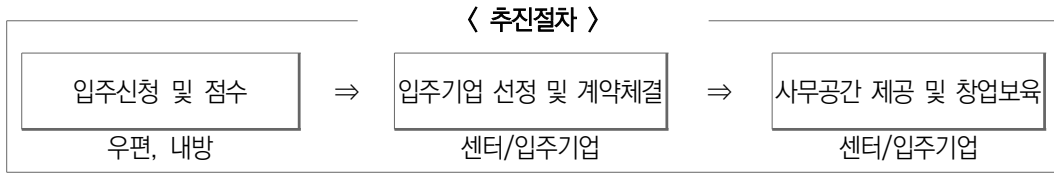
'21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을 필수 제출로 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 하였다. 또한 대상자 선정 심사 시 비대면 화상 면접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코로나 19 대응 및 교통약자 대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4) 창업보육실 운영

장애인기업 대상의 창업인프라 지원을 위해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부산, 대전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장애인 맞춤형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총 124개 보육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 장애인기업만 입주 가능하다.

그림 43 | 창업보육실 프로세스



입주 시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 판로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입주기업은 3.3㎡당 1만원의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창업보육실을 이용할 수 있다. '21년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은 평균 매출액 193백만원, 평균 고용인원 2.82명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표 N-11-1-3 | 창업보육실 현황

지역센터	규모(㎡)		보육실 수(개)	지원시설
서울	본관	2,134	14	창업보육실(본관 11개, 별관 3개), 대강당, 회의실, 재단사무처 등
	별관	993		
대구	502		6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광주	524		9	창업보육실, 창업준비실, 대강당, 회의실 등
부산	687		9	창업보육실, 창업준비실, 회의실 등
대전	420		6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경기	662		8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인천	487		8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경남	523		8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울산	615		8	창업보육실, 대강당, 회의실 등
전북	527		8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강원	537		8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제주	414		8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전남	334		4	창업보육실, 다목적교육장, 회의실 등
충북	326		8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경북	730		8	창업보육실, 대강당, 회의실 등
충남	370		4	창업보육실, 회의실 등
합계	10,785		1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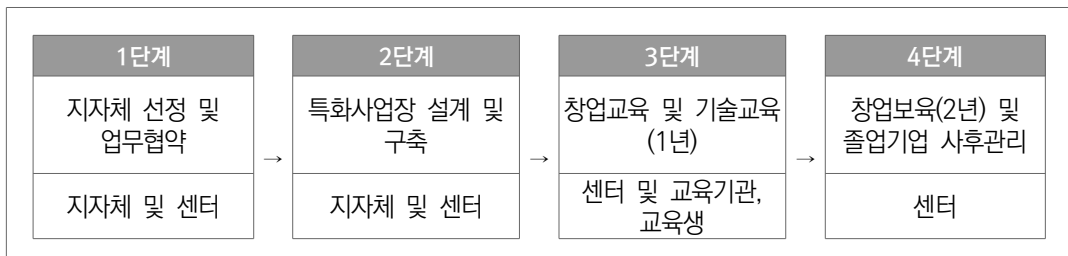
5)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공동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회 제공 및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가족에게는 창업 교육과 기술교육을 1년간 제공하며, 창업팀에게는 창업 준비공간을 최대 2년간 제공한다.

2020년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경상북도 안동시가 선정되어 경상북도 안동시는 2021년 완공이 되었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22년 9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2021년에는 총 4개 지자체(충남 태안군, 충청남도(공주), 제주도, 경남 진주시)를 선정하고, 2022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2022년에는 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연내에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1개소당 20팀(발달장애인 20명, 가족 2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고 이 중 5개의 창업팀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44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추진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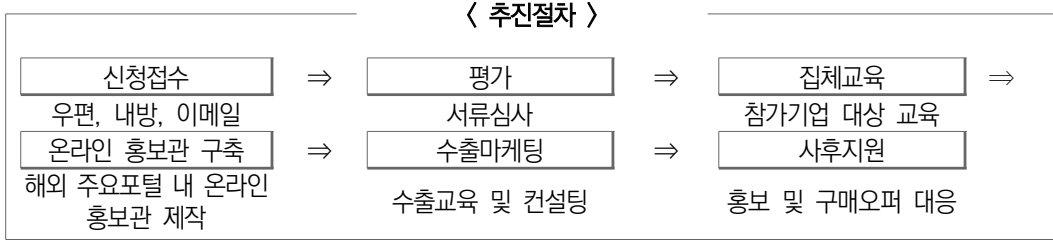


나.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1) 수출 및 판로지원

수출 및 판로지원은 민간(해외) 및 공공판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출이 유망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림 45 | 수출역량강화 프로세스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기존의 무역사절단을 화상상담회와 1:1 개별화상상담으로 대체하여 총 30개사를 지원하였으며, 281만\$의 계약추진금액을 달성하였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 홍보관 구축, 바이어 타겟 마케팅 등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해외 구매오퍼 대응 원스톱(One-Stop) 지원 등의 해외 온·오프라인마케팅을 20개사에 지원하여 8개사가 수출에 성공하여 170만\$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다음으로 판로지원사업은 국내외 입찰정보 제공 시스템, 공공판로(입찰 및 MAS)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46 | 판로지원사업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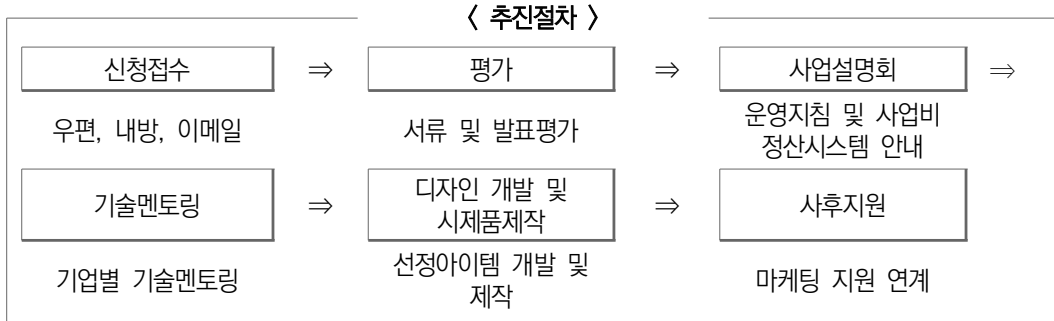
국내외 입찰정보 제공 시스템(판로지원시스템)은 공공기관의 납품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업의 애로사항으로 크게 작용하는 입찰정보 확보의 어려움('21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을 해소하고 있다. 판로지원 시스템은 나라장터 외 학교장터, 정부투자기관, 해외입찰정보 등을 총망라해서 기업별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1년 판로지원시스템의 입찰정보 제공을 통해 발생한 낙찰 건수는 875건이며, 총 낙찰금액은 1,671억원에 달한다.

또한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은 입찰참여 희망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입찰 및 MAS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1년에는 다수공급자 계약(MAS)컨설팅을 48개사에 지원하여 24개사가 물품 등록을 하였으며, 입찰컨설팅 48개사 지원을 통해 29개사가 낙찰에 성공하여 총 189억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였다.

2)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사업화지원은 장애인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단계 기술개발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제작비용의 최대 90%,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목업 분야, 시제품 금형분야로 나뉜다. '21년은 총35개사(제품디자인 및 목업 20개사, 금형 15개사)를 지원하였다.

그림 47 |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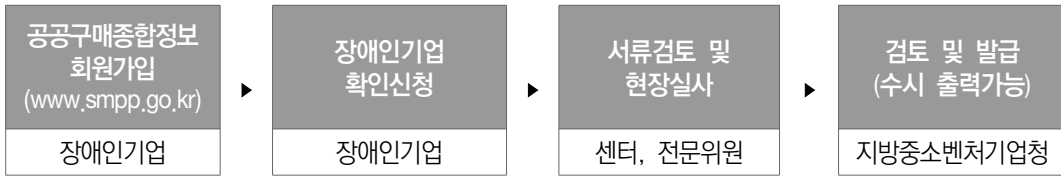


3) 장애인기업등록 및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기업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우선물품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에 의거, 공공분야에서 장애인기업 물품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조건 및 비율을 1%(의무사항)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시장에 대한 판로기반을 조성하였다.

표 IV-11-1-4 | 장애인기업 등록절차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은 '17년 전체 123.4조원 대비 1.5조원 (1.2%), '18년 전체 123.4조원 대비 1.7조원(1.4%), '19년 전체 134.9조원 대비 2.0조원(1.6%), '20년 전체 145.7조원 대비 2.3조원(1.6%), '21년 전체 154조원 대비 2.4조원(1.6%)을 달성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IV-11-1-5 | 연도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공공구매	1,234,078	1,234,134	1,349,802	1,457,992	1,540,293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15,406	17,677	20,952	23,275	24,390
총액 대비 비율	1.2	1.4	1.6	1.6	1.6

또한 장애인기업 등록업체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선구매제도 활성화가 예상된다.

표 IV-11-1-6 | 등록 장애인기업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록 장애인기업 수(개)	3,490	3,839	4,580	6,037	7,119

제12장

중소기업중앙회

1

일반 현황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회 균등과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1962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2021년 말 기준 570개 협동조합(50,103개 업체)과 50개 중소기업 관련단체(627,691개 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조직화, 협동조합 운영지도 및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 중소기업 국제협력기반 구축 및 수출 지원, 산업별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운영, 중소기업 인력 및 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가. 중소기업 조직화 및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은 부가가치 창출, 생산, 고용, 수출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경제적 지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상호부조정신에 입각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기업간 협업,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 결과 2021년 26개 협동조합이 신규 설립되고 협동조합 기능을 상실한 43개 조합을 해산 조치하여 921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표 N-12-1-1 |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 합 회	23	23	23	23	23	23
전 국 조 합	229	228	224	226	218	218
지 방 조 합	327	325	323	313	311	304
사 업 조 합	354	366	373	389	385	376
계	933	942	943	951	937	921
조 합 원 수	71,648	71,902	72,031	71,886	70,962	68,180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주체를 주무관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안(19.12.10. 개정)에 따라,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방조례 제정 및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2021년 말 기준 17개의 모든 광역지자체와 56개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근거 조례를 토대로 10개 광역지자체(부산,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13개 광역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서는 조합 전용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실행력을 강화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과 조직운영에 있어 더 많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자로 지위를 인정받게 하였으며('20.10.20. 개정), 조합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21.12.28. 개정)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제3차 활성화 계획('22~'25)에 반영할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위원회 및 공동사업위원회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3차 활성화 계획에 담을 실질적 지원사업 등을 건의·제시하였다.

나. 협동조합 운영지도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조합원 관리, 총회 개최, 예·결산,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등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도하였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및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지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조합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특히 2019년부터 업무환경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맞춰 「협동조합 포털」 전면 개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년여간 개발 끝에 2021년 4월 오픈한 「新협동조합 포털」은 법정보고의 전산화·업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모바일 앱 구축 등을 통해 조합업무의 표준화와 효율화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의 회계·세무, 규정 제·개정 등 일반운영과 공동사업운영 등을 현장밀착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을 설치(2002.5)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준비조합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을 '설립·운영지원단'과 '공동사업SOS지원단'으로 분야별 특화 설치(2020.6)하여 협동조합의 일반운영과 공동사업 발굴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3,316개 조합에 5,073회 방문하여 협동조합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였다. 이외에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69개 조합이

업종별 특성 및 환경,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09년부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타 조합의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부문은 종합대상과 8개 부문별 대상(공동구매, 공동판매, 일자리창출, 해외시장개척, 유통·물류, 사회공헌, 특화사업, 신규부문)으로 나뉘고, 많은 협동조합들이 수상 조합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합발전과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표 N-12-1-2 |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지원 현황

(단위 : 회, 개)

구 분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지도횟수	2,767	384	369	430	651	472	5,073
지도조합	1,998	230	205	265	384	234	3,316

다.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협동조합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기반자금 내 협동화자금을 활용하여 2021년 27개 조합, 185.9억원을 추천하였다.

표 N-12-1-3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자금) 추천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07~'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추천조합	166	6	3	11	31	27	244
추천액	1,341	25	25	43	243.6	185.9	1,863.5

또한 공동사업 추진의지가 있으나 재원 및 인력부족으로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3년 1월 중소기업 DMC타워에 “협동조합 활성화센터”를 개소하였다. 활성화센터에 입주한 협동조합은 임차보증금,

임대료, 비품 등을 지원받으며, 최대 10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2015년 9월 강원 지역, '16년 1월 제주지역, '19년 3월 전북지역 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서울 15개, 강원 2개, 제주 2개, 전북 4개 조합이 입주중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신보·기보·신보중앙회, 기업은행은 구매물량이 적고 현금, 신용, 담보 등 구매력이 부족하여 높은 원부자재 단가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용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참여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참여기업의 구매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동조합은 참여기업의 소요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보증재원을 매칭 출연하여 총 600억 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2년까지 총 6,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표 N-12-1-4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특징

구분	중소기업	협동조합
보증기관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상 최고 운용배수 적용(20배수) ⇒ 보증발급 확대 - 보증비용 95% 이상(일반보증 80~85%) ⇒ 은행 할인수수료 인하 - 5년간 보증수수료 0.5%p 인하, 업체당 보증한도 우대 - 소속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제한 	
기업은행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수수료(대출금리) 1.0%p 자동감면 - B2B 은행결제수수료 면제 - 만기 지급보증수수료 면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으로 저금리 구매자금 확보 -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구매 수수료 수입발생 - 현금결제로 단가협상력 제고

라. 협동조합 단체표준인증제도 운영지원

단체표준·인증의 효율적 운영·관리·감독 및 협동조합의 표준화 역량 제고를 위해 단체표준 제·개정을 지원하는 단체표준심의회와 분쟁협의위원회를 운영하고(21년 제정 41건, 개정 23건, 폐지 12건, 분쟁조정 1건), 활용도가 없는 단체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21년 적부확인 1,841개), 신규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1년 협동조합 10개 지원)

또한 단체표준 인증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인증신청에서부터 인증서 발급, 인증 사후관리까지 ONE-STOP으로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단체표준 인증단체에 대한 업무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단체표준 제도 개선을 위한 인증단체 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및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자격 기준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발, 인증단체의 합리적인 인증업무 수행 유도를 위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가이드라인 2.1 제작·배포 하였다. 특히 새롭게 단체표준·우수단체표준 인증마크와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홍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IV-12-1-5 | 단체표준 등록 및 인증현황('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개)

구 분		조 합	비영리법인	합 계
등록	단체	72	72	144
	표준	644	3,143	3,787
인증	단체	39	17	56
	표준(품목)	193	75	268
	업체	3,335	1,214	4,549
우수	단체	14	2	16
	인증품목	73	10	83

3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현안조사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책 발굴 및 건의 활동을 지속하였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여 즉각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동향조사와 현안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중소기업이 우리경제 활력 회복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환경을 조성하였다.

가. 중소기업 경영애로 발굴 및 정책건의

1) 중소기업 지원시책 개발 및 건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경영애로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이 더욱 시의성 있게 정부부처에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금융·세제 및 규제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및 건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고용·투자 등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책 등을 건의하였으며, 두 차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일몰연장 등 다수 과제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중소기업 정책 관련 토론회 등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정부부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국회 및 정당,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정책개선 방안을 직접 건의하였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중소기업 정책과제집을 작성해 배포하였고, 대전환시대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신경제3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중소기업 신용평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안을 이슈화하고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중소기업 관련 통계 생산

원부자재 구매, 설비투자, 연구개발, 제품판매, 수·위탁 거래, 인력, 재무구조 등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연간 경영실태 전반을 파악하는 중소기업실태조사(21,000개사)와 기술개발투자, 기술 인력 등 기술개발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4,000개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본 통계와 중소기업 지원 및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1,400개사)를 2회 실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기동향 및 전망을 신속히 파악하여 업계의 경영계획 수립과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경기 전망조사(3,150개사)를 매달 실시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산업별, 기업규모별, 시도별로 가공하여 '2021년 중소기업현황(2019년 기준)'을 발간하였고, 중소기업의 현 위상과 경제발전 공헌을 정확히 알리고 중소기업 정책지표로 활용하고자 '중소기업 위상지표'를 발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정책개발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지표'를 발간하였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중소기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를 발간하였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장애로를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CEO가 바라본 2021년 경영전망조사(411명), 2021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860개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500개사),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업 실태조사(135개사), 거래의 불공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

(300개사), 시장의 불균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300개사),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한 중소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79개사), 조달제도의 불합리와 관련한 중소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300개사),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 조사(600개사),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조사(700명), 업종별 중소기업 경영 애로 및 2021년 하반기 경기전망조사(912개사), 2021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900개사),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300개사),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성장 해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조사(500개사),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2년 중소기업 경영계획 조사(500개사),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300개사),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조사(500개사), 워드 코로나 시행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조사(600개사)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및 필요한 정부시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레미콘 중소기업 믹서트럭 수급조절 관련 의견조사(300개사), 중소기업·조선업종 경영실태 조사(300개사), 중소기업·두부제조업체 수입대두 수급실태 조사(376개사) 등 정책 이슈가 있는 산업별로도 정책기획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접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제2회 중소기업 통계 데이터 활용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본회 및 유관기관 생산 중소기업 조사통계 17종(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중소기업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1인창조기업실태조사, 기업가정신실태조사,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벤처천역기업조사, 소모성자재납품업실태조사, 소상공인·시장경기 동향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소셜벤처실태조사, 여성기업실태조사,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기술보호수준실태조사, 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창업기업실태 조사)을 개방하였고, 참가자 92팀 중 6팀을 시상하였다.

다. 공정거래질서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1)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공정경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 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자 조사·연구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부·국회에 건의하는 등 정부 정책에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납품단가 문제 해소를 위해 원자재 가격 인상시 별도의 요청이나 협의없이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를 분석하고 업계 현장의견을 조사하여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함으로써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다. 또한 차기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추진을 위해 2022년 대선과제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송두리째 빼앗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고,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그 결과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의견조사(500개사), 2021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500개사) 등을 실시하였고,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향분석 연구, 업종별 거래관행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국회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2)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정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 및 평가대상 기업확대 로드맵 수립에 기여하였고, 동반성장주간 기념식(21.11)을 개최하여 동반성장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와 포스코-사내 하청업체간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제지 공급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정부·국회에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3)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중소기업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 도입을 건의하여 '11년 제도 도입 이후 '13년 상생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적합업종 실무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21년까지 적합업종 53개 업종·품목 합의를 완료하였다.

또한 현행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강화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관련, 협동조합단체를 대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안내하고 실무위원회 지속 참여를 통해 2021년까지 29개 업종에 대한 신청을 지원하고, 이 중 12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데 기여하였다.

더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일로부터 지정일까지 대기업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내용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였다.

4)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 1월 납품대금조정센터를 개소하고, 4월 21일부터 상생협력법 개정시행을 근거로 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업무를 개시하였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원사 및 협동조합용 실무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 협의요건 자가검증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납품단가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제도 활용 문턱을 낮추고자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총화이사회 절차를 삭제했으며, 신청요건 완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였다.

아울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사 의견조사(500개사), 업종별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647개사), 업종별 거래관행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을 실시하고 납품단가 미반영 업종에 대한 면밀한 실태 점검 요청(공정위) 등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또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 및 공동홍보 등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5) 우수 중소기업 유통판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주)홈쇼핑과 공동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TV홈쇼핑 방송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소재 중소기업 제품을 지원하는 '일사천리 사업'을 통해 '21년 81개사를 지원, 총 50.9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본부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우수상품 추천위원회'를 통해서도 44개사를 선정, 방송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체와 중소기업인 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백화점 입점 품평회를 총 15회 개최했다. 또한 2014년 7월 롯데백화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상생관(드림플라자)이 개관한 이후 2020년 드림플라자 입점 품평회를 개최하여 총 12개 업체가 다양한 유통 채널에 입점하는 등, 우수 상품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기여하였다.

라.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1)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컨소시엄 사업의 운영 방식을 ①오프라인 전시회 직접참가 ②오프라인 전시회 간접참가 ③온라인 전시회 참가 ④화상수출상담회 참가로 다변화하는 등 사업의 전략적 탄력 운영을 통해 총 83개 사업(1,602개사)을 103.8억원 규모로 지원하였다.

UAE 아부다비 석유가스전시회(ADIPEC, 11월) 및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전시회(MEDICA, 11월) 등 글로벌 유망전시회를 대상으로 'KOREA' 국가브랜드 신뢰 제고를 위해 한국관 장치 및 디자인을 고급화한 '프리미엄한국관'을 시범 추진하였고,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여성과 확대를 위해 사업 주관단체, 참여기업 및 통역원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역량강화 e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사업 운영, 프리미엄한국관의 성공적 추진 등을 통해 2021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기업의 수출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을 2.9%p 상회하며,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하는데 기여하였다.

2) 해외 정부 및 기업인 네트워크 구축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출장 및 현지 정보수집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4월), 중국(5월), 일본(12월)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국 투자 환경과 인증획득 방법, 진출 전략을 소개하였다. 또한 주한베트남대사 내방(4월), 주한중국대사 내방(5월),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내방(5월), 주한일본대사 내방(12월) 등 주요 교역국 주한 공관장과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 협력 강화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였고, 대사관 및 해외 유관기관과 소통(18회)을 지속하는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9월에는 경북 경주에서 백두포럼을 개최,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ESG, 공급망 재편 등 시대적 화두로 부상한 글로벌 통상이슈로 인한 중소기업의 위기와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였다.

3) 통상현안 정책기능 강화 및 환경변화 대응

글로벌 신통관장벽 대응전략 세미나(7월), 관세·통상정책 발굴 전문가 간담(8월), CPTPP 가입추진 관련 업종별 중소기업 간담회(4·6·7월), 주요 교역국 진출 관련 의견조사(2월), 원자재·물류비 변동에 따른 영향조사(3월), 수출입 물류애로 실태조사(5월), 비관세장벽 인식조사(7월), 수출기업의 디지털 성숙도 조사(11월),

2022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물류애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정부 건의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통상현안 이슈에 대해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통상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국제 통상포럼을 3회 개최하였다.

수입급증 및 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무역구제 절차를 진행시 필요한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상사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다.

특히, 수입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제소 관련, 일부 특수강종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후 포스코와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외에도, 국내 주요 기간산업인 중소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조선산업위원회를 (5월, 8월)개최하고, 조선업 RG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자재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조선업계의 수주 및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4)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및 남북경협 재개 노력

개성공단 입주기업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8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현황조사(8월), 입주기업 현장 간담회(10·11월) 등 실시하여 개성공단 기업의 경영애로를 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고,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남북경협위원회 개최(5월), 개성공단 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5월) 등을 통해 남북경협 재개 분위기 조성 및 판로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마.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장기간 전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16.9)를 도입한 이후 ’17년부터 ’21년까지 명문장수기업 총 30개사를 확인하였다. 확인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홍보 영상 제작 및 유튜브 광고 등을 실시하여 장수기업과 승계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승계 제도개선 토론회(’21.6),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21.10), 기업승계 활성화 위원회 1·2차 개최(’21.4, ’21.12), 장수기업 희망포럼(’21.10)을 개최하고, 기업승계 실태조사(’21.11)를 실시했으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안내하기 위해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 운영(자문 건수 154건), 승계기업에 대한 ESG 컨설팅(20개사), 중소기업 기업승계 세제해설 책자 및 사례집 제작 및 차세대 CEO 스쿨(연인원 575명)을 운영하는 등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바. 중소기업뉴스 발간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제도, 최신산업트렌드 등 경영정보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제공하고 중소기업 현장르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하여 연간 48회 중소기업 뉴스를 발간하고 있다.

주요 보도내용으로는 ‘중대재해법, 최저임금 등 중소기업계 주요 정책·제도 현안 대응’, ‘소상공인·고용유지지원금·일자리 애로 등 코로나19 관련 정책 대안 마련’, ‘대선후보, 주요 부처 장관, 지자체장 등 정책 핵심 인사와의 간담회’, ‘중소기업계 제20대 대선 주요과제’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 정부 및 유관 기관 등에 매회 40,000부의 신문을 배포하고 있다.

4

산업별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가. 산업정책 개발 및 업종 경쟁력 제고

1)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건의, 입법화 추진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19개 산업·특별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각 산업의 현장애로 수렴, 업계 현안과제 및 애로사항 해결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이슈 선점과 선제적 대응정책 개발을 추진하였다.

표 N-12-1-6 | 산업·특별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	뿌리산업위원회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남북경협위원회	농식품제조업위원회
공동사업위원회	공정경제위원회	비금속광물위원회
노동인력위원회	납품단가조정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섬유산업위원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중소기업 탄소중립·ESG위원회
조선산업위원회	유통산업위원회	혁신조달위원회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		

2) 산업·특별위원회 운영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개선 촉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굴 및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해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덩어리 기술규제’ 대표 사례인 10개 품목, 19가지 규제를 발굴하여 실무협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해소 노력을 하였고,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중소기업 SW인력양성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박영선 더민주 디지털 대전환위원장 간담회」에서 건의하였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이슈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새롭게 출범('21.4.)하였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현안 해소에 노력한 결과,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부담을 완화하였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자기부담금 인하(0.5% → 0.1%), △무사고 할인율 도입(5%) 및 시설 할인율 확대(10%→15%), △배상청구 가능기간 확대(보험기간 만료 후 60일 → 1년)등이 있었다. 또한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포장재 관련 '사전 검사 및 표시의무화 법안'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중소기업 탄소중립·ESG위원회」는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과 ESG 물결 속 중소기업이 도태되지 않도록 중소기업계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21.10.)하였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위원회와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그 결과 탄소중립위원회 2030 NDC 보고서에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이 채택되었다. ①전기료 상승 우려로 인한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②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③업종별 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대응)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ESG 민관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하여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뿌리산업위원회」는 뿌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해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세제혜택, △뿌리산업 특화 인력 육성, △뿌리산업 기술부서관 학교 신설, △뿌리기업 전용 정책자금 마련 등의 뿌리산업 핵심과제 9개를 추려 중소기업계 대선과제로 전달하였다. 또한, 뿌리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회-산업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21.4.)을 체결하였다.

「농식품제조업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식품제조업계 입장을 대변해 관계부처에 건의하며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대두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수입대두 부족물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 △농식품부 방문, △현장르포 보도, △국회 질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조기배정'과 '공매 진행'을 통해 2021년도 부족물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로 사용이 어려워진 기존의 포장재 연장사용을 이끌어 영세식품제조업체의 어려움을 감면했다. 더해 고질적인 수입곡물 수급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농수산 식품유통공사(a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업계와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비금속광물위원회」 콘크리트 재활용제품의 ‘순환골재 비율 과도’ 문제를 해소하고자 각기의 노력을 기울였다.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제도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콘크리트 재활용제품 순환골재 비율 현실화”라는 건의와 언론보도를 통한 이슈화를 진행했다. 아울러 콘크리트믹서트럭 수급조절 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 레미콘업계 인사가 추가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섬유산업위원회」는 사양화되고 있는 섬유산업의 정부 육성·진흥책 지원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섬유산업의 탄소중립·에너지효율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더해 염색조합(신평패션칼라사업조합)의 노후화된 시설(공업용수관 등) 교체 필요를 건의한 결과 국비지원 예산 25억원을 확보하였다. 이외 열병합발전시설을 많이 활용하는 섬유산업이 친환경연료 전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보급·확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삼성과 시작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포스코, LH까지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동일(유사) 업종 중소기업이 공통솔루션을 구축하는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도 추진하여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와 함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산업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브로셔와 스마트공장 솔루션 용어를 쉽게 설명한 핸드북을 제작·배포하였고, 중소기업의 혁신 마인드 고취 및 벤치마킹 등을 위해 스마트서비스 현장체험 전시(5월), 스마트비즈니스포(10월, 삼성전자 공동주관) 등을 개최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에 참여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사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 환경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개선 지원

윤미향의원 등은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사전에 검사하고, 그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는 의무를 제조사에 부과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20. 11. 24)하였다. 이에 피해가 예상되는 8개 업종 조합 간담회 개최, 의견조사 실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 윤미향 의원실에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등 법 개정 저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사업장별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인 취급시설 규제를 이행하여야 했다. 이에 업종별 수요조사, 정례협의체 운영, 간담회 건의 등을 통해 업종별(표면처리, 염색) 취급시설 고시가 제정되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지원사업(‘화학안전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연 80억원/5년간)이 마련되었다.

지난 '16.7.1일 제정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특정 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환경책임보험료는 손해율이 7%에 그쳐, 보험사의 수익은 과도한 반면,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은 과중하였다. 이에 환경책임보험 관련 업계의 애로를 꾸준히 건의하여 환경책임보험료의 자기부담금을 기존 0.5%에서 0.1%로 인하하였고, 무사고할인율 도입 및 시설 할인율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관련 부담이 완화되었다.

라.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경영 지원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대두되며 탄소중립과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부·공공기관·대기업·금융기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공급망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온실가스 저감 및 근로자 안전, 윤리경영에 대한 ESG 경영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SG 전담팀을 신설하였다.(‘21.7.)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내에 ESG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이 ESG 관련 애로를 호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고, 설문조사·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ESG 대응 현황과 애로를 청취하였다.

ESG 경영에 아직 생소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10강)하여 유튜브 등에 무료로 공개하였고, 중소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ESG 컨설팅을 시범 실시하였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슈리포트를 발간하여 그동안 미처 조사되지 않았던 탄소중립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탄소중립 관련 업종별 실태조사와 좌담회를 실시하여 업종별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대외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협의회’에 공동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와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관련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우려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였다.

〈정부의 탄소중립 대응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 ▶ (문제점) ①과도한 속도와 목표 ②전기요금 인상 ③원자재 가격 상승 ④중소기업 영향 분석 부재
- ▶ (건의) ①과도한 속도와 목표 조절 ②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③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④중소기업 영향분석 및 대책 마련 ⑤시설·R&D지원 확대 ⑥업종별 협동조합 활용한 탄소중립 대응 ⑦사업재편 피해구제방안 마련 ⑧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지원 근거 법제화 ⑨기후위기대응기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그 결과 탄소중립위원회 2030 NDC 보고서에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이 채택되었다.(② 전기료 상승 우려로 인한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③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⑥ 업종별 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대응)

마.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소상공인 관련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현안 애로에 공동 대응하였고,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론화했다. 특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방역 체계 개편 건의 등에 정책적으로 활용했다.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 개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근거 마련 등 소상공인의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건의를 실시했다. 특히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관련하여 입점 소상공인의 현황과 문제점 등 업계 의견을 지속 전달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물류센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지원 대상으로 포항, 창원, 부천 등 3개 조합이 선정됐으며, 11건의 사업조정을 실시하여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자생력 강화의 기틀을 조성했다.

바. 중소기업 전문 연구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수행 등을 위해 2019년 9월 KBIZ중소기업연구소를 신설하여 현장 기반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리포트 및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손실보상제 연구에서 국내 입법동향, 해외 사례 분석과 더불어 국내 손실보상제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으며, 중소기업 고용유지를 위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K-PPP) 연구를 통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를 분석하여 대정부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에 따라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의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협동조합 공동행위 중 B2B 가격결정 행위 보장방안 연구 등 중소기업 현안이슈 법제화 지원을 도왔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권 연구를 통해 일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권에 대해 조사하고, 우리나라 도입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생산요소 가격변화 대응 연구를 진행해 국내 중소제조업 탄소배출 현황, 탄소저감 가능 범위 및 수단 등을 분석하고 중소제조업 탄소중립을 위한 소요예산 추정 및 지원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력 입국제한 등으로 인해 외국인력 활용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위해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정부, 학계 등이 참여하는 KBIZ정책연구회를 10회 개최하여 중소기업 현안과제를 공유하였고, 중소기업 관련 경제동향, 연구 결과 등이 담긴 종합정보지 KBIZ정책브리프를 12회 발간하여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주간이슈를 총 52회 발간하여 주간으로 경제동향, 해외 중소기업 지원정책 동향, 중소기업 현안 이슈 파악 등에 활용하였으며, 학계, 연구원,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KBIZ정책연구단」을 운영, 중소기업 정책 동향 파악, 최신 중소기업 연구 결과 논의 등 중소기업 정책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5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운영

중소기업자간 상호부조에 의하여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여건 조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공제사업기금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정부 등의 출연금 및 운용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며, 1998년 정부출연 중단 이후에는 각종 홍보 강화, 가입촉진 캠페인 활동 및 경영상담사의 가입유치 활동 등 재원 확충을 위한 가입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2021년 12월말 현재 16,849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총 5,842억 원의 재원이 조성되었다.

표 IV-12-1-7 | 공제사업기금 조성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공제부금	정부출연금	대손보전준비금	이익잉여금 등
조성액 (비 중)	4,177 (71.5)	1,400 (24.0)	147 (2.5)	118 (2.0)

공제사업기금은 부도매출채권대출(제1호 대출,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 어음·수표대출(제2호 대출, 어음 및 수표의 결제 지연에 따른 도산 방지),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 대출,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및 단기운영자금 부족 지원) 등 3종류가 있다.

총 대출금액의 99.0%인 4,748억 원(2021년 대출액 기준)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함으로써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은 물론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금융지원시스템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N-12-1-8 | 공제사업기금 대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부도매출채권 (1호대출)		어음·수표 (2호대출)		단기운영자금 (3호대출)		매출채권담보 (4호대출)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이전	12,984	6,788	229,574	52,707	79,648	30,722	117	31	322,323	90,248
2017	25	17	1,456	397	5,294	2,968	-	-	6,775	3,382
2018	32	28	1,370	400	6,409	3,499	-	-	7,811	3,927
2019	9	10	1,149	337	6,959	3,909	-	-	8,117	4,256
2020	15	9	781	248	6,862	4,339	-	-	7,658	4,596
2021	7	7	611	199	7,108	4,588	-	-	7,726	4,794
계	13,072	6,859	234,941	54,288	112,280	50,025	117	31	360,410	111,203

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하여 대출이자율의 일정 부분(1.0~3.0%p)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4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사업으로 실시하여 2021년 총 2,002개 업체에 약 20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하였다.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이다. 2007년 9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시행되어 2021년 말 재적 가입자는 1,542,268명이고, 부금 18조 788억 원을 조성하였다.

가입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공제사업 센터)·시중은행·상당사·홈페이지(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납부 공제부금은 월 5만원~100만원까지이고,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부금전액과 적립이자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공제금의 압류가 금지되며, 2017년부터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납부부금은 전액에 대해 연복리 이자율(분기 변동)을 적용하고, 또한 가입 후 2년간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부터는 무이자 의료대출 및 재해대출을 시행하여,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말까지 폐업 또는 사망사유로 497,410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조 513억 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고, 운전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013,789건 10조 1,651억 원의 공제계약대출을 지원하였다.

표 N-12-1-9 | 연도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건수 및 부금조성 현황(누계기준)

(단위 : 건, 억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계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271,783	29,486	237,167	33,258	274,094	37,857	288,570	44,150	2,204,085	230,083

다. 중소기업 이행보증공제 운영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이행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 도입된 「중소기업보증공제」는 2021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2,021개 업체에 89,281건의 공공조달계약에 대해 보증증권을 발급하여 약 6조 3,796억 원을 보증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민영보험사 및 업종별 공제조합이 보증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음에 따라 보증기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으나, 「중소기업보증공제」 출범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증증권을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공급 독과 점이 개선되는 등 보증 소비자인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부담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저렴한 비용과 편리한 이용절차 및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조합원 지원을 통해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한 신용을 공여하는 자율적 금융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N-12-1-10 | 중소기업보증공제 운영현황(2021.12.31, 누계기준)

(단위 : 개사, 건, 억원)

이용업체 수	증권발급 건수	보증 금액
2,021	89,281	63,796

* 이용업체 수의 경우, 중복업체 제외

라. 중소기업 손해공제 운영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각종 위험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부터 중소기업 손해공제(파란우산공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손해에 대해서는 화재·재산종합·기업종합공제·간편실손화재공제·소상공인풍수해공제, 배상책임 손해에 대해서는 영업배상책임·근로자재해·건설기계안전공제, 생명·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단체상해공제의 9가지 공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손해공제는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대비 10~25% 저렴하게 공제료를 받고 있으며, 단체적 가입 추진을 통하여 중소기업 일부 위험업종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인수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N-12-1-11 | 연도별 손해공제 가입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18	3,286	3,041	4,123	4,158	4,598

마.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 운영

2002년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라 1999년 8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PL단체보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와의 PL단체보험 계약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별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PL사고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PL대책 수립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표 N-12-1-12 | 연도별 유효계약 보유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911	11,753	3,774	12,121	3,979	11,212	4,889	11,766	6,763	13,167

6

중소기업 인력 및 판로 지원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1)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1997년에 설립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서비스와 인프라 제공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에 교육장을 신설하여 교육 수요자의 편의성 증대 및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16년)에 발맞춰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대면교육(ZOOM, 유튜브)을 병행하여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였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힐링캠프, 재기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2021년 연 12,874명이 수료하였다.

표 N-12-1-13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교육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협동조합 임 직 원	지원시책 연계교육	맞춤형 교육 등	계
2019년	2,607	8,956	5,311	16,874
2020년	1,527	5,270	2,348	9,145
2021년	1,143	3,283	8,448	12,874

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고용허가제(점수제)의 행정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으로서 최초 입국해 총 3년간 근무하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및 1년 10개월 연장된 '재고용근로자', 취업기간 동안 사업장변경이 없었던 근로자는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재입국 특례자(구 성실근로자)', 현지에서 특별한국어시험을 합격해 종전 사업장으로

재입국하는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자’ 등 연간 5만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중소기업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유통업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확대’ 등 중소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중지되었을 때 코로나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1년 연장을 이끌어 내는 등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공백 피해를 줄여줬으며,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 입국쿼터 폐지’, ‘외국인근로자 기본 고용한도 상향’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판로지원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 유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건의, 주요 공공구매 담당자와의 간담회 및 교육,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홍보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유도함으로써, 2021년 정부 등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총액 154.2조원 중 77.6%인 119.7조원이 중소기업제품으로 조달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구매 실적 대비 2.9% 증가된 규모이다.

2022년 구매목표는 856개 기관에서 총구매 160조원의 75.7%인 121.1조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표 N-12-1-14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2021년 구매실적			2022년 구매목표		
	총구매 (A)	중소기업 (B)	비중 (B/A)	총구매 (C)	중소기업 (D)	비중 (D/C)
총괄	154.2	119.7	77.6	160	121.1	75.7
물품	52.5	38.9	74.1	50.2	38.1	75.8
공사	68.3	54.4	79.6	73.0	55.0	75.3
용역	33.3	26.3	79.1	36.8	28.0	76.3

2)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2016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18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한·지명경쟁 조항 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반영하였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한 결과 2021년말 기준 약 354.8억 원(계약금액 기준)의 규모가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304개 세부제품에 대해 총 69개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한 소기업 수주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성화

2020년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5천만원 → 1억원) 되었고, 2021년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한도가 영구 상향되어 제도 활용 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조달청 구매대행 품목을 확대(30개 → 159개 세부품목)하여 수요기관의 제도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한 결과 2021년말 기준 약 141.6억 원(추천금액 기준)이 조달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추천 실적 대비 26.2% 증가된 규모이다.

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직접생산확인제도 운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및 물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운영하였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비롯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1년은 32,396건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표 IV-12-1-15 | 직접생산확인 주요연혁

구 분	주요내용
2007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시작
2010	10. 21부터 직접생산증명서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2011	유효기간 변경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폭 감소
2012	2010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발급 대폭 증가
2016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고도화 완료로 이용자 편의 개선
2017	1000여개 직접생산확인 상세 기준에 대한 전산화 작업 완료
2018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유료화

직접생산확인제도는 2007년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운영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2010.10.21일부로 기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2016.2.1.일부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시스템을 개편하여,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를 구성하고 업무처리속도 및 메뉴의 접근성,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표 N-12-1-16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7년 이전누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누 계
업체수	221,923	28,703	28,497	32,285	32,396	343,804
제품수(세부품목)	1,055,949	123,048	107,151	126,625	120,498	1,533,271

5) 지방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운영

지방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2003년 4월 16일 대구에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연면적 4,673㎡(1,413평) 규모로 개설하였으며 지역 우수 중소기업제품과 특화상품의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고 우수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7

중소기업 위상 제고 및 사랑나눔문화 확산

가. 중소기업 사기진작 및 위상 제고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2022.1.19)를 개최하여 100여명(오프라인 참석 : 12명)의 전국·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중소기업계와 정부·국회·유관 기관 등이 함께 소통·협력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국무총리가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참석하여 함께 신년하례의 시간을 나누었다.

중소기업 주간행사(2020.5.11~15)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 시기를 감안하여, 핵심행사 위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소기업 관련 44건의 행사가 개최되어 중소기업들과 국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32회를 맞이한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는 200여명(오프라인 참석 : 99명)의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해 포상식이 거행되었다.

나. 중소기업 사랑나눔문화 확산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춰 중소기업계의 사회공헌에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추진하였다.

문구업체가 후원한 2억원 상당의 학용품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전국 저소득 가정의 아동 5천명에게 전달하며 새해의 포부를 열었다. 유통업체가 후원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3,800개는 화물운전기사에게, 주방세제를 제조하는 기업의 후원물품은 요식업체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달하여 후원물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설에는 떡국키트를, 추석에는 잡채 등 명절음식 키트를 각 4만명 분씩 제작하여 전국 복지시설에 전달하였다. 한편, 코로나19로 매출의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석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2곳을 직접 방문하여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2021년에도 부산과 서울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중소기업 인과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아름다운 중소기업 나눔콘서트’를 개최하여 문화 소외계층의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지도를 활용해 우수 중소기업 현황과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지자체 등에서 인증한 우수 중소기업 중 신용등급·영업이익·퇴사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약 3만개 업체를 선정하여 채용·교통·복지·재무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성화고·산업정보고 등 직업계고 재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과 올바른 진로교육 부재에서 비롯되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였다. 전체 59개교, 268학급, 5,0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이후 진행된 조사 결과 중소기업 인식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3.22→4.22, 5점 만점)

201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서포터즈 ‘행복한 중기씨’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문제와 편견 해소를 위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행복한 중기씨’ 블로그 콘텐츠는 월평균 조회수 4.5만회, 누적 조회수 679만회를 기록하였으며, 그 외에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전문 콘텐츠 제작과 홍보 업무 등을 진행하였다.

‘제12회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IDEA 공모전’을 개최하여 동영상·포스터·영상·에세이·아이디어기획서 3개 부문 총 270점의 작품을 접수하였으며, 그 중 62점을 시상하였다. 수상작은 여의도 본회 1층 LED전광판 및 엘리베이터에 전시하였으며,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진로교육 활용을 위한 기관 등에 배포되었다.

‘청년 일자리 사기진작 캠페인’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재학생, 경력단절여성, 청년구직자, 중소기업 사업주의 이야기를 담은 캠페인 영상을 제작

하고 배포했다. 청년층 구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 취업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 영상 콘텐츠는 본회 유튜브 채널과 ‘행복한 중기씨’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 알리기’를 통해 인정받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중소기업 대표와의 서면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했다. 총 30개의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하여 ‘행복한 중기씨’ 네이버 블로그와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게시하였다.

라. 지방 중소기업 지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공제사업센터에서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핵심 이슈 반영을 위해 총 587건의 중소기업계 경영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달하였다. 또한 지방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실태파악을 위한 동향조사를 97건 수행하였으며, 애로 파악 및 정책건의를 위한 지자체장 간담회 등 각종 회의를 259회 실시하였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 육성시책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신규 설립·기능활성화·사업계획 편성 등 조합 운영지도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조직화에 기여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전개하였다.

제13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

일반현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4년 12월 27일 설립되었으며,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을 통해 명실 공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기업간 협력사업 추진

1) 공동투자형 기술개발(구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2008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R&D 시장밀착형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이 투자기업으로 참여하는 기금매칭형 R&D사업을 시작하였다.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수요가 있는 R&D 과제에 투자할 자금을 사전에 정부와 공동으로 조성한 후,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이 일정기간 구매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향후 판로까지 확보할 수 있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재단은 96개 투자기업과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7,949억원 조성하였고, 1,183개 과제 총 6,025억원 규모로 과제를 선정·지원하였다.

표 IV-13-1-1 |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협력기금 조성 현황(2021년도 말 기준)

구 분	공동투자 협약기금	투자기업명
민간 대+중견기업 (72개사)	5,505억원	포스코, 르노코리아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현대홈쇼핑, 삼성전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롯데마트, NS쇼핑, 스템코, LG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LS 엠트론, SK텔레콤, 포스코에너지, 케이티, KCC건설, 한화시스템, 네이버, 현대퓨처넷, 현대 바이오랜드, 인켈, 한솔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인성정보, 크루셀텍, 경창산업, 동양물산 기업, 휴맥스, 오택캐리어, 아진산업, 대동공업, 디아이씨, 토타, 국제종합기계, 세하, 아이즈 비전, SFA반도체, 대상, JW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삼지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 다산네트웍스, 파워로직스, 케이엠더블유, 미래나노텍, 루멘스, 대교, 이엘케이, 웅진에너지, 용산, 이래에이 엠에스, 에스에너지, 렉스코, 뉴프렉스, 필옵틱스, 엠씨넥스, 진영지엔티, 성림첨단산업, 한백 종합건설, 탐엔지니어링, JW바이오사이언스, 라이온컴텍, 아세아텍, 남양벡스코, 토비스, 삼화 페인트공업, 에스지이
공공 (24개사)	2,444억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 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에스알, 도로교통공단

재단은 지속적인 투자기업 발굴을 통해 기금조성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사업의 투자기업 관리기관으로서 과제를 발굴하고 효율적 기금집행을 위한 사업수행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2)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제품을 보유하고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중소기업 공동의 수출활동을 지원한다.

주요 동반진출 과제유형은 글로벌 국내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거점 활용지원”, 국내 TV홈쇼핑사의 해외채널을 활용한 “해외홈쇼핑 판매지원”, 글로벌 한류문화 행사, 스타IP, 한류콘텐츠를 활용하는 “한류연계 마케팅지원”으로 구분된다.

해외거점활용 지원사업은 대·공기업이 갖고 있는 글로벌 거점과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수주한 글로벌 프로젝트에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거나, 해외유명전시회에 대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공동부스(Booth in Booth) 형태로 지원한다.

해외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은 국내TV홈쇼핑사가 보유한 13개국 26개 채널에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해외 홈쇼핑사 MD⁴⁰⁾들과의 미팅을 통해 현지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 제품 수출전략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류연계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한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외국인들이 한국 제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관련 대기업과 협업하여 KCON⁴¹⁾ 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N-13-1-2 | 해외동반진출 지원 현황(2021년도 말 기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주관기업 과제수(개)	39	45	75	108	65	76	408
지원중소기업수(개)	1,386	1,250	1,189	1,865	1,111	1,410	8,211

40) Merchandiser의 약자로, 유통기업군에서 판매할 제품의 구매, 추천 등을 수행하는 직무

41) CJ&M이 해외에서 주관하는 K-pop문화연계 Concert, Convention, Contents의 약자

3)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운영

본 사업은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등 참여기업과 함께 1차 및 2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 지원한다.

정부와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협력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0년간 총 249개 컨소시엄, 2,124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였다.

표 N-13-1-3 |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사업 참여 현황(2021년도 말 기준)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누적)
컨소시엄 수(개)	10	12	18	16	20	22	30	39	40	42	249
중소기업 수(개)	125	143	121	108	159	163	198	332	350	425	2,124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형 혁신과제 수행으로 성과분석 결과 부가가치생산성은 5.2% 달성, 매출액증가율은 9.7%, 영업이익률 5.9%, 부가가치율 26.2%로 조사되었고, KPI 개선율은 111.4%, 달성률 123.1%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성과공유제 확산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공동협력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모델이다. 2004년 포스코에서 최초 도입 후 민간자율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2012년 4월부터 성과공유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확인제 운영 이후 2021년 말 기준으로 성과공유제 등록기업은 총 539개, 등록과제 24,236건, 확인과제 11,470건, 참여 수탁기업은 12,833개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표 N-13-1-4 | 성과공유 확인제 현황(2021년도 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등록기업(개)	270	23	103	73	30	40	539
등록과제(건)	8,796	2,079	2,338	3,169	3,541	4,313	24,236
확인과제(건)	3,305	1,281	1,351	1,482	1,884	2,167	11,470
참여 수탁기업	4,381	1,196	1,192	1,656	2,123	2,285	12,833

재단은 제도확산을 위해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성과공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기업에게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운영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에 따라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를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존의 성과공유제가 수용할 수 없는 협력유형으로서 제도 도입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수행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2018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등록기업(누적)은 2018년 5개사로 시작하여 2019년 56개사, 2020년 106개사, 2021년 164개사로 확대되었으며, 등록과제(누적)는 2018년 6개에서 2019년 561개, 2020년 1,992개, 2021년 4,747개로 증가하였고, 참여 협력기업(누적)은 2018년 6개사에서 2019년 506개사, 2020년 1,685개사, 2021년 3,940개사로 확대되었다.

2)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운영·관리

2010년 정부는 민간중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정착·확산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2011년 삼성전자가 출연한 1,0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말 누적 기준 341개 기업으로부터 1조 8,328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68,69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 5,362억 원이 지원되었다.

표 IV-13-1-5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원, 개, 2021년도 말 기준)

구분	출 연				지 원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등	합 계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등	합 계
금 액	12,975	3,028	2,324	18,328	10,940	2,828	1,594	15,362
기 업	146	91	104	341	176,091	15,063	77,539	268,693

2019년 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일몰 예정이었던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출연금의 10%)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2021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임에도 기업들이 사회적 역할과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등으로 전년대비 약 43% 증가한 3,681억원을 출연하여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출연기업 유형에 따라 대기업 2,325억원, 공공기관 539억원, 기타 국내 협·단체 등에서 817억원을 출연하였다.

상생협력기금은 성과의 공평한 배분,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관리, 혁신창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IV-13-1-6 | 2021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사용용도별 출연규모

(단위 : 억원, 2021년도 말 기준)

구 분	투자재원	기술협력	스마트 공장	생산성 향상	성과배분	판로지원	창업지원	기타	합계
출연금액	2,490	323	271	181	209	14	66	127	3,681
비 율	67.6%	8.8%	7.4%	4.9%	5.7%	0.4%	1.8%	3.5%	100.0%

* 투자재원 : 내국법인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동

3)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본 사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협력사 간 상생협력 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자사 협력사 외 미거래 중소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별 자율적 상생협력 활동 및 협력사 등록절차를 안내하여 상생협력 종합 플랫폼(상생누리) 정착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표 N-13-1-7 | 지원 범위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2020년도 말 기준)

구분	지원 범위	등록	
		건수	비율
협력사 지원	기존 협력사	2,660	29.2%
계열사 오픈	기존 협력사+계열사 협력사	62	0.7%
부분 오픈	기존 협력사(%)+미거래 기업(%)	591	6.5%
전체 오픈	모든 중소기업	5,795	63.6%
합 계		9,108	100.0%

표 N-13-1-8 | 지원 분야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2020년도 말 기준)

부 문	2016~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누적)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교 육	443	25.73%	596	32.40%	633	26.80%	764	24.00%	2,436	28.20%
판 로	291	16.90%	251	13.60%	340	14.40%	482	15.14%	1,364	14.90%
컨 설 팅	178	10.34%	153	8.30%	190	8.00%	256	8.04%	777	8.80%
기 술	162	9.41%	152	8.30%	257	10.90%	380	11.94%	951	9.60%
특 허	37	2.15%	23	1.20%	30	1.30%	29	0.91%	119	1.50%
금 융	165	9.58%	202	11.00%	317	13.40%	415	13.04%	1,099	11.50%
창 업	65	3.77%	62	3.40%	84	3.60%	102	3.20%	313	3.60%
인 력	52	3.02%	59	3.20%	90	3.80%	108	3.39%	309	3.40%
네트워킹	34	1.97%	41	2.20%	18	0.80%	22	0.69%	115	1.60%
기 타	295	17.13%	302	16.40%	403	17.10%	625	19.64%	1,625	16.90%
합 계	1,722	100%	1,841	100%	2,362	100%	3,183	100%	9,108	100%

4) 상생결제제도 운영

2차 이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을 목표로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발표('14.11.17)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까지 총 운용액은 670조 4,994억 원, 구매기업은 545개(민간 351개, 공공 194개), 거래기업은 149,641개(1개 거래기업이 여러 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1개로 산정)가 상생결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총 11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상생결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상생결제 정의(제2조의 제8호의2) 및 협력재단의 제도 운영 업무(제20조제2항제8호)를 추가하였으며,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 의무화(제22조제5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 N-13-1-9 | 상생결제제도 운용현황(2021년도 말 기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총 운용액(억원)	245,931	666,643	935,990	1,074,323	1,155,713	1,198,570	1,427,824	6,704,994
구매-1차(억원)	242,716	658,026	925,797	1,061,231	1,138,789	1,176,986	1,400,776	6,604,321
1차 이하(억원)	3,215	8,617	10,193	13,092	16,924	21,584	27,048	100,673

표 N-13-1-10 |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2021년도 말 기준)

[소관부처]정책명	상세내용
[산업부] '14. 11. 17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	2. 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3. 중소기업의 수입 안정화를 위한 결제제도 혁신 - 대기업 신용을 활용한 "상생결제시스템" 자율 구축 및 확산
[공정위] '15. 1. 13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방안	4.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 대기업 신용을 활용한 '상생결제시스템*'의 자율 확산을 통해 2~3차 협력사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를 지원
[관계부처합동] '15. 12. 16 2016년 경제정책방향	2-1 기초가 튼튼한 경제 ⑤ (대·중소기업 상생)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하고 대·중소기업간 원활한 자금순환 유도 - 대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에 대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대금의 0.1~0.2%)
[공정위] '16. 4. 7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2. 직불 유형 □ 하도급대금 직불 유형으로는 ①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상생결제시스템(산업부 운영)', '대금e바로(서울시 운영)' 등 대금지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 등이 있음
[공정위] '17. 6. 28 하도급 지급 보증면제 지정고시(제2017-8호)	○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대금지급보증 면제 요건 중 상생결제시스템이 유일한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지정 고시됨
[기재부] '17. 12. 1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조특법 제7조의4제1항)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 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중기부] '18. 9. 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상생협력법 제2조의제8호의2) 상생결제 정의, (제20조제2항제8호) 협력재단 업무 추가, (제22조제5항)상생결제 의무화, (제27조제3항 및 제4항) 포상 및 세제지원 등 신설 및 개정
[관계부처합동] '19. 12. 16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2.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① 상생결제 활성화 △2차 협력사 이하로의 상생결제 활성화 △ 공공기관이 상생결제 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참여 확대 △ 상생결제의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인프라 확충
[관계부처합동] '20. 5. 15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II. 임금직접지급제 강화, 1.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②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시스템 △ 모든 선금선지급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거쳐 처리·관리되도록 상생결제시스템 기능 개선 등
[중기부] '21. 10. 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 근거를 마련(제2조 제8호의3, 제22조 제6항)

5) 동반성장 커뮤니티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정하여 상생협력 관련 다양한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있다.

표 N-13-1-11 | 연도별 동반성장 주간 개최 현황(최근 5개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최일자	'17.11.1(수)	'18.10.31(수)	'19.11.6(수)	'20.11.4(수)	'21.11.3(수)
개최장소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동반성장 주간 행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을 시상함과 동시에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N-13-1-12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실적(2021년도 말 기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동반성장 포상(점)	216	51	56	58	61	442

6)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 사업

본 사업은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 등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을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대·중견·강소기업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기술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사업 공고를 통해 최종 169개사(258명)의 매칭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표 N-13-1-13 | 업종별 지원 현황(2021년도 말 기준)

구분	건설	제조	정보통신	전기/전자	자동차/조선	S/W	기타	합계
기업수(개)	3	64	15	18	22	21	26	169
비중	1.8%	37.9%	8.9%	10.7%	13.0%	12.4%	15.4%	100.0%
인원수(명)	4	99	19	26	34	30	46	258
비중	1.6%	38.4%	7.4%	10.1%	13.2%	11.6%	17.8%	100.0%

* 기타 : 기계, 식품, 서비스, 기타 제조업

다.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1)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위탁 받아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이나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공정거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근거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N-13-1-14 |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2021년도 말 기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사전분쟁조정(건)	20	22	33	31	34	38	47	84	309
법률상담·자문(건)	303	391	449	548	731	667	801	1,017	4,907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4.11)에 근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14.12)되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보호역량 수준 강화를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기술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공공기관, 중소기업 임직원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지원 사업 브로슈어, 기술보호 가이드, 피해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표 N-13-1-15 |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 지원현황(2021년도 말 기준)

(단위 : 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기술보호 상담·자문	3,751	4,672	5,929	6,545	6,772	7,507	7,931	43,107
기술자료 임치	25,185	9,467	9,216	9,522	9,378	9,704	11,777	84,249
기술분쟁 조정·중재	22	17	19	19	21	30	25	153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97	44	34	46	55	56	59	391
기술보호지원반	-	-	-	24	30	169	181	404
법무지원단	-	-	-	60	47	164	183	454

3) 중소기업 적합업종

본 제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2010년 9월)의 일환으로 동반성장 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를 합의 도출하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확장자제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334개 업종·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신청하였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총 122개 업종·품목을 합의·권고(최초 합의·권고 기준 적합업종 110개, 시장감시 3개, 상생협약 9개) 하였다. 2021년에는 신규로 1개 업종·품목(상생협약 체결)을 운영하였고, 상생협약 기간이 도래한 18개 업종·품목에 대해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기로 합의를 이끌었다.

표 N-13-1-16 | 20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권고 현황(2021년도 말 기준)

신청접수 (a+b+c+d)	진행중 (a)	합의·권고(53) (b)			해제 (c)	철회·반려 (d)
		적합업종	시장감시	상생협약		
334	9	5	1	47	69	203

4) 생계형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민간 자율 기반의 한시적 권고로 운영되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상공인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고, 2018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18.6.12)·시행(18.12.13) 되었다.

2019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26개 업종·품목을 접수하였으며, 신청·접수된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1개 업종·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였다.

표 N-13-1-17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현황(2021년도 말 기준)

구분	업종·품목명
제조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가스연료 소매업」
서비스업	「간장 제조업」, 「된장 제조업」, 「고추장 제조업」, 「청국장 제조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국수 제조업」, 「냉면 제조업」,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5)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본 사업은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품목별 공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201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영세한 업종·품목의 중·소상공인이 공정·경영 개선, 원가·비용절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업종·품목 공동의 자생력 확보할 수 있도록 26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N-13-1-18 |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현황(2021년도 말 기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과제수	11개	20개	11개	15개	26개	25개	26개

* '19년도 이후 지원예산 확대에 따라 지원과제 수 증가

제14장 신용보증기금

1

일반현황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이다.

신보는 1976년 6월 설립 이후 신용보증, 신용보험, 산업기반신용보증, 경영지도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지난 46년 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유통과 국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시장의 급격한 신용경색을 차단하고,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경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지원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보증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는 등 경제의 확실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결제기간, 고용, 부가세 등 상거래 관련 정보를 활용한 상거래 신용지수 연계 보증을 적극 지원하고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운영하는 등 혁신금융 추진 노력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신보는 총 65.3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여 국가경제기반 강화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2조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거래안전망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2.6조원의 산업기반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신용보증

1) 2021년도 기본방향 및 신용보증현황

가) 2021년도 기본방향

신보는 2021년 주요 추진과제로 ‘정책금융 지속 추진’, ‘新성장동력 발굴 지원’, ‘혁신금융 기반 구축’, ‘포용적 금융 강화’를 선정하였다.

나) 신용보증현황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기업의 지속적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우대보증’,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총 65.3조원의 보증을 공급하였고, 2021년 말 기준 총보증잔액은 78.6조원이다.

표 N-14-1-1 | 최근 3년간 신용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보증잔액	522,161	671,531	785,888
총보증공급	490,878	653,758	652,866
보증업체수	209,765	424,090	607,819

2) 추진과제별 주요 추진 실적

가) 정책금융 지속 추진

①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지속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2.6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4.1조원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코로나19 P-CBO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4.3조원을 공급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하였다.

②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제조업 혁신의 원동력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강화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금융을 지속 추진하였다.

나) 新성장동력 발굴 지원

① 新성장동력분야 특화지원 프로그램 도입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新성장동력분야의 기업별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심사를 통한 적기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혁신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② 기술혁신기업 지원 및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기술성 중심의 Tech - Value 보증을 도입하여 평가 대상을 확대, 전문평가모형 활용, 기술기업에 대한 우대 강화 등 기술 기반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약식 지식 재산(IP)가치 평가모형 도입을 통해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③ 공동 프로젝트 보증 확대 및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시스템 고도화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다양한 산업 특성을 프로젝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 보증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운영 성과 및 효과 분석, 제도보완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운용하는 등 핵심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였다.

④ 보증연계투자 등 직접금융 활성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도입으로 기업성장 촉진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하고 투자기업 후속·공동 투자 기회 마련으로 Scale - up을 지원하였다.

다) 혁신금융 활성화 기반 구축

①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고객 서비스 강화

고객 제출자료 Zero화, 온라인 신용평가, 디지털기한연장 시스템 구축 등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쉽고 빠른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를 개선하고 기업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가공,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②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금융 서비스 제공

기업이 데이터를 제공하면 기업의 동태적 경영활동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정보 자동수집 시스템과 축적된 기업 데이터를 온라인 전용 보증상품에 활용하는 비대면 보증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③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 서비스 부문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창출·유지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④ 기업 성장단계 등을 고려한 재기지원 활성화

위기기업의 부실예방 및 재도약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회생기업의 성공 재기 견인을 위한 신규자금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기업 성장단계와 채무자의 환경을 고려한 재기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⑤ 재도약·재도전 비금융지원 활성화

재도약·재도전 프로그램 지원기업에 대한 비금융지원(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여 (재)실패 방지 등 성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실패기업의 재도전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재도약·재도전 지원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라) 포용적 금융 강화

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인프라 확산 및 사후관리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한국사회적 기업 진흥원과 실시간 인증정보 공유를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보증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정교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②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기반 확충

사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협약은행을 지속 확대하는 등 채권은행과의 공조를 통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다.

나. 신용보험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거래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거래안전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의 신규 거래처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여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도입 첫 해인 1997년에 어음보험 업무를 개시한 뒤, 2004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대상을 외상매출금까지 확대한 매출채권보험을 시행하였고, 2015년 보험가입 대상기업을 일부 부적합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2019년 보험 가입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모든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2021년 신용보험 인수총액은 총 20조 1,921억원으로 연간 목표 20조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보험 수요 및 경제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인수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기업을 위해 코로나19 우대 보험 5,007억원을 인수하여 약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였고, 지자체 협약보험을 14곳의 광역·기초 지자체로 확대하며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보험 진입장벽 최소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금융 접점인 은행권의 영업망을 활용한 매출채권보험 모집업무 위탁제도를 시행하여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중 및 지방은행으로의 협약 확산을 통해 시장 저변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 정보제공 동의, 보험 내역 단순 조회 등에 한정된 모바일 플랫폼(App)의 기능을 인수 심사 및 보험금 지급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폭 개선하였고, 온라인 보험 상품군 및 보험 한도 확대 등 고객 선택권 및 접근성 강화로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표 N-14-1-2 | 신용보험 보험 인수 및 보험금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수총액	196,977	201,605	201,442	203,511	201,921
보험금지급	574	786	765	603	608

다. 산업기반(인프라)신용보증

신보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통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8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주요업무로는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민간투자제도의 연구·개발, 금융컨설팅, 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등이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총 13개 사업에 2조 5,642억원의 보증 공급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판 뉴딜, ESG 활성화 등 정부 역점사업(10,776억원) 및 요금인하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9,114억원) 등 정책보증기관의 역할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증을 공급하였다.

그 밖에 도시안전망 고도화 사업, 폐기물 처리단지 등에 보증을 공급하여 국민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였고, 비수도권 지역 인프라사업 지원 확대(55.7% → 61.8%)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민자시장 수요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

표 N-14-1-3 | 산업기반(인프라)신용보증 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보증공급	18,102	20,513	25,642
보증잔액	111,559	114,001	127,402
사 업 수	7	12	13

라.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용보증기금은 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 6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라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이라 함)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완성보증은 문화상품 제작기업이 콘텐츠 제작 완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제작기업은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전담조직 신설, 문화콘텐츠평가모형 개발 등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콘텐츠 기업을 지원 중에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총 121건의 제작 프로젝트에 451억원의 완성보증을 공급하였다. 프로젝트의 완성 가능성과 흥행성을 외부자문과 내부평가단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문화콘텐츠 장르별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등 사고 발생과 채무불이행 없이 안정적으로 완성보증 계정을 운용하였다.

또한, 방송/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공연,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해 신규 보증을 지원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제15장

중소기업은행

1

일반현황

중소기업은행(이하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1장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1년 8월 1일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헌법제123조 3항에 명시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과 어음 할인, 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 등의 발행,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국고대리점, 지급 승락, 정부·한국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수행 등이 있다.

출범 초기인 1960~1970년대에는 외화 획득에 기여하며 시설재 도입 및 원자재 구입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선진화된 경영 기술 지도를 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체계화하며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0~9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의 개방 정책, 경제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조 속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창업 및 신기술 기업화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의 균형 성장에 기여하였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는 든든한 은행’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2020년 IBK기업은행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비전과 함께 「IBK혁신경영」을 선포하며 이를 전면 시행하였다. 「IBK혁신경영」은 기존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여 국가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혁신금융’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바른경영’의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21년에는 「IBK혁신경영」을 본격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2021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IBK기업은행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1년 말 기준 자산 368조원(신탁자산 제외), 당기순이익 2조 24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중기대출 잔액 200조원 돌파, 3년 연속 英 The Banker誌 선정 글로벌 100대은행 진입 (2021년 88위), 2020년도 국책은행 경영평가 A등급 달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자금조달

2021년 말 IBK기업은행의 자금조달 잔액은 2020년 말에 비하여 33조 2,187억원 증가한 368조 1,775억원을 기록했다.

자금조달 잔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예수금이 2020년 말 대비 16조 3,820억원 증가한 153조 1,653억원을 기록하였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132조 3,032억원으로 11조 1,098억원 증가, 차입금은 40조 2,382억원으로 4조 9,112억원 증가, 자본은 25조 5,929억원으로 1조 9,668억원 증가하였다. 그밖에 기타 재원은 16조 8,779억원으로 1조 1,811억원 감소하였다.

자금조달의 잔액별 구성비는 예수금 41.6%, 중소기업금융채권 35.9%, 차입금 10.9%, 자본 및 기타 부문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1-1 | 자금조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말		2021년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잔 액	구성비	
예수금	136,783,217	40.9	153,165,259	41.6	16,382,042
중소기업금융채권	121,193,446	36.2	132,303,230	35.9	11,109,784
차입금	35,327,044	10.5	40,238,241	10.9	4,911,197
(정부 및 기금)	(17,887,691)	5.3	(20,137,816)	5.5	(2,250,125)
(한은 등 기타차입)	(17,439,353)	5.2	(20,100,425)	5.5	(2,661,072)
자 본	23,596,142	7.0	25,592,892	7.0	1,996,750
기 타	18,058,982	5.4	16,877,876	4.6	△1,181,106
합 계	334,958,831	100.0	368,177,498	100.0	33,218,667

나. 자금공급

2021년 중 IBK기업은행은 공급액 기준으로 2020년 중 대비 13조 4,360억원 감소한 74조 4,804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이 중 대출금 공급액이 13조 7,961억원 감소하였고, 투자 공급액은 3,601억원 증가하였다.

2021년 말 대출금 잔액은 2020년 말 대비 20조 5,673억원 증가한 254조 312억원, 투자 잔액은 6,099억원 증가한 2조 1,766억원을 기록했다.

표 N-15-1-2 | 자금공급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공 급			잔 액		
	2020년 중	2021년 중	증감액	2020년 말	2021년 말	증감액
대 출 금	874,150	736,189	△137,961	2,334,639	2,540,312	205,673
투 자	5,014	8,615	3,601	15,667	21,766	6,099
합 계	879,164	744,804	△134,360	2,350,306	2,562,078	211,772

1) 지원대상별 대출현황

2021년 중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금대출로 58조 9,604억원을 공급하였고 41조 8,711억원을 회수하였다. 그 결과 2021년 말 중소기업자금대출 잔액은 2020년 말 대비 17조 893억원 증가한 203조 8,662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80.3%를 차지하였다.

가계자금대출은 11조 4,950억원이 공급되었고 8조 8,923억원이 회수되면서 잔액은 41조 1,178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16.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대기업 및 공공기타 대출은 2021년 말 기준 9조 472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N-15-1-3 | 지원대상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말		2021년중		2021년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공 급	회 수	잔 액	구성비	
중소기업자금	186,776,928	80.0	58,960,360	41,871,058	203,866,230	80.3	17,089,302
가계자금	38,515,147	16.5	11,494,969	8,892,273	41,117,843	16.2	2,602,696
대기업 및 공공기타	8,171,775	3.5	3,163,573	2,288,181	9,047,167	3.5	875,392
계	233,463,850	100.0	73,618,902	53,051,512	254,031,240	100.0	20,567,390

2) 재원별 대출현황

2021년 중 재원별 대출 실적을 보면 금융자금은 65조 2,910억원을 공급하고 47조 3,155억원을 회수하였다. 기금 및 재정자금은 7조 5,391억원을 공급하고 5조 4,829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외화자금은 7,887억원을 공급 및 2,531억원을 회수하였다.

2021년 말 기준 재원별 대출금 잔액은 금융자금이 232조 6,927억원으로 총 대출금의 91.6%를 차지하였고, 기금 및 재정자금이 19조 2,319억원으로 7.6%, 외화자금이 2조 1,067억원으로 0.8%를 차지하였다.

표 N-15-1-4 | 재원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말		2021년중		2021년말		증감액
	잔액	구성비	공급	회수	잔액	구성비	
금융자금	214,717,144	92.0	65,291,047	47,315,522	232,692,669	91.6	17,975,525
기금및재정자금	17,175,651	7.4	7,539,124	5,482,891	19,231,884	7.6	2,056,233
차관자금	-	-	-	-	-	-	-
외화자금	1,571,055	0.7	788,731	253,099	2,106,687	0.8	535,632
합계	233,463,850	100.0	73,618,902	53,051,512	254,031,240	100.0	20,567,390

가) 금융자금대출

IBK기업은행의 대출금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금융자금대출의 2021년 말 잔액은 232조 6,927억원으로 2020년 말보다 17조 9,755억원이 증가하였다. 잔액 구성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자금대출이 183조 3,477억원으로 총액의 78.8%,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은 49조 3,450억원으로 총액의 21.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N-15-1-5 | 금융자금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말		2021년 중		2021년 말		증감액
	잔액	구성비	공급	회수	잔액	구성비	
중소기업자금	168,853,498	78.6	50,759,207	36,264,999	183,347,706	78.8	14,494,208
일반자금	45,863,646	21.4	14,531,840	11,050,523	49,344,963	21.2	3,481,317
합계	214,717,144	100.0	65,291,047	47,315,522	232,692,669	100.0	17,975,525

나) 기금 및 재정자금대출

2021년 말 현재 각종 기금 및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의 잔액은 19조 2,370억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조 532억원 증가하였다. 대출잔액 구성을 살펴보면, 온렌딩자금이 6조 8,514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35.6%)을 차지하였으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3조 9,721억원(20.6%), 해외온렌딩자금이 3조 9,361억원(20.5%), 지방구조조정자금이 1조 6,802억원(8.7%),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이 6,142억원(3.2%), 환경정책자금이 5,157억원(2.7%)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용도별 대출현황

2021년 중 IBK기업은행의 용도별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운전자금으로 46조 5,826억원, 시설자금으로 27조 363억원을 공급하였다. 2021년 말 기준 운전자금 잔액은 2020년에 비해 8조 2,216억원 증가한 152조 1,149억원이고, 시설자금은 12조 3,458억원 증가하여 101조 9,164억원을 기록하였다. 전체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운전자금이 2020년 말 61.6%에서 2020년 말 59.9%로 감소한 반면 시설자금은 38.4%에서 40.1%로 증가하였다.

표 IV-15-1-6 | 용도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말		2021년 중		2021년 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공 급	회 수	잔 액	구성비	
운전자금	143,893,279	61.6	46,582,575	38,361,004	152,114,850	59.9	8,221,571
(금융자금)	(134,739,218)	57.7	(41,369,712)	(34,451,264)	(141,657,666)	55.8	6,918,448
(기금및재정자금)	(8,852,461)	3.8	(5,002,565)	(3,784,617)	(10,070,409)	4.0	1,217,948
(외화대출금)	(301,600)	0.1	(210,298)	(125,123)	(386,775)	0.1	85,175
시설자금	89,570,571	38.4	27,036,327	14,690,508	101,916,390	40.1	12,345,819
(금융자금)	(79,977,926)	34.3	(23,921,335)	(12,864,258)	(91,035,003)	35.8	11,057,077
(기금및재정자금)	(8,323,190)	3.6	(2,536,559)	(1,698,274)	(9,161,475)	3.6	838,285
(외화대출금)	(1,269,455)	0.5	(578,433)	(127,976)	(1,719,912)	0.7	450,457
(차관자금)	(-)	(-)	(-)	(-)	(-)	(-)	(-)
합계	233,463,850	100.0	73,618,902	53,051,512	254,031,240	100.0	20,567,390

4) 산업별 대출현황

2021년에는 광업을 제외하고 산업별 대출잔액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2021년 말 산업별 잔액 및 비중 변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년 말에 비해 8조 281억원 늘어난 112조 7,996억원을 기록했지만 비중은 44.4%로 다소 하락하였다. 한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2020년 말 대비 3조 2,228억원 증가한 38조 98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비중은 0.1%p 증가한 15.0%를 차지했다.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2021년 말 잔액은 2020년 말 대비 3조 9,754억원 증가한 31조 6,802억원을 기록하였고 비중은 11.9%에서 12.5%로 0.6%p 상승했다.

표 N-15-1-7 | 산업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말		2021년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잔 액	구성비	
농업임업 및 어업	304,580	0.1	326,295	0.1	21,715
광 업	224,066	0.1	223,838	0.1	△228
제 조 업	104,771,432	44.9	112,799,577	44.4	8,028,145
(음식료업)	(4,686,360)	(2.0)	(5,303,420)	(2.1)	617,060
(섬유, 의복 및 가죽)	(6,294,683)	(2.7)	(6,705,174)	(2.6)	410,491
(목재, 나무제품 및 가구)	(1,324,845)	(0.6)	(1,357,004)	(0.5)	32,159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	(3,941,347)	(1.7)	(4,334,261)	(1.7)	392,914
(석유·화학물·고무·플라스틱제품)	(16,508,694)	(7.1)	(17,932,183)	(7.1)	1,423,489
(비금속광물제품)	(2,946,852)	(1.3)	(3,093,227)	(1.2)	146,375
(제1차금속)	(5,972,303)	(2.6)	(6,478,190)	(2.6)	505,887
(조립금속제품, 기계및장비)	(59,950,834)	(25.8)	(64,042,985)	(25.2)	4,092,151
(기타제조업)	(3,145,514)	(1.3)	(3,553,133)	(1.4)	407,619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796,966	1.2	3,015,922	1.2	218,956
건 설 업	6,199,756	2.7	6,867,937	2.7	668,18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4,876,057	14.9	38,098,843	15.0	3,222,786
운수·창고 및 통신업	9,091,349	3.9	10,220,148	4.0	1,128,799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27,704,858	11.9	31,680,229	12.5	3,975,37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8,979,638	3.8	9,680,608	3.8	700,970
기타(개인대출)	38,515,148	16.5	41,117,843	16.2	2,602,695
합계	233,463,850	100.0	254,031,240	100.0	20,567,390

주 : 은행계정 총대출금 잔액 기준 (개인대출은 카드론 제외)

5) 투자 현황

2021년 중 IBK기업은행은 2020년 중에 비해 3,601억원 증가한 8,615억원을 투자하였다. 그 중 일반 부문에 대한 투자는 2020년 중 대비 3,628억원 증가한 6,976억원을 공급하였다. PEF는 22억원 감소한 1,423억원을 공급하였고, 문화콘텐츠 부문은 5억원 감소한 216억원을 공급하였다.

한편, 잔액 기준으로는 일반 부문에 대한 투자가 2020년 말에 비해 5,927억원 증가한 1조 5,985억원을 기록하였고, PEF는 242억원 증가한 5,223억원을 기록하였다. 반면, 문화콘텐츠 부문은 70억원 감소한 558억원의 잔액을 기록했다.

표 IV-15-1-8 |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공 급			잔 액		
	2020년 중	2021년 중	증감액	2020년 말	2021년 말	증감액
일반투자	3,348	6,976	3,628	10,058	15,985	5,927
문화콘텐츠	221	216	△5	628	558	△70
PEF	1,445	1,423	△22	4,981	5,223	242
합계	5,014	8,615	3,601	15,667	21,766	6,099

주 : 간접투자는 실행금액 기준

다. 주요 정책금융

1) 시책별 중소기업자금 지원

IBK기업은행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16조 8,884억원을, 소재·부품·장비 산업자금은 23조 8,323억원을 공급하였으며, 혁신성장 영위기업에는 10조 6,188억원을 공급하였다. 또한 뉴딜분야 영위기업에는 7조 4,942억원을 2021년 중 지원하였다.

표 N-15-1-9 | 시책별 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중		계획 대비
	계획	공급액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140,000	168,884	28,884
소재·부품·장비 산업자금	200,000	238,323	38,323
혁신성장 영위기업	55,000	106,188	51,188
뉴딜분야 영위기업	26,000	74,942	48,942

2) 온렌딩자금에 의한 지원

온렌딩자금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게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수출기업, 지방소재기업, 창업·벤처기업지원,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등의 용도로 연중 2조 5,423억 원 공급되었으며, 2021년 말 잔액은 6조 8,514억 원을 기록했다.

해외온렌딩자금은 해외사업 수주 및 수출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지원한 자금으로 연중 2조 8,108억 원 공급되었으며, 2021년 말 잔액은 3조 9,361억 원이었다.

표 N-15-1-10 | 온렌딩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년 말 잔액	2021년 중		2021년 말 잔액
		공급	회수	
온렌딩자금	6,660,561	2,542,318	2,351,456	6,851,423
해외온렌딩자금	2,613,908	2,810,780	1,488,585	3,936,103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의한 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지원, 재도약지원, 신성장기반 조성 등에 연중 1조 160억 원을 공급하였다.

표 N-15-1-11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년 말 잔액	2021년 중		2021년 말 잔액
		공급	회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544,401	1,016,026	588,278	3,972,149

라. 주요 추진업무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선도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설비투자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리경쟁력을 보유한 정책성 시설자금 상품을 지원하여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담보를 활용하여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하였다. IBK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1차 프로그램)과 12개 은행이 참여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차 프로그램) 및 중저신용 업무협약으로 나뉜다.

IBK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2020년 1월 20일 시행되어 금리하한선 1.5% (2020년 3월 31일 이전 취급 분은 IBK기업은행 기준금리 적용), 최대 대출 한도 3천만원(신·기보 직접보증 : 1억원)으로 총 267,424개 업체에 약 7.8조원의 자금을 IBK기업은행 단독으로 공급을 완료하였다. 지원 대상은 개인 CB등급 1~6등급까지로, 만기일시 상환방식으로 1년 단위로 대출하여 최장 8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0년 5월 25일 시행(프로그램 내 집합제한업종은 2021년 1월 18일 추가 시행)되어 최대 금리 2.9%(2020년 9월 25일 이전 총 1천억원 한도 이내로 비대면 실행에 한하여 고정금리 2.8% 적용, 2020년 10월 23일 이후 총 5천억원 한도 이내로 비대면 실행에 한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1% 감면금리 적용), 최대 대출한도 2천만원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경우 67,788건의 대출로 약 1.2조원의 자금을,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7,896건의 대출로 약 0.09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지원 대상은 개인 CB등급 1~10등급까지로,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5년 만기방식으로 대출하여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중저신용 업무협약은 2021년 8월 5일 시행되어 CD유통수익률(91일물) + 1.6%p 금리, 최대 대출 한도 2천만원으로 1,128건의 대출로 약 0.0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방역지원금을 수혜 받은 업체이며,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5년 만기방식으로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구조이다.

표 N-15-1-12 | 정책성 시설자금 상품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상품명	주요 내용	2021년
대한민국 대 전환 특별자금	미래 핵심동력 산업영위기업 지원	15,013
환경·안전 설비투자펀드	환경 및 안전분야 신규 설비투자 지원	7,839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설비투자펀드	주력산업 및 신성장 분야 신규 설비투자 지원	7,654

IBK기업은행은 2018년 9월 중기대출 잔액 150조원을 달성 후, 2년 11개월 만에 200조원을 달성하였고, 2021년 12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03.9조원을 기록하였다. 2021년 12월말 기준 시장 점유비도 22.84%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며 중기금융 초격차를 확대하였다.

2) 코로나19 지속에 대응한 건전성 관리 강화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여신지원 결정과 함께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여 사전적으로 불건전 여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하였다.

그 중 「건전성 관리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영업활동이 위축된 집합제한 업종 영위기업 등 총 173개사에 대해 영업활동 리스크 점검을 하였고, 대출금 이자유예차주 및 금리상승에 따른 건전성 취약이 예상되는 기업 118개사에 대해서는 「신용위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유동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일시적인 등급하락 기업의 경우 ‘우선지원기업 및 우대어음 발행기업’ 자격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연착륙 지원을 통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였고 불건전여신의 이탈유도 등의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IBK금융주치의 프로그램 기업진단보고서」를 신용분석 업무에 활용하여 수기로 작성하던 신용분석 점검을 전산으로 자동 점검할 수 있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업무효율성 증대가 예상되고, 신용등급, 빅데이터등급 등을 활용한 「디지털 심사」를 개발하여 정량화된 수치 및 참고의견을 제시하고 신속한 여신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는 ESG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여신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ESG스코어링 기준」을 신설하였고, 재무성과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여신심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ESG경영 도입 및 지속가능성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3) 모험자본 전문은행으로 도약

IBK기업은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1조 5천억원의 모험자본 공급을 목표로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약 1조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536억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배 규모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과거 담보와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모험자본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IPO(기업공개)에 성공한 기업이 2019년 3개에서 2021년 13개로 증가하는 등 투자받은 기업의 성장이 가시화 되고 있다. 2021년 상장한 큐라클(대표 박광락), 원티드랩(대표 이복기)도 IBK기업은행이 직접투자한 혁신기업이다.

4) 금융주치의 프로그램 시행

가) 추진배경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도래한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별 맞춤형 처방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서 IBK기업은행의 역할과 금융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IBK기업은행은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과 기업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기업별 현황 및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분석·진단 후 맞춤형 지원책을 제시하여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특징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진단결과와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까지 담은 기업용 ‘종합건강검진 결과 보고서’ 개념의 보고서이며, 총자산 30억원 이상 제조업(1단계)·비제조업(2단계) 중소기업이 진단 대상으로 추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대상기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은 차별화된 중기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진단 ⇒ 맞춤형 처방 ⇒ 연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금융주치의 역할 수행하고 있으며, ❶비대면화, ❷자동화, ❸진단 다각화, ❹정보 시각화, ❺분석 고도화 등 차별화된 특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 금융전문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 기술금융 · IP담보대출 공급 확대

IBK기업은행은 2021년 코로나19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술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한 결과 은행권 기술금융대출 점유비 1위(잔액 기준 29.6%, 93.6조원)를 기록하였다. 또한 기술금융의 내실성장을 위해 대출·투자심사 역량 강화 및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준수 등으로 기술금융 질적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실적평가인 「TECH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달성하였다.

한편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IP 사업화자금 대출」의 지원을 확대하여 2021년말까지 총 6,449억원을 지원하였다. 은행권 최대 규모의 IP담보대출 공급으로 정부의 IP금융 활성화 기여에 공로를 인정받아 특허청으로부터 「IP금융 활성화 유공」 표창을 수상하는 등 기술금융 선도은행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6) IBK창공을 통한 혁신 창업기업 지원

IBK창공(創工)은 IBK기업은행의 축적된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컨설팅 역량 등을 바탕으로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IBK형 창업육성플랫폼으로, 선발된 기업에 투·융자 연계, 사무공간 제공, 멘토링, 맞춤형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등 차별화된 육성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IBK창공은 2017년 12월 마포 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 구로, 2019년 5월 부산 지역에 추가로 개소하였으며, 2021년 9월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협업을 통해 IBK창공 서울대캠프를 개소하여 대학교 내 (예비)창업자 조기 발굴·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1년 하반기 비대면 창업육성플랫폼 ‘온라인 창공’ 구축을 통해 주요 육성프로그램을 다수의 창업기업에 제공하여 창업기업 지원의 물리적 제약을 해소하였다.

IBK창공은 2021년 12월말 누계 기준 총 369개의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투·융자 등 금융지원 4,340억원, 멘토링, 컨설팅, IR 등 5,276회의 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며, 금융권 창업육성플랫폼을 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IBK기업은행은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자금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매년 20조원 이상의 자금공급 목표를 수립하여 지원 증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연간 공급목표 20조원을 초과한 23조 8,344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창업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7)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IBK컨설팅 수행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라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2011년 이후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컨설팅펌 출신의 경영컨설턴트,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 등 50여명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경영전략, 인사·노무 등을 포함하는 경영컨설팅과 기업승계, 세무·회계, M&A, 법률 등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중심의 중소기업 특화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2011년 이후 10,287건을 지원하여 총지원 건수 누적 1만건을 돌파 하였다.

IBK컨설팅 추진 실적



8) 기업 디지털금융 강화

가) 기업디지털 업무 프로세스 혁신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기간연장 완전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기업뱅킹에서 보증 신청부터 여신약정서 작성, 대출 실행까지 쏘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고객 편의 증대 및 영업점 창구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였다.

표 IV-15-1-13 |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채널별 기간연장 건수

(단위 : 천 건)

디지털채널 (기업뱅킹/소상공인앱/BOX)	기타비대면 (ARS/녹취)	영업점	합계
135 (56%)	83 (34%)	23 (10%)	241

나) 디지털 시대의 IBK 대표채널, 「i-ONE Bank」

‘i-ONE Bank’의 채널 개편과 서비스 신설, 신속한 고객 의견 반영을 통해 ‘2021 국가서비스대상 모바일뱅킹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디지털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메인화면 디자인 개편과 제휴 서비스 및 상품 확대, 개인화 기능을 강화하였다.

다)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디지털서비스 제공

IBK기업은행의 소상공인을 위한 생활금융서비스, 「i-ONE 소상공인」이 조선일보 주관 2021년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를 수상하였다. 출시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입고객 5만명을 돌파하였으며, banking기능, 금융新상품 탑재, 사장님 보고서 기능, 보험몰 신설 등 플랫폼을 고도화를 통해 소상공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라) 소상공인 결제지원 「IBK BOX POS」

IBK BOX POS는 고가의 카드결제 단말기(POS) 대신 앱(APP) 설치만으로 본인 스마트폰을 카드 결제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는 혁신 결제 서비스이다. 2021년 2월 런칭 후 연말까지 약 48천개의 기업이 가입하였고 총 결제건수는 57천건, 결제금액은 143억원에 달한다.

IBK BOX POS는 구입·설치·유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삼성페이·LG페이·제로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을 지원하며, 한 사업장에 소속된 여러 직원의 핸드폰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내외에서 서비스 혁신성을 인정받아 ‘2021 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대상’에서 금융연합회장상을 수상하였다.

9) 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 녹색전환에 대한 국내외 환경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녹색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가) 경영원칙, 규정, 프로세스 마련

국내외 녹색금융 경영원칙을 도입하고 접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에 운용 중인 탈석탄 경영원칙(해외 선언, 2021년 8월), 환경 경영·에너지 경영원칙(2021년), 신규투자 네거티브 스크리닝(배제대상, 유의대상) 규정(2021년 8월)에 더하여 적도원칙(2022년 2분기 내 가입목표) 등을 기반으로 녹색가치의 정의, 분류 및 판단기준을 확정하고 은행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 거버넌스(녹색전환위원회)를 신설하여 녹색금융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나) 녹색전환 지원 상품 및 서비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그린택소노미)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녹색기업 및 기타 녹색전환 활동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의 경우 동반성장협력대출 등 대기업과의 협약을 통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고탄소 중소기업에게 규제대응부터 업종전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다) 기후리스크 관리

기후리스크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기후리스크 관리 규정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6월 금융 공공기관 최초로 TCFD 지지 선언을 했으며, 4개 분야(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감축목표)에 대한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리스크 대응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라) 국제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국제표준과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녹색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지구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탄소배출권·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관련 국제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IBK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10) 기업시민 역할 강화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확대

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사회공헌

IBK기업은행은 2006년 3월 대기업에 비해 복지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공익재단인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총 615억원을 출연하였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9,600여명에게 'IBK장학금' 168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3,000여명에게 'IBK치료비' 130억 원을 지원하였다.

'IBK장학금' 수혜 대학생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게 일대일로 온라인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는 'IBK멘토링'도 운영하여 2021년 한해동안 멘토·멘티 각 100명이 2,002회(1,417시간)에 걸쳐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경제교육,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어린이집 운영

공단지역에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융권 최초로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협약하고, 2018년 4월 인천 남동공단에 금융권 최초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어린이집인 'IBK 남동사랑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며 2019년 3월 구미공단에 두번째 어린이집인 'IBK 구미사랑 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립에는 IBK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및 해당 지자체가 참여했고, IBK기업은행이 은행 점포의 유휴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2021년 기준 어린이집에는 남동공단 소재 34개 중소기업, 구미공단 소재 45개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기업 근로자 자녀라면 누구나 입원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편의를 고려하여 오후 9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도움으로써 중소기업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11)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채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구직난 완화를 목적으로 2009년 금융권 최초로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였다. 1차 중소기업 청년취업 프로젝트에 이어 현재 新일자리창출 10만명 프로젝트(2018~2022년)를 추진 중이며 2021년말 기준 누적 취업자 수 182,762명을 달성하였다.

나) 온라인 취업포털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 i-ONE JOB 운영을 통해 일자리창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인사담당자에게는 입사지원부터 합격자 등록까지 채용 쏘과정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원스탑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현직자멘토링, 취업진로컨설팅 등의 온라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구직자 직무, 연봉, 경력정보 등을 분석하여 AI 알고리즘이 최적의 기업을 추천해주는 AI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다) 일자리 박람회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알리고, 구직자와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한 IBK 일자리 박람회를 2009년부터 총 63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약 3천 3백 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5천명 이상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였고,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총괄 운영하고 있다.

라) 일자리 채용펀드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위해 2018년 총 600억원의 일자리 채용펀드를 조성하여 정규직원을 3개월 이상 채용한 기업에게 1인당 50만원의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152억원의 일자리 채용펀드를 지원하였다.

마) 사회적 약자 지원

IBK기업은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장애인 채용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채용지원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취업 우수 특성화고 재학생 장학금(20개교 50백만원)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 포상 및 인증

IBK기업은행은 新일자리창출 10만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 공로로 2021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하였으며,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 i-ONE JOB의 체계적 운영 성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인증하는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금융기관 최초로 획득하였다.

12) 수출·해외진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IBK기업은행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영향에 따른 수출입 영업환경 악화에도 수출·해외진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영업현장 지원으로 외국환 실적 1,532억 불을 거양하여 (목표대비 116.1%)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을 위해 세계 최대 할랄 온라인 수출입 박람회(MIHAS)에 참가하였고, 아마존 등과 연계한 온라인 수출전략 웹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해외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 정산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환율·수수료 우대와 금융컨설팅을 지원하였고, 해외 원자재가격·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금융·물류 혜택을 제공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입금융 특례를 실시하여 해당 수출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타발송금 자동입금 서비스 시행, 외화예금 비대면거래 신설, 해외송금 시 오픈뱅킹 적용 및 제47회 On-Tact IBK 무역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한편, OCR기반 금융제재 점검 프로세스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자동화로 외환 내부통제를 강화하였다.

13)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IBK기업은행은 2021년 9월 16일 네이버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약 3개월(2021.9월 ~ 12월)간 공동 운영하였다.

특히, '온라인 교육'과 '라이브 Q&A 상담·컨설팅'으로 구성된 동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기초 세무·노무·금융 상식 및 온라인 진출 관련 노하우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였다.

14) 중소기업 고객과의 교류 활성화

가) 최고경영자클럽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의 조항에 의거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우량 중소기업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경영자 클럽을 설립하였다. 정기 세미나와 지역분회 모임, 모범사원 선발 등 경영정보의 교류를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한 CEO들이 가장 가입하고 싶어 하는 명품 클럽으로 인정받고 있다.

나) 여성경영자클럽

IBK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여성기업 CEO들의 상호 교류 활동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경영자클럽을 설립하였다. 경영 아이디어 제공을 위한 명사 초청강연, 우수기업 방문 등 활발한 클럽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CEO 모임으로 발전하였다.

다) 미래경영자클럽

IBK기업은행은 45세 미만의 대표자, 가업승계 예정자 등 젊은 사업가들이 국가경제를 선도할 경영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미래경영자클럽을 설립하였다. 정기 세미나를 통한 경영정보 제공, 우수기업탐방, 지역분회 간담회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CEO들의 대표적인 교류 모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라) 주요활동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원 간 안전한 교류를 위해 전면 비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또한, 클럽 및 은행소식, 경제동향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클럽회원 전용 모바일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회원 간 소통을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클럽별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하고 현장소통 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진과 공유하였다.

마) 기업인 명예의 전당 운영

IBK기업은행은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인의 명예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세계 우량 기업으로 성장을 꿈꾸는 청년 사업가들의 도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업인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였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총 18회에 걸쳐 37명의 기업인을 헌액하였으며 2021년에는 특수전원장치, 가속기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주)다원시스 대표이사 박선순을 헌액자로 선정하였다.

본점 로비에 위치한 기업인 명예의 전당 기념관을 리모델링하여 2021년 8월 ‘기업인 명예의 전당 디지털 기념관’을 구축하였다. 기업제품 소개, 헌액자 인터뷰 등 200개 이상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영구보존하였으며, 평상시에는 은행 홍보 영상, 문화공연 등을 상영하여 IBK기업은행의 문화허브 공간 및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였다.

15) 중소기업 특화 조사연구 수행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의3(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기업지도 업무를 수행한다.)에 따라 IBK경제연구소를 은행장 직속 조직으로 두고, 현장 중심 및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IBK혁신금융’ 및 ‘코로나19’ 대응을 주요 미션으로 하여 각종 경제·경영 현안과 중소기업 이슈를 연구하였다.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경영환경과

중소기업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전망한 「2022년 경제·금융시장 전망과 중소기업」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등 여러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었고,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기 회복과정에서의 특징」 등 25건의 「IBK경제브리프」 소식지와 매월 글로벌 경제지표를 분석한 「IBK경제나침반」을 생산하여 경제·금융 관련 현황 정보를 적시 제공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ESG가이드」를 발간해 영업현장과 기업에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ESG경영 지원을 도왔다.

한편, 월간지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리포트」를 매월 58,000부 이상 발행하여 중소기업 CEO가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국가승인통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금융 연구에 활용 가능한 최신 통계자료를 발간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규제혁신·애로해소에 앞장선 중소기업을 선정·시상하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하여 바람직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조사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제16장

한국수출입은행

1

일반현황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76년 설립되었다.

수은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해외 건설·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 산업과 해외자원개발산업 등 국민경제에 긴요한 해외투자 사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국가 수출촉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장의 실패와 불균형 성장의 보완에도 힘쓰고 있다. 상업금융 제공이 어려운 대외거래 관련 리스크를 수용하여 국가 수출 진흥에 기여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으로 국가경제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수은은 그동안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전통적인 수주산업의 업황 약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을 위하여 ICT, 미래차 등 혁신 성장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은은 대출, 보증 및 투자의 형태로 거래기업 앞 여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대출 60조 4,127억원, 보증 11조 8,113억원, 투자 1,731억원 등 총 72조 3,971억원의 금융을 지원하였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중견기업 여신지원 현황

수은은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앞 여신지원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여 왔다. 2014년 수은법 개정 당시 제18조(업무)에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을 업무 분야로 명시하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의무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지원으로 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앞 여신지원 규모는 확대되어왔다. 2021년에는 수은 설립이래 최대규모인 31조 4,140억원을 중소·중견기업 앞 지원하였고,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운용을 통해 대기업 대비 담보력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의 담보제공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2021년 중소·중견기업 앞 대출 중 신용대출 지원 비중은 96.6%로, 지원한 대출 대부분을 신용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수은은 2020년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앞 신속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도입 이후 중소기업 총 215개사 앞 2,238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표 N-16-1-1 | 중소·중견기업 여신지원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은행 전체 여신	608,750	579,757	599,161	733,129	723,971
중소기업 여신 (비중)	92,835 (15.3%)	98,340 (17.0%)	106,511 (17.8%)	117,493 (16.0%)	114,977 (15.9%)
중견기업 여신 (비중)	155,547 (25.6%)	142,595 (24.6%)	161,478 (27.0%)	187,820 (25.6%)	199,163 (27.5%)
은행 전체 대출	513,601	487,454	514,066	638,363	604,127
중소기업 대출 (비중)	91,519 (17.8%)	97,720 (20.0%)	105,536 (20.5%)	116,435 (18.2%)	113,422 (18.8%)
중견기업 대출 (비중)	146,989 (28.6%)	133,845 (27.5%)	152,258 (29.6%)	181,173 (28.4%)	189,842 (31.4%)

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금융·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N-16-1-2 |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 개사, 억원,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선정	-	7	4	13	21
선정(인증)취소	8	9	9	15	3
육성기업	241	239	234	232	250
금융지원 금액	72,702	68,059	74,129	76,609	78,602
맞춤형 경영정보 서비스 지원	1,032	844	872	898	1,005

수은은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앞 금리우대 및 수출실적 인정한도 확대 등의 우대 지원을 제공하고 제품개발, 생산, 해외판매에 이르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다. 해외 온렌딩 프로그램

해외 온렌딩 프로그램은 중개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 기자재 및 혁신성장 영위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간접대출 프로그램이다. 중개 금융기관의 영업망을 활용하여, 정책자금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저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2015년 4월 도입되었다.

2021년말 기준 18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과 온렌딩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총 5조 8,767억원의 온렌딩 자금을 중소·중견기업 앞 지원하였다.

표 N-16-1-3 | 해외 온렌딩 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 개사,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개 기관수	11	14	17	18
지원 금액	24,265	30,184	34,655	58,767
중소기업 지원 금액	23,439	25,308	26,554	47,621

라. 상생금융 프로그램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중소·중견기업의 상생협력 거래에 대하여 금리우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립적 경쟁력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거래 형태에 따라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상생자금대출로 나뉘며, 2021년 총 2조 7,663억원의 상생금융을 지원하였다.

- *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 * 상생자금대출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

표 N-16-1-4 | 상생금융 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생금융 지원금액	18,520	29,886	35,356	27,663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7,799	8,324	8,923	7,670
상생자금대출	10,721	21,562	26,433	19,993

마. 수출단계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은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내수기업의 글로벌화부터 경쟁력 있는 수출 중견기업의 육성까지 기업의 수출규모 증가에 따른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프로그램

정부 선정 수출유망 내수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간 해외 직수출 1백만 불 이하의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초보 중소기업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수출실적의 100%까지) 등을 제공한다.

3) 수출초보졸업 중소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직수출 규모가 1백만 불 초과 10백만 불 이하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초보 중소기업 요건을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이다.

4) 중견전환가능 중소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앞 우대지원 지속으로 업체가 피터팬 증후군 없이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매출액 규모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다.

바.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수은은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중소·중견기업 대상) 또는 '외화 ↔ 여타 외화'(중소기업 한정)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선물환 거래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입계약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 금융서비스

수은은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중소·중견기업 대상) 또는 '외화 ↔ 여타 외화'(중소기업 한정)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선물환 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입계약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비금융서비스

대기업 대비 환위험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은은 환위험관리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환위험관리 필요성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17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일반현황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거 1962년 6월에 설립되었다.

1995년부터 무역과 투자의 상호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KOTRA에는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 지원기능이 추가되었다. 2003년부터 무역, 투자 분야의 노하우를 활용한 연수교육을 담당하였으며, 2008년에는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에 위한 Contact KOREA기능을 수행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단위 무역·투자·인재유치 전문기관으로 성장하여 왔다. 또한 2009년 10월부터 방산물자교역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수출계약 체결 시 당사자 지위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013년에는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우리 청년의 해외창업·취업 지원 업무를 수행중이다. 2020년부터는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무역투자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전사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굳건한 공급망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국가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KOTRA는 2022년 6월 현재 국내 12개 지원단과 해외 84개국 129개 무역관을 통해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1) KOTRA 지사화 사업

지사화 사업은 해외무역관에 소속된 전담직원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 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사화 사업을 통하여 수출중소기업은 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장조사, 바이어 조사, 현지 출장 지원, 인증취득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사화 사업은 참가기업별 전담직원이 현지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마케팅 노하우 축적이 가능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바이어와 지리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언어, 시차 등을 극복할 수 있어 유용한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N-17-1-1 | 지사화사업 연도별 주요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사화 업체 수(개사)	3,506	3,444	3,584	3,886	4,265
수출 성약 실적(백만불)	3,348	2,711	2,414	3,021	3,470

2) 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KOTRA는 해외 현지에 독자적인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워 직수출에 따른 물류비 과다 지출 및 현지 물류 인프라 부재로 수출확대에 애로가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현지 거래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물류 기업과 협력하여 통관, 입·출고, 보관, 포장, 배송, 반품지원 등 맞춤형 물류 풀필먼트, 마케팅 서비스 및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은 물류비 절감과 신속한 현지배송 등이 가능하다.

표 N-17-1-2 | 해외 공동물류센터 연도별 주요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참가기업수(개사)	202	146	176	897	1,079
수출성약실적(백만불)	361	162	168	1,156	2,517

3)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www.buykorea.org)

KOTRA는 B2B 사이트인 바이코리아를 통해 국내기업에게는 해외 바이어 오퍼를 공급하고, 해외 바이어에게는 한국기업의 상품정보를 홍보하여 국내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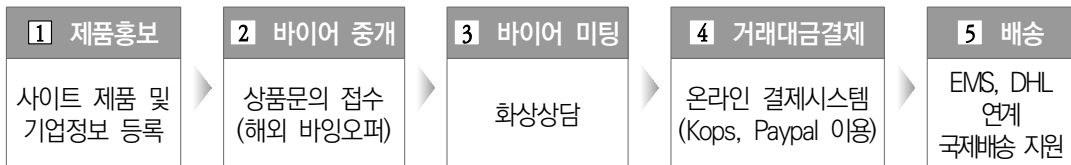


표 N-17-1-3 | buyKOREA.org 서비스 제공 내용

구 분	서비스 내용
수출상품 등록	- 수출상품등록·관리
바이어 오퍼 조회	- KOTRA 및 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오퍼 검색
인콰이어리 발송/수신	- 바이어 오퍼 검색 후 연락 희망 바이어에게 인콰이어리 발송 -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수신
수출대금 결제	- 수출거래대금 온라인 결제(PG*사와 별도 계약 필요) : VISA, MASTER, JBC, Unionpay, Wechat, Alipay, Paypal * Payment Gateway
수출상품 발송	- EMS, DHL 할인혜택 이용 가능(별도 계약 필요, 할인율은 변동 가능)
온라인 전시관	- KOTRA 오프라인 사업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매칭 등을 위한 온라인 전시관 운영
화상상담	- 바이어와 국내기업간 화상상담 지원

KOTRA는 바이어 구매 오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바이코리아 회원가입 전 해외무역관이 바이어의 진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코리아에 등록된 중소기업을 위해 원거리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기술 및 테마 별로 중소기업 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온라인전시관도 운영 중이다.

참고로 바이어 및 국내 기업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이트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 바이어용 사이트(www.buykorea.org), 셀러용 사이트(www.buykorea.or.kr)

표 IV-17-1-4 | 바이코리아 사이트 운영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순방문자수(천명)	11,493	15,682	11,029	20,258	26,313
페이지뷰(천회)	120,542	126,470	84,416	173,939	305,983
바잉오퍼 등록 건수(건)	23,691	24,798	27,312	32,746	26,266
신규 상품 등록(건)	22,315	20,111	18,725	35,147	30,981

4) 수출상담회 개최

한국 상품(및 서비스)의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업체와의 1:1 상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OTRA의 광범위한 해외 조직망을 활용, 한국제품 수입을 희망하는 세계 유수의 바이어와의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바이어를 상대로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17-1-5 | 해외 마케팅 추진성과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최횟수(회)	75	73	69	92	111	138
참가 바이어(개사)	4,572	3,313	3,232	3,653	7,354	8,174
참가 국내업체(개사)	12,316	8,832	8,116	8,083	8,401	8,029
계약추진액(백만불)	62,549	12,738	11,520	27,150	2,639	254

5)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KOTRA와 지자체·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무역사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시장조사,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및 사후 A/S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N-17-1-6 | 무역사절단 최근 추진성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파견횟수(회)	174	184	209	218	205	124	170
선진/신흥	35/139	34/150	45/164	52/166	49/156	31/93	44/126
파견업체(개사)	1,465	1,577	1,779	1,925	1,777	1,258	2,150
수출상담액 (백만불)	6,342	8,307	14,790	5,505	9,187	1,238	1,958

6)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무역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유망 무역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무역관을 통해 유력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주선, 시장정보 제공 등 다양한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비지원(총 참가 직접경비의 최대 70% 지원)과 행정서비스 지원(전시 부스 임차 및 장치, 전시품 운송 및 현지통관 등), 전시마케팅 교육, 그리고 바이어 대상 현지 홍보 등 박람회 관련 마케팅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표 N-17-1-7 | 전시회 한국관 참가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시회 참가횟수(회)	140	183	120	120	136	51	87
참가업체(개사)	2,806	3,538	3,149	2,924	2,865	968	1,628
상담액(백만불)	7,241	9,284	8,963	8,684	9,543	2,061	1,973

7) 국내 전시회 바이어 유치 지원사업

연간 34개 내외의 국내 유망 전시회를 선정하여 세계 각국에서 해외바이어를 유치하고, 전시 참가기업과 1:1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사업이다. 또한 전시 참가기업의 KOTRA Buy KOREA 온라인 전시관 입점지원 및 화상상담을 통해 온라인 수출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표 IV-17-1-8 | 국내전시회 바이어 유치지원 사업 결과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횟수(회)	28	24	26	19	37
유치 바이어(개사)	1,490	1,143	1,046	723	1,164

* 코로나19로 인한 전시회 미 개최 등으로 축소

8)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개별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기초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로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이 있으며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은 연간 6회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표 IV-17-1-9 |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지원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파트너연결(건)	3,410	3,211	2,767	2,883	2,742
항목별시장조사(건)	1,413	1,460	1,255	1,453	1,218
원부자재공급선조사(건)	136	187	125	83	102
해외수입업체 연락처확인(건)	854	620	541	472	502
합계(건)*	5,813	5,478	4,688	4,891	4,564

* 수출대금 미결제 조사(건), 거래선 관심도 조사(건) 제외

언택트 시대의 맞춤형 수출지원을 위해 신규 서비스(9종)를 추가적으로 출시하였고 기업은 해외 출장을 가지 않고도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희망하는 마케팅 서비스를 대행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신규 서비스(9종) : 현지 매장 방문조사,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샘플 테스트 조사, 바이어 구매성향 조사, 거래 교신 지원, 샘플 대리전달, 대리 면담 지원, 바이어 실태조사, 전시회 대리참관

9) 해외 비즈니스 출장 사업

세일즈 출장과 투자환경 조사 출장으로 구분되는 유료사업으로 세일즈 출장은 거래선 확대를 위해 개별출장을 시행하는 국내기업에게 잠재 바이어와의 상담 주선을 지원한다. 투자환경 조사 출장은 투자 진출을 위한 조사 출장을 시행하는 국내기업을 위해 관련 기관, 현지 로펌 등과의 상담주선을 지원한다.

표 N-17-1-10 | 해외비즈니스출장 사업 지원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세일즈출장(건)	213	303	207	14	4
투자환경조사출장(건)	28	36	32	2	0
합계(건)	241	339	239	16	4

10) 개별 방한바이어 수출상담 지원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있는 해외 바이어가 개별 일정으로 방한하는 경우 수출전문위원들의 밀착 컨설팅을 통해 국내 적격업체와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고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해외 바이어의 방한일정 중 국내기업에 해외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표 N-17-1-11 | 개별 방한 바이어 지원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바이어 지원(건)	144	172	174	12	4

나. 전략산업별 해외 마케팅 지원

1) 디지털인프라 · ICT융합솔루션 해외마케팅 지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별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디지털 확산에 따른 전산업 ICT 융복합 가속화 등으로 KOTRA는 전략시장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지원, ICT 융합솔루션 분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계별 디지털 인프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권역별 ICT 환경·정책을 분석하여 디지털 인프라 진출 유망시장 및 품목을 선정하고,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개방형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마케팅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스마트시티는 동남아, 중남미 등 전략시장에 교통, 환경, 통신망 등의 품목으로 K-스마트시티 협력워크 및 핀포인트 상담회를 연간 12회 개최하고, 협력센터를 확대(4개소→5개소)하여 상시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팜의 경우 민관 협업, 스마트팜 시범단지 구축 및 운영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고, 해외진출협의회 및 스마트팜 전담무역관 등을 통해 현장 지원을 추진하였다.

스마트팩토리는 지능형로봇, 솔루션 중심으로 기술상담회, 컨퍼런스 등 국내 기업의 해외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국내 로봇 전시회와 연계하여 O2O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ICT 융합솔루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국내 ICT 대표 전시상담회인 GMV(Global Mobile Vision), 해외로드쇼인 K-Global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기업의 수출, 기술교류, 투자유치 등 종합 진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업수요 기반 타킷지원을 위한 ICT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대·중소기업 및 유관 기관 협업, 중소기업 단독 수주가 어려운 해외 ICT프로젝트 수주를 연중 지원하고, 미국·중국·일본에는 IT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에 필요한 거점 구축(법인설립, 사무공간 등) 및 현지화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2) 지식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KOTRA는 에듀테크, 콘텐츠, 프랜차이즈 분야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해 화상상담회 및 온라인 사절단을 개최하고 있다.

KOTRA 서비스소비재실은 서비스기업 타킷시장 맞춤형 지원사업인 '서비스거점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분야가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기업을 발굴하여 해외마케팅 및 현지 서비스 정착을 지원하는 '서비스 BM(Business Model)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1년 서비스공급 457만불)

3) K-의료 해외진출 지원

KOTRA는 신수출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산업(의료기기, 제약/바이오, 백신, 보건 서비스 등)의 수출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표사업으로는 GMEP(Global Medical Equipment Plaza), GBPP(Global Bio Pharm Plaza) 사업이 있으며 이들 사업은 수출상담회,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GMEP(2021년 해외 바이어 270개사, 국내기업 209개사, 상담 580건)는 매년 3월 개최되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와 연계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유망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GBPP(해외 바이어 22개사, 국내기업 45개사, 상담 62건)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개최 중이다.

해외 개최 사업으로는 기업들과 관심이 높은 전략시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의료사절단을 파견 중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에는 오프라인 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는 ‘바이오의료 맞춤형 지원사업’, ‘백신 파트너십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제약사 등 해외 유망기업의 협력수요 발굴 및 매칭을 지원하는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의 경우 신약 관련 기술 사업화, 백신 원부자재 관련 협력 지원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4) 그린뉴딜 해외진출 지원

KOTRA는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동남아,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략시장의 유망 환경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발주처(바이어) 정보, 입찰 및 수주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이래 글로벌 환경, 에너지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 Global Green Hub Korea)’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전 세계 유망 프로젝트 발주처와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기업과의 1:1 상담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 환경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내기업의 세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수주사절단 파견하고 있다. 2021년에는 환경, 플랜트, 교통기술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7회 개최, 사업 발굴 및 수주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제조업 연계성과 고용 유발효과가 큰 해상풍력 분야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글로벌 해상풍력 프로젝트 디벨로퍼, 시공사, 엔지니어사 및 터빈 제조사 등을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제3국 프로젝트 공동진출 등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5)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해외시장 진출 지원

KOTRA는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에서 발굴되는 각종 프로젝트를 주기적으로 해외수주협의회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수주단 파견 및 플랜트 수주지원센터(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KOTRA는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 683개사 1,995 명을 회원사로 하는 해외수주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해외수주협의회 회원사의 57%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수주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하는 프로젝트 정보를 수시로 전파한다. 또한, 업계 정보교류와 해외 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수주협의회 수요포럼을 분기 1회 개최한다. 이 밖에도 해외수주협의회 소속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해외 수주 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현지 파트너사 조사, 프로젝트 정보, 입찰, 세무,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이래 국내 최대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상담회인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GPP, Global Project Plaza)’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국내기업의 개별적 접근이 어려운 글로벌 유력 프로젝트 발주처를 초청하고 국내기업과의 상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사의 해외 수주성과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우리 기업 중에는 금융조달 경험과 실적 부족으로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단순 도급형 프로젝트 위주 수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OTRA는 2013년부터 ‘MDB 프로젝트 플라자’를 개최하여, 다자개발은행 투자 담당자와 발주처를 국내로 초청해 투자 개발형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에게 소개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다자개발은행의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6) 일반물자 정부 간(G2G) 교역 지원

2012년 페루 지능형 순찰차 800대의 정부 간(G2G) 거래가 계기가 되어 2014년 1월 21일 대외무역법에 「정부 간 수출계약」 제도가 도입되었다.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KOTRA는 정부 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 되었으며 일반물자에 대한 정부 간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GtoG 교역지원단을 신설하였다.

KOTRA는 국내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기업과 함께 외국 정부에 물품용역을 유상으로 수출하는 계약 당사자의 역할을 하며, 새로운 무역 방식을 통한 수출 먹거리 창출 사업으로 외국 정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해외 무역관, 유관기관 등과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판로를 지원하며, 거래 가능 주요 품목 유형으로는 특수 목적 차량 및 운반 장비, ICT, 각종 인프라 및 관련 운용시스템 등이 있다.

2020년에는 2019년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토부, KOTRA가 팀코리아로 연합하여 수주한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을 이행하는 한편 페루의 신규 인프라 사업 수요 (메트로 3호선, 메트로 4호, 중앙고속도로, 산타로사 고가도로 및 해군기지 이전)에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두 번의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2021년도에는 G2G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이행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G2G 계약 참여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낮추었다.

2022년 현재 정부간거래관리실은 해외 주요국 중 G2G 계약(방산/일반) 수요가 높은 지원거점 5개소 무역관을 ‘G2G지원거점’으로 지정하여 정부 간 거래 프로젝트 발굴, 외국 정부와의 계약 협상 및 체결 과정 지원 등 정부 간 거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7)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KOTRA는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무역관에 조달 진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 정부 및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와 정부 조달 벤더 초청 1:1 상담회 개최, 조달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해외 사절단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개 해외공공조달지원거점을 운영하며, 조달시장 진출 정보수집, 사업기회 발굴, 현지 조달 벤더와의 파트너링, 벤더 등록 지원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8) 글로벌기업 기술협력 지원

KOTRA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지원하는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부품공급, R&D, 기술제휴 수요를 발굴하고, 대응 가능한 국내 소재부품(중간재) 중소중견기업을 매칭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국내외 권역별로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링 기회를 논의하는 종합 상담회를 개최하며, 국내 행사로 GP Korea를 연다.

GP사업은 2010년 시작 이후 총 1,103회 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154건의 정부 R&D를 지원하였다.

표 N-17-1-12 | GP사업 계량 실적 현황

연 도	GP상담회(회)		참가기업(개사)		R&D지원 (건)	R&D지원 (억원)
	종합	전문 (핀포인트)	해외기업	국내기업		
2010년	8	9	322	715	1	22
2011년	14	5	549	706	12	89
2012년	3	20	133	382	16	96
2013년	6	52	249	835	28	77
2014년	12	74	507	1,352	31	92
2015년	8	115	783	1,161	20	90
2016년	12	116	697	1,275	15	57
2017년	14	111	996	1,605	15	63
2018년	8	108	979	1,487	5	23
2019년	6	102	1,343	2,125	5	25
2020년	8	172	1,664	2,183	6	17
2021년	8	112	2,066	2,111	0	0

다. 중소기업 수출 애로해소 및 글로벌 역량 강화

1)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기업의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Level)을 진단하여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모델의 유효성 검증을 통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품목, 수출액 등 다양한 기준으로 유사기업 대비 자사의 위치를 비교할 수 있는 분석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표 N-17-1-13 | 글로벌 역량진단(GCL테스트) 제공 건수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진단기업(개사)	7,857	7,694	9,803	8,942	7,515

2) 이동 KOTRA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결 지원을 위해 전국 13개 지역(서울, 경기, 경기 북부, 인천, 부산, 경남, 대구·경북, 울산, 대전 충청,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에 찾아가는 수출 상담 서비스인 이동 KOTRA를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역량 진단(GCL)과 연계 각 기업의 역량과 수출단계에 맞는 해외거래선 발굴, 수출지원 사업 안내, 계약서 검토, 기타 수출 애로 해소 등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표 N-17-1-14 | 이동 KOTRA 서비스 제공 건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방문 기업(개사)	2,303	2,703	3,304	3,770	3,910	4,015	3,095	3,672
방문 건수(건)	-	3,098	4,169	4,601	4,823	4,712	3,639	4,404

3) 온·오프라인 무역투자 상담센터(Trade Doctor)

무역투자 상담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전 세계 지역 담당 전문위원이 전화, 내방, 모바일, 온라인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N-17-1-15 | 온·오프라인 무역투자상담 서비스 제공 건수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무역상담(건)	27,829	30,582	30,219	32,616	32,623
투자진출상담(건)	10,304	11,344	10,855	6,358	9,055
합계(건)	38,133	41,926	41,074	38,974	41,678

4)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은 국내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이 '0')과 수출 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수출을 희망하는 내수·초보기업 대상으로 퇴직 무역 전문인력인 수출 전문위원을 '멘토·멘티'로 지정하여 무역 실무에서 수출계약 이행까지 1:1로 밀착 지원하고 있다.

표 N-17-1-16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 업체 지원현황

구 분	참가기업 수	2020 성약 기업수	2021 성약 기업수
내수기업	3,000개사	1,482	1,476
초보기업	1,200개사	954	966
계	4,200개사	2,436	2,442

5) 강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기업 중심의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강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수출이 전무하거나,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 대비 10% 미만인 내수 위주의 수출초보 강소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수중견 수출도약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Pre중견' 트랙을 'Jumping중견' 트랙으로 개편하고, 참가기간을 3회에서 5회로 연장해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부지원 기간을 현실화했다.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는 부족한 해외네트워크를 KOTRA에서 보완할 수 있다. 또, 참가기업별 제품 특성, 수출 성숙도, 현지 시장 상황 등 글로벌 현황진단을 거쳐 기업별 맞춤형 해외 진출 로드맵을 수립 후, 최장 5년에 걸쳐 참가기업과 KOTRA 본사(수출전문위원) 및 무역관이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한다.

2022년 6월 기준 299개사가 참가하고 있으며, 사전에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시장조사, 해외 전시회 참가, 단독 로드쇼 개최, 현지 마케팅 인력 운용, 광고 등 현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가기업은 수출확대, 해외 진출, 해외 거래처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체계적인 시장개척 방법을 습득하여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높일 수 있다. KOTRA는 향후 국내 강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접근방식 고도화에 맞춰 지원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표 N-17-1-17 | 로드맵에 기반한 해외 마케팅 지원유형

마케팅 전략(목표)	세부 마케팅 활동
영업망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마케팅 인력 발굴 및 운영 지원 • 현지 유통망 구축 및 활성화 지원(대리점(딜러)계약 영업활동 지원)등
맞춤형 시장조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겟 시장조사 또는 시장정보 보고서 구입 지원 • 관련 산업 DB 확보 • 타겟 바이어 발굴 및 텔레 마케팅 실시 • 현지 타겟 고객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등
마케팅 활동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전시회 및 연계 행사 : 전시회 참가 지원 및 단독 IR, 기술설명회, 신제품 런칭쇼 등 개최 지원 • 현지 세미나, 로드쇼, 시연회 등 개최 • 현지시장 Test Marketing 사업 • 유력 바이어 방한초청사업 등
홍보 활동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홍보, 광고 대행사 발굴 • 스폰서십 마케팅 • 유력 전문지&매체 광고 • 문화 마케팅 사업 • 수출 위한 각종 판촉물 및 홍보물 제작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업 Supply Chain 진출 사업 • 해외유망 기업 M&A 지원 사업 •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투자유치 사업 • 글로벌 기업 관계자 방한 초청 사업 등
현지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법인 설립 & 공장 설립 관련 사전 타당성 법률/컨설팅 • 합작 파트너 발굴 지원 • 인증 및 특허, 상표 등 등록 및 획득 지원

6)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KOTRA가 운영하는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미래 수출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과 생산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절차는 업종별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부, 유관기관, 경제단체, 학계, 언론계 등 주요인사 20명 내외로 구성된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 방법은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이면서 5%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 중, 세계시장 규모(연간 5천만 달러) 또는 수출액(연간 5백만 달러)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을 세계일류상품(현재 세계일류)으로 선정하며,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중 세계 시장 점유율 또는 국내 수출점유율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현재 세계일류)으로 인증을 받는다.

아울러 향후 7년 이내 세계일류상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하여 후보군으로 육성하고 있다. 매년 7~8월 신규 품목과 생산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며, 3~4개월간의 검증을 거쳐 11~12월경에 인증 여부를 확정한다. 2021년도 기준으로 913개 품목 1,027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인증서·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KOTRA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포함 12개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증·교육, 금융·컨설팅, 연구개발, 판로확보 등 각종 직·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 중소기업 해외투자 진출 및 국내복귀 지원

1) 해외투자 진출 정보 제공

KOTRA는 해외투자 진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투자 실무가이드,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발간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해외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무적 도움을 주기 위한 해외투자 실무가이드를 국가별로 발간한다. 2020년에는 필리핀, 몽골, 브라질 투자 실무가이드를 발간하였으며, 2021년에는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투자 실무가이드를 발간할 예정이다.

격년으로 발간되는 디렉토리 자료는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현황을 조사한 자료로서 각종 공공기관, 연구단체, 학교, 기업 등으로부터의 이용도가 높고 각종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0년에는 세계 편, 동남아·대양주 편, 중국 편이 3권으로 발간되었으며, KOTRA 해외시장뉴스 사이트에 기업 목록이 공개되어 있다. 해당 기업의 연락처 등 상세정보는 파일 또는 책자 형태의 자료 구입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의 투자정보 및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1년에는 글로벌 ESG 경영 트렌드에 맞춘 ‘포스트 코로나 해외투자진출포럼’을 개최했다. 아울러, 중국과의 경제협력수요를 발굴·확대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제3국 공동진출 포럼’도 개최하였다.

2)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4년 KOTRA 베이징무역관에 처음 개설되었으며, 2021년 기준 중국 6개소(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다롄, 광저우, 선양), 베트남 3개소(호치민, 하노이, 다낭), 아시아지역 8개소(자카르타, 마닐라, 뉴델리, 양곤, 방콕, 프놈펜, 첸나이, 쿠알라룸푸르), CIS지역 3개소(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올란바토르), 유럽지역 3개소(바르샤바, 프랑크푸르트, 부다페스트), 북미지역 2개소(뉴욕, 달라스), 중남미지역 2개소(멕시코시티, 상파울루) 등 17개국 2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지원 서비스로는 센터별 자문 회계, 노무, 변호사 상담 지원 등 해외진출 희망기업 및 기진출기업의 현지운영과 관련된 상담, 세미나 개최를 통한 현지 경영 지원, 현지 정보 발굴 및 제공이 있다. 이 밖에도 진출기업의 내수 판로 시장개척을 위한 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병행하며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을 지원한다.

3) 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이슈가 많은 주요국가에 설치, 현지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데스크이다. 현재 중국 6개소(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홍콩), 미국 2개소(LA, 뉴욕),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 러시아(모스크바), 멕시코(멕시코시티) 각 1개소로 총 11개국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식재산권 상담,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및 디자인권) 출원비용 일부 지원사업,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사업 등이 있다.

IP-DESK 미소재 국가에 대해서는 22개국*에 한해 해외 상표권 및 디자인권 출원지원, 분쟁대응,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 IP-DESK 미소재 22개국 : 대만,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표 IV-17-1-18 |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 유형

종류	세부내용
지식재산권 법률상담	• 해외 진출(예정)기업에 대한 현지 지식재산권 법률 애로 상담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 현지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50%한도)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현지 지식재산권 (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중소기업 최대 80%/중견기업 최대 60%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설명회	• 현지 단속 공무원 등 대상 한국 유명상표 설명, 진품 식별 방법 등 교육 • 현지진출 한국기업 대상 현지 지식재산권 제도 및 진출 시 유의사항 안내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 초청연수	• 해외 주요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 지식재산권 제도 소개 및 지식재산권 유관 기관 교류 활성화 •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한 현지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직접 전달

4)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내복귀 의향기업 발굴, 국내복귀 종합상담, 신청접수/심사 등 국내복귀 전(全) 과정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 등 8개국 소재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현지법인 구조조정(매각, 양도, 축소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만 달러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투자지원을 위해 입지/설비 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 신청 시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유관기관 연결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기업이 국내복귀 단계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5) 글로벌 M&A 지원사업

KOTRA는 해외 M&A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3.2월 ‘글로벌 M&A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로 8년 차를 맞이하였다. 2022년 6월 기준, 해외 M&A 거점무역관(44개소)이 구축한 현지 부티크 및 자문사 네트워크를 통해 유망 M&A 매물을 발굴하고, 국내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KOTRA는 해외 M&A 매물 발굴, 현지 법·제도 조사를 포함하여 M&A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친 매수 자문을 직접 수행한다. 특히,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 매물 발굴에 강점이 있으며 M&A 실사 수행기관 발굴도 지원한다. 그 외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딜 소싱 설명회·상담회도 개최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은 ‘글로벌 M&A 지원사업’ 참가를 통해 해외 생산거점·영업망 확보, 원천기술 및 IP 확보, 신사업 발굴 등의 경영목표를 단시간 내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표 IV-17-1-19 | 글로벌 M&A 지원사업 절차

① M&A 팀에 사업 참여 신청(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신청서 작성) → ② M&A 팀 전문가와 개별 면담으로 지원내용 수립 → ③ 비밀유지협약 체결 → ④ 연간 딜 지원 → ⑤ 사후 관리

마. 글로벌 시장정보 제공 및 교육

1) 해외시장정보 조사·전파

KOTRA는 84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 산업·상품정보, 통상현안, 경제 동향, 마케팅 정보 등 수출 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취업·창업 등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KOTRA 해외시장뉴스(dream.kotra.or.kr/kotranews)를 통해 생생한 해외시장 동향을 전파하고 있으며, 세계 90개 국가의 경제산업 동향, 수입규제제도, 투자환경, 출장 시 유의사항 등 각 국가별 심층 정보를 담은 국가·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수요 및 현지 여건변화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국가별 진출환경, 시장분석, 유망품목 등의 정보를 수록한 권역별·국별 진출전략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경제 및 시장 조망, 권역별 이슈 점검을 위한 세계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가 발생할 경우, 현지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조사·전파하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산업과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를 매년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dream.kotra.or.kr/kotranews)와 함께 뉴스레터, 무역자료실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다음 등 국내 유력 포털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고, 영상뉴스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 고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KOTRA 해외시장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2) FTA해외활용지원센터

KOTRA는 해외에서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다롄, 하노이, 호치민, 뉴델리, 첸나이, 자카르타, 방콕, 마닐라, 프놈펜, 중남미(멕시코시티), 시드니 등 9개국 15개 지역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우리 진출기업 및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 상시 상담, 현지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기능별(통관·회계·법률 등), 산업별(유통·농식품·IT·서비스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표 N-17-1-20 |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역

국가	지역	설치사유
중국	베이징	· 中 수도 소재지, 국내기업 투자 진출 거점
	상하이	· 동부\연안 경제중심지, 국내기업 투자 진출 거점
	칭다오	· 中 물류중심지, 중국진출 국내 중소기업 밀집 지역 (전체 진출기업의 30%)
	광저우	· 中 최대 경제중심지(GDP 중국 1위), 한-중 교역 핵심 거점
	다롄	· 中 동북 3성 경제 중심지, 국내기업 투자 진출 거점
	톈진	· 中 한중교역 물류 중심지, 국내기업 투자 진출 거점
베트남	하노이	· 베트남 수도 소재 지역, 북부 물류 거점도시
	호치민	· 베트남 경제 핵심지역, 남부 물류 거점도시
인도	뉴델리	· 인도 수도 소재지이자 거대소비시장,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첸나이	· 인도 남부 경제 중심지, 국내기업 투자 진출 거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수도 소재지,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태국	방콕	· 태국 수도 소재지로 아세안 물류거점 도시,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필리핀	마닐라	· 필리핀 수도 소재지,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캄보디아	프놈펜	· 캄보디아 수도 소재지, 성장잠재력이 높은 메콩지역의 허브 국가
중남미	멕시코시티	· 중남미 경제 핵심 국가, 중남미 광역센터 기능
호주	시드니	· 아시아와의 높은 교역 비중,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구매력

3) 경제외교 활용포털 웹사이트 / 모바일앱

해외 순방/국빈 방한 시 국가 간 합의사항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외교로 창출된 비즈니스 기회를 우리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외교 종합정보 DB를 구축, 2014년 2월 경제외교 활용포털(舊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을 오픈하였다.

경제외교 활용포털은 2013년 이후 진행된 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 내용(MOU) 등 경제외교 종합정보와 경제사절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외교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정부 부처 및 수출 지원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해외 비즈니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경제외교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에 성공한 중소·중견기업의 성과사례들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제외교 및 경제사절단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1월, 경제외교 활용포털 모바일앱이 출시되었다.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상시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정상회담 종합정보, 후속 조치·사업, 경제사절단 및 순방 연계 각종 경제행사, 해외시장정보, 경제외교 기업 활용 사례 등을 우리 기업들이 모바일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4) 무역·투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KOTRA 아카데미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글로벌 지역 전문인력 육성과정, 기업역량별 맞춤형 과정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최신 트렌드 및 이슈, 지방소재 수출 기업을 위한 지방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KOTRA가 쌓아온 해외 마케팅 노하우를 고객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며, 2021년 기준 총 100회 과정을 운영하였고, 교육생 3,112명이 강의를 수료하였다.

표 N-17-1-21 | 교육과정 운영 현황(2021년 기준)

과정명	주요내용	횟수	고객수
글로벌 지역 전문가 과정	-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전략 과정 *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 등	23	764
산업별 과정	- 산업별 해외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 과정 * 화장품, 자동차 부품, 식품, 의료기기 등	1	18
기업역량별 맞춤형 과정	- 중소기업인, 사회적 경제기업, 수출 초보, 유망, 중견기업 대상 역량별 맞춤형 교육과정 * 수출 첫걸음 과정,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과정 등	14	398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분야별 실무 역량강화 과정 *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 영업역량 향상과정 등	33	907
FTA 전문인력 양성과정	- 기업의 FTA 활용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 과정 * FTA활용 컨설팅 교육,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등	13	549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 자적과정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분야별 실무 역량 강화 과정 *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GBC) 4기~6기	4	75
디지털 마케팅 과정	- 온라인 수출 마케팅, 빅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마케팅 과정 * 아마존, 쇼피, 알리바바 등 온라인 플랫폼, SNS 마케팅 등	8	328
기타교육 과정	- 지방 맞춤형 교육과정, 주재원 교육과정, 트렌드·이슈 과정 등	4	73
총계(기타과정 포함)		100	3,112

바. 외국인 투자유치

1) 투자유치 정보 포털 운영

Invest KOREA는 국내 투자유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IK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를 운영하고 있다. IK 홈페이지는 메인 및 10개 광역시도별 투자유치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문, 영문, 중문, 일문 4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반응형 웹 기술이 적용되어 모든 기기 및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IK 홈페이지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서 한국의 투자여건 및 투자유치 기회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한국 투자환경, 외국인투자기업 성공사례, 유망산업정보, 투자가이드, 인센티브 정책정보 등 투자 관련 제반 정보와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 여건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21년~'22년 홈페이지 고도화를 통해 투자가 매칭 서비스와 투자초기비용검색 서비스를 도입하여 비대면 투자유치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고, 맞춤형정보검색 기능 개선, 콘텐츠 현행화 등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하였다.

2) 대한투자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KOTRA 내에 설치된 Invest KOREA는 국가 투자유치 전담기구(IPA)이다. Invest KOREA는 각종 대한 투자 상담서비스 및 투자유치 활동과 36개의 해외 투자유치활동 무역관에서 현지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2021년 295억 달러(신고기준)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

KOTRA의 Invest KOREA 조직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대상 지역 별로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투자가 실현될 때까지 해외무역관-본사-중앙/지방정부 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밀착 지원하고 있다.

Invest KOREA는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아 범정부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한 국가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로 실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1년에는 코로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거점무역관

-본사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유망 잠재투자가 발굴에 주력한 결과, 2021년 총 2,847건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관리하였으며,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표 N-17-1-22 | 연도별 핵심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투자유치 프로젝트(건)	2,010	2,108	2,207	2,380	2,760	3,035	2,847

3)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방한 투자사절단 지원

Invest KOREA는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한국진출과 사업 활동을 위한 활동을 연중 수행하고 있다. 유망 잠재 투자자와 투자 유망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해외에서 투자전담관이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발굴된 유망 투자유치 프로젝트는 해외무역관 투자전담관과 함께 본사의 투자유치 프로젝트 매니저 (PM)가 전담으로 지정되어 한국진출에 따른 법인설립, 공장 부지 물색, 인센티브 설명 그리고 유관단체 면담 등 방한 활동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방한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입지부터 행정 수속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1년에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집중 전개하였다. 충청권 첨단산업 소재부품, 대경권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강원권 지역 개발 서비스 산업 등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방향에 맞춰, 지자체별 온·오프라인 IR 30회를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 혁신벤처스타트업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자와의 화상상담을 연중 지원하는 한편, Invest Korea Week 투자상담회 행사를 통해서도 총 265건의 온라인 투자유치 상담을 지원하였다.

4)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 처리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경영활동 중에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1999년 외국인투자자문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KOTRA에 고충처리조직을 설치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22건, 2021년 말 기준 360건의 고충을 처리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고 경영·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 세무, 노무, 법률, 인증 등 각 분야별 흠닥터가 상주하고 있다. 흠닥터는

외투기업을 위한 상담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제공하고 있으며, 외투기업이 국내 경영활동 중 겪는 고충의 해소를 위해 활동한다.

더불어 국내 외국상공회의소들과 함께 외투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포럼 등 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의 입법뉴스 서비스 운영,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방문 등 한국 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표 N-17-1-23 |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유형별 동향(5개년)

년 도 별	처 리 현 황		처 리 유 형**		
	건 수	증감률(%)*	제도개선	행정처리	기타처리
2017년	291	△28.9	12	92	187
2018년	269	△7.6	7	107	155
2019년	332	23.4	24	232	76
2020년	357	7.5	17	240	100
2021년	360	0.8	14	264	82

* 전년대비 증감률

** 처리유형은 정부 기관의 법규개정을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현행 법·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조치를 수반하는 “행정처리”, 자문제공 등 자체 인력을 통해 해결하는 “기타처리”로 구분됨

5) 외국인투자 종합행정지원서비스

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Invest Korea Plaza, IKP)에 위치한 투자종합상담실(Investment Consulting Center, ICC)에는 KOTRA 전문위원과 함께 7개 중앙 정부부처, 8개 지자체, 2개 유관기관에서 파견 나온 21명의 공무원 및 직원이 투자신고부터 법인설립, 비자발급 등 각종 민원처리, 조세·법률·노무·인센티브 등 분야별 전문컨설팅, 생활정착지원 등 외국인투자 전 과정에 걸쳐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으며,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유턴 기업을 위한 지자체별 입지 및 인센티브 정보 등을 제공한다.

표 N-17-1-24 | 투자종합상담실 종합행정지원서비스

관세	국세	입지	외투 신고	법률	세무/회계	노무	비자	생활	환경	유턴 기업	운전 면허	로컬 데스크
현물출자 확인서 발급/관세상담	사업자 등록 및 조세상담	맞춤형 입지지원/공장설립 상담	외투신고/등록/변경	법인등록 절차 안내/법률상담	조세 및 인센티브 상담	노무 상담	비자발급/갱신/변경	생활상담/현장동행 서비스	환경 관련 인허가 상담	지자체 입지/인센티브 정보 제공	운전 면허 교환 발급	지자체 입지 지원/지역정보/제증명 발급 안내
관세청	국세청	산단공	KOTRA 전문위원	법제처/KOTRA 전문위원(변호사)	KOTRA 전문위원(회계사)	고용부/KOTRA 전문위원(노무사)	법무부	KOTRA 전문위원(영어, 중국어, 일어)	환경부	8개 지자체/산단공	도로 교통공단	8개 지자체

6) Invest Korea Plaza 운영

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Invest Korea Plaza, IKP)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사무실 임대 및 각종 행정 지원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가 지원 시설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다. IKP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해 있는 외국인 투자가 전용 창업보육센터(7~9층)와 KOTRA 투자종합상담실·지자체·투자유치 유관기관은행 등이 입주하여 IKP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잠재 외국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IKP 창업보육센터는 더 나은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해 '20년부터 시설 리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기존 입주기업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사무실 계약을 연장함에 따라, '21년에는 2%라는 낮은 공실률을 기록하였다.

표 N-17-1-25 | IKP 창업보육센터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입주기업(개사)	19	20	21	23	28
신규입주(개사)	12	13	10	11	5
창업률(%)	91.7	100	80	81.8	100
공실률(%)	25.9	25.5	27.5	6.1	2.0

7) 산업별 투자유치활동 전개

Invest KOREA는 국내 공급망 안정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 및 글로벌 혁신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유치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의료바이오, 탄소중립 분야 등의 투자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복합리조트, 디지털콘텐츠, 첨단물류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반도체 등 공급망 확보 시급 분야의 100대 중점 타겟 기업을 선정하였다. 타겟 기업에 대해 해외 투자거점무역관을 통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긴급긴요한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는 TF 운영, 정부 고위급 면담 등 집중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외국인투자유치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별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활동체계를 구축하였다.

2019년 한 해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전략 및 중점산업별로 3개 분과 16개 분야 총 64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Invest KOREA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자문위원은 Invest KOREA의 국내 투자유치 유망프로젝트 발굴사업에서 심사 및 평가하고, 잠재투자자의 심층적 인콰이어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IK 자문단과의 분야별 투자유치 간담회를 통하여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 방안, 바이오 헬스 케어, 미래형 자동차, 기능성 화학소재, ICT 분야의 투자유치 현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체계 구축을 위하여 IK 자문단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사. 해외 전문인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1) 해외 전문인력 발굴·공급

KOTRA 해외취업팀은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인재 발굴, 인터뷰 주선, 이력확인, 고용추천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글로벌 인재 발굴 서비스

해외전문인력 DB가 구축되어 있는 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 포털사이트 (contactkorea.kotra.or.kr)에 글로벌 인재 발굴을 신청하면 해외무역관을 통해 적정 인재를 발굴, 의뢰처에 인재정보를 제공한다.

표 N-17-1-26 | 글로벌 인재 유치지원 절차

① 인재발굴 신청 → ② 해외무역관 인재 발굴 → ③ 인재정보 송부 → ④ 채용 인터뷰 → ⑤ 이력확인
→ ⑥ 고용계약 체결 → ⑦ 비자추천

2021년에는 163개 기업, 219명의 글로벌 인재 채용을 지원했다.

나) 해외 전문인력 고용추천서 발급

글로벌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 특정 활동비자(E-7) 발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추천서 신청은 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 포털 사이트(contactkorea.kotra.or.kr)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17-1-27 |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 ① 발급 대상 여부 확인 → ②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③ 1차 서류 검토 → ④ 이력 확인 →
- ⑤ 외부심사 → ⑥ 홈페이지에서 고용추천서 다운로드 → ⑦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2021년도에는 108명의 고용추천서 발급을 지원하였다.

2) 해외 일자리 창출

KOTRA 해외취업팀은 해외무역관을 통해 양질의 글로벌 일자리를 발굴하여 한국 청년 인재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17-1-28 | 국내인력 해외취업 지원 절차

- ① 해외기업의 국내인력 구인수요 발굴 → ② 월드잡플러스(<https://www.worldjob.or.kr/>)에 구인공고 게시 → ③ 해외 취업희망 구직자 모집 → ④ 서류합격자에 대해 면접 알선

가) 해외 구인수요 발굴

16개의 해외무역관을 통해 한국인재에 대한 구인수요가 있는 해외 구인 처를 발굴하고 있다.

* K-Move 센터(16개소) : 뉴욕, LA,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도쿄, 오사카, 나고야, 싱가포르, 자카르타, 호치민, 하노이, 시드니, 베이징, 홍콩, 두바이, 멕시코시티

나) 국내외 해외취업 박람회

(국내) 양질의 해외기업을 초청하여 국내 구직자와의 1:1 면접기회 제공하는 글로벌 일자리대전(연 2회)을 개최한다.

(해외) 현지 유학생, 국내 청년을 대상으로 현지 기업, 진출기업과의 취업을 지원하는 해외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다) 핀포인트 채용 설명회 및 상담회

해외 구인기업의 채용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구직자와의 채용 설명회 개최 및 1:1 면접, 필기시험 등을 지원한다.

라)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국별 취업카페 및 멘토단 운영을 통해 해외 취업 정보를 전파하여 해외취업자의 현지 정착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돕는다.

아. 신흥국 상생 협력 기반 구축

1) 글로벌 ESG+ 사업

KOTRA는 해외에서 우리기업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활동을 통해 현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기업의 위상을 제고하여 신흥국과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글로벌 ESG + 사업에 관심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창업 벤처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며, KOTRA는 참가 기업에게 사업의 기획·실행, 홍보,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KOTRA 사업신청 ▶ 「글로벌 ESG+ 사업」 검색 ▶ ‘신청하기’ ▶ 홈페이지 신청 후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csr@kotra.or.kr로 송부/접수하면 된다.

표 N-17-1-29 | 주요 사업내용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E 형 (그린 이니셔티브)	제품 서비스 기부 (유형)	○ 우리 기업이 해외 공공기관(현지정부, 협회, 시민단체 등)에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기부하여 현지 사회문제 해결을 돕고 현지기관과 밀접한 네트워킹 형성
S 형 (인도적 상생지원)	기술서비스 교육지원 (무형)	○ 우리기업이 해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업 및 서비스 기술 경험을 전수하여 관련 산업의 현지 전문인력 양성 지원
+ 형 (맞춤형 재난, 보건·의료)	유류장비 이전지원	○ 유류 저활용·불용장비 등을 수리하여 대상국가에 기증하고 산업 표준 및 운영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으로 대상국가의 산업발전, 공공서비스 개선, 생산기술 혁신에 기여
G 형	ESG 저변확대	○ 우리기업의 ESG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ESG세미나 개최, ESG 유망 기업 채용상담회, 글로벌 ESG 우수기업 대상 포상 지원 등 글로벌 사회책임경영 이행 확대를 위한 사업 지원

2)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OTRA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협력대상국과 한국의 무역투자진흥 정책 및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KSP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협력국의 수출 진흥, 외국인투자유치,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자문과 비즈니스 연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협력국에 친한국적 제도 수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확대하는 윈-윈(win-win)형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에콰도르, 파라과이, 벨라루스, 라오스, 베트남 등 총 8개국, 9개 사업에 대해 KSP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별 정책자문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N-17-1-30 | 2021년 KOTRA KSP 사업 주요국 수행내역

국가명	수행 내용
라오스	○ (자문주제) 스타트업 및 신규 수출기업 육성 방안
몽골	○ (자문주제) 알탄불락 교통 물류 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베트남	○ (자문주제) 껀터市 및 메콩델타 지역 물류 개발 촉진 자문
에콰도르	○ (자문주제) 과야킬市 스마트시티 사업 계획 수립
에콰도르	○ (자문주제)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 및 후처리 기술 도입 방안
파라과이	○ (자문주제) 자동차 산업 육성 방안
벨라루스	○ (자문주제) 세관심사 품질관리체계 구축 방안
모로코	○ (자문주제)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전략 수립
멕시코	○ (자문주제) 멕시코시티 대중교통망 개선 및 통합교통시스템 연계방안

3) 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

KOTRA는 KSP의 새로운 사업모델인 기획재정부의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 (EIPP)의 총괄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20년 해외수주 활력제고와 국제개발협력 성과 제고를 위해 신설된 EIPP 사업은 협력국의 경제발전과 대규모 인프라 개발

지원을 통해 한국과 협력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KOTRA는 '21년부터 케냐의 장기 국가개발정책인 케냐 Vision 2030의 핵심과제인 콘자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3개의 과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1년 추진 중인 케냐 EIPP 사업의 세부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과제명	사업내용
콘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자 테크노폴리스 현황조사, 기존자료 분석 및 선진사례 분석 ○ 케냐정부 스마트시티 정책분석 및 정책제언 ○ 콘자 스마트시티 비전 및 전략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 추진 로드맵 도출
콘자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자 테크노폴리스 내 방법/환경/시설물 실시간 관리 위한 관제센터 구축 현황조사 및 조건 검토, 선진사례 분석 및 차이 분석 ○ 콘자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미래모델 설계, 이행과제 로드맵 및 소요 예산 분석 및 타당성 분석
콘자 스마트시티 스마트 교통망 및 스마트 모빌리티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자 테크노폴리스 및 주변지역 교통현황 관련 인프라 계획/현황 조사 ○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도입사례 분석 및 현지적용성 검토 ○ 스마트모빌리티 구축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후속 연계(시범)사업 추진방안 제시 및 시범사업 발굴

제1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1

일반현황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우리나라 수출·수입 보험제도를 전담 운영하고 있다. 수출보험은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자의 파산, 대금지급 지연, 수입국의 전쟁, 환거래 중지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수입보험은 국내 수입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수출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적기에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수출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정부에서는 1968년 수출보험법 제정 후 대한재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에서 대행체제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1992년 7월 효율적인 수출보험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수출보험기금의 확충, 신규보험종목 개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수출보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에 따라 1992년 약 1조 8,000억 원에 불과하던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2021년 말 기준 195조 8,730억원을 달성하였고 국내 수출의 약 22%를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21년말 기준 3조 38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보험으로서의 공신력도 크게 증대되었다. 2010년에는 수출보험법 개정(2010.7.6자 시행)을 통해 공사명칭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중요물자 수입거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및 수출기반조성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를 추가하여, 수출용 원자재 수입거래 지원 및 중요 광물이나 원유 등 수입이 불가피한 주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공사는 총 18개 국내지사⁴²⁾ 운영을 통해 권역별 중소수출기업 전담지원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지방수출기업의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밀착형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계 21개 해외지사 운영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지원과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2) 17개 국내지사 및 1개 출장소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확대

공사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비상경영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코로나 19 발발 이후 보험(증)료 할인, 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글로벌공급망 고도화(GVC)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총력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인수실적은 2020년 60조원, 2021년 67조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28,932개, 2021년 30,874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을 공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대외경쟁력 확충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2008년 인수실적 18.6조원 및 중소기업 지원업체 수 6,952개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표 N-18-1-1 |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소중견기업 인수실적	562,276	596,362	666,164

나. 중소기업 육성방안 시행

공사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수출이행 및 신규 수출기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전용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선정기업,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기업, 자금부족으로 수출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 초보 기업 육성을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방안'을 통해 한도 우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및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이용(최대 5회)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다. 무역보험 아카데미 운영

2009년부터 중소기업 및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참석자 특성에 맞는 제도 해설과 사례 및 실무 중심으로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무역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외부 전문강사진 확충을 통해 무역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2019년부터 수출 예비/초보 기업에 대한 온라인 교육강좌를 추가하여 잠재 수출 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보험(증)료 지원사업 확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보험(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수출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 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부터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증)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증)료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2021년 1,500백만원, 업체당 수혜 한도는 연간 3백만원이다.

또한 무역협회와 ‘중소중견기업 Plus+ 단체보험 보험료 지원’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직수출실적 U\$3,000만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중이다.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의 2021년 예산은 총 150백만원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표 N-18-1-2 | 보험(증)료 지원 운영내역(서울시 및 무역협회)

(단위 : 백만원, 개사)

구	분	2020년	2021년
서울시 중소기업 수출보험(증)료 지원	지원금액	2,000	1,500
	수혜업체수	2,032	1,902
무역협회 중소중견기업 Plus+ 보험료 지원	지원금액	137	112
	수혜업체수	666	559

* 단체보험 지원 포함

마. 무역보험 컨설팅 서비스 제공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이행 지원을 위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분야별(금융(무역보험), 수출입, 법무, 회계) 컨설턴트가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바. 중소기업 지원제도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 운영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외국환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의 제조 및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금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수출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제도 운영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수출자가 외국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에 선적서류 매입을 통해 수출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지급하는 제도이다.

수출신용보증(매입)과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과 유사하게 수출기업이 물품 선적 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를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대출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 상환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수출신용보증(매입)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과 달리 중계무역을 보증대상거래로 포함하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수출(대출)통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수출신용보증(매입)은 은행에 대한 면책조항 축소로 수출신용담보력이 강화되었으며,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의무가 없다. 다만 결제기간이 1년 이내인 거래에 한해 가입 가능하다.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매입)과 달리 수입자 제한이 없어 보증서 1개로 모든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해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서 담보부 대출의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 보증한도는 최대 500만 달러 이내이며, 신용우량 기업의 경우 통관 수출거래 뿐만 아니라 비통관 수출거래에 대해서도 매입외환 대출이 가능하다.

3)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제도 운영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는 중소기업들이 수출거래에서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의 손실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단기수출보험(선적후)와 비교하여 해외 수입자 신용평가 의무가 생략되는 등 가입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가입 후에도 통지절차 등이 생략되어 관리가 용이하다. 기업은 보험 가입 시 등록한 수입자(50개사 이내)와 보험계약기간동안 이행한 수출거래에 대해 최대 300만 달러까지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하나의 수입자당 최대 손실보장 금액은 30만 달러 이내) 보험계약 갱신 및 보험료 납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수출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환변동보험 제도 운영

환변동보험(일반형)은 수출을 통해 유입되는 외화금액 또는 수입을 통해 유출되는 외화금액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는 상품이다.

수출거래의 경우, 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다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을 수출기업에게 보상하지만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수출기업이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거래와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손실을 보상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기업의 이익을 회수하게 된다.

환변동보험(옵션형)은 공사는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되, 환율 하락시 하락분의 전액 또는 일정수준까지 환차손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환율상승시 발생하는 환수금이 부담스러운 영세 수출기업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공사는 환변동보험 제도를 통해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헤지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투기적 환헤지 수요 차단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정적 실헤지 유도를 위해, 공사는 유관기관·외환전문가 등과 연계한 온라인 외환포럼 개최, 환율전망 및 이슈분석 제공, 개별기업 1:1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IV-18-1-3 | 환변동보험 지원실적 및 환차손 보험금 지급내역

(단위 : 억원, 개사)

구 분	2020년	2021년
환변동보험 지원실적	9,888	7,944
보험금 지급액	138	80
보험금 지급업체수	268	186
중소·중견기업	268	186

5) 지방자치단체 보험(증)료 지원

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보험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조를 통해 보험(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기관별로 연도별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장 위치, 수출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내 수출중소기업에게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보험(증)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으로 지원기관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종목에 차이가 있다. 공사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지원받고자 하는 수출중소기업은 관할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6) 무역협회 보험료 지원사업

공사는 무역협회와 업무협조를 통해 2009년부터 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 U\$3,000만 이하 중소기업 중 무역협회 회비 완납 회원사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Plus+ 단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는 최근 세계경제 침체로 기존 수입자 및 신규 수입자와의 수출 거래에서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위험이 증가하고 환율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이 대금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보험료 지원사업

공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업무협조를 통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이다(업체별 대표 수출품목 기준 HS-Code 제1~22류, 24류(농식품), 수산물·임산물·연초류 제외).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및 환변동 보험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연간 8,000만원이다.

8) 산림조합중앙회 보험료 지원사업

공사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임산물 수출(목재, 석재류 제외)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및 환변동보험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연간 1,000만원이다.

9) 해외 미회수채권 회수대행 사업

공사는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해 회수대행서비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외미수채권 회수대책을 강구하는 중소기업 수출자는 공사의 대외채권추심대행 상담 서비스를 통해 미수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타진해볼 수 있다.

대외채권회수 노하우가 풍부한 국외보상채권부에서 동 사업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별로 협약을 맺은 해외추심기관 및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회수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0)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기업Plus+) 단체보험 운영

공사는 단체(유관기관, 지자체, 협회 등)의 구성원인 회원사 중소중견기업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단체보험은 무역협회·코트라 등 수출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그 구성원(10개 이상의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보험이며, 중소중견기업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 거래에서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통상 5만 달러 범위 내). 이와 관련, 보험료는 지자체 등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예산 등으로 충당,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보험료 부담 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11) 기타 중소기업 우대제도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대기업의 부보율이 95%(중견기업은 97.5%)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부보율을 100%로 우대함으로써 대금미회수 발생 시 중소기업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 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한은 2~3개월로 대기업에 대한 보험금지급시한 3~4개월에 비해 신속하게 보상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가지급 비율이 보험금액의 60%이내(중견기업 70%)인데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가지급 비율은 80% 이내로 우대하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은 전 보험종목에서 10~20%의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으며, 특히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추가로 보험료를 10~2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도 책정 시에도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19장

한국무역협회

1

일반현황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진흥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된 단체로서, 우리나라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민간 경제단체로서, 회원사(무역업체)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센터 운영 수익을 기반으로 수출확대와 무역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주요 회원사는 수출입을 하는 무역업체들이 있으며, 현재 무역업체 대다수가 협회에 가입하여 각종 무역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회원사 수는 창립 초기 105개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약 7만 4,000 여 개의 무역업체들이 협회와 함께 하고 있다.(’20.5 기준)

<p>중소·중견기업의 무역 현장 지원 서울사무소 및 전국 11개 지역본부를 통한 수출입 기업 실무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애로 건의, 무역실무 상담 - 무역현장 자문 서비스, - 통번역 지원, FTA 컨설팅 	<p>해외시장 개척 지원 바이어-셀러 매칭, 수출상담 주선을 통한 국제 비즈니스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전시회/ 국가관(지자체관) 참가 지원 -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주요 역할	
<p>무역정보 제공 및 전자상거래 지원 수출입 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B2B/B2C 온라인 플랫폼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A.net - tradeKorea - TradeNAVI - Kmall24 	<p>무역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 수행 심도있는 연구를 통한 우리 무역의 방향성 제시 및 정책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시장/ 최신동향 무역연구서 발간 - 민간 통상협력 활동 - 무역통계 작성

2 회원지원 프로그램 현황

가. 회원 혜택

KITA 수출바우처 서비스

혜택소개	업체별로 필요한 수출 부대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50~100만원)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단계별로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비용을 선집행한 후 90% 환급(자부담 10%) *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는 100% 정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국어 통·번역 이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통번역서비스 센터에서만 이용 가능 · 이용가능 언어 : 영어, 이릅녕, 중국어, 불어, 독일어 등 18개 언어 · 서비스 범위 : (번역) 무역서신, 수출계약서, 제품 카탈로그 등 (통역) 전시회, 공장방문, 국제전화 등 · 바우처 지원금 협회 직접 정산, 나머지 업체부담금만 별도 정산 ②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홍보동영상 제작비 ③ 수출상품 광고비 ④ 무역아카데미 On/Off-line 강의 수강료 (2) 시장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이용기관 : KOMPASS, KOREA, EC21 ⑥ 해외바이어 신용조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이용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⑦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이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이용기관 : Alibaba, EC21, KOMPASS, Amazon, eBay · 이외 이용 희망 시 사전협의 필수 ⑧ 코엑스 주차비 (3) 바이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⑨ 수출 운송비 ⑩ 관세사 수출 통관수수료 <p style="margin-left: 20px;">* ①, ⑤, ⑥, ⑦은 지정 이용기관에서만 정산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바우처 지원 한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colspan="2" style="text-align: left;">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로 알 (회원가입 21년차 이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골 드 (회원가입 11~20년차)</th> <th style="text-align: center;">실 버 (회원가입 1~10년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지 원 사 항</td> <td style="text-align: left;">① 기본</td> <td>90 만원</td> <td>70 만원</td> <td>50 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② 추가*</td> <td>10 만원</td> <td>10 만원</td> <td>10 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지원한도 (①+②)</td> <td>100 만원</td> <td>80 만원</td> <td>60 만원</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 20px;">* KITA 멤버십카드를 발급한 기업에 한해 年 10만원 추가 지원</p>	구 분		로 알 (회원가입 21년차 이상)	골 드 (회원가입 11~20년차)	실 버 (회원가입 1~10년차)	지 원 사 항	① 기본	90 만원	70 만원	50 만원	② 추가*	10 만원	10 만원	10 만원	지원한도 (①+②)	100 만원	80 만원
구 분		로 알 (회원가입 21년차 이상)	골 드 (회원가입 11~20년차)	실 버 (회원가입 1~10년차)														
지 원 사 항	① 기본	90 만원	70 만원	50 만원														
	② 추가*	10 만원	10 만원	10 만원														
	지원한도 (①+②)	100 만원	80 만원	60 만원														

신청절차	① (회원사) 예산 배정 신청(온라인) → ② (무역협회) 예산배정 → ③ (회원사) 서비스 이용 후 비용 자체 집행 → ④ (회원사) 정산 신청 및 증빙제출(온라인) → ⑤ (무역협회) 정산금 지급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포털 : membership.kita.net

표 IV-19-1-1 | 수출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적 ('18년~'21년)

구 분	지원업체(개사)	지원금액(억원)
2018년	2,297	10.9
2019년	2,686	13.4
2020년	3,115	17.0
2021년	3,998	23.3
합 계	12,096	64.6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 추천

혜택소개	수출마케팅과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에 대출			
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자금용도	① 수출마케팅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방문, 해외 특허/규격인증 획득, 해외 홍보/시장조사 등 ②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국내, 해외) 혹은 완제품(국내) 구매			
세부내용	· 융자기간 : 3년(2년 거치 후 年 4회 균등 분할상환)			
	회원등급	로 알 (가입 21년차 이상)	골드 (가입 11~20년차)	실버 (가입 1~10년차)
	융자금리	2.00%	2.25%	2.50%
	융자한도	3억원	2.5억원	2억원
신청절차	① (회원사) 융자추천 신청(온라인) → ② (무역협회) 추천업체 선정 → ③ (회원사) 은행에 추천서 제출 및 융자심사 → ④ (무역협회) 심사 통과 시 은행에 자금 전달 → ⑤ (은행) 회원사에 대출 실행 * 융자 신청 전 주거은행 여신한도에 대한 사전 확인 권장 ※ 신청가능 은행 : 기업,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씨티, SC제일,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포털 : membership.kita.net			

수출단체보험료 지원

혜택소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단체보험(중소중견플러스, 수출안전망) 보험료 지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중견플러스 : 전년도 수출실적 미화 3,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 수출안전망 : 전년도 수출실적 미화 10만 달러 이하인 기업 		
세부내용	· 수출보험 2종 중 선택하여 가입		
	구분		중소중견플러스
	연간 보상한도		US \$50,000
	보험료		US \$200
	지원액	로얄 (가입 21년 차 이상)	100% (전액지원)
골드 (가입 11~20년 차)			
실버 (가입 1~10년 차)		80% (업체 부담금 4만원)	
신청절차	① (회원사) 수출단체보험 신청(온라인) → ② (회원사) 자부담금 입금(해당 경우에 한함) → ③ (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일괄 청약 → ④ (무역보험공사) 심사 및 보험부보 → ⑤ (무역협회) 결과안내(탈락업체 자부담금 환급)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포탈 : membership.kita.net		

표 IV-19-1-2 | 수출단체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 이용 실적 ('18년~'21년)

구 분	지원업체(개사)	지원금액(억원)
2018년	575	1.06
2019년	520	1.02
2020년	666	1.36
2021년	559	1.12
합 계	2,320	4.56

무역아카데미 교육 수강료 할인

혜택소개	무역 실무 단기교육 수강 시 수강료 20% 할인	
세부내용	분야	개설 강좌
	무역실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사원 무역실무, 물류비 절감, 환리스크 관리, FTA 등 - e커머스 활용 전략, 비즈니스 협상 등 - 산업 특화 과정 (식품, 화장품, 사료 등) - 자격시험 대비 과정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 창업 과정
	비즈니스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 OA (Word, Excel, PowerPoint 등) - 데이터 분석 및 프로그래밍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 tradecampus.com	

트레이드벤처플라자 입주

혜택소개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서울 삼성동) 2층에 마련된 사무공간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신청자격	사업자등록번호 발급일 또는 협회 회원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 경과한 회원사				
세부내용	· 사무공간 현황				
	장소	구분	개수	면적(㎡)	월 이용료(원, 부가세 별도)
	트레이드 타워(2층)	1인실	13	4.95~7.59	148,500~227,700
2인실		4	7.92~10.56	273,200~364,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간 : 1년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최대 1년 연장 가능) · 비용 : 12개월 이용료 및 관리운영예치금(선납) · 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 사무기기 및 인터넷 무료 이용 가능 - 업무보조 서비스(우편물 수취, 내방객 안내 등) · 모집방법 : 공개 경쟁 및 심사를 통한 입주사 선정 · 모집시기 :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포털 : membership.kita.net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참석

혜택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회원(유료) 가입 후, 매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는 조찬회에 참석하여 강연 청취 경제·인문사회·과학 등 분야별 경영지식 습득 및 참석 기업 대표 간 네트워킹 가능 강연 참석 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의 조찬 식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 장소는 변동 가능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찬회 연회원에 가입한 회사사 대표 및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찬회 연회원은 무역협회 회원제와 별도로 운영되며, 협회 회비 완납사만 가입 가능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매월 중·하순경 07:20 ~ 09:00 (年 10회, 8월/12월 제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colspan="2">조찬회 회원 구분</th> <th>비용</th> <th>대상인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연회원 (10회 참석)</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인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명</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법인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명</td> </tr> <tr> <td colspan="2"></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명</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1회 참석</td> <td style="text-align: center;">협회 회원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협회 비회원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2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협회 신규회원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2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 신규회원사는 가입 연도에 한해 1회 무료참석 가능 조찬회 연회비 중도환불 불가 	조찬회 회원 구분		비용	대상인원	연회원 (10회 참석)	개인회원	20만원	1명	법인회원	50만원	3명			100만원	7명	1회 참석	협회 회원사	10만원	1명	협회 비회원사	20만원	1명	협회 신규회원사*	무료	2명
조찬회 회원 구분		비용	대상인원																							
연회원 (10회 참석)	개인회원	20만원	1명																							
	법인회원	50만원	3명																							
		100만원	7명																							
1회 참석	협회 회원사	10만원	1명																							
	협회 비회원사	20만원	1명																							
	협회 신규회원사*	무료	2명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포털 : membership.kita.net																									

비즈니스센터 이용

혜택소개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서울 삼성동) 내 위치한 회의실을 무료로 이용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 트레이드타워 지하 1층 & 코엑스 1층 이용시간 : 09:00~18:00 (월~금, 공휴일 제외) 이용시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구분</th> <th>장소</th> <th>이용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회의실 (10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트레이드타워 (지하 1층)</td> <td style="text-align: center;">2인실 1개, 4인실 2개, 6인실 1개, 8인실 1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코엑스 (1층)</td> <td style="text-align: center;">4인실 4개, 8인실 1개</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구분</th> <th>이용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무기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PC(인터넷 포함), 복사기, FAX, 화상회의 장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 또는 현장신청 (단, 온라인 사전예약자 우선 이용) 	구분	장소	이용범위	회의실 (10개)	트레이드타워 (지하 1층)	2인실 1개, 4인실 2개, 6인실 1개, 8인실 1개	코엑스 (1층)	4인실 4개, 8인실 1개	구분	이용범위	사무기기	PC(인터넷 포함), 복사기, FAX, 화상회의 장비
구분	장소	이용범위											
회의실 (10개)	트레이드타워 (지하 1층)	2인실 1개, 4인실 2개, 6인실 1개, 8인실 1개											
	코엑스 (1층)	4인실 4개, 8인실 1개											
구분	이용범위												
사무기기	PC(인터넷 포함), 복사기, FAX, 화상회의 장비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포털 : membership.kita.net												

KITA 멤버십카드 이용 (신용/체크카드)

혜택소개	연간 사용실적에 따른 무역협회 연회비(15만원) 대납혜택과 무역센터 이용혜택 (코엑스 주차할인, 전시회 무료입장 등)이 있는 회사 전용 법인카드 * 기업용(법인, 개인) 신용·체크카드, 연회비 없음
------	---

구분	신한카드 (VISA/Master)	IBK기업은행 (BC/VISA/Master)	KB국민카드 (VISA/Master)	하나카드 (VISA/Master)
공통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엑스물 주차할인 : 연간 10회, 1일 2시간(9,600원) 자동 청구할인 * 신한카드 추후 적용예정 - 인터컨티넨탈호텔(그랜드/코엑스) 객실 10%, 레스토랑 식음료 15% 할인 - 신라스테이 삼성 객실 10%, 레스토랑 10% 할인 - 오코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객실 10%, 식음료 10% 할인 - 코엑스 주최/주관 전시회 무료입장 			
포인트 적립	신용 0.1%, 체크 0.3%	신용 0.2%	신용 0.1%	Master 0.2% Visa 0.1%
무역협회 회비지원	연간 실적 천만원부터 차등 지원	연간 실적 3천만원 총족 시 전액 지원	연간 실적 천만원부터 차등 지원	연간 실적 천만원부터 차등 지원
호텔	여행상품 할인 (신한카드올렛서비스)	호텔예약 최대 10% 할인	-	국내 특급호텔 객실, F&B 할인
렌터카/ 항공	항공권 할인 (신한카드올렛서비스)	렌터카 최대 10% 할인	-	Hertz, AVIS 렌터카/항공권 할인
인천공항 라운지	-	-	年 2회 (마티나, 스카이허브 등)	VISA - 무료(PP카드), Master - 年 2회(아시아나)
발렛파킹	-	-	-	月 3회 (호텔·인천공항)
환율우대	해외결제 계좌거래 시 환율 70%우대	-	-	-
해외결제	해외이용 수수료 면제, 외화 계좌 달러(USD)결제	-	-	-
여행자 보험	-	최대 3억원	최대 1억원 * 항공권/여행상품 결제시	최대 6.5억원(VISA)
기타 혜택	당·타발 해외송금 수수료 월 최대 3회 면제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25원 할인 (1일2회, 1회10만원)	세무정보 지원서비스 (부가세 환급지원 등)	동화면세점, 위커힐면세점 최대 15% 할인

* 카드사별 이용혜택은 추후 변경가능

신청절차	① 하나카드 : 온라인신청 ② 신한카드, IBK기업은행카드 :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신청 ③ KB국민카드 : 무역협회 통해 신청 후 전화상담 (회원사)신청(협회 홈페이지) → (협회)카드사에 신청서 전달 → (KB국민카드)전화 상담 → (회원사) 제휴 금융기관 방문 후 서류제출
이용안내	•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 전화 신한카드 (1544-7000) IBK기업은행(1566-2566) KB국민카드(1588-1688) 하나카드(1800-1111)

표 IV-19-1-3 | KITA멤버십카드 사업 실적('19년~'21년)

구분	발급실적(개사)	대납실적	
		대상기업(개사)	대납액(천원)
2019년	389	803	103,950
2020년	470	775	95,350
2021년	975	850	107,100

KITA 회원 할인서비스

혜택소개	수출 부대비용 절감을 위한 무역 관련 서비스 제휴 할인
------	--------------------------------

유형	제휴업체	할인혜택
국제특송	FedEx 코리아	전세계 배송비 최대 60% 할인
	DHL 코리아	전세계 배송비 최대 60% 할인
	우체국 EMS	전세계 배송비 최대 33% 할인
	셀러노트(Shipda)	① 중국, 동남아로부터 소량화물 수입 시 해상운송 기본료 15% 할인 ② 국내창고 보관료 7일 무료
통번역	순평 익스프레스	중국 배송비 20% 할인
	중앙통번역센터	번역비 30% 할인
	팬트랜스넷	번역비 30% 할인
	에버트란	번역 10~20% 할인
	플리토	번역서비스 할인쿠폰 무한제공
공항라운지 (항공/호텔/ 보험/로밍)	한글과컴퓨터	인공지능 통번역기 30% 할인 (지니톡 고!2)
	더라운지멤버스	전세계 공항라운지 이용료 30% 할인
	현대해상	해외출장/여행보험료 20% 할인
	(주)와이드모바일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와이파이도시락) 임대료 20% 할인

	신라스테이	신라스테이 역삼·서초·강남 프로모션 요금 적용
	롯데시티호텔 / L7 호텔	전국 8개 지점 숙박비 일일 최적가 대비 20% 추가 할인
	대한항공·델타항공	- 대한항공 KALBIZ 가입 시 무료수하물(2개) - 델타항공 SkyBonus 가입 시 1,000포인트 증정
	씨젠의료재단	출국용 코로나검사 20% 할인
IT환경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정보보안 서비스(보안1번지) 10% 할인 범용공인인증서 발급비용 50% 할인
특허	특허법인 이룸리온	국내 대리인수수료 20% 이상 할인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국내 대리인수수료 20% 할인
법률상담	로앤굿	① 변호사 수입료 10% 할인 ② 4가지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 고문변호사 매칭 / 근로계약서 검토 / 8개 분야 법률리스크 검진 / 법인 주소변경 등기
부가세환급	VAT IT	해외 부가가치세 환급비용 할인
무역 대금회수	나이스 신용정보	① 해외미수채권 회수서비스 접수비 최대 67% 할인 ② 성공보수 수수료 최대 20% 할인
	나이스 디앤비	① 국제사업자등록증 발급수수료 최대 20% 할인 ② 해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20% 할인
해외기업 조사	나이스 평가정보	해외기업 실시간 신용분석보고서 (글로벌 키스라인) 20% 할인
	가이온	해외시장/바이어 검색 서비스(Wetrade TI) 50% 할인
	하나은행	① 해외 송금환율 최대 90% 우대 ② 보증서 담보대출 시 보증료 최대 80% 지원
금융수수료 우대	KB국민은행	각종 금융수수료 최대 80% 할인 및 면제 * 신용장통지, 수출환어음매입, 신용장개설 등
	삼성선물	AUTO 환전(달러선불 자동분할 거래) 수수료 40% 할인
	전북은행	- 환율우대 80%, 신용장 개설/인지수수료 최대 50% 우대 - 해외송금 최대 70% 우대
CEO 전용	SERI CEO	① SERI CEO/PRO 2개월 무료수강 ② 연회비 20% 할인
직원복지	코엑스 아쿠아리움	회원사 임직원 입장료 30% 현장할인
	효담상조	회원사 임직원 상조서비스 30% 할인
디지털업무툴	이폼사인	- 신규 회원사 서비스 1년 무료 제공 - 정액요금제 최대 50%할인 및 연 15만원 상당의 크레딧 제공
	닥스웨이브	- 신규 회원사 서비스 1년 무료 제공 - 1년 계약 시 이용료 50% 할인
	플로우	- 신규 회원사 서비스 1년 무료 제공 - 기존 회원사 30% 할인
	경리UP다	- 신규 회원사 서비스 1년 무료 제공 - 1년 이용 시 50% 할인 제공

	한패스	- 회원사 해외송금 수수료 한 달 3회 무료(최대 30,000원)
	캐시베리	- 신규 회원사 서비스 1년 무료 제공 - 기존 회원사 3개월 무료 제공, 이후 50% 할인
	딜	- 컨트랙터 고용시 회원사 1년 10% 할인 - 정직원 고용 시 회원사 1년 30% 할인
	네이버웍스	- 스마트워크 솔루션 3개월 무상 이용 - SI서비스 30만원 크레딧 지원(6개월)

* 최신 제휴현황은 홈페이지 참조

이용절차	① (회원사) 온라인 신청 → ② (제휴사) 회원사 상담(전화, e-mail) → ③ (회원사) 제휴 할인 서비스 선택 및 이용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포털 : membership.kita.net

표 IV-19-1-4 | KITA 회원 할인서비스 사업 실적('19년~'21년)

구분	이용기업(개사)	이용건수(건)	할인액(억원)
2019년	5,516	267,278	99.3
2020년	5,645	161,769	115
2021년	6,098	193,764	147

KITA 회원 할인서비스 (DX패키지)

혜택소개	한국무역협회 회원사의 DX(디지털전환)을 돕기 위해 최신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	--

	유형	제휴업체	할인혜택
조직 관리	경리회계	경리UP다	(신규 회원사*) 1년 무료 (기존 회원사) 50% 할인
	전자계약	이품사인	
	그룹웨어	닥스웨이브	
	협업툴	플로우	(신규 회원사) 1년 무료 (기존 회원사) 30% 할인
해외 진출	스마트워크시 솔루션	네이버 클라우드	(모든 회원사) 스마트워크 3개월 무료 시솔루션 크레딧 30만원 제공
	해외송금	한패스	(모든 회원사 임·직원) 송금수수료 매달 3회무료 (최대 3만원)
	환위험관리	캐시베리	(신규 회원사) 1년 무료 (기존 회원사) 3개월 무료 + 50% 할인
	해외현지인력 채용	deel	(모든 회원사) 채용수수료 계약직 30%, 정규직 10% 할인

* 신규회원사 : 무역협회 회원가입 1년 이내 기업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혜택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무역협회 해외지부에서 1:1 타겟마케팅 후 발굴된 관심 바이어에 대한 정보 제공 ※ 관심바이어는 제품 특성 및 현지시장수요 등에 따라 발굴이 어려울 수 있음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대상 : 회원사 중 tradeKorea.com 기업회원 신청조건 : 1회 신청 당 3개 지역(年 최대 3회) 신청지역 :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전 국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 서비스 대상 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절차	<p>① (회원사) 트레이드코리아 영문페이지 회원 가입 → ② (회원사) 영문 상품 등록 → ③ (회원사) 트레이드코리아 국문페이지 접속 → ④ (회원사)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선택 → ⑤ (무역협회) 해외바이어 발굴 결과 안내</p>

My Trade - 맞춤형 무역정보 서비스

혜택소개	우리 회사 수출입 정보에 대한 분석 서비스 및 맞춤형 무역정보 제공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회사 수출입 실적을 품목/국가별로 조회 가능 상담·컨설팅/ABTC 카드 발급 등 협회 서비스 신청 현황 확인 가능 국내총생산(GDP), 인구, 신용도, 수입규모, 점유율 통계정보에 기반한 종합 유망시장 추천 관심 시장별 세율/규제, 전시회, 해외오피 정보 등 제공 검색 품목과 관련된 국내 수출 유관기관 지원사업, 교육정보, 멘토링 서비스 등 맞춤 추천서비스 제공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 메인화면 내 추천서비스 아이콘 클릭

나. 무역상담

TradePro 무역상담(디지털/비대면)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 및 각 분야별로 국내 최고 전문가와 화상, 채팅, 음성 상담 및 AI자문, 오픈 게시판 상담질의 가능 -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온라인 신청 및 원하는 시간에 상담 가능 - 수출입 절차, 관세/통관, 계약체결, 대금결제, 해외인증 등 16개분야 40여전문가 통한 궁금증 해소 및 전문가 답변 통한 해결 																															
신청 및 상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epro.kr 접속 후 상담신청 (PC/모바일/태블릿 등) · 한국무역협회(kita.net) 홈페이지 -> TradePro 탭 클릭 																															
세부 상담분야	16개 분야, 42명 전문가																															
	<table border="1"> <tr> <td>1</td> <td>무역실무 7명</td> <td>7</td> <td>해외지역전문가 7명</td> </tr> <tr> <td>2</td> <td>국제계약/분쟁대응 3명</td> <td>8</td> <td>지역별물류전문가 3명</td> </tr> <tr> <td>3</td> <td>해외인증 5명</td> <td>9</td> <td>지재권/특허 1명</td> </tr> <tr> <td>4</td> <td>세무/회계 1명</td> <td>10</td> <td>창업 컨설팅 2명</td> </tr> <tr> <td>5</td> <td>외환/환리스크 2명</td> <td>11</td> <td>온라인마케팅 1명</td> </tr> <tr> <td>6</td> <td>통관/FTA/원산지/관세 4명</td> <td>12</td> <td>전자상거래 1명</td> </tr> <tr> <td>13</td> <td>기술상담 1명</td> <td>14</td> <td>해외전시/마케팅 1명</td> </tr> <tr> <td>15</td> <td>인사/노무 1명</td> <td>16</td> <td>해외시장조사/수출마케팅 2명</td> </tr> </table>	1	무역실무 7명	7	해외지역전문가 7명	2	국제계약/분쟁대응 3명	8	지역별물류전문가 3명	3	해외인증 5명	9	지재권/특허 1명	4	세무/회계 1명	10	창업 컨설팅 2명	5	외환/환리스크 2명	11	온라인마케팅 1명	6	통관/FTA/원산지/관세 4명	12	전자상거래 1명	13	기술상담 1명	14	해외전시/마케팅 1명	15	인사/노무 1명	16
1	무역실무 7명	7	해외지역전문가 7명																													
2	국제계약/분쟁대응 3명	8	지역별물류전문가 3명																													
3	해외인증 5명	9	지재권/특허 1명																													
4	세무/회계 1명	10	창업 컨설팅 2명																													
5	외환/환리스크 2명	11	온라인마케팅 1명																													
6	통관/FTA/원산지/관세 4명	12	전자상거래 1명																													
13	기술상담 1명	14	해외전시/마케팅 1명																													
15	인사/노무 1명	16	해외시장조사/수출마케팅 2명																													

무역현장 자문 컨설팅 서비스

서비스 소개	수출 30년 경력의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무료 1:1 컨설팅 제공								
상담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 membership.kita.net								
세부 상담분야	<table border="1"> <tr> <td>해외마케팅</td> <td>· 해외시장 진출전략, 해외거래선(바이어) 발굴, 바이어 상담 등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전반적으로 상담</td> </tr> <tr> <td>무역실무</td> <td>·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 운송/보험/통관, 대금회수, 무역 클레임 상담 · 무역실무 현장교육</td> </tr> <tr> <td>무역지원제도 안내</td> <td>· 무역금융, 환변동보험, 신용조사 등 · 무역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td> </tr> <tr> <td>경영자문</td> <td>· 경영컨설팅(재무, 인사, 회계, 경영전략 등) ·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무역애로의 상담 및 해결</td> </tr> </table>	해외마케팅	· 해외시장 진출전략, 해외거래선(바이어) 발굴, 바이어 상담 등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전반적으로 상담	무역실무	·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 운송/보험/통관, 대금회수, 무역 클레임 상담 · 무역실무 현장교육	무역지원제도 안내	· 무역금융, 환변동보험, 신용조사 등 · 무역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	경영자문	· 경영컨설팅(재무, 인사, 회계, 경영전략 등) ·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무역애로의 상담 및 해결
	해외마케팅	· 해외시장 진출전략, 해외거래선(바이어) 발굴, 바이어 상담 등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전반적으로 상담							
	무역실무	·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 운송/보험/통관, 대금회수, 무역 클레임 상담 · 무역실무 현장교육							
	무역지원제도 안내	· 무역금융, 환변동보험, 신용조사 등 · 무역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							
경영자문	· 경영컨설팅(재무, 인사, 회계, 경영전략 등) ·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무역애로의 상담 및 해결								

표 N-19-1-5 | 무역현장 자문 컨설팅 서비스 지원 실적 ('17년~'21년)

구분	상당업체(개사)	상담 건수(건)
2019년	13,674	31,875
2020년	15,345	36,384
2021년	17,250	34,911
합계	46,269	103,170

TradeSOS 무역 애로사항 건의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유관기관 협의 및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해결 지원 · 접수, 검토, 처리경과, 완료 등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애로/건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포털 membership.kita.net 															
이용절차	<table border="1"> <tr><th>1단계</th></tr> <tr><td>애로 접수</td></tr> <tr><td>온라인, 콜센터, 간담회 등을 통한 무역 현장 애로 접수</td></tr> </table>	1단계	애로 접수	온라인, 콜센터, 간담회 등을 통한 무역 현장 애로 접수	<table border="1"> <tr><th>2단계</th></tr> <tr><td>(무역협회) 애로 검토</td></tr> <tr><td>사실관계 확인 및 해결방안 검토</td></tr> </table>	2단계	(무역협회) 애로 검토	사실관계 확인 및 해결방안 검토	<table border="1"> <tr><th>3단계</th></tr> <tr><td>(무역협회) 조치 및 애로해소</td></tr> <tr><td>협회 자체해결, 유관기관 협의, 대정부 건의 등 실시</td></tr> </table>	3단계	(무역협회) 조치 및 애로해소	협회 자체해결, 유관기관 협의, 대정부 건의 등 실시	<table border="1"> <tr><th>4단계</th></tr> <tr><td>(무역협회) 결과 공유</td></tr> <tr><td>건의 기업/기관에 처리결과 통보 및 건의내용 공유</td></tr> </table>	4단계	(무역협회) 결과 공유	건의 기업/기관에 처리결과 통보 및 건의내용 공유
1단계																
애로 접수																
온라인, 콜센터, 간담회 등을 통한 무역 현장 애로 접수																
2단계																
(무역협회) 애로 검토																
사실관계 확인 및 해결방안 검토																
3단계																
(무역협회) 조치 및 애로해소																
협회 자체해결, 유관기관 협의, 대정부 건의 등 실시																
4단계																
(무역협회) 결과 공유																
건의 기업/기관에 처리결과 통보 및 건의내용 공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서비스 소개	수출 경력 30년 이상의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집중 멘토링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수출 달성까지 밀착지원
지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거래선 발굴, 수출 계약, 이행 등 수출에 필요한 제반 실무 * KOTRA,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인 기업
이용절차	① 참가신청 → ② (무역협회)서류검토 → ③ (무역협회)현장방문 → ④ (무역협회)결과안내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kita.net

표 IV-19-1-6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실적 ('21년)

구분	지원업체(개사)	수출성공기업(개사)	수출달성금액(USD)
2021년	1,890	2,070	457,513,188
합계	1,890	2,070	457,513,188

FTA 원산지관리 · 비관세장벽(해외인증, 지재권) 컨설팅 및 정보제공 서비스

서비스 소개	(FTA 원산지관리) 관세율, 원산지기준 등 FTA 활용에 대한 상담·컨설팅 및 교육 (비관세장벽) 해외인증과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80 · 온라인 : FTA종합지원센터 okfta.kita.net · 내방 : 트레이트타워 3층 FTA종합지원센터 (서울 삼성동) 							
지원내용	분야		세부 지원사항					
	FTA 원산지 관리	방문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80을 통한 전화 상담만으로 FTA관련 애로 해소가 곤란한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전문가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컨설팅 제공 					
		FTA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대응 등 FTA 활용 관련 교육 개최 					
		중국 /RCEP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EP회원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일 범위에서 FTA 활용실무(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등) 및 인증, 지식재산권, FTA 시스템 분야 맞춤형 컨설팅 제공 					
		FTA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별·품목별 수출 및 수입 관세율, 원산지기준 등 정보제공 · FTA 협정문, 연구·조사자료, 정책자료, 최신뉴스 등 정보제공 					
	비관세 장벽	해외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인증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해외인증 관련 기초/최신 정보, 인증 취득을 위한 세부절차 및 신청서류 작성 관련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분야 <table border="1" data-bbox="596 1344 1208 1413"> <tr> <td>해외인증 관련 기초교육</td> <td>인증 획득 절차 세부안내</td> </tr> <tr> <td>인증 신청문서 작성 지원</td> <td>해외 기술기준/표준 상담</td> </tr> </table>		해외인증 관련 기초교육	인증 획득 절차 세부안내	인증 신청문서 작성 지원	해외 기술기준/표준 상담
		해외인증 관련 기초교육	인증 획득 절차 세부안내					
	인증 신청문서 작성 지원	해외 기술기준/표준 상담						
지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리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재권 관련 기초/최신 정보,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재권 침해 이슈 대응 방안에 관한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분야 <table border="1" data-bbox="596 1609 1208 1707"> <tr> <td>지재권 관련 기초 교육</td> <td>지적재산 권리화 방안</td> </tr> <tr> <td>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td> <td>지재권 침해 대응 솔루션 제공</td> </tr> </table>		지재권 관련 기초 교육	지적재산 권리화 방안	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지재권 침해 대응 솔루션 제공		
지재권 관련 기초 교육	지적재산 권리화 방안							
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지재권 침해 대응 솔루션 제공							

수출입 운송비 할인 및 컨설팅 서비스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물류 협력업체를 통한 물류비 할인 • 수출입 물류 관련 모든 상담 제공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물류비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협력업체 이용 시 우대요금 적용 (포워딩, 3자물류, 내륙운송) • 운임 및 각종 물류요금 견적 서비스
	전화/이메일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 적정성 검토 및 물류애로 상담
	방문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수출입 물류 컨설팅 제공 <p>〈주요 컨설팅 분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입 물류 체계 진단 및 효율화 2) 수출입 운송비 절감 3) 전반적인 수출입 물류 절차 4) 창고 이용 효율화 및 부대비용 절감
	수출입물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항공 시장운임 정보 (매월 시장참고가격 공개)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물류포탈 : shippersgate.kita.net	

다. 해외시장 개척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소개	구분	지원사항
	KITA 수출상담회	글로벌 바이어와 국내 중소/중견기업과의 1:1 비즈니스 매칭을 바탕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해외현지 전시상담회, 화상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수출 지원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수출 노후화가 부족한 국내 우수 제조기업과 수출전문대행기업(전문무역상사)과의 연계, 비즈니스 상담 주선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수출 지원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및 연계 마케팅 지원	전문 산업군(스포츠레저/ICT/해양방위산업 등)의 내수 기반 조성 및 발전, 해외 마케팅을 통한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전문 전시회를 개최. 특히 해외바이어 초청 및 상담 주선을 통해 참가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신규 바이어 발굴, 제품 홍보, 현지 시장 트렌드 파악, 국내 외 동종산업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 수출기업들의 해외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
* 전시회/상담회 일정은 연중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일정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기업 지원

서비스 소개	구분	지원사항
	Fortune 500 Connect	· 해외 대/중견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 연결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해외 실증 테스트베드	· 해외 랜드마크 시설·대기업에서 스타트업 제품/솔루션에 대한 시연, 적용 및 테스트 지원
	NextRise, Seoul	· 국내 최대 스타트업 페어로 부스전시, 대중견기업 및 투자자 미팅 등 종합지원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Innobranh	· 국내/해외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정보 제공 및 해외 생태계와 정보 교환 플랫폼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 해외진출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에게 최대 3,0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
	국내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 국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 지원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innobranh.com) · 스타트업브랜치(startupbranch.kita.net)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exportvoucher.com) 	

tradeKorea - 국내 최대 온라인 B2B e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年평균 1500만명 방문 및 25,000건의 인콰이어리 접수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매칭 지원 · tradeKorea 가입 후, tradeKorea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상품 무료 홍보 가능 																
신청자격	tradeKorea 기업회원 * 개인회원은 일부 서비스만 이용가능																
세부내용	국내 tradeKorea 회원 전용 무료 수출지원 서비스(kr.tradeKorea.com) <table border="1" data-bbox="386 652 1222 1466"> <thead> <tr> <th data-bbox="386 652 708 721">분야</th> <th data-bbox="708 652 1222 721">세부 지원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86 721 708 852">바이어DB 타겟마케팅</td> <td data-bbox="708 721 1222 852">무역협회 보유 185만 개 바이어DB 접속하여 직접 희망국가/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안서(C/L) 발송</td> </tr> <tr> <td data-bbox="386 852 708 983">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회원사 전용)</td> <td data-bbox="708 852 1222 983">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td> </tr> <tr> <td data-bbox="386 983 708 1079">영문 홈페이지 제작</td> <td data-bbox="708 983 1222 1079">tradeKorea 도메인활용 미니사이트 무료 제작 지원</td> </tr> <tr> <td data-bbox="386 1079 708 1176">해외바이어 구매오퍼</td> <td data-bbox="708 1079 1222 1176">해외바이어 소싱정보를 공개하여 매칭 희망 국내 기업 공개모집</td> </tr> <tr> <td data-bbox="386 1176 708 1272">빅바이어 상시거래알선</td> <td data-bbox="708 1176 1222 1272">매월 3개 글로벌 유통 빅바이어 소싱지원 (IKEA, Watsons 등)</td> </tr> <tr> <td data-bbox="386 1272 708 1368">샘플 소액결제 서비스</td> <td data-bbox="708 1272 1222 1368">샘플 주문 간편 결제 지원</td> </tr> <tr> <td data-bbox="386 1368 708 1466">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td> <td data-bbox="708 1368 1222 1466">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 외환결제시 하나은행 외환수수료 할인</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 지원사항	바이어DB 타겟마케팅	무역협회 보유 185만 개 바이어DB 접속하여 직접 희망국가/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안서(C/L) 발송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회원사 전용)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	영문 홈페이지 제작	tradeKorea 도메인활용 미니사이트 무료 제작 지원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해외바이어 소싱정보를 공개하여 매칭 희망 국내 기업 공개모집	빅바이어 상시거래알선	매월 3개 글로벌 유통 빅바이어 소싱지원 (IKEA, Watsons 등)	샘플 소액결제 서비스	샘플 주문 간편 결제 지원	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	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 외환결제시 하나은행 외환수수료 할인
분야	세부 지원사항																
바이어DB 타겟마케팅	무역협회 보유 185만 개 바이어DB 접속하여 직접 희망국가/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안서(C/L) 발송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회원사 전용)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																
영문 홈페이지 제작	tradeKorea 도메인활용 미니사이트 무료 제작 지원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해외바이어 소싱정보를 공개하여 매칭 희망 국내 기업 공개모집																
빅바이어 상시거래알선	매월 3개 글로벌 유통 빅바이어 소싱지원 (IKEA, Watsons 등)																
샘플 소액결제 서비스	샘플 주문 간편 결제 지원																
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	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 외환결제시 하나은행 외환수수료 할인																
서비스 신청	www.tradeKorea.com																

Kmall24 - 한류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 콘텐츠 홍보(다국어 지원) · 간편 회원가입, 해외PG 결제수단 적용 등 해외 판매 최적화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all24 입점가입 회원 (Kmall24.com 에서 입점신청) 														
세부내용	<p><사이트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입점비, 운영 수수료 등의 비용 없음 (단, 해외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별 수수료 발생) · 중소기업 상품 콘텐츠 온라인 매거진 형태로 홍보 · 간편 회원가입 및 해외결제로 해외 고객 대상 판매 최적화 <p><주요 지원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상품판매 지원</td> <td>해외판매 전용 셀러 독립몰 개설 (입점/판매 수수료 없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콘텐츠 제작 지원</td> <td>숏비디오, SNS 콘텐츠, 홍보기사 등 제작</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온라인마케팅 지원</td> <td>SNS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리뷰 바이럴 마케팅, 이벤트·프로모션 참여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물류 지원</td> <td>국내 집하지 활용 해외배송 및 선입고(FBK) 지원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운영 지원</td> <td>B2B 인콰이어리 수신, 고객문의 응대지원(CS)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육 지원</td> <td>분기별 온라인마케팅 웨비나 개최</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내용	상품판매 지원	해외판매 전용 셀러 독립몰 개설 (입점/판매 수수료 없음)	콘텐츠 제작 지원	숏비디오, SNS 콘텐츠, 홍보기사 등 제작	온라인마케팅 지원	SNS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리뷰 바이럴 마케팅, 이벤트·프로모션 참여 등	물류 지원	국내 집하지 활용 해외배송 및 선입고(FBK) 지원 등	기타 운영 지원	B2B 인콰이어리 수신, 고객문의 응대지원(CS) 등	교육 지원	분기별 온라인마케팅 웨비나 개최
분야	세부내용														
상품판매 지원	해외판매 전용 셀러 독립몰 개설 (입점/판매 수수료 없음)														
콘텐츠 제작 지원	숏비디오, SNS 콘텐츠, 홍보기사 등 제작														
온라인마케팅 지원	SNS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리뷰 바이럴 마케팅, 이벤트·프로모션 참여 등														
물류 지원	국내 집하지 활용 해외배송 및 선입고(FBK) 지원 등														
기타 운영 지원	B2B 인콰이어리 수신, 고객문의 응대지원(CS) 등														
교육 지원	분기별 온라인마케팅 웨비나 개최														
서비스 신청	kmall24.com														

라. 무역정보

국제 무역/통상정보 제공

서비스 소개	· 무역과 관련된 각종 연구 보고서 발간	
	주요 서비스	보고서 예시
	국내외 무역현안/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 정보 제공 · 한국의 가치사슬 구조변화 및 우리의 과제 ·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최근 경영환경 전망과 시사점
	수출입 동향 분석/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수출입 동향에 대한 현황 정보 제공 · 2021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 2021년 수출입 평가 및 2022년 전망
	유망 수출산업/시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출이 유망한 산업 및 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 · 세계에 K-농업을 재배한다:스마트 농업시대 수출산업화 방안 · 필환경 ESG 시대, 패션산업 친환경 트렌드와 시사점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뉴스레터 발간 ○ 원자재 등 공급망 관련 동향 및 정보 제공 · 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기회와 과제 · 우리나라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
	· 통상 정보 제공, 현안 분석 및 컨설팅 실시	
	주요 서비스	세부내용
	통상리포트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통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보고서 발간 ·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공급망 변화 전망 · 2021년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및 현안 점검 · '오징어 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 등
	뉴스레터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로펌·자부·학술지 및 외신 정보 선별 후 정리하여 제공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교육과정 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 실무 공무원 과정, 수출기업 통상실무, CEO 대상교육 ○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통상·산업 통합전략 컨설팅 제공 	
수입규제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정보 제공 ○ 전문가 그룹(회계, 법률)과의 연계를 통한 심화 컨설팅 제공 ○ 수입규제 관련 종합 대책 마련 및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수입규제협의회 사무국 운영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iit.kita.net) 	

K-stat -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61개국 수출입 통계를 품목별, 국가별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공하는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 - 한국, 북한 및 중국·미국·일본·EU(28개국)·호주·캐나다·아세안·중남미 등 총 61개국 무역통계 DB 보유 - 세계무역통계, 해외부품소재통계 등 주제별 무역통계 DB 보유 - 순위통계, 매트릭스통계 등 맞춤 분석형 통계정보 제공
이용안내	<p>stat.kita.n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무역통계의 품목별/국가별 통계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사에게만 제공

온/오프라인 무역 자료 이용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A 전자도서관 : 무역협회 및 유관기관 발간자료를 전자책(eBook) 형태로 무료 제공 · 정보자료실(회원사 전용) : 무역 관련 4만여 권의 온/오프라인 자료에 대한 무료 열람 제공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전자도서관 (ebook.kita.net) · 방문 : 트레이드타워 6층 603호(서울 삼성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약 필수(문의 : 02-6000-5109) * 운영시간 : 14:00~18:00(월~금, 공휴일 제외)

마. 무역교육 및 인력매칭

무역실무 단기 교육과정

과정소개	· 실무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분야	세부 교육과정
	무역실무	신입사원 무역실무, 정규무역실무, 관세환급, 통상/FTA, 환리스크 관리 등
	마케팅	e커머스 활용 전략, 비즈니스 협상, 산업 전문가 과정 (화장품/식품) 등
	자격시험 대비	국제무역사 1급 단기완성, 무역영어 등
	비즈니스 외국어	회화 및 이메일 작성법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직무	OA, 마케팅/경영, 법정교육, 프로그래밍 등
	* 협회 회비 완납사의 경우 단기 교육과정 수강료 20% 할인 * e러닝 과정의 경우, 학습기간 1개월 이후 무료 복습기간 5개월 제공	
수강안내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tradecampus.com)	

무역 자격시험

시험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무역사 1급 - 내용 : 무역 업무에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무역 지식을 검증 - 특전 : 주요 무역상사, 금융기관 등 인사고과 가점 부여, 무역협회 주관사업 모집, 선발 시 가점부여 등 - 일정 : 1급 연 2회(2월, 8월)
시험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 tradecampus.com

무역 인력양성 및 구인/구직자 매칭

과정소개	·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취업연계	국내	무역마스터 과정	무역실무, e-비즈니스, 비즈니스 외국어 교육을 통한 무역전문가 집중 양성 과정
			Global e-Commerce 마스터 과정	아마존, 쇼피 등 Global e-Market 플랫폼 활용 교육 및 실습을 통한 e-Commerce 전문가 집중 양성과정
			KITA 디지털 마스터 과정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등 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위한 실무형 디지털 전문가 집중 양성 과정
		해외	SMART Cloud IT마스터 과정	ICT 지식 및 외국어 교육을 통한 글로벌 IT전문가 집중 양성 과정
	실무역량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산·학·관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무역 전문인력 양성	
		무역캠프 (대학생·특성학교)	실제 무역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특화 체험 프로그램	
	· 국내 구인기업 및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 추진			
	사업명	주요 지원사항		
	국내채용 박람회	○ 잡투게더 국내채용박람회 개최(COEX 3회, 대구/부산 각 1회) - 국내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행사 개최		
해외채용 박람회 (K-Move센터)	○ 잡투게더 해외채용박람회 개최(연 8회) - 해외 구인기업과 국내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행사(4회) - 해외에 진출한 국내 법인과 국내 구직자 간 매칭 행사(2회) - 일본 현지 유학생 대상 채용박람회 개최(2회)			
일자리 지원센터	○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상시 일자리 알선 진행 ○ 취업 관련 상담 및 자기소개서 첨삭 서비스 제공 ○ 무역전문 채용포털 “잡투게더(jobtogether.net)” 운영			
취업스킬업 교육	○ 국내 구직자 대상 무료 단기취업교육 “취업스킬UP!” 개최(연 8회) - 서울 3회, 강원/대구/부산/전북/제주 각 1회 -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스킬, 모의면접, 멘토링 등 교육 ○ 해외취업 희망자 대상 해외취업 교육 및 컨설팅 실시(연 4회) - 해외 취업 정보제공, 취업 노하우, 유의사항 등 교육			
인재채용 대행서비스	○ 인재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 전(全) 과정을 전문가가 대행 ○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자문 서비스			
신청안내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tradecampus.com) · 잡투게더(jobtogether.net) · 일자리지원센터(02-6000-7608~10(국내취업), 7136(해외취업))			

글로벌물류 최고경영자 과정(GLMP)

* Global Logistics Management Program for CEO

과정 소개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과 공동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물류전문 최고경영자 과정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 혁신/투자/경영전략 및 정책 트렌드 강의, 국내/해외 연수, 부부동반 특강, 총동창회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물류분야 전문가와 고위 공무원, 언론인, 문화계 인사를 총망라하는 1,300여 명 원우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과정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tradecampus.com)

바. 수출입 실적 증명 및 활용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소개	수출입 실적증명서 신청 및 증명발급	
발급 대상	구분	실적인정 대상
	수출입실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의 직수출/직수입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 : 경영 상담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운수업, 문화사업, 관광사업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 영상물, 음성물, 전자서적 등
	외국인 외화영수부 국내수출자 공급 물품 수출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 보세구역 내의 지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화물선/함정에게 선용품(유류/식품/의약품, 물품 등을 공급한 경우 	
발급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포털(membership.kita.net)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서비스 소개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 근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24조	
신청요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 무역협회 회원가입 시 무역업고유번호 자동 부여	
필요서류	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파일첨부)
	방문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내방자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 [회원/업무지원]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참조 · 방문 :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서울 삼성동) 및 국내지역본부	

무역분야 추천서 - 해외지사 설치인증/ 외국인 비자발급 추천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체의 해외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 외국인력 채용을 위한 외국인 비자 발급 추천 · 무역업체가 해외바이어 초청 시 외국인 비자 발급 추천
발급 대상	공통 조건 : 무역업고유번호를 보유한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업체 - 10만 달러 이상의 취소불능신용장 수취 또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 · 해외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인 비자(사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력 채용 시) 연간 수출실적이 10만달러 이상인 업체 * 대상 외국인 : 무역관련 전공(경제, 국제통상, 경영학 포함)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또는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해외바이어 초청 시) 연간 수출실적이 50만 달러 이상인 업체
발급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기타 증명서 발급

서비스 소개	회원사 또는 협회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	
발급 대상	구분	발급 증명서
	회원/회비 증명서	· 무역협회 회원증 발급(국/영문) · 회비납부영수증(입금표) 발급
	무역아카데미 증명서	· 단기과정 수료증 · 온라인(ICTC) 수료증 · 자격증(국제무역사, 외환관리사) * 2003년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온라인 발급 가능
	기타 확인증	· KB국민은행 외환수수료 우대확인증 · 수출의 탑 수상확인증
발급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포털(membership.kita.net)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회원국 중 APEC 가입 19개국 방문 시 별도의 비자 없이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는 카드 발급 · 가입국 공항 내 전용 수속레인(Fast Track) 이용
발급 대상	<p>기업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수출입실적 또는 해외 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해외건설업면허를 득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등 <p>개인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국적이며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최근 2년간 APEC 회원국 4회 이상 방문 등 · 관련 법령에 따른 출국 금지 또는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발급안내	한국무역협회 ABTC업무포털 (http://abtc.kita.net)

ABTC 19개 가입국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태국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대만	베트남	

관정회원 (Transitional Member)

미국	캐나다
----	-----

*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며, 공장에서 전용 수속레인(Fast Track)만 이용가능

신청절차	서류제출(신청) 서류 검토 및 추천(무역협회) 발급심사(법무부) 국가별 승인(APEC 19개국) 카드발급 신청(신청기업) 카드발급(무역협회)
발급 수수료	장당 3만원
카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신청안내	한국무역협회 ABTC업무포털 (abtc.kita.net)

사. 우수 무역기업 시상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및 수출유공자 포상

시상 소개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기여한 업체 및 수출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								
시상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의 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상 대상 : 연간* 각 탑 해당금액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실적산정 기간 : 전년도 7월 1일 ~ 당해연도 6월 30일 종류 : 백만 불/천만 불/억 불 등 총 45종+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종류</th> </tr> </thead> <tbody> <tr> <td>백만 불대(4종)</td> <td>1, 3, 5, 7백만불</td> </tr> <tr> <td>천만 불대(5종)</td> <td>1, 2, 3, 5, 7천만불</td> </tr> <tr> <td rowspan="2">억 불대(36종+)</td> <td>1~9억불(9종), 10~90억불(9종), 100~950억불(매 50억불 단위, 18종) 1,000억불 이상(매 100억불 단위)</td> </tr> </tbody> </table>	구분	종류	백만 불대(4종)	1, 3, 5, 7백만불	천만 불대(5종)	1, 2, 3, 5, 7천만불	억 불대(36종+)	1~9억불(9종), 10~90억불(9종), 100~950억불(매 50억불 단위, 18종) 1,000억불 이상(매 100억불 단위)
	구분	종류							
백만 불대(4종)	1, 3, 5, 7백만불								
천만 불대(5종)	1, 2, 3, 5, 7천만불								
억 불대(36종+)	1~9억불(9종), 10~90억불(9종), 100~950억불(매 50억불 단위, 18종) 1,000억불 이상(매 100억불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유공자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상 대상 : 수출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 등 종류 : 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 								
신청기간	7월 중순 ~ 8월 중순(예정)								
신청안내	수출의 탑 및 포상안내(award.kita.net)								

“한국을 빛낸 무역인” 시상

시상 소개	신기술 및 아이디어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한 우수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신문 공동 주관
시상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상 대상 : 무역업체 CEO · 시상 주기 : 분기별 2명(4분기 제외) · 선정 기준 : 연간 수출실적 500만 불 이상 달성한 업체 중 수출증가율, 사회공헌활동 등 공적사항을 고려
신청안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공지사항 참조

2

기타 참고사항

가. 온라인 무역협회 서비스

1) 글로벌 비즈니스 포털 KITA.net

주요 서비스

- 무역뉴스, 연구보고서, 무역실무매뉴얼 등 각종 무역통상정보 조회
- 해외무역 통계, 해외부품소재 통계, 맞춤분석 통계 등 무역통계 조회
- 협회 사업, 공지사항, 국내외 지역본부 등 협회 관련 소식 조회

이용안내

- PC버전 : 국문 서비스 kita.net / 영문 서비스 kita.org
- 모바일 앱 : Smart KITA (iOS, Android 지원)

2) 회원 업무 종합안내 업무지원포털

주요 서비스

- 무역 애로사항 건의, 무역실무 상담 등 각종 전문상담/컨설팅 이용
- 수출입실적, 회원/회비, 아카데미 등 각종 증명서 발급
- 협회 지원사업 및 회원 전용 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이용안내

-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 membership.kita.net

3) 국가무역 정보포털 TradeNAVI

주요 서비스

- 최신 관세율/무역규제 정보 조회, 무역정보 안내지도 이용
- 키워드/HS코드/국가/업종별 무역정보 통합검색 이용
- 특정 국가/업종 관련 무역 보고서 조회

이용안내

-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adenavi.or.kr

4)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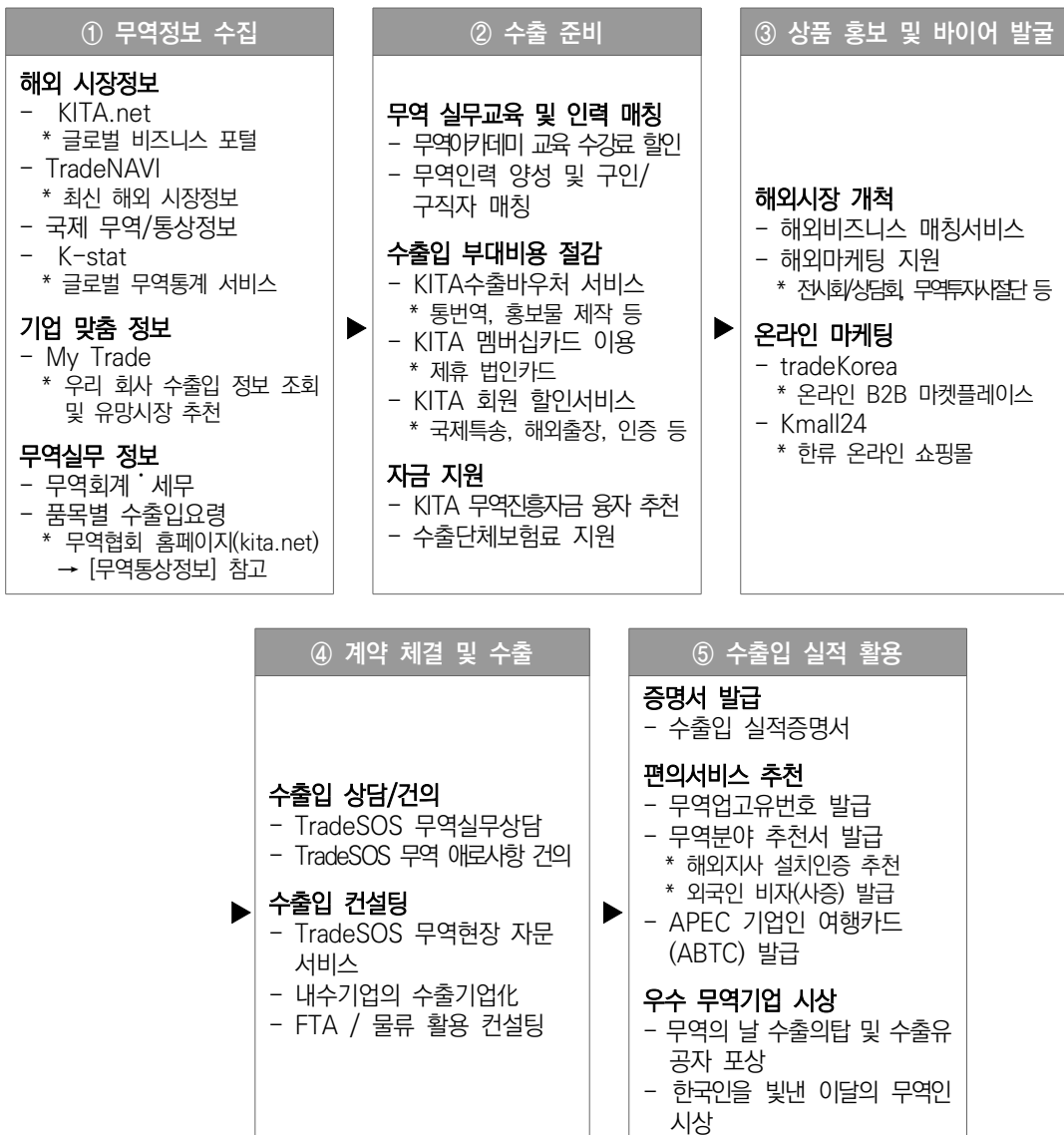
주요 서비스

- 세계 61개국 수출입 통계를 품목별/국가별로 조회
- 세계무역통계, 해외부품소재통계 등 주제별 무역통계 조회
- 순위통계, 매트릭스통계 등 맞춤형 분석형 통계 이용
 - * 해외무역통계의 품목별/국가별 통계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사 전용으로 제공

이용안내

- K-stat stat.kita.net

나. 수출입 단계별 제공 서비스



제20장

한국생산성본부

1

일반현황

한국생산성본부는 우리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32조에 의거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사업, 지수사업, 조사연구사업,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법의 개발 및 보급사업, 생산성향상을 위한 정부위탁사업, 아시아생산성기구(APO)와 관련되는 정부업무의 대행, 공장자동화·사무자동화·공장관리합리화·물류합리화에 관한 연구·컨설팅·교육훈련·기술개발 및 설비의 책임감리,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증 발급, 정보시스템 감리 및 평가 등 정보화 진흥사업, 생산성향상 전문요원 양성 및 자격증발급 사업, 생산성향상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시청각교재, 정기 간행물, 도서 등의 제작·발간 및 각종 정보자료의 개발 보급,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기술조사 및 연구용역, 중소기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 상담·교육사업, 생산성회원제도의 운영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및 전문요원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2본부(소·단), 35센터·팀, 4지역본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에 소재하며, 경기도 이천의 연수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다년간에 걸쳐 우리 산업 현장 및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생산성경영체제 보급과 산업혁신운동, 대·중소기업간의 생산성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래지향적 컨설팅 방법론 제시와 고품질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산업 체질 강화와 새로운 생산성 제고 요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국가생산성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ESG 솔루션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컨설팅/교육/자격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규 모델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 및 인력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생산성향상 사업

1) 국가 생산성대상, 생산성 향상 유공자 시상

한국생산성본부는 1962년 생산성상을 제정하여 경영의 발전과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표창하고 있다. 국가생산성대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 요구되는 이슈들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소개하여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혁신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제고 및 근로자의 참여 도모를 이끌어 냈고 동시에 측정된 경영, 평가된 경영, 체계화된 경영 기법을 보급·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생산성향상의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범국가적 생산성 의식의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포상하고 기업 및 소속단체에서 생산성향상운동과 경영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그 성과가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영자 및 임직원을 추천받아 생산성 향상 유공자로 선정·포상하고 있다.

표 IV-20-1-1 | 생산성 향상 유공자 시상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생산성대상·유공자 포상(사·명)	77	85	40

2) 생산성관련 조사·연구 및 경영생산성모델 개발

한국생산성본부는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경영전략, 임금정책의 기초가 되는 노동생산성통계와 상장기업의 노동생산성분석 등을 분기별로 편제·발표하여 생산효율화, 기술투자, 성과배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케 하고 있으며, 외국선진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보급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서비스업 지역별 노동생산성, 서비스업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 제조업 지역별 노동생산성,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장기 시계열 DB 구축, 네트워크 생산성 연구에 더하여 2021년 R&D 생산성통계 개발을 새롭게 실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 데이터 구축에 힘쓰고 있다.

표 IV-20-1-2 | 생산성 통계 발간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생산성 통계 발간(종)	11	12	13

3) 생산성경영체제(PMS) 인증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경영체제(PMS ;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등급인증제도의 보급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시스템의 생산성 혁신역량 수준을 진단·인증하고 맞춤형 컨설팅/교육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업체가 PMS인증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는 이상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원과 역량수준을 감안,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에 집중하여 진단함으로써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표 IV-20-1-3 | 생산성경영체제 보급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PMS보급·확산 기업(사)	202	145	161

4)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공급 가치 사슬 전체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핵심파트너로 육성할 1·2·3차 협력사에 대해 제품혁신, 프로세스 혁신, 조직혁신 등 기업별 집중 개선 분야별로 현장 진단, 역량 강화 교육,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19개 컨소시엄, 202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생산성 향상 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다.

5) 산업혁신운동 지원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2013년부터 자발적인 동반성장의 기치아래 현장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참여 중소기업의 생산성혁신활동을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한국형 제조혁신 방법론(KPS)을 적용하여 산업혁신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2021년(8차년) 산업혁신운동 사업에 한국생산성본부는 122개 기업을 지원하여, 참여기업들의 현장 개선,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컨설팅, 임직원의 혁신 의식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산업생태계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6) 상생형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한국생산성본부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협력하여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및 ICT 연계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고도화 및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스템 활용도 향상 및 안정화를 이끌고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21년에는 12개 컨소시엄 190개 기업에 대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7) 일터혁신 지원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우리 중소기업 근로조건 향상과 중소기업 경쟁력 극대화를 위하여 다년간에 걸쳐 임금·평가체계 개선, 노사협력, 작업환경 및 근로 조건 개선, 고용안정 등 일터혁신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터혁신컨설팅을 통해 2021년 한해 98개 기업에게 200개 컨설팅 영역을 지원함으로써 노사파트너십 기반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나. 컨설팅 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1958년 현대적 경영의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영 컨설팅을 시작한 이래 선진이론을 도입·정착시켜왔고, 인사/조직, 전략, 성과측정 등에 대해 전략수립에서 관리시스템 설계에 이르기까지 산업별, 기능별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글로벌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ESG,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에 적합한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고 ESG 세부 주제별 심도 깊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ESG, 지속가능경영 추진기반 구축 솔루션을 보급하고 있다. 특히 2021년은 표준 ESG 가이드라인(K-ESG) 개발보급과 더불어 중소기업 ESG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방법론 개발 및 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신력을 바탕으로 객관성이 요구되는 공공분야 컨설팅을 비롯 제조현장 합리화, 품질관리, 에너지효율화 컨설팅에서 나아가 데이터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특성과 최신 경영 트렌드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정책 및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정책연구컨설팅도 수행하고 있으며, CS전략수립, CS측정모델구축, CS경영시스템구축 등의 고객만족 컨설팅과 기업 및 제품 브랜드 전략, 브랜드체계 전략 수립 등의 브랜드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다.

표 IV-20-1-4 | 컨설팅 지원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컨설팅지원(건)	3,121	3,394	3,439

다. 교육훈련 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인력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인적 자원의 고급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새로운 이론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고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과정을 제시, 도입하고 지속적인 교육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품질 향상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경영관리, 생산품질, 정보화 등 직무기능분야별로 불특정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모집교육과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관리능력 및 조직개발 등 주요 테마별 주문식 교육인 수탁교육, 인터넷, 우편통신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인 스마트러닝 교육 등의 과정을 두어 교육하고 있다.

표 IV-20-1-5 | 교육 및 훈련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공개/수탁교육(회)	5,514	4,070	4,020
스마트러닝교육(명)	21,602	23,551	17,328

라. 아시아생산성기구(APO) 협력 사업

생산성향상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개발을 목표로 아시아생산성기구(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 APO)와 상호협력사업을 통해 각국의 생산성관련 정보 및 인적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이를 국내 중소기업 등에 보급함으로써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APO 회원국간의 경험 및 정보를 상호교류하기 위해서 매년 수차례의 APO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사례를 회원국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인바운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표 N-20-1-6 | 세미나 개최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내 주관 APO 프로그램(개)	3	4	4

마. 정보기술자격검정 사업

기업종사자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처리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인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하여 기업의 정보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시대적 흐름과 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자격, SW코딩자격,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인증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서비스업 및 개인의 정보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정책과제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N-20-1-7 | 정보기술자격인증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ITQ 등 자격인증(명)	1,148,743	991,110	1,121,169

제21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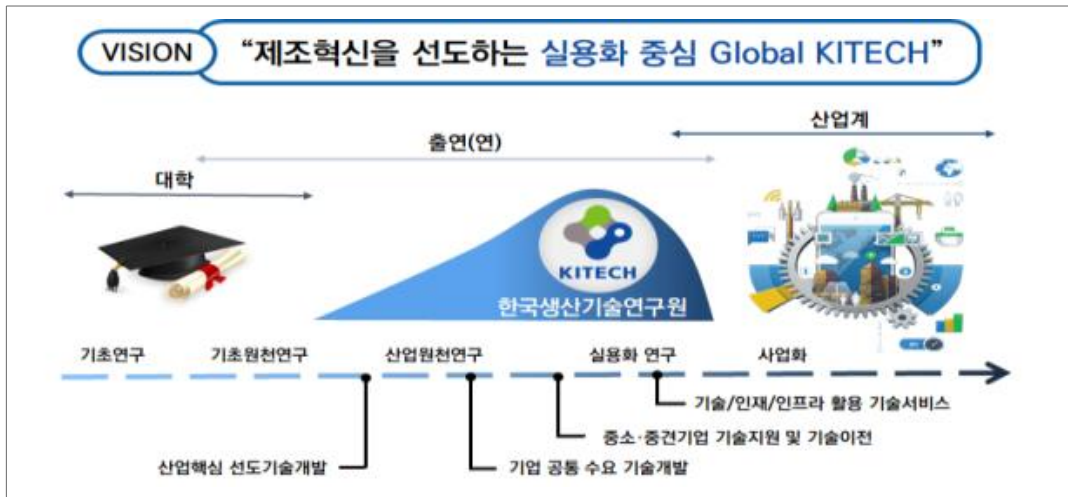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생산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9년 국가에서 설립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이다.

그림 48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 연혁



3대 중점 연구영역(청정·융합·뿌리)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지역분산형 기술 지원 및 지식기반 기술 지원 체제를 통한 중소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 지원과 기술사업화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한다.

그림 49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역할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기관 R&R 연계 생산기술 R&D 및 실용화 지원 서비스 제공

1)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유의 기업혁신성장 사다리 체제(초기탄탄 → 성장도약 → 혁신성장)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및 핵심기술 상용화를 집중지원 하고 있다. 더불어, 해외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현지진출 기업 대상 애로기술 해결 및 신규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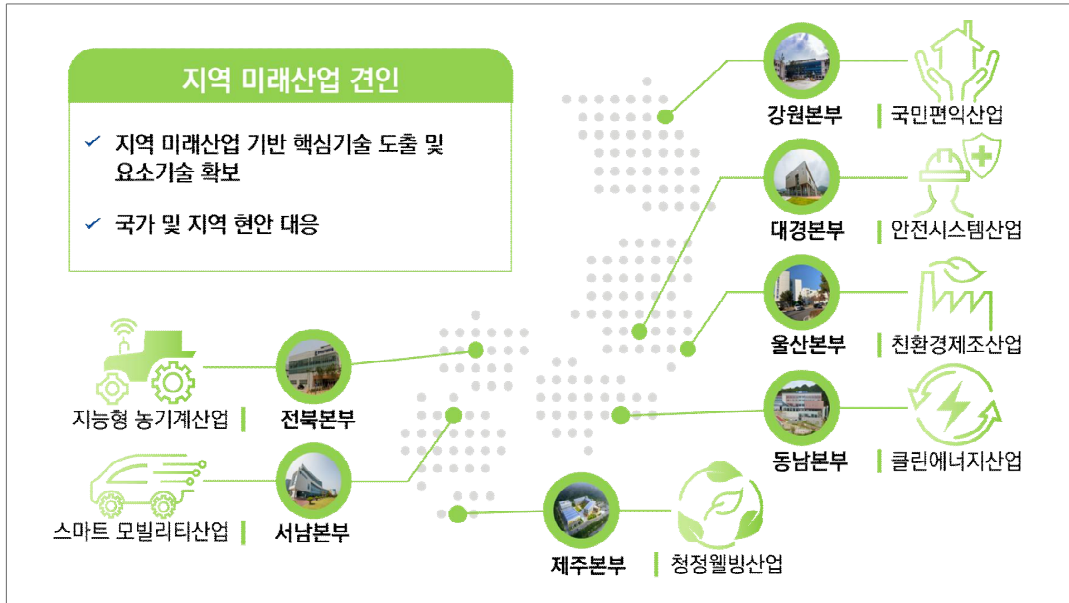
2) 생산기술 기반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지원

제조공정 기반 지능화 기술 노하우를 제조현장에 적용하여 핵심기술화 하고, 주요 산업별 지능제조 플랫폼 대표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제조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온도, 습도, 압력, 전류, 전압, 유량 등)를 활용하여 제조 공정을 지능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공정의 개선 및 최적화를 지원하고 있다.

3) 지역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지원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7개 본부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산업과 관련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 지원하고 있다. 지역 특화 산업별 첨단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성공사례가 산업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그림 50 | 지역본부를 활용한 지역 미래(특화)산업 육성 지원



나. 제조 중소기업·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 강화

1) IP-R&D 연계 운영체계 고도화를 통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

IP-KNavi* 전략을 통해 우수IP 창출 → 관리 → 활용(사업화)으로 이어지는 IP-R&D 프로세스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업화 성공률(특허출원 대비 기술이전 비율)을 높여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는 질적 성과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IP-KNavi (Intellectual Property KITECH Navigator) : R&D 전 과정에 단계별·목적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제공하여, 빠르게 최적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IP 창출·관리·활용 전략

2) R&D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관 주요 제조혁신 연구분야(뿌리·청정생산시스템·융복합생산)를 기반으로 지역 거점 중심 지원 체계(7개 본부 중심의 지역특화산업/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지원 추진

가) (내부과제) 자체 예산을 활용한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운영

표 IV-21-1-1 | 단계별 대표 기업지원 프로그램(내부사업)

Level 1 [기술기획]	Level 2 [기술·공정지원]	Level 3 [상용화기술개발]	Level 4 [기술이전 및 후속]
산업전환(미래제조업) 사업기획 지원	지역별 근접 애로기술공정혁신지원	핵심육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지원	기술이전 및 후속지원
① 파트너기업 기술현안대응사업(기술기획)	① 파트너기업 기술현안대응사업 (단기애로기술지원)	① 핵심기업육성사업 1단계 (소부장, 뉴딜분야 상용화개발지원)	① 핵심기업육성사업 2단계 (1단계 기술이전 완료 대상 중 추진)
	② 공동장비, 지역특화, 3N사업 (인프라기반기술지원)	② 기업주문형사업 (기업요구 스펙 개발 후 기술이전)	
	③ 신시장창출사업 (해외진출 희망 기업 대상 맞춤 기술지원)	③ 제조혁신지원사업 (공정별 지능화 모듈개발 및 플랫폼 개발)	② 기업주문형 사업 (기업요구 스펙 개발 후 기술이전)
	④ Go-together사업 (협력사 및 지자체 특화산업 연계기업지원)		

나) (인프라 지원) 기관 기업지원 인프라(장비·인력·특화센터 등)를 활용한 적재적소의 기업지원 추진

표 IV-21-1-2 | 인프라(장비·인력·특화센터 등) 활용 기업지원 프로그램

제도 운영	장비/시설 활용	인력 활용
① 파트너기업 제도운영	① 개방형 실험실 운영	① 기술자문 및 기업 현장출장
② 기술커뮤니티	② 기업 전용연구시설 운영	② 기업지원 전담인력 운영
③ 중소기업 테크컨택센터 운영		
④ 중소기업 해피클릭 운영	③ 지역특화센터 운영	③ 벤처기업 확인평가

다) (전담기관 수행) 지역혁신 임무지향성 제고를 위한 지역조직 중심의 정부/지자체와의 능동적 협력 강화 → 지역 특화산업군 기업 지원사업 확보 및 전담기관·수행기관 역할 병행 수행 (안산시, 시흥시, 천안시 등)

3) 아세안 해외사무소의 신남방 핵심거점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해외사무소(베트남, 인도네시아) 기능 강화를 통해, 新남방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공정혁신,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고 신규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공동연구, 기술교육,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현지(베트남, 인도네시아) 정부·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정부 정책 수립 참여 및 현지 수요기반 사업기획·추진 등을 통해 국가간 국제협력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다. 정부 정책 연계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체계 개선

1) 정부정책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부서 개편 및 관련 기능 강화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트렌드에 맞춰,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산하 부서* 개편('21.1.)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탈탄소 신산업 육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저탄소 전환 등을 추진하여 정부 환경정책에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 청정기반기획실 → 기획평가조정실, 자원순환기술정책실 → 순환경제실, 환경규제대응실 → 탄소중립실

2) 제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적응 지원

제조업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기 위해 기존 '스마트제조 혁신전략단'을 '디지털전환추진단'으로 개편('20. 8.)하여 기관 차원의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제조공정에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IoT 등 IT시스템을 결합하여 공정효율 개선

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1) 파트너기업 육성 지원

연구원과 공동연구, 기술지원 등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생기원 - 파트너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지원하고 있다.

표 N-21-1-3 | 한국생산기술연구원-파트너기업 운영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신규기업	292	245	209	
전체기업	3,829	4,028	4,008	

그림 51 | 파트너기업 선정절차 및 내용



2) 중소기업테크컨택센터 운영

중소기업 기술애로 접수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전용 상담창구인 “중소기업 테크 컨택센터”를 구축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기업생산현장의 문제를 상담하고 효율적으로 찾아주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52 | 중소기업테크컨택센터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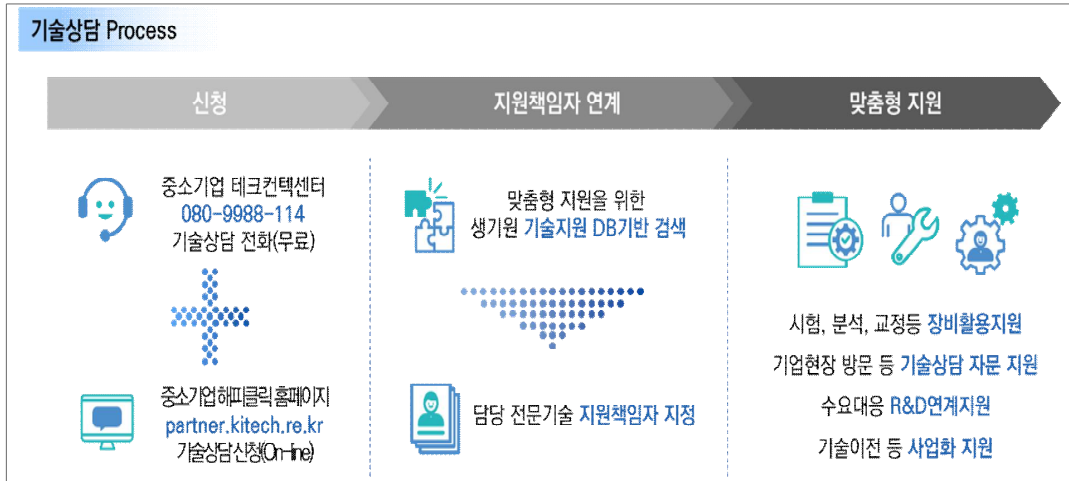


표 IV-21-1-4 | 맞춤형(기술지도/상담) 지원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기술지도 수	5,383	9,088	9,653	
기술상담 수	1,045	1,651	2,061	

3) 공동R&D지원

지역 중소기업과의 커뮤니티채널(기술커뮤니티, 중소기업테크컨택센터, 기업 지원 전용 홈페이지(해피클릭) 등)을 통해 접수된 기업 기술 수요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공동 R&D, 기업 매칭 R&D 등을 수행하고,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시까지 관련 분야 전문 연구원이 전담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표 IV-21-1-5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R&D지원 사업 현황

구 분	내 용
파트너기업 기술현안대응사업	- 산업 전환이 필요한 파트너 기업에 대해 지역조직별 기술기획 지원 및 애로 기술을 진단을 통한 단기기술지원
공동장비 애로기술 지원, 지역특화센터 기술지원, 3N 기술지원사업	- 기관이 운영 중인 공용실험실, 국가연구실·국가연구시설 및 지역특화센터 중심의 인프라/인력 기반의 기술지원

구분	내용
신시장창출사업	-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현지 기업에 대한 시장 맞춤형 기술지원 및 해외 진출 희망기업 대상의 현지화 기술개발 지원
핵심기업 육성 사업	- 산업R&D정책 수요와 급변하는 기술시장에 대응하고, Post-코로나 시대 핵심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소부장/뉴딜)
제조혁신지원사업	- (현장적용형) IoT-센서 응용 및 제조데이터 활용 공정지능화 개발 및 지원 - (상생협력형) 산업별 스마트 제조공장장비 시스템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및 지원
기업주전형 생산기술실용화사업	- 기업들의 기술 수요를 선발굴하고, 기술 Spec-up을 통해 boom-up (고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대상의 현장적용형 기술개발 및 성과물 이전
Go-Together 사업	- (기업협력형) Mou를 체결한 기업과 협력을 통해 공동펀딩을 조성하고, 협력사 기술수요 발굴 및 지원 (GS칼텍스, LS엠트론 등)

표 N-21-1-6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기술 현황

지역	인천	경기	충청	서남	대경	동남	강원	울산	전북	제주
주요 기술*	부리 산업 기술	융합 생산 기술, 지능형 로봇, 섬유	생산 시스템, 그린 공정 소재	동력 부품, 광관련 기반 기술	극한 제조 기술, 건설 기계 부품	해양 플랜트 기자재, 지능형 정밀 기계 부품	비철 금속 기반 소재 공정	제조 현장 ACE화, 기후 변화 대응 기술	농기계 특화 기술, 친환경 용접 공정	천연 생태 자원 가공

* 광역경제권 지역본부 내에 특화보유기술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그림 53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조직 및 기술분야 현황



4) 인력지원

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핵심 애로사항인 고급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장기(3년 이상) 파견하여 핵심R&D 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V-21-1-7 | 공공연 연구인력 지원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지원인력수(명)	41	34	32	
지원기업 수	41	34	32	

나) 기업현장출장 지원

파트너기업 등 중소·중견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지원 책임자가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및 자문수행을 통해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 기업현장출장 지원 기준

- 기술커뮤니티 참여기업, 파트너기업, 연구원과 과제수행(예정)기업, 연구책임자 개별관리 중소·중견기업 등(대기업은 지원 제외)
- 중소기업테크컨택센터 및 기업지원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요(애로)기술이 접수되어 기술상담 후 현장 자문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그림 54 | 기업현장출장 지원절차 및 내용



표Ⅳ-21-1-8 | 기업현장출장 지원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지원 건 수	1,316	1,294	610	
지원기업 수	398	229	256	

5) 중소기업 전용 연구시설(Rental Lab.) 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 연구공간 입주 및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한 근접지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표Ⅳ-21-1-9 | 중소기업 전용 연구시설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입주기업 수	20	27	20	· 기술 및 공동연구개발 지원 · 연구공간 및 연구인프라(장비, 시설 등) 활용지원

6) 장비 활용 지원(개방형 실험실)

연구원 보유 장비를 지역본부 47개 개방형 실험실에 배치하여 연구장비 등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개방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적 이용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Ⅳ-21-1-1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방형 실험실 현황(47개)

지 역 본 부	개 방 형 실험 실
부리기술연구소 (12)	재료물성분석/재료시험 공용실험실, 주물기술지원 공정실험실, 화학분석 공용실험실, 부리기술분석평가 공용실험실, 도금기술지원 공정실험실, 디지털제조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소재·표면분석 공용실험실, 열처리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용접접합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정밀금형기술지원 공정실험실,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공용실험실, 소성가공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융합기술연구소 (7)	유해물질 화학분석 공용실험실, 정밀측정 공용실험실, 산업용섬유 공정실험실, 섬유시제품 공정실험실, 의류기술지원 공정실험실, 패키징기술센터 공정실험실, 기능성 광응답소재 공용실험실
청정기술연구소 (4)	에너지설비성능인증 공인실험실, 스마트자동화 공정실험실, 음향진동 공용실험실, 지능형정정소재 공용실험실

지역본부	개방형시험실
서남본부 (5)	초정밀 측정 및 재료물성분석 공용시험실, 나노기술집적 공정시험실, 에너지환경(RoHS) 공용시험실, 정밀 금형TRYOUT 공정시험실, 정밀모터시험.분석 공용시험실
동남본부 (6)	융합플레이팅 공용시험실, 클린에너지 공용시험실, 첨단하이브리드 공용시험실, 초정밀가공 공용시험실, 진주부리기술지원센터 공용시험실, 해양로봇센터 공용시험실
대경본부 (7)	바이오메디칼기술센터 공용시험실, 성형기술/첨단장비지원 공용시험실, 시스템설계기술지원 공용시험실, 건설기계부품시험평가지원 공용시험실, 고령주조기술지원 공용시험실, 항공부품 환경시험평가 공용시험실, 전자파(EMC) 공용시험실
강원본부 (1)	비철금속 공용시험실
울산본부 (2)	친환경청정기술 공용시험실, 울산부리기술지원 공용시험실
전북본부 (3)	농기계신뢰성 시험연구센터 공용시험실, 탄소경량소재 공정시험실, 김제부리기술지원 공용시험실

표 IV-21-1-11 | 개방형시험실 장비활용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술지원 (장비활용)	시험/검사/분석	43,589	41,384	33,111
	시작품제작지원 등	11,972	17,492	6,378
	소 계(건)	55,561	58,876	39,489

* 코로나19 및 보유 장비의 불용판정 후 처분에 따라 현재 기준 장비활용 데이터 확인 결과 2021년 개방형 시험실 장비활용 실적 감소

7)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시장수요에 기반한 생산기술의 산업화·실용화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IP 시스템 고도화(온라인 IP 마켓 구축 등), R&BD 관련 사업 확대(예산 증액) 등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기관 미활용(휴면)특히 중 활용가치가 있는 특허를 선별하여 연구원 파트너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소액 이전하여 기술이전에 따른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표 N-21-1-12 | 기술이전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전건수	232	255	303

8) 파트너기업 기술커뮤니티 지원

기술분야별, 지역별, 업종별 유사기술·산업중심의 산·학·연간 기술커뮤니티 구성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보유기술 및 노하우의 확산 거점을 마련하고, R&D성과공유, 기술수요발굴, 기술협력, 정보공유 등의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55 | 파트너기업 기술커뮤니티 지원



표 N-21-1-13 | 기술커뮤니티 운영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기술커뮤니티 구성	32	31	27	
참여기업 수	454	440	474	

연차보고서 작성자 및 연락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23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업협력지원실	동승화	041-589-8315

제22장

산업연구원

1

일반현황

산업연구원은 국내외 산업·기술, 중소기업 등과 관련된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정부의 경제/산업/중소기업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산업연구원은 그동안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우리 산업과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중점 연구 분야를 시의적절하게 변화시켜 왔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회복과 대전환 조류 속에서의 기업의 혁신과 성장, 그리고 창업·벤처·혁신 생태계 관련 연구를 강화하였다.

산업연구원의 연구조직은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를 비롯하여 성장동력산업 연구본부,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등 7본부 1센터의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는 중소·벤처기업 정책과 관련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조사·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는 창업기업, 벤처·혁신기업, 소상공인의 금융, R&D, 인력, 판로, 상생협력, 글로벌화, 기업 간 협력, 공공 조달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스마트 제조혁신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대전환 조류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 등의 정책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벤처기업정책 분야별 주요 연구

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성장 기반 구축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연구해오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1년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의 연구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였다.

1)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중소기업의 중장기 발전비전 및 세부 전략 수립, 중소기업 종합 지원체제 구축 및 정책평가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분야의 주요 연구결과로는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체제 개선방안, 21세기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 평가 등이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향후 바람직한 좌표와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중소기업 발전 비전과 육성전략(도전과 혁신 도약의 길), 중소기업 지원체제 발전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소기업 관점에서 정부 규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장기 성장추세 둔화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 성장 둔화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소기업 혁신성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하였다. 제조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발전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 융합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및 경쟁력 실태분석, 중소기업 성장장벽 유형과 정책과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진단·분석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지난 2021년에는 급변하는 대전환 조류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의 조류에서 중소기업의 수용성이 개별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판로와 혁신역량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관련 대응 전략과 정책 과제를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전략과 정책과제’의 연구는 중소기업 관점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실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처한 디지털 전환 환경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군집적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의 실체적 개념과 내용성, 디지털 전환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함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실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의 유형화 및 유형별 추진 전략, 주요국의 정책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의 도입 성과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투자유인과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제약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동 연구는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을 진단함으로써 자발적 투자 유인을 고취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점에서 본 스마트공장의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를 통해, 가치사슬 내에서의 기업간 긴밀한 정보 공유·연계와 협력 관점에서 스마트공장의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상생형 스마트공장과 주거래기업과 스마트제조 솔루션이 연계된 스마트공장의 성과가 상생의 취지와 스마트제조혁신의 궁극적 이상향에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메인비즈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대해 체계적 점검·분석하였다.

2) 벤처기업 및 창업 정책에 관한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엔진인 벤처기업 육성과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인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정책에 관한 연구를 강화해오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벤처기업 실태 및 육성전략,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지방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창업환경 분석,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의 수급구조 분석 등이 있다.

특히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육성 및 기업친화정책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기업가정신의 발현 실태 및 과제,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와 과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와 정책과제, 고성장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시사점,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의 입지 및 성장 특성,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정책과제, 기술창업기업의 지방 입지촉진 및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창업원의 다양화 및 창업 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성 지식·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윈스톱 온라인 창업시스템의 국제비교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를 내실화하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 원동력인 벤처기업의 재도약 가능성을 진단하고, 벤처생태계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함과 아울러 벤처기업 정책의 진화과정과 공과를 살펴본 후 미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한국벤처정책 20년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은 혁신창업 활성화에 있으며, 혁신창업은 벤처창업을 주축으로 하는 일자리 대책이라는 전제 아래 창업정책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지역 창업 혁신 생태계 스코어보드 지표개발 및 정책제언, 스타트업 파크 조성방안 연구,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역량 분석과 생존율 제고 방안,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 청소년 비즈쿨 장기발전 방안 수립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가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창업 기업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서 ‘경제위기가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창업 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창업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업생태계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하는 기술 기반 창업에 초점을 두고 ‘스핀오프 창업의 실태와 발전과제’,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와 대응 발전과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금융활성화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이 구조적·만성적으로 겪는 금융, 인력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해오고 있다.

금융 분야의 주요 연구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운영체계 개편방안,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 방안, 중소기업의 소매금융 이용 활성화 방안, 신용보증 제도의 운용성과 및 발전방안, 벤처캐피털산업의 구조변화와 발전과제 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금융기관 자금 간 지원방식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책자금과 일반 금융기관 자금 간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성과 향상사업 성과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1년에는 기술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동력으로써 활약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성장 및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금조달 유형의 관점에서의 벤처기업의 성과 요인 분석’, ‘벤처캐피탈 산업 발전과제 수립’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벤처캐피탈 산업 발전과제 수립’ 연구에서는 비약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벤처투자 생태계의 변화 과정에 대한 검토 및 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의 주요 현황과 특징에 기초하여, 벤처캐피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가치 제고 기능에 대한 논의와 함께 투자기업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인식 등을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해, 투자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방향성 또한 모색하였다.

4)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심화와 후발개도국의 빠른 추격이라는 틈바구니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과제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구조 및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실태 및 발전방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유형화와 정책적 시사점 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R&D 특성분석 및 혁신역량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R&D 특성과 혁신역량을 규명하고 정책대상의 합리적 설정과 함께 혁신역량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따른 효율성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결정요인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기술적 혁신 성과와 상업적 혁신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KOSBIR 제도와 운영상 나타나는 과제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R&D자금 지원과 중소기업계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최근 수년간 세계 최고 대비 76%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측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기술수준 측정방식 개선방안,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패널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1년에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혁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원 및 역량의 문제로 인해서 자구노력만으로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는 개방형 혁신에 주목하여 중소기업의 개방혁신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운용실적 평가를 위한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은 물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점검·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5)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관한 연구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강화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실태 및 강화방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조사연구 및 평가체계 구축방안 등이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으로 상호 간 이해가 대립된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구매조건부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이론과 논리, 동반성장지수 구성요소에 관한 예비연구 등을 수행하여 동반성장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개발,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및 개편 방안, 대·중소기업 간 공급사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 주요 산업별 대·중소기업 성과 및 거래구조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대·중소기업 간 공동 번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의 작성과 분석, 성과공유제 확산 시행효과 분석,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 방안, 동반성장 자율평가제 평가체계 구축 방안,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원인 분석, 대·중소기업 불균형 개선 및 상생협력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등 동반성장에 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켰다.

2021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점에서 본 스마트공장의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적인 사업으로써 추진되어온 스마트공장 도입·확산 사업 내에 존재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의 실태와 유인체계를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조응하는 과정속에서 상생협력에 기초한 스마트공장의 긍정적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6) 지방화·글로벌화에 관한 연구

지방화·글로벌화 시대를 맞아 지역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중소·벤처기업의 중국 진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방안, 중소기업의 글로벌역량 강화방안,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의 중소기업 파급영향 및 정책수요 조사·분석,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실태와 시사점 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와 강소기업 육성방안 연구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 수출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수행하였다.

글로벌화에 부응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 실태 및 전략적 육성방안, 뉴노멀 하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특성과 정책방향, 혁신기업의 중국진출전략, 중국 일대일로 대응정책 등을 연구하였다.

한 편,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FTA 유망품목 선정 체제 구축 및 정책과제, 혁신기업의 중국 진출전략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새로운 글로벌 수출환경에서 기존 수출지원제도의 유효성을 점검해보고 개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지원 효율화 방안,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구축방안,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중소 지식서비스 기업의 수출 실태 분석 및 정책적 육성방안 등을 수행하였다.

7) 시의성 있는 주요 현안과제 연구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및 디지털 전환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현안을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 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의성 있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 현안으로서 다루어짐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일자리대책 종합 평가, 중소기업 간 지식·기술융합화와 신사업창출 촉진방안, 중견기업 육성방안, 중소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정책과제 등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원으로서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6차 산업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9988에 도달하기까지의 성장과정을 평가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함과 아울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기업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등에 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기업의 구조조정 실태와 촉진방안,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구조의 역동성 강화, 한계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실태와 발전과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우리 기업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과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 방안,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 수출영향 및 정책방향, 현장 경험을 통해 본 중소기업의 AI 발전방향 등을 연구하였다.

2021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조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전략과 정책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넥스트 노멀 하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 업 구조 분석 및 정책 체계 구축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나. 향후 추진 방향

산업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슬기롭게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로는 플랫폼 경제 기업생태계의 구조분석과정책 과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정책전환 연구, 동반성장지수 ‘온라인 플랫폼 업종’ 평가지표 개발, 중소기업 신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입법 및 정책과제 연구, 중장기 보증운용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 방안 수립 연구, 하드웨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요인과 시사점 등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중소기업 대응전략 연구과제로는 넥스트 노멀 시대 중견 기업 글로벌화 전략 및 정책 과제, 구조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제구조 전환의 중심이 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및 중진공 역할 등이 있다.

다. 국내외 주요 지원사업

1) 싱크 탱크로서의 대정부 지원업무

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과 업무 연계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토론회, 포럼, 간담회 개최를 통해 축적된 연구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정책수요가 높은 연구과제는 사전 기획에서부터 최종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 정책 관계자를 참여시켜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거나 개최되는 각종 중소기업 관련 위원회 및 세미나, 공청회 등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하여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수행한 대표적 연구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사전조정,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전략, 중소·벤처기업의 문제와 개선대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현황 점검 및 과제,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과제, 지식재산권 기본계획 수립, 창업정책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기업활력촉진법 상의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 시행계획 검토, 창업정책 관련 정책제언 등 다수가 있다.

2) 중소·벤처기업 정책 수립 관련 의견수렴

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중소·벤처기업 대표, 관련 조합 및 협회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거나,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중소·벤처기업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한 대표적인 정책협의회 또는 토론회로는 중소기업 경영성과 장기 부진의 원인과 대책,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6차 산업화 정책과 창업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구조변화 실태와 정책과제, 창업정책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3) 국내외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지식 공유를 위해 상호 교류 및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연구포럼에 유관기관 및 대학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중소·벤처기업 연구를 위한 지적 기반의 확대와 함께 전문가 네트워크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지식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외국과의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 기금사업(EDCF)의 일환으로 후발 개도국의 경제 관련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연수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또한 OECD, APEC, ASEM, G20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관련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중소·벤처기업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 사례 등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중소기업 관련 연구 결과를 영문으로도 발간하고 있다.

주요 발간자료로는 Experiences of Korean SME Policies, Development and Policy Issues of SME Scope, Finance Mechanisms for the New Industry Growth,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Global SME and Policy Implications, Comparison of Technology Innovation Patterns Depending on the Innovative Capability of SME and Policy Implications, High-growth SME's Job Creation Performance and Its Implications, R&D Support Policy and Its Strategic Direction in Korea, Measures to Promote Youth Start-ups, What Factors Lead Korean SMEs to become Global Hidden Champions? 등이 있다.

최근에는 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Korean SMEs and their Implications, Policy Considerations for SME Globalization in the Creative Economy, Status of Convergence among SMEs and Policy Implications, Status of Women Knowledge and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Current Statu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Policy Tasks, The Status of SME Structural Change and Policy Tasks, The Status of SM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Policy Tasks, The Status of Start-up Policy and Tasks, Policies for revitalizing venture startups in the post-COVID-19 era, Smart Factory Policies and SMEs' Productivity in Korea등을 발간하였다.

제23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일반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고 정보의 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정책·표준화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며 연구개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업기술정보연구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가 통합되어 2001년 1월에 설립되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의 정보은행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국내외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 체제 구축
- 지식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화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지원
- 정보의 종합유통체제 구축운영
- 정보의 분석·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정책·표준화 등의 연구개발 및 자문
- 국내외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산업 동향의 조사·분석·예측
- 과학기술 연구망 등 글로벌 첨단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관련 기술 개발·지원
- 초고성능 컴퓨팅 기반 구축·운영 및 관련 기술개발·지원
- 과학기술분야 정보안전체계 구축운영 및 지원(신설 2014. 10. 21)
-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 지방 과학기술 진흥 및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과 기술사업화
- 정보관리·유통시스템 보급 및 정보인프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 부대사업, 지역정보화 체제 구축·운영,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과학기술정보·데이터 구축

1) 과학기술정보 수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분야 핵심학술지, 학술회의자료, 연구개발보고서, 특허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16개국 405개 기관과 과학기술 정보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글로벌 과학기술정보의 지속적 연계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454개 유관기관과의 정보협력을 통하여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2)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구축

국내외에서 수집한 각종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기술 문헌정보를 국내 학계, 연구계, 산업계가 신속·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및 구축하고 있다.

표 IV-23-1-1 | KISTI 정보서비스 보유자원 현황

(기준 : 2022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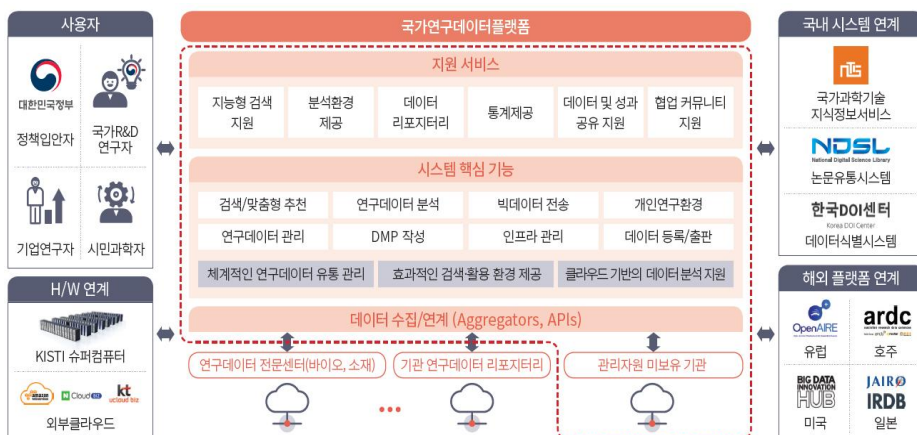
구 분	보 유 량	비 고
국내외 과학기술 논문	117,838,868건	국내외 학술지, 학술회의 수록논문, 학위논문
국내외 특허정보	42,608,847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제특허
연구보고서	377,185건	국가연구개발보고서, 분석리포트
과학기술 동향	30,641건	글로벌동향브리프, 동향지식지
저널/프로시딩	397,496건	국내학회 저널, 해외 인쇄 및 전자저널, OA저널
연구자/연구기관 정보	943,691건	연구자/연구기관 정보 및 연구실적
합 계	162,196,728건	

3)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kisti.re.kr)은 연구데이터⁴³⁾의 중요성과 가치가 증가되고 연구데이터의 공유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발견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공유와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들이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연구데이터 데이터셋(유발과제, 생산자등의 메타 데이터 및 파일)을 등록하여 공유 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국내외 연구 데이터에 대한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외 연구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56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서비스 개념도



또한 클라우드 분석환경(CPU/GPU 등 계산자원 지원)을 제공하며 워크 플로우 및 CLI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기능 제공을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별 연구데이터의 원활한 공유·활용을 지원하여 커뮤니티 기반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3)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정의)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은 국내 전문센터와 출연연, 해외 선진 연구데이터플랫폼 (OpenAIRE(유럽), ARDC(호주) 등)과의 연구데이터 연계를 통해 국가연구 데이터플랫폼의 데이터 기반을 확보한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연구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표 IV-23-1-2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주요 제공 연구데이터

(2021.06.16. 기준)

구 분	내용
국내 연구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시설장비 : 거대 현미경 관측 데이터(4셋) - 인체영상 데이터(333셋), 기계학습데이터셋(12셋) • NIA 인공지능 데이터(21셋) ※ 특허/법령/일반상식/이미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 조사 결과 데이터(2,792셋) • 한국표준연구원 참조표준데이터(59셋) • 극지연구소 극지관측데이터(29,203셋) • 개인 연구자 데이터셋(81셋)
해외 연구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AIRE EU 연구데이터(약 96만 셋) • ARDC 호주 연구데이터(약 19만 셋) • NII-RCOS 일본 연구데이터(약 7.5만 셋)

나.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융합·연계 서비스

1) ScienceON(사이언스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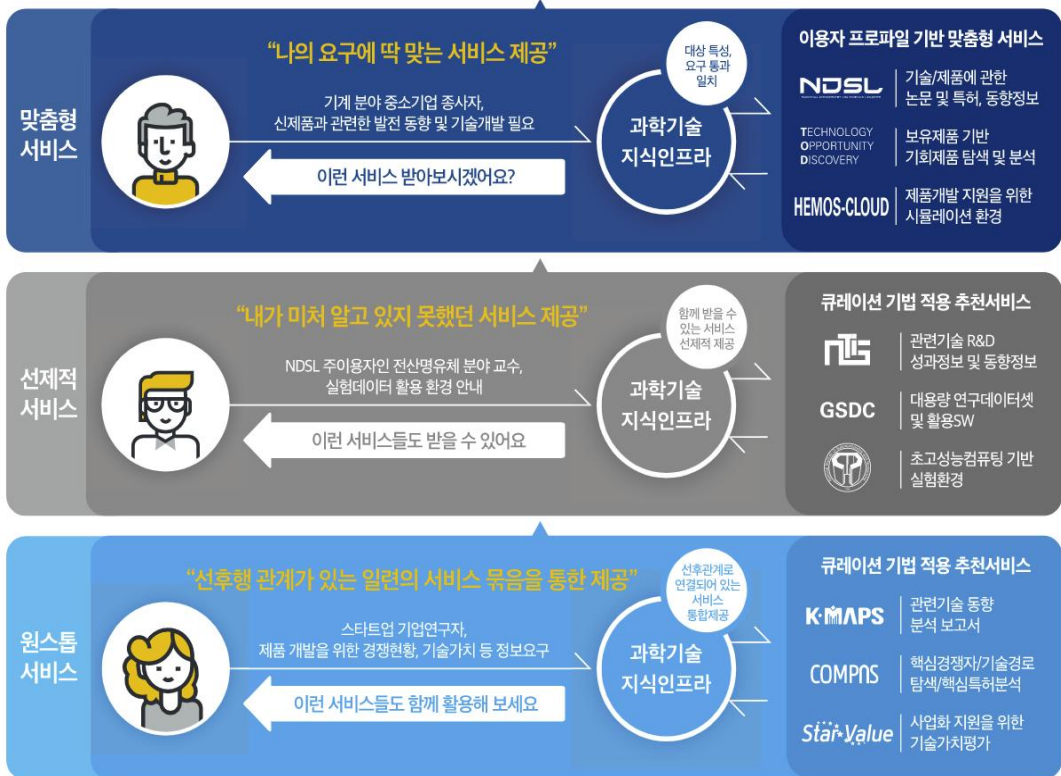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ScienceON 서비스를 통해 과학기술정보, 국가 R&D정보, 연구데이터, 슈퍼컴퓨팅 자원, 정보·데이터 분석 기능 등 다양한 과학 기술 지식인프라를 융합·연계하여, 연구 전주기에 필요한 KISTI의 전체 정보와 기능을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0년 12월 현재 ScienceON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주요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40종(300여 개 기능)에 대한 안내·검색·활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ScienceON은 과학기술 지식인프라를 전문정보활용, R&D정보활용, 공유·협업, 인프라 자원 이용, 기술산업 분석, 교육수강 등으로 분류하여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용자 프로파일링을 통해 요구에 적합한 인프라를 추천해주는 ‘맞춤형 서비스’, 큐레이션 기술을 적용하여 고객이 미처 몰랐던 서비스를 먼저 제시해주는 ‘선제적 서비스’, 그리고 고객이 활용하는 인프라의 선후행 관계에 있는 일련의 정보와 기능들을 묶어 연계성을 강화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그림 57 | ScienceON 서비스 개념도



그림 58 | ScienceON 서비스 방향



또한, 온라인 기반의 개방형 연구협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MyON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 목적별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협업 연구자와 연구의 과정, 결과를 공유·활용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비대면 연구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R&D를 수행하는 전체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특히 R&D 활동 전주기의 연구목적별(동향조사, 기획, 실험, 평가, 사업화 등)로 차별화되어 서비스 되는 KISTI 개별 지식인프라(또는 서비스)의 핵심고객 전체를 ScienceON의 잠재 핵심고객으로 설정하여 개인 연구목적형 시나리오 기반 정보 활용, 데이터 분석, 컴퓨팅 자원 기반 실험환경을 연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cienceON은 과학기술정보 통합 검색기능을 마련하여 국내 과학기술 연구 개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과학기술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 1.4억 건의 과학기술정보 및 특허, 동향정보, 연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표 N-23-1-3 | ScienceON 정보 제공 유형별 서비스 내용

유 형	서비스 내용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논문 KISTI의 학술정보 공동활용사업에 참여한 학술지/ 프로시딩 KESLI에 포함되는 국내 전자저널 · 해외논문 저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SLI에 포함되는 해외 전자저널(Elsevier, Wiley, Scince, Cell, IEEE 등) - 국내의 대학, 연구소 기업 등 260여 기관에서 소장한 인쇄 /전자저널 -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에서 목차정보를 구축한 저널 -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저널 -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서 제공하는 핵심저널 프로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EE 발행한 해외 프로시딩 - 영국국립도서관에서 구축한 해외 프로시딩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특허 (1948년 이후 공개/등록, 약 4백만 건 이상) <li style="text-align: center;">+ · 미국, 일본, 유럽 특허, WIPO 특허 (1976년 이후 공개/등록) <li style="text-align: center;">↓ <li style="text-align: center;">검색 ~ 원문입수까지 한 번에 가능

유 형	서비스 내용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R&D 연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이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으로부터 인쇄 또는 전자로 납본, 수집된 연구 보고서 - 2009년 이후: 국가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보고서, 각 부처·청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전자원문을 제공받은 연구보고서 · 분석리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SEN 분석리포트 - ReSEAT 분석리포트(2004~) - KISTI MARKET REPORT(2011~) - iCON 지식리포트
저널/ 프로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TI의 학술정보 공동활용사업에 참여한 학술지/ 프로시딩 - KESLI에 포함되는 국내 및 해외 전자저널 (ScienceDirect, Springer, IEEE, ACM 등) - 국내의 대학, 연구소 기업 등 500여 기관에서 소장한 인쇄/전자저널 -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에서 목차정보를 구축한 저널 -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저널 -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서 제공하는 핵심저널 · 프로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TI의 학술정보 공동활용사업에 참여한 프로시딩 - IEEE 발행한 해외 프로시딩 - 영국국립도서관에서 구축한 해외 프로시딩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정보 · 연구자의 논문, 특허, 보고서 연구실적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정보 · 연구기관의 논문, 특허, 보고서 연구실적

2)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국가R&D사업 기획에서 성과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R&D사업에 관련된 18개 부처·청과 연계하여 사업·과제정보, 참여연구원정보, 연구개발성과정보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R&D정보 지식포털(<https://www.ntis.go.kr>)이다. 2008년 3월 31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림 59 | NTIS 서비스 개념도

www.ntis.go.kr



표 IV-23-1-4 | NTIS 주요 제공 정보

(기준 : 2021년 6월 15일)

구 분	건 수
국가R&D 사업·과제(2002년~)	99.8만 건
국가R&D사업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정보	19.6만 건
국가R&D 성과정보(논문, 특허, 보고서 등)	논문 165.4만 건, 특허 75만 건, 보고서 18.2만 건 등

NNTIS 서비스 개시 후 기업 회원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가입회원 약 21.3만 명 중 36.4%인 약 7.8만 명이 기업 연구자이다(2022년 5월말 기준). 기업 회원은 NTIS 서비스 가운데 사업공고, 연구자, 특허 등에 관한 수요가 많다.

기관 간 협업이 활발하게 수행됨에 따라 기관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춰 중소기업이 R&D 현황과 연구기관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국가R&D수행기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년 이후 국가R&D를 수행한 기관정보(사업자등록번호 기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연구수행주체별, 지역별, 업종별, 국가중점과학기술별 R&D 현황과 기관의 상세정보, 유사기업 간 비교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데이터 공개뿐만 아니라 국가R&D 수행기관 R&D현황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말부터 OpenAPI 형식으로도 개방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R&D 성과 제고를 위해 NTIS를 중소기업 R&D 성과물 공유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연구자의 역량 및 R&D 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수요 기반 「찾아가는 NTIS 활용교육」 및 「NTIS 이용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용자와 쌍방향 소통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e-Asia Award(2011), UN 공공행정상(2012),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2015),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장관표창(2017), WITSA(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 공공부문 Winner 수상(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공공플랫폼 부문) 2년 연속 수상(2021, 2022) 등 국내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다. 중소기업 정보지원 사업

1) 연구용역 및 사업타당성분석

연구원 자체의 정보분석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유망아이템 발굴, 기술기획을 위한 산업·시장 분석, 보유기술의 확산을 위한 기술가치 평가 등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기술 기획 및 사업화 과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방법론을 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사업은 주로 기업이나 연구계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기술개발 및 경영활동, 정부의 과학 및 산업·기술정보,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타당성분석 사업인 R&D기획지원 사업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 아이디어에 대해 기술/시장성분석, 사업 타당성 진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수립 등의 종합적인 R&D 기획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해당 기업의 기술·경영능력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체의 신기술 개발에 따르는 위험을 제거하고 신규시장 진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나 타 기관의 소장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는 한편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의 공동 분석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2) 산업·기술 정보분석 연구

정보분석 연구를 통해서 특정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연구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연구보고서는 산업·기술 전반의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국내외 산업·기술동향 및 특정기술의 개발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한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기술가치평가, 유망아이템 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지적재산권이나 기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CTO를 핵심고객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기술 조사, 유망아이템 발굴, 사업화 평가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선진 기술·제품·산업동향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한다. 또한, KISTI가 축적한 분석역량과 데이터 자원을 결합한 인사이트를 담아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 기술·산업 트렌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보고서(KISTI DATA Insight, 과학 기술산업 인사이트, ASTI Market Insight 등)를 발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기술기획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도입 및 국내우수기술의 해외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 교육과 중소기업의 R&D 기획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산업·시장에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 과정에 요구되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경영기법과 정보시스템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술사업화 정보조사·분석업무의 고도화를 꾀하여 고부가가치 고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KISTI는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자원 및 분석역량을 활용하여, 유망아이템과 관련된 분석형 정보, 통계 데이터 기반의 산업·시장 정보 및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 가치평가를 웹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산업·시장정보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단순정보지원에서 지식정보지원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시스템(BOSS, <http://boss.kisti.re.kr>)은 글로벌 벤처 캐피털 투자, M&A동향 정보로 중소기업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기술, 시장, 제품, 기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분석된 KISTI가 발굴한 유망 사업화 아이템 정보와 함께 아이템 발굴 및 추천을 지원한다.

데이터 기반 기술사업화지원 플랫폼(SMART K2C, <http://smark2c.or.kr>)은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성장 하는데 필요한 기술사업화 전 과정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데이터 기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한 개별 중소기업 맞춤형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이다.

산업·시장 분석 시스템(KMAPS, kmaps.kisti.re.kr)은 산업·시장에 관련된 다양한 공공 통계정보를 연결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재 산업·시장에 대한 규모, 경쟁환경, 미래 수요 등의 분석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술가치평가 시스템(STAR-Value, www.starvalue.or.kr)은 KISTI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정보와 기업 재무정보, 특허정보, 기술수명주기 정보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웹기반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산학연 간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경쟁정보시스템(COMPAS, <http://compas.kisti.re.kr>)은 기술경쟁 현황의 손쉬운 파악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 또는 관심을 두고 있는 기술의 경쟁자와 경쟁기술을 손쉽게 분석하고, 기회와 위협요인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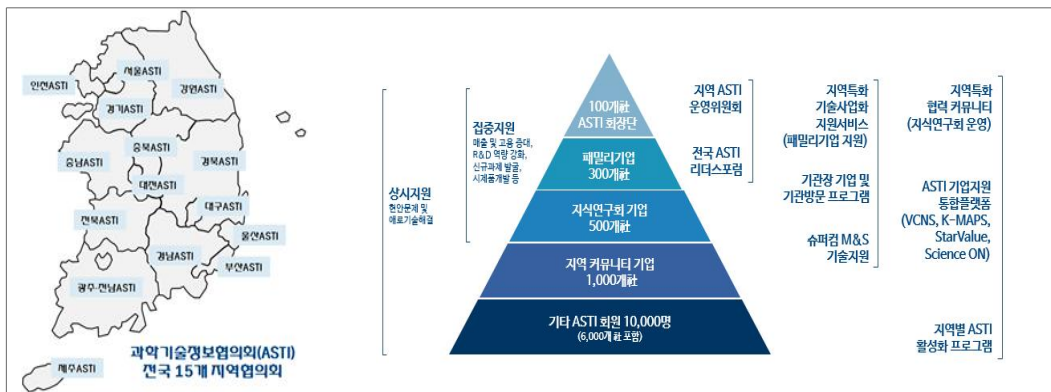
기술기회발굴시스템(TOD, <http://tod.kisti.re.kr>)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포착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기술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제품과 기술의 기회, R&D혁신활동의 출발점을 효율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중소기업에게 기존의 단순정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 정보와 인텔리전스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축적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중소기업 근접지원 및 협력

KISTI는 정보분석서비스와 시스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신기술 탐색부터 기술이전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류를 통해 지역의 산·학·연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역별 대학, 산업체, 국공립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15개 지역협의회와 1만 2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산학연정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림 60, 61 | 전국 15개 ASTI 지역협의회 및 지원전략(DX-ASTI)



2012년부터 ASTI를 통해 기술개발, 제품개발, 과제기획 등 산학연정 공동연구를 위해 연간 17개 지역기반 협력커뮤니티(지식연구회)를 구축·운영하여 지역협력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매년 KISTI 패밀리기업들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R&D 활동을 개선시켜 기술경쟁력을 갖도록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지원, R&D 기획지원, 맞춤형 정보분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 출연연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지원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전략(DX-ASTI)을 수립하였다. 수립한 전략을 기반으로 KISTI의 D.N.A. 인프라 활용 및 지능화 협업을 통한 지역R&D혁신생태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간의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전환 촉진·확산, 제조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V-23-1-5 | 지역별 패밀리기업 및 지식연구회 운영 현황

지원	패밀리기업수				유형별 지식연구회 운영 현황		
	'18	'19	'20	'21	지역특화산업형	4차 산업혁명대응형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수도권	37	43	46	40	뷰티헬스(수도권), 천연유기농화장품(경인)	기업R&D데이터협업(서울), 3D프린팅(경기)	-
충청	16	20	24	22	태양광융복합(충북)	바이오시(대전), 디스플레이(충남)	-
호남	13	20	24	21	친환경바이오(전남)	탄소복합소재(전북), 태양광 인공지능(전북)	미세입자 및 공기질(광주)
대구경북	20	22	26	21	-	ICT 융복합 소재부품(대구)	물산업(경북)
부울경	18	20	30	21	기능성 화학소재(울산), 스마트 제조ICT융합(경남)	스마트팜테크(부산), 수처리산업(부산/울산)	-
계	104	125	150	125	6개 연구회	9개 연구회	2개 연구회

5)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Modeling and Simulation) 기술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고급 전문인력과 슈퍼컴퓨팅 자원 및 해당 분야 공학 해석 기술 등을 중소·중견 기업에게 제공하여 신기술 개발 및 제품 성능 향상 등을 돕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하여 기업은 CAD/CAE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물리적인 제품 제작 및 실험을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의 제품 제작(Modeling) 및 공학해석(Simulation)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실물 시험 횟수를 최소화하여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기술개발을 위해 인력, 장비, 예산 등 자체 자원과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2004년도부터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및 장비 부족을 극복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슈퍼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연구 장비를 활용한 기술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기관의 기본사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등 수탁사업의 형태로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M&S 기술 지원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M&S 기술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총 지원 과제 수는 626개에 이른다.

표 N-23-1-6 |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사업 현황

(기준 : 2021.12.31 현재)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중기청 사업	-	-	-	48	42	30	5	25	14	11	-	2	2	1	-	1	-	-	181
산업부 사업													8	5	6	-	10	22	51
KISTI 주요 사업	슈퍼컴 M&S	-	21	25	-	-	-	15	23	16	42	42	37	29	18	21	21	13	323
	단순 기술 지원	24	-	-	-	-	10	-	24	1	-	-	-	-	-	-	-	-	59
기타사업											4	-	4	3	1	-	-	-	12
합계	24	21	25	48	42	30	15	40	61	28	46	44	51	38	25	22	31	35	626

* 슈퍼컴 M&S : 슈퍼컴퓨팅 기반 Modeling & Simulation을 통한 제품개발 컨설팅(장기)

** 단순 기술지원 : 제품설계 및 시뮬레이션에 대한 자문, M&S 교육 등 단발성 기술지원

중소·중견기업들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최신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전문 연구 인력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터와 ANSYS사의 MECHANICAL 및 FLUENT/CFX 등의 다양한 구조 및 열유체 분야 공학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요청하는 다양한 공학 문제 해결 지원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공학 해석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자체 연구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최적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도와주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 소속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설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슈퍼컴퓨팅 기반 공학 해석 컨설팅을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첨단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성능이 검증된 공개 프로그램 및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중소·중견 기업에서 쉽게 제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용/맞춤형 M&S 소프트웨어(HEMOS)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가시화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제품의 가상 품평 및 250여 명으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의 기술지원 및 자문 협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담당자들이 슈퍼컴퓨터 및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한 HEMOS-Cloud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중견기업들은 자동차, 선박, 건축 및 생산 설비, 의료, 전기전자, 반도체, 항공우주, 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지원 수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제품 개발시간을 약 50.8% 단축하였고 개발 비용을 약 56.0% 절감함으로써 53.3%의 생산성 향상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대는 총 1,500억 원에 이르렀으며, 약 500여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였다.

제24장

한국디자인진흥원

1

일반현황

가. 설립목적

한국디자인진흥원(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은 국내 유일의 국가주도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기관으로, 디자인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정책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디자인 산업기반을 조성하며, 디자이너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디자인을 통한 국민행복과 산업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나. 주요사업

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디자인 비즈니스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우수 디자이너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육성 및 실무디자이너 교육 지원, 디자인·기술 융합 상품 기획 플랫폼개발, 디자인 해외진출 지원 및 신흥시장 개척, 비즈니스 교류,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디자인개발지원, 디자인코리아 및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등 진흥사업, 기타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정부의 연구, 위탁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다. 조직 및 예산규모

- 1) 조직현황 : 3본부 12실 11팀 7센터 1사무국(정원: 186명, 현원: 174명)
- 2) 예산규모 : 49,844백만원(2021 결산, 매출액 기준)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디자인전문회사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1) 디자인 전문회사 육성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 육성지원은 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기업을 육성하여 디자인 수요에 부응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92년 시행 그간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2021년 말 기준 10,049개사가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 되어있다.

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요건은 신고분야별 디자인 전문 인력 1인 이상이며, 종합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전문 인력 3인 이상,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직전 3개연도 평균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표 N-24-1-1 | 연도별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실적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업 수(누계)	4,023	4,604	5,228	5,458	5,610	6,582	7,852	9,199	10,049

또한, 디자인 산업발전과 국가 브랜드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를 선정하고 있다.

표 N-24-1-2 | 연도별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 선정실적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업 수	35개사	30개사	39개사	32개사	20개사	20개사	(미 선정)	20개사	20개사

2)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 사업

디자인전문기업의 제조·서비스 역량을 육성하여 품질혁신, 부가가치 향상 등 차별화된 시장 경쟁력 창출과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N-24-1-3 |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 지원개요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공통>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나,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 디자인 제조전문서비스 기업을 희망하는 디자인전문기업
지원내용	<디자인전문기업육성> ○ 디자인주도 상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시제품 제작, 가공·양산, 서비스) 1개사 2천만원 이내 지원 - 혁신적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BM)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검증, 실물 제작, 상품화 등 운영 과정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디자인 제조전문서비스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전문가 코칭지원'
	<글로벌마케팅> ○ 디자인주도 비즈니스 글로벌마케팅 지원(비즈니스 전시, 온라인 유통지원) 1개사 2천만원 이내 지원 - 중국 거점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 소케이스 및 비대면 B2B 매칭 상담회 개최 - 해외(유럽, 동남아)온라인 커머스 입점 지원
지원규모	디자인전문기업육성 10개사 내외
	글로벌마케팅 15개사 내외

3)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부여, 수출지원 서비스 중 홍보디자인 및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표 N-24-1-4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지원분야

구 분	지원내용
지원분야	외국어카탈로그, 외국어포장디자인, 외국어홈페이지, 수출용GUI, 외국어쇼핑몰상품페이지, 수출용 제품디자인, C.I./B.I, 외국어동영상

전체 12개 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개발/홍보동영상 분야 수행기관 선정 및 서비스 결과물 검수, 기타 서비스 관리를 통한 참여기업의 서비스 수혜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표 N-24-1-5 | 연도별 전문회사 보유 현황 및 지원 과제 수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1.09.15~'22.12.31.)
수행기관 수	587개사	591개사	506개사	866개사
지원 과제 수	6,343개	8,622개	4,589개	1,478개

* 2개년 사업으로 21년도 사업은 현재 과업 진행중.

** 수행기관 활동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의 누적 기업 수이며, 활동기간 만료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음.

4)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에 디자인인력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과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지원, 디자인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표 N-24-1-6 |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지원개요

구 분	지원내용
지원유형	인력지원(디자이너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지원인력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디자인 인력
지원기간	협약일(지원인력 근무시작일) ~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원규모	정부예산 범위 기업당 최대 2명, 90개사 내외
지원금액	디자이너 노임단가에 근거하여 직급별 50% 지원

5) 디자인 주도의 혁신기업 육성

제조·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디자인을 기업 혁신전략으로 활용하고, 기업 스스로가 디자인 중심의 경영프로세스를 내재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디자인혁신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컨셉 구체화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기업의 신제품개발 프로세스에 맞춰 제품기획부터 상품화,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표 IV-24-1-7 | 연도별 혁신기업 육성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업 수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 기업 수			
			'19년	'20년	'21년	'22년
디자인혁신유망기업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선정 (3년 누적 지원대상기업 수)	30 (90)	60 (120)	60 (150)	60 (180)
	디자인경영역량진단	역량진단 및 컨설팅	20	65	65	65
	전주기지원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10	20	20	20
		마케팅 및 홍보	12	30	30	30

나. 국내 디자인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1) 디자인코리아 2021 개최

2003년부터 시작된 디자인코리아는 국내 최대 디자인종합박람회로 디자인 전문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B2B프로그램 및 투자유치를 통한 비즈니스 창출과 주니어디자이너와 기업과의 다양한 잡 매칭 기회 제공을 통해 취·창업 지원 등 디자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디자인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국내외 최신 트렌드 공유 및 디자인 한류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디자인코리아 2021은 디자인 비즈니스, 디자인 스타트업, 디자인 잡페어 등 온·오프라인 전시관이 운영되며 69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약 2,000여점의 제품 등이 전시된 가운데 2021. 10. 6.(수)부터 10. 10(일)까지 서울 양재aT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탄소중립」을 주제로 국내외 디자인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디자인 생태계를 모색하고 디자인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조망하였으며, 주제에 맞는 대·중견기업 혁신 제품 50점, 우수디자인기업 및 스타트업 100개 기업,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 80점,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수상작 80점, 정부사업을 통한 성과물 300여점 등을 전시하였다.

그림 62 | 2021 디자인코리아 전시장 전경



▲ 디자인코리아 2021 개막식

▲ 주제관(주제:탄소중립-현대 전기차 포니)

▲ 디자인 비즈니스관

▲ 디자인 스타트업관

2)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디자인 상품선정사업은 우수 디자인 상품 개발을 촉진 및 장려함으로써, 국가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디자인 선정 제도이다.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해외에서 판매 중이거나 출시 예정인 상품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상품은 조달청이 시행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우수제품 지정 신인도 심사 시 가점부여를 통해 우대하며 정부지원 사업 가점, 온오프라인 전시 지원 등 각종 우대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2021년도에는 대국민 캠페인 추진을 통해 선정 기업들이 상품 홍보·마케팅 시 새로운 GD 심볼을 활용토록 추진했으며, COVID-19 등에 대응하여 유튜브 활용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했다.

그림 63 | 2021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전시 및 시상식 장면



▲ 디자인코리아 2021

표 IV-24-1-8 |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품(전체)	1,120점	1,146점	875점	1,041점	1,208점	1,480점
선정	443점	472점	339점	420점	484점	596점

제25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

설립목적 및 기능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영역에 있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며,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여성경제인의 능력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이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일반현황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는 1971년 10월에 설립된 대한여성경제인 협회가 전신으로,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당시 여성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7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설립되었다. 현재 협회는 본회와 전국 17개 지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사는 2,700여개이다. 또한 센터는 전국 18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협회는 '여성기업의 성공을 돕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경영능력 향상 지원,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여성기업 제품 판로 확대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여성경제인단체와의 교류 협력, 여성경제인을 위한 제도와 시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자료 및 통계의 조사 수집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여성창업 촉진 지원을 위해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지원, W-디지털판로지원,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을 수행 중이다. 넷째,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여성경제인DESK 운영,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 주 요 사 업 ▶

- 여성창업촉진지원 :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
-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지원, W-디지털판로지원,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 여성경제인DESK 운영,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 조사연구

3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여성창업 촉진 지원

여성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은 여성창업경진대회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확장,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등이 있다.

1) 여성창업경진대회

가) 개요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창의적이며 우수한 창업아이템 발굴로 여성의 창업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할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 여성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이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총 32명의 우수 팀에게 시상 및 포상을 하며 수상자에게 상금 및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상위 15팀), VC·AC 투자유치 연계, 홍보,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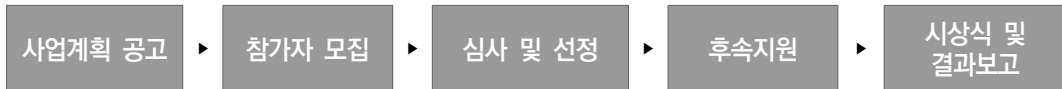
표 N-25-1-1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아이디어, 창업아이템 등 우수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단체(팀) 및 창업 후 5년 미만의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상 및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1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2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각 500만원 우수상(3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각 300만원 장려상(4명) : 신한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2명) 우리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2명) 특별상(2명) : IBK기업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 입상(20명)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및 상금 각 30만원 수상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전K-스타트업 본선진출(상위 15팀), VC·AC 투자유치 연계, 홍보,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3

나) 현황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사업계획 공고, 참가자 모집, 심사 및 선정, 후속지원, 시상식 및 결과보고로 진행된다. 홍보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여성경제인의 날에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표 N-25-1-2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프로세스



2021년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는 총 1,292팀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577팀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263팀이 참가하여, 전체 참가자 중에서 약 65% (2021년 기준)가 서울 및 경기도에서 참가하였다.

표 N-25-1-3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역별 참가 현황(2021년도)

(단위 : 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합계
참가수	577	84	72	47	50	65	14	22	263	22	20	45	11	1,292

다) 성과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참가팀 수는 2019년 1,147팀, 2020년 1,288팀, 2021년 1,292팀으로 매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상자는 93팀으로 지난 3년간 수상팀의 약 97%가 창업하였다.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창업은 대부분 검증된 아이템을 가진 기술창업으로 현재 일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 창업보다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표 N-25-1-4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구 분	연도별 실적		
	2019년	2020년	2021년
참가팀수	1,147	1,288	1,292
수상팀수	30	31	32
창업업체수	29	31	30

2)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가) 개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창업보육 공간·정보·인프라 제공을 통해 여성의 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여성예비창업자) 및 여성경제인이며, 여성기업 창업보육시설 및 전문가 컨설팅, 각종 인증획득 지원, 판로지원과 정부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N-25-1-5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8개 센터 입주기업 및 여성경제인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창업보육공간 및 지원시설(회의실, 사무집기, 인터넷, 보안장비 등) • 경영, 회계/세무, 재무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산업디자인 개발비,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 마케팅 및 판로지원 • 중소기업 지원시책·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 성공 여성CEO와의 네트워킹 등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93

나) 현황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보육실 운영,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제작, 성공한 여성 CEO와의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업 유망업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여성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보육센터 입주는 입주사 모집 공고, 입주신청 및 접수, 심사 및 발표, 입주 및 지원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25-1-6 | 센터의 창업보육실 입주프로세스

입주사 모집 공고 (해당 지역센터)	입주신청 및 접수 (해당 지역센터)	심사 및 발표 (접수센터별 심사발표)	입주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센터별 공실 발생 시 입주기업(수사)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www.wbiz.or.kr) 다운로드하여 입주신청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1차 서류심사 → 2차 PT심사 • 각 센터별 운영위원회에서 평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간 : 3년 (1년씩 2회 연장가능) • 공용사무기기 사용, 초고속 인터넷 및 보안장비 등 무료제공 • 지원정책 정보 및 경영컨설팅 제공

현재 전국 1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총 보육실 238개 중에서 212개의 보육실이 입주된 상태로서, 지역적으로는 인천센터의 보육실수가 19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18개, 서울, 대구, 울산, 충북이 각각 16개, 광주, 경기북부가 각각 15개 순으로 각 지역 센터 내에 보육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입주한 업체의 업종은 IT, 패션 및 생활용품, 일반제조, 뷰티, 섬유 의류, 출판광고 등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입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육실 입주 여성기업을 위해 다양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 IV-25-1-7 | 보육실 입주여성기업 현황

(단위 : 개, 2021년 12월 기준)

구분	보육실수	입주 업체수	보육실 입주여성기업 주요 업종
중앙	9	9	여행용가방 및 악세사리 제조, K-Food플랫폼, 필기공유플랫폼, 3D건축정보 data 모델 서비스, 에너지관리S/W개발, 콘텐츠 IP개발 등
서울	16	16	친환경 식기 제조,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테리어 리모델링, 잡화, 화장품, 광고, 전자상거래, 출판기획, 반려동물 의류제조, 친환경 도시락 제조, 펫 앱개발, 애니메이션기획 등
부산	10	10	용접 모니터링 장비 개발, 디퓨저, 비누제조, 화장품 도소매, 한복활용공예품 등
대구	16	16	폐목재 활용 기구제작, 야생동물기피제 제조, 영어교육컨설팅, 토탈공예, 정형 외과 의료기제조, 자동약재배출장치 제조, 기능성 섬유활용한 식물제품 제조등
광주	15	13	기관맞춤형 리서치 분석, 브랜드 디자인개발, 발달장애 놀이키트 개발 등
대전	9	7	반려동물용품 제조, 스피커 음향기기 제작, 화장품 원료개발, 스마트도어 워치개발 등
인천	19	18	도시락용기, 비누꽃다발제조, 생화꽃다발(클래스운영), 유아용품, 수제화, 반려동물 제품, 화장품, 웹사이트 구축 등
울산	16	12	의류제작, 패션 디자인, 인테리어, 해외직구대행, 생활한복 제작 및 판매 등
강원	13	13	간판, 광고디자인, 다문화 관련 교육서비스, 스마트인형 개발 등
경기	11	11	S/W개발 공급, 아스팔트 포장, 각질제거기, 캐릭터 제품 디자인, IT S/W개발 등
경기북부	15	15	친환경침구, 스파클링 헤어제품, 과학교육콘텐츠, 친환경 수용성 난연제, 피규어제작,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주차구역 무인단속시스템, 개리터봉제 완구 등
충북	16	16	해외구매대행, 문화컨텐츠개발, 스물웨딩용품, 캘리그래피, 공연·예술학교 교육지원 등
전북	12	4	무역, 컨설팅, 의류잡화, 건물위생관리업, DIY한지조명 등
경남	18	16	패키지디자인 및 콘텐츠개발, 정밀기기 3D프린팅, CCTV 보안시스템 개발, 가상화폐 솔루션 앱개발, 시스템 응용S/W 개발, 출판·인쇄, 인체대상 UV-C램프개발 비대면 행사중계(홀로그램 행사) 등
제주	12	8	판촉물 제작, 영상촬영 서비스, 식품 제조,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등
충남	9	8	전자상거래, 아동복 대여, 방향제, 가방, 광고물제작 등
전남	10	8	영상제작, 건강식품제조, 디자인(광고물제작), 친환경캔들, 향암농산물 등
경북	12	12	포인트 결합 어플개발, 개인방역물품 제조, 소품제작, 컨베이어장치 제조
합계	238	212	-

다) 성과

입주여성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019년 19.8%, 2020년 19.8%, 2021년 20.4%로 매년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입주업체의 만족도는 88.0점(2019년), 90.0점(2020년), 90.0점(2021년)으로, 약 90.0점 정도의 평균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25-1-8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단위 : %, 점)

구분	연도별 실적		
	2019년	2020년	2021년
업체평균 매출액증가율	19.8	19.8	20.4
입주업체 만족도	90.0	90.0	90.0

3) W-창업패키지 지원사업

가) 개요

W-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유망 여성창업자 발굴 및 창업 아이디어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BI 입주기업 또는 WISET(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2021년 여성과학기술인 창업교육 1기'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40개사를 선정하여 기술, 생산, 마케팅, 판로 4개 분야에 대해 총 1억원 사업화(1기업 최대 250만원)를 지원한다.

표 IV-25-1-9 | W-창업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BI 입주기업 중 이공계 여성창업자 또는 기술창업기업 2021년 여성과학기술인 창업교육 1기(WISET, 창업진흥원) 수료생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개사 선정 총 1억원 사업화지원(1기업 최대 2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생산, 마케팅, 판로 중 최대 4건 지원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3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 02-369-0943

나) 현황

W-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모집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사업화지원 수행, 정산 및 사업화지원, 사후관리로 여성창업자의 창업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창업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업은 기술, 생산, 마케팅, 판로 분야의 사업화지원을 수행한다. 센터는 선정기업의 사업화지원 수행 자료를 검토하여 정산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후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고용, 투자 등 성과 추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표 N-25-1-10 | W-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프로세스



다) 성과

W-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2021년 신설되어 총 46개사가 참가하였다. 참가자 연령은 30~40대 여성창업자가 32개사로 70%를 차지하였고, 학력은 학사 이상 여성창업자가 40개사로 87%를 보였다. 아이템은 기술기반제조, IT/ICT, 콘텐츠 등 기술창업이 76%로 나타나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여성창업자들의 참가 비중이 높았다.

4)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가) 개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이며, 연 2.0% 이자율에 최대 1억 원까지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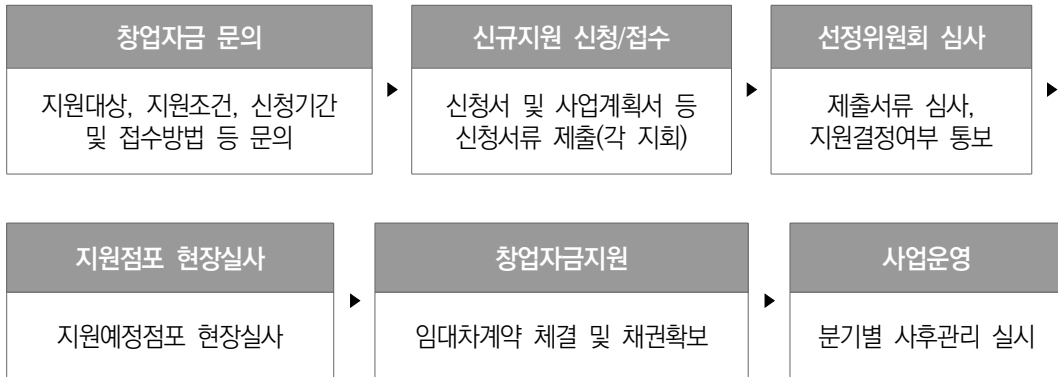
표 N-25-1-11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요건: 저소득계층(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 지원제외대상 : 복권업, 임대업, 주점업, 사치·향락업종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타 정부 정책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중인 자, 임대건물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억원, 연 2.0% 이자율, 최대 6년(최초 2년, 2회 연장 가능)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3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3

나) 현황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가 지원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최종 선정되는 자에 한해 창업자금(점포 임대보증금)을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기간 내 분기별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사업운영사항 개선, 매출증대 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림 64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프로세스



다) 성과

1999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2021년까지 저소득 여성가장 총 74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신규지원자 9명, 기존 지원자 중 기간연장 신청자 9명에게 지원하여 총 18명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IV-25-1-12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실적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인원	지원인원	지원인원
신규지원	9	9	9
기간연장	11	11	9
합계	20	20	18

나.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사업

여성경제인 혁신역량강화 사업은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 여성경제인 경쟁력 강화 및 네트워킹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국제회의 파견 지원 사업 등이 있다.

1)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dvanced Management Program)

가) 개요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경제현안 및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경제인 특성에 맞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여성CEO MBA 교육 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CEO 및 임원, 예비 창업자이며 강사료, 교재비 등을 일부 지원한다.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주제별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 경영전략 수립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25-1-13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전국 여성 CEO 및 임원, 예비 창업자
지원사항	• 강사료, 교재비 등 • 교육횟수 및 시간: 연간 주제별 4회 교육, 주제별 평균 4주 과정
교육내용	• 전문 운영기관과의 협력 및 교육과정의 일원화로 여성기업에 특화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전국 여성경제인들에게 제공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3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나) 현황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은 매년 경영트렌드를 반영하여, 여성 경제인의 교육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여성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교육 뿐 아니라 비대면 교육 솔루션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정규 개설 및 확대하여 학습 효과 극대화 하고, 전국 여성 경제인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련하여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절차는 신청자 모집단계, 교육실시, 결과보고로 수행된다.

그림 65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프로세스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2006년 4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전·충남)으로 시작하여 2020년 상반기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였고 하반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중에 있다.

표 IV-25-1-14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개최 현황

(단위 : 개, 주)

구 분	연도별 실적			
	2019년	2020년		2021년
		오프라인	온라인	
개최지역 수	14개	7개	비대면 온라인 운영	비대면 온라인 진행
지역별 개최기간	12주	6주	4주 x 2회 개최	3주 x 4회 개최

개최 지역별로 참가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서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경북 25명, 경기북부 25명 순을 보였고,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개최지역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이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8명, 충북 24명 순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비교적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던 수강생 분포가 교육방식의 변화로 전국 어디서든 양질의 교육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표 IV-25-1-15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지역별 개최 내역

(단위 : 명, %)

지역	2019년 (오프라인)	2020년		2021년 (비대면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수도권	서울	63	81	2개과정 총 312명
	경기	22	38	
	경기북부	25	21	
	인천	21	-	
대구/경북 ('17, '18 통합운영)	대구	19	-	
	경북	25	-	
대전/충청	충북	21	24	
	대전	20	-	
	세종충남	16	-	
광주/전남/전북	광주	-	-	
	전남	-	-	
	전북	24	16	
부산/울산/경남	부산	9	-	
	울산	-	13	
	경남	16	-	
강원	-	-		
제주	14	18		
합계	295	211	312	4개과정 총 693명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규개설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경우 2개 과정에 총 312명이 수강하였다.

다) 성과

교육 수강생 수는 2019년에는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강료 인상으로 전체 수강자 수는 295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교육 효과와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꾸준한 성과를 보였고,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 수강자 수는 211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2번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하여 총 523명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본격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 2021년의 경우 전체 수강자 수는 69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교육 수강생 만족도 역시 2019년 90점, 2020년 92점, 2021년에는 87점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된 후에도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25-1-16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성과

(단위: 명, 점, %)

구 분	연도별 실적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 수강생수	295	523	693
교육 수강생 만족도	90.0	92.0	87

2)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가) 개요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은 전국 여성경제인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여성CEO로 여성경제인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강연, 분야별 경영애로 상담 운영, 여성기업 제품 전시부스 운영, 여성기업지원사업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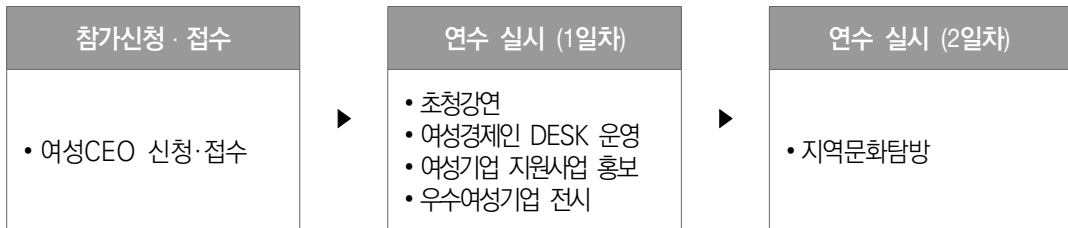
표 IV-25-1-17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여성CEO
연수내용	• 초청강연, 여성경제인 DESK 운영, 여성기업지원사업 안내, 우수 여성기업 및 BI 홍보 등
문의처	• 중소기업본부 정책총괄과 : 044-204-743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1

나) 현황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강연을 비롯하여 1박 2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기업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상담 및 정책건의를 위해 전문분야별 여성 경제인 DESK가 운영되고 있다. 단,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시적으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여성CEO 경영혁신 컨퍼런스’를 3일간 온라인 라이브 교육으로 개최하였으며, 2021년에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 참가자 수를 제한하여 행사를 개최하였다⁴⁴⁾

그림 66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프로세스



다) 성과

2021년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참가자 수를 500명 미만으로 제한하여 개최되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개최되었고, 한 명의 감염자 발생 없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표 IV-25-1-18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구 분	연도별 실적		
	2019년	2020년*	2021년
참가자 수	800	610	499
개최지역	충북 청주	온라인 컨퍼런스	충남 예산

* '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연수 진행 (참가자 수: 610명)

44) 2021년은 국고 지원 없이 협회 자체사업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행사를 개최하였다.

다.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으로는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 TV홈쇼핑 입점지원, 공동브랜드 '여움' 운영 등이 있다.

1)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

가) 개요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사업은 수출초보 여성기업을 경쟁력 있는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동 사업은 수출교육, 수출기업화, 수출유망기업화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IV-25-1-19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교육 : 무역실무, 품목별·시장별 진출전략 등 해외 마케팅 교육 수출기업화 : 전문가 1:1 컨설팅 및 홍보물제작, 해외인증비 등 수출 준비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 수출유망기업화 : 여성기업 특화품목 대상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및 해외 현지 유통망 입점 지원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4

수출교육은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실무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특정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품목별 맞춤 전략 교육을 통해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표 IV-25-1-20 | 수출교육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여성기업 대표 및 실무자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초보 무역실무 교육 유망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별 마케팅 교육

수출기업화 지원은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단계에 맞춰 1:1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 수준준비를 위한 직접사업비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유관기관의 수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표 IV-25-1-21 | 여성특화제품 수출기업화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내수) 전년도 직수출액이 없는 수출준비 기업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수출액 10만불 미만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전문가의 1:1 기업별 맞춤형 멘토링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DESK 전문위원 활용 해외마케팅 직접비 지원 (홍보물·패키지 제작, 해외인증비, 해외지사화 지원 등)

수출유망기업화 지원은 여성기업 특화품목인 뷰티·푸드·리빙을 주 수출품목으로 하는 여성기업을 발굴하고, 타깃 국가별 해외바이어와 매칭하여 국내 제품의 해외 진출 판로확대 도모한다. 또한,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및 프로모션 지원으로 여성기업의 글로벌마케팅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표 IV-25-1-22 | 여성특화제품 수출유망기업화지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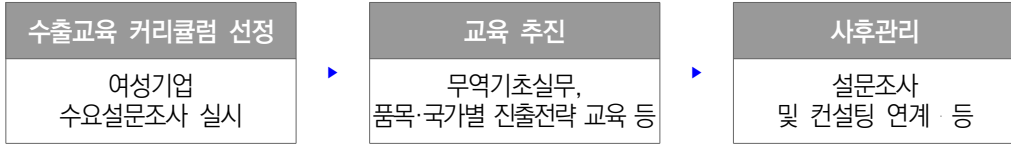
구분	내용
지원대상	수출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유망기업화) 뷰티·푸드·리빙 분야 여성기업 총 25개사를 대상으로 수출타깃 국가별 바이어매칭 및 온라인 수출상담회, 온오프라인 현지 유통망 입점 등 해외마케팅 지원

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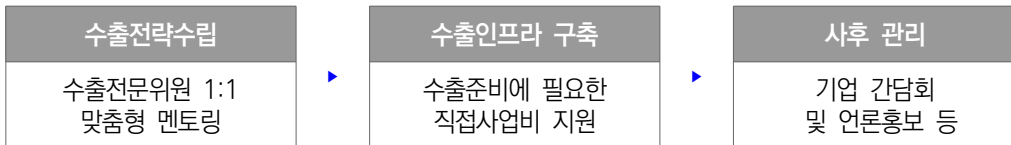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사업은 여성기업 수출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첫 수출과 수출유망기업으로의 도약을 촉진한다. 수출예비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실무와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 교육을 제공하여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수출기업화를 위해 1:1 컨설팅 및 수출준비를 위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하고, 수출유망기업화 지원으로 여성기업의 현지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특히, 각 사업 추진 전 여성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여성기업의 수요와 수출 단계에 적합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그림 67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사업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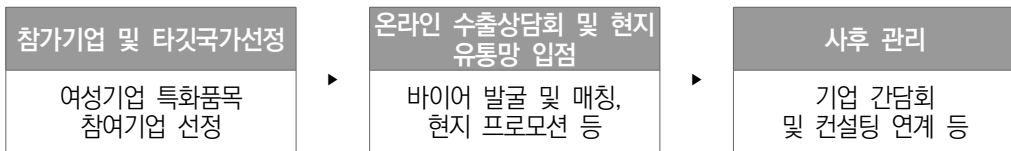
① 수출교육



② 수출기업화



③ 수출유망기업화



다) 성과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은 2021년에 25개사를 지원하여 이 중 19개사(76%, 총 44만 달러)가 수출에 성공하였다.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25개사를 선정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온라인 상담회로 대체 추진하였다. 또한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해 수출마케팅 교육을 5회 실시하여 612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표 IV-25-1-23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사업 주요성과

구분	지원 실적			주요 성과
	신청	지원	경쟁률	
수출교육	1,504명	612명	3 : 1	- 만족도 94점
수출기업화	99社	25社	4 : 1	- 수출성공률 : 76%(19개사) - 수출성공액 : 44만 달러
유망기업화	125社	25社	5 : 1	- 수출성공률 : 88%(22개사) - 수출성공액 : 15만 달러

2)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 개요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은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여성기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시 도움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N-25-1-24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지원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이다.

나) 현황

여성기업 확인접수는 온라인(www.smpp.go.kr)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접수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검토 후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된다.

그림 68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프로세스



다) 성과

여성기업 확인제도에 따른 발급건수는 2018년 12,541, 2019년 16,178건, 2020년 20,650건, 2021년 23,285건으로 2020년 대비 약 12.8%가 증가하였다.

표 IV-25-1-25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성과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확인서 신청건수	14,409	19,367	23,860	25,160
확인서 발급건수	12,541	16,178	20,650	23,285

3)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지원

가) 개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여성기업 확인제도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확인서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 전자입찰 실무교육과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안내 등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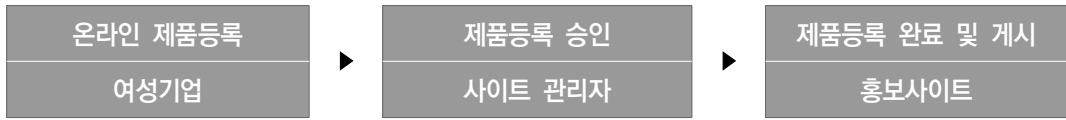
표 IV-25-1-26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체 공공구매 업무 담당자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대상 전자입찰 실무교육 제공 공공기관 구매 관련 안내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나) 현황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사업은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과 여성기업 대상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제공하여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한다.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지원사업은 온라인 제품등록, 승인, 완료 및 게시 등 총 3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자입찰 실무교육은 입찰방법 및 입찰실습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9 |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다) 성과

공공구매 제도 홍보사업을 통해 여성기업의 전자입찰 실무교육 수강생이 전년에 비해 297% 증가하였다.

표 IV-25-1-27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구 분	연도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자입찰 실무교육 수강생	97명	374명	1,176명	3,495명

* 2018년부터 실습교육과정이 추가되어 전산교육장 수용인원에 맞추어 교육진행에 따라 전년대비 53% 수강생 감소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은 2016년 116.9조원, 2017년 123.4조원, 2018년 123.4조원, 2019년 135조원, 2020년 145.9조원, 2021년 154.0조원이며 그 중에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액은 2016년 8.34조원, 2017년 9.9조원, 2018년 10.58조원, 2019년 11.9조원, 2020년 12.5조원, 2021년 12.8조원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은 각각 7.1%, 8.0%, 8.6%, 8.8%, 8.6%, 8.3%로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은 2021년 기준 전년대비 구매실적이 3.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전체 공공기관 제품 구매에 있어서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 IV-25-1-28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단위 : 조원, %)

구분	연도별 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총구매액	116.9	123.4	123.4	135.0	145.9	154.0
여성기업제품구매액	8.34	9.9	10.58	11.9	12.5	12.8
구매비율	7.1	8.0	8.6	8.8	8.6	8.3

자료: 공공구매종합정보, 중소기업 공공구매실적

4) W-디지털판로지원

가) 개요

W-디지털판로지원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제품을 발굴하여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입점을 지원하고, 입점에 필요한 영상제작 및 홍보 등을 지원하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상품을 보유 및 일반소비자가 구매가능한 B2C품목을 취급하는 여성기업으로 선정된 여성기업에게는 판로별 교육, 1:1전문가 멘토링, 상품품평회, 홈쇼핑 인서트·SNS광고영상제작비, TV홈쇼핑 입점 수수료, 라이브커머스 방송 입점 등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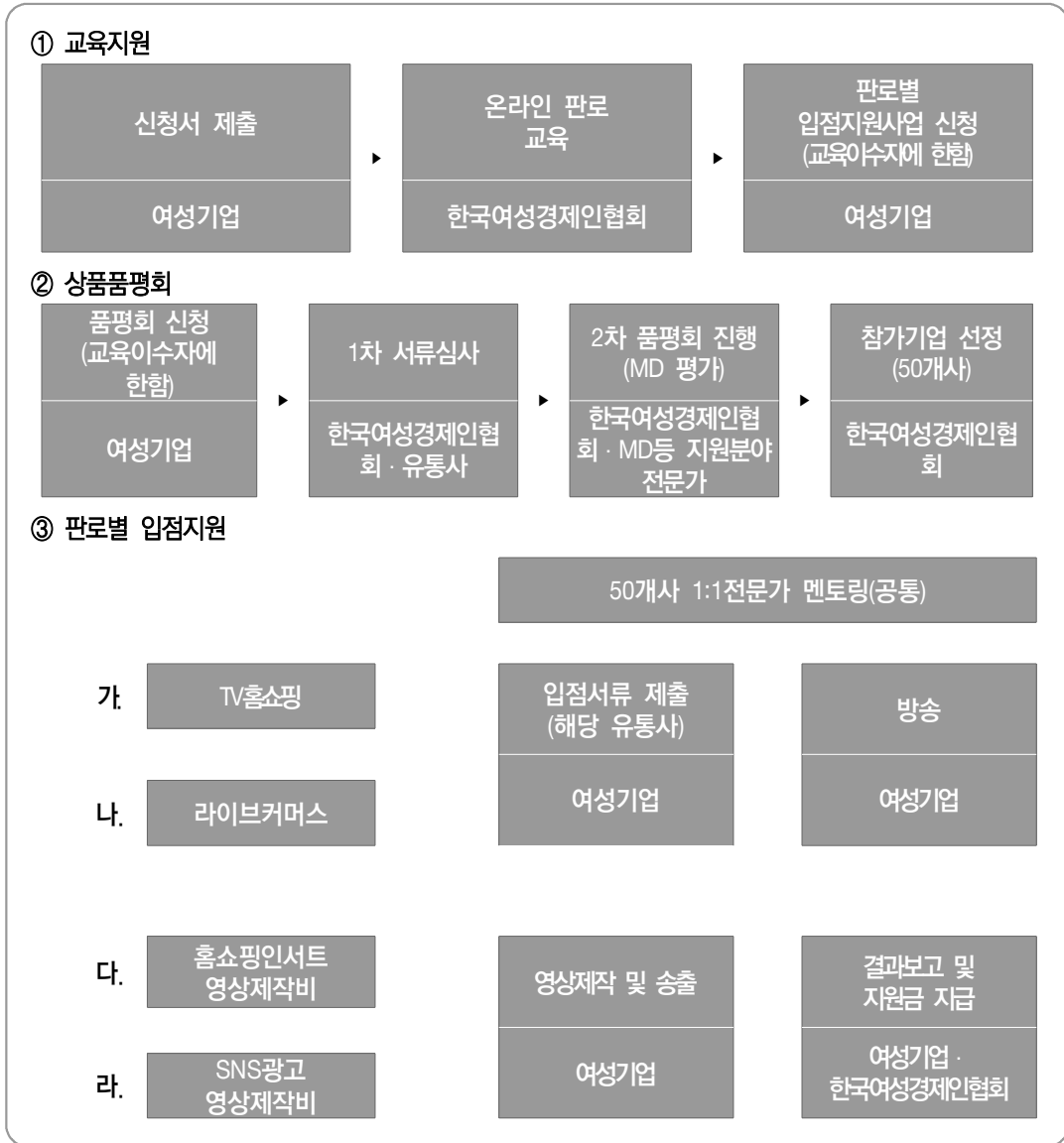
표 IV-25-1-29 | W-디지털판로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 규모	• 여성기업 500개
지원 대상	• 홈쇼핑 판매 취급기준에 적합한 여성기업 제품 및 일반소비자가 구매가능한 B2C 품목을 취급하는 여성기업
지원 내용	• 판로별 교육, 품평회, 1:1전문가 멘토링, 홈쇼핑 방송수수료, 인서트영상 제작비,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SNS광고영상 제작비 등
제출서류	• 판로별 입점희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여성기업확인서)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통합정보망(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tvhome@wbiz.or.kr)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3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58

나) 현황

W-디지털판로지원 사업은 판로별 전략 교육을 통해 여성기업들에게 입점 방향을 제시하고, 방송 입점을 희망하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품평회를 거쳐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지원금 중 방송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해당 TV홈쇼핑사 및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하며, 여성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는 홈쇼핑 인서트 영상제작비, SNS광고영상 제작비 지원금은 송출이 완료된 후 기업 별로 협회의 지원금 지급절차에 맞춰 신청한다. 지원업체들은 유통채널 진출 준비 과정에 따라 1:1전문가 멘토링을 받는다.

그림 70 | W-디지털판로 지원 프로세스



다) 성과

W-디지털판로지원사업은 2017년 처음 시작한 지원사업으로 5년간 1,618개 사가 교육 및 품평회를 통해 홈쇼핑 및 제품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받았고, 129개 사가 257회 방송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참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8.3% 상승에 기여하였다.

표 IV-25-1-30 | W-디지털판로 지원 사업성과

(단위 : 개사, %)

구분	내용								
	2019			2020			2021		
	목표 기업 수	지원 기업 수	목표 대비 기업 지원률	목표 기업 수	지원 기업 수	목표 대비 기업 지원률	목표 기업 수	지원 기업 수	목표 대비 기업 지원률
홈쇼핑 입점교육 및 품평회	150	163	107	200	213	106	500	570	114
방송 지원	15	16	107	25	40	160	40	46	115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3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58 								

5)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가) 개요

국제회의의 한국 대표단 파견 지원 사업은 각 국가별 정책 공유 및 세계 여성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년 각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한국 여성 대표단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여성 기업 대표이며 회의 참가비, 차량 임차료, 통역비 등 공통경비를 지원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공식회의 및 세미나, 워크숍, 현지 여성 단체와의 간담회 참가를 통한 네트워킹 형성이며, 전 세계 여성 경제인 간담회, APEC 여성경제포럼(APEC-WEF), 세계여성경제인대회(FCEM) 등 국제회의의 참가를 지원한다.

표 IV-25-1-31 |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대표
지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 참가비, 차량임차료, 통역비 등의 공통경비 지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막식, 본회의 및 세미나 등 공식행사 참가 주제별 워크숍 참가 및 발표 네트워킹 런치 및 만찬 참가를 통한 해외여성경제인과 교류 주최국 업무협약(MOU) 및 간담회 참여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3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나) 현황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은 공식회의에 참가하여 국가별 여성지원 정책을 공유하며 주최국과의 업무협약(MOU) 및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비즈니스 교류를 확대한다. 절차는 참가자 모집단계, 파견 준비단계, 대표단 파견단계, 결과 보고단계로 수행된다.

표 N-25-1-32 |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프로세스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여성기업과 지원정책을 공유, 벤치마킹하여 국내 여성기업에게 도입하고 수출협력 등의 우호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이 필요한 기업에게 유용한 고급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 성과

2018년도는 FCEM 세계여성경제인협회 총회 참석 및 대만여성경제인협회 간담회(대만, 타이페이)를 개최 하였고, 2019년은 처음으로 아랍-아프리카 포럼에 참여하여 유럽, 아시아, 중동지역의 29여개국가 여성기업 대표들과 교류하고, 전시부스 참여 및 현지 바이어들과의 B2B 미팅을 진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회의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이 취소되었다.

표 N-25-1-33 |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성과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실적		
	2019년	2020년	2021년
참가자 수	16	-	-
파견회의	2019 아랍-아프리카 투자포럼	코로나19로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취소	

라.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재정비 지원사업은 여성경제인DESK운영,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 연구조사 등이 있다.

1) 여성경제인 DESK 운영

가) 개요

여성경제인 DESK는 여성경제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애로와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해결하기 위한 창구의 필요성을 제기(2014.12, 대통령 주관 「여성기업인 초청 오찬간담회」)하여 여성기업 정책건의 전용창구로서 「여성경제인 DESK」를 설치하였다. 지원대상은 예비 여성창업자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예비 여성경제인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경제인이다.

표 IV-25-1-34 | 여성경제인 DESK 신청 및 상담 분야

구 분	내 용
창업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 등록 등
법무/규제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환위험관리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노무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관리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기술/특허	기술자문, 기술동향,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정보화/융합기술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마케팅/수출입	마케팅·수출입

나) 현황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들은 6곳에 거점을 두고 지역센터에서 여성 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그림 71 | 여성경제인 DESK 프로세스

단계	수행 방법	비고
여성기업 (신청)	▶ 정책아이디어 및 현장경영 애로사항 신청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	여성기업
↓		
여성경제인 DESK 접수 (해당지역 센터)	▶ 정책건의 및 현장 경영애로, 규제 신청접수	17개 지역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접수
↓		
전문위원 상담 (센터 방문 또는 기업)	▶ 분야별 전문위원 상담 및 해결	
↓		
	▶ 멘토링 필요시 여성기업 대사단 연계	
↓		
관계부처 협의 및 해결	▶ 미결과제 접수 및 해결 ▶ 정책건의 및 현장 경영애로, 규제 개선 및 부처협의, 필요사항 이관해결	중소벤처기업부
↓		
결과 안내 (여성경제인 DESK)	▶ 처리결과 종결 및 회신	-

다) 성과

여성경제인 DESK는 ① 중앙·대전, ② 서울, ③ 경기·인천, ④ 광주, ⑤ 대구, ⑥ 부산으로 총 6개의 거점지역에 전문위원이 배치되어 2,490건을 상담했다.

이와 더불어 성공한 선배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기업 대사단 사업을 실시하여 중소·벤처·초기창업 여성경제인에게 176건의 멘토링을 실시했다.

표 IV-25-1-35 | 연도별 여성경제인 DESK 상담실적

구분	상담건수	멘토링건수	고객만족도점수
2021년	2,490건	176건	97.4점

2)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운영 (<http://www.iljarahub.or.kr>)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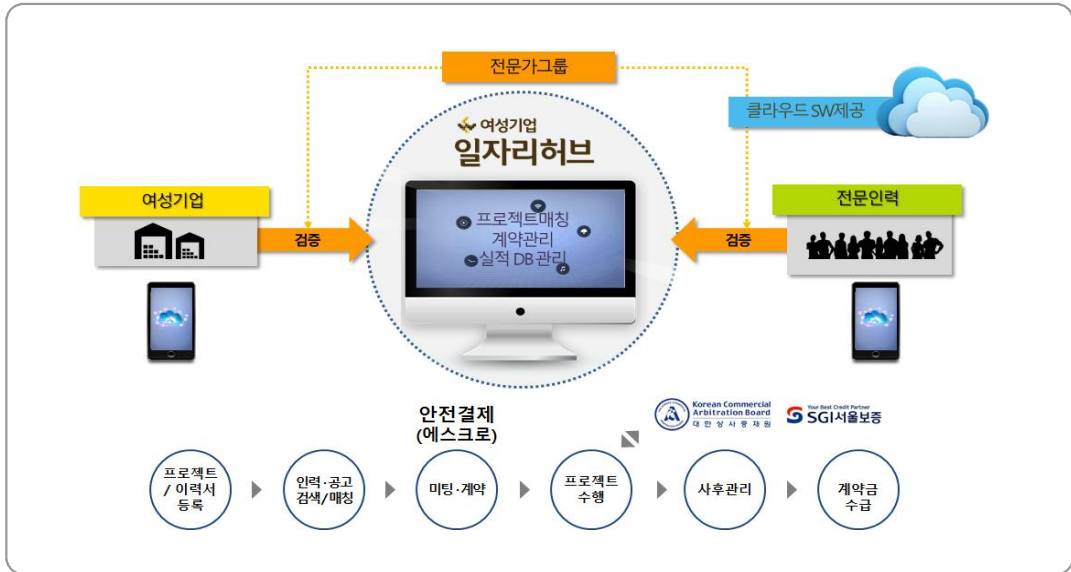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는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물리적인 제약 없이 전문적 능력을 가진 인적자원과 매칭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는 프로젝트 등록부터 완료까지 단위별 1:1로 전담 관리하여 초기 상담 및 조율 등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인재 추천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표 N-25-1-36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개요

구분	내용
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인력을 물리적 제약 없이 합리적 비용으로 매칭하여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 등 유연한 업무환경 제공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주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일자리 창출 여성기업 프로젝트 잡포털 홍보 지원 • 업무용 SW를 클라우드 방식 (SaaS)으로 제공하고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 •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Escrow),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 안전결제 지원 • 수행평가, 경력증빙, 경력개발 등 사후관리 ※ 일자리허브 참가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혜택 : IBK기업은행 대출금리 추가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등
참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 중소·벤처·초기창업 여성경제인 • 전문인력 : 전문가·경력자, 개인·프리랜서,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고경력자 등 ※ 주요분야 : 디자인 / IT개발 / 홍보마케팅 / 수출무역 / 회계재무 / 인사총무 등
참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플랫폼(www.iljarahub.or.kr) 회원가입 • 여성기업 : 회원가입 및 프로젝트 등록 • 전문인력 : 회원가입 및 프로필 등록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Tel. 02-369-0963, E-mail. ljarahub@wbiz.or.kr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 www.iljarahub.or.kr

전문 인력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이 프로젝트 계약부터 완료까지 신뢰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구축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 및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및 전문인력의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여성기업회원이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사이트에 프로젝트를 등록하면 일자리허브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전문 인력을 검증하여 계약에서 전문인력의 프로젝트 수행 후 안전결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시 업무용 S/W와 클라우드를 제공함으로써 재택 근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문인력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림 72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개념도



나) 현황 및 성과

여성기업 전용 1:1 맞춤형 인재채용 프로그램인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는 지난 2017년 11월 여성경제인의 날에 론칭된 이후 전국 설명회, 유관기관·단체⁴⁵⁾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지도를 확산하였다. 현재까지 약 2천 5백개사 여성기업이 일자리허브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후 백업솔루션 도입 및 모바일 실시간 관리 기능 확대로 운영환경을 개선하였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화상 면접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간 피드백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21년에는 모바일 최적화 및 알림톡 서비스를 개선하여 기업회원 2,348개사, 전문인력회원 5,812명 가입, 프로젝트 등록 2,378건, 매칭지원1,178건을 지원했다.

누적	기업회원 수	전문인력 수	프로젝트 수	매칭지원 수
성과	5,463개사	15,822명	6,764건	2,430건

45) 여성경제단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여성발명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여성가족부 중앙세일센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인쿠르트(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등

그림 73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http://www.iljarahub.or.kr)



3)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가) 개요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은 여성경제인 및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정보, 여성기업 관련 통계 자료 제공 등 여성기업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였다. 효율적 운영·관리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기업의 경영지원 및 창업여성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카테고리별 정보 분류·업데이트를 통한 사이트 이용자의 정보 취득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향상 되었다. 포털시스템 최적화로 온라인 사업 등록·신청 및 여성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현황파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2014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 여성기업 제품 구매)의무화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만을 홍보할 수 있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사이트를 구축하여 여성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표 N-25-1-37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여성경제인 및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여성창업자
지원내용	• 포털사이트를 통한 사업 지원 및 경영정보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통한 여성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확대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31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20

나) 현황

① 여성기업 제품 판로확대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의무화⁴⁶⁾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한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웹사이트를 구축 하여 온라인 마켓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경제인의 판매채널 다변화 및 여성기업 제품 홍보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1,784여개의 업체가 상품 등록 및 홍보를 하고 있다.

② 그 외 다양한 여성기업 정보

여성기업 통합 DB구축 및 검색시스템 도입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유형별, 생산 제품별, 산업분류 등을 통한 여성기업을 검색할 수 있으며, 사내 인트라넷 구축으로 통합로그인,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일정관리, 설문조사, 전자결재, 문서함, 주소록 관리, 회계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74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홈페이지



46)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14. 1.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967호, 2013. 7. 30., 개정)

다) 성과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은 3개년 추진 프로젝트로서, 1차년도(12년)에는 통합망 기반 구축단계, 2차년도(13년도)에는 통합망 고도화 단계, 3차년도(14년)에는 통합망 운영·개선 사업단계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2년도에는 대내 통합 시스템인 사내인트라넷과 기업정보관리, 지원사업관리 부문, 대외 통합시스템, 여성기업지원정책정보, 온라인 기업 마케팅, 민원처리, 여성기업 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하였고, 2013년도에는 포털사이트 업데이트 및 지원사업관리 기능개선을 위해 창업, 교육, 여성가장창업자금, BI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시스템, 설문조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구축, 그룹웨어와 결제 연동 가능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하도록 구축하고, 통합관리 및 운영하도록 하였다. 2014년도에는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업데이트로 여성기업 제품 등록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기업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다. 2015년도에는 공공기관의 DB연계 개발로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콘텐츠를 보강하고, 사업 이력관리시스템 및 통계시스템 개발로 운영 환경이 개선되었다. 2016년도에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여, 사용자 접근 및 편의성을 증대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여성기업 종합 정보포털 DB 서버 업데이트를 통한 사이트 안전성 및 보안성이 향상 되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회원 수는 26,736명이며,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사이트에 등록된 여성기업 수는 1,784개, 등록 제품 수는 15,798개이다.

4) 여성기업 조사연구

가) 개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연구조사를 위해 2019년부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여성기업 관련 통계생성·관리 및 여성기업 정책기반 자료 제공, 법·제도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이다.

표 IV-25-1-38 | 여성기업 여성경제연구소 운영

구분	내용
소개	•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연구조사를 위해 여성경제연구소 운영
주요목적	• 여성기업 관련 통계생성·관리 및 여성기업 정책기반 자료 제공 • 법·제도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
주요성과	• 여성기업 실태조사·여성기업백서 발간을 통한 정책 기반자료 생성 * 여성기업 실태조사 DB 구축('03년부터 현재까지 격년 시행하였으며, '21년에는 1년으로 단축시행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21년 10월 21일('21.4.20 공포)부터 매년 시행) • 여성기업연구소 연구실적 및 성과 - (조사·연구보고서) 정기과제, 수시과제 등 - (정기간행물) WERI 브리프 발간 등 - (정책공유)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
문의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 02-369-0900

나) 현황

여성경제연구소에서는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관련 동향 분석 등 종합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연구보고서 체계를 정비하여 정기 및 수시과제로 구분하여 발간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간담회,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기업인들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 성과

2013년 이후 여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발간 건수는 연구보고서 70건, 정기간행물 60건, 수탁과제는 2건으로 발간된 보고서 중 일부는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에 게재하고 있다.

제26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1989년 7월부터 전국각지에서 결성되기 시작한 민간주도의 중소기업이업종교류그룹을 대표하기 위해, 1994년 11월 23일 전국 이업종 교류 연합회로 창립하였다. 이후, 1994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5조 및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1995년 6월 중소기업청의 허가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6월 (사)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로 명칭을 변경, 2009년 3월 (사)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로 명칭을 변경, 2011년 11월 현재의 명칭인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년부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 융복합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의 기술융복합화를 이끌어 왔다. 2020년에는 해외연합회를 설립하여 전국 13개 지역연합회, 3개 해외연합회와 271개 융합회(6,451개 중소기업)를 회원으로 하여 이업종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으로 중소기업간 부족한 경영 및 기술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를 촉진하고, 국내 기업 간 교류 협력을 넘어, 해외 한인기업인들과의 국제 교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간 교류협력 강화사업, 중소기업간 네트워크기술개발 사업 사전기획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1

중소기업간 교류 및 협력활동 지원

가. 개방적 지원체계 구축

1994년 12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 이업종 교류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 교류지원 부를 설치하여 이업종교류 지원업무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업종 단위교류회 신규결성 및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CEO포럼 등의 사업을 보조하고 매년 단위교류회 및 참여기업의 교류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전시하는 중소기업융합대전 개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간 교류·협력 문화조성 및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표 N-26-1-1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연 합 회	13	13	13	13	13	13	13	16	16
교 류 회	329	332	315	315	301	269	267	271	278
회 원 사	7,029	7,141	6,546	6,546	6,078	6,058	6,199	6,451	6,638

중소기업융합대전은 2004년부터 이업종교류회 소속 기업의 단합과 교류성과 공유를 위해 전국을 순회 개최하였던 중소기업 한마음대회를 2014년 정부의 융합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토록 중소기업융합대전으로 격상시켜 매년 기업 간 교류와 협력활동의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하여 정부포상 수여를 통해 기업 간 교류와 협력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표 N-26-1-2 |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최 기간	6.21	5.22~23	9.4~5	5.21~22	4.22~23	4.14~15	5.12~13	4.26~29	5.15~16	6.10~11
개최 지역	대전 충남	제주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충북	제주	대구 경북	울산	강원
참가 규모	290	400	550	550	1,100	1,200	1,400	1,560	1,558	1,800

표 N-26-1-3 | 중소기업 융합대전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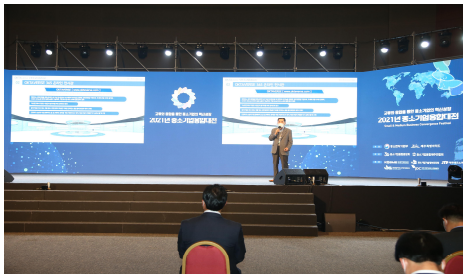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개최기간	9.26-27	10.28	10.19	10.23	10.30	10.16-17	12. 07	11.17-19
개최지역	천안	대전	서울	익산	대전	안동	대전	제주도
참가규모	1,500	1,000	1,000	1,000	800	2,000	50미만	1,700



융합중앙회 강승구회장 대회사



포상수여식



협업우수사례



협업 MOU체결



협업세미나



수출/R&D상담회



협업성과전시



지역중소기업전시

나. 교류·융합 기반의 혁신적 성과 창출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의 개방·공유 기반 네트워킹 전략을 통해 혁신 역량을 확충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은 치열해지는 경쟁과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소기업은 동종 또는 이업종 기업 간 경영·기술 정보 교류를 통해 구축된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보완·협력을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전문화를 추진하면서 보완적인 기능을 보유한 기업과 역할을 분담하고, 자원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하나의 사업체처럼 경영활동을 하는 협업으로 위험과 성과를 분담하여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1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협업 사업계획 승인제도를 도입, 협업자금 융자지원 등을 실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협업 승인제도를 협업 선정으로 완화하여 사업신청·선정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2021년 협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협업 지원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제품개발·생산·디자인·판매 등에서 역할분담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업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여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시제품 제작 및 국내외 판로개척 등에서 기업 간 핵심역량을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기반으로 한 성과 창출을 위해 「교류→사업기획→R&D→사업화」등 단계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표 N-26-1-4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현황

구분	2007~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승인수	145	24	19	23	18	13	18	14	22	64
참여기업수	339	80	47	54	42	29	59	31	59	162

또한,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기반으로 한 성과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간 생산적 교류활동지원을 통한 협업과제 아이디어 발굴과, 협업계획 승인 후 연계하여 협업 상용화에 대해 지원하는 협업계획 추진 지원 등 협업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중심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IV-26-1-5 | 기업지원 사업내용 및 '21년 실적

사업명	주요내용	'20년 지원실적																	
지역혁신형 협업체결성 지원	<p>○ (목적) 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기술융합 및 협업과제 발굴 등 신사업 창출 및 사업 고도화</p> <p>○ (내용) 지역혁신형 협업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지역주력, 연고)산업 분야의 융합·협업과제 발굴 및 기획지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실 적</th> </tr> <tr> <th>교류활동</th> <th>강의·세미나</th> <th>컨설팅</th> <th>제품기획</th> <th>전시회참관·기업견학</th> </tr> </thead> <tbody> <tr> <td>현황</td> <td>170건</td> <td>56건</td> <td>33건</td> <td>16건</td> <td>10건</td> </tr> </tbody> </table>	구분	실 적					교류활동	강의·세미나	컨설팅	제품기획	전시회참관·기업견학	현황	170건	56건	33건	16건	10건	17개 협업체 (300백만원)
구분	실 적																		
	교류활동	강의·세미나	컨설팅	제품기획	전시회참관·기업견학														
현황	170건	56건	33건	16건	10건														
지역혁신형 협업계획 추진지원	<p>○ (목적) 지역 협업체가 발굴한 지역산업(지역주력·특화·연고)분야 협업과제에 대해 협업애로, 제품고도화, 판로개척, 홍보 등 지원하여 공동사업화 성공률 제고</p> <p>○ (내용) 협업제품에 대한 고도화 제작지원, 경영애로 컨설팅,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를 위한 투자연계 등 지속성장 지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실 적</th> </tr> <tr> <th>정보교류</th> <th>제품고도화</th> <th>시험인증</th> <th>지재권획득</th> <th>판로개척</th> </tr> </thead> <tbody> <tr> <td>현황</td> <td>48회</td> <td>25건</td> <td>3건</td> <td>3건</td> <td>11건</td> </tr> </tbody> </table>	구분	실 적					정보교류	제품고도화	시험인증	지재권획득	판로개척	현황	48회	25건	3건	3건	11건	10개 협업체 (1880백만원)
구분	실 적																		
	정보교류	제품고도화	시험인증	지재권획득	판로개척														
현황	48회	25건	3건	3건	11건														

2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단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융합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중소기업 성장한계 애로사항 해결과 상호 간 시너지 및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체를 대상으로 R&D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기업 간 협력 사업이다.

그림 75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협력 유형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전기획지원은 기술개발 실효성 검증에 위한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2단계 R&D사업에 진입하도록 아이디어 구체화와 수평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네트워크 R&BD 사업계획서 도출, 공동 개발기관 매칭, 상호협력 표준계약체결 등을 지원한다.

표 N-26-1-6 |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지원 현황

구분	지원기업	협업체 구성						상호협력계약서 및 공증추진	비고
		3개	4개	5개	6개	7개	합계		
2017년	61개	30	11	2	2	1	46	61개	
2018년	32개	20	4	5	2	1	32	32개	
2019년	37개	23	5	6	2	1	37	37개	
2020년	35개	30	5	-	-	-	35	34개	
2021년	29개	28	1	-	-	-	29	29개	

사전기획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구축부터 사업화 전략수립 까지 R&D 및 사업화 전단계를 포괄하는 협업기획 추진을 통해 R&D기간을 단축 시키고 기술개발 이후에 빠른 상용화 추진을 위한 사전기획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표 N-26-1-7 | 네트워크 기획지원 프로그램 구성

구 분		주요내용
네트워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핵심역량 분석을 통한 협업체 구성 네트워크 밸류체인 구성 및 네트워크 구성 기업의 적격여부 검토
환경 분석	기업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보유기술 및 제품 개요, 경영현황 분석, 재무현황 분석, 기업역량분석 종합
	시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목표시장선정, 시장 분석 의견 종합
	해외시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국 결정, 국가현황 및 정책방향,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기술 분석	기술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기술개요, 기술현황 및 전망, 기술수명주기 분석, 핵심기술 분석, 기술의 위치 분석, 기술 분석 의견 종합
	지적재산 전략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분석, 지적재산 확보 전략,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 전략, 지적재산권 방어 전략
경제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상매출액 분석, 예상원가 추정, 수익성지표산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전략 수립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기술개발 전략(기술개발정도 및 사업화일정, 일정별 결과물), 인력운용, 개발자금계획, 목표달성평가지표 인증전략 수립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환경·기업환경(기술, 인력, 생산)·시장환경 분석,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 사업화 추진전략/계획 수립, 해외진출전략수립
네트워크 협력 계약 체결/공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주체별 도출 성과물에 대한 정의 및 표준계약에 따른 합의사항 도출 (공증지원, 수익배분 방안 등)

앞으로도 협업기반 개방적 혁신 R&D창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 진출, 연구개발 리스크 분산 및 기간 단축, 개발비용 절감 등의 기업 간 협력사업의 기술개발 성과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기획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적 역량을 통해 기술융합의 중소기업의 협업성공 모델 창출에 이바지 할 예정이다.

3

중소기업 인력 지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15년 5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인력공동관리협의회 활동으로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인력공동관리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졸업예정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와 중소기업 사이에서 인력 채용에 관한 매개활동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현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21년도에 3개교 90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을 연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고 교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8명의 직무역량 강화 노력으로 특성화고생이 중소기업에서 미래 기능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

그림 76 | '21년도 특성화고생 및 교사 직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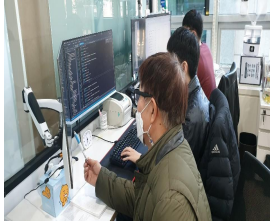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자 구인애로를 완화하고 청년층 실업 해소를 위한 현장코칭숙련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명장 등 전문가를 활용한 1:1 현장코칭으로 비숙련공이 기업현장에 빠르게 적응하여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 3일 이내 직무교육과 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의 12회 이내 코칭 및 최대 3개월 간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회원사 등 중소기업의 구인수요 353건과 숙련 기술인력으로 성장을 희망하는 구직자 414명을 발굴하여 286명의 사업참여자가 새로운 근무지에서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장 및 현장교수가 진행하는 현장코칭을 지원하였다.

그림 77 | '21년도 현장코칭숙련인력양성사업 현장코칭



4

중소기업 간 교류 및 협력 생태계 구축 지원

가. 중소기업 간 교류 및 협력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산하 전국의 13개 연합회는 매년 1회 융복합기술개발 및 융합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융합플라자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말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회원사의 제품과 기술홍보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인들 간 교류 및 협력문화 조성 및 확산을 기하고 있다.

2021년도는 covid-19로 인해 별도의 리더합동워크숍을 개최하지 않았으며, 2022년도는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탑스텐 리조트 동강시스타에서 리더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교수의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우수사례 발표 및 토의를 통해 우수 운영 사례 발굴하고 확산의 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리더합동 워크숍



리더합동 워크숍



리더합동 워크숍

나. 중소기업 간 협력생태계 구축 지원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교류·협력 및 혁신을 통해 지식·기술융합 및 협업으로 성장동력화 촉진에 기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화 등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외연합회 포함 국내외 회원수 확대에 의해 해외 판로지원, 경쟁력 강화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 중소기업이 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5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 지원

가. 지식산업센터 연계활동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발전 및 지역특화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20년 4월부터 비수도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지원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림 78 | '21년도 공공활용지원 프로그램

구분	지 원		실 적					성 과	
	참여 기관	지원규모	재직자 교육	출퇴근 버스	소프트웨어 입차	홈페이지 구축	홍보지원	매출	고용
현황	13개	164백만원	4건	1건	3건	6건	3건	4,627억	2,315명



홈페이지 구축지원

재직자 교육지원

출퇴근 버스지원

홍보지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비수도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우수인력 유치 및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공공활용 지원프로그램 및 입주기업 성장 단계별 기업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표 IV-26-1-8 | '21년도 기업지원 프로그램 실적

사업명	주요내용	'20년 지원실적
공공활용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역량강화 및 편의제공으로 입주 만족도 제고 ○ (내용) 13개 지식산업센터에 재직자 교육지원, 출퇴근 버스 운행, 소프트웨어 임차지원, 홈페이지 구축, 홍보지원 등 5개 프로그램을 선정·지원 ○ (성과) 근무 환경개선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생산성 향상 도모 	13개 센터 과제 지원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성장단계별 입주기업 기술 및 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입주기업의 역량강화 및 지속성장 지원 ○ (내용) 4개 사업 분야 세부 지원 과제 선정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 및 사업화 매출 등의 성과 창출에 기여 ○ (성과) 시제품 제작, 홍보 영상 제작, 특허 획득,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13개 입주기업 선정 과제 지원

구분	지 원		실 적				성과	
	참여 기업	지원규모	유망기업	초기기업	성장기업	연계협력	사업화 매출액	신규 고용
현황	13개	65백만원	4건	1건	3건	6건	509백만원	9명

나.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포털구축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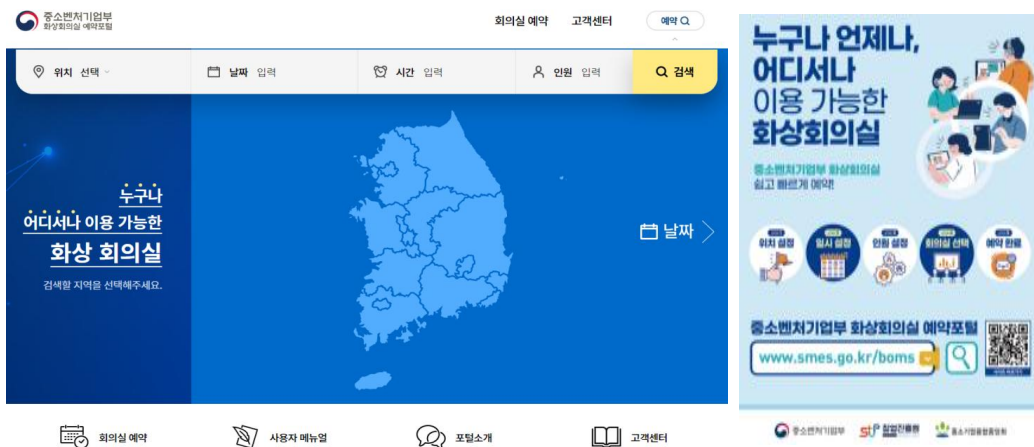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신속 대응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주요 거점에 화상회의실 구축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각 지역TP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수요 발굴 및 1567개소의 화상회의실을 구축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주변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화상회의실 정보를 조회·예약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 예약 포털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전국 화상회의실의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다.

표 N-26-1-9 | 전국 화상회의실 구축현황

(단위 : 개소)

지 역	화상회의실		스마트워크부스
	일반형	확장형	
서울	297	2	16
경기	294	1	5
인천	51	-	1
강원	53	-	3
대전	66	-	-
세종	11	-	-
충북	77	-	3
충남	66	-	2
대구	59	1	3
경북	90	-	1
경남	107	-	4
부산	84	-	7
울산	44	-	1
광주	70	-	1
전남	89	-	3
전북	79	1	3
제주	25	-	1

그림 79 |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 예약관리포털 및 홍보포스터



앞으로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운영 효율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등을 통해 비수도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체계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예약관리포털 운영 등과 같은 관련사업 추진으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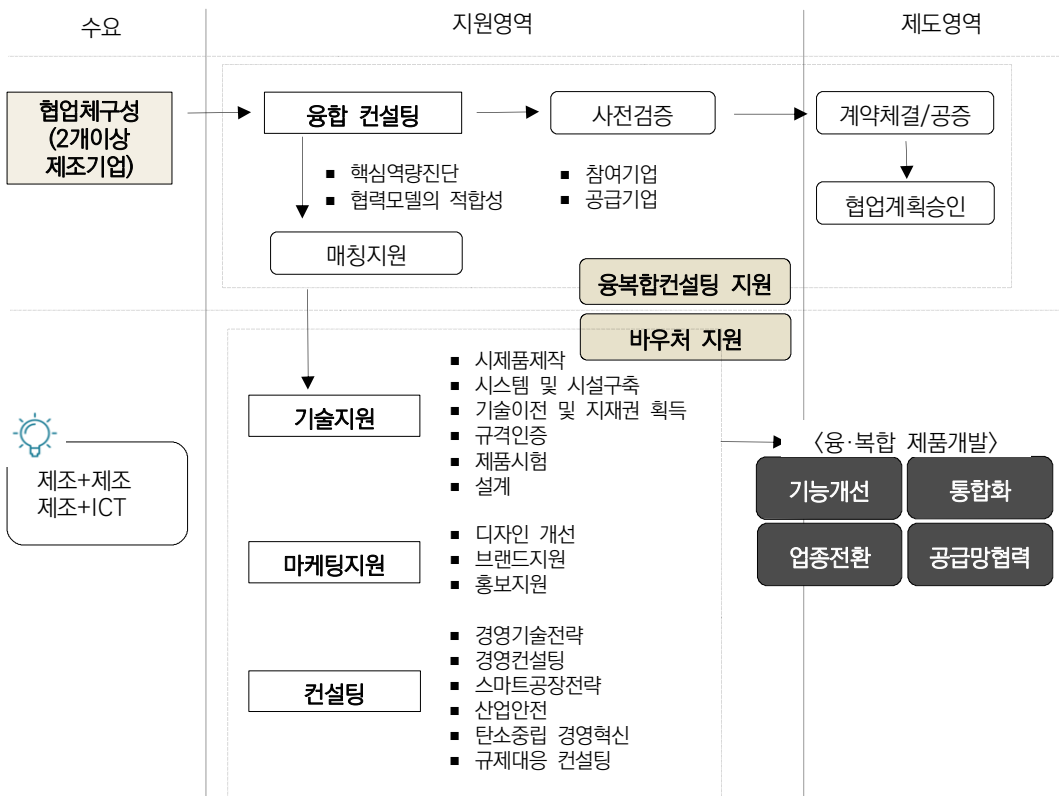
5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융·복합컨설팅

가.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마련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혁신 역량 진단을 통하여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융·복합컨설팅은 '21년 신규 사업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위기(수요정체, 경쟁격화, 기술 상향평준화 등)가 가중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기업의 역량 보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표 IV-26-1-10 | 융·복합컨설팅 운영개요도



산산 기반의 협업은 비용절감, 효율적인 변화대응, 비용감소 및 리스크 절감, 시간단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신사업, 통합화, 시장주도, 공동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기술개발의 경우 TRL-7단계 이상의 상용화 추진이 가능하여 중소기업 사업구조 개선 및 다각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융·복합컨설팅의 내용은 제조 중소기업의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시너지 발생 및 시장창출을 목적으로 협업체 기업의 현황분석, 보유기술기반 실적 및 수준 등을 고려한 핵심기술 가치분석, 협업 추진 아이템에 대한 시장규모, 경쟁력, 차별성 등을 분석하여 안정적인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평관계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약 보증지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계획 승인을 통해 직접생산확인 및 협동화 지원자금을 신청 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되는 사업이다.

표 N-26-1-11 | 융·복합컨설팅 수행내용

단계		컨설팅 수행내용	
융·복합 컨설팅 (협업승인 계획서)	기업현황 분석	·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 보유기술 및 핵심역량 분석	· 경영 및 재무 현황 분석 · 협업성숙도 진단
	과제분석	· 과제 개요, 참여기업 핵심역량 분석	· 과제의 목표 및 위치 분석
	시장분석	· 시장 특성 및 시장 규모, 수요 조사 · 제품분석, 가격동향 분석	· 시장 경쟁력 분석(경쟁사, 점유율) · SWOT, 5 Forces, Value Chain 분석
	개발전략	· 기업별 역할 및 업무분담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 특허 회피전략 · 기술개발 추진일정
	사업화	· 사업화추진전략 수립	· 인력계획, 자금계획, 해외진출계획
계약보증	상호신뢰	· 협업추진 기업 간 상호협력 계약체결 및 보증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협업승인	· 중소벤처기업부 협업계획 승인	

'21년의 경우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융·복합 46건 과제에 대한 협업기업대상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제27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

일반현황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는 2002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와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2001년부터 시행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를 운영·관리하는 기관이다.

* INNOBIZ :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 기술 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3의2)

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기업) 간 상호교류 및 경영,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이노비즈 인증제도 운영, 정부 위탁사업 수행(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이노비즈기업의 국내외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본회, 경기 판교 소재)과 전국 9개(강원, 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 전북, 충북, 제주) 지역협회를 보유하여 지역 이노비즈 기업의 애로해결 및 정책지원 등 현장 밀착형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일자리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0년에는 민간 최초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전국 최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을 달성하는 등 이노비즈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3년 일자리 창출 국무총리 표창, 201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2015년 일자리 창출 대통령 표창, 2017년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 중국(헤이룽장성) 대표사무소, 2016년 한-이란(테헤란) 기술교류센터, 2017년 한-베트남(하노이) 기술교류센터, 2018년 한-인도네시아(자카르타) 기술교류센터 설립 등 해외 거점도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에도 힘을 쓰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최근 전 세계는 혁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제품부터 기획·개발·생산·서비스까지 기업 내 모든 활동이 급격히 변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부합하는 기업이 바로 ‘이노비즈기업’이다.

이노비즈기업은 2001년 약 1,000여개에 불과했지만 참여정부(‘03~’08년) 시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 정책기조 하에 본격적으로 발굴·육성되어 2022년 현재 20,600여개 규모의 거대 기업군*으로 성장했다.

전체 매출액은 293조원으로 국내 실질 GDP(1,933조원)의 약 15.2%를 차지하며 같은 해 삼성전자(237조원, 12.4%)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줬다. 또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만개 이상 총 30만 9천여 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등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 이노비즈기업 수 변화추이 : (‘01) 1,090개사 → (‘06) 7,183개사 → (‘11) 16,944개사 → (‘16) 17,708개사 → (‘17) 18,091개사 → (‘18) 18,093개사 → (‘19) 18,345개사 → (‘20) 18,920개사 → (‘21) 20,205개사 → (‘22.5) 20,630개사

** 이노비즈기업 일자리 창출(총 누적 309,694개) : (‘10) 32,009개 → (‘11) 30,744개 → (‘12) 33,898개 → (‘13) 37,367개 → (‘14) 30,264개 → (‘15) 32,638개 → (‘16) 34,259개 → (‘17) 35,660개 → (‘18) 18,607개 → (‘19) 24,248개

또한, 일반 중소제조기업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R&D투자비율에서 2~3배의 성과를 나타내고, 중소기업 수출액의 약 41%를 차지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선도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이노비즈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회는 다양한 정부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 이노비즈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1) 혁신형기업(이노비즈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혁신형기업(이노비즈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은 이노비즈기업의 발굴과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①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이노비즈기업 발굴·선정 등 관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② 이노비즈넷 운영·관리, 기술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기술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전시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의 자발적 혁신활동을 유도하여 정부사업 참여 시 혜택을 주는 ④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①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매년 직전연도 12월말 기준의 이노비즈기업 중 1,500개의 표본을 추출하고 기술혁신, 수출현황 및 애로사항과 지원정책 평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경영성과/재무 현황 등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일반 중소기업, 대기업 등과 비교를 실시하고 있다.

표 N-27-1-1 | 2021년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주요 결과

구 분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종사자	평균 수출액	수출기업 비중	평균 R&D 투자비율
결과 값 ('20.12기준)	154.8억원	7.7억원	43.9명	66.1억원	47.6%	3.45%

* 간접수출 포함, 수출액은 1억 원 이상 기업 대상으로 조사

② 이노비즈넷 운영·관리

이노비즈넷 운영·관리는 2004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이노비즈기업 선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노비즈기업 신청 및 평가, 확인서의 (재)발급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상담원 배치, 관련 유관 기관(기술보증기금,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담당자 업무 협조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80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Innobiz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header with the logo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Innobiz logo. Below the header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이노비즈란?' (What is Innobiz?), '이노비즈 인증신청' (Innobiz Certification Application), '이노비즈 기타신청' (Other Innobiz Applications), '기업마당' (Company Market), and '상담센터' (Consultation Center).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four large service tiles: '이노비즈 인증제도안내' (Innobiz Certification System Guide), '이노비즈 신규신청' (Innobiz New Application), '이노비즈 연장신청' (Innobiz Extension Application), and '확인서 재발급' (Certificate Re-issuance). Below these are sections for '기업로그인' (Company Login) and '인증기업 여부확인' (Check if certified company). A sidebar on the right contains a 'QUICK MENU' with links for '로그인', '진행현황안내', '인증기업정보', '회원사해약', '이노비즈 상담센터', '자주묻는질문', '운영규정 다운로드', '응답합시시스템', and 'TOP'.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2000년부터 기술혁신 관련 전시회와 포상을 위해 매년 정부 주도로 개최되어 왔는데, 2005년부터는 이노비즈협회 등 민간이 주도하여 진행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K-혁신기업”, 대변혁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하에 10.27(수), ‘서울무역전시장(SETEC) 제2전시장’에서 개막식을 진행하였고, ‘21.10.26(화)~21.11.30(화) 36일간, 국내 최고의 온·오프라인 전시를 개최하였다.

개막식 주요 참석자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임직원, 중소기업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코로나 19의 상황에도 온·오프라인 전시를 개최하여, 212개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였고, 온라인 동시 송출로 50,314명이 참관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2021년 포상규모는 기술혁신 등 7개 분야에 대해 훈·포장을 포함하여 190점(정부포상 48점, 기관표창 142점)이 수여되었고, ‘K-혁신기업 쇼케이스’, ‘K-혁신기업과의 대화’ 등 혁신의 지 고취 및 성과확산을 위한 각종 부대행사도 진행하였다.

그림 81 | 2021년 제22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주요 스틸 컷



④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임직원이 경영혁신 관련 교육 참가 및 활동을 통해 적절한 마일리지를 정부사업 가점(마일리지 500점 당 가점 1점)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마일리지 시스템(www.mileage.or.kr)을 운영하여 참여기업 관리, 교육기관 및 과정 등록, 가점 활용 안내 등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평가 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경영혁신 활동 및 신규 교육기관 심의 등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표 IV-27-1-2 |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운영 실적('14년~'20년)

사업연도	참여기업	적립기업	활용기업	교육기관	교육과정
2014년	163개사	0개사	0건	32개	722개
2015년(누적)	1,002개사	793개사	3건	43개	2,289개
2016년(누적)	8,084개사	5,818개사	50건	49개	3,928개
2017년(누적)	12,325개사	8,113개사	112건	52개	4,859개
2018년(누적)	18,307개사	13,368개사	181건	55개	5,755개
2019년(누적)	22,352개사	15,789개사	250건	60개	6,206개
2020년(누적)	26,551개사	18,047개사	322건	65개	6,529개
2021년(누적)	31,008개사	20,701개사	499건	68개	6,878개

2)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이용지원) 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은 전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외 우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사용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클라우드 시장 확산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본 사업은 2017년 시작으로 현재까지 721개 공급기업의 1,176개 클라우드 제품을 선정하여 7,341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기존사업 일몰)

표 N-27-1-3 |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이용지원) 사업 지원 실적('17년~'21년)

구 분	서비스 등록 실적		도입 실적		비고
	공급기업 수	클라우드 서비스 수	대상	도입실적 수	
2017년	101개社	177개 서비스	산업단지	1,200개	
2018년	105개社	203개 서비스	중소기업 (소상공인)	1,550개	
2019년	135개社	242개 서비스	중소기업 (소상공인)	1,606개	
2020년	150개社	254개 서비스	중소기업 (소상공인)	1,979개	
2021년	230개社	300개 서비스	중소기업 (소상공인)	1,006개	이용지원 사업

3)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중, 유사 제조공정/업종을 공유하는 기업들에게 적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데이터 수집”단계에 해당되는 과정으로써, 향후, AI 구현을 위한 기초 환경 수립이라고 볼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공정의 업스케일링(Upscaling)을 지원하고,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조데이터를 확보·가공하여 실질적인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2020년 이노비즈협회는 27개 컨소시엄을 통해 신규(기초) 17개(기업당 최대 1억원), 고도화 10개(기업당 최대 1.5억원)를 협약하여, 약 29.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14개사 컨소시엄을 통해 신규(기초) 7개, 고도화 7개를 협약하여 약 18.4억을 지원하였다.

4)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은 AI 기반의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제조현장의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을 연계 지원하여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으로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 제고에 목적이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2020년부터 AI 컨설팅을 운영하여 누적 200개사에 4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N-27-1-4 |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 지원 실적('20년~'21년)

구 분	시마스터 선정		수요기업 선정		공급기업 선정	비고
	AI전문가	공정전문가	모집	지원기업수		
2020년	77명	113명	146개사	100개사	88개사	
2021년	146명	154명	206개사	100개사	270개사	

5)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및 비대면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되었으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한다.

이노비즈협회는 2020년부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약 1.4만개 중소기업에 비대면 바우처를 지원하였다.

표 N-27-1-5 |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실적('20년~'21년)

구 분	서비스 등록 실적		도입 실적		비고
	공급기업 수	서비스 수	대상	도입목표 수 (전체)	
2020년	450개社	800개 서비스	중소기업 (소상공인)	80,000개	
2021년	654개社	2,401개 서비스	중소기업 (소상공인)	60,000개	

나. 이노비즈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이노비즈협회는 2016년 7월부터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장기 근속 유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청년공제는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청년에게 1,200만원(청년(300만원) + 기업(300만원) + 정부(600만원))의 만기 공제금을 지원 해주고 있다

특히, 협회는 참여기업의 편의성 증대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사업 운영 및 참여기업 관리’를 위한 전용시스템을 독자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에 참여기업이 본 시스템을 통해 사업 관련 알림 및 공지, 서류 제출 등을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스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기업별 참여단계 및 지원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총 5,867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적을 달성했으며, 본회 및 7개 지회와 함께 전체 운영기관 168개소 중 전국 최대 규모로 사업을 운영, 앞으로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표 N-27-1-6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16년~'21년)

구 분	추진 목표	추진실적								합계
		본회	지 회							
			강원	경남	대구 경북	대전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2016년	1,040명	518명	25명	240명	62명	158명	-	37명	-	1,040명
2017년	3,483명	2,230명	187명	232명	228명	240명	220명	177명	124명	3,638명
2018년	7,873명	4,377명	440명	550명	492명	770명	660명	584명	-	7,873명
2019년	3,776명	1,323명	-	410명	521명	600명	444명	544명	-	3,842명
2020년	5,755명	2,222명	405명	450명	597명	770명	697명	618명	-	5,770명
2021년	5,796명	2,190명	390명	540명	635명	831명	682명	599명	-	5,867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실시

2)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이노비즈협회는 2018년 6월부터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촉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정부·기업·청년의 3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납입해 5년 이상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3,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청년은 월 최소 12만 원 이상 6개월 납입(5년간 720만원), 기업은 월 최소 20만 원 이상 6개월 납입(5년간 1,200만원), 정부는 3년간 총 7회 1,080만원을 적립해주는 구조이다.

특히, 본 사업은 기업의 납입금 전액을 비용(일반연구·인력개발비)으로 인정하고, 공제금 수령 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등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노비즈협회는 본회를 비롯, 전국 8개 지회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및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2021년 12월 기준 총 1,417명의 실적을 달성했다.

표 IV-27-1-7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18년~'21년)

구분	추진 목표	추진실적									합계
		본회	지 회								
			강원	경남	대구 경북	대전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2018년	900명	629명	60명	-	182명	500명	119명	148명	80명	-	1,718명
2019년	1,900명	675명	43명	66명	110명	250명	110명	158명	47명	79명	1,538명
2020년	1,850명	665명	21명	337명	73명	136명	90명	124명	16명	57명	1,519명
2021년	1,480명	637명	35명	170명	77명	97명	182명	185명	19명	15명	1,417명

* 2019년도부터 경남, 부산울산지회 사업 신규 시작

3)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이노비즈협회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등 청년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단기충격 완화를 위해 IT직무 관련 청년을 신규채용 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IT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시, 최대 6개월간 인건비(월 보수 총액 200만원 이상 18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참여 가능하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이노비즈협회는 본회 및 7개 전국지회와 함께 2020년 2,493명, 2021년 3,78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표 IV-27-1-8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실적('20~'21년)

구분	추진 목표	추진실적								합계
		본회	지 회							
			강원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부산 울산	충북	전북	
2020년	3,250명	1,371명	150명	400명	170명	250명	152명	-	-	2,493명
2021년	4,383명	1,212명	289명	742명	187명	350명	306명	269명	430명	3,785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지원

4) 이노-마이스터 채용연계 사업

이노-마이스터 채용연계 사업은 체계적인 기술인력 육성 및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마이스터고 3개교(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의 우수 기술인력을 이노비즈기업과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10년 국립마이스터고 이관(교육부 → 중소벤처기업부)

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총 787명의 채용연계를 진행했으며, 우수한 고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1기~8기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NH농협은행, 이노비즈협회, 국립마이스터고 3개교의 기업육성자금 및 장학지원에 관한 다자간 협약체결(2011년 8월)을 통해 장학금도 지급되었다.

표 N-27-1-9 | 이노-마이스터 채용연계 실적(1기~9기)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합계
추진목표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70명	70명	60명	800명
추진실적	80명	85명	65명	90명	84명	86명	99명	99명	99명	787명

* 1기('13.2월졸업), 2기('14.2월졸업), 3기('15.2월졸업), 4기('16.2월졸업), 5기('17.2월졸업), 6기('18.2월졸업), 7기('19.2월졸업), 8기('20.2월졸업), 9기('21.2월졸업)

5)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 협의회

이노비즈협회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인 인력공동관리협의회로 지정받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과 우수 중소기업간 채용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인력공동관리협의회는 전문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전국 각지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력 채용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의미한다.

협회는 2013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9년째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에는 특성화고 학생 251명을 대상으로 SPEC-UP 특화교육을 통해 67명을 채용연계한 바가 있다.

또한, 이노비즈기업에 우수 기술기능 인력 채용연계를 위하여 현장 실습가능 기업 등을 발굴,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시키는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200여개 특성화고등학교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N-27-1-10 |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회의 실적('13년~'21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추진목표	100명	100명	100명	100명	80명	80명	60명	60명	65명	745명
채용연계	100명	100명	104명	94명	82명	82명	61명	44명	67명	734

6)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이노비즈협회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현장 인턴 및 취업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맞춤형 일자리 뉴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구직자 모집 → 전문교육(2개월) 실시 → 기업과 교육수료자 간 인턴 매칭 → 인턴근무(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의 순서로 채용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인턴기간 동안 인건비(최대 78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형생활임금 기준

특히, 동 사업의 경우는 기업에서 담당할 업무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직무 교육 뿐만 아니라, 조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교육 및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를 함양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입사 후 기업에 안정적인 적응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4명을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3명을 정규직 채용연계 했다.

표 N-27-1-11 |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17~'21년)

구 분	교육	인턴	취업
2017년	24명	14명	14명
2018년	51명	38명	29명
2019년	49명	22명	33명
2020년	20명	16명	13명
2021년	43명	36명	24명
합 계	187명	126명	113명

* 취업의 경우 인턴 과정 없이 정규직 채용연계도 진행

7) IT·SW 우수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이노비즈협회는 2020년 3월부터 수도권 소재 우수 강소기업 대상으로 ICT분야 직무중심의 맞춤형 채용연계를 위한 IT·SW 우수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구직자 역량제고를 위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스킬 교육을 지원하고 취업 전문 코디네이터를 운영하여 직무 중심의 1:1 맞춤형 채용연계를 추진 하였다.

이외 참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코칭/컨설팅 지원, 채용정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수도권 소재 우수 강소 기업들을 홍보하고 컨설팅하는 내용도 진행하였다

이에 2021년도의 경우 총 1,387명의 참여자 발굴, 366명의 채용연계와 309명의 MBI* 교육을 실시했으며 5개사 기업경쟁력 강화 컨설팅 완료 및 32개사의 채용 정보 영상을 제작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 MBI : Mind & Behaviour Innovation

표 N-27-1-12 | IT·SW 우수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20년)

구 분	2020년	2021년
대학별 채용플랫폼	15개	20개
참여자(구직자) 발굴	1,540명	1,387명
MBI교육	306명	309명
수요기업 발굴	607개사	708개사
채용연계	360명	366명
기업경쟁력강화*	50개사(11개사)	5개사
채용정보영상제작	60개사	32개사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연계지원

다. 이노비즈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1)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

이노비즈협회는 해외기업과의 기술 융·복합 활성화 및 기술수출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혁신 및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기술교류 기반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이노비즈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교류 국가 증가에 따라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19년부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공동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협회는 베트남, 이란, 인도네시아, 독일, 터키,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기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① 해외 기술교류단 파견 기회 제공 ② 통역, 현지 차량 등 기술수출 활동 지원 ③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전문가 진단 ④ 현지 기업과의 교류 성과 달성 가능 기업의 경우는 별도 평가를 통해 수출지원 컨설팅 등 사후지원 서비스 등이 있으며, 2020년, 2021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국내기업과 현지기업 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동 사업은 일반적인 상품무역을 지양하고, 고부가가치의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술 교류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것이 특징이다.

2016년 6월 한-이란 기술교류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2017년 베트남, 2018년 인도네시아 기술교류센터가 차례로 설립되었고, 현재 총 6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개도국을 중심으로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표 N-27-1-13 |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 실적 ('14년~'21년)

구 분	교류실적			
	기술교류단	협력기업매칭	금전계약성과	성과금액(억원)
2014년	50개사/5회	20건	1건	2.4
2015년	43개사/3회	32건	2건	25.8
2016년	101개사/8회	34건	4건	2.5
2017년	139개사/8회	133건	2건	7.9
2018년	105개사/11회	78건	6건	32
2019년	83개사/7회	91건	4건	60
2020년	146개사/11회	92건	6건	42.5
2021년	156개사/15회	83건	6건	53.2
합 계	856개사/74회	563건	31건	226.3

2) 한-러 혁신플랫폼

한-러 혁신플랫폼 사업은 한-러 정상회담('18.6)에서 '한-러 혁신 플랫폼' 협력 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2019년부터 스타트업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 협력, 창업 교류 등 혁신 분야별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창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OTRA 등 한-러 혁신플랫폼 지원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러시아 정부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조성한 스킨코보 혁신센터와 협력하여 혁신기술을 보유한 한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및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① 러 스타트업 혁신생태계 경험을 위한 스타트업 빌리지 전시회, ② 러시아 원천기술을 보유한 현지기업과 매칭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③ 현지 진출을 위한 단기보육(소프트랜딩) 참여, ④ 스타트업 간 혁신기술 소개 및 IR 피칭 등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한 스타트업 서밋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림 82 | 한-러 혁신플랫폼 우수사례

<p>◎ '19년 러시아 진출지원 5개사 중 4개사 진출 성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웨코(WECO)-(러) Optosystems, Ltd. * 스킨코보 주관 소프트랜딩(단기보육) 과정 참여 러시아 법인설립 및 스킨코보 입주 완료('20.2) *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통해 Laser 마이크로 장비 사업화 추진 	
<p>◎ '20년, 러시아 대기업 협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MOU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씨유박스(CUBOX)-(러) Lanit Integration * 칼루가주* 내 기술혁신단지에 공동R&D를 위한 JV 법인설립 합의 * Lanit 그룹은 '93년도 설립, 러시아 IT분야 선도기업 3위에 선정 	
<p>◎ '21년, 국내 참여기업 2개사 러시아 현지 법인설립 추진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아스크스토리디에스(ASKSTORYDS)-(러) OSNOVA * 러 대기업(OSNOVA)와 실증검증을 통해 '공기질 제어 시스템' 공급 추진 중 * 러 정부 주관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화 및 현지 법인설립 추진 중 	

3) 자동차부품 글로벌밸류체인(GVC) 진출지원사업

자동차부품 글로벌밸류체인 진출지원사업은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자동차 전환을 통해 글로벌밸류체인 확대 등을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친환경 미래차 부품 전환 관련 고도화 기술개발, 자동차 부품기업 해외 판로개척 및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를 위한 연계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동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21년 6월부터 자동차부품 분야 해외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참여기업 모집을 시행한 바 있으며, (주)다스, (주)대한솔루션, (주)인팩 등 연 매출 약 5천억원 기업들 포함 총 30개사를 모집하였다.

또한, 협회는 4개 권역(유럽, 아시아, 동남아, CIS)을 대상으로 국내 자동차부품 기업의 해외판로개척을 위해 ① 권역별 자동차부품 수요기업 발굴, ② 자동차부품 기관 및 관련 부처와 국내 공급기업 간 교류를 위한 세미나, ③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 ④ 양국 기업 간 교류를 통한 기술협력 유형별 제공 등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4) 수출컨소시엄 사업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 업종 위주로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타겟(Target)시장 파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협회는 해외전시회 한국공동관 구성 및 파견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미국 라스베가스 내셔널 하드웨어 전시회, 베트남 하노이 전자제조 전시회, 인도네시아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전 등 총 4개 전시회를 참가하고, 국내 중소기업 34개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표 N-27-1-14 | 해외전시회 이노비즈 공동관 지원 실적('19~'21년)

전시명	일자	장소	품목	참가규모
201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전	'19.11.20~ 11.2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플라스틱 성형기계, 플라스틱 금형 등	8개사 9개 부스
2019 베트남 하노이 전자제조 전시회	'19.08.14~ 08.16	베트남 하노이	베어링, 나사, 금속 등	9개사 10개 부스
2019 미국 라스베가스 내셔널 하드웨어 전시회	'19.05.07~ 05.09	미국 라스베가스	건축, 주택	7개사 8개 부스
2021 베트남 하노이 전자제조 전시회(비대면)	'19.09.15~ 09.17	베트남 하노이	베어링, 나사, 금속 등	10개사 10개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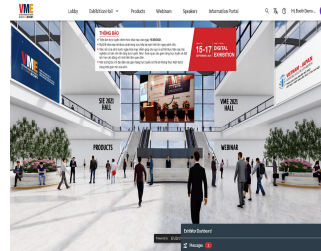
그림 83 | 해외전시회 사업 행사사진



이노비즈 홍보관



기업 부스 (오프라인)



기업 부스 (온라인)

5) 수출바우처 사업

수출바우처 사업은 각 정부 부처 수출지원 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 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도입한 사업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부처로써 바우처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바우처들은 브랜드 개발, 전시회/행사/영업지원, 조사/일반 컨설팅 등 13개 서비스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기업매칭 상담회’ 등 4건의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국내기업 18개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표 IV-27-1-15 | '17~'21년 글로벌연수사업 운영현황

연 도	사업명	바우처 분야
2017년	베트남 기업매칭 상담회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2018년	베트남 기업매칭 상담회	
2019년	베트남 기업매칭 상담회	
2020년	[코로나19대응] 인도네시아, 베트남 기업매칭 상담회	
2021년	[코로나19대응] 베트남 기업매칭 상담회	

6) 글로벌연수사업

글로벌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수인 인적 자원 개발 및 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회는 본 사업을 통해서 페루, 캄보디아, 콜롬비아, 모로코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이노비즈 인증제도, 패킹혁신기술, 콜롬비아형 정책지원제도 전수, 모로코 디지털전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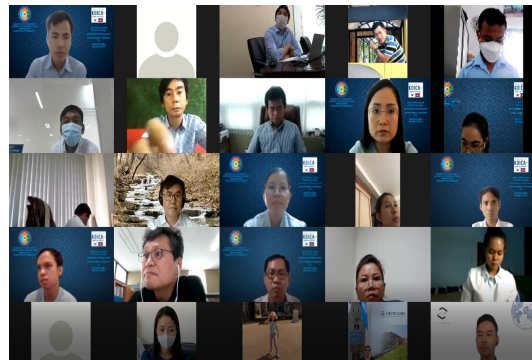
표 N-27-1-16 | 글로벌연수사업 운영현황

연수명	연수일정	연수규모	주요 수원기관	총 연수기간
페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인증제도 전수	'21.10.12~10.21	21명	페루 생산부	2019년~2021년
콜롬비아 신정부 고위공무원 대상 한국개발경험 지식공유	'21.09.01~09.10	21명	콜롬비아 국제협력청	2020년~2021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패키징기술 개발 교육	'20.11.12~11.20	15명	캄보디아 과학기술혁신부	2020년~2022년
모로코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21.09.07~09.16	21명	모로코 경제기획원	2021년~20223

그림 84 | 글로벌 연수사업



글로벌연수사업(페루)



글로벌연수사업(캄보디아)

제28장

대한상공회의소



1

일반현황

대한상공회의소는 1884년 한성상공회의소 창립 이래 우리나라 상공업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 해왔다. 전국 18만 대중소 상공인을 대변하는 국내 대표 종합경제단체로서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세계 190여 개국 상공회의소와 글로벌 연계망을 바탕으로 범세계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한상의는 국가산업 발전과 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정부 정책 제언, 경제현안 조사·연구, 국제통상 진흥 등의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공모전과 시상식 개최를 통해 기업인의 지위 향상 도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조직은 5본부 3원 1단 3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규제개선추진단' 등 정부와의 협력 사업에서 민간 대표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경영지원 활동

1) 코참경영상담센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연간 약 13,000건의 경영애로 관련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실무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영애로 관련 상담 방법은 전화, 온라인, 방문을 통해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서울시 25개구 상공회에 상주하는 전문위원을 통해 상담의뢰인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 방문하여 전문위원과 대면하여 상담할 수 있다.

〈2021년 경영상담 실적〉

인사/노무	세무/회계	창업/경영	법률/법무	무역/관세	특허	총합계
4,282	3,611	2,181	1,757	813	361	13,005

2) 계약서 검토 서비스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난해한 계약서를 전문가가 검토하고 조언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다.

서비스 분야는 크게 4개 영역으로 경영 일반, 노무, 무역, MOU 등으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 야	주 요 내 용
경영일반	구매, 공급, 납품, 용역 등 관련 계약서
근로	채용, 연봉계약 등 관련 계약서
무역	수출, 수입, 위탁판매, 판매대리, 대행 등 관련 계약서
MOU	업무협약

검토위원은 대한상의가 위촉한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중재인,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계약서를 검토 지원하고 있다.

3) 중소기업정책협의회

대한상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2018년 9월 14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정책협의회는 정부와 중소기업간의 만남을 정례화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정부-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관련 각종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휴양/여행/건강검진/자기계발/경조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

-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가입시 제출)

〈서비스 내용〉

- 복지분야 주요 서비스를 시장최저가 수준으로 이용 가능

※ 주요 입점사

여기어때/살레코리아(국내숙박), 아고다(해외호텔), 롯데시네마(영화), 민병철유포/시원스쿨/이패스 코리아(교육), 밀리의서재(도서), 선헬스케어(건강검진), 베네피아(SK임직원몰), 삼성전자/ 애플 /LG(전자제품), 온누리전통시장몰, 행복마트(직판관)

- 복지포인트 활용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 우수활용기업 인증서 발급

- 인증기준 :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 복지플랫폼에서 복지포인트 지급한 기업
- 우대내용 : 성과공유기업 자동 지정, 일자리평가 중소기업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상향 등 정부혜택 부여

〈이용 방법〉

- ① welfare.korcham.net에서 기업관리자 회원가입
- ② 회원가입 승인 후 전체 임직원 정보 등록
- ③ 임직원 아이디 자동발급 및 개별 이용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고객센터 : 1588-6555

다.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예정자, 재직근로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7개 개발원에서 실업자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1) 실업자를 위한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위탁받아 취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을 교육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실업자 대상의 기계, 전기, 전자 등 뿌리산업 분야와 스마트 팩토리,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분야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실업자 양성훈련 실적('93년~'21년)〉

(단위 : 명)

구분	계	수료인원		
		2년	1년	1년미만
인원	66,075	26,332	27,387	12,356

2)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재직근로자의 직무 능력향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협약 기업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훈련과정의 설계 및 운영지원과 고용유지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실적('93년~'21년)〉

(단위 : 명, 8H)

구 분	계	컨소시엄	사업주위탁
인 원	951,533	582,039	369,494

3) 기업 맞춤형 현장 훈련지원

산업인력 부족 등으로 근로자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과정의 설계, 사내훈련교사 역량지원, 컨설팅 및 행정지원을 실시하였다.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지원 실적('18년~'21년)〉

(단위 : 개사)

구 분	훈련 안내 및 상담	직능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현장훈련실시
참여기업	7,882	1,355	315	1,342

라. 기 타

1)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 중소기업 지원

제품 결함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3자(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제조업자가 PL보험을 가입할 경우, 손해보험사에 개별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최대 40% 저렴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PL보험 혜택 >

- 단체보험 할인적용 및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최대 40% 보험료 할인
- 손해보험사와 제휴,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 서비스 제공
- 가입업체 입장을 최대 고려한 신속한 사고처리
- 온라인 접수시스템(모바일 포함) 도입으로 편리한 보험료 안내

* 홈페이지 : <http://pl.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

< 가입대상 >

- 완성품 · 부품의 제조, 공급 및 판매업체
- 수출 · 수입업체, 명의표시 판매업체, OEM업체
-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 등

< 가입품목 >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 : 가전, 생활용품, 의료기기, 식품 등
- 서비스용역 : 승강기, 정수기, 주차시설 등 설치, 해체 및 유지보수작업

< 가입절차 >



* 참여보험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지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 문의처 >

-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Tel.02-6050-3875~8 / Fax.070-7614-3422)
- E-mail : plcenter@korcham.net
- 홈페이지 : <http://pl.korcham.net>

2)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은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전수하여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를 제고하고 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대기업 출신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500명을 선발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에 총 811개사를 지도하였다. 기업에 파견된 스마트 마이스터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운영성과 제고 및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을 수행했다

3)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 운영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는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 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한 기업이며, 지원 내용은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하고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진단 보고서 및 로드맵을 제시했다.

4)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대기업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9개사가 출연하여 299개 중소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 '22년 사업개요 : 사업규모 172억원(민간출연 99억원, 정부지원 73억원)

또한 자동차, 기계, 전자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화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총 16.7억의 정부지원을 통해 16개 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5) 규제샌드박스 지원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산업융합, ICT, 금융, 스마트시티 등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접수 센터를 통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신청받으면, 과제별 담당자가 상담, 법률검토, 서류작성 및 부처협의를 지원해 혁신 제품, 서비스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 5월 출범 이후 2년간 162건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제29장

금융감독원

1

일반현황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現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금융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유도

1)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922.2조원으로 전년 잔액 규모(836.3조원)보다 85.9조원이 증가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실적 모니터링,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 대한 연말 포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IV-29-1-1 |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19년 말	2020년 말(A)	2021년 말(B)	증감(B-A)
중소기업 자금지원	746.7	836.3	922.2	85.9
중소법인대출	408.2	450.2	499.2	49.0
개인사업자대출	338.5	386.1	423.0	36.9

2) 관계형금융

관계형금융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이 양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량정보 뿐만 아니라 비계량정보를 포함한 모든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기여신, 지분투자, 컨설팅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안정적인 자금 조달, 대출금리 측면과 기반산업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21년 말 국내은행의 관계형금융 취급 실적(잔액기준)은 12조 4,445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조 1,500억원 증가하는 등 기존의 재무정보 위주의 대출취급 관행에서 벗어나 비재무정보를 폭넓게 활용하는 새로운 대출취급 프로세스로 정착되었다. 특히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대부분 단기자금 위주로 취급되는데 비해 관계형금융은 최소 3년 이상 만기의 장기자금으로 취급되고 있고 평균대출금리

(2021년 말 2.83%)도 전체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3.11%)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원차주 중 제조업 비중이 30.6%를 차지하는 등 기반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노력

1) 금융애로 상담 등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금융애로를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조선업 구조조정,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및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지원 실적 점검 등을 통해 금융권의 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였으며, 「코로나19 금융애로 특별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해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금융애로 상담을 실시하는 등 애로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2)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

‘개인사업자대출 119’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도입된 사전적 지원제도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은행별 지원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우수은행 공시, 모범규준 제정(12월)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21년 중 동 제도를 통해 총 1조 1,733억원(16,241건)의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지원 실적이 1,592억원(1,542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하였다.

제30장

한국인터넷진흥원

1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현황

지역의 열악한 정보보호 현황을 개선하고자 지자체와 연계하여 2021년 현재 전국 10개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수준 제고를 위해 각종 인식제고 활동과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 현황 >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10개소)



2

2021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추진방향

가.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전문교육 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지역 학계·산업계와 협업을 통한 정보보호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정보보호 세미나는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별로 침해사고 위협 및 대응방안, 개인정보보호 등 매년 다양한 주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세미나를 통해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가이드 역할도 제시하고 있다.

정보보호 전문교육은 중소기업 재직자 및 정보보호 관련학과 대학생에게 무료로 지원하며, 초급과 중급수준으로 교육을 분류하여 참석인원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2021년도까지 총 10,814명의 인원에게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 분야 세분화를 통해 지원자들이 더욱 폭넓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주요 운영 실적〉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정보보호 세미나	9회	45회	90회	79회	85회	96회	93회	107회
정보보호 전문교육	-	1,210명	1,419명	952명	1,299명	1,535명	1,780명	2,619명

나.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기술서비스 지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3대 주요 기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정보보호 현장진단으로써 정보보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시스템·네트워크 등 ICT 전 분야에 대한 기본적 취약점 점검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웹 취약점 점검으로써 기업이 보유한 홈페이지에 대한 주요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호조치를 지원한다. 마지막 서비스는 민감정보 보호조치로써, 기업이 보유·관리하는 고객정보 또는 기업의 민감 정보에 대한 관리를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위 서비스 외에도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수행 중이다. 지역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의지가 있으나 예산·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인 정보보호 활동이 어려운 ICT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및 컨설팅 결과조치를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주요 운영 실적〉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정보보호 서비스	254건	1,433건	3,295건	3,665건	4,003건	4,974건	5,047건	5,260건
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100건	485건	969건	1,030건	1,119건	1,366건	1,457건	2,069건
웹취약점 점검	130건	620건	1,280건	1,553건	1,663건	1,918건	2,085건	1,579건
기업 민감정보보호 조치	24건	328건	1,046건	1,082건	1,221건	1,690건	1,505건	1,612건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	-	-	-	195건	265건	775건	1,336건

다. 2022년도 추진방향

2022년도에는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및 정보보호 관련학과 대학생 대상으로 정보보호 세미나, 컨퍼런스,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ICT중소기업 1,300개社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과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혜기업들의 피드백을 받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 발행일 | 2022년 8월

|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 발간등록번호 | 11-1421000-000002-10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우 30121)

| 문 의 |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4-204-7429)로
연락바랍니다.
